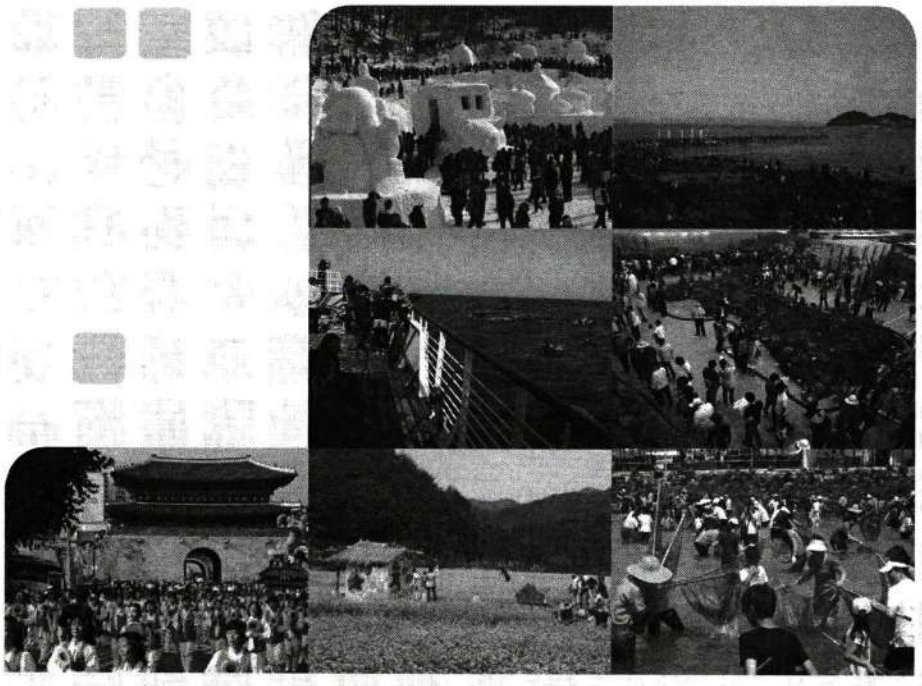
394.26

발간등록번호
11-1371000-000202-10

GOVP1201329312
394.26 -13-2

12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목 차

Ⅰ 축제와 지역 활성화

1. 지역을 바꾸는 축제 ····· 3
(1) 진주 빛, 세계를 밝히다 ····· 3
(2) 미식가들의 축제 ····· 4
(3) 재즈카페와 시골밴드 ····· 5
(4) 힐링의 땅 ····· 6
(5) 여기가 바로 용궁 ····· 7

2. 축제사진 모음 ····· 8

Ⅱ 축제 방문객 설문조사

1. 개요 ····· 19
(1) 조사방법 ····· 19
(2) 종합분석 대상축제 ····· 21

2. 방문객 만족도 ····· 22
(1) 공통평가항목 ····· 22
(2) 연도별 변화추이 ····· 23
(3) 항목별 비교 ····· 24
(4) 등급별 비교 ····· 25
(5) 개최시기 및 소재별 비교 ····· 26
(6) 축제별 비교 ····· 27

3. 방문객 소비지출 ····· 34
(1) 전제 ····· 34

(2) 연도별 비교 ····· 34
(3) 항목별 비교 ····· 35
(4) 등급별 비교 ····· 35
(5) 개최시기별 비교 ····· 36
(6) 소재별 비교 ····· 36
(7) 축제별 비교 ····· 37

4. 외지관광객 비율 ····· 39

5. 방문목적이 축제참여인 비율 ····· 40

Ⅲ 축제별 설문조사 분석

◈ 부산광역시

1. 부산 해운대모래축제 ····· 44
2. 부산 자갈치축제 ····· 45

◈ 대구광역시

3. 대구 약령시한방문화축제 ····· 46

◈ 인천광역시

4. 인천 펜타포트락페스티벌 ····· 47

◈ 광주광역시

5. 추억의 7080 충장축제 ····· 48
6. 세계김치문화축제 ····· 49

◈ 울산광역시

7. 울산 고래축제 ····· 50

◈ 경기도

8. 수원 화성문화제 ····· 51
9. 이천 쌀문화축제 ····· 52
10. 가평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 53

◈ 강원도

11. 춘천 마임축제 ····· 54
12. 태백산눈축제 ····· 55
13. 평창 효석문화제 ····· 56
14. 양양 송이축제 ····· 57
15. 화천 산천어축제 ····· 58

◈ 충청북도

16. 영동 난계국악축제 ····· 59
17. 괴산 고추축제 ····· 60

◈ 충청남도

18. 천안 흥타령축제 ····· 61
19. 강경 발효젓갈축제 ····· 62
20. 금산 인삼축제 ····· 63
21. 서천 한산모시문화제 ····· 64
22. 부여 서동연꽃축제 ····· 65

◈ 전라북도

23. 김제 지평선축제 ····· 66
24. 남원 춘향제 ····· 67
25. 무주 반딧불축제 ····· 68
26. 순창 장류축제 ····· 69

◈ 전라남도

27. 강진 청자축제 ····· 70
28. 담양 대나무축제 ····· 71
29. 함평 나비대축제 ····· 72
30. 진도 신비의 바닷길축제 ····· 73
31. 영암 왕인문화축제 ····· 74
32. 보성 다향제 · 녹차대축제 ····· 75

◈ 경상북도

33. 문경 전통찻사발축제 ····· 76

34. 영주 풍기인삼축제 ····· 77
35. 포항 국제불빛축제 ····· 78
36. 고령 대가야체험축제 ····· 79
37. 봉화 은어축제 ····· 80

◈ 경상남도

38. 진주 남강유등축제 ····· 81
39. 창원 가고파국화축제 ····· 82
40. 통영 한산대첩축제 ····· 83
41. 산청 한방약초축제 ····· 84
42. 하동 야생차문화축제 ····· 85
43. 함양 산삼축제 ····· 86

◈ 제주도

44. 제주 정월대보름들불축제 ····· 87
45. 서귀포 칠십리축제 ····· 88

Ⅳ 평가위원의 축제별 평가

◈ 부산광역시

1. 부산 해운대모래축제 ····· 91
2. 부산 자갈치축제 ····· 97

◈ 대구광역시

3. 대구 약령시한방문화축제 ····· 102

◈ 인천광역시

4. 인천 펜타포트락페스티벌 ····· 109

◈ 광주광역시

5. 추억의 7080 충장축제 ····· 114
6. 세계김치문화축제 ····· 121

◈ 울산광역시

7. 울산 고래축제 ····· 126

◈ 경기도

8. 수원 화성문화제 ····· 131
9. 이천 쌀문화축제 ····· 138
10. 가평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 147

◈ 강원도

11. 춘천 마임축제 ····· 153
12. 태백산눈축제 ····· 159
13. 평창 효석문화제 ····· 164
14. 양양 송이축제 ····· 169
15. 화천 산천어축제 ····· 176

◈ 충청북도

16. 영동 난계국악축제 ····· 185
17. 괴산 고추축제 ····· 190

◈ 충청남도

18. 천안 흥타령축제 ····· 200
19. 강경 발효젓갈축제 ····· 207
20. 금산 인삼축제 ····· 212
21. 서천 한산모시문화제 ····· 219
22. 부여 서동연꽃축제 ····· 224

◈ 전라북도

23. 김제 지평선축제 ····· 229
24. 남원 춘향제 ····· 235
25. 무주 반딧불축제 ····· 243
26. 순창 장류축제 ····· 250

◈ 전라남도

27. 강진 청자축제 ····· 256
28. 담양 대나무축제 ····· 266

29. 함평 나비대축제 ····· 272
30. 진도 신비의 바닷길축제 ····· 278
31. 영암 왕인문화축제 ····· 285
32. 보성 다향제 · 녹차대축제 ····· 291

◈ 경상북도

33. 문경 전통찻사발축제 ····· 298
34. 영주 풍기인삼축제 ····· 303
35. 포항 국제불빛축제 ····· 308
36. 고령 대가야체험축제 ····· 313
37. 봉화 은어축제 ····· 319

◈ 경상남도

38. 진주 남강유등축제 ····· 324
39. 창원 가고파국화축제 ····· 329
40. 통영 한산대첩축제 ····· 334
41. 산청 한방약초축제 ····· 339
42. 하동 야생차문화축제 ····· 350
43. 함양 산삼축제 ····· 356

◈ 제주도

44. 제주 정월대보름들불축제 ····· 361
45. 서귀포 칠십리축제 ····· 367

Welcome to Korea

2012 문화관광축제

I

축제와 지역 활성화

여 백

1 지역을 바꾸는 축제

(1) 진주 빛, 세계를 밝히다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3,800여명의 병력과 2만 여명의 왜군이 진주성에서 맞닥뜨렸다. 백척간두.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김시민장군은 현자포 등을 이용한 화공과 성 밖의 의병장들과 협공하여 왜군을 패퇴시켰다. 이것이 바로 진주대첩이며, 그 승리를 알리는 군사신호로 풍등을 하늘에 올리고 횃불과 함께 남강에 유등(流燈)을 띄워 고향의 가족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다고 한다.

이처럼 유등은 남강과 대사지(大寺池)에 둘러싸인 '물속의 성'이었던 진주성에서 성 밖의 지원군에게 보내는 군사신호로 사용되었으며 또는 성 안의 병사가 성 밖의 가족에게 안부를 적어 띄워 보내는 통신수단이기도 했다. 이후 유등놀이로 전래되어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제의 하나인 개천예술제에서 주요 민속놀이로 행해지던 것을 2002년부터 독립축제로 특화시켰다. 그것이 바로 진주남강유등축제이다.

유등축제는 우리나라 문화관광축제 중에서 유일한 야간축제로도 이름이 높다. 진주성 전투 때 의롭게 순절한 호국영령의 넋을 형형색색의 등불로 밝히다보면, 어느새 남강의 밤은 화려하고 환상적인 빛으로 수 놓여진다. 올해의 유등축제는 크게 한국의 미로 연출되는 한국등 전시, 31개국을 대표하는 상징물을 등으로 표현한 세계풍물등 전시, 진주시민과 관광객이 모두 참여하여 소망을 기원하는 소망등 달기, 학생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경연장인 창작등 전시, 3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전국 지자체상징물등 전시, 그밖에 초대형 공작등과 용등, 종교등이 관광객을 압도하며 색다른 야간축제의 감흥을 불러일으켰다.

유등축제는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넘어 세계적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우선 진주성을 행사공간으로 포함시키면서 옛날 진주성을 등(燈)으로 복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등을 보다 더 가까이에서 구경할 수 있도록 부교를 추가 설치하였고, 남강에 유람선을 띄우고 수상카페를 개설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제 머지않아 유등축제는 세계인들의 밤을 설레게 하는 빛의 축제가 될 것이다.





(2) 미식가들의 축제

송이도 임금님에게 진상되었을까? 그렇다. 송이 진상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삼국사기에 나타난다. 신라 성덕왕 3년(704년)에 진상했다는 내용과 함께 '송이는 맛이 달며 무독하고 솔 향이 짙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후 송이는 중국에도 보냈는데,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세종 원년, 명나라에 송이를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 이로 미루어볼 때, 송이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진귀한 특산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양양군은 그러한 송이생육에 최적의 자생조건을 갖추고 있다. 전체 군 면적(682㎢)의 85%가 임야일 뿐만 아니라 화강암 토질에 적송림이 잘 발달된 까닭에 송이 균환(菌環) 형성층이 두터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양양송이는 타 지역의 송이보다 1~2㎝ 큰 반면 수분함량은 적어 향과 씹히는 맛이 일품이다.

무엇보다 1997년부터 개최한 송이축제로 인해 양양송이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높아졌다. 게다가 산림청에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된 2006년 이후 양양송이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정품임을 인증하는 지리적 표시제 '띠지'를 붙여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소비자 신뢰가 현저히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양양송이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송이 및 외국산 송이에 비해 아주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양양송이는 외국인들도 좋아한다. 1998년부터 양양군 관계자들이 일본에 가서 송이축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해외마케팅에 힘쓴 결과 2005년 이후 일본 관광객을 태운 전세기가 양양공항에 내렸었고, 최근에는 동해크루즈를 이용하여 수많은 일본인들이 송이축제장을 찾고 있다. 더욱이 2012년에는 200명 이상의 홍콩관광객이 송이체험행사에 참여하면서 송이축제의 국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송이는 1970~80년대에는 수출상품으로 주로 일본에 수출되었으나, 송이축제를 개최하면서 문화가 결합된 산지직판상품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또한 송이주, 송이화장품, 송이캔디, 송이절편, 송이수, 송이장아찌 등 30가지 이상의 가공상품이 개발되어 사계절 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송이축제로 인해 표고, 느타리, 오리궁뎅이 등의 버섯류 매출까지 크게 신장하였고, 산골마을 주민들도 앞 다투어 버섯가공사업에 나서는 계기가 되었다.





(3) 재즈카페와 시골밴드

가평? 수도권 대학생들에게 MT장소로 인기를 끌었을 뿐 문화, 예술, 음악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다. 그러나 그 곳에서 2004년부터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이하 '재즈축제')이 열리고 있다. 가평이라는 지역이 재즈(jazz)와는 전혀 무관한 곳일 뿐만 아니라 재즈축제가 주민들에게 아주 생경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제부터 재즈가 어떻게 가평에 확고한 뿌리를 내리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축제사무를 총괄하는 사단법인 자라섬청소년재즈센터(이하 '재즈센터')는 가평군 주민문화센터에서 음악교육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간극을 좁히고 있다. 재즈센터는 드럼, 밴드, 플룻, 기타, 댄스 등에 대해 하루에 2개 강좌씩 7년간 교육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가평군에 20개가 넘는 밴드가 활동하게 되었으며, 그 중 가평주민밴드 경연대회 수상자들은 재즈축제에 출전하여 무대공연을 하였다. 또한 읍내 카페주점 3곳이 재즈축제 때 재즈카페로 지정되어 재즈공연을 하였으며, 일부 학생은 실용음악을 전공하는 대학생이 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재즈센터는 가평지역에 공공미술이나 공공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일례로 2009년부터 자라섬재즈벽화공모전 및 시민참여벽화제작을 통해 유휴공간이나 버려진 공간 등을 축제와 재즈라는 콘셉트로 디자인하였다. 그밖에도 읍내의 장날에 펼쳐지는 장날 콘서트, 문화적으로 소외되어있는 초등학생들과 함께 하는 서울문화체험 프로그램, 청소년을 위한 방학특강 프로그램 등의 공공서비스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한층 다가갈 수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가시적인 재즈축제의 성과는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말할 수 있다. 지난 3년간 축제의 최고 기념품으로 자리를 잡은 재즈막걸리와 재즈와인은 모두 가평군 농산물을 이용하여 직접 생산하였는데, 축제가 끝난 이후에도 판매열기가 식을 줄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재즈축제 입장객에게 5천원 상당의 가평사랑 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축제기간 내내 가평지역에서 활발한 소비지출이 발생하도록 촉매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렇듯 재즈축제와 재즈센터가 지역문화예술창달에 혼신의 힘을 쏟은 덕택에 '가평은 재즈의 고장'이라는 문화적 이미지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다. 최근 들어 재즈축제가 열릴 때마다 거의 천명에 육박하는 가평군 자원봉사자들이 앞 다투어 참여하고 있으니,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의 미래 또한 무척 밝아 보인다.





(4) 힐링의 땅

볕이 잘 들고 물이 맑으며 공기가 좋아 농작물이 잘 자라고, 사람도 살기 가장 좋은 곳을 예로부터 승지(勝地)라고 부른다. 이중환의 택리지에 조선시대의 10승지(勝地)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 중 한 곳이 바로 소백산맥 줄기에 위치하고 있는 경북 영주시이다. 승지로 이름난 영주에는 그 천혜의 조건으로 말미암아 조선의 개국공신인 정도전과 같은 걸출한 인재가 배출됨은 물론 인삼, 한우, 사과, 인견 등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특산물도 많이 생산된다.

그중에서 인삼은 바로 지금의 풍기지역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재배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풍기지역은 유기질이 풍부한 토질과 고산분지 지형, 그리고 일교차까지 인삼이 생육하기에 알맞은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541년 풍기군수로 부임한 주세붕선생은 풍기지역의 그러한 환경특성을 파악하고 그곳에서 인삼을 재배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유구한 재배역사를 지닌 풍기인삼은 그 뛰어난 품질 때문에 조선왕실에서도 풍기인삼만 진상해주기를 고집할 정도로 전국 최고의 명성을 자랑해왔다.

풍기인삼은 힐링의 대명사이다. 수년전 전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밀어 넣었던 신종플루도 풍기인삼 앞에서는 맥을 못 췄다. 인삼이 신종플루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킨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풍기인삼축제는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기도 했다.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현대인들에게 풍기인삼은 자연스레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고, 덩달아 소백산 자락의 조그만 풍기읍이 세상의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1998년 처음 인삼축제가 개최된 이후 풍기는 힐링의 땅으로 변하였다. 풍기읍을 감싸고 있는 소백산자락에는 사계절 걷기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들은 숲길을 걸으며 자연과 교감하고, 자연의 치유력을 빌어 몸소 힐링을 한다. 또한 연화봉과 비로봉에 올라 세상을 품으며 호연지기를 키운다. 하산 길에 인삼시장에 들러 풍기인삼으로 힐링여행을 마무리한다.

이제 풍기를 찾는 외국인들의 발길도 부쩍 잦아지고 있다. 풍기인삼이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외국인들이 풍기인삼축제장을 찾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굳이 900억원에 이르는 인삼축제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들먹이지 않아도 좋다. 주민들은 그저 건강한 땅, 힐링의 땅이라는 지역이미지를 더 좋아한다. 풍기는 힐링의 땅이다.





(5) 여기가 바로 용궁

아주 먼 옛날 진도 회동마을에 호랑이가 자주 출몰하였다. 주민들은 의논 끝에 호랑이를 피해 잠시 건너편 섬(모도)으로 피신하기로 했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뽕할머니는 배에 오르지 못하고 마을에 남았다. 뽕할머니는 가족들을 만나고픈 일념으로 용왕님께 빌어 바닷길을 열리게 하였으나 이내 돌아가시고 말았다. 이에 마을주민들은 매년 바닷길이 열릴 때마다 뽕할머니 제사를 지내며 그 넋을 달랬다.

원래의 축제는 바람의 신(영등신, 靈登神)에게 한 해의 풍요로운 어업과 농사를 기원하던 행사였는데, 여기에 뽕할머니 전설이 곁들여지며 지금과 같은 축제로 발전했다. 신비의 바닷길은 일년 중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극심한 때에 진도와 모도 사이 약 2.8km 구간에 40여m 폭의 길이 바닷물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지칭한다. 이는 해저에 형성된 사구(砂丘)가 해면 위로 일정시간(약 1시간) 드러나는 현상으로, 마치 바다에 길이 나타난 것처럼 보이게 된다.

1975년 주한 프랑스대사 '피에르 랑디'가 그 광경을 보고 한국판 모세의 기적이라고 감탄하며 프랑스에 소개하였고, 이후 1996년에는 일본의 대중가수 '텐도 요시미'가 신비의 바닷길을 주제로 노래를 불러 히트하면서 국제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신비의 바닷길은 헤어졌던 가족들이 만나고, 연인들이 서로의 정을 나누던 꿈결 같은 길이 되었다. 이별의 기간에 짙어가던 좌절과 그리움이 바닷길이 나타나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설렘으로 바뀐다. 애증이 교차한다. 죽음이 희망으로 바뀌기도 한다. 이렇듯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은 삶의 고달픔과 애환을 신명나는 춤과 가락으로 승화시킨다. 바닷길에서는 진도아리랑이 울려 퍼지고, 바닷가에서는 씻김굿과 다시래기가 공연된다. 한쪽에서는 용왕님께 고하는 북소리가 바닷길을 타고 흐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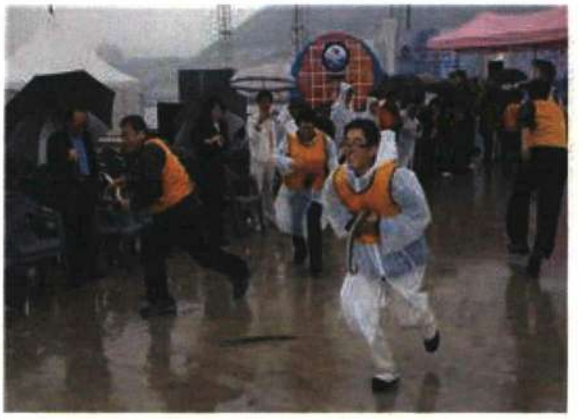
30년을 훌쩍 넘긴 진도 신비의 바닷길축제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각국의 국민들이 참여하는 지구촌 축제로 발전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신비의 바닷길에서 만나, 남도의 살가운 문화와 예술을 맛보며 축제의 설렘을 만끽한다. 그리고 뽕할머니의 일생을 판소리와 오페라로 엮은 '판페라'를 감상하고, 남도의 산해진미를 안주삼아 홍주 한잔을 걸친다. 바로 거기가 용궁이 아니고 어디겠는가?



2 축제사진모음



해운대모래축제(부산)



부산자갈치축제(부산)



대구약령시한방문화축제(대구)



인천펜타포트락페스티벌(인천)



추억의7080충장축제(광주)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광주)



울산고래축제(울산)



수원화성문화제(경기)



이천쌀문화축제(경기)



자라섬재즈페스티벌(경기)



춘천국제마임축제(강원)



태백산눈꽃축제(강원)



평창효석문화제(강원)



양양송이축제(강원)



화천산천어축제(강원)



영동난계국악축제(충북)



괴산고추축제(충북)



천안흥타령춤축제(충남)



강경발효젓갈축제(충남)



금산인삼축제(충남)



한산모시문화제(충남)



부여서동연꽃축제(충남)



김제지평선축제(전북)



남원춘향제(전북)



무주반딧불축제(전북)



순창장류축제(전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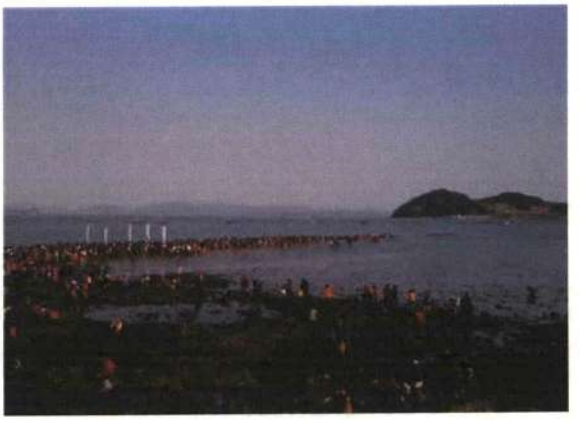
강진청자축제(전남)



담양대나무축제(전남)



함평나비축제(전남)



진도신비의바닷길 축제(전남)



영암왕인문화축제(전남)



보성다향제 · 녹차대축제(전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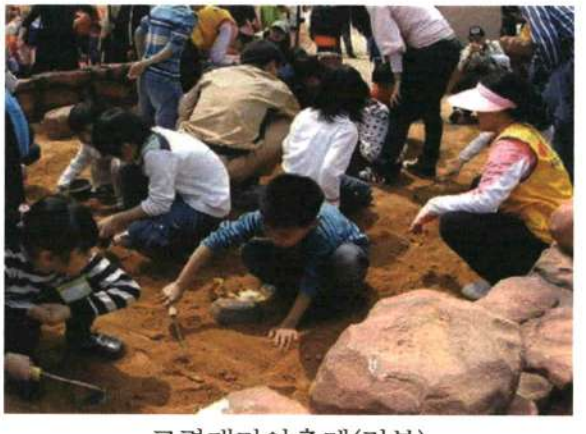
문경전통찻사발축제(경북)



풍기인삼축제(경북)



포항불빛축제(경북)



고령대가야축제(경북)



봉화은어축제(경북)



진주남강유등축제(경남)



가고파국화축제(경남)



통영한산대첩축제(경남)



산청한방약초축제(경남)



하동야생차문화축제(경남)



함양산삼축제(경남)



제주 정월대보름들불축제(제주)



서귀포칠십리축제(제주)

여 백



2012 문화관광축제

II

축제 방문객 설문조사

여 백

① 개 요

(1) 조사방법

2012 문화관광축제 방문객의 만족도와 소비지출 규모를 조사하여 해당 축제의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 축제별로 평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 및 분석하도록 하였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전체 축제기간에 지역주민과 외래관광객(타 지역거주 내국인,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조사하되 아래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30개의 공통조사 항목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만족도 18개 항목, 소비지출 6개 항목, 인구통계적 사항 6개 항목 등으로 구성되었다. 최소 200명 이상의 유효표본을 확보하여야 하며, 방문객은 '매우 그렇다'부터 '전혀 아니다'까지 7단계로 응답하도록 설문을 구성하였다.

설문조사 공통항목

1. ○○○축제가 이 지역을 방문하시게 된 주 동기입니까?
   예 아니오

2. 축제개최 기간 중 며칠이나 축제를 관람하실 계획이십니까(관람하셨습니까)?
   (일)

3. 몇 명이 함께 오셨습니까? (본인포함)
   (명)

4. (해당축제 개최지역 이름)에 며칠이나 머무실 계획이십니까?
   ① 당일 ② 1박2일 ③ 2박3일 ④ 3박4일 이상

5. 어디에서 주무실 계획입니까?
   ① 호텔 ② 여관·여인숙 ③ 콘도 ④ 친구/친지집 ⑤ 민박 ⑥ 기타(구체적으로:)

6. 귀하의 현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시(도) 구(군)

7. 다음은 본 축제행사에 대한 귀하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부분에 ○ 또는 ✓표시를 해 주십시오

설문내용 \ 만족도		전혀 아니다 ①	아니다 ②	약간 아니다 ③	보통 이다 ④	약간 그렇다 ⑤	그렇다 ⑥	매우 그렇다 ⑦
접 근 성	축제행사장까지 쉽고 편하게 찾아올 수 있었다							
홍보·안내	사전홍보를 통해 축제의 내용 및 일정을 알고 있다							
	행사장내 안내시설이 잘 되어있다							
	행사안내 팸플릿이 잘 되어있다							
	행사장내 안내요원들의 서비스에 만족한다							
행사내용	행사내용이 재미있다							
	행사내용이 다양하다							
	직접 참여하는 체험 프로그램에 만족한다							
	행사내용을 통해 이 지역의 문화를 잘 알게 되었다							
축제상품 (관광기념품)	축제관련 기념품의 종류가 다양하다							
	축제관련 기념품의 품질이 좋다							
	축제관련 기념품의 가격이 적당하다							
음 식 (먹을거리)	음식의 종류가 다양하다							
	음식의 가격이 적당하다							
주변 관광지 이용	이곳 주변의 유명한 관광지도 방문할 것이다(방문했다)							
편의시설	주차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휴식공간(벤치, 휴게실)이 잘 되어있다							
	화장실이 청결하다							

※ 축제 기간 동안 얼마 정도의 돈을 쓰실 계획인지 또는 쓰셨는지 항목별로 대답해 주십시오 (외부지역에서 온 방문객만 기재합니다)

기준인원 : (　　)명 기준

번호	소 비 항 목	소비지출액
8	현지에서 교통비 (예 : 주차비, 연료비, 대중교통비 등)	(약　　원)
9	숙박비 (현지에서 지출한 숙박비)	(약　　원)
10	식 · 음료비 (현지에서 지출한 식대 및 음료)	(약　　원)
11	유흥비 (노래방, 당구장, 술값)	(약　　원)
12	쇼핑비(축제 기념품 등)	(약　　원)
13	기타 비용 (구체적으로 :　　)	(약　　원)

(2) 종합분석 대상축제

매년 30개의 공통조사항목을 절대로 변형하지 말고 사용하도록 지침을 시달하고는 있지만 일부 축제들이 아직도 측정항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분석을 잘못하는 등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특히 축제 주최측의 의뢰를 받아 설문조사를 대행한 전문기관별로 조사 및 분석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나타나거나 혹은 다른 기관에 비해 지나치게 편향된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향후 동일 기관이 전체 문화관광축제를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 분석하지 않는 한 매년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2년의 경우 전년도까지 빈번했던 통계분석상의 오류는 크게 줄어들었다. 다만 창원에서 개최된 가고파국화축제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을 무시하고 5점 척도로 방문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함양산삼축제는 방문객 소비지출에 관한 통계자료가 잘못 표기되어 있었다. 따라서 본 종합평가보고서의 만족도부문에서는 가고파국화축제를 제외한 44개 축제를 대상으로 분석작업을 수행하였고, 소비지출부문에서는 함양산삼축제를 제외한 나머지 44개 축제를 비교분석하였다.

② 방문객 만족도

(1) 공통평가항목

방문객 만족도 측정을 위해 2002년부터 지금까지 전국의 모든 문화관광축제에 공통적으로 적용한 공통평가항목은 총 18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속성에 따라 접근성, 홍보안내, 행사내용, 축제상품, 먹을거리, 연계관광, 편의시설 등으로 묶을 수 있다. 상세한 설문내용은 아래와 같다.

설 문 조 사 내 용	약 칭	분 류
축제행사장까지 쉽고 편하게 찾아올 수 있었다	접근용이	접근성
사전홍보를 통해 축제의 내용 및 일정을 알고 있다	사전홍보	홍보안내
행사장내 안내시설이 잘 되어있다	안내시설	
행사안내 팜플렛이 잘 되어있다	안내책자	
행사장내 안내요원들의 서비스에 만족한다	요원친절	
행사내용이 재미있다	행사재미	행사내용
행사내용이 다양하다	행사다양	
직접 참여하는 체험프로그램에 만족한다	체험프로	
행사내용을 통해 이 지역의 문화를 잘 알게 되었다	문화이해	
축제 관련 기념품의 종류가 다양하다	상품다양	축제상품
축제 관련 기념품의 품질이 좋다	상품품질	
축제 관련 기념품의 가격이 적당하다	상품가격	
음식의 종류가 다양하다	음식다양	먹을거리
음식의 가격이 적당하다	음식가격	
행사장 주변의 유명한 관광지도 방문할 것이다(방문했다)	연계관광	연계관광
주차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주차편리	편의시설
휴식공간(벤치, 휴게실)이 잘 되어있다	휴식공간	
화장실이 청결하다	화 장 실	

(2) 연도별 변화추이

2012년도의 문화관광축제 평균 만족도는 전년(4.69)보다 크게 높아진 4.76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의 만족도 평균값을 구해 비교해보아도 전체적으로는 크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문화관광축제의 품질이 해를 거듭할수록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년도 / 항목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평균 '02-11	2012
전체평균	4.60	4.67	4.70	4.71	4.69	4.68	4.70	4.71	4.78	4.69	4.69	4.76
접근용이	5.52	5.51	5.44	5.44	5.32	5.36	5.35	5.25	5.42	5.26	5.39	5.26
사전홍보	4.54	4.62	4.68	4.75	4.76	4.84	4.81	4.77	4.87	4.73	4.74	4.84
안내시설	4.77	4.72	4.77	4.84	4.85	4.86	4.85	4.89	4.95	4.87	4.84	4.93
안내책자	4.96	4.88	4.93	4.95	4.93	4.95	5.00	4.98	5.07	4.99	4.96	5.00
요원친절	4.92	4.91	4.95	4.98	4.98	5.00	5.02	5.02	5.05	4.98	4.98	5.01
행사재미	4.89	5.04	5.00	4.99	4.95	4.98	4.98	4.92	5.07	4.97	4.98	5.04
행사다양	4.84	5.00	4.98	5.01	4.96	4.96	4.99	4.97	5.07	4.97	4.97	5.03
체험프로	4.74	4.85	4.83	4.94	4.87	4.87	4.89	4.92	4.95	4.83	4.87	4.93
문화이해	4.76	4.93	5.04	4.94	4.88	4.85	4.85	4.81	4.92	4.82	4.88	4.89
상품다양	4.23	4.37	4.41	4.38	4.37	4.34	4.42	4.46	4.50	4.48	4.40	4.54
상품품질	4.36	4.43	4.50	4.50	4.47	4.46	4.50	4.53	4.54	4.52	4.48	4.59
상품가격	4.16	4.24	4.31	4.30	4.27	4.25	4.31	4.37	4.36	4.35	4.29	4.41
음식다양	4.28	4.38	4.51	4.41	4.41	4.34	4.39	4.44	4.45	4.42	4.40	4.46
음식가격	4.06	4.16	4.22	4.26	4.28	4.19	4.24	4.32	4.33	4.30	4.24	4.35
연계관광	4.77	4.78	4.80	4.79	4.65	4.64	4.68	4.67	4.72	4.47	4.70	4.70
주차편리	4.39	4.23	4.21	4.31	4.33	4.30	4.28	4.30	4.40	4.25	4.30	4.42
휴식공간	4.36	4.45	4.40	4.41	4.46	4.44	4.35	4.51	4.55	4.48	4.44	4.59
화 장 실	4.45	4.59	4.70	4.64	4.66	4.62	4.64	4.67	4.73	4.57	4.63	4.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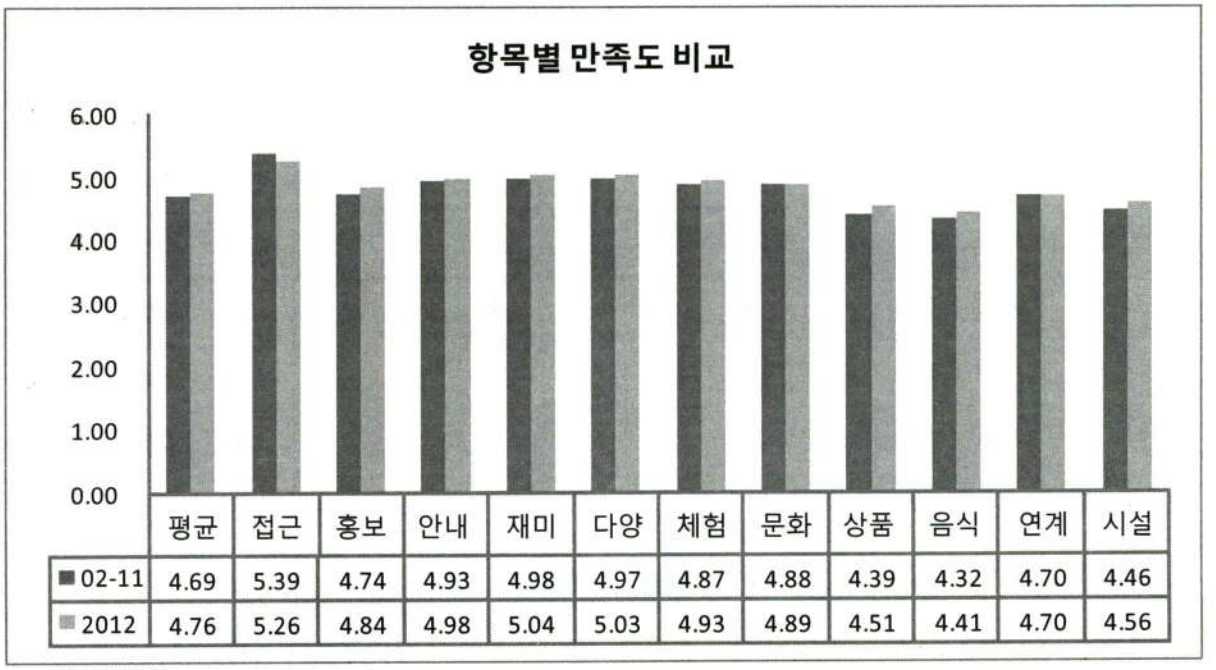
(3) 항목별 비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조사된 항목별 만족도와 비교할 때 2012년도의 평균값은 4.76로 상당히 높아졌다.

그 중에서도 축제관련 상품 및 음식, 편의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낮은 값을 보이고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획기적 개선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 항목은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접적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축제의 핵심에 해당되는 홍보, 안내, 재미, 다양성, 체험 등에 대한 만족도는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 1999년부터 전국의 문화관광축제를 평가하면서 질적인 발전을 꾀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문화관광축제 현장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70% 비중을 차지하는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 즉, 재미와 다양성, 체험 등에 대한 만족도 값이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큰 만큼 향후 이 부분을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겠다.

한편 접근성은 지난 10년 평균값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접근성은 이미 전체 만족도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그보다 연계관광 항목의 만족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이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항목이므로 적극적인 개선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평균	접근	홍보	안내	재미	다양	체험	문화	상품	음식	연계	시설
02-11	4.69	5.39	4.74	4.93	4.98	4.97	4.87	4.88	4.39	4.32	4.70	4.46
2012	4.76	5.26	4.84	4.98	5.04	5.03	4.93	4.89	4.51	4.41	4.70	4.56

(4) 등급별 비교

2012년도 문화관광축제를 대표축제(2개), 최우수축제(8개), 우수축제(12개), 유망축제(22개)로 분류하여 등급별 만족도를 비교해보았다. 4가지 등급 중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것은 대표축제였으며, 다음으로 대표축제, 유망축제, 우수축제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우수축제가 의외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전체 평균값 4.76보다 크게 낮은 4.67점을 기록하였으며 전년도(4.64)와 비교할 때 아주 조금 개선되었을 뿐이다. 앞으로 우수축제의 분발이 요구된다.

항목 \ 등급	대표축제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
평균	5.09	4.93	4.67	4.72
접근용이	5.78	5.53	5.20	5.14
사전홍보	5.23	5.00	4.78	4.79
안내시설	5.36	5.11	4.78	4.92
안내책자	5.46	5.13	4.88	4.98
요원친절	5.46	5.15	4.85	5.01
행사재미	5.31	5.23	4.92	5.01
행사다양	5.25	5.25	4.95	4.97
체험프로	5.09	5.19	4.80	4.89
문화이해	5.41	4.98	4.75	4.89
상품다양	4.69	4.73	4.50	4.48
상품품질	4.80	4.76	4.54	4.54
상품가격	4.54	4.52	4.40	4.36
음식다양	4.67	4.46	4.52	4.41
음식가격	4.49	4.40	4.37	4.31
연계관광	5.09	4.73	4.60	4.71
주차편리	4.67	4.70	4.33	4.35
휴식공간	5.05	4.84	4.42	4.55
화장실	5.32	4.95	4.39	4.63

(5) 개최시기 및 소재별 비교

방문객만족도를 개최시기별로 비교해본 결과, 하반기축제가 대체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차의 편리성과 휴식공간을 제외한 모든 측정항목에서 하반기축제가 강세를 보였다. 특히 상품과 음식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리고 축제소재에 따라 산업형과 비산업형으로 구분해 보면, 산업형 축제가 사전홍보와 재미부문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비산업형 축제를 압도하였으며, 특히 상품과 음식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반면 비산업형 축제의 경우 축제의 재미만큼은 산업형 축제를 압도하였으나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서는 개선의 여지를 보여주었다.

	개최시기		축제소재	
	상반기	하반기	산업형	비산업형
평균	4.73	4.79	4.82	4.71
접근용이	5.23	5.27	5.28	5.24
사전홍보	4.83	4.86	4.84	4.85
안내시설	4.91	4.96	4.98	4.89
안내책자	5.00	5.01	5.04	4.98
요원친절	4.98	5.04	5.07	4.97
행사재미	5.01	5.06	5.00	5.06
행사다양	5.00	5.05	5.04	5.02
체험프로	4.92	4.94	5.00	4.87
문화이해	4.88	4.90	4.99	4.81
상품다양	4.50	4.57	4.67	4.43
상품품질	4.53	4.64	4.74	4.47
상품가격	4.35	4.46	4.51	4.33
음식다양	4.30	4.58	4.56	4.38
음식가격	4.23	4.44	4.49	4.24
연계관광	4.66	4.73	4.77	4.65
주차편리	4.47	4.39	4.46	4.39
휴식공간	4.61	4.57	4.62	4.57
화장실	4.67	4.65	4.72	4.61

(6) 축제별 비교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축제별 방문객 만족도 자료는 각 축제별 주최측이 제출한 자체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을 종합한 것으로써, 축제마다 서로 다른 평가기관이 다소 다른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축제간 우열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각 축제의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데에 어느 정도 참고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① 만족도 항목별 우수축제

항 목	평 균	1위		2위		3위	
접근용이	5.26	진주유등	6.01	가평재즈	6.01	금산인삼	5.97
사전홍보	4.84	가평재즈	5.60	제주들불	5.51	함양산삼	5.42
안내시설	4.93	가평재즈	5.51	진주유등	5.44	금산인삼	5.43
안내책자	5.00	서천모시	5.69	가평재즈	5.64	진주유등	5.63
요원친절	5.01	서천모시	5.63	금산인삼	5.61	가평재즈	5.58
행사재미	5.04	서천모시	5.88	가평재즈	5.70	진주유등	5.69
행사다양	5.03	서천모시	5.92	금산인삼	5.59	진주유등	5.51
체험프로	4.93	서천모시	5.90	금산인삼	5.62	이천쌀문화	5.42
문화이해	4.89	서천모시	5.92	진주유등	5.58	금산인삼	5.39
상품다양	4.54	금산인삼	5.29	영동국악	5.18	담양대나무	5.09
상품품질	4.59	금산인삼	5.45	영동국악	5.27	통영한산	5.22
상품가격	4.41	영동국악	5.16	금산인삼	5.12	담양대나무	4.92
음식다양	4.46	통영한산	5.03	제주칠십리	4.91	금산인삼	4.86
음식가격	4.35	하동야생차	5.19	통영한산	5.04	광주김치	4.90
연계관광	4.70	통영한산	5.45	함양산삼	5.26	하동야생차	5.23
주차편리	4.42	하동야생차	5.22	평창효석	5.22	함평나비	5.19
휴식공간	4.59	함평나비	5.64	하동야생차	5.34	평창효석	5.34
화 장 실	4.66	함평나비	5.89	강진청자	5.36	금산인삼	5.32

② 전체 축제 비교 ①

	전체 평균	가평 재즈	강경 젓갈	강진 청자	고령 대가야	광주 7080	광주 김치	괴산 고추
접근용이	5.26	6.01	5.08	5.54	5.45	5.06	5.19	5.18
사전홍보	4.84	5.60	4.28	5.11	5.11	4.52	4.59	5.08
안내시설	4.93	5.51	4.65	5.27	5.30	4.74	5.13	4.90
안내책자	5.00	5.64	4.57	5.29	5.40	4.72	5.17	4.98
요원친절	5.01	5.58	4.91	5.40	5.45	4.62	5.19	4.82
행사재미	5.04	5.70	4.71	4.92	5.23	5.06	5.12	4.77
행사다양	5.03	5.47	4.78	4.98	5.23	5.06	5.06	4.89
체험프로	4.93	5.00	4.71	4.99	5.24	4.75	5.02	4.73
문화이해	4.89	4.69	4.75	5.23	5.24	4.62	5.13	4.83
상품다양	4.54	4.52	4.17	4.83	4.81	4.55	4.59	4.56
상품품질	4.59	4.58	4.28	5.03	4.79	4.47	4.77	4.64
상품가격	4.41	4.38	4.21	4.62	4.54	4.46	4.69	4.49
음식다양	4.46	4.83	4.50	4.66	4.54	4.42	4.84	4.40
음식가격	4.35	4.51	4.04	4.60	4.45	4.18	4.90	4.42
연계관광	4.70	4.60	4.35	5.13	4.61	4.19	4.64	4.72
주차편리	4.42	4.43	4.79	5.02	4.73	3.86	4.63	4.48
휴식공간	4.59	4.55	4.80	4.97	4.73	4.17	5.13	4.54
화 장 실	4.66	4.49	4.26	5.36	5.11	4.03	4.93	4.49

▷ 전체축제 비교 ②

	전체 평균	금산 인삼	김제 지평선	남원 춘향제	담양 대나무	대구 약령시	무주 반딧불	문경 찻사발
접근용이	5.26	5.97	5.17	4.79	5.28	5.21	5.39	5.54
사전홍보	4.84	5.11	5.20	4.43	5.21	4.54	4.97	4.45
안내시설	4.93	5.43	4.99	4.56	5.22	4.63	4.92	4.92
안내책자	5.00	5.43	5.01	4.61	5.08	4.85	5.09	4.99
요원친절	5.01	5.61	5.21	4.54	4.75	5.00	5.21	5.03
행사재미	5.04	5.65	5.21	4.64	5.01	4.76	5.09	4.90
행사다양	5.03	5.59	5.35	4.58	5.10	4.77	5.12	4.94
체험프로	4.93	5.62	5.32	4.48	5.17	4.76	4.90	4.92
문화이해	4.89	5.39	5.10	4.48	5.09	4.71	5.01	4.90
상품다양	4.54	5.29	4.75	4.37	5.13	4.83	4.66	4.60
상품품질	4.59	5.45	4.78	4.36	5.07	4.51	4.67	4.68
상품가격	4.41	5.12	4.71	4.20	4.92	4.25	4.54	4.40
음식다양	4.46	4.86	4.83	4.26	4.77	4.26	4.84	4.26
음식가격	4.35	4.70	4.60	4.14	4.80	4.32	4.51	4.21
연계관광	4.70	4.73	4.96	4.37	4.84	4.64	5.10	4.71
주차편리	4.42	4.76	4.29	4.09	4.71	4.18	4.97	4.51
휴식공간	4.59	4.96	4.69	4.35	4.78	4.38	4.78	4.30
화 장 실	4.66	5.32	4.84	4.28	4.50	4.47	4.80	4.33

▷ 전체축제 비교 ③

	전체 평균	보성 다향제	봉화 은어	부산 자갈치	부여 연꽃	산청 한방	서천 모시	수원 화성
접근용이	5.26	4.75	5.76	5.01	4.89	4.81	5.71	5.20
사전홍보	4.84	4.53	4.93	4.63	4.23	4.68	5.19	4.60
안내시설	4.93	4.88	5.05	4.58	4.66	4.92	5.28	4.50
안내책자	5.00	4.95	5.05	4.66	4.60	4.91	5.69	4.70
요원친절	5.01	4.91	4.96	4.69	4.78	5.00	5.63	4.60
행사재미	5.04	4.85	5.13	4.34	4.47	4.77	5.88	4.70
행사다양	5.03	4.88	4.95	4.43	4.65	5.00	5.92	4.70
체험프로	4.93	4.95	5.12	4.31	4.63	4.71	5.90	4.50
문화이해	4.89	4.97	4.76	4.56	4.77	4.90	5.92	4.80
상품다양	4.54	4.76	4.28	4.22	4.41	4.74	4.92	4.10
상품품질	4.59	4.77	4.29	4.23	4.37	4.69	5.16	4.10
상품가격	4.41	4.63	4.01	4.20	4.14	4.47	4.43	3.90
음식다양	4.46	4.40	4.04	4.68	4.23	4.60	4.53	4.30
음식가격	4.35	4.29	3.89	4.62	4.39	4.32	4.38	4.20
연계관광	4.70	4.81	4.41	4.61	4.98	4.49	5.15	4.70
주차편리	4.42	4.78	3.97	3.87	4.91	4.53	3.64	3.70
휴식공간	4.59	4.81	4.26	4.04	4.79	4.48	4.35	4.00
화 장 실	4.66	4.71	4.42	3.95	4.90	5.08	4.93	4.40

▷ 전체축제 비교 ④

	전체 평균	순창 장류	양양 송이	영동 국악	영암 왕인	울산 고래	이천 쌀문화	인천 펜타포트
접근용이	5.26	4.92	5.46	5.30	4.77	5.62	5.35	4.77
사전홍보	4.84	4.51	4.95	5.22	4.68	4.82	4.88	5.00
안내시설	4.93	4.81	4.98	4.75	4.70	4.98	5.01	4.77
안내책자	5.00	4.84	5.02	4.98	4.74	5.09	5.14	5.03
요원친절	5.01	4.81	5.10	4.88	4.72	5.02	5.06	5.13
행사재미	5.04	4.52	5.08	5.03	4.76	5.19	5.27	5.26
행사다양	5.03	4.64	5.01	5.15	4.82	5.24	5.41	5.02
체험프로	4.93	4.33	5.12	5.19	4.93	5.00	5.42	4.65
문화이해	4.89	4.73	5.01	5.31	4.89	4.83	4.95	3.93
상품다양	4.54	4.45	4.96	5.18	4.34	4.43	4.64	3.71
상품품질	4.59	4.55	4.93	5.27	4.30	4.42	4.83	3.84
상품가격	4.41	4.42	4.62	5.16	4.24	4.24	4.45	3.77
음식다양	4.46	4.47	4.63	4.85	3.99	4.40	4.74	4.04
음식가격	4.35	4.37	4.68	4.71	3.86	4.32	4.55	3.91
연계관광	4.70	4.17	5.12	4.96	4.29	4.78	4.52	3.86
주차편리	4.42	4.27	4.82	5.17	4.54	4.49	3.96	4.42
휴식공간	4.59	4.51	4.63	5.07	4.41	4.58	4.19	4.19
화 장 실	4.66	4.60	4.79	4.97	4.21	4.43	4.32	4.18

▷ 전체축제 비교 ⑤

	전체 평균	제주 들불	제주 칠십리	진도 바닷길	진주 유등	천안 흥타령	춘천 마임	태백 산눈	통영 한산
접근용이	5.26	5.63	4.89	4.45	6.01	5.30	5.46	4.56	5.18
사전홍보	4.84	5.51	4.69	4.24	5.34	4.89	4.80	4.65	5.03
안내시설	4.93	5.31	4.93	4.35	5.44	5.07	4.38	4.53	5.40
안내책자	5.00	5.31	4.88	4.56	5.63	5.13	4.69	4.59	5.18
요원친절	5.01	5.02	5.04	4.30	5.51	5.06	4.89	4.95	5.45
행사재미	5.04	5.09	5.15	4.33	5.69	5.04	5.19	4.53	5.40
행사다양	5.03	4.54	5.11	4.30	5.51	5.18	5.24	4.42	5.34
체험프로	4.93	4.61	5.17	4.34	5.18	5.00	4.66	4.44	5.29
문화이해	4.89	5.16	5.02	4.58	5.58	4.79	4.18	4.31	5.23
상품다양	4.54	4.29	4.98	4.15	4.55	4.75	3.87	3.79	4.81
상품품질	4.59	4.57	4.94	4.30	4.56	4.61	3.96	3.82	5.22
상품가격	4.41	4.56	4.79	4.09	4.45	4.33	4.04	3.79	4.80
음식다양	4.46	4.39	4.91	4.05	4.67	4.76	3.70	3.96	5.03
음식가격	4.35	4.17	4.72	4.07	4.38	4.26	4.00	3.72	5.04
연계관광	4.70	5.13	4.97	4.10	5.04	4.61	4.69	4.46	5.45
주차편리	4.42	4.40	4.45	4.38	4.31	4.33	4.06	4.26	3.56
휴식공간	4.59	4.83	4.64	4.08	5.12	4.53	4.27	4.35	4.24
화 장 실	4.66	5.13	4.72	4.23	5.27	4.70	4.06	4.36	4.46

▷ 전체축제 비교 ⑥

	전체 평균	평창 효석	포항 불빛	풍기 인삼	하동 야생차	함양 산삼	함평 나비	해운대 모래	화천 산천어
접근용이	5.26	5.19	4.95	5.23	5.09	5.26	5.96	5.19	5.75
사전홍보	4.84	4.60	4.49	4.53	4.91	5.42	5.13	4.52	5.33
안내시설	4.93	4.85	4.38	4.71	4.94	5.37	5.37	4.87	5.18
안내책자	5.00	5.02	4.41	4.82	5.07	5.26	5.34	5.00	5.07
요원친절	5.01	4.78	4.59	4.82	4.98	5.43	5.25	4.96	4.95
행사재미	5.04	5.40	5.03	4.67	5.40	5.07	5.35	5.03	5.18
행사다양	5.03	5.31	4.90	4.78	5.31	5.02	5.49	4.98	5.16
체험프로	4.93	5.12	4.55	4.61	5.12	5.17	5.24	4.86	5.18
문화이해	4.89	4.81	4.56	4.81	4.81	5.15	5.02	4.82	4.82
상품다양	4.54	4.55	4.23	4.53	4.51	4.68	4.86	4.36	4.14
상품품질	4.59	4.74	4.13	4.51	4.74	4.83	4.93	4.41	3.96
상품가격	4.41	4.77	4.08	4.18	4.76	4.65	4.37	4.29	3.87
음식다양	4.46	4.70	4.13	4.57	4.55	4.53	4.03	4.41	3.75
음식가격	4.35	4.65	3.87	4.34	5.19	4.51	3.88	4.13	3.66
연계관광	4.70	5.09	4.41	4.84	5.23	5.26	4.17	4.65	4.31
주차편리	4.42	5.22	3.62	3.72	5.22	5.12	5.19	3.70	4.46
휴식공간	4.59	5.34	3.80	4.01	5.34	5.15	5.64	4.55	4.62
화 장 실	4.66	5.07	3.74	4.73	5.07	5.20	5.89	4.42	4.67

③ 방문객 소비지출

(1) 전제

예년과 마찬가지로 개별 축제측에서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여전히 교통비 항목에서 오류가 발견되었다. 원칙적으로 방문객들이 설문조사에 응답할 때 교통비 항목은 축제를 개최하는 해당 시군에서 지출한 비용만을 기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응답자가 자신의 총교통비용(거주지→경유지→축제장)을 기재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통비항목은 소비지출 비교평가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2) 연도별 비교

2012년도 문화관광축제를 찾은 방문객의 소비지출 금액은 1인당 56,721원으로써 최근 3년 평균값에 비해 12% 증가하였다. 그 중에서도 유흥비와 숙박비 그리고 기타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축제장내 체류시간이 증가하면서 소비지출이 활발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으로 풀이된다. 여기서 기타 비용의 증가는 최근 축제장의 유료화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단위 : 원)

연 도	숙박비	식음료	유흥비	쇼핑비	기 타	합 계
2001년	5,904	13,055	4,818	12,782	4,485	41,044
2002년	8,093	13,454	4,411	10,917	3,045	39,920
2003년	7,131	12,851	4,414	13,038	2,133	39,567
2004년	7,514	15,267	4,603	15,151	2,644	45,179
2005년	8,167	14,267	5,247	14,318	4,053	46,052
2006년	9,542	15,382	5,056	14,886	4,108	48,974
2007년	8,521	16,761	5,605	17,317	4,708	52,912
2008년	7,707	15,128	5,150	14,876	5,393	48,254
2009년	7,944	16,902	4,695	14,974	5,601	50,116
2010년	8,712	16,163	4,777	14,846	4,112	48,610
2011년	10,287	17,502	5,488	14,970	4,570	52,817
최근3년 평균 ('09~11)	8,981	16,856	4,987	14,930	4,761	50,514
2012년	11,334	17,758	6,742	15,614	5,273	56,721
최근3년 대비	126%	105%	135%	105%	111%	112%

(3) 항목별 비교

2012년도 축제방문객의 소비지출을 항목별로 구분해보면 예년과 마찬가지로 식음료비가 31.3%로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쇼핑비가 27.5%를 기록하였다. 비록 숙박비는 20.0%에 불과하지만 전년도(19.5%)에 비해 0.5% 증가하였다. 기타 비용 역시 9.3%를 기록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축제장에서의 체류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비지출 행위도 고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숙박비	식음료	유흥비	쇼핑비	기타	합계
금액(원)	11,334	17,758	6,742	15,614	5,273	56,721
구성비(%)	20.0	31.3	11.9	27.5	9.3	100.0

(4) 등급별 비교

2012년도 문화관광축제 방문객의 1인당 평균 소비지출을 축제등급별로 비교해보면 대표축제가 78,737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최우수, 우수, 유망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항목별 금액을 비교해 보면 대표축제가 식음료와 기타 비용에서 제일 많았고, 최우수축제는 쇼핑비에서 높은 값을 보였다. 그리고 유망축제는 숙박비와 유흥비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거꾸로 말하면 대표축제와 최우수축제는 체류형 축제를 만드는 것에 힘을 써야 하겠고, 유망축제는 방문객들이 사갈만한 쇼핑상품을 개발하는 일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단위 : 원)

	숙박비	식음료	유흥비	쇼핑비	기타	합계
대 표	11,661	25,010	6,887	25,158	10,022	78,737
최우수	9,156	19,851	4,160	28,790	4,058	66,013
우 수	9,728	17,823	6,496	15,595	4,389	54,032
유 망	12,973	16,302	7,802	9,965	5,765	52,807

(5) 개최시기별 비교

2012년도 문화관광축제를 그 개최시기별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비교분석한 결과 하반기축제 방문객의 소비지출이 상반기축제보다 27%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상반기축제가 하반기축제에 비해 숙박비에서 약간 높은 값을 보였으나 나머지 항목에서는 하반기 축제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특히 쇼핑비의 경우 하반기 축제가 상반기축제에 비해 2배 가까운 높은 값을 보였는데, 이는 대다수 문화관광축제가 농어촌 지역에서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계절적 특성상 상반기에는 판매 가능한 농산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빚어진 현상으로 보였다.

(단위 : 원)

항목	숙박비	식음료	유흥비	쇼핑비	기타	합계
상반기	11,409	16,642	5,885	10,003	5,218	49,157
하반기	11,278	18,606	7,393	19,878	5,314	62,470
하/상	98.9%	111.8%	125.6%	198.7%	101.8%	127.1%

(6) 소재별 비교

2012년도 문화관광축제를 핵심소재에 따라 산업형 축제와 비산업형 축제로 구분하여 각각의 소비지출 구조를 비교해 보면, 비산업형 축제의 소비지출 규모가 산업형 축제의 81.2%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11.5% 증가한 값이다. 비록 상반기축제가 하반기축제에 비해 11% 정도 높게 나왔지만, 쇼핑비는 ⅓에 불과한 낮은 값을 기록하였다. 결과적으로 비산업형 축제가 이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축제관련 상품을 개발하는데 힘을 써야 하겠다.

(단위 : 원)

항목	숙박비	식음료	유흥비	쇼핑비	기타	합계
비산업	11,587	17,986	7,800	8,582	5,622	51,577
산업형	11,002	17,459	5,350	24,866	4,813	63,490
비산/산업	105.3	103.0	145.8	34.5	116.8	81.2

(7) 축제별 비교

2012년에 열린 문화관광축제 중에서 방문객 소비지출이 가장 많은 축제는 양양 송이축제의 179,872원으로써 7년 연속 수위를 차지하였다. 비록 전년도에 비해 금액은 다소 줄었지만, 이는 송이풍작에 따른 가격인하에 기인한 것이다. 다음으로 광주김치축제와 산청 한방약초축제가 뒤를 이었다.

반면 소비지출이 가장 적은 축제는 고령대가야체험축제로써 방문객 1인당 18,845원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대구 약령시축제와 순창 장류축제가 그 뒤를 이었다. 약령시축제와 장류축제는 산업형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지출이 매우 낮았는바 방문객의 구매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단위 : 원)

축 제 명	숙박비	식음료	유흥비	쇼핑비	기타	합계
가평재즈	17,157	22,833	23,930	4,554	796	69,270
강경젓갈	5,137	15,019	3,473	18,835	1,230	43,694
강진청자	10,560	20,410	4,910	34,130	12,770	82,780
고령대가야	2,097	4,547	5,348	4,830	2,023	18,845
광주7080	3,574	13,308	5,673	24,089	21	46,665
광주김치	39,890	19,673	22,335	21,268	31,847	135,013
괴산고추	1,788	3,847	1,435	24,384	2,415	33,869
금산인삼	2,738	21,994	2,066	59,939	1,705	88,442
김제지평선	8,662	16,234	350	3,668	60	28,974
남원춘향제	11,171	13,060	10,595	5,855	2,819	43,500
담양대나무	7,780	21,990	890	9,620	3,210	43,490
대구약령시	7,455	3,338	6,233	4,398	491	21,915
무주반딧불	16,240	21,740	7,440	5,050	6,120	56,590
문경찻사발	8,685	14,057	3,703	10,150	4,142	40,737
보성다향제	10,200	22,120	2,190	11,930	1,720	48,160
봉화은어	7,660	16,360	3,579	4,422	5,005	37,026
부산자갈치	10,152	22,574	6,530	16,524	11,395	67,175
부여연꽃	4,034	13,080	1,463	4,250	1,819	24,646
산청한방	35,900	20,992	25,000	27,242	6,020	115,154

→ 앞에서 계속

(단위 : 원)

축 제 명	숙박비	식음료	유흥비	쇼핑비	기타	합계
서천모시	6,420	13,140	2,219	10,375	850	33,004
수원화성문화	30,832	15,281	21,996	13,969	19,752	101,830
순창장류	1,379	17,224	818	4,869	30	24,320
양양송이	22,208	36,704	6,197	111,715	3,048	179,872
영동국악	4,600	11,400	3,600	10,400	1,850	31,850
영암왕인	7,630	17,650	1,030	12,220	1,530	40,060
울산고래	11,804	15,943	3,543	5,794	1,216	38,300
이천쌀문화	3,427	16,112	3,509	21,745	839	45,632
인천펜타포트	6,997	25,616	21,681	5,081	18,157	77,532
제주들불	15,870	13,908	4,711	8,364	13,230	56,083
제주칠십리	15,963	14,422	12,762	9,681	553	53,381
진도바닷길	17,630	19,810	3,610	15,100	8,480	64,630
진주남강유등	12,762	29,609	8,863	16,186	7,274	74,694
창원가고파	11,890	18,155	7,668	9,596	3,186	50,495
천안흥타령	3,530	9,880	4,310	6,135	1,190	25,045
춘천마임	13,372	21,731	6,177	5,019	15,662	61,961
태백산눈	11,871	18,586	3,631	6,746	5,993	46,827
통영한산	21,970	29,221	11,368	9,074	2,933	74,566
평창효석	11,633	17,774	1,650	9,984	2,983	44,024
포항불빛	16,899	24,118	2,134	2,110	1,753	47,014
풍기인삼	6,500	14,300	2,530	50,350	250	73,930
하동야생차	12,493	15,625	3,681	26,892	4,424	63,115
함평나비	4,160	23,185	1,560	9,897	16,352	55,154
해운대모래	5,227	13,657	8,842	8,643	3,326	39,695
화천산천어	10,768	21,125	11,410	1,924	1,540	46,767

④ 외지관광객 비율

2012년에 개최된 문화관광축제 중에서 외지관광객 비율이 가장 높은 축제는 태백산눈축제로써 99.0%를 기록하였다. 그 다음으로 담양대나무축제, 화천산천어축제, 진도신비의바닷길축제 등이 뒤를 이었는바, 전체의 27%가 넘는 축제에서 외지관광객비율이 90%를 넘어섰다.

반면 육지로부터의 접근성이 제한적인 제주도를 비롯하여 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축제들의 외지관광객점유율은 낮았다. 결국 상주인구가 적은 농산어촌 지역일수록 외지인의 점유율이 높고, 거꾸로 상주인구가 많은 대도시일수록 외지인 점유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다만 외지관광객 비율이 13.8%로 가장 낮은 값을 보인 김제지평선축제의 경우 역대자료와 현장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한 결과 표본추출에서의 통계오류로 보였다.

축 제 명	비율(%)	축 제 명	비율(%)	축 제 명	비율(%)
태백산눈	99.0	양양송이	87.7	강경젓갈	58.9
담양대나무	98.9	금산인삼	87.2	포항불빛	58.0
화천산천어	98.8	함양산삼	86.6	춘천마임	57.6
진도바닷길	98.7	부여연꽃	86.3	광주김치	50.0
영암왕인	98.4	남원춘향제	84.8	인천펜타포트	48.5
평창효석	98.3	무주반딧불	83.8	천안흥타령	42.0
강진청자	97.9	하동야생차	80.8	해운대모래	39.2
보성다향제	97.0	진주남강유등	78.8	고령대가야	38.7
순창장류	96.0	산청한방	78.0	부산자갈치	35.8
함평나비	95.5	서천모시	77.5	제주칠십리	34.9
봉화은어	92.6	영동국악	76.1	대구약령시	30.4
이천쌀문화	90.8	울산고래	73.9	광주7080	28.8
가평재즈	88.5	통영한산	70.0	제주들불	28.0
문경찻사발	88.4	풍기인삼	69.2	김제지평선	13.8
괴산고추	87.9	수원화성문화	60.0		

5 방문목적이 축제참여인 비율

2012년도 문화관광축제에서 '축제참여'만을 목적으로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 비율이 가장 높은 축제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진주 남강유등축제(98.5%)로 나타났다. 그리고 금산 인삼축제(97.8%)와 울산 고래축제(95.5%) 등 모두 8개 축제가 90% 이상의 높은 값을 보였다. 반면 천안 흥타령축제(21.2%)와 통영 한산대첩축제(39.9%)는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그 곳을 찾은 방문객들이 다른 볼일로 축제장 주변을 스쳐지나가다가 잠시 들렀기에 빚어진 현상으로 해석된다. 상대적으로 축제목적의 방문비율이 저조한 축제는 홍보에 신경을 써야하겠다.

축 제 명	비율(%)	축 제 명	비율(%)	축 제 명	비율(%)
진주남강유등	98.5	태백산눈	83.7	부산자갈치	69.5
금산인삼	97.8	무주반딧불	83.5	강진청자	68.7
울산고래	95.5	영동국악	82.5	김제지평선	68.4
인천펜타포트	94.4	봉화은어	81.2	포항불빛	67.8
풍기인삼	94.0	수원화성문화	80.5	괴산고추	67.3
가평재즈	93.8	광주7080	80.4	문경찻사발	65.2
양양송이	93.1	함양산삼	78.5	영암왕인	63.9
서천모시	92.0	부여연꽃	78.5	대구약령시	57.3
하동야생차	87.9	순창장류	78.0	남원춘향제	56.9
강경젓갈	87.6	산청한방	76.8	제주칠십리	56.0
화천산천어	87.2	고령대가야	76.0	광주김치	55.5
진도바닷길	87.2	이천쌀문화	74.6	춘천마임	51.6
보성다향제	87.1	담양대나무	71.8	통영한산	39.9
함평나비	87.0	해운대모래	71.7	천안흥타령	21.2
평창효석	85.4	제주들불	70.3		

Welcome to Korea

2012 문화관광축제

Ⅲ 축제별 설문조사 분석

여 백

개 요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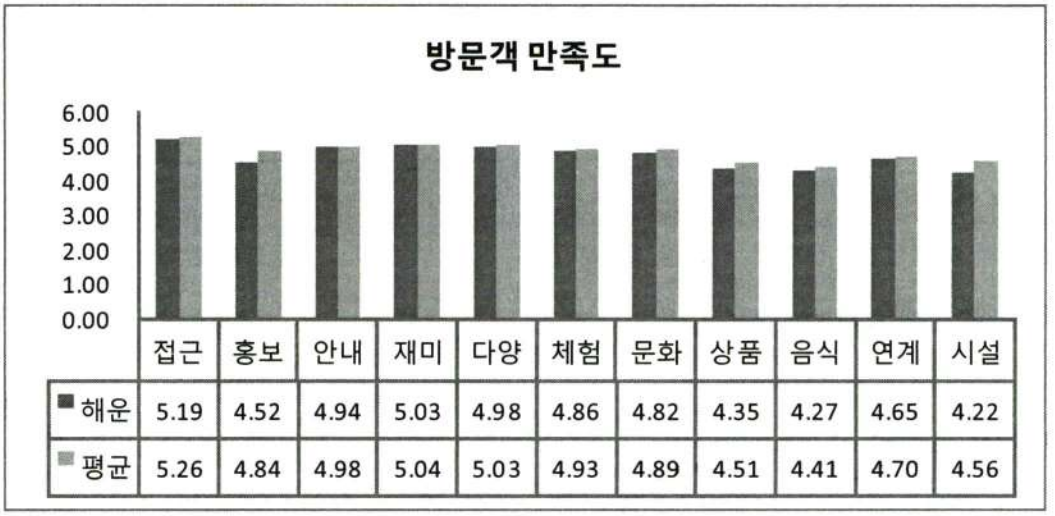
문화관광축제를 찾는 방문객들은 축제참여를 통해 즐거움과 재미라는 만족감을 얻는 반면 그 반대급부로써 소비지출 행위를 하게 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축제방문객들의 만족도와 소비지출을 중심으로 전체 평균값과 대비시켜 각 축제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해 보기로 한다.

한편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원래 총 18개 항목으로 구성된 방문객 만족도 설문조사항목 중에서 유사한 내용을 묶어 다음과 같이 11개 항목으로 단순화시켜 비교한다.

설 문 조 사 내 용	약 칭	통 합
축제행사장까지 쉽고 편하게 찾아올 수 있었다	접근용이	접근
사전홍보를 통해 축제의 내용 및 일정을 알고 있다	사전홍보	홍보
행사장내 안내시설이 잘 되어있다	안내시설	안내
행사안내 팜플렛이 잘 되어있다	안내책자	
행사장내 안내요원들의 서비스에 만족한다	요원친절	
행사내용이 재미있다	행사재미	재미
행사내용이 다양하다	행사다양	다양
직접 참여하는 체험프로그램에 만족한다	체험프로	체험
행사내용을 통해 이 지역의 문화를 잘 알게 되었다	문화이해	문화
축제 관련 기념품의 종류가 다양하다	상품다양	상품
축제 관련 기념품의 품질이 좋다	상품품질	
축제 관련 기념품의 가격이 적당하다	상품가격	
음식의 종류가 다양하다	음식다양	음식
음식의 가격이 적당하다	음식가격	
행사장 주변의 유명한 관광지도 방문할 것이다(방문했다)	연계관광	연계
주차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주차편리	시설
휴식공간(벤치, 휴게실)이 잘 되어있다	휴식공간	
화장실이 청결하다	화 장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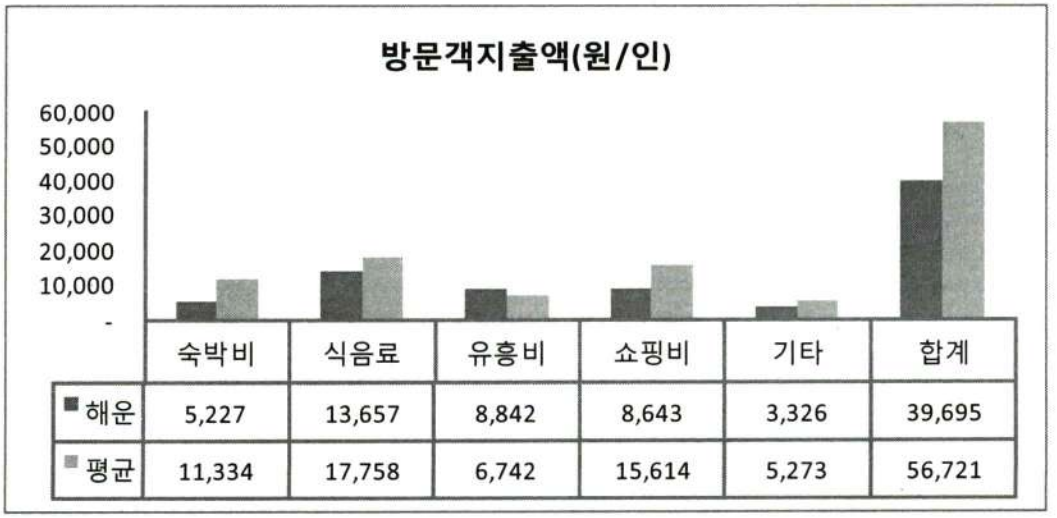
① 부산 해운대모래축제

◈만 족 도 : 전체적으로 전국 평균값을 약간 하회하였다. 비록 안내, 재미, 다양 등에서는 평균값에 육박하였지만, 사전홍보와 음식, 상품, 편의시설 등에서는 다소 개선의 여지를 남겼다. 앞으로 단순한 구경이나 제한적 참여가 아닌 일반 대중이 함께 어울려 뛰놀 수 있는 해변축제로 승화시켜야 하겠다.



	접근	홍보	안내	재미	다양	체험	문화	상품	음식	연계	시설
■해운	5.19	4.52	4.94	5.03	4.98	4.86	4.82	4.35	4.27	4.65	4.22
■평균	5.26	4.84	4.98	5.04	5.03	4.93	4.89	4.51	4.41	4.70	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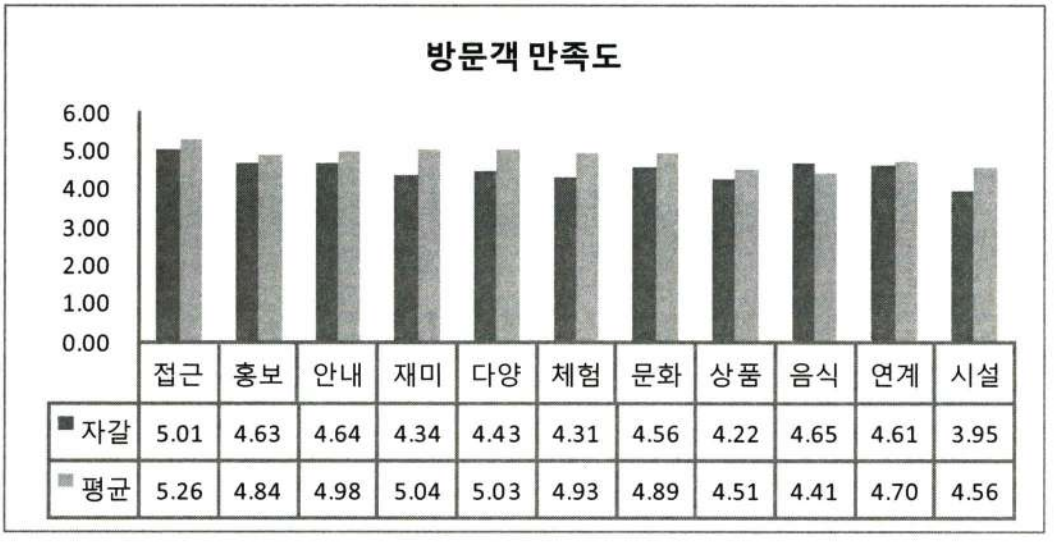
◈소비지출 : 방문객의 60% 이상이 지역주민인 까닭에 숙박비와 쇼핑비 그리고 식음료비의 지출이 제한적으로 발생하였다. 유흥비만 겨우 체면을 살렸을 뿐 대체적으로 지역경제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 축제였다. 향후 소비지출을 촉진시키려면 외지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한 홍보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겠다.



	숙박비	식음료	유흥비	쇼핑비	기타	합계
■해운	5,227	13,657	8,842	8,643	3,326	39,695
■평균	11,334	17,758	6,742	15,614	5,273	56,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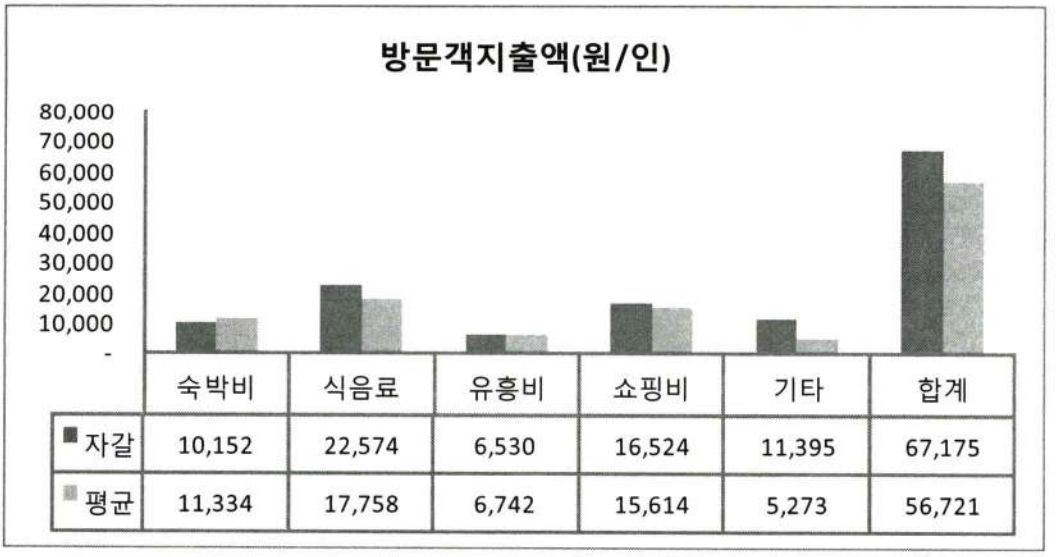
② 부산 자갈치축제

◈만 족 도 : 자갈치시장에서의 음식축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음식에서는 평균 이상의 값을 보였다. 그러나 다른 모든 측정분야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는데, 특히 축제의 핵심인 재미, 다양성, 체험 등에서 아주 낮은 값을 보였다. 이는 문화관광축제로서 당 축제의 존폐문제와 직결될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접근	홍보	안내	재미	다양	체험	문화	상품	음식	연계	시설
■자갈	5.01	4.63	4.64	4.34	4.43	4.31	4.56	4.22	4.65	4.61	3.95
■평균	5.26	4.84	4.98	5.04	5.03	4.93	4.89	4.51	4.41	4.70	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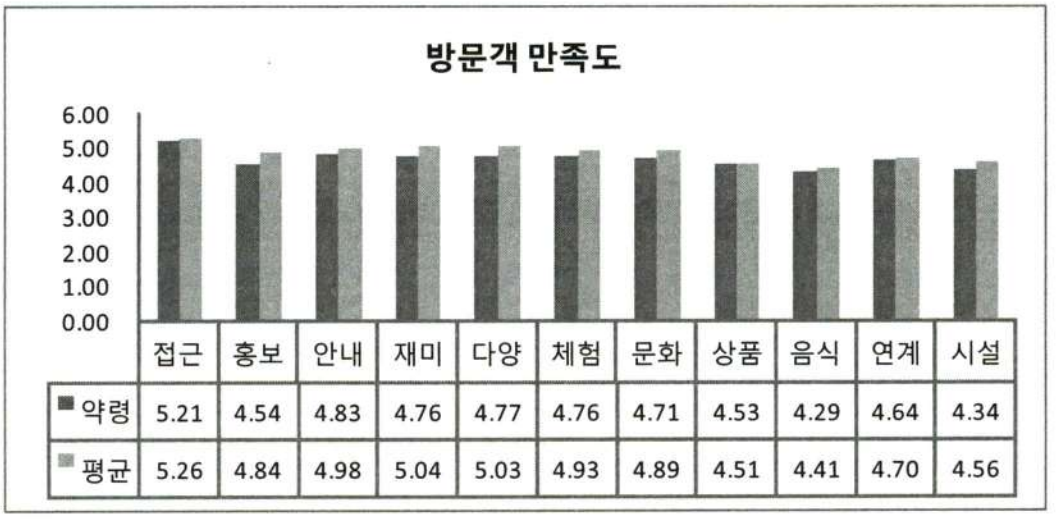
◈소비지출 : 시장이라는 장소적 특성으로 인해 당 축제를 방문한 사람들의 활발한 소비지출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였다. 싱싱한 횟감 등 식음료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을 뿐만 아니라 쇼핑비 역시 좋은 결과를 보였다.



	숙박비	식음료	유흥비	쇼핑비	기타	합계
■자갈	10,152	22,574	6,530	16,524	11,395	67,175
■평균	11,334	17,758	6,742	15,614	5,273	56,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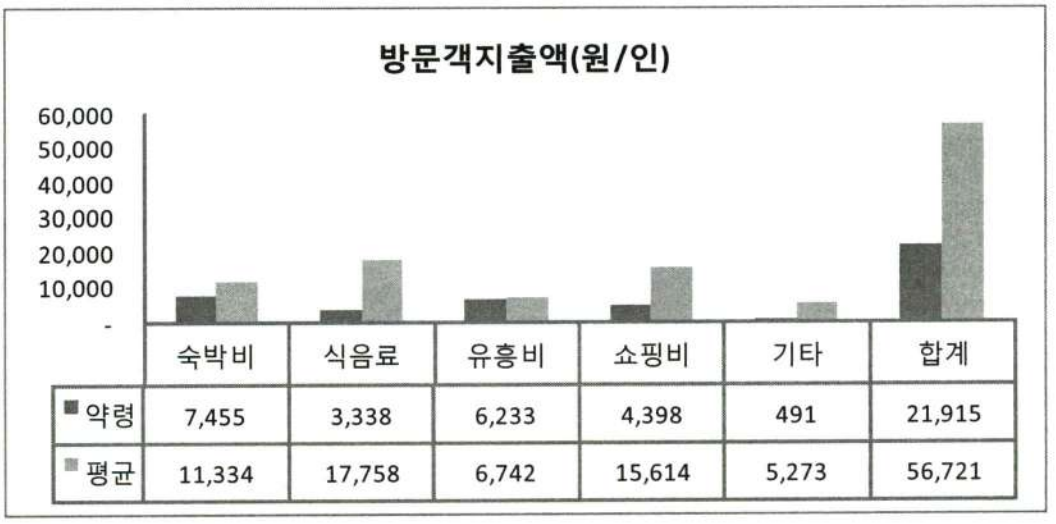
3 대구 약령시한방문화축제

◈만 족 도 : 한약이라는 상품을 제외한 모든 측정분야에서 평균 이하의 만족도를 보였다. 최근 사회적 키워드인 '힐링'에 부합한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장점을 살려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미와 다양성 그리고 체험과 문화 등 축제의 핵심요소 뿐만 아니라 홍보와 안내에서도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향후 분발이 요구된다.



	접근	홍보	안내	재미	다양	체험	문화	상품	음식	연계	시설
약령	5.21	4.54	4.83	4.76	4.77	4.76	4.71	4.53	4.29	4.64	4.34
평균	5.26	4.84	4.98	5.04	5.03	4.93	4.89	4.51	4.41	4.70	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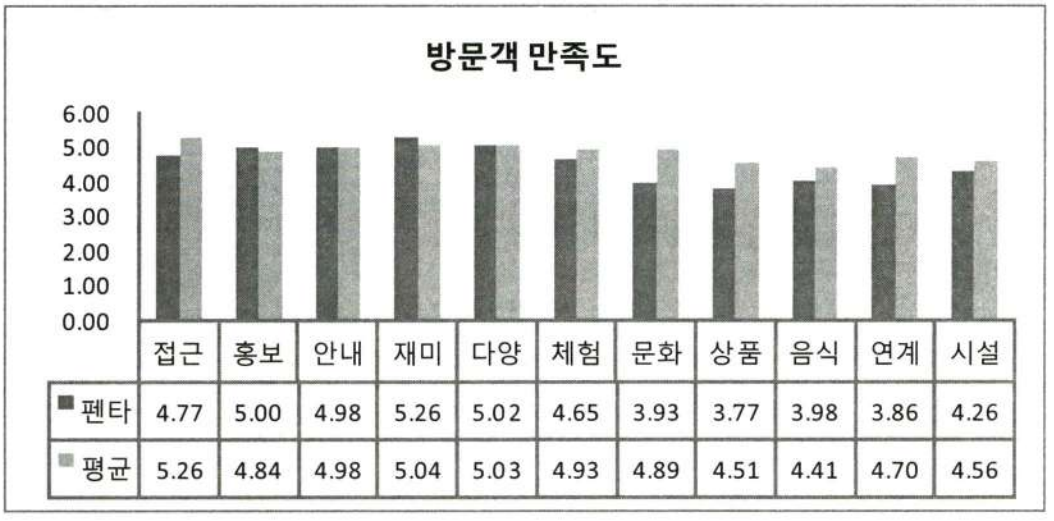
◈소비지출 : 당 축제는 대표적인 산업축제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객들의 소비지출이 전국 평균의 38%대에 머물고 있다. 주최측에서는 당 축제가 왜 재미도 없고 돈도 쓰지 않는 까닭이 무엇인지 밝혀낸 후 적절한 처방을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외지인을 유입하기 위한 적극적 홍보대책도 수립해야 하겠다.



	숙박비	식음료	유흥비	쇼핑비	기타	합계
약령	7,455	3,338	6,233	4,398	491	21,915
평균	11,334	17,758	6,742	15,614	5,273	56,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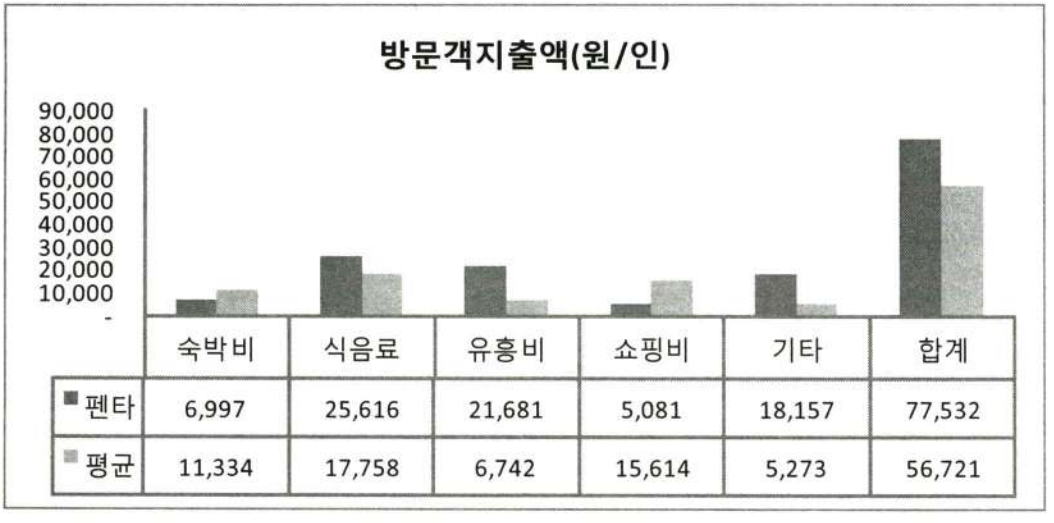
4 인천 펜타포트락페스티벌

◈만 족 도 : 행사장이 경인아라뱃길이라서 그랬는지 접근성 만족도가 낮았다. 그리고 인천과 락의 인과관계 부족으로 인한 지역문화이해 만족도도 낮았으며, 그밖에 상품과 연계관광 등에서도 매우 낮은 값을 보였다. 반면 홍보와 재미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보였는바, 향후 당 축제의 발전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접근	홍보	안내	재미	다양	체험	문화	상품	음식	연계	시설
■펜타	4.77	5.00	4.98	5.26	5.02	4.65	3.93	3.77	3.98	3.86	4.26
■평균	5.26	4.84	4.98	5.04	5.03	4.93	4.89	4.51	4.41	4.70	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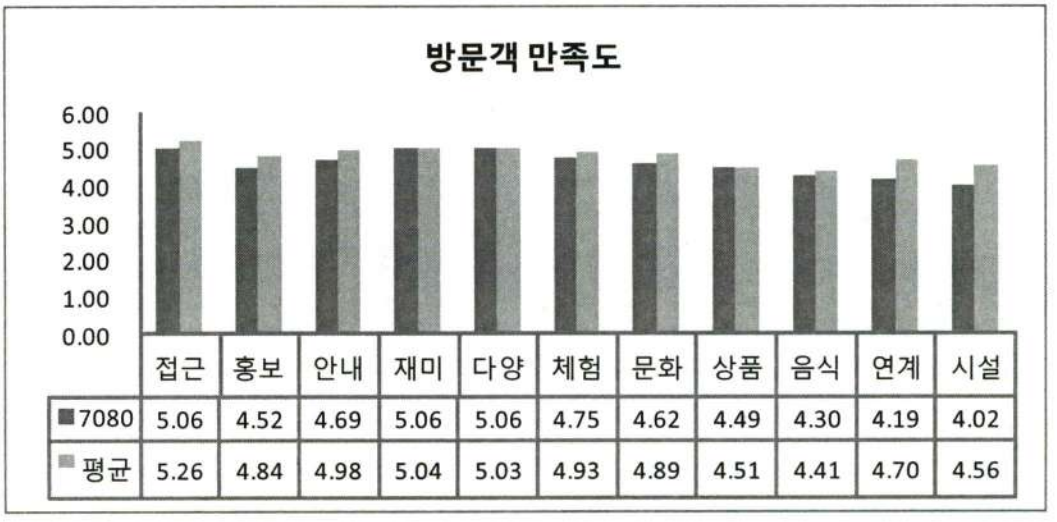
◈소비지출 : 음악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밤새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는 축제인지라 여기에 관계된 유흥비와 식음료비 그리고 기타(입장료) 비용의 지출이 전국 평균을 2배 이상 크게 앞섰다. 음악난장을 통해 축제 참가자들이 소통하고 흥겹게 즐길 수 있는 현대 도시축제의 모델을 보여주었다.



	숙박비	식음료	유흥비	쇼핑비	기타	합계
■펜타	6,997	25,616	21,681	5,081	18,157	77,532
■평균	11,334	17,758	6,742	15,614	5,273	56,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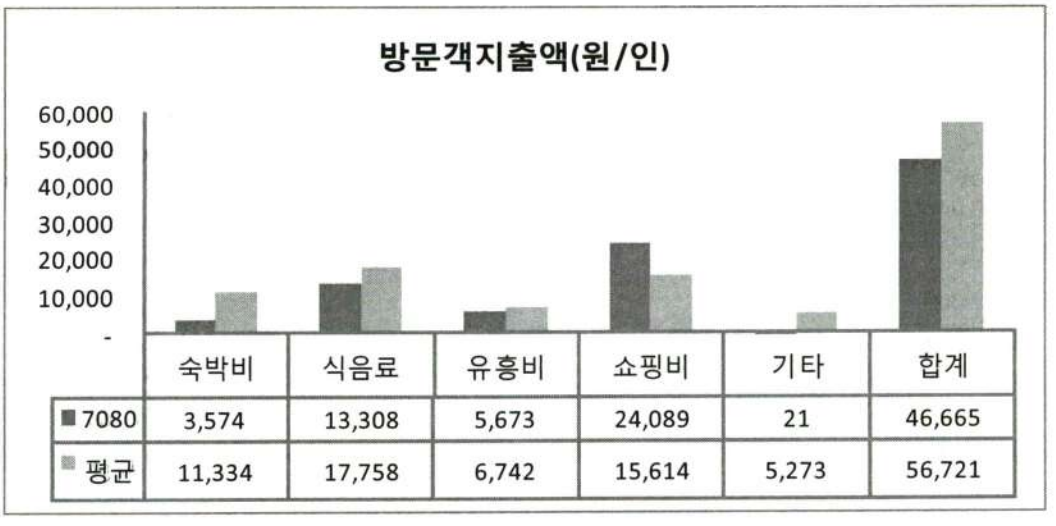
5 추억의 7080 충장축제

◈만 족 도 : 축제에 참여하는 7080세대의 공감대 때문에 그랬는지 재미와 다양성 등 축제의 핵심사항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계관광, 지역문화의 이해, 편의시설, 홍보와 안내, 접근성 등에서는 다소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	홍보	안내	재미	다양	체험	문화	상품	음식	연계	시설
7080	5.06	4.52	4.69	5.06	5.06	4.75	4.62	4.49	4.30	4.19	4.02
평균	5.26	4.84	4.98	5.04	5.03	4.93	4.89	4.51	4.41	4.70	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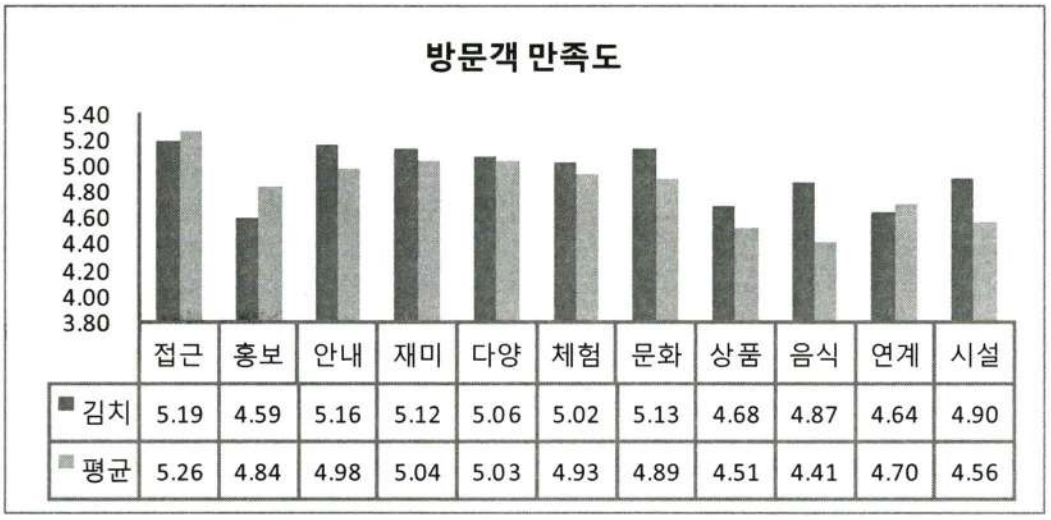
◈소비지출 : 당 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의 대다수(71.2%)가 지역주민인 까닭에 숙박비를 비롯한 식음료비 또는 유흥비의 지출이 낮게 나타났다. 향후 당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면 외지인 비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관심과 효율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숙박비	식음료	유흥비	쇼핑비	기타	합계
7080	3,574	13,308	5,673	24,089	21	46,665
평균	11,334	17,758	6,742	15,614	5,273	56,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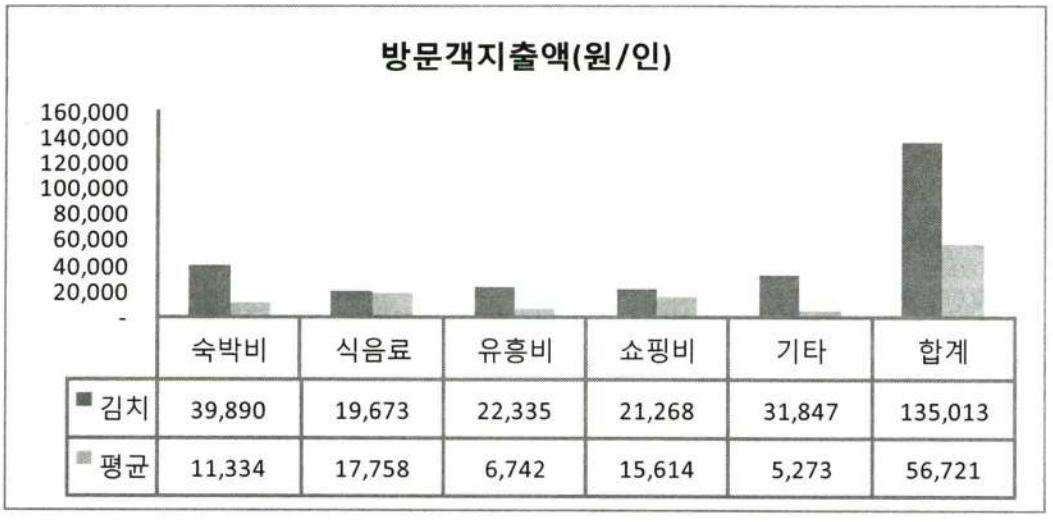
6 세계김치문화축제

◈만 족 도 : 전년도에 비해서 축제의 핵심인 재미와 다양성 등은 크게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음식을 필두로 시설, 문화, 안내, 상품 등의 항목도 크게 향상되었다. 앞으로 홍보와 접근성 및 연계관광 등을 보완한다면 훌륭한 축제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접근	홍보	안내	재미	다양	체험	문화	상품	음식	연계	시설
김치	5.19	4.59	5.16	5.12	5.06	5.02	5.13	4.68	4.87	4.64	4.90
평균	5.26	4.84	4.98	5.04	5.03	4.93	4.89	4.51	4.41	4.70	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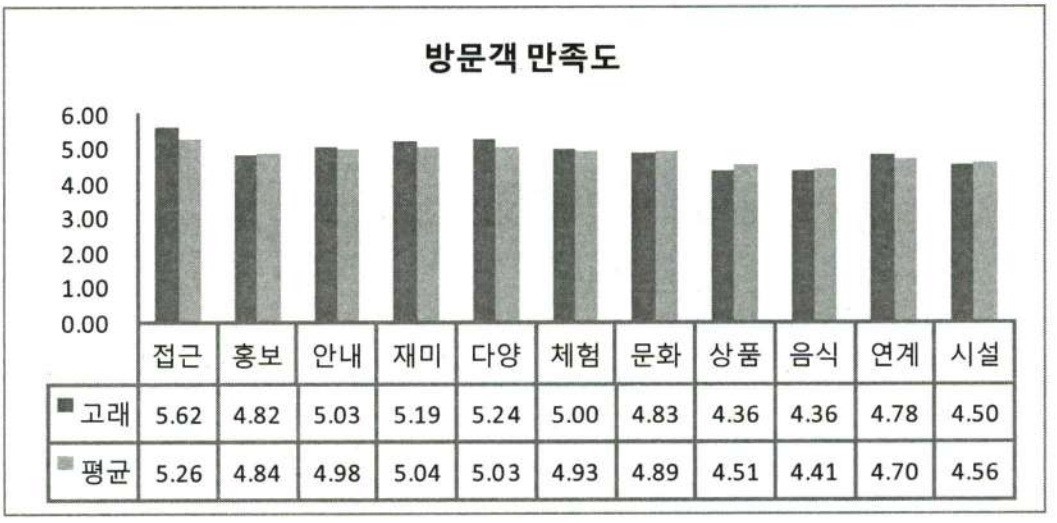
◈소비지출 : 당 축제의 낮은 외지인비율에도 불구하고 숙박비가 전국 최고를 기록할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축제의 핵심인 김치 등의 쇼핑비는 적게 나타났다. 예년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1년과 2012년 자료에서만 이런 특이한 현상이 발견되는바, 주최측에서는 축제방문객에 대한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 방법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숙박비	식음료	유흥비	쇼핑비	기타	합계
김치	39,890	19,673	22,335	21,268	31,847	135,013
평균	11,334	17,758	6,742	15,614	5,273	56,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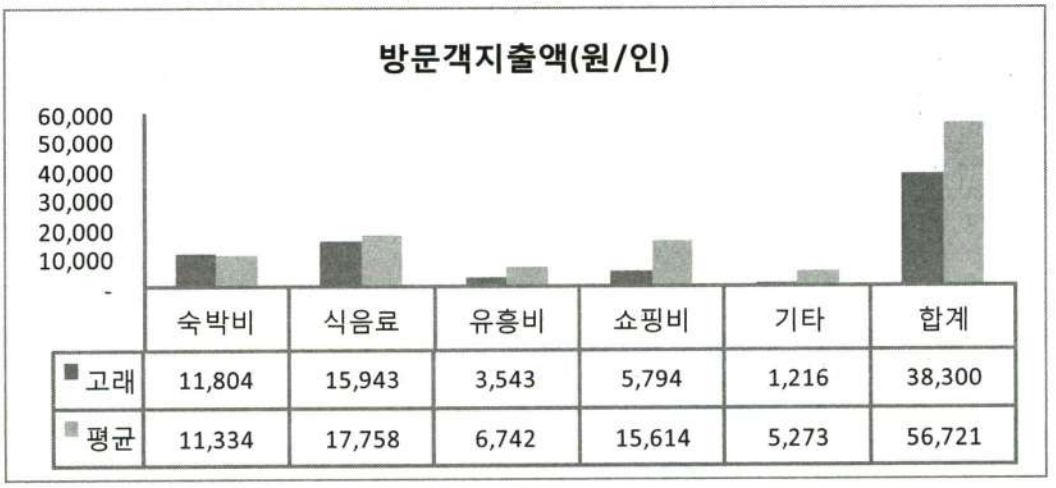
7 울산 고래축제

◈만 족 도 : 전년도에 비해 괄목할만한 발전을 보였다. 축제의 재미와 다양성 같은 핵심적 항목은 물론 안내, 체험, 연계관광 등도 크게 향상되었다. 다만 상품과 음식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계된 일부 항목은 개선의 여지가 많아보였다. 이는 후술할 방문객지출과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접근	홍보	안내	재미	다양	체험	문화	상품	음식	연계	시설
고래	5.62	4.82	5.03	5.19	5.24	5.00	4.83	4.36	4.36	4.78	4.50
평균	5.26	4.84	4.98	5.04	5.03	4.93	4.89	4.51	4.41	4.70	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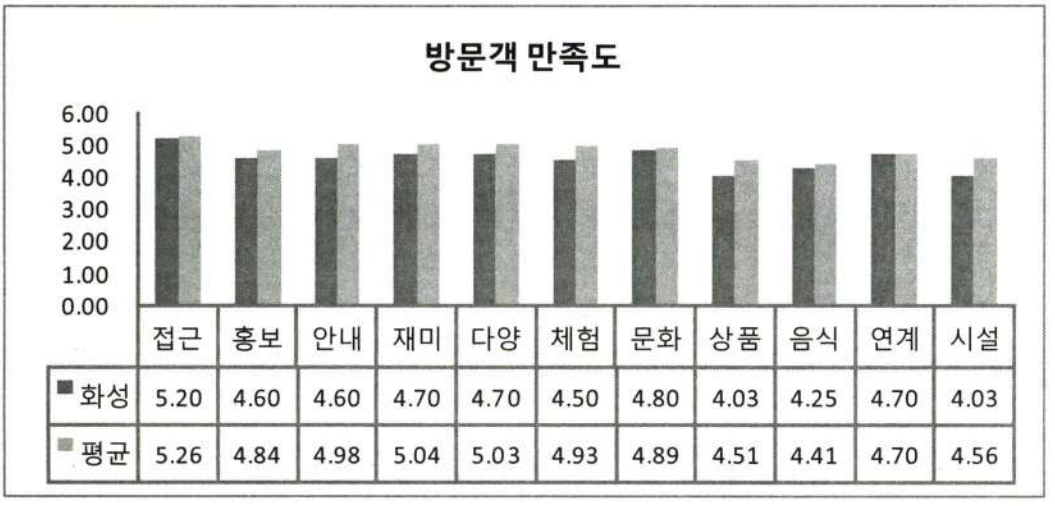
◈소비지출 : 대도시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외지관광객비율이 73.9%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숙박비도 전국 평균을 약간 상회할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들로부터 발생하는 식음료, 유흥비, 쇼핑비 등의 소비지출은 생각보다 낮게 나타났다. 축제장에서의 상품과 음식 품질관리를 비롯하여 인근 백화점이나 전통시장과 연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숙박비	식음료	유흥비	쇼핑비	기타	합계
고래	11,804	15,943	3,543	5,794	1,216	38,300
평균	11,334	17,758	6,742	15,614	5,273	56,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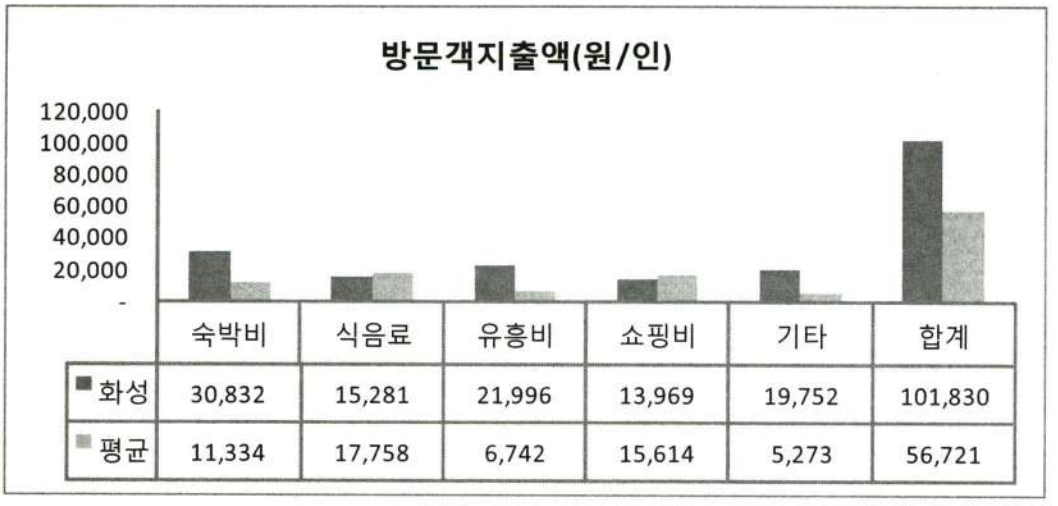
8 수원 화성문화제

◈ **만 족 도** : 전년도에 비해 만족도 값이 크게 저하되었다. 재미와 다양성은 물론 체험, 홍보, 안내 등 축제의 근간을 이루는 모든 항목에서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하였다.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에 대한 연계관광 만족도만 겨우 평균값과 같았을 뿐이다. 향후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각고의 노력이 요구된다.



	접근	홍보	안내	재미	다양	체험	문화	상품	음식	연계	시설
화성	5.20	4.60	4.60	4.70	4.70	4.50	4.80	4.03	4.25	4.70	4.03
평균	5.26	4.84	4.98	5.04	5.03	4.93	4.89	4.51	4.41	4.70	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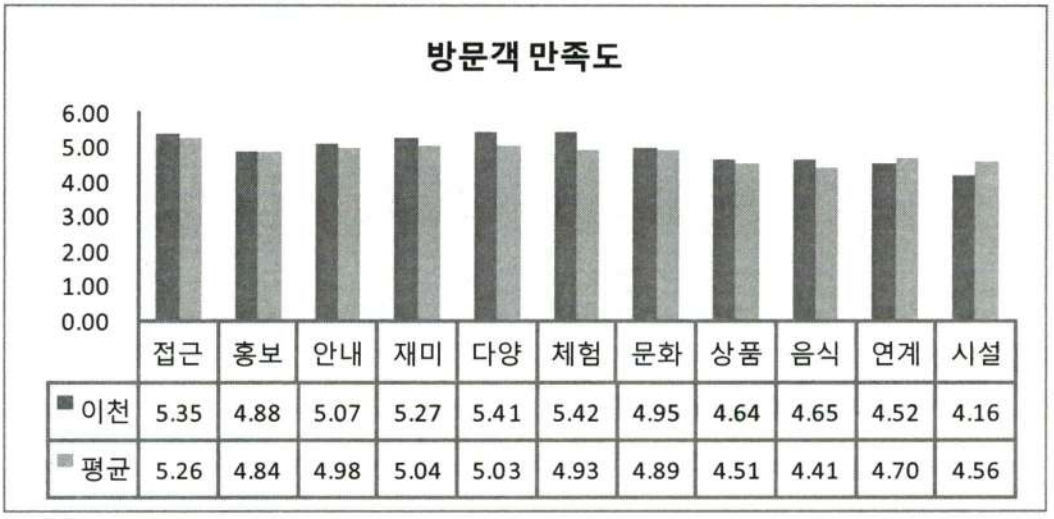
◈ **소비지출** : 만족도와 다르게 소비지출은 대단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외지관광객비율이 비교적 낮은 60%임에도 불구하고 숙박비 지출금액이 아주 높았을 뿐만 아니라 유흥비 지출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행사장 내에 갈비축제를 동시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식음료비의 절대금액이 낮았다. 이런 결과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설문조사방법의 오류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숙박비	식음료	유흥비	쇼핑비	기타	합계
화성	30,832	15,281	21,996	13,969	19,752	101,830
평균	11,334	17,758	6,742	15,614	5,273	56,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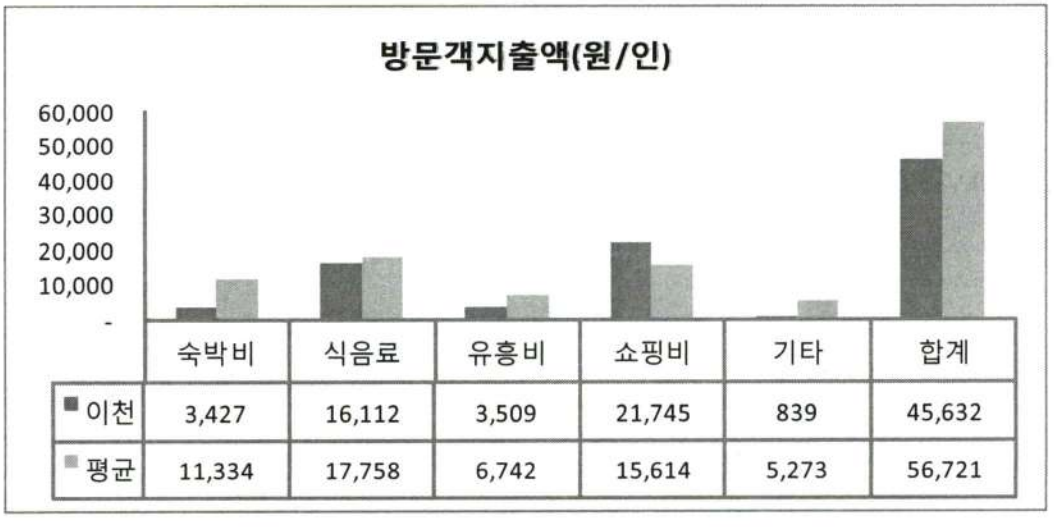
9 이천 쌀문화축제

◈만 족 도 : 여타 항목에 비해 재미, 다양성, 체험 등 축제의 핵심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았다. 더불어 음식과 상품 그리고 접근성, 홍보, 안내, 문화 등도 평균 이상의 양호한 값을 보였다. 다만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과 연계관광에 대한 보완만 이루어진다면 아주 이상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였다.



	접근	홍보	안내	재미	다양	체험	문화	상품	음식	연계	시설
이천	5.35	4.88	5.07	5.27	5.41	5.42	4.95	4.64	4.65	4.52	4.16
평균	5.26	4.84	4.98	5.04	5.03	4.93	4.89	4.51	4.41	4.70	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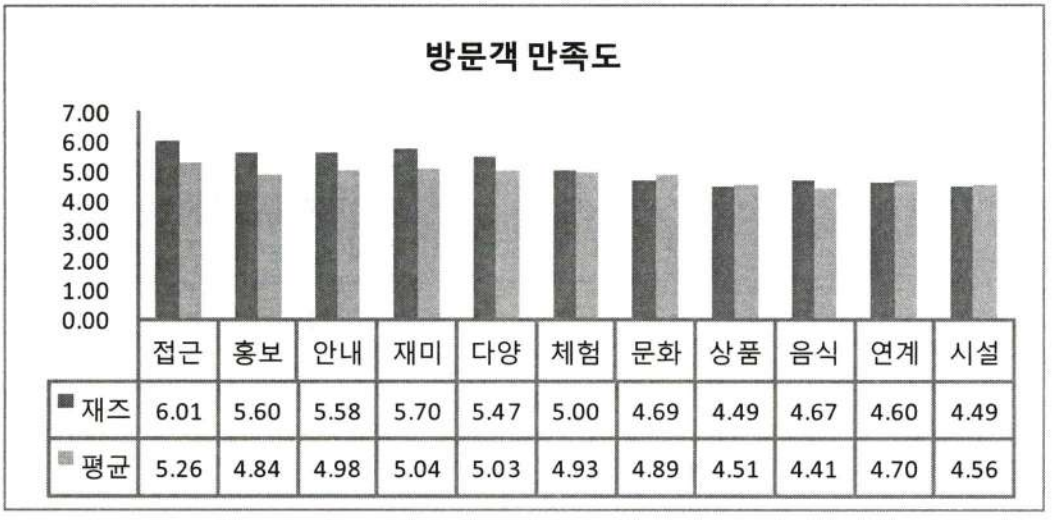
◈소비지출 : 이천쌀이라는 지명도 높은 상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쇼핑비의 매출이 높지 않았다. 이는 쌀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서 기인한 현상으로 풀이된다. 또한 숙박비도 적었는데, 수도권이라는 입지적 특성 때문에 숙박수요가 많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숙박비	식음료	유흥비	쇼핑비	기타	합계
이천	3,427	16,112	3,509	21,745	839	45,632
평균	11,334	17,758	6,742	15,614	5,273	56,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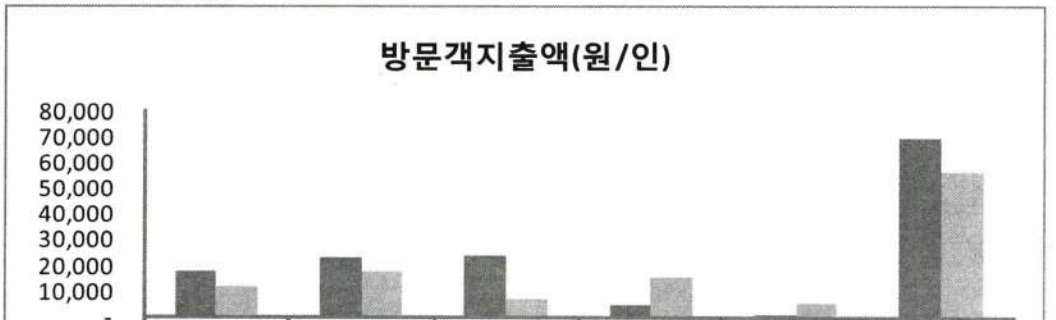
⑩ 가평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만 족 도** : 밤 새워 즐기는 축제의 전형을 보는 듯하다. 재미와 다양성을 필두로 홍보와 안내 등에서 흠잡을 데 없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밖에 음식과 상품 등도 대체로 무난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다만 재즈라는 소재가 가평지역에 뿌리를 두지 않은 까닭에 발생한 '문화'에 대한 만족도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접근	홍보	안내	재미	다양	체험	문화	상품	음식	연계	시설
■재즈	6.01	5.60	5.58	5.70	5.47	5.00	4.69	4.49	4.67	4.60	4.49
■평균	5.26	4.84	4.98	5.04	5.03	4.93	4.89	4.51	4.41	4.70	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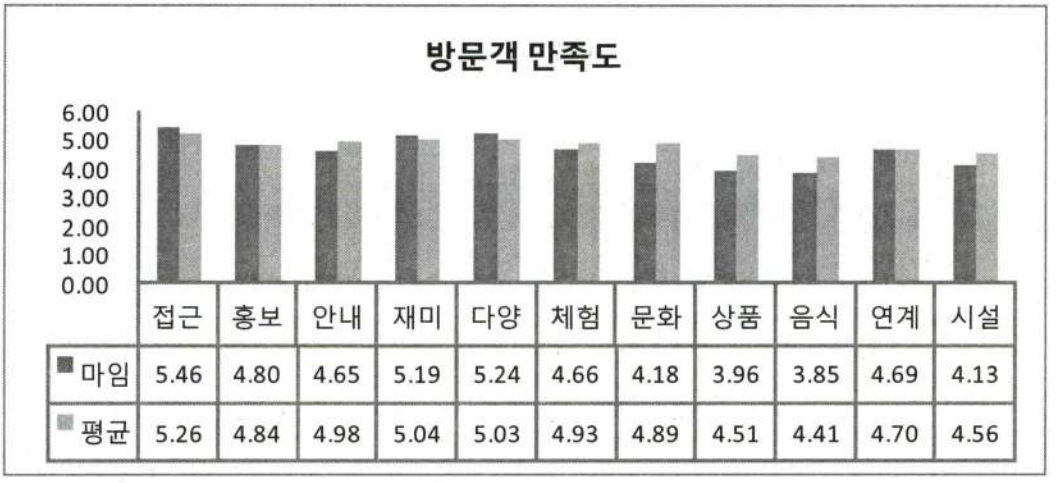
◈**소비지출** : 음악을 소재로 흥겹게 즐기는 젊은이들의 축제답게 유흥비와 식음료의 비중이 눈에 띄게 높았다. 또한 축제장소가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야간축제의 이점을 살린 까닭에 숙박비도 평균값보다 ⅔가량 높게 나타났다.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풀이된다. 향후 쇼핑비 지출을 촉진할만한 대책이 마련되면 더욱 좋겠다.



	숙박비	식음료	유흥비	쇼핑비	기타	합계
■재즈	17,157	22,833	23,930	4,554	796	69,270
■평균	11,334	17,758	6,742	15,614	5,273	56,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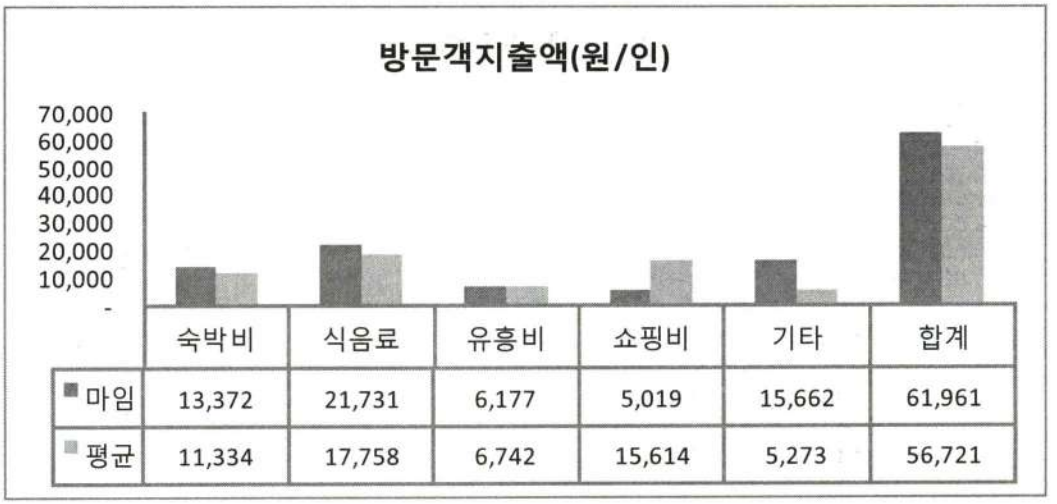
⑪ 춘천 마임축제

◈만 족 도 : 객관적 지표만으로 볼 때 축제성 자체는 흠잡을 곳이 별로 없으나 축제 외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해결할 과제가 남아있다. 우다마리 신화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음식과 상품 만족도 역시 개선의 기미가 별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접근	홍보	안내	재미	다양	체험	문화	상품	음식	연계	시설
마임	5.46	4.80	4.65	5.19	5.24	4.66	4.18	3.96	3.85	4.69	4.13
평균	5.26	4.84	4.98	5.04	5.03	4.93	4.89	4.51	4.41	4.70	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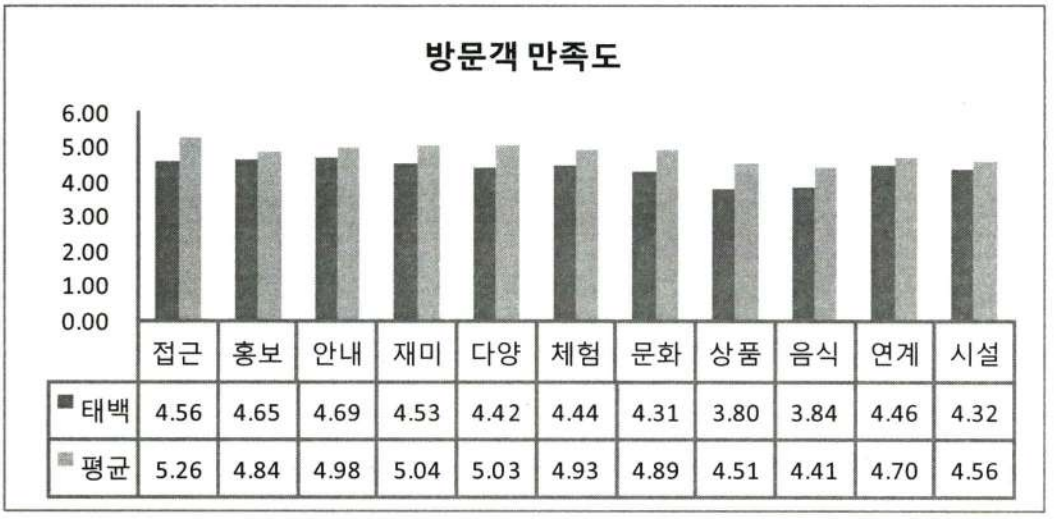
◈소비지출 : 마임축제 자체가 제한된 장소에서 주로 밤에 즐기는 축제인 까닭에 숙박비와 식음료를 중심으로 활발한 지출활동이 나타났다. 반면 지역상인들과 관련된 쇼핑비 지출은 전국 평균의 ⅓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낮았다. 향후 춘천의 명물인 닭갈비와 막국수를 결합시킨다든지 등의 방법으로 지역상권과 공영(共榮)할 수 있는 비책이 마련된다면 명실상부한 춘천의 상징축제로 자리잡을 수 있겠다.



	숙박비	식음료	유흥비	쇼핑비	기타	합계
마임	13,372	21,731	6,177	5,019	15,662	61,961
평균	11,334	17,758	6,742	15,614	5,273	56,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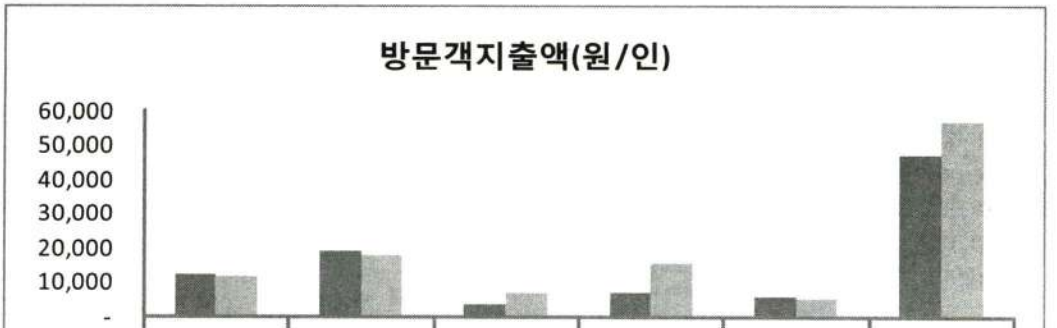
⑫ 태백산 눈축제

◈**만 족 도** : 추운 겨울. 눈에 덮인 태백산 등산을 즐기는 등산객을 겨냥하여 기획된 까닭에 방문객들이 눈축제보다는 산행 자체를 더 즐기는 듯하다. 그런 까닭에 모든 측정항목에서 매우 낮은 만족도를 기록하였다. 추운 날씨 때문에 야외활동이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스쳐지나가는 방문객을 겨냥한 핵심프로그램(killer content)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본다.



	접근	홍보	안내	재미	다양	체험	문화	상품	음식	연계	시설
태백	4.56	4.65	4.69	4.53	4.42	4.44	4.31	3.80	3.84	4.46	4.32
평균	5.26	4.84	4.98	5.04	5.03	4.93	4.89	4.51	4.41	4.70	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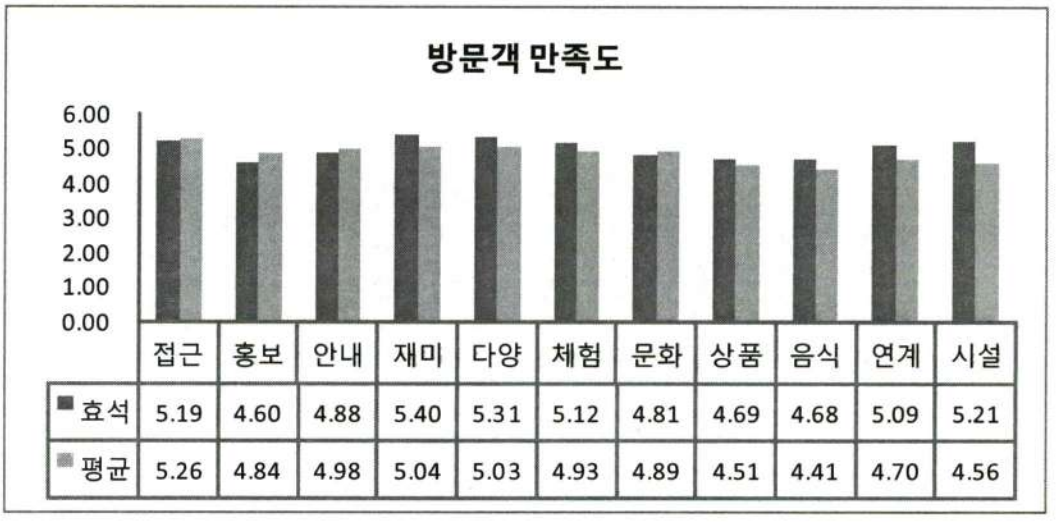
◈**소비지출** : 태백산의 등반특성이 새벽에 산에 올라 어둡기 전 하산해야 하므로 숙박비와 식음료비에 대한 지출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그들을 활용하여 태백지역의 특산품 등을 구매하도록 하는 쇼핑 촉진대책은 아직 부족해 보였다. 향후 태백한우나 산나물 등 지역특산품 개발에 힘을 쏟아야 하겠다.



	숙박비	식음료	유흥비	쇼핑비	기타	합계
태백	11,871	18,586	3,631	6,746	5,993	46,827
평균	11,334	17,758	6,742	15,614	5,273	56,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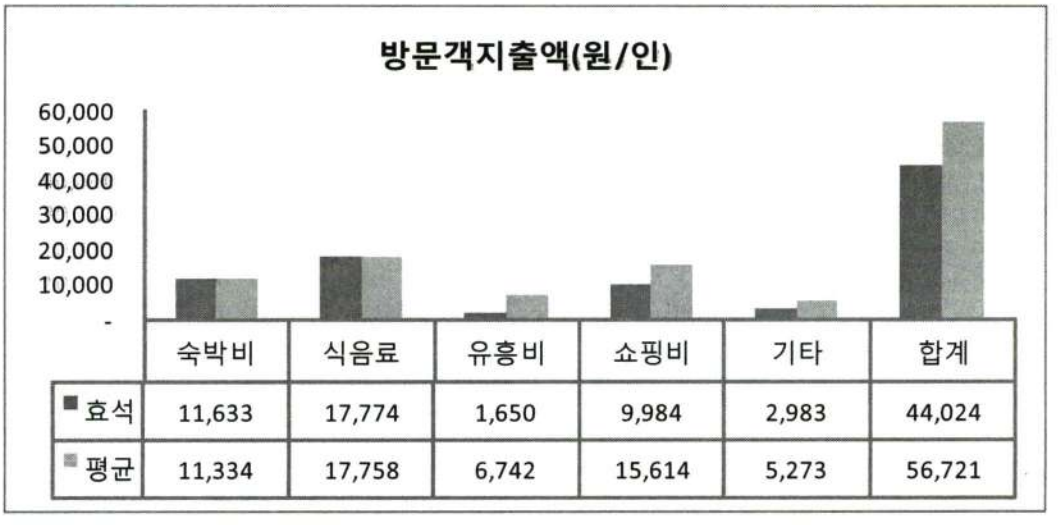
⑬ 평창 효석문화제

◈**만 족 도** : 설문결과만으로는 대단히 훌륭한 축제로 평가된다. 특히 전년도에 부족했던 재미부분도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홍보와 안내, 접근성 등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효석선생을 기리는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은 의외의 결과로 보였다.



	접근	홍보	안내	재미	다양	체험	문화	상품	음식	연계	시설
■ 효석	5.19	4.60	4.88	5.40	5.31	5.12	4.81	4.69	4.68	5.09	5.21
■ 평균	5.26	4.84	4.98	5.04	5.03	4.93	4.89	4.51	4.41	4.70	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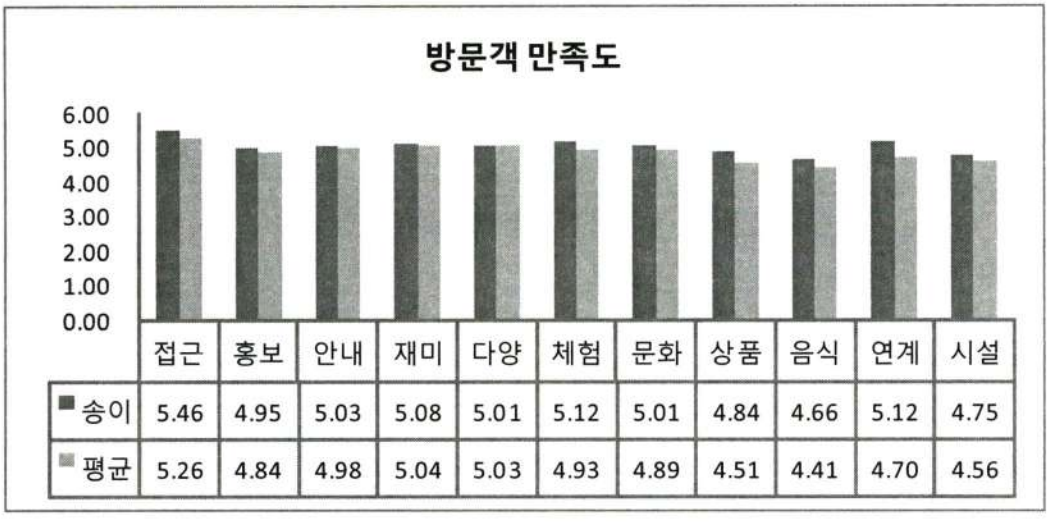
◈**소비지출** : 메밀국수, 메밀전 등 음식의 매출이 매우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인근 스키장과 연계한 숙박비 지출도 높았다. 반면 쇼핑비 지출은 전국 평균값보다 크게 낮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도 20%가까이 저하된 값이었다. 쇼핑비와 유흥비 지출을 어떻게 증대시킬지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숙박비	식음료	유흥비	쇼핑비	기타	합계
■ 효석	11,633	17,774	1,650	9,984	2,983	44,024
■ 평균	11,334	17,758	6,742	15,614	5,273	56,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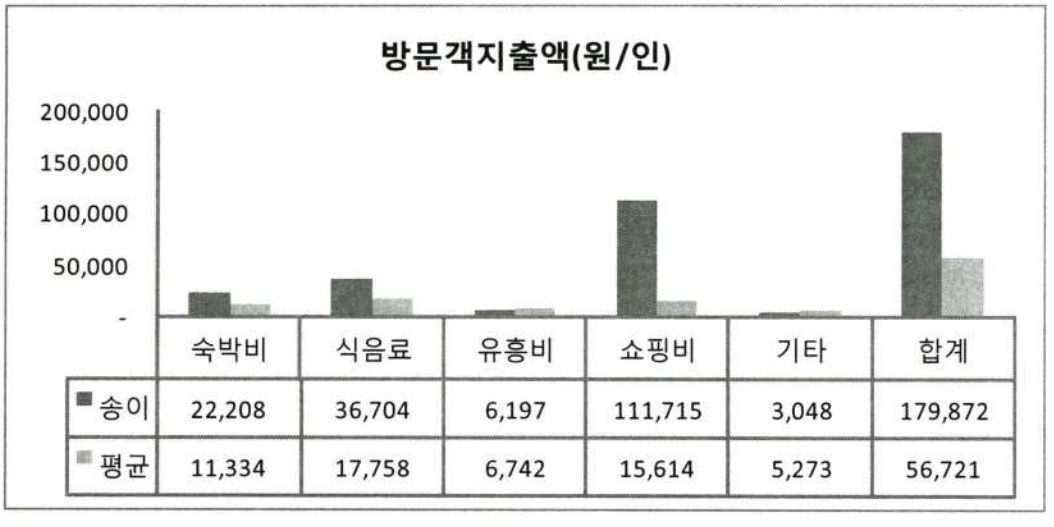
⑭ 양양 송이축제

◈만 족 도 : 축제의 핵심에 해당되는 재미 등의 항목에서는 전국 평균값을 약간 상회할 정도로 우수한 값을 보였다. 무엇보다 '송이'로 특징되는 상품 항목에서는 매우 우수한 만족도를 기록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근 설악산, 낙산사 등 연계관광에 대한 만족도는 최상위 수준을 기록하였다. 설문결과만을 본다면 매우 훌륭한 축제라고 판정할 수 있다.



	접근	홍보	안내	재미	다양	체험	문화	상품	음식	연계	시설
송이	5.46	4.95	5.03	5.08	5.01	5.12	5.01	4.84	4.66	5.12	4.75
평균	5.26	4.84	4.98	5.04	5.03	4.93	4.89	4.51	4.41	4.70	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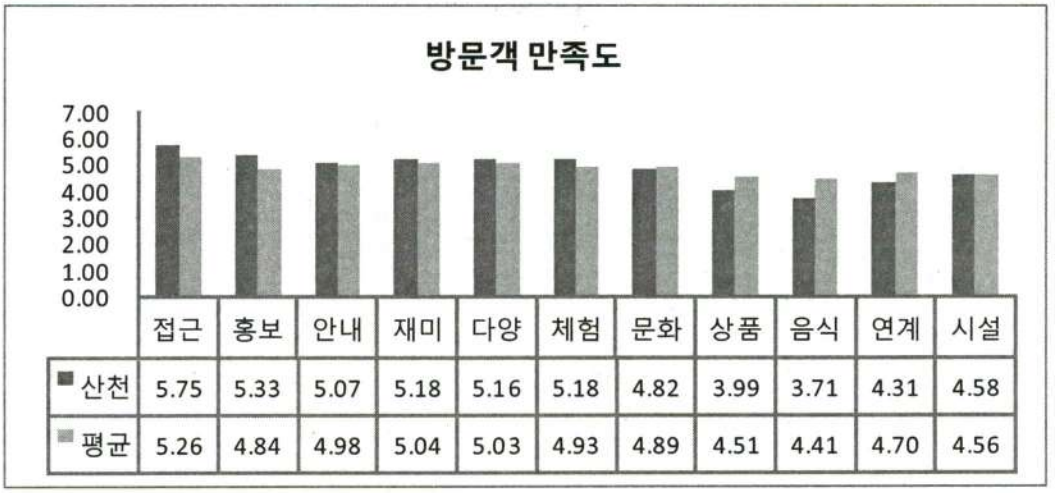
◈소비지출 : 양양군은 인근에 설악산과 속초, 그리고 동해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숙박관광지이다. 따라서 숙박비를 포함하여 식음료 지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송이를 중심으로 지역특산품에 대한 쇼핑비 지출이 대단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숙박비	식음료	유흥비	쇼핑비	기타	합계
송이	22,208	36,704	6,197	111,715	3,048	179,872
평균	11,334	17,758	6,742	15,614	5,273	56,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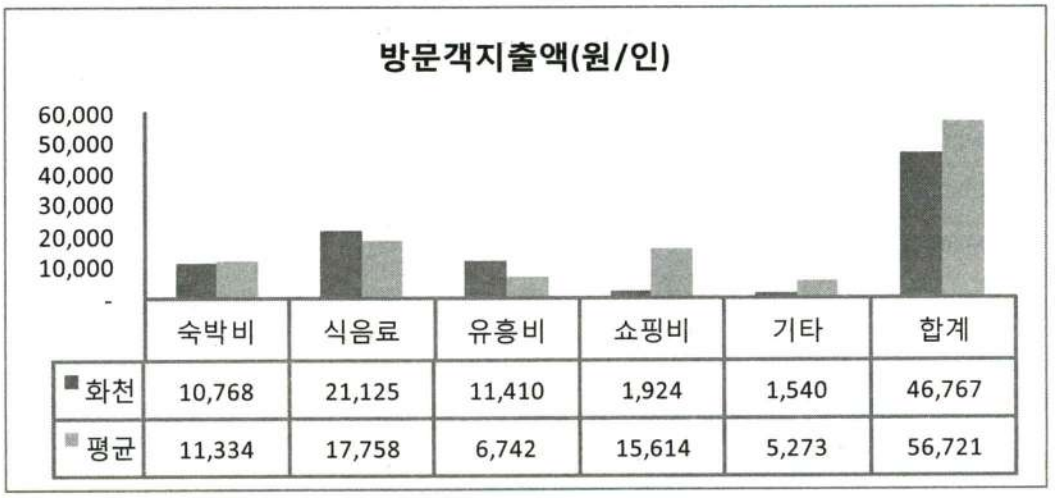
⑮ 화천 산천어축제

◈만 족 도 : 겨울축제의 대명사답게 재미와 다양성, 체험 등 기초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반면 상품과 음식, 연계관광 등에서는 생각 밖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예년의 경우 당 축제의 음식 및 상품 만족도가 전국 최고 수준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2년도 축제장 구성이 예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음을 고려할 때 여기서 나타난 만족도 값을 액면 그대로 신뢰할 수 없음을 밝힌다.



	접근	홍보	안내	재미	다양	체험	문화	상품	음식	연계	시설
■산천	5.75	5.33	5.07	5.18	5.16	5.18	4.82	3.99	3.71	4.31	4.58
■평균	5.26	4.84	4.98	5.04	5.03	4.93	4.89	4.51	4.41	4.70	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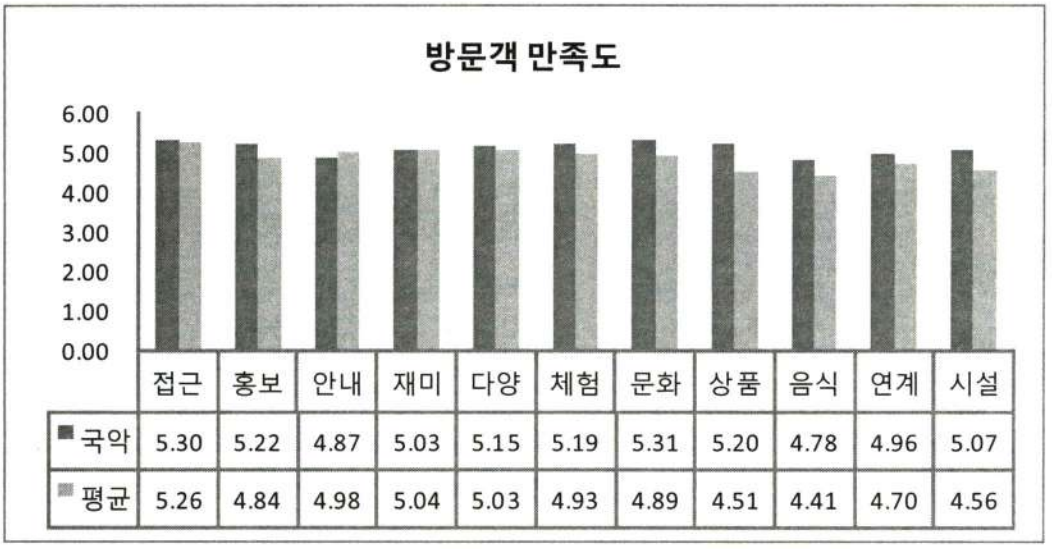
◈소비지출 : 식음료와 유흥비의 지출은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였으나 쇼핑비는 현저하게 낮았다. 당 축제가 우리나라에서 상품권 제도가 가장 잘 정착된 축제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쇼핑비값은 이해할 수 없는 결과였다. 대부분의 방문객이 낚시나 썰매를 즐기고 그들은 최소한 5천원의 상품권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숙박비	식음료	유흥비	쇼핑비	기타	합계
■화천	10,768	21,125	11,410	1,924	1,540	46,767
■평균	11,334	17,758	6,742	15,614	5,273	56,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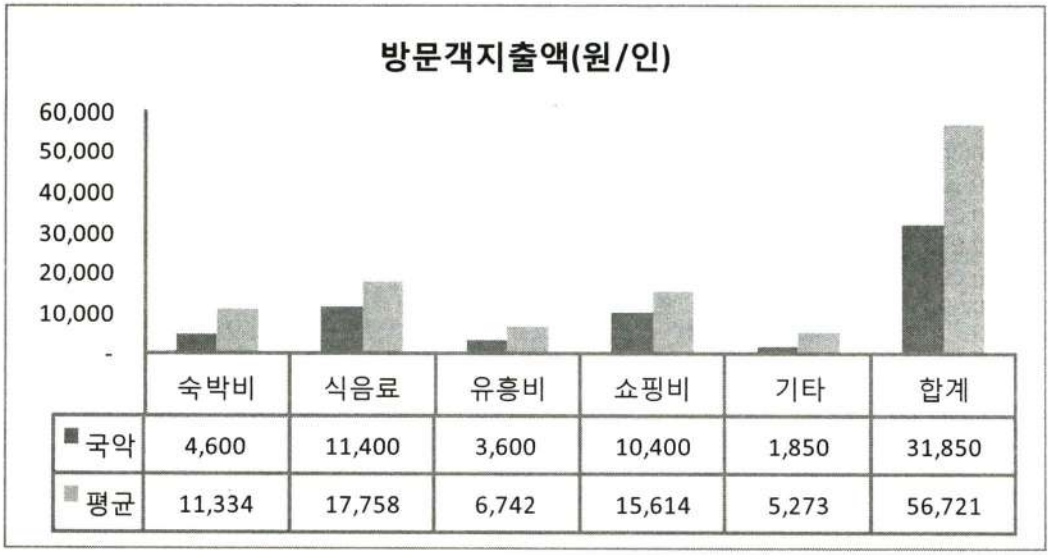
16 영동 난계국악축제

◈만 족 도 : 지표상으로는 매우 우수한 축제임에 틀림이 없다. 안내항목을 제외하고는 대단히 우수한 값을 보였기 때문이다. 상품을 필두로 시설, 음식, 문화, 연계관광 등에서 호평을 받고 있었다. 특히 당 축제가 난계선생을 추모한 국악축제인 까닭에 문화에 대한 만족도가 대단히 높게 나타났다. 축제를 통한 역사문화교육의 효과를 증명하는 듯하다.



	접근	홍보	안내	재미	다양	체험	문화	상품	음식	연계	시설
■국악	5.30	5.22	4.87	5.03	5.15	5.19	5.31	5.20	4.78	4.96	5.07
■평균	5.26	4.84	4.98	5.04	5.03	4.93	4.89	4.51	4.41	4.70	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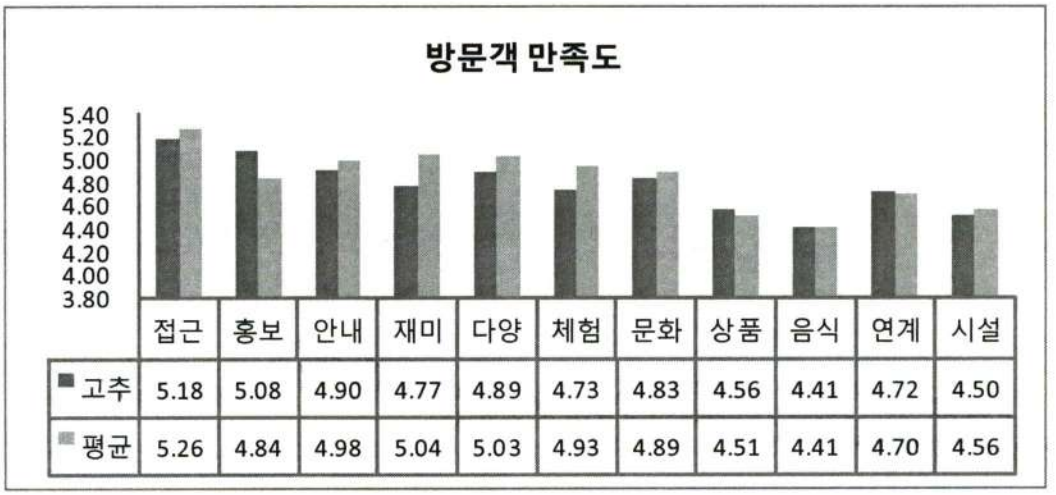
◈소비지출 : 상품과 음식에 대한 높은 만족도에 비해 방문객들의 실제 소비지출규모는 낮게 나타났다. 축제장 외곽에 와인축제장을 병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음료 및 쇼핑비 지출이 65% 수준에 불과하였다.



	숙박비	식음료	유흥비	쇼핑비	기타	합계
■국악	4,600	11,400	3,600	10,400	1,850	31,850
■평균	11,334	17,758	6,742	15,614	5,273	56,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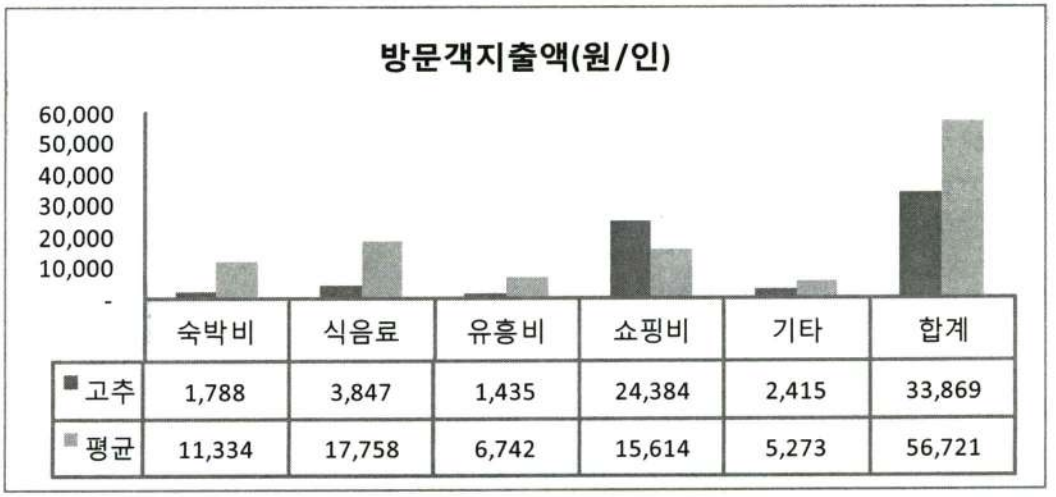
⑰ 괴산 고추축제

◈**만 족 도** : 고추축제는 여름의 끝자락인 8월말의 더운 날씨에 치러진 까닭에 방문객의 만족도가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무엇보다 축제의 핵심인 재미부분이 전국 하위권에 머문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향후 고추판매 못지않게 즐거운 축제를 만들려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접근	홍보	안내	재미	다양	체험	문화	상품	음식	연계	시설
고추	5.18	5.08	4.90	4.77	4.89	4.73	4.83	4.56	4.41	4.72	4.50
평균	5.26	4.84	4.98	5.04	5.03	4.93	4.89	4.51	4.41	4.70	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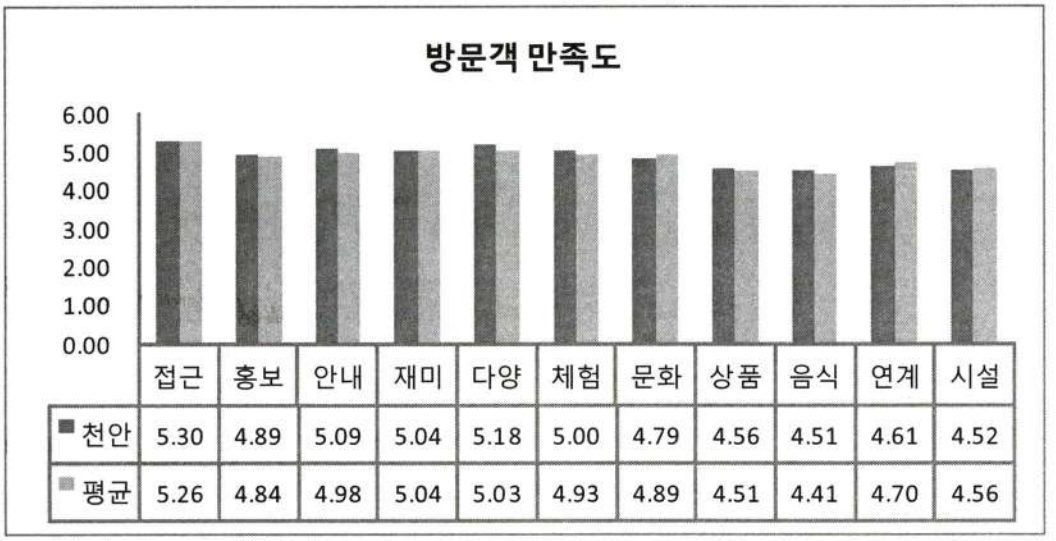
◈**소비지출** : 역시 고추축제였다. 비록 축제로서의 만족도는 아주 낮았지만,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고추'만큼 확실한 상품은 없는 듯 보였다. 방문객 1인당 소비지출의 72% 가량이 쇼핑비에 집중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축제의 개최효과를 짐작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식음료나 유흥비 등의 지출이 현저하게 낮았는바, 앞으로 만족도 제고를 통한 체류시간 증대 및 소비지출 촉진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숙박비	식음료	유흥비	쇼핑비	기타	합계
고추	1,788	3,847	1,435	24,384	2,415	33,869
평균	11,334	17,758	6,742	15,614	5,273	56,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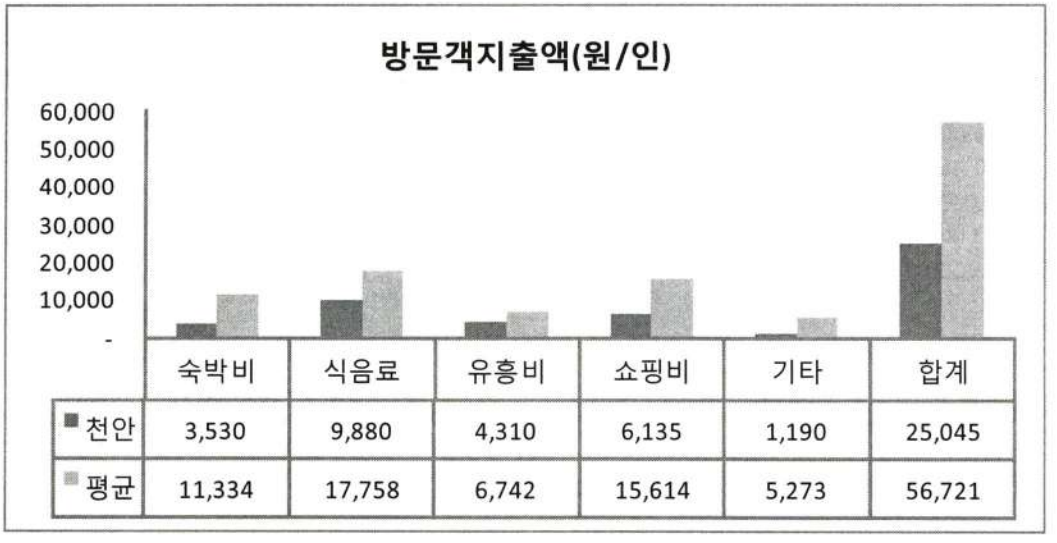
⑱ 천안 흥타령축제

◈만 족 도 : 비교적 무난한 값을 보였다. 도심에서의 거리축제로 치러진 까닭에 연계관광 등이 다소 낮았을 뿐 재미와 다양성 등 핵심부문에서는 만족스런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방문객들이 아직까지 '천안=춤'이라는 등식관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였다. 앞으로 횟수를 거듭할수록 천안이 춤의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접근	홍보	안내	재미	다양	체험	문화	상품	음식	연계	시설
천안	5.30	4.89	5.09	5.04	5.18	5.00	4.79	4.56	4.51	4.61	4.52
평균	5.26	4.84	4.98	5.04	5.03	4.93	4.89	4.51	4.41	4.70	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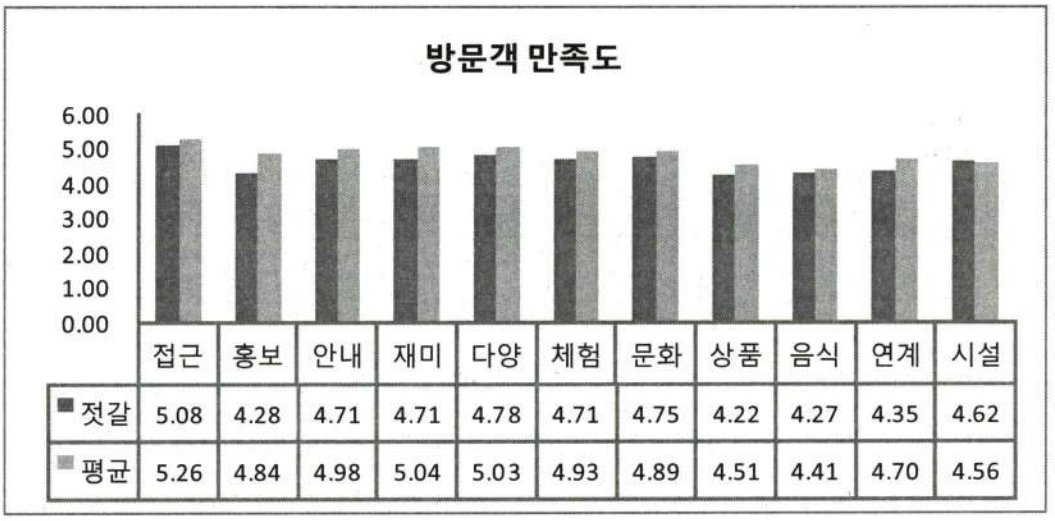
◈소비지출 : 천안삼거리공원과 길거리라는 장소적 특성 때문에 그랬는지 방문객들의 소비지출이 매우 낮았다. 전체적으로 평균의 44%에 불과할 정도였으며, 식음료비를 비롯하여 쇼핑비, 숙박비, 유흥비 등 모든 항목에서 아주 낮게 나타났다.



	숙박비	식음료	유흥비	쇼핑비	기타	합계
천안	3,530	9,880	4,310	6,135	1,190	25,045
평균	11,334	17,758	6,742	15,614	5,273	56,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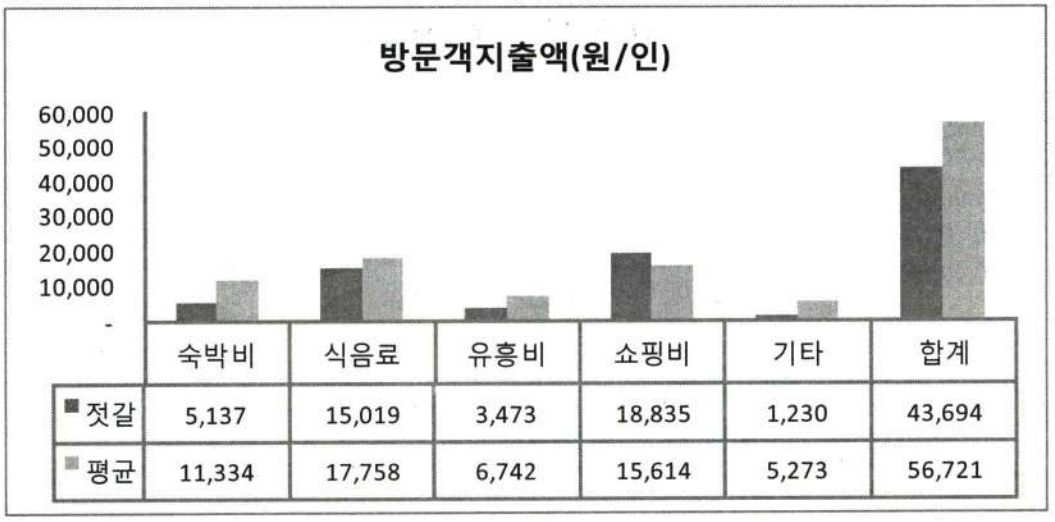
⑲ 강경 발효젓갈축제

◈**만 족 도** : 작년과 마찬가지로 편의시설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매우 낮은 값을 기록하였다. 만족도는 분위기에 의해 좌우되는 측면이 강하므로, 지나치게 드넓은 축제장을 오밀조밀하게 재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면 훨씬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접근	홍보	안내	재미	다양	체험	문화	상품	음식	연계	시설
■ 젓갈	5.08	4.28	4.71	4.71	4.78	4.71	4.75	4.22	4.27	4.35	4.62
■ 평균	5.26	4.84	4.98	5.04	5.03	4.93	4.89	4.51	4.41	4.70	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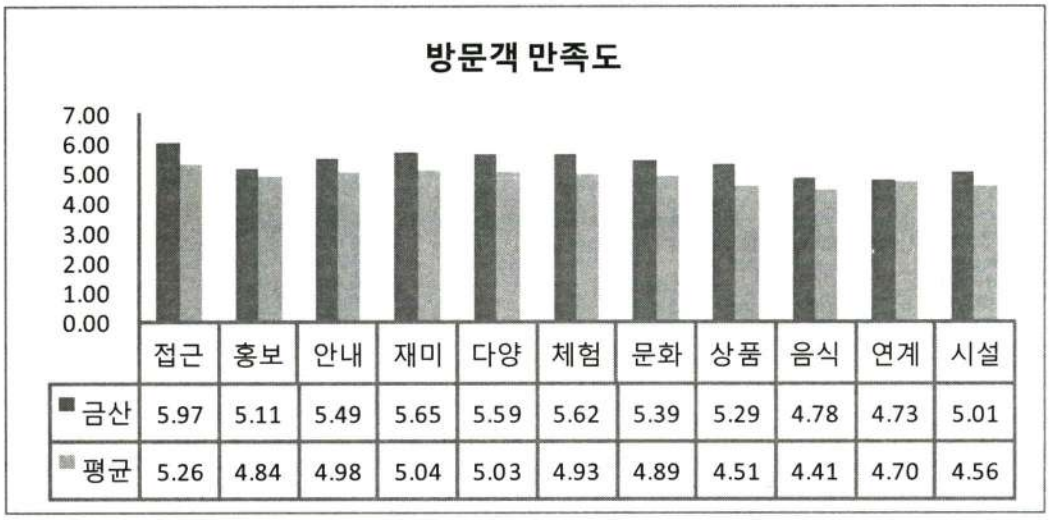
◈**소비지출** : 산업형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당 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의 씀씀이는 크지 않았다. 강경의 특산품인 '발효젓갈'로 인해 그나마 쇼핑비가 전국 평균을 약간 상회하였을 뿐 나머지 항목에서는 비교적 낮은 값을 보였다. 젓갈의 판매촉진은 물론 젓갈을 사용한 음식 등을 개발함으로써 소비지출을 늘려야 하겠다.



	숙박비	식음료	유흥비	쇼핑비	기타	합계
■ 젓갈	5,137	15,019	3,473	18,835	1,230	43,694
■ 평균	11,334	17,758	6,742	15,614	5,273	56,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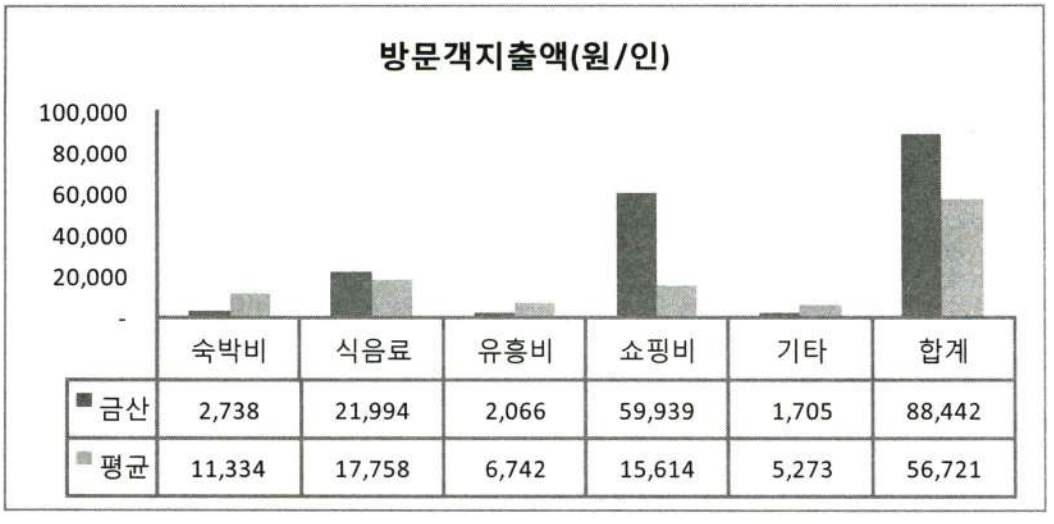
20 금산 인삼축제

◈만 족 도 : 설문결과만으로 볼 때 아주 탁월한 축제라고 판단된다. 재미와 다양성, 체험 등은 물론 상품과 음식, 그리고 접근성과 시설, 심지어 홍보와 안내까지 거의 흠잡을 데가 없다. 다만 앞으로 더 큰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장형 축제로부터 놀이형 축제로 탈바꿈시킬 필요가 있겠다.



	접근	홍보	안내	재미	다양	체험	문화	상품	음식	연계	시설
■금산	5.97	5.11	5.49	5.65	5.59	5.62	5.39	5.29	4.78	4.73	5.01
■평균	5.26	4.84	4.98	5.04	5.03	4.93	4.89	4.51	4.41	4.70	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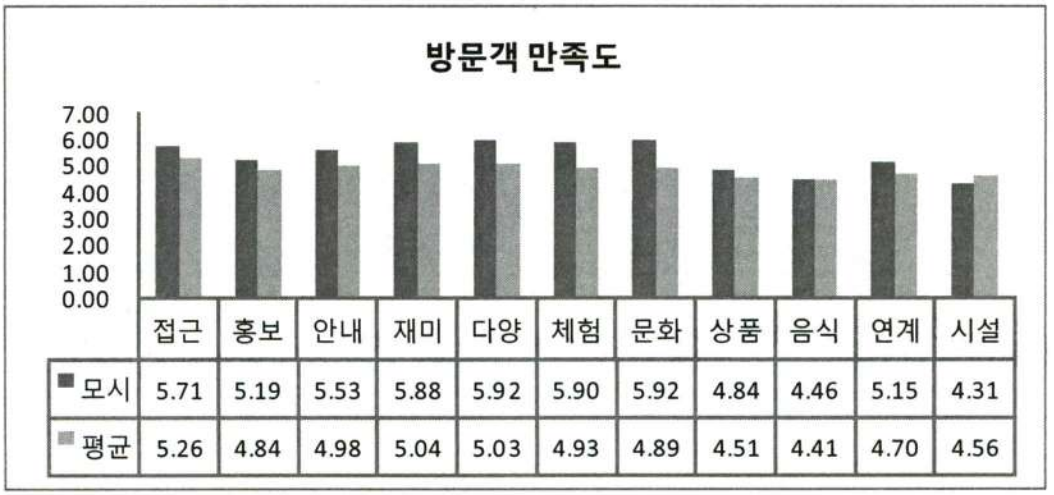
◈소비지출 : 시장형 축제의 선봉장답게 먹고 사가는 축제의 대명사로 자리를 잡았다. 쇼핑비와 식음료의 비중이 전체의 92%를 상회할 정도였으며, 특히 쇼핑비는 대부분 인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였다. 왜냐하면 '금산=인삼'이라는 이미지가 축제를 통해 확고하게 굳어졌기 때문이다.



	숙박비	식음료	유흥비	쇼핑비	기타	합계
■금산	2,738	21,994	2,066	59,939	1,705	88,442
■평균	11,334	17,758	6,742	15,614	5,273	56,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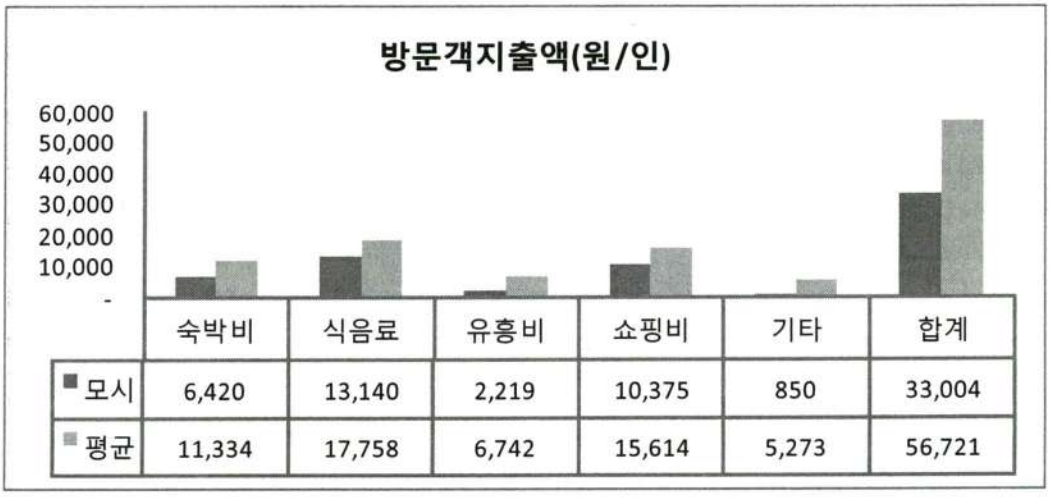
21 서천 한산모시축제

◈만 족 도 : 수치상으로는 금산인삼축제에 이어서 2012년도 문화관광축제 중에서 2번째로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였다. 그중에서도 축제의 핵심부문인 재미, 다양성, 체험, 문화 등은 물론 안내부문까지 전국 최고점수를 기록하였다. 이 점수가 현장의 모습이나 평가위원들의 점수와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의 의미는 있다고 본다. 세계무형유산을 소재로 한 축제답게 세계적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접근	홍보	안내	재미	다양	체험	문화	상품	음식	연계	시설
■모시	5.71	5.19	5.53	5.88	5.92	5.90	5.92	4.84	4.46	5.15	4.31
■평균	5.26	4.84	4.98	5.04	5.03	4.93	4.89	4.51	4.41	4.70	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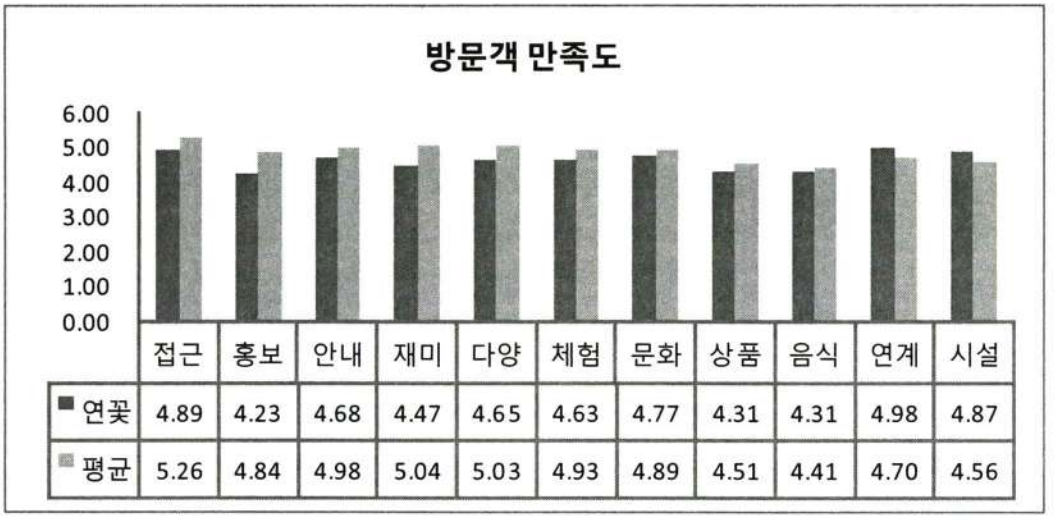
◈소비지출 : 당 축제는 한산모시가 소재인 산업형 축제에 해당된다. 그러나 방문객들은 쇼핑비를 비롯한 식음료, 숙박비 등에 별다른 소비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나가는 길에 구경이나 하는 축제로 전락한 느낌이 든다. 인류무형유산인 한산모시를 활용한 세계적 패션축제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숙박비	식음료	유흥비	쇼핑비	기타	합계
■모시	6,420	13,140	2,219	10,375	850	33,004
■평균	11,334	17,758	6,742	15,614	5,273	56,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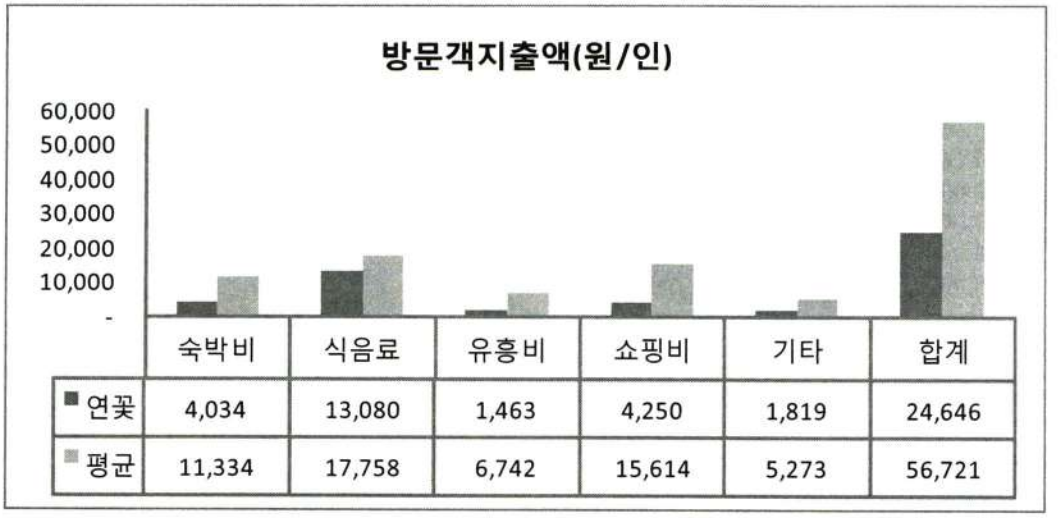
22 부여 서동연꽃축제

◈만 족 도 : 여름철 연꽃 개화기에 맞춰 진행되는 까닭에 한낮 활동에 제약이 따른다.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을 펼치기 힘이 들 것으로 예측되는바, 이는 만족도 저하로 입증되었다. 연계관광과 편의시설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특히 재미와 다양성은 물론 홍보와 안내 항목도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심기일전 분발이 요구되는 축제이다.



	접근	홍보	안내	재미	다양	체험	문화	상품	음식	연계	시설
■ 연꽃	4.89	4.23	4.68	4.47	4.65	4.63	4.77	4.31	4.31	4.98	4.87
■ 평균	5.26	4.84	4.98	5.04	5.03	4.93	4.89	4.51	4.41	4.70	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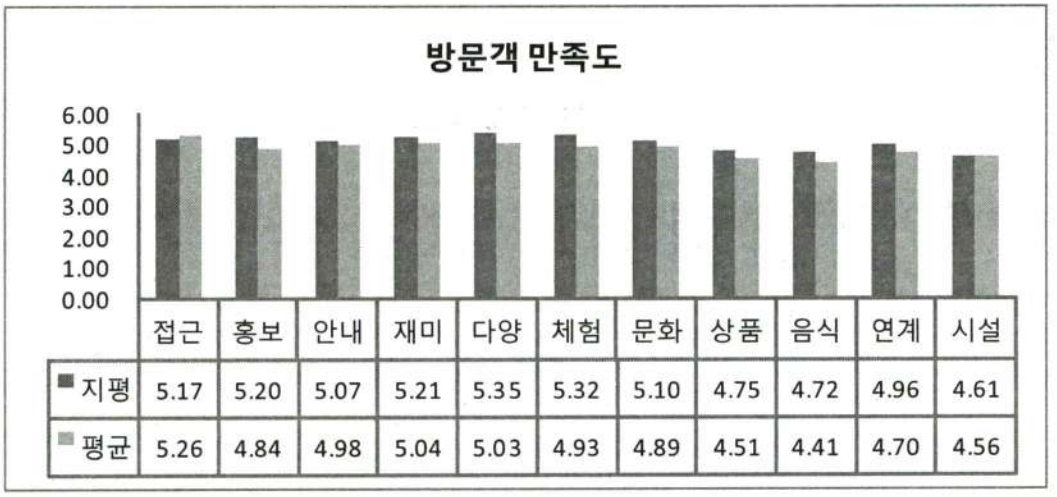
◈소비지출 : 한 여름 더위를 쫓기 위한 식음료 등에서만 소비활동이 이루어졌는지 숙박비, 유흥비 등의 지출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인근에 위치한 백제문화단지 또는 부소산성, 박물관 등과 연계하여 연꽃축제 방문객들의 소비지출을 촉진하는 전략마련이 필요하다.



	숙박비	식음료	유흥비	쇼핑비	기타	합계
■ 연꽃	4,034	13,080	1,463	4,250	1,819	24,646
■ 평균	11,334	17,758	6,742	15,614	5,273	56,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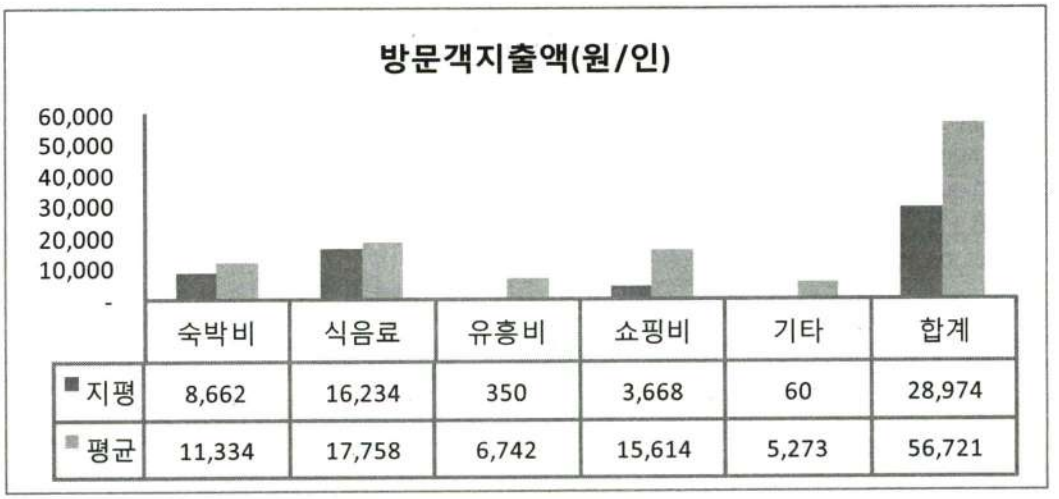
23 김제 지평선축제

◈만 족 도 : 접근성을 제외한 모든 측정항목에서 평균 이상의 값을 기록하였다. 벽골제공원 일원에 펼쳐진 다양한 공간과 프로그램 덕분에 방문객들이 느끼는 재미, 다양, 체험 등 축제핵심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음식과 상품, 연계관광 등에 대해서도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기록하였다.



	접근	홍보	안내	재미	다양	체험	문화	상품	음식	연계	시설
■지평	5.17	5.20	5.07	5.21	5.35	5.32	5.10	4.75	4.72	4.96	4.61
■평균	5.26	4.84	4.98	5.04	5.03	4.93	4.89	4.51	4.41	4.70	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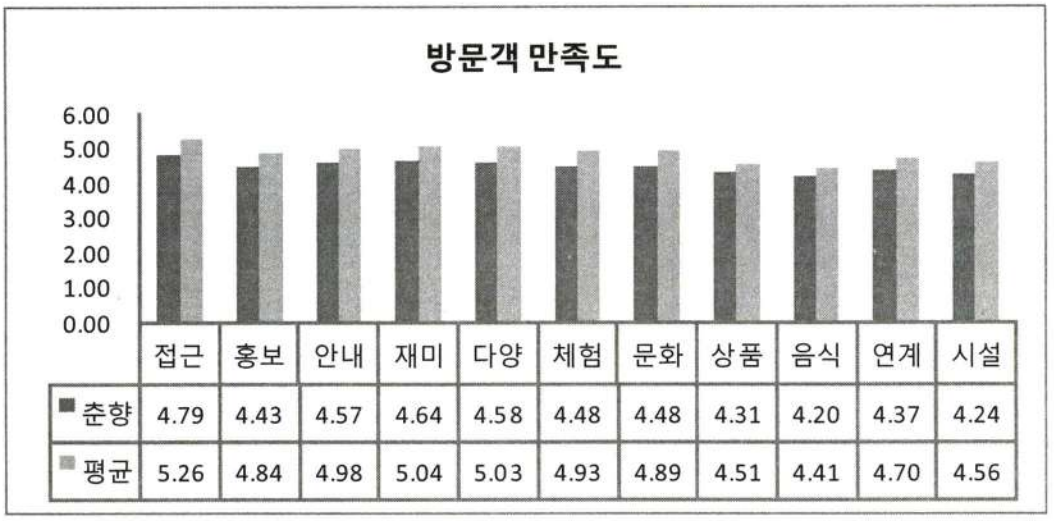
◈소비지출 : 설문조사 표본 중 외지관광객 비율이 13.8%에 불과할 정도로 주민비율이 높았다. 그로 인해 쇼핑비와 같은 항목에서 소비지출 금액이 아주 낮게 나타났다. 여기서 축제장에 나온 주민들이 먹고 마신 식음료비는 이해가 갔지만 의외로 숙박비까지 높게 나타났는바 이는 해석이 곤란해진다. 전체적으로 표본추출 및 설문분석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숙박비	식음료	유흥비	쇼핑비	기타	합계
■지평	8,662	16,234	350	3,668	60	28,974
■평균	11,334	17,758	6,742	15,614	5,273	56,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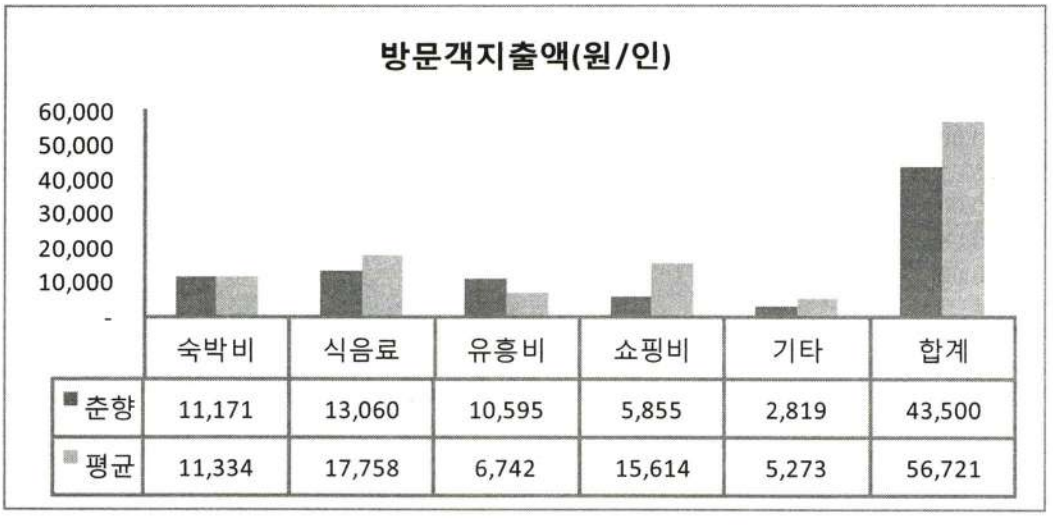
24 남원 춘향제

◈만 족 도 : 현존하는 문화관광축제 중에서 가장 오랜 연륜을 지닌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방문객들의 만족도는 신통치 않게 나타났다. 모든 측정항목에서 평균값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특히 재미와 다양성, 체험 심지어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까지 너무나 낮은 값을 보여주었다. 향후 문화관광축제로 존속하려면 대대적인 혁신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접근	홍보	안내	재미	다양	체험	문화	상품	음식	연계	시설
춘향	4.79	4.43	4.57	4.64	4.58	4.48	4.48	4.31	4.20	4.37	4.24
평균	5.26	4.84	4.98	5.04	5.03	4.93	4.89	4.51	4.41	4.70	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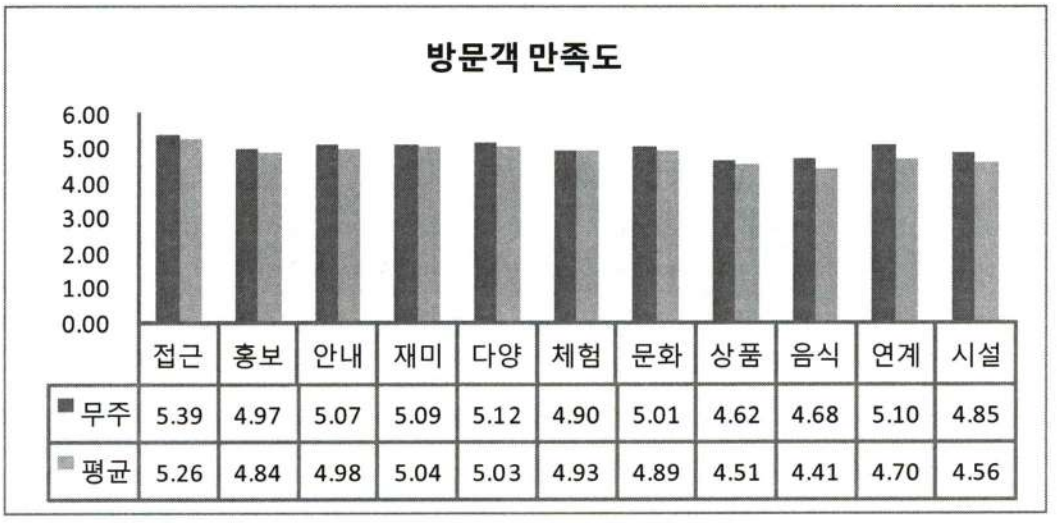
◈소비지출 : 유흥비와 숙박비는 평균값을 상회하거나 비슷한 값을 보였다. 그러나 식음료비를 비롯하여 쇼핑비 등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쇼핑비의 경우 당 축제가 개최되는 봄철에 남원시에서 판매할만한 농특산물이 별로 없다는 계절적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숙박비	식음료	유흥비	쇼핑비	기타	합계
춘향	11,171	13,060	10,595	5,855	2,819	43,500
평균	11,334	17,758	6,742	15,614	5,273	56,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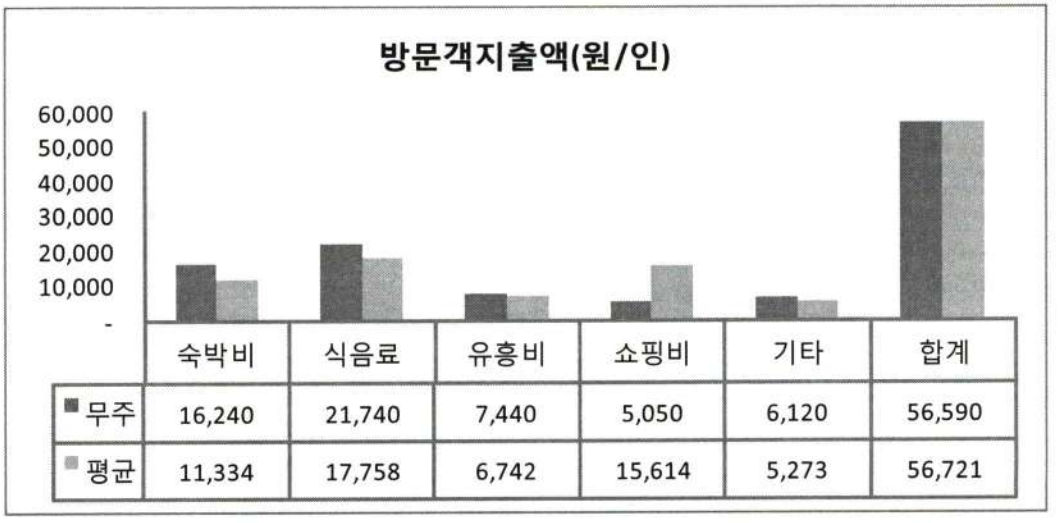
25 무주 반딧불축제

◈만 족 도 : 전반적으로 평균값을 상회할 정도로 무난한 값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무주리조트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연계관광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우수한 값을 보였다.



	접근	홍보	안내	재미	다양	체험	문화	상품	음식	연계	시설
무주	5.39	4.97	5.07	5.09	5.12	4.90	5.01	4.62	4.68	5.10	4.85
평균	5.26	4.84	4.98	5.04	5.03	4.93	4.89	4.51	4.41	4.70	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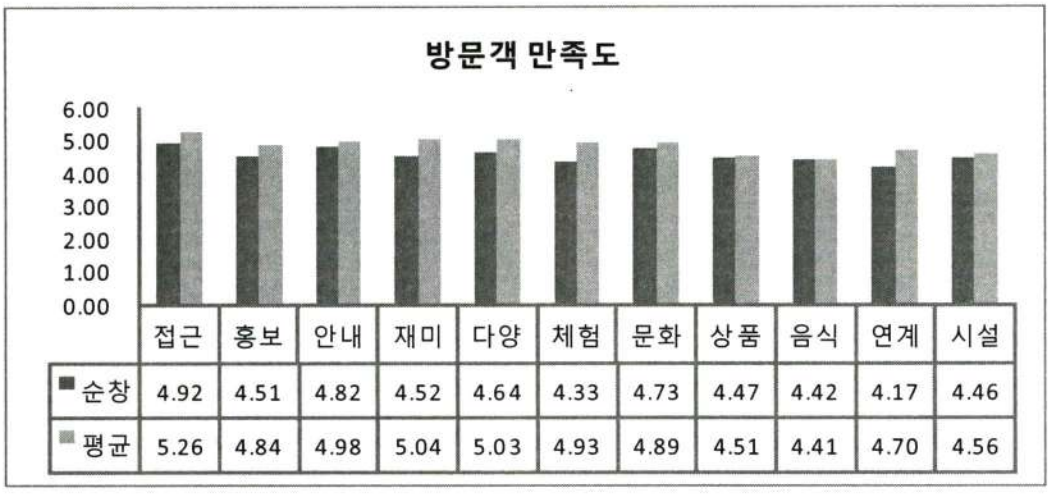
◈소비지출 : 당 축제는 초여름 신록이 우거진 무주리조트를 찾는 손님들에게 안성맞춤의 축제로 여겨지는 모양이다. 숙박비의 비중이 다른 축제에 비해 높은 편일 뿐만 아니라 식음료비와 유흥비의 지출도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이다. 다만 6월이라는 계절적 특성 때문에 산간지역인 무주에서 판매 가능한 상품들이 적으며 이로 인해 쇼핑비가 상당히 적게 나타났다.



	숙박비	식음료	유흥비	쇼핑비	기타	합계
무주	16,240	21,740	7,440	5,050	6,120	56,590
평균	11,334	17,758	6,742	15,614	5,273	56,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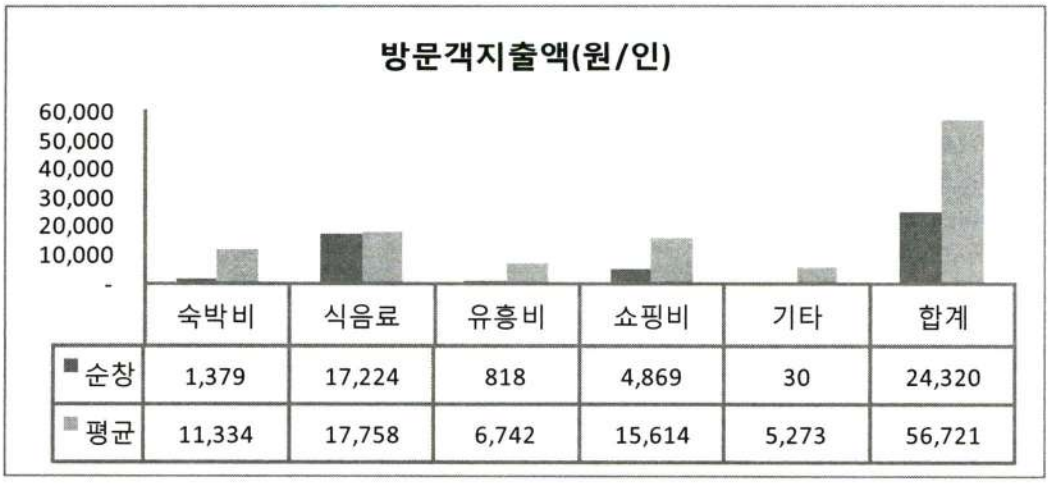
26 순창 장류축제

◈만 족 도 : 신생축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축제의 핵심 분야인 재미와 다양성, 체험 등에서 특히 저조한 값을 보였기 때문이다. 심지어 고추장과 같은 장류상품에 대한 만족도까지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비록 음식에서 평균을 약간 웃돌기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축제이다.



	접근	홍보	안내	재미	다양	체험	문화	상품	음식	연계	시설
■순창	4.92	4.51	4.82	4.52	4.64	4.33	4.73	4.47	4.42	4.17	4.46
■평균	5.26	4.84	4.98	5.04	5.03	4.93	4.89	4.51	4.41	4.70	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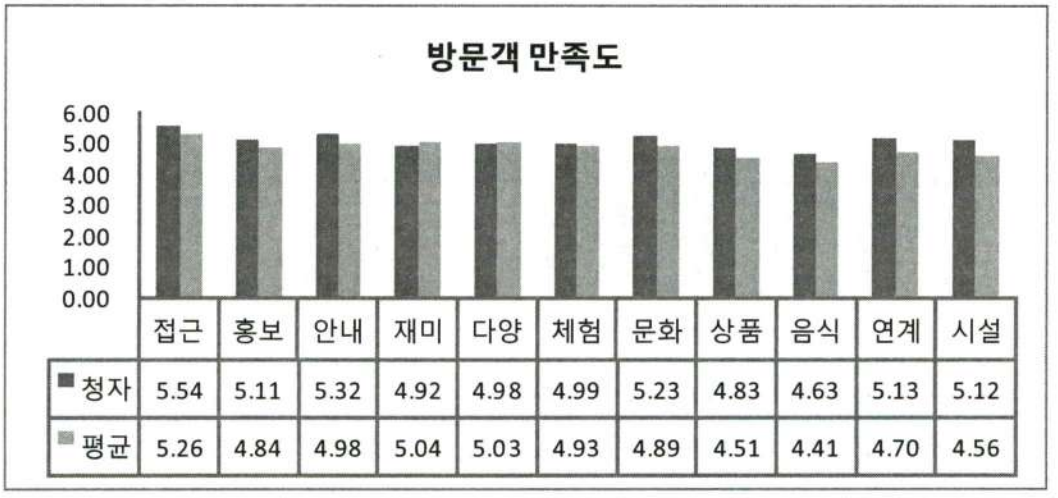
◈소비지출 : 산업형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방문객들의 소비지출이 전국 평균의 42%에 불과할 정도로 대단히 낮게 나타났다. 전체 축제 중에서 최하위권에 해당된다. 특히 당 축제의 핵심 상품인 장류 등에 대한 쇼핑비 역시 평균의 31%에 불과하였는데, 만족도와 함께 소비지출 증대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숙박비	식음료	유흥비	쇼핑비	기타	합계
■순창	1,379	17,224	818	4,869	30	24,320
■평균	11,334	17,758	6,742	15,614	5,273	56,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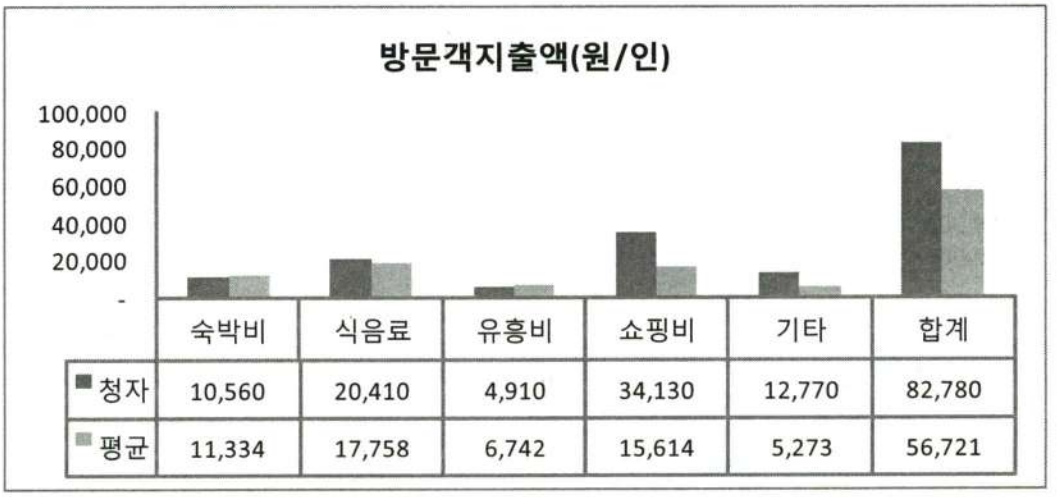
27 강진 청자축제

◈만 족 도 : 대한민국 대표축제의 명칭에 걸맞게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였다. 접근성, 사전홍보, 안내, 지역문화, 상품, 음식, 연계관광, 편의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 값이 모두 대단히 훌륭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축제의 핵심부분인 재미와 다양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 당 축제의 오락성과 즐거움을 배가할 수 있는 고민이 요구된다.



	접근	홍보	안내	재미	다양	체험	문화	상품	음식	연계	시설
■청자	5.54	5.11	5.32	4.92	4.98	4.99	5.23	4.83	4.63	5.13	5.12
■평균	5.26	4.84	4.98	5.04	5.03	4.93	4.89	4.51	4.41	4.70	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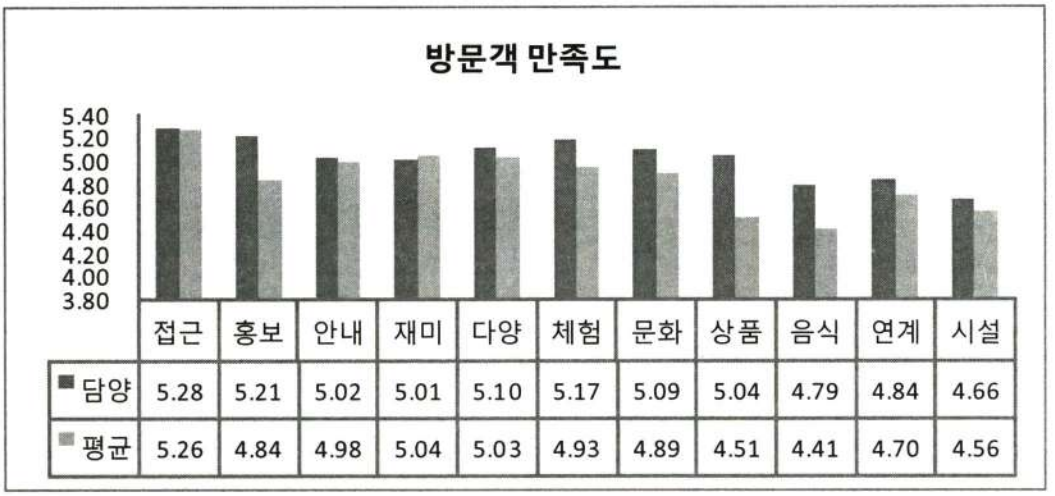
◈소비지출 : 산업형 축제의 전형을 보는 듯하다. 청자와 같은 축제상품에 대한 소비 지출이 확연하게 많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식음료와 숙박비 등에 대한 지출도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전술한 축제의 '재미' 만족도를 높이는 장치만 보충되어진다면 당 축제의 미래는 한층 더 밝아질 수 있겠다.



	숙박비	식음료	유흥비	쇼핑비	기타	합계
■청자	10,560	20,410	4,910	34,130	12,770	82,780
■평균	11,334	17,758	6,742	15,614	5,273	56,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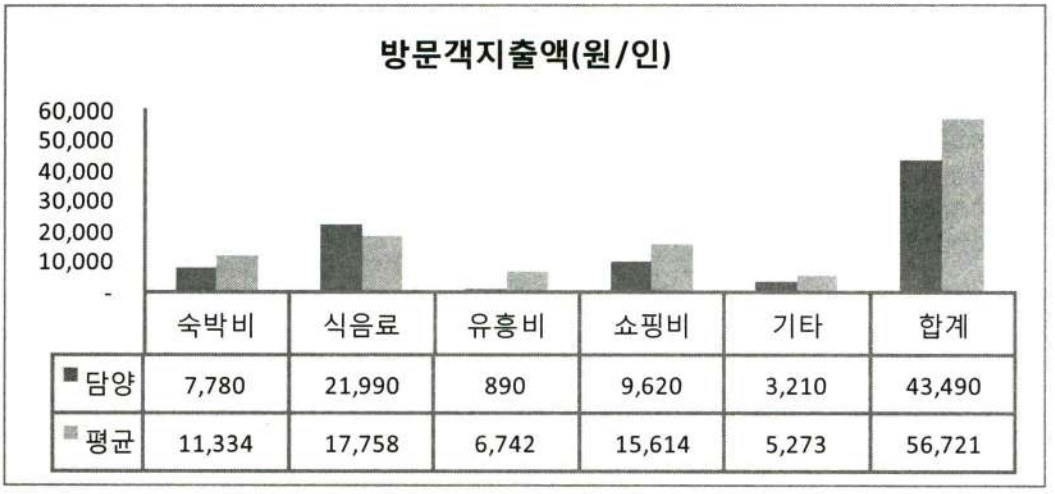
28 담양 대나무축제

◈만 족 도 : 예년에 비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획기적으로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사전홍보부터 상품, 음식 그리고 체험과 문화에 이르기까지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여기에 '재미'만 좀 더 강화된다면 문화관광축제를 대표할만한 선도적 축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접근	홍보	안내	재미	다양	체험	문화	상품	음식	연계	시설
담양	5.28	5.21	5.02	5.01	5.10	5.17	5.09	5.04	4.79	4.84	4.66
평균	5.26	4.84	4.98	5.04	5.03	4.93	4.89	4.51	4.41	4.70	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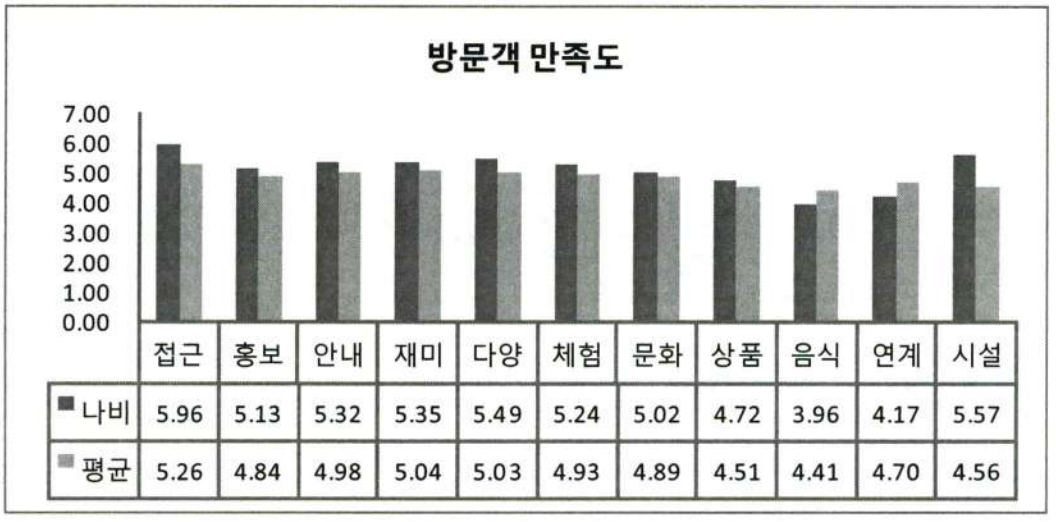
◈소비지출 : 죽세공의 고장 담양군. 전국 최고 수준의 상품만족도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값이 소비지출 행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와 식음료 지출 등으로 볼 때, 당 축제는 아직까지 산업축제의 틀을 확고히 다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대나무산업박람회를 개최할 경우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만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겠다.



	숙박비	식음료	유흥비	쇼핑비	기타	합계
담양	7,780	21,990	890	9,620	3,210	43,490
평균	11,334	17,758	6,742	15,614	5,273	56,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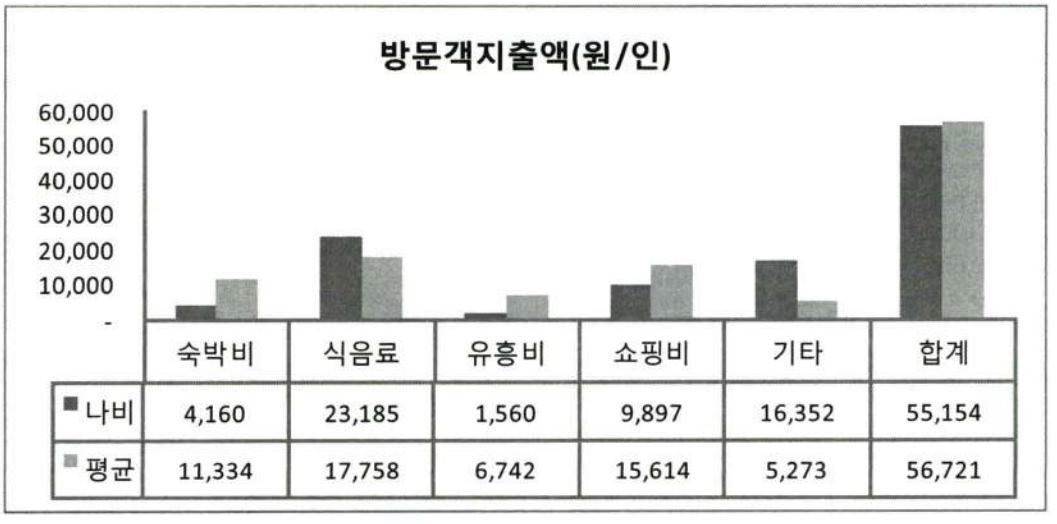
㉙ 함평 나비축제

◈만 족 도 : 함평 엑스포공원이라는 장소성 때문에 시설 및 접근성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밖에도 홍보, 안내, 재미, 다양성, 체험, 문화, 상품 등에서도 평균 이상의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다만 축제장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과 주변관광지를 연계하는 것에 대한 만족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므로 이에 대한 처방이 필요하다.



	접근	홍보	안내	재미	다양	체험	문화	상품	음식	연계	시설
■나비	5.96	5.13	5.32	5.35	5.49	5.24	5.02	4.72	3.96	4.17	5.57
■평균	5.26	4.84	4.98	5.04	5.03	4.93	4.89	4.51	4.41	4.70	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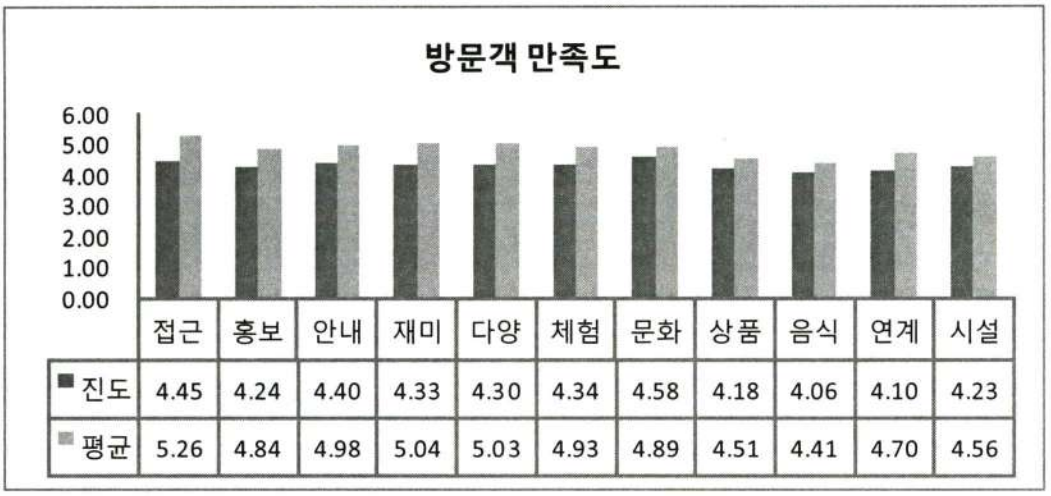
◈소비지출 : 입장료를 내고 엑스포 공원을 둘러보면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즐기는 방식으로 축제를 구성한 까닭에 기타(입장료 포함)와 식음료에 대한 소비지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전술하였듯이 연계관광 태세의 미비로 인해 숙박비와 유흥비 같은 축제장 외부에서 발생하는 소비는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비	식음료	유흥비	쇼핑비	기타	합계
■나비	4,160	23,185	1,560	9,897	16,352	55,154
■평균	11,334	17,758	6,742	15,614	5,273	56,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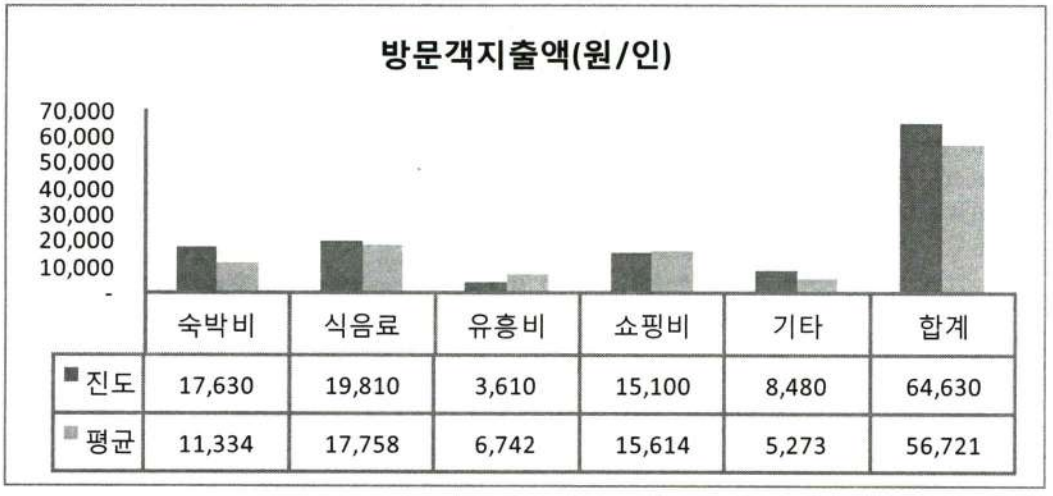
30 진도 신비의 바닷길축제

◈**만 족 도** : 모세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바닷길이 열리는 것을 기념한 축제로써 해외에서 더욱 유명하다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자연현상을 축제로 승화시키는 작업은 아직 부족해보였다. 축제방문객들이 평가한 만족도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향후 진도군이 보유한 문화예술 및 음식자원을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접근	홍보	안내	재미	다양	체험	문화	상품	음식	연계	시설
■진도	4.45	4.24	4.40	4.33	4.30	4.34	4.58	4.18	4.06	4.10	4.23
■평균	5.26	4.84	4.98	5.04	5.03	4.93	4.89	4.51	4.41	4.70	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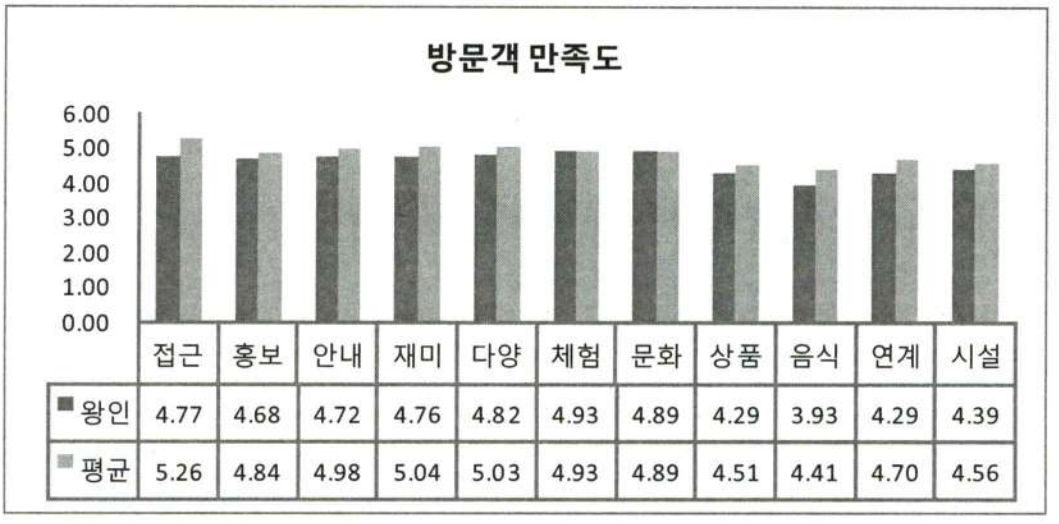
◈**소비지출** : 진도의 지리적 위치 때문에 숙박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식음료와 쇼핑비 등의 소비지출도 함께 증가하였다. 결국 신비의 바닷길축제를 통해 진도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이제는 만족도를 높이는 쪽으로 우선순위를 바꿀 필요가 있겠다.



	숙박비	식음료	유흥비	쇼핑비	기타	합계
■진도	17,630	19,810	3,610	15,100	8,480	64,630
■평균	11,334	17,758	6,742	15,614	5,273	56,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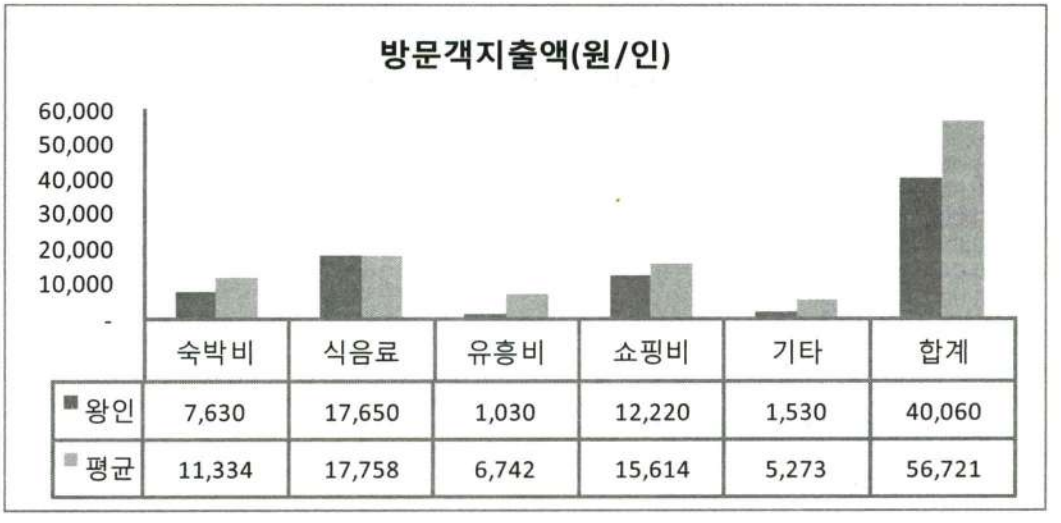
31 영암 왕인문화축제

◈만 족 도 : 당 축제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체 문화관광축제 중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던 관록의 축제였다. 지금도 체험, 문화 등에서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축제판도 및 방문객들의 선호도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적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까닭에 최근 들어 상당히 뒤처져 있다. 과거의 영화를 되찾기 위한 큰 분발이 요구된다.



	접근	홍보	안내	재미	다양	체험	문화	상품	음식	연계	시설
■왕인	4.77	4.68	4.72	4.76	4.82	4.93	4.89	4.29	3.93	4.29	4.39
■평균	5.26	4.84	4.98	5.04	5.03	4.93	4.89	4.51	4.41	4.70	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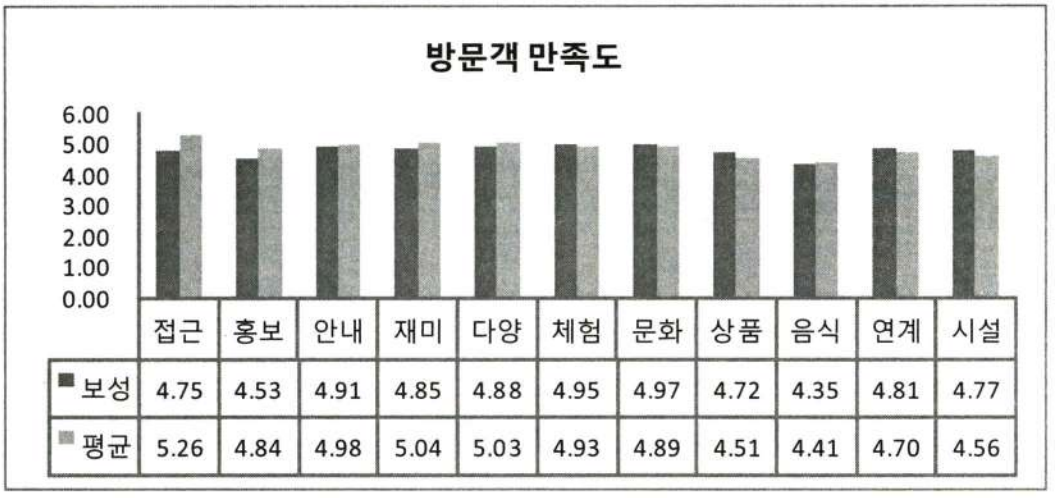
◈소비지출 : 축제가 열리는 왕인박사 유적지 일대는 벚꽃을 구경하러 나온 상춘객들로 북적이고 인근에 입지한 온천호텔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투숙을 한다. 이러한 행동특성으로 말미암아 식음료 지출을 필두로 쇼핑비와 숙박비 지출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축제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면 지역경제효과도 크게 늘어날 것이다.



	숙박비	식음료	유흥비	쇼핑비	기타	합계
■왕인	7,630	17,650	1,030	12,220	1,530	40,060
■평균	11,334	17,758	6,742	15,614	5,273	56,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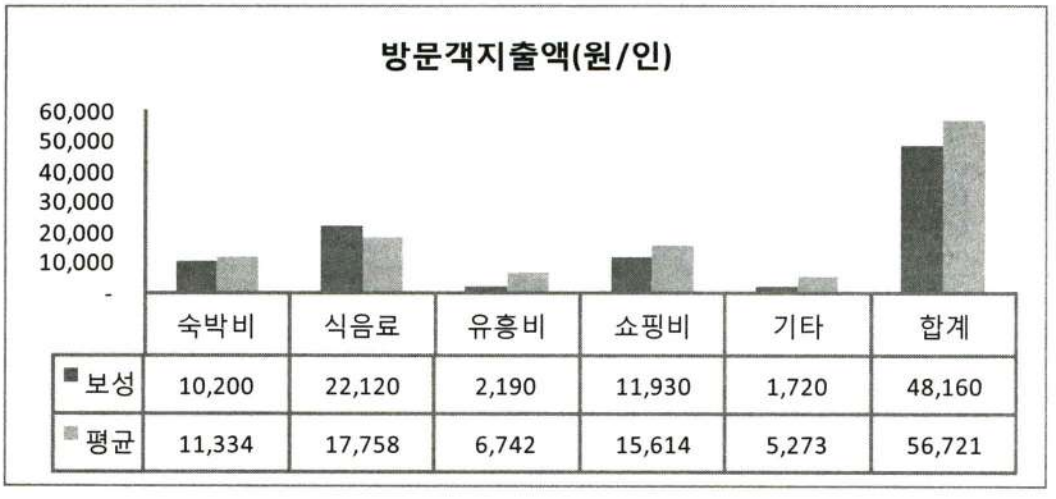
32 보성 다향제 · 녹차대축제

◈**만 족 도** : 비록 대도시로부터의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보성차밭은 봄을 상징하는 한폭의 그림과도 같다. 따라서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를 비롯하여 녹차상품, 연계관광, 각종 시설 등에 대한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차밭의 경치와 다르게 축제의 내적콘텐츠인 재미성과 다양성, 그리고 홍보와 안내 등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아 보였다.



	접근	홍보	안내	재미	다양	체험	문화	상품	음식	연계	시설
■보성	4.75	4.53	4.91	4.85	4.88	4.95	4.97	4.72	4.35	4.81	4.77
■평균	5.26	4.84	4.98	5.04	5.03	4.93	4.89	4.51	4.41	4.70	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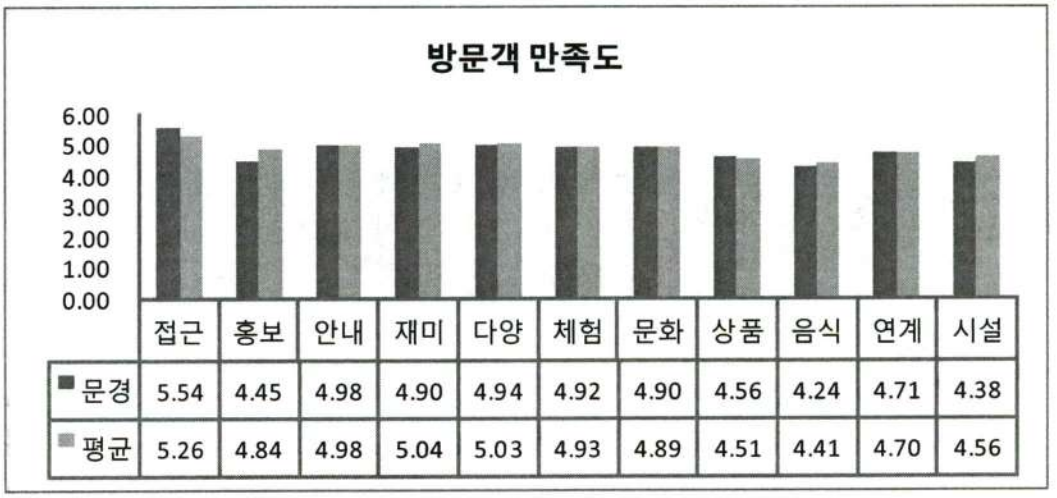
◈**소비지출** : 남도답사를 겸한 축제여행이라서 그런지 식음료와 숙박비에 대한 소비지출은 기대만큼 나타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녹차'라는 강력한 상품을 구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쇼핑비가 크게 부각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제부터라도 녹차 판촉을 연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



	숙박비	식음료	유흥비	쇼핑비	기타	합계
■보성	10,200	22,120	2,190	11,930	1,720	48,160
■평균	11,334	17,758	6,742	15,614	5,273	56,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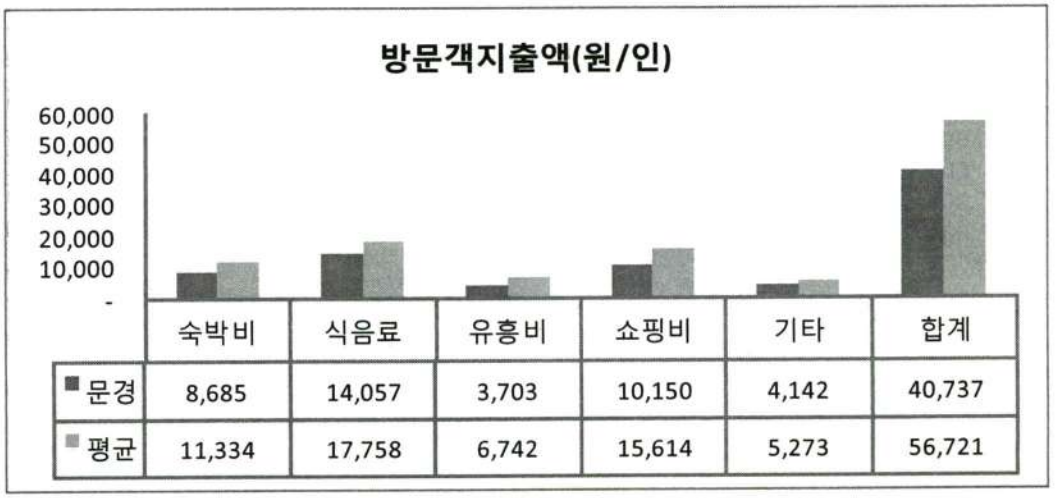
33 문경 전통찻사발축제

◈만 족 도 : 드라마세트장을 활용하여 축제장을 꾸민 까닭에 고풍스런 분위기가 물씬 풍겨났다. 여기에 문경새재 옛길까지 축제장 동선에 포함된 까닭에 당 축제장의 분위기는 가히 최고 수준으로 불릴만하였다. 그러나 축제 자체로서는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았다. 재미와 다양성은 물론 음식까지 평균 이하의 값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들 부문부터 개선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접근	홍보	안내	재미	다양	체험	문화	상품	음식	연계	시설
문경	5.54	4.45	4.98	4.90	4.94	4.92	4.90	4.56	4.24	4.71	4.38
평균	5.26	4.84	4.98	5.04	5.03	4.93	4.89	4.51	4.41	4.70	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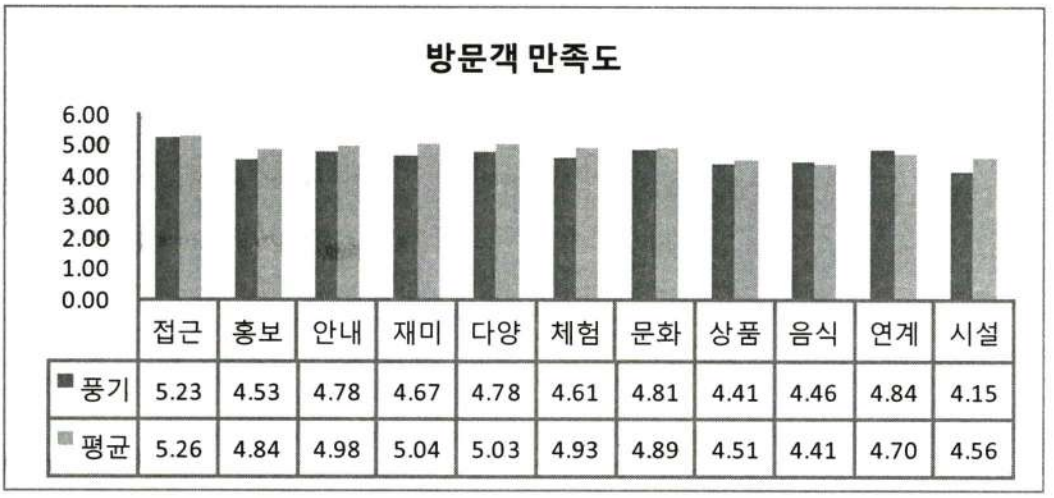
◈소비지출 : 축제방문객이나 걷기꾼들을 위한 숙박이나 식음료는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었으나, 당 축제에서 실제로 필요한 것은 찻사발 및 관련 제품에 대한 매출상승일 것이다. 그러나 이들 쇼핑비는 평균의 65%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만만치 않은 찻사발 가격 때문이었으리라. 향후 쇼핑비 증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숙박비	식음료	유흥비	쇼핑비	기타	합계
문경	8,685	14,057	3,703	10,150	4,142	40,737
평균	11,334	17,758	6,742	15,614	5,273	56,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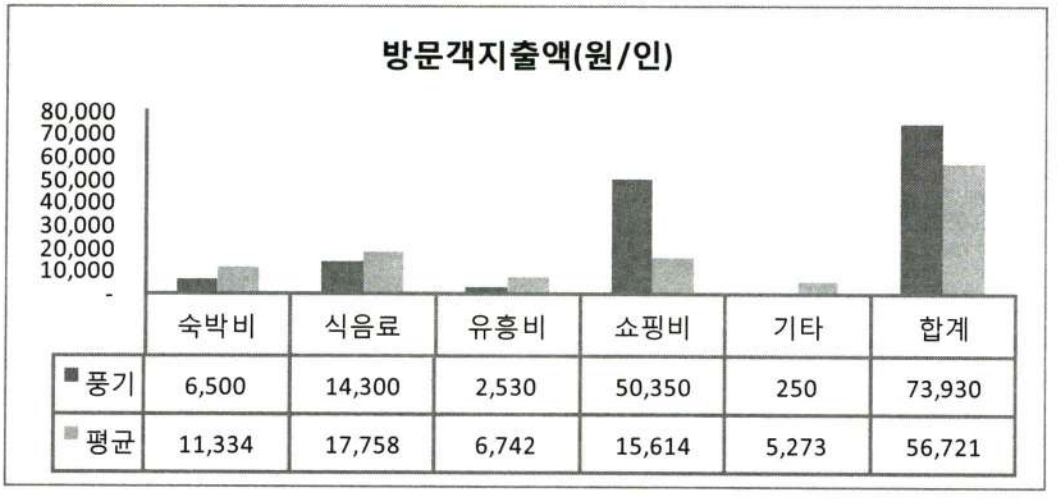
34 영주 풍기인삼축제

◈**만 족 도** : 경쟁축제인 금산인삼축제에 비해 방문객만족도 값이 상당히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축제의 연륜과 함께 축제장의 입지 때문에 빚어진 현상이 아닐까 추측해본다. 남원천변을 따라 골목식으로 구성한 축제장의 특성상 어울리고 머물기 보다는 구경하고 지나가는 동선으로 작용하는 까닭에 방문객들 역시 주최측이 마련한 프로그램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주마간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접근	홍보	안내	재미	다양	체험	문화	상품	음식	연계	시설
■풍기	5.23	4.53	4.78	4.67	4.78	4.61	4.81	4.41	4.46	4.84	4.15
■평균	5.26	4.84	4.98	5.04	5.03	4.93	4.89	4.51	4.41	4.70	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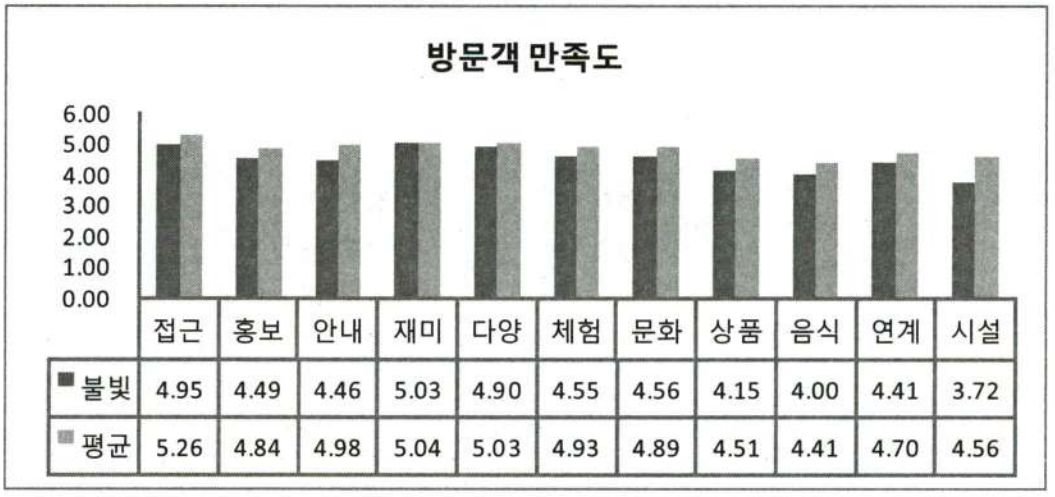
◈**소비지출** : 비록 축제장 동선에서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는 있었지만 역시 인삼은 최고의 쇼핑상품으로 대접을 받고 있었다. 금산인삼축제에 버금가는 쇼핑비를 기록하면서 전체 소비지출 금액의 ⅔에 해당되는 68%를 점유하였다. 산업축제의 전형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로 보이기에 충분하였다.



	숙박비	식음료	유흥비	쇼핑비	기타	합계
■풍기	6,500	14,300	2,530	50,350	250	73,930
■평균	11,334	17,758	6,742	15,614	5,273	56,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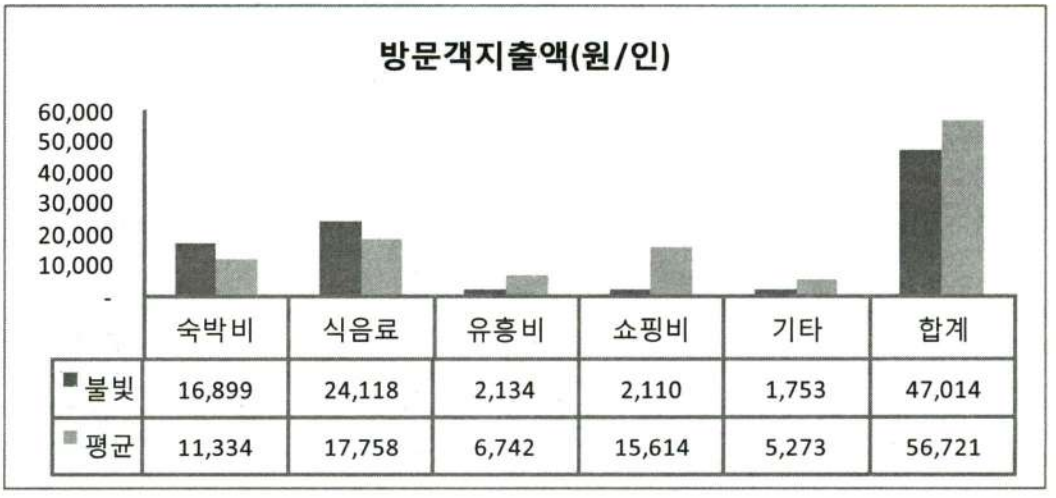
35 포항 국제불빛축제

◈만 족 도 : 어렸을 적 불장난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만큼 불은 사람을 자극하고 흥분시키고 즐겁게 만드는 마력을 지니고 있다. 밤하늘에 퍼지는 불꽃놀이는 보는 이의 마음을 동심으로 돌려놓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기도 한다. 당 축제는 아직 여러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많지만 '불'이라는 소재를 잘 활용한다면 세계적 축제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본다.



	접근	홍보	안내	재미	다양	체험	문화	상품	음식	연계	시설
■불빛	4.95	4.49	4.46	5.03	4.90	4.55	4.56	4.15	4.00	4.41	3.72
■평균	5.26	4.84	4.98	5.04	5.03	4.93	4.89	4.51	4.41	4.70	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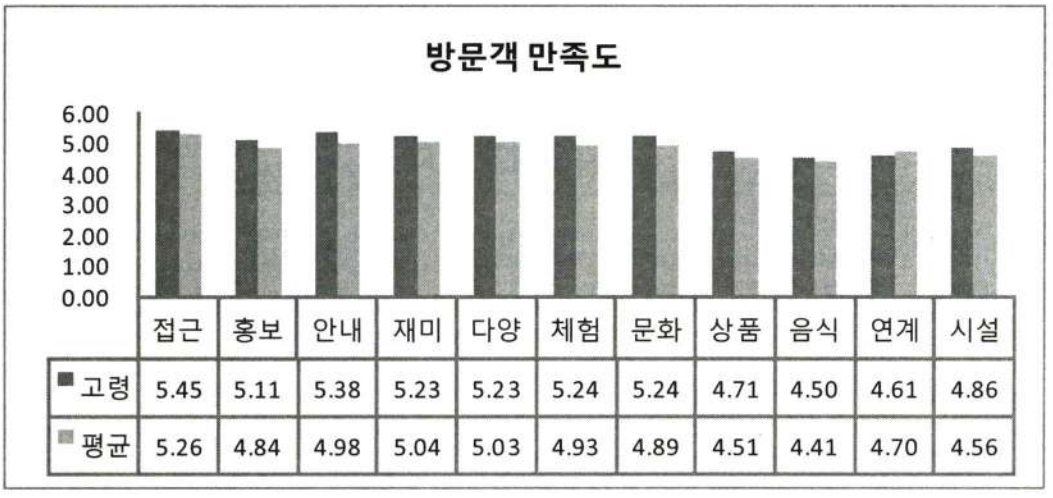
◈소비지출 : 한 밤중에 밤하늘에 번쩍이는 불꽃을 봐야하기 때문에 자고 먹는 것이 기본지출이 된다. 따라서 당 축제는 식음료비와 숙박비 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다만 야간축제를 기다리는 사람을 대상으로 유흥비와 쇼핑비 지출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숙박비	식음료	유흥비	쇼핑비	기타	합계
■불빛	16,899	24,118	2,134	2,110	1,753	47,014
■평균	11,334	17,758	6,742	15,614	5,273	56,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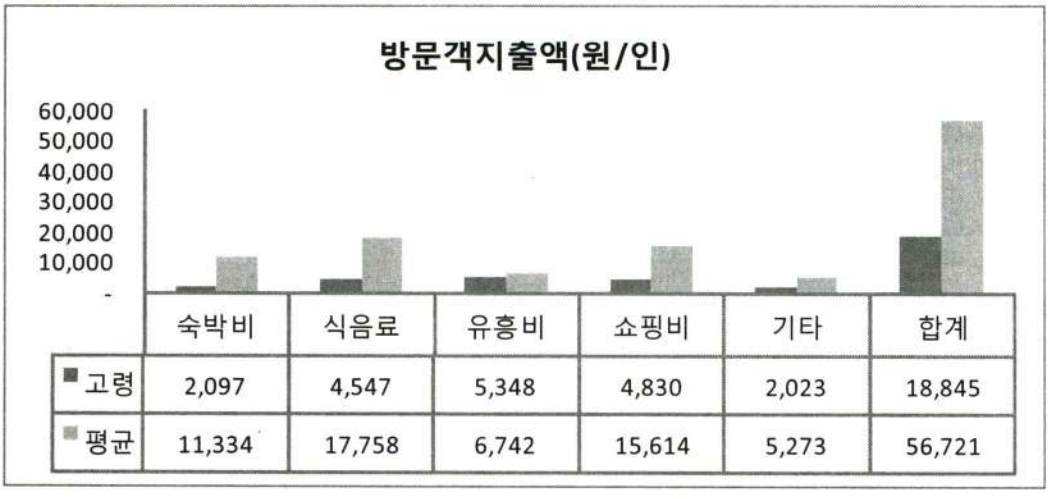
36 고령 대가야체험축제

◈만 족 도 : 지표상으로는 대단히 우수한 축제로 평가된다. 연계관광을 제외한 모든 측정항목에서 전국 평균값을 크게 상회하는 좋은 결과를 보였기 때문이다. 특별히 지적할 사항은 없다.



	접근	홍보	안내	재미	다양	체험	문화	상품	음식	연계	시설
■고령	5.45	5.11	5.38	5.23	5.23	5.24	5.24	4.71	4.50	4.61	4.86
■평균	5.26	4.84	4.98	5.04	5.03	4.93	4.89	4.51	4.41	4.70	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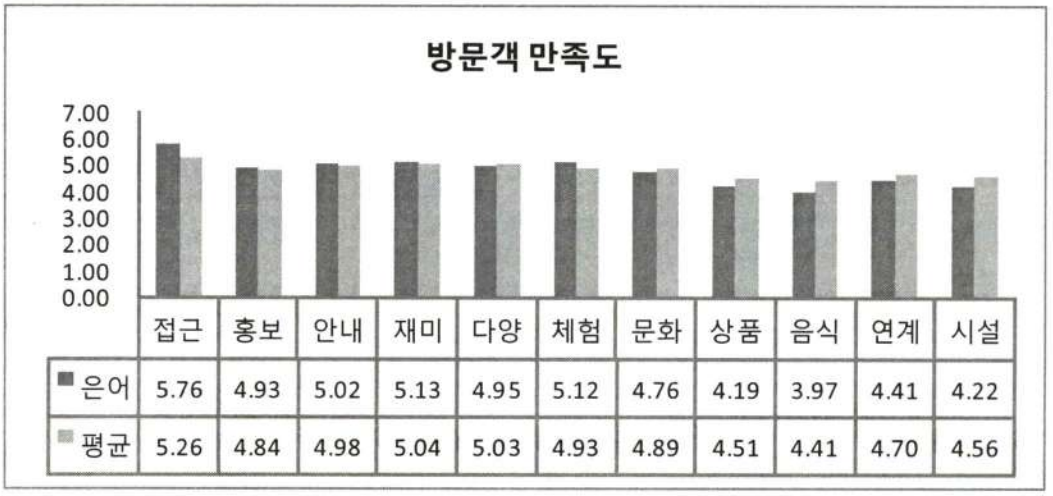
◈소비지출 : 대가야체험축제 방문객들의 높은 만족도 값이 축제장에서의 소비지출로 연결되지 못하였다. 당 축제의 소비지출 금액이 전체 44개 비교대상축제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대가야문화를 체험하도록 한 교육적 의도는 좋았으나,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거의 이루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축제의 필수성공요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방문객을 대상으로 쇼핑이나 식음료 매출을 촉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숙박비	식음료	유흥비	쇼핑비	기타	합계
■고령	2,097	4,547	5,348	4,830	2,023	18,845
■평균	11,334	17,758	6,742	15,614	5,273	56,721

37 봉화 은어축제

◈만 족 도 : 예전 송이축제 대신에 급부상한 새로운 축제로써 재미와 다양성, 체험 등에서는 만족할만한 수준에 도달하였다. 더불어 접근성, 사전홍보, 안내시스템 등도 방문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상품과 음식, 연계관광, 편의시설, 지역문화 등에서는 개선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 앞으로 은어를 활용한 상품과 음식개발이 보완된다면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다.



	접근	홍보	안내	재미	다양	체험	문화	상품	음식	연계	시설
■은어	5.76	4.93	5.02	5.13	4.95	5.12	4.76	4.19	3.97	4.41	4.22
■평균	5.26	4.84	4.98	5.04	5.03	4.93	4.89	4.51	4.41	4.70	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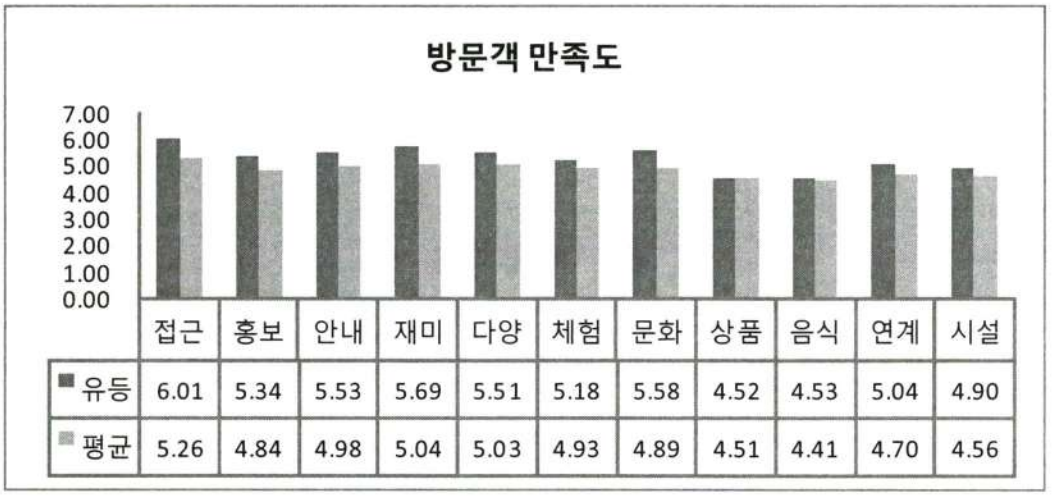
◈소비지출 : 여름 휴가철에 맞춰 축제가 열리는 까닭에 숙박비와 식음료비 등의 항목에서 평균에 육박하는 값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예전의 '송이'와 다르게 은어를 활용한 상품개발이 여의치 않은 까닭에 쇼핑비 매출이 기대 밖으로 저조하였다. 비록 인공 양식한 은어이지만 반찬과 안주 등으로 보급하여 시장을 넓힐 필요가 있다.



	숙박비	식음료	유흥비	쇼핑비	기타	합계
■은어	7,660	16,360	3,579	4,422	5,005	37,026
■평균	11,334	17,758	6,742	15,614	5,273	56,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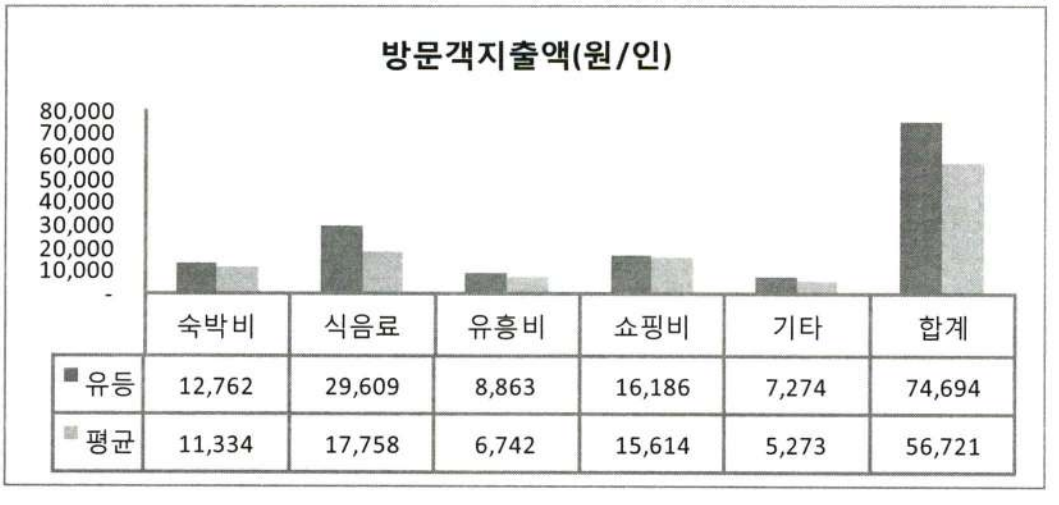
38 진주 남강유등축제

◈**만 족 도** : 야간축제의 진면목을 여실히 보여준 축제였다. 대부분의 축제가 주간에만 개장하다가 땅거미가 지면 문을 닫는데 비해, 당 축제는 밤에 빛이 나는 축제이다. 특히 도시에 거주하는 직장인들의 퇴근시간에 맞춰 축제가 시작되므로 평일에도 사람들로 북적이는 축제가 되었다. 이처럼 소비자 중심의 축제인 덕택에 모든 항목에서 대단히 훌륭한 평가점수를 보였다. 축제의 핵심인 재미와 지역문화 등에서부터 상품과 음식에 이르기까지 호평을 받았다.



	접근	홍보	안내	재미	다양	체험	문화	상품	음식	연계	시설
유등	6.01	5.34	5.53	5.69	5.51	5.18	5.58	4.52	4.53	5.04	4.90
평균	5.26	4.84	4.98	5.04	5.03	4.93	4.89	4.51	4.41	4.70	4.56

◈**소비지출** : 축제가 재미있으면 체류시간이 증가하고, 이는 결국 소비지출의 증대로 귀결된다. 식음료는 물론 숙박비, 유흥비, 쇼핑비 심지어 기타 비용까지 평균값을 크게 상회하는 소비행위가 발생하였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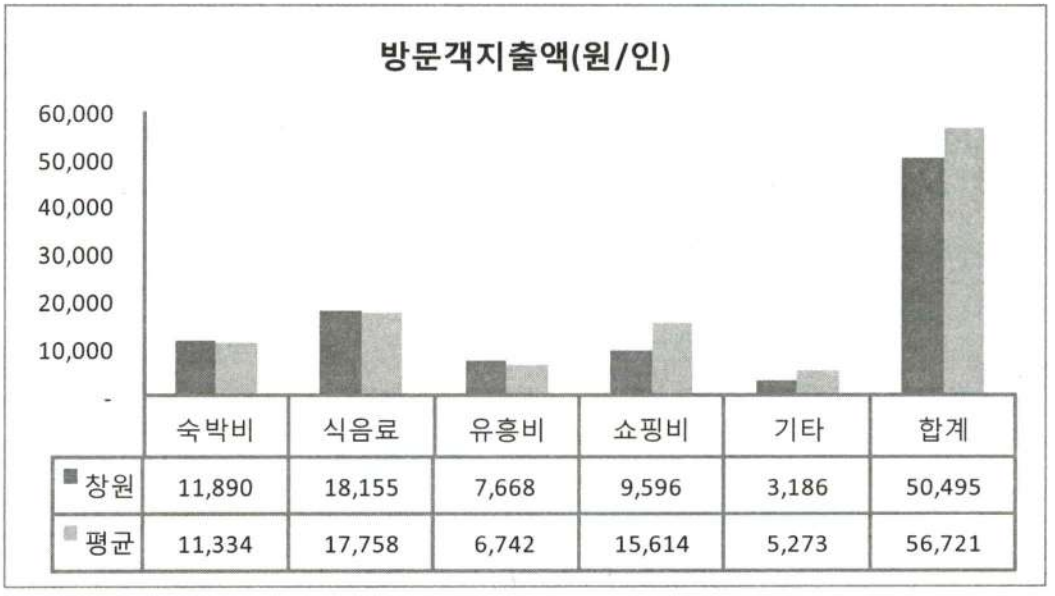


	숙박비	식음료	유흥비	쇼핑비	기타	합계
유등	12,762	29,609	8,863	16,186	7,274	74,694
평균	11,334	17,758	6,742	15,614	5,273	56,721

39 창원 가고파국화축제

◈만 족 도 :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문조사지침을 위배하였다. 7점 척도로 구성된 평가척도를 변형하지 말고 측정해야만 전국의 다른 축제와 비교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당 축제에서는 임의로 5점 척도로 변형하여 조사를 하였다. 따라서 본 항목에서 다룰 수 없음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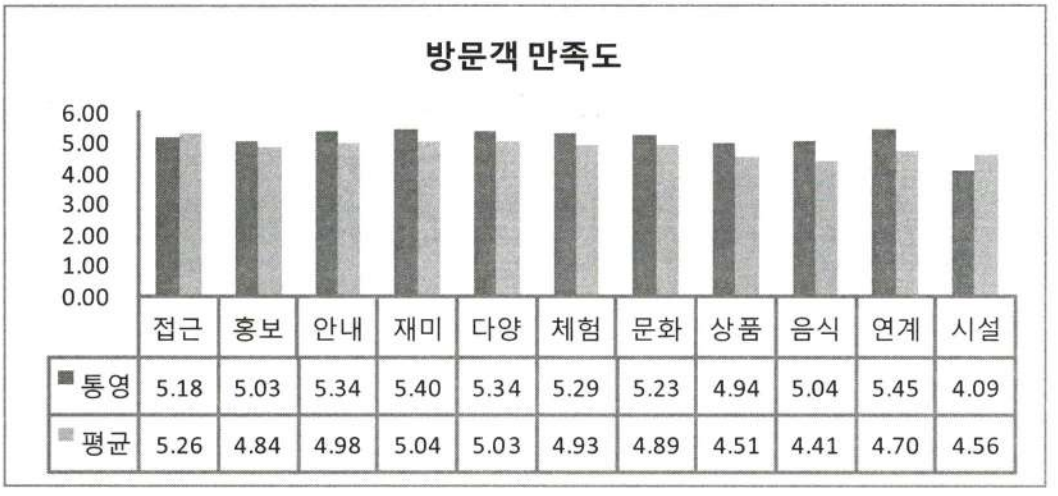
◈소비지출 : 가을의 전도사인 국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러 온 방문객들의 상당수가 숙박을 하면서 식음료를 소비하고 더불어 저녁시간에 유흥비까지 지출한 것으로 추측된다.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준으로 소비지출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쇼핑비 지출이 저조하므로 향후 이에 대한 대비책까지 수립하면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숙박비	식음료	유흥비	쇼핑비	기타	합계
창원	11,890	18,155	7,668	9,596	3,186	50,495
평균	11,334	17,758	6,742	15,614	5,273	56,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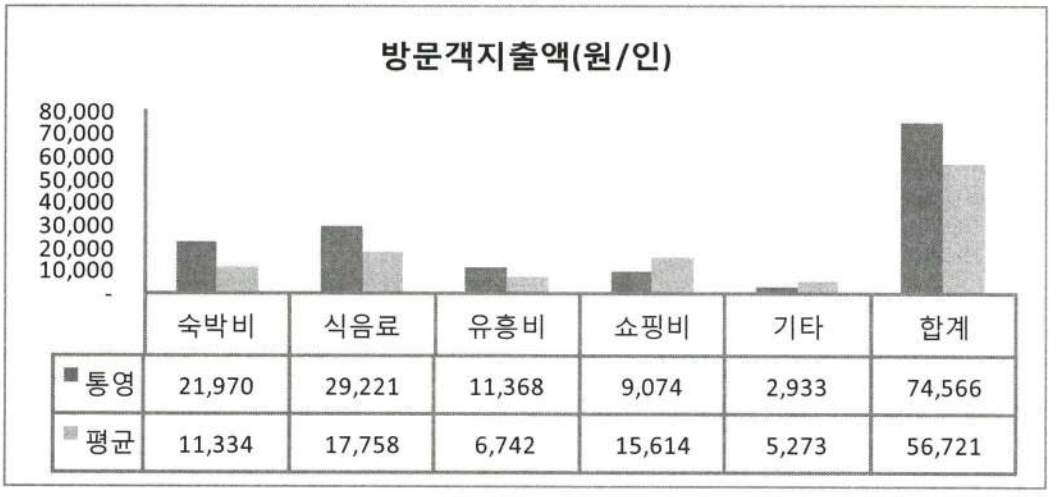
40 통영 한산대첩축제

◈만 족 도 :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을 기념하여 열리는 축제로써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축제로 알려져 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방문객들의 만족도 자체는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름철 혹서기에 야외에서 열리는 축제인 관계로 주차장, 화장실, 휴게시설과 같은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을 뿐이다.



	접근	홍보	안내	재미	다양	체험	문화	상품	음식	연계	시설
■통영	5.18	5.03	5.34	5.40	5.34	5.29	5.23	4.94	5.04	5.45	4.09
■평균	5.26	4.84	4.98	5.04	5.03	4.93	4.89	4.51	4.41	4.70	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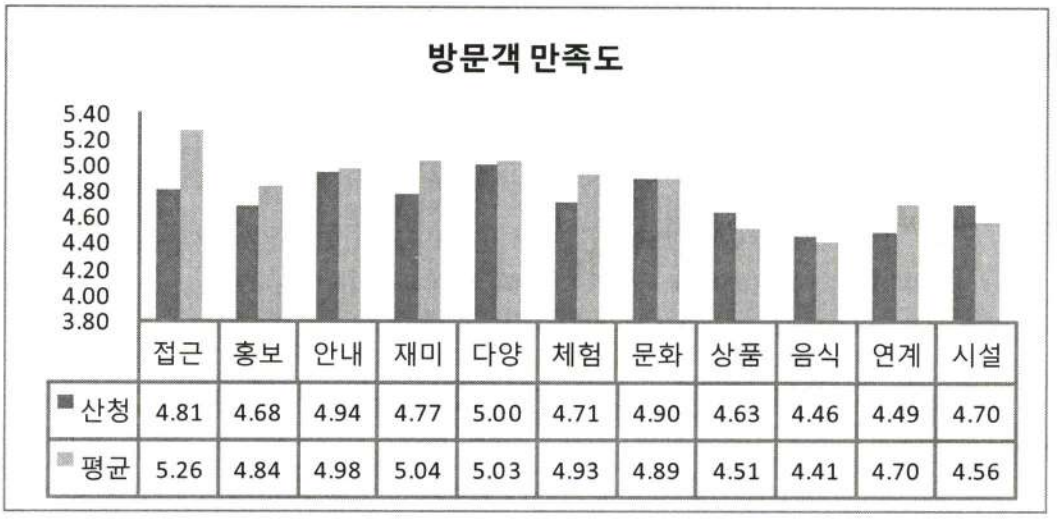
◈소비지출 : 여름휴가객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숙박비를 필두로 식음료비와 유흥비에 대한 지출이 눈에 띄게 높았다. 축제를 핑계로 통영지역의 여러 섬으로 휴가를 떠난 사람들이 많은 모양이다. 반면 쇼핑비 지출은 저조한데, 이는 축제장 인근에 있는 전통시장 및 어시장을 활용한 판매촉진책을 펼칠 경우 쇼핑비와 유흥비 등의 매출이 눈에 띄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숙박비	식음료	유흥비	쇼핑비	기타	합계
■통영	21,970	29,221	11,368	9,074	2,933	74,566
■평균	11,334	17,758	6,742	15,614	5,273	56,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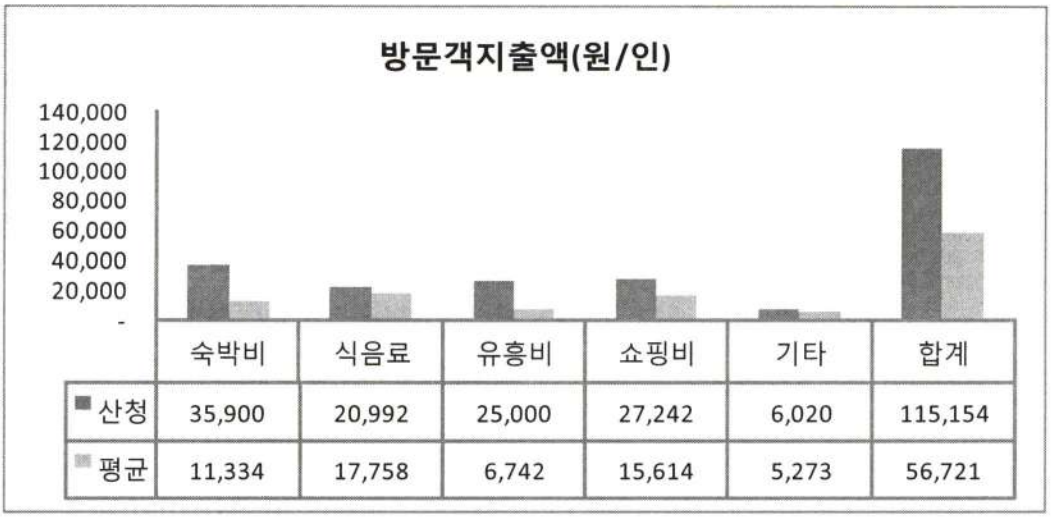
41 산청 한방약초축제

◈만 족 도 : 당 축제는 축제 자체로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으로 파악된다. 예컨대 축제의 핵심항목인 '재미'에 대한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전국 문화관광축제 중에서 하위권에 머물렀으나 상품과 음식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상품 등의 판매에 앞서 우선 축제의 기본을 갖춰야 하므로, 당 축제는 이제부터 '재미'를 배가하는데 힘을 쏟아야 하겠다.



	접근	홍보	안내	재미	다양	체험	문화	상품	음식	연계	시설
산청	4.81	4.68	4.94	4.77	5.00	4.71	4.90	4.63	4.46	4.49	4.70
평균	5.26	4.84	4.98	5.04	5.03	4.93	4.89	4.51	4.41	4.70	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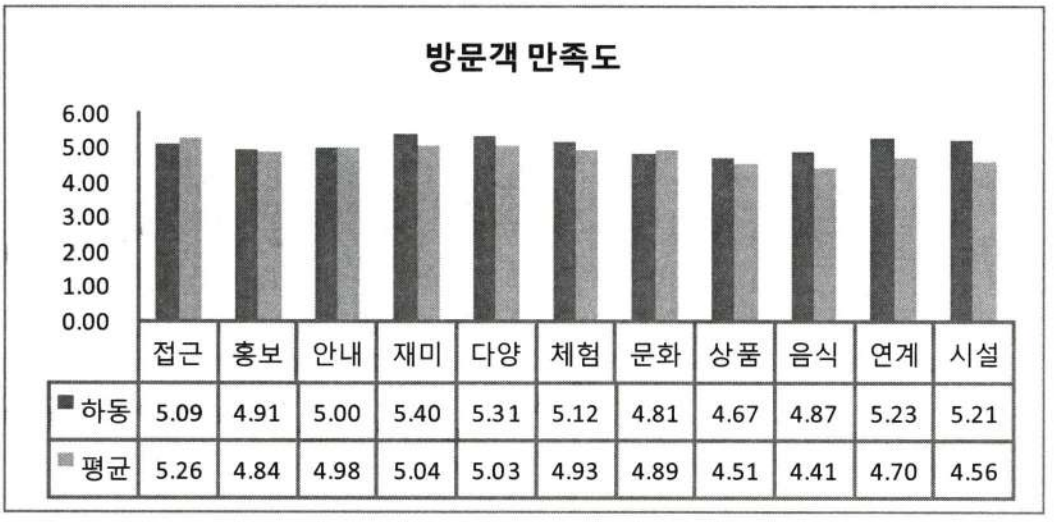
◈소비지출 : 화사한 봄날 지리산인근에서 열리는 축제답게 상당수 방문객들이 숙박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 숙박비 지출이 전국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았고, 그로 인해 유흥비, 쇼핑비, 식음료비 등도 함께 활발하게 지출된 것으로 보였다.



	숙박비	식음료	유흥비	쇼핑비	기타	합계
산청	35,900	20,992	25,000	27,242	6,020	115,154
평균	11,334	17,758	6,742	15,614	5,273	56,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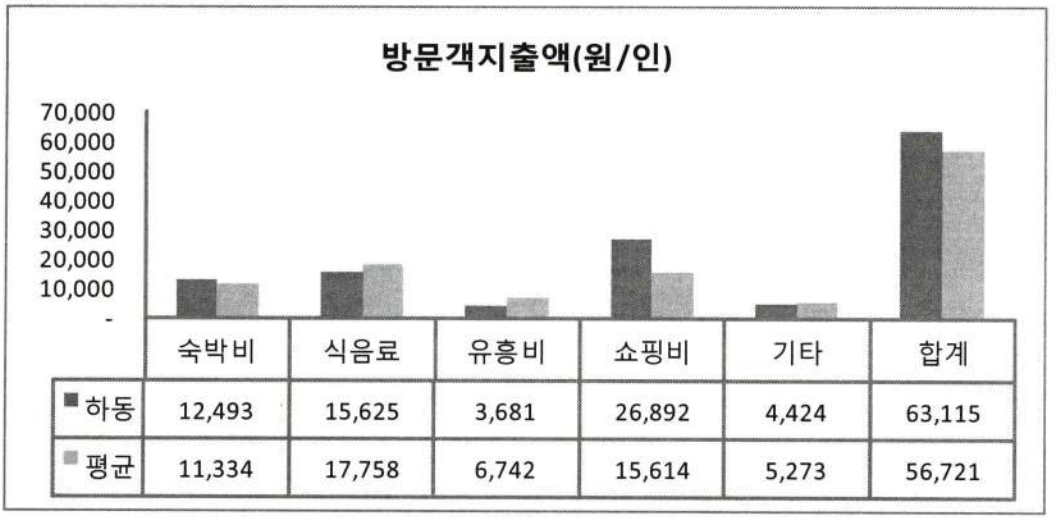
㊷ 하동 야생차문화축제

◈만 족 도 : 축제장소가 지리산 기슭이라서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가 약간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의 항목은 대단히 훌륭한 값을 보였다. 특히 축제의 재미를 비롯해 연계관광 및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밖에 음식, 상품, 체험과 다양성, 홍보와 앤내 등도 호평을 받았다.



	접근	홍보	안내	재미	다양	체험	문화	상품	음식	연계	시설
■하동	5.09	4.91	5.00	5.40	5.31	5.12	4.81	4.67	4.87	5.23	5.21
■평균	5.26	4.84	4.98	5.04	5.03	4.93	4.89	4.51	4.41	4.70	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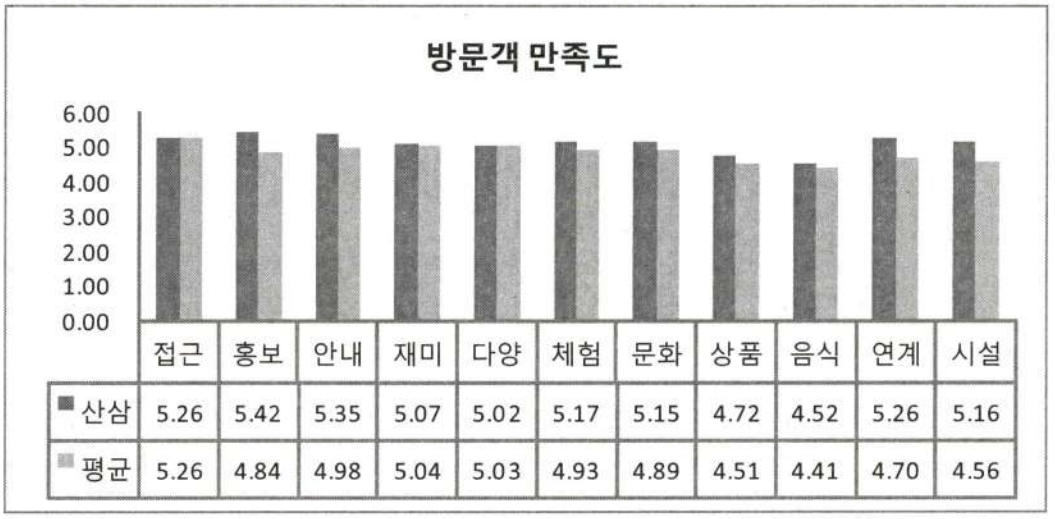
◈소비지출 : 지리산의 봄날은 화사하다. 많은 방문객들이 축제와 지리산을 오르거나 둘레길을 걸으면서 숙박을 한 것으로 보였다. 그들은 숙박지 주변의 야생차밭을 걷고 섬진강을 드라이브하고 악양 슬로시티를 구경하면서 자고, 먹고 마시고, 차와 산나물 등을 쇼핑한 것으로 보였다. 대체로 우수한 경제효과를 보였다.



	숙박비	식음료	유흥비	쇼핑비	기타	합계
■하동	12,493	15,625	3,681	26,892	4,424	63,115
■평균	11,334	17,758	6,742	15,614	5,273	56,721

43 함양 산삼축제

◈만 족 도 : 올해 처음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표상으로는 큰 무리가 없어 보였다. 비록 축제의 핵심부문인 재미와 다양성에서 전국평균과 엇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나머지 측정항목에서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나타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술할 소비지출에 관한 평가분석 결과표를 보면, 만족도에 관한 설문분석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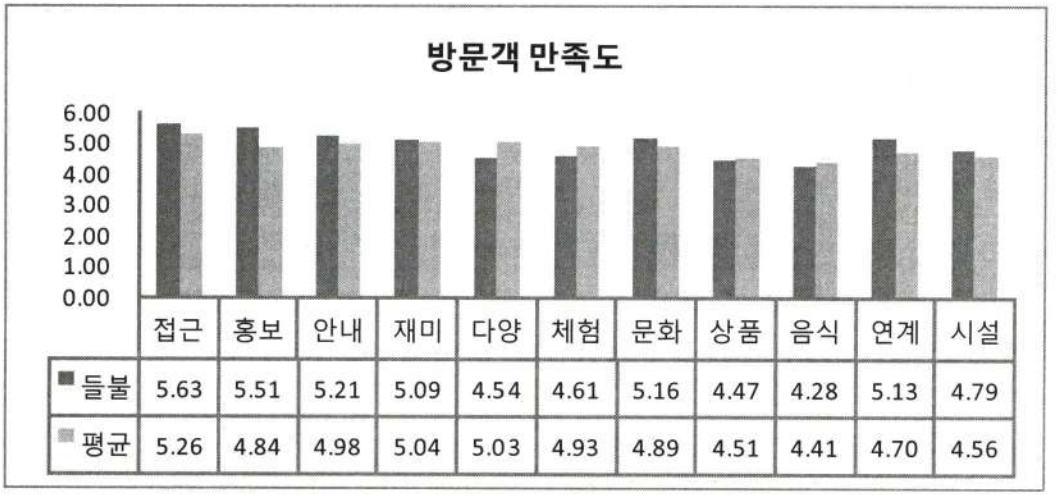


	접근	홍보	안내	재미	다양	체험	문화	상품	음식	연계	시설
산삼	5.26	5.42	5.35	5.07	5.02	5.17	5.15	4.72	4.52	5.26	5.16
평균	5.26	4.84	4.98	5.04	5.03	4.93	4.89	4.51	4.41	4.70	4.56

◈소비지출 : 주최측에서 제출한 함양 산삼축제 평가보고서를 검토해 보면, 설문조사 및 통계표 작성 과정에 심각한 회의감이 든다. 소비지출의 경우만 해도 교통비를 빼고도 방문객 1인당 235,973원을 지출한 것으로 합계란에 표기하였는데, 실제로 숙박비, 식음료, 유흥비, 쇼핑비, 기타 비용을 합하면 무려 435,383원에 이른다. 중대한 합산의 오류였다. 한편 주최측에서는 30만명이 방문하여 10억원의 판매효과 및 60억원의 파급효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서 30만명이 1인당 43만원을 소비했다면 지역경제효과는 무려 1,300억원을 넘어선다. 이렇듯 중대한 통계오류가 발생하였으므로 여타 축제와 비교할 수 없음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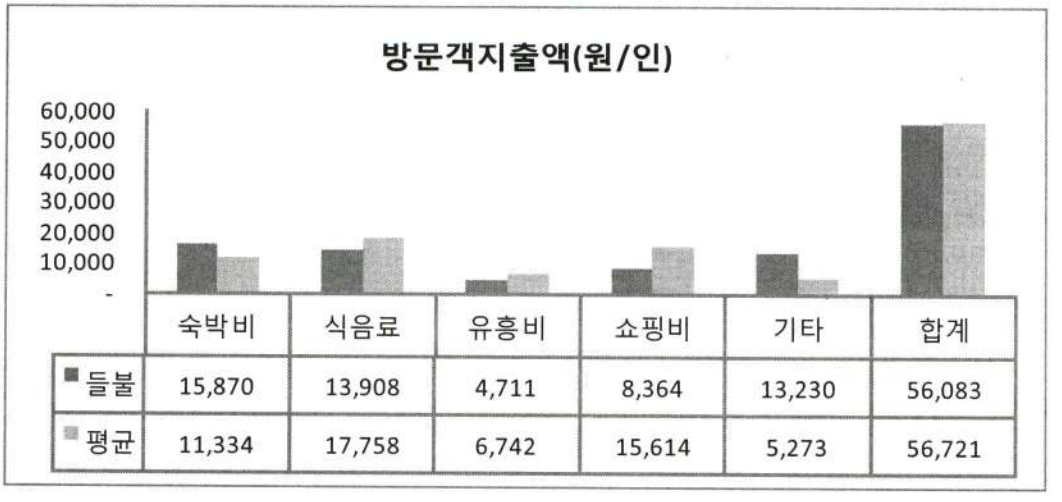
44 제주 정월대보름들불축제

◈만 족 도 : 예로부터 정월 대보름을 전후하여 한라산의 기생화산인 오름에 불을 놓는 제주도의 민속행사를 축제로 승화시킨 행사로써, 방문객들의 만족도는 다소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 놓기 이외의 행사가 부족했다는 평가와 함께 체험꺼리, 상품, 음식 등에 이르기까지 평균보다 낮은 값을 보였다. 그러나 접근성, 사전홍보, 안내체계, 지역문화, 연계관광, 편의시설 등에서는 높은 만족을 보였다. 향후 축제의 내적 재미콘텐츠를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접근	홍보	안내	재미	다양	체험	문화	상품	음식	연계	시설
■들불	5.63	5.51	5.21	5.09	4.54	4.61	5.16	4.47	4.28	5.13	4.79
■평균	5.26	4.84	4.98	5.04	5.03	4.93	4.89	4.51	4.41	4.70	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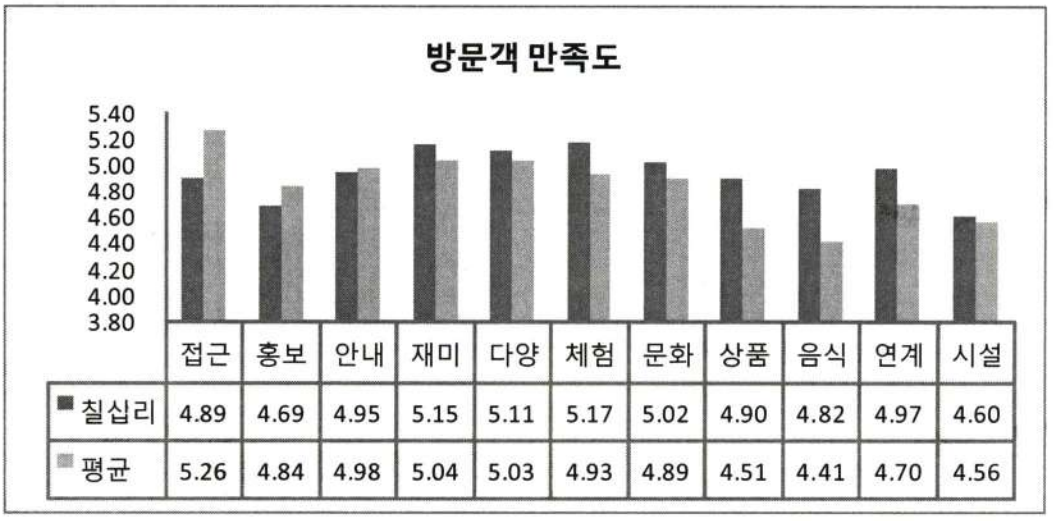
◈소비지출 : 우리나라의 대표적 숙박관광지인 제주에서 열리는 축제인 관계로 숙박비가 높게 나타났다. 앞으로 식음료를 비롯한 유흥비와 쇼핑비 지출을 늘릴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하겠다.



	숙박비	식음료	유흥비	쇼핑비	기타	합계
■들불	15,870	13,908	4,711	8,364	13,230	56,083
■평균	11,334	17,758	6,742	15,614	5,273	56,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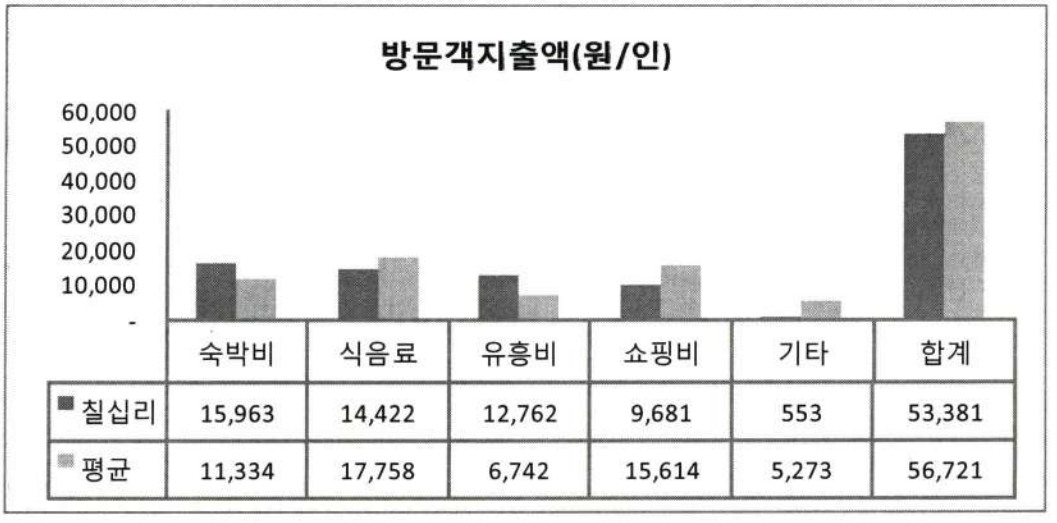
45 서귀포 칠십리축제

◈만 족 도 : 지표만 가지고 판단할 경우 접근성, 사전홍보, 안내체계 등을 제외하고는 대단히 우수한 축제로 평가될 수 있다. 축제의 근간을 이루는 재미, 다양성, 체험프로그램 등에 대한 평가가 좋았을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의 이해 및 연계관광에 대해서도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상품과 음식에 대한 만족도는 전국 최고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현장평가도 실제로 이렇다면 거의 대표축제로 불려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접근	홍보	안내	재미	다양	체험	문화	상품	음식	연계	시설
칠십리	4.89	4.69	4.95	5.15	5.11	5.17	5.02	4.90	4.82	4.97	4.60
평균	5.26	4.84	4.98	5.04	5.03	4.93	4.89	4.51	4.41	4.70	4.56

◈소비지출 : 제주 들불축제와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숙박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이어서 식음료와 유흥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평균을 약간 하회하는 수준의 소비지출 규모를 보여주었다.



	숙박비	식음료	유흥비	쇼핑비	기타	합계
칠십리	15,963	14,422	12,762	9,681	553	53,381
평균	11,334	17,758	6,742	15,614	5,273	56,721

Welcome to Korea

2012 문화관광축제

Ⅳ 평가위원의 축제별 평가

여 백

① 부산 해운대모래축제

(1) 개 요

❑ 기 간 : 2012년 6월 1일(금) - 6월 4일(월)

❑ 장 소 :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

❑ 컨 셉 : 보고See sand! 느끼고Feel sand! 즐기고Enjoy sand!

❑ 주 최 : 해운대구

❑ 주 관 : (사)해운대문화관광협의회 모래축제운영위원회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다이나믹 부산, 부산광역시 교육청, KBS, MBC, KNN, 부산일보, 국제신문

❑ 프로그램 :

- 무대·관람행사 : 세계모래조각전, 오픈스튜디오, 모래탐험관, 빛의 거리 점등식, 전통혼례 및 패션쇼, 페스티벌퍼레이드, 개막식, 찾아가는 군악연주회, 썸머 쿨밴드 페스티벌, 썸머 힙합 페스티벌
- 참여·체험행사 : 도전! 나도 모래조각가, 샌드보드페스티벌, 모래야! 놀자, 해양체험 '바다가 부른다', 빛의 거리, 모래마켓, 전통물레·천연염색체험, 통일 그림그리기 대회, 건강클리닉
- 관광객·동호회행사 : 바람의 언덕, 차없는 거리 공연, 비치발리볼 대회, 샌드그래피티 아트페스티벌, 금빛모래퍼레이드, 해운대 샌드클럽, 씨름왕 선발전, 제25회 모래작품전, 어린이 모래올림픽, 해엄쳐~~~물고기야!

(2) 항목별 평가

가. 축제의 특성 및 콘텐츠

❑ 잘된 점

- 해운대 모래축제는 부산과 해운대의 지역적 특성을 잘 살린 축제로 주제나 소재 관련 대표프로그램의 완성도가 높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해변축제이다.

- 모래를 소재로 한 독특하고 매력적인 프로그램들로 타 축제와의 차별성을 높이고 있으며, '세계모래조각전'을 비롯해 '샌드 보드 페스티벌' '모래야 놀자' 모래탐험관, 축제퍼레이드, 샌드 그래피티 아트 페스티벌, 모래마켓, 해양체험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행사가 이루어져 관광객들을 유인하고 있었다.
- 해운대의 경우 대도시의 일부라는 장점과 다양한 노력으로 이미 계절성을 극복하고 있는 대표적 휴양지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절성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런데 해운대 모래축제는 여름 성수기인 해수욕 철보다 약간 앞선 시기에 개최되어 여름 성수기의 기간을 연장시키는 효과와 해수욕장 홍보효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었다.
- 별도의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실시간 거리공연도 하고, 예술작가들이 나와 직접 만든 수공예품을 제작·판매하여 볼거리와 체험거리, 살거리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었다.

- '도전! 나도 모래조각가'에서는 가족이나 연인, 친구들과 함께 팀을 구성해 모래조각체험도 하고 우수작도 뽑고 다양한 경품도 받아갈 수 있어 방문객의 참여를 이끌어 낸 프로그램이었다.
- 10m의 모래언덕에서 보드를 타며 스피드를 즐기는 '샌드보드페스티벌'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었으며 특히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다. '모래탐험관'은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하였다.
- '바람의 언덕'은 방문객들이 적은 소원지를 이용하여 모래언덕을 꾸미는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의 참여도를 높인 프로그램이었다.
- 샌드클럽(가면클럽파티)을 운영하여 야간에도 관광객들이 건전하고 신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 개선할 점

- 해운대모래축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며, 행사내용의 충실함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개막식에서 스크린으로 주요 인사를 보여주었음에도 또 다시 구청장과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는 등 부적절한 의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 퍼레이드는 그 규모와 축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안도로를 차단하고 실행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해운대의 특성상 외국인의 방문이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수준의 차별화된 공연이 없었다. 거리공연, 소공연, 대공연 등 각 장르별, 유형별, 세대별로 세부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하여 해양도시 또는 해변 도시에서 개최되는 세계적인 대형축제를 모니터링하고 벤치마킹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 모래조각전의 경우 소재가 위인이나 캐릭터를 이용한 조각도 좋지만 부산을 상징할 수 있는 대상을 선택하여 조각 전시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한 축제의 성격과 맞지 않는 계도형 전시와 행사는 없애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축제참가자들에게 '모래를 사랑합시다' 등의 표지판과 계도형 구호는 축제성을 체험하는 것과 배치되는 것이므로 향후 축제에서는 재고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나. 축제운영의 적절성

❑ 잘된 점

○ 축제 개최시기는 본격적인 해수욕철 직전이므로 해수욕장의 개장과 맞추어 홍보의 효과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주변 숙박업소 및 음식점, 목욕탕 등을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을 행사 팜플렛을 이용해 제공한 것은 축제장과 주변 업소들을 이어주는 좋은 시도인 것으로 판단된다.

○ 축제 운영요원 및 자원봉사자 수도 충분하였으며, 복장이 통일되어 있어 방문객과 행사요원들을 쉽게 식별할 수 있어 방문객들의 불편사항을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 축제장 입구 종합안내소에서는 외국인 방문객의 편의를 돕기 위해 통역안내원이 상시 대기하고 있었으며, 모든 방문객들에게 친절하게 축제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었다.

○ 해운대 스마트 비치를 통해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것들(샤워장 이용료, 파라솔과 돗자리, 옷보관함, 수영복 대여, 튜브, 구명조끼 등)을 직접 계산할 수 있어 방문객의 편의 제공에 도움이 되었다.

❑ 개선할 점

○ 일부 주제와 맞지 않는 부스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축제장 입구(종합안내소 옆)에 화장실이 위치해 있고, 종종 쓰레기가 처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도 발견되었다. 주제와 무관한 부스를 과감하게 제거하고 화장실의 위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쓰레기 처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행사 전반에 대해 관중심의 경직되고 일반적인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다. 사안별로 전문기획사나 민간경영자들에게 기획과 운영을 이관하는 등 단계적으로 전문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개장과 함께 숙박업소 등의 바가지요금이 완전하게 통제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시장논리에 따라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시즌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이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나 가능한 연중 가격변동의 폭이 지나치게 크지 않을 때 진정한 국제도시로 사랑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행사장 주변이 많은 차량들로 인하여 상시 정체 현상이 발생되고 있었다. 해결책으로 해상교통을 활용하여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축제장 입구 안내소를 비롯한 대부분의 부스 안에서 행사요원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어 미관상 좋지 않았으므로 정해진 인근 식당에서 교대로 식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운영되고 있는 몇몇의 부스들은 내부가 정리가 되지 않고 너무 정신없이 어질러져 있었으며, 운영자들은 행사운영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는 잡담하고 장난하는데 더 열중인 경우가 많아 직무에 충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비춰졌다. 축제장에서 엄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부자연스럽지만 과도하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는 것은 더더욱 피해야 할 것이다. 운영요원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이 요구된다.
- 방문객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많이 부족하였다. 해수욕객이 아니므로 음수대와 뜨거운 햇빛을 피해서 쉴 수 있는 방문객용 간이 그늘쉼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축제안내소에 외국인 방문객의 편의를 돕기 위한 통역안내원이 상주하고 있긴 하였으나 타 지역에 비해 외국인 방문객이 많이 찾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외국인 방문객에 대한 수용태세가 많이 부족하였다. 국제적인 축제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부스마다 프로그램명이나 안내 문구 등을 외국어로 병기하여 통역안내원의 도움 없이도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 축제발전성

❑ 잘된 점

- 추진주체와 지역민들의 축제발전에 대한 의지가 크고, 축제 운영에 대학생 자원봉사자들과 지역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참여의지와 협조수준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 아직 규모가 큰 편은 아니지만 해운대 해수욕장 자체가 인지도가 높아 평상시에도 많은 외국인 방문객과 내국인 방문객들이 찾고 있는 곳이므로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방문객들을 위한 수용태세를 강화한다면 향후 발전가능성은 매우 클 것이다.

❑ 개선할 점

- 친환경 모래축제를 표방하고 있으므로 모래조각 작품도 인물 중심이 아니라 환경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만들어 전시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동시에 매년 변화되는 주제와 연관된 프로그램 개발도 축제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축제 기념품을 인근 대학의 관련학과 학생들과 전문가들이 만들어 팔고 있기는 하나 해운대 모래축제의 특성을 반영하는 기념품으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기념품의 종류도 기대만큼 다양하지는 않았다. 일반 기념품이나 공예품은 현재수준에서 진행되어도 충분할 것이나 축제전용 기념품을 개발하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축제를 위한 조직은 구성되어 있으나 여느 지자체와 다를 바 없이 완전한 독립성을 유지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전문성 결여로 이어지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으므로 향후 축제 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또한 주변관광지와의 연계성도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운대모래축제와 주변관광지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상품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축제의 성과

❑ 잘된 점

○ 프로그램이 주간은 물론 야간까지 이어지고, 축제장내에 별도의 먹거리 존을 만들지 않고 음식점, 포장마차를 포함한 인근 상가를 이용하게 하여 지역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점은 축제장과 상권의 연계차원에서 인상적인 배치였다.

○ 해운대 모래축제 이외에도 웨딩 페스티벌, 부산국제무용제도 같은 시기에 개최한 점도 모래축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어 시너지효과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방문객들에게는 풍부하고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 해운대 모래축제는 내국인은 물론이고 외국인의 방문도 많은 편이다. 물론 축제와 무관하게 해운대 방문객이 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축제로 인하여 그 증가폭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 지역홍보 효과는 이미 너무나 잘 알려진 곳이므로 현재의 축제 수준에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나 이는 해운대모래 축제가 갖는 장소적 이점이므로 논외로 하고,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만을 볼 때, 기존 상가와 축제장의 경계가 모호하여 축제로 인한 효과를 구분하는 것이 다소 어렵겠지만 결코 어느 축제보다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 개선할 점

○ 외국인의 방문이 많은 편이나 대부분 자연발생적인 측면이 강하고 축제로 인한 증가효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장소적 이점을 누리는 부분이 많으므로 외국인 방문객 유치와 응대에 더 많은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축제 프로그램이 재미있고 모래와 해변이라는 자연적 요소와 도시적 요소가 어우러져 독특한 정취를 자아내는 축제이므로 만족도는 쉽게 높일 수 있을 것이나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는 이 축제를 기획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해운대 해수욕장이 갖는 흡인력에 알게 모르게 편승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재의 잠재력이나 장소적 이점을 활용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이를 당연시한다면 장기적으로 강점이 약점으로 바뀌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축제가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점을 활용은 하되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종 평

○ 해운대 모래축제는 다양한 연령층이 어울려 즐길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을 잘 살린 축제로 세계모래조각전, 샌드 보드 페스티벌, 모래탐험관, 축제퍼레이드, 모래마켓, 해양체험 등 다채로운 볼거리와 체험행사가 이루어져 차별화된 축제로 발전해 나가고 있었으며, 방문객 만족도도 높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큰 축제인 것으로 생각된다.

○ 그러나 눈에 띠게 특화되고 흡인력이 강한 프로그램이 없었으며, 특히 공연부분에서 취약성을 보이고 있었다. 보다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개발과 해양/해변 도시로서의 세계적인 대형축제의 모니터링과 벤치마킹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수용태세를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축제와 연계한 지역관광의 상품화, 축제기념품 개발 및 숙박업소를 비롯한 주변 상가의 바가지요금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문성이 떨어지고, 소재와 장소적 이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문제로 축제를 하나의 생명체로 인식하여 여러 요소들을 고르게 발전시키지 않으면 결국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② 부산 자갈치축제

(1) 개 요

❑ 기 간 : 2012년 10월 11일(목) - 10월 14일(일) 4일간

❑ 장 소 : 자갈치 일원, 용두산공원, 광복로 등

❑ 주 최 : 부산자갈치문화관광축제위원회

❑ 주요행사

- 여는 마당 : 용신제, 물고기 위령제, 소망등 점등식, 한마당 뒤풀이, 길놀이, 개막식, 불꽃놀이, 개막축하공연
- 오시소 마당 : 수산물 깜작경매, 도전 세계최대회비빔밥만들기, 나도 자갈치 아지매, 자갈치 달인 2종 경기, 자갈치시장 길따라 스탬프랠리, 수산물 요리 경연대회, 세계 수산물 퓨전요리 시연회, 외국인 놀이 한마당, 전국예술인축제, 자갈치 주말극장, 모형 선박 전시회
- 보이소 마당 : 실버예술 공연단, 자갈치 7080 콘서트, 전국 동아리 경진대회, 추억의 자갈치 고래노래방, 자갈치 시장 "나도가수다", 생선회 상식전, 수산물 명품관, 자갈치 이모저모, 누리마루호 승선체험, 뚝심 자갈치 아지매 팔씨름대회
- 사이소 마당 : 자갈치 KIDS LAND, 생선회 맛 천국, 자갈치 맛자랑, 자갈치 체험 한마당, 자갈치 아지매 3종 경기

(2) 항목별 평가

가. 축제프로그램 완성도

❑ 잘된 점

- 부산자갈치축제는 자갈치 시장을 알리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개최해 오고 있다. 금년에 21회째를 맞이하였으며 그동안 축제 개최를 통하여 해양수산도시로서의 부산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또한 축제를 통하여 시민들의 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 하였다.
- 축제는 지난 5월부터 프로그램 공모와 체험프로그램 대폭 확대하는 기획 등을 통하여

더욱 향상되고 다양한 계층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 역대 최대 규모인 20개팀 500여명이 참가한 길놀이는 축제의 시작을 알리고 축제분위기를 고조시키는 프로그램으로 금년의 경우 일본 기타큐슈시의 도바타기온 오야마가사 축제위원회측에서 25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국내에서 볼 수 없는 가마제작과 운반과정 등 이색적인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관람객들의 이목을 크게 끌 수 있었다.
- 행사장 입구에 설치한 생선회 상식전, 수산물 명품관, 자갈치 이모저모 사진전 등 전시물은 자갈치 특성과 어패류에 대한 지식을 잘 나타내 외지인과 학생들에게 지역을 알리고 더불어 교육적 효과도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 개선할 점

- 축제 행사가 열리는 장소는 전국적으로 이미 많이 알려진 자갈치 시장이다. 평상시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시장에서 축제가 개최됨으로 인하여 축제장의 복잡함은 더욱 심하였다. 주차시설과 휴게시설 등의 편의 시설 또한 턱 없이 부족하여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의 불만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 축제장에서는 아직도 상인들의 호객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었으며, 행사장 주변의 청결성이 미흡하다는 점 등은 많은 인파에 시달리는 축제장의 환경과 분위기에 더해 방문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충분하였다.
- 부산자갈치축제는 축제 행사장을 방문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고려하여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축제 기간 동안에 판매를 통해 얻는 단기간의 이익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축제를 통하여 부산자갈치시장을 홍보하고 더불어 좋은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시장의 활성화와 상인들에게 이득이 된다는 점이 인식되어야 한다.

나. 축제운영의 적절성

❑ 잘된 점

- 축제의 시작을 알리고 어민들의 무사항해 풍어를 기원하며 상인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금년의 용신제는 헌향에 이어 전통차를 용왕께 진상하는 다례행사까지 함으로써 축제를 통해 지역의 전통문화의 계승과 지역 바닷가 문화를 알게 해주는 좋은 기회였다.
- 대한민국의 명창을 비롯한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전국 예술인 축제가 열려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자갈치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문화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소망등 점등식을 통하여 축제전야를 대외적으로 알렸으며, 모든 관람객들에 간단한 음식을 나누어 줌으로써 축제의 의미를 살리는 행사가 되었다.
- 대형 활어 수조를 설치하여 방문객이 맨손으로 고기를 잡도록 하여 즉석에서 회를 만들어 주는 체험행사가 운영되어 참가자들로부터 인기가 있었다.

○ 부산자갈치축제는 부산시내 대학을 비롯한 전국 동아리 팀들의 각종 공연, 외국인들만 참여하는 노래 및 장기자랑, 무명의 통키타 가수들이 공연한 자갈치 7080 콘서트, 자갈치시장 상인 및 관광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갈치 시장 나도 가수다 등의 다양한 공연을 통하여 다양한 계층의 관람객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보여 주었다.

□ 개선할 점

○ 축제장인 부산 자갈치 시장은 매우 복잡하므로 축제장 내에 안내시설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야 하며, 더 많은 자원봉사자를 확보하여 체계적인 안내와 함께 방문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안내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한 자원봉사자 및 운영 요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 부산자갈치축제가 보다나은 특색 있는 축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타축제와 차별화 할 수 있어야 하며 이색적이며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소망등을 설치한 철골조 높이가 너무 높게 설치되어 사람들이 소망등 터널을 통과하면서 소망등을 바라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누리마루 승선에 있어서 사전승차권 구매자가 승선을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운영상의 미숙한 점이 드러났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 부산자갈치축제 행사장을 찾은 관광객에게 축제 프로그램과 행사장의 구성, 편의시설, 연계관광 등 궁금한 사항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축제 종합안내소의 역할이 미흡 했으며, 축제 행사장에 대한 안내 표지판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강화가 요구된다.

다. 축제발전성

□ 잘된 점

○ 부산의 자갈치시장은 부산을 대표하는 재래 어시장으로서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매년 축제를 개최해 오고 있으며, 축제의 목적을 달성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자갈치시장 상가번영회, 지역주민, 관련 기관 등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 지역의 동대표들이 참여하는 장어문어 이어달리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들이 재미있게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과 함께 하는 축제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 부산자갈치축제는 초등학교 교과서 『사회와 탐구』 과목 부산의 생활(4-1)이라는 부문에 기록되어 있어서 부산지역 어린이들에게 자갈치축제는 어렸을 때부터 긍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었다.

○ 부산자갈치축제는 그동안 개최해 오면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04년부터 지금까지 유망축제와 우수축제의 등급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 개선할 점

- ○ 부산자갈치축제는 시장상인들이 중심이 되어 행사가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상업적 행사의 경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계속해서 축제에 문화 콘텐츠를 담을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의 전문가와 지역의 다양한 분야의 인사가 참여하는 축제 발전 조직을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 ○ 부산자갈치축제가 양적인 발전과 더불어 질적인 축제로서의 발전을 거듭하기 위해서는 축제에 대한 시장상인들의 인식이 판매행사라는 관념을 불식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축제의 운영자 및 시장상인들을 대상으로 축제 개념에 대한 교육이 반복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호객행위 및 불친절한 서비스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축제전반에 대한 방문객의 만족도 저하 및 재방문율의 미흡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친절서비스 교육이 주기적으로 반복 실시되어야 한다.

라. 축제의 성과

❑ 잘된 점

- ○ 부산자갈치축제는 부산이라는 대도시에서,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수산시장에서 개최되는 행사라는 점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다른 축제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금년에는 부산국제영화제의 행사가 축제기간과 겹치게 되어 축제의 외연이 커지고 파급효과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 ○ 축제 행사장에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특히 금년에는 독일연방 하원의원과 재부산독일총영사 등 외국의 인사가 방문하여 부산자갈치축제의 현장을 둘러보았다.

❑ 개선할 점

- ○ 부산자갈치축제는 지금까지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라는 슬로건을 사용해 오고 있다. 그동안 이 슬로건이 많이 홍보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익히 많이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슬로건이 주는 느낌은 다같이 즐기고 놀아야 하는 축제의 느낌보다는 판매성격의 행사를 떠 올리게 한다는 점을 지울 수 없다. 기존 슬로건은 시장을 상징하는 슬로건으로서는 적합할 수 있을지 모르나 축제를 홍보하는 슬로건으로서는 뭔지 부담감을 준다는 느낌이 든다. 축제의 새로운 슬로건에 대한 고려를 생각해 볼 일이다. 가령 '오이소, 보이소, 노이소' 라든지 '오이소, 그냥 놀다 가이소' 등등
- ○ 매년 자갈치 시장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이야기 및 뉴스 거리를 발굴하여 스토리텔링화 한다면 외지의 관광객에게 흥미와 감성을 전달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 골목이야기, 시장 사람들의 훈훈한 이야기, 새로운 뉴스 등 다양한 사례들을 발굴 정감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 축제를 홍보하는 감성마케팅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총 평

- 올해로 21회째를 맞이한 부산자갈치축제는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라는 슬로건 하에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축제 기간 동안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방문하여 지역 발전과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금년에는 부산국제영화제의 행사가 본 축제기간과 겹치게 되어 파급효과가 더욱 향상되었다.
- 부산자갈치 시장의 경우 폭 넓은 인지도와 위치적으로 쉬운 접근성, 주변 관광지와의 인접성 등을 확보하고 있어서 축제 개최를 통한 관광객 유치에 수월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축제 기간에 많은 관광객의 방문이 모이면서 시장의 혼잡함, 주차난, 방문객 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었다.
- 또한 일부 상인들의 불친절 및 호객행위, 시장의 청결 문제 등이 여전히 발생하여 방문객들로 하여금 부산자갈치축제에 대한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부산자갈치축제가 양적인 발전과 더불어 질적인 축제로서의 발전을 거듭하기 위해서는 축제에 대한 인식과 서비스 문제, 청결문제, 문화콘텐츠 개발 문제 등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와 연계해 축제 기획에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축제에 참여하는 시민과 운영요원, 시장상인들을 대상으로 축제 및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③ 대구 약령시한방문화축제

(1) 개 요

- ❑ 기 간 : 2012년 5월 2일(수) - 5월 6일(일) 5일간
- ❑ 장 소 : 대구시 중구 약령시(약전골목) 일원
- ❑ 주 최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중구
- ❑ 주 관 : (사)약령시보존위원회
- ❑ 주요행사
  - ○ 만남의 길 : 약령성문, 약초터널, 풍물제 길놀이, 고유제, 납사당 줄타기, 키다리 수문장, 정성탕 나눔행사
  - ○ 배움의 길 : 약초 꽃동산, 한약문화 체험마당(약썰기 체험, 전통의상 체험, 비누만들기, 약첩싸기 체험), 사상체질관, 한방힐링센터, 약선요리 전시
  - ○ 즐거운 길 : 약손 예술놀이터, 주제공연(뮤지컬 '비방문 탈취작전'), 허준 선발대회, 약령황룡패기, 한방족탕체험
  - ○ 멋있는 길 : 동의보감 북아트 체험, 약초 꽃 담은 부채만들기, 약초 꽃 페이스페인팅, 약초 꽃 네일아트
  - ○ 맛있는 길 : 약령 먹거리 잔치 마당, 약첩 및 약령시 캐릭터 전시
  - ○ 이야기 길 : 약령시 보물찾기, 스탬프 골목투어, 스토리텔링 경연대회, 인문학 강좌, 달빛걷기대회, 반월당에 반하다

(2) 항목별 평가

가. 축제의 특성 및 콘텐츠

- ❑ 잘된 점
  - ○ '2012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는 '즐거운 동행, 건강한 소풍'을 주제로, '즐거운 하루, 건강한 인생! 약령시에서 만나요!'를 슬로건으로 정해 개최되었으며, 1978년 처음 개최되어 올해 35회째 개최되는 역사와 유래가 깊은 축제라 할 수 있다.

○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의 프로그램 측면에서의 주요 특징은 민간단체 주도의 축제, 도심 골목에서 열리는 축제, 한방 관련 업소의 참여 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 점이 축제 프로그램 기획의 잘된 점이라 할 수 있겠다.

- 첫째, 동 축제는 민간단체인 (사)약령시보존위원회가 주도하고 행정기관(대구광역시 및 중구)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사)약령시보존위원회는 축제의 총괄 운영 및 예산 집행·관리, 약초동산 조성, 경연대회(허준선발 등) 주관, 약령황룡패기 등 회원참여 분담, 각종 체험프로그램의 한약재 준비, 그리고 축제 홈페이지의 관리, 언론과 리플렛을 통한 홍보, 후원사 및 협력업체 섭외, 참여부스 섭외 및 관리 등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동 축제는 약령시의 맥을 잇고 전통과 명성을 살리기 위한 축제로서, 민간이 주도하는 축제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 둘째, 동 축제는 한약방, 한의원, 탕제원, 약업사 등 한방 관련 업소가 밀집된 약전골목(900m 정도의 소규모 골목)에서 개최되었다. 별도로 마련된 행사장에서 개최되는 다른 지역의 축제와는 달리 한약의 향기와 특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소에서 개최됨으로써 장소성을 갖춘 축제라 할 수 있다. 대구약령시는 조선 중기인 1658년 개설된 국내 최고(最古)의 약령시로서 350여 년의 전통을 이어 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의약업의 전반적 위축과 함께 2011년 8월 대형 백화점의 입점으로 인한 임대료의 상승 등으로 인해 약재상 등 한방관련 상가들이 점차 사라지고 그 대신 커피전문점, 식당, 미용소 등이 증가함으로써 2009년 210곳이던 한방 관련 점포는 2011년 말 181곳으로 감소하는 등 약령시 위축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개최된 한방문화축제는 약초 터널 및 꽃동산, 사상체질관, 한방힐링센터, 약선요리 전시, 한방족탕체험 등 한방문화의 고유 특성을 잘 살려 주는 콘텐츠들로 구성하였다. 또한, 방문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함으로써 약령시를 하나의 문화유산으로 인식하게 하고 대구약령시의 고유한 특성을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셋째, 한방 관련 업소와 약령시보존위원회의 회원들이 축제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약령시보존위원회가 축제주관기관으로서 주도적으로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할 뿐만 아니라 회원 업소들의 한약재 등 할인판매, 화장실 개방, 한의사들의 사상체질관과 한방힐링센터의 운영 프로그램 참여 등은 특기할만한 사항으로 판단되었으며, 향후 회원들의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민간주도 축제의 모범사례로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 개선할 점

○ 동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은 ① 주제공연(뮤지컬 '비방문 탈취작전'), ② 사상체질관·한방힐링센터·약선요리 전시, ③ 달빛걷기이다. 대표 프로그램의 선정 및 기획과 관련하여 개선할 점은 첫째, 대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축제 프로그램이 기획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이 대표 프로그램인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이다. 위의 대표 프로그램은 축제 주최 측에 질문을 통해 얻은 답이다. 축제 주최 측에서 축제 기획 시에 대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기획한 것이 아니라, 평가자의 질문에 대한 답을 위해 그 자리에서 대표 프로그램을 선정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일반 방문객은 동 축제의 대표적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없었다. 이는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상징성 있는 프로그램이 없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서, 앞으로는 한방문화축제를 상징하는 대표 프로그램을 선정한 후에 대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기타 프로그램이 보완하는 방식으로 축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할 때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하면 떠오르는 대표 프로그램과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 둘째, 위의 세 가지 대표 프로그램 중 축제 기간 중에 상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② 번 사상체질관·한방힐링센터·약선요리 전시 프로그램이다. 뮤지컬 주제공연과 달빛걷기대회는 대표 프로그램임에도 불굴하고 1회 진행으로 끝나버린다는 점이 아쉬웠다. 향후 대표 프로그램을 축제 기간 중에 상시 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높다.
- 셋째, 축제 프로그램 기획 시 젊은 층이 선호할 수 있는 콘텐츠를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대표 프로그램 중 방문객이 자신의 사상체질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 사상체질관, 한방 진료 및 처방의 체험 기회를 제공한 한방힐링센터는 방문객들의 많은 관심을 끈 우수 프로그램이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체험에 참여한 대부분이 장년 및 노년층이어서 향후 아토피, 비만 치료, 한방미용체험, 아로마테라피 등 젊은 층이 선호하는 콘텐츠를 보강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축제를 통해 젊은 층에게 한방의 우수성을 알리는 것은 약령시의 새로운 수요창출과 더불어 약령시의 보존과 지속적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동 축제와 지역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으로는 달빛걷기 행사와 이상화·서상돈 고택·계산성당으로 이어지는 도심 골목투어였다. 향후 연계 대상 지역 범위를 대구시 및 인근 지역으로 보다 광역화하여 야간 및 연계 투어를 보강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1박 2일 연계투어를 가능하게 하여 서울과 수도권, 대전, 부산 등 외지 관광객의 유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동 축제 프로그램 중 중구 프린지 행사의 내용은 중구 구민의 날(연예인 초청 노래자랑) 행사였다. 프린지라 함은 일반적으로 권위적인 순수예술, 상업적인 대중예술과는 달리 비주류 예술가들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예술활동을 일컫는다. 그러나 중구 프린지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중구 구민의 날 행사는 '프린지'의 의미와 전혀 다른 초청가수 공연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평가자를 포함한 일반 방문객의 방문 전 기대와는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축제 전반에 대한 불신과 불만족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중구 구민의 날을 축제 프로그램에 포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프린지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진행한 것이 문제라 할 수 있다. 향후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 예술놀이터, 북아트 체험, 부채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네일아트 등의 프로그램은 한방문화와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어린이 및 청소년 등 젊은 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한방문화 체험 콘텐츠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약초의 생산 및 재배, 한약 제조, 약업사 등 유통, 한의사 처방 등에 이르기까지 한방의 생산, 제조, 유통의 전 과정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나, 고진감래 등 한방 관련 사자성어, 어려운 한방용어를 쉽게 설명하는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한방문화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축제운영의 적절성

❑ 잘된 점

○ 한방과 관련이 깊은 대구한의대학교 등 관련학과의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자를 선발하여 운영한 점은 축제 운영의 질적 제고에도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학생들의 사회적 경험 축적 측면에서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전문의 수련 과정 중에 있는 한의대 학생과 (사)약령시보존위원회의 회원인 한의사들이 동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사상체질관과 한방힐링센터 운영에 참여한 점은 효과적인 운영방식으로 판단되었으며, 향후 이러한 운영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외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통역·안내·해설을 위해 대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활용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통역·안내·해설에 참여한 외국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전략 수립 등 내년도 축제운영 계획 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축제장이 도심 골목인 관계로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사항으로 예상하였으나, 인근 현대백화점의 주차장 사용 협조, 회원 업소의 화장실 개방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통해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한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 개선할 점

○ 동 축제의 개최 장소는 도심 골목이기 때문에 축제장의 효율적인 공간 배치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된다. 동성로 입구, 반월당 등과의 연계를 통해 축제 공간의 광역화를 시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축제 공간의 광역화와 함께 회도맨숀으로 인한 축제공간의 단절 문제, 일부 프로그램과 부스 운영의 축소 및 집중을 통한 공간의 효율적 배치, 동문~서문에 이르는 종적 공간 활용에서 약전골목과 교차하는 골목길을 활용한 횡적 활용 확대 등 효율적 공간배치에 대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특히, 회도맨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축제공간이 단절된 문제점은 향후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서문 쪽에

배치한 먹거리장터로 인해 약전골목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3대째 100년 운영) 광신한약방 등이 축제공간에서 배제되는 문제점도 공간배치의 효율화를 통해 해결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 그리고 대구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번화가이면서 젊음의 거리인 동성로와 연계하여 젊은 층을 축제공간인 약전골목으로 유입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동성로 입구 광장에 축제기간 중 일부 부스를 운영한다거나, 동문 쪽 입구의 장소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대백화점 앞 무대를 활용하여 백화점 이용 고객과 반월당의 유동 인구를 축제공간으로 유인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동 축제는 약전골목 동문에서 서문까지 차량을 전면 통제하고 진행되기 때문에 교통관리 대책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된다. 교통 담당기관과 협업으로 통제소 지정 및 운영, 통제구간의 안내요원 배치, 통제입간판과 바리케이드 설치, 교통경찰 배치 등 교통관리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교통관리 대책은 전반적으로는 효율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축제장 내 오토바이의 통행으로 축제관람을 저해하는 사례, 희도맨숀과 동아쇼핑 주차장의 진입차량과 관람동선의 상충, 약전골목 교차 통행 지점에서의 관람동선의 상충 등은 향후 개선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 약선음식전시 등 일부 초청 부스는 축제 종료시간 전에 철수함으로써 축제공간의 전체 분위기를 침체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는 향후 체계적 축제 운영계획 수립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 축제발전성

□ 잘된 점

- 한의원, 한약방, 약업사 등 약령시 회원업체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 축제기간 동안 한약재 등의 할인판매, 그리고 축제종료시간까지의 영업시간 연장 등은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켰을 뿐만 아니라 축제가 약령시 회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 특히, 지역에 소재하는 대구한의대학교 등 한의학 관련 대학과 연계한 자원봉사 참여, 사상체질관 및 한방힐링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은 축제의 차별성과 고유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향후 동 축제의 지속적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대구시청 보건정책과, 대구시 중구청, (사)약령시보존위원회, (주)파워포엠(축제기획사)이 축제추진단을 구성하여 동 축제를 운영하였다. 축제의 운영에 있어 중심 역할은 (사)약령시보존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사)약령시보존위원회는 약령시의 위상 강화는 물론 전통문화 창달과 약령시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3년 설립된 문화법인이다. 동 법인은 약령시전시관 개관, 약령

춘추 발행, 약령시종합발전계획 수립과 시행, 한방테마거리 조성 등과 함께 한방문화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해오고 있다. 아직까지 축제의 기획과 운영에 있어 축제기획사에 일부 의존하고는 있지만 축제의 총괄운영, 예산 관리 및 집행 등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향후 축제 운영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축제기획사에 대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명실상부하게 (사)약령시보존위원회와 회원 업소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민간주도 축제의 성공 모델로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개선할 점

- ○ 동 축제의 운영을 위해 투입되는 비용은 312백만원(국비 42백만원, 시비 230백만원, 구비 20백만원, 자부담 20백만원)이다. 그런데 운영 수익은 부스 임대를 통한 500만원에 불과하여, 재정자립도는 1.6%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 물론 약령시 회원 업소가 축제기간 중 한약재 등을 판매하여 올린 수입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창출한 수입 등이 있고, 외지 방문객의 지출에 의한 경제적 효과가 2,363백만원으로 추정되었다.[1)]
- ○ 이러한 경제적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동 축제가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부스와 먹거리장터의 단계적 감축 및 유료화, 다각적인 수입창출 노력 등 운영 수입을 높이는 동시에 불필요한 지출비용의 감축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 특히, 축제 주최기관이 대구광역시와 중구, 주관기관인 (사)약령시보존위원회의 관계자가 축제의 재정자립도에 대하여 아직까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바, 축제 주최 및 주관 기관의 재정자립도 제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축제의 성과

❑ 잘된 점

- ○ 동 축제는 5월 2일(수)부터 6일(일)까지 5일간 개최되었는데, 5일 동안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은 255,960명으로 집계되었다. 2011년도의 방문객 167,202명에 비하면 53.1% 증가한 것이다. 축제 방문객 중에서 대구 방문객이 69.6%, 외지 방문객이 30.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1년도의 외지 방문객 비율은 23.4%였는데, 올 해에는 7.0%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2)] 이와 같이 2011년도에 비해 방문객 수와 외지 방문객의 비율이 증가한 점은 올 해 축제의 성과라 할 수 있다.

---

1) (사)약령시보존위원회의 축제평가보고서(안)에 따르면 외지 방문객 지출에 의한 축제의 경제적 효과는 2,363백만원(외지 방문객 1인당 지출비용 30,371원에 외지 방문객 77,812명을 곱하여 계산)으로 추정되었다.

2) (사)약령시보존위원회 축제평가보고서 결과

○ 동 축제를 찾은 방문객의 1인당 지출비용을 토대로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 결과 4,304백만원으로 추정되었다. 이 중에서 외지 방문객에 의한 경제적 효과는 2,363백만원(30,371원 × 77,812명), 대구 방문객에 의한 경제적 효과는 1,941백만원(10,898원 × 178,148명)이다. 축제의 경제적 효과는 2011년도의 3,875백만원에 비해 11.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3)]

❑ 개선할 점

○ 축제 방문객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고 외지 방문객의 비율도 증가하였지만 이를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 대구 및 경북 지역 외 축제의 파급효과가 높은 서울, 부산, 대전 등 대도시 방문객의 유치 증진을 위한 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높다고 판단된다.

○ 특히, 축제기간 동안 축제장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은 868명으로 조사되었고, 이는 전체 방문객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약령시 한방문화축제가 문화관광축제로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방문객의 유치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외국인 통역안내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고, 대구뿐만 아니라 경주, 안동 지역과의 연계 투어 구상, 여행사와의 협력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축제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동 축제를 찾은 방문객의 1인당 지출비용이 외지 방문객 30,371원, 대구 방문객 10,898원으로 조사되었다. 외지 방문객의 1인당 지출비용의 구성 내역을 보면 교통비 17.2%, 식음료 31.1%, 유흥비 11.0%, 쇼핑비 37.2%, 기타 3.5%로, 쇼핑 비용이 4,051원에 불과하다. 이는 약령시 회원 업소의 한방 상품의 판매 등이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어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앞으로 한방 상품의 판매수입 제고 등 경제적 효과 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총 평

○ '2012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는 '즐거운 동행, 건강한 소풍'을 주제로 5.2(수) ~ 5.6(일) 5일 동안 대구광역시 중구 약령시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 동 축제는 (사)약령시보존위원회가 주관하는 장소성과 차별성이 높은 축제로서 민간주도의 축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축제로 평가된다. 또한, 대구한의대학교 등 한방 관련 대학과의 연계, 약령시 회원 업소의 참여 등도 돋보이는 축제이다.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도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외지 방문객의 비율도 증가하였다.

○ 그러나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상징성 있는 대표 프로그램의 육성, 젊은 층에게 한방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축제 콘텐츠의 보강, 야간 및 연계 투어 보강, 축제장의 효율적 공간배치, 동성로와 반월당 지역과의 연계성 강화, 축제 재정자립도의 제고, 외지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진 등이 향후 보완이 필요한 과제로 판단된다.

3) (사)약령시보존위원회 축제평가보고서 결과

④ 인천 펜타포트락페스티벌

(1) 개 요

❑ **행사명** : 인천펜타포트축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Pentaport Rock Festival)

❑ **기 간** : 2012. 8월10일(금) ~ 8월12일(일),3일간

❑ **장 소** : 정서진(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

❑ **2012 인천펜타포트 축제 주요행사**

구 분	내 용	기간	장소
락페스티벌 (락음악 축제)	- 국내·외 뮤지션 공연 - 연계관광,이벤트	2012.8.10~8.12	정서진 경인아라뱃길
프린지페스티벌 (열린음악축제)	- 신진 아티스트발굴 - 음악축제 사전홍보	2012.8.3~8.5	월미도 음악분수 특설무대
뮤직인아츠 페스티벌 (공연예술축제)	- 다양한 장르 공연유치 -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2012.9.16.~9.23	인천공연장 실내 및 야외
아시아 스팟라이트 (아시아 앨범마켓)	- 국내 아시아 음악씬의확장 - 아시아 간 국제교류 활성화 - 아시아권 관광연계 사업	2012.8.10~8.12	정서진 경인아라뱃길 (락페스티벌 내)
한류관광콘서트 (K-POP)	- 국내 한류스타 공연 - 국내·외 관광객 유치	2012.9.8	문학 월드컵경기장

❑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주요행사**

- 펜타포트스테이지 (19팀 공연/KBS 탑밴드)
- 드림스테이지 (24개팀 공연)
- 수변무대 (15개팀 공연/무료)
- 슈퍼믹스라운지 (17개팀 공연)
- 플레이그라운드 (20개팀 공연)

출 연 진 : 국내외 아티스트 100팀

(2) 항목별 평가

가. 축제의 특성 및 콘텐츠

❑ 잘된 점

- ㅇ 『2012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는 인천을 아시아를 대표하는 음악 도시로 브랜딩하고 이와 함께 시민들의 문화 향수권을 신장하며 동시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인천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축제임.
- ㅇ 음악축제의 4대 주요행사의 하나인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국내 야외형 락페스티벌의 선두주자로 국내·외의 대표 뮤지션들의 공연과 이벤트를 통해 아시아 대표 락음악 축제를 지향하고 있음.
- ㅇ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모든세대가 즐기는 가족축제, 음악과 함께 문화를 경험할수 있는 체험축제, 모든 음악 장르를 아우르는 축제를 지향함. 또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락, 프린지, 뮤직인아츠페스티벌 내 시민 대상의 참여체험형 프로그램 신설 및 확대)
- ㅇ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기존의 문화관광축제의 고민인 대표프로그램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는 축제로 보여짐. 음악공연중심의 축제로서 향후 운영에 따라서는 세계의 유명 뮤지션들이 한번은 공연하고 싶어하는 축제성장 시켜 나갈 수 있을 것 임.
- ㅇ 인천도시공사의 관광사업팀과의 연계를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활성화 노력을 함.
  - 락페스티벌 관광패키지(공연-숙박) 개발 및 관광객 유치 노력.
- ㅇ 공연무대를 메인과 서브,수변무대로 구분하여 무대별로 수준급아티스트 공연은 물론 수변무대에서는 미래 가능성 있는 뮤지션들을 위한 공연의 장을 제공함으로서 축제의 공공지향성과 다양성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ㅇ 근래 트랜드의 하나인 오디션열풍을 축제장에 활용하여 중앙방송의 TV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축제를 진행함으로서 대중의 관심과 축제홍보에도 기여했다고 판단함.

❑ 개선할점

- ㅇ 재원확보와 축제 지명도 향상을 통해 국외 유명 아티스들과 함께 축제를 운영해 나간다면 축제의 차별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ㅇ 일반적으로 축제 참가자들의 참가동기인 유희성 및 일탈성의 프로그램의 진행을 더욱 증가시켜 운영해야 할 것이며 축제에 참가하는 사람이 매니아층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바 고객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축제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임.
- ㅇ 세계의 유명한 축제장은 전용 축제장 장소가 확보 되어있는바 락페스티벌 역시 실내외 공간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축제장인프라 구축전략 수립이 필요함.
- ㅇ 인천시민들의 참여를 높일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민들이 자부심을 갖는 축제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며 축제개최의 효과가 지역경제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

나. 축제운영

❑ 잘된 점

- ○ 자원활동가 지원률이 매우 높았고 지원자 중 과반수가 재지원 하여 축제의 충성도가 커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자원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통해 축제의 이해 증진, 각각의 세분화된 업무 분장, 태도 교육으로 활동 효율화를 꾀하였음.
- ○ 메인입구, 행사장 안내, 티켓교환, 통역 부스, 행사장 내·외부 청결관리, 쓰레기 관리가 돋보이며 행사장 스텝 및 지원 인력이 눈에 잘 띄어 관람객들의 안내, 애로사항 해결, 편의시설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가 잘되어 있음.
- ○ 강이 근접해 있어 안전위험요소가 있었으나 경찰인력 배치 및 행사장 사이트 안전휀스 설치, 소방·의료요원 상시 대기, 전문사설안전요원 배치 등 유관기관의 상주로 체계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관리를 하였음.
- ○ 프린지, 락, 뮤직인아츠페스티벌 모두 관람객 편의시설(화장실·주차장 등)이 행사장과 멀지 않은 거리에 있어 관람객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었으며, 이중 많은 관람객이 모이는 락페스티벌은 행사장 내 더운 날씨를 감안한 간이 수영장, 분수,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공간 쾌적성을 높였음.
- ○ SNS를 이용한 이벤트, 실시간 행사장 모습 등 페스티벌 홍보 활용 빈도가 높았으며, 실시간 인터넷 방송·미디어 뉴스방송을 통해 참석하지 못한 관람객에게 정보를 제공하였음.
- ○ 인천 지하철·공항철도 연장운행, 무료 셔틀버스 운행, 지역 운수업체 연계 활용 등 관람객 접근성, 편의성이 증진하였으며 지역 아티스트, 음악단체 연계로 지역 예술인들의 축제 참여 비율이 높았음.

❑ 개선할 점

- ○ 향후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정보제공 및 통역을 위한 안내 데스크와 통역안내원을 상주시켜 축제 편의성을 높여 가야함. 또한 행사장내 편의 시설에도 외국어를 병기하여 방문객 만족도를 높여가야 할 것임.
- ○ 인천시의 대표적인 관광목적지와는 연계 투어 프로그램의 개발이 미흡한 실정으로 향후 지역의 관광지를 연계하는 연계관광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 ○ 임시주차장 형태로 주차장을 운영하다보니 주차장 기반시설이 미흡하여 방문객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는 바 개선이 필요함.
- ○ 전반적인 행사장의 부스와 시설등 공간에 컬러 컨셉을 도입하여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의 랜드스케이프 이미지를 구축해 나갈 필요 있음.

다. 축제의 발전성

❑ 잘된 점

- ○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의 인지도 확보를 위한 단기적 마케팅 이외에 종합적 전략을 수립 하였으며 항만과 공항을 겸비한 국제도시의 인천의 특성을 반영한 축제의 비전을 설정, 축제와 음악산업이 결합한 중장기 축제발전전략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등 축제브랜드 가치를 확장할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구축 하였음.
- ○ 시민참여와 효율적인 축제 운영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지역 문화단체 적극 발굴 하여 축제와 지역 문화단체 연계 활성화를 시도하였음.
- ○ 축제를 관광산업의 영역으로 확대 하기위한 다양한 관광상품개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역의 다양한 관광인프라(숙박, 음식 등)를 축제와 적극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고 있음.
- ○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하게 개발하여 인천 시민의 축제 참여 활성화 도모함과 동시에 시민이 축제운영 및 기획에도 참여하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관리방안 모색하고 있으며 자원활동가의 전망과 성장을 도와 함께 축제를 만들어가는 인력 풀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는 등 인력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음.

❑ 개선할 점

- ○ 인천공항 환승승객들을 위한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면 축제 인지도 확산에 큰 기여를 할 것임. 이를 위해 다양한 축제입장 요금제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 ○ 축제공간의 안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현재 축제장은 축제 후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축제장 기반구성 예산의 비효율성이 발생함.

라. 축제의 성과

❑ 잘된 점

- ○ 전년 대비 예산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관람인원 증가(약 11%) 하였으며 락페스티벌, 개최 이래 최초로 흑자를 달성함으로서 자립 가능한 축제로 전환하는 기반 마련하였고 예산대비 효율성을 높였음.
- ○ 연속 인천도시공사의 축제운영 및 관리로 도시공사의 문화사업 및 관광진흥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였음.
- ○ 뮤직인아츠페스티벌 무료행사(음악난장, 예술장터)와 문화소외계층 공연초대 약 1,000명시민 대상 무료프로그램 확대등 시민대상 무료 프로그램을 확대하였음 또한 시민기획단, 시민평가단 등 참여프로그램 운영하였음.
- ○ 인천의 새로운 도시이미지 구축에 큰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되며 향후 아시아 락음악의 메카로 발전 가능성이 있음.

❑ 개선할 점

- 펜타포트 락 축제가 지역축제로서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글로벌 지향적인 홍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축제의 파급효과를 지역 전체로 파급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3) 총 평

-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많은 문화관광축제의 고민인 대표프로그램의 차별성을 확보하고 있는 축제로 보여지며 향후 인천의 도시마케팅에도 활용할 수 있는 축제임.
- 또한 매년 축제에 시민 및 지역문화단체의 참여를 높여감으로서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
- 향후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은 방문객을 세분화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함. 현재는 매니아 중심의 고객이 주를 이루고 있는바 주최측에서는 축제의 메인 타겟을 어떠한 집단으로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향후 세계적인 락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국제적인 지명도 향상을 고려 해볼만하며 펜타포트 락 축제의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한 노력을 통해 축제의 다각화 전략을 추구해야 할 것임.
- 축제의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 해야 할 고민은 새로운 축제장소의 선택 혹은 축제장 인프라 구축에 있음. 현재의 장소는 축제를 진행함에 있어 많은 문제가 있음. 특히 우천시에 공연진행과 관람객의 불편함 해소가 어려운 상황임.

⑤ 추억의 7080 충장축제

(1) 개 요

- ❑ **주 제** : 추억 & 아시아
- ❑ **기 간** : 2012년 10월 9일(화) - 10월 14일(일), 6일간
- ❑ **장 소** : 아시아문화전당 앞, 충장로, 금남로, 예술의 거리 일원
- ❑ **주 최** : 광주광역시 동구
- ❑ **주 관** : 추억의 7080 충장축제 추진위원회
-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 한국관광공사, 광주은행, 보애양조, 롯데백화점
- ❑ **행사구성** : 6개 부문, 47여 개 행사
  - ○ 개막 행사 : 거리 퍼레이드 경연(우리의 민족 정서와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테마로 연출한 퍼레이드는 90여 개 팀 8,000여명이 참여), 진도 닻배놀이, 중국 전통문화 공연, 일본 전통문화 공연, 개막식, 개막축하공연
  - ○ 전시 행사 : 추억의 시간여행 테마거리(충장로 5가 광주극장 일원), 추억의 거리조성(소망터널, 추억세트, 추억의 빛 조형물, 추억의 시간여행 테마거리 주변, 광주우체국), 추억마켓(추억상품 전시 판매, 충장축제 캐릭터 빵 판매), 지역특산품 전시 판매, 광주 100년의 추억 이야기(광주 100년의 역사 사진 전시회),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 ○ 참여 행사 : 추억의 동창회(너무 친한 친구들), 그때 그 시절 먹거리, 아시아 가족 추억이야기, 추억참여 한마당(우리가족 추억 만들기, 추억의 별 주사위놀이, 오재미 대작전, 추억의 사람들, 가을운동회, 추억의 고무줄을 넘어라, 비석치기, 누가 누가 잘띠나!, 고무신 벗어 던지기), 추억 어울림 한마당(금남로 고고 파티, 금남로 UCC 추억찾기), 광주우체국과 추억의 7080 충장축제가 함께하는 350만 시-도민 편지쓰기, 봉숭아물들이기, 페이스페인팅, 바람개비 만들기, 토요일은 밤이 좋아
  - ○ 공연/경연 행사 : 아시아 문화예술공연, 충장로 추억의 밤, 7080 포크송 페스티벌, 추억 콘서트, 전국 추억밴드 경연대회, 충장 병아리축제(충장로 가을 소풍), 무형문화재 공연(강령탈춤, 좌수영 어방놀이, 북청사자놀음, 송파산대놀이, 호남좌도 임실 필봉굿), 1020 추억 만들기, 전국노래교실열전, 추억의 변사극

- 거리 행사 : 충장로 추억 퍼포먼스(충장로 추억 댄스, 충장로 거리극), 프린지 페스티벌, 시민 아티스트
- 부대 행사 : 충장로 Street 세일(지하상가, 충장로), 추억의 보물찾기, 거리화가 페스티발,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충장로 상품 경매(재미있는 추억 속 떡 이야기), 전국 학생 사생대회, 추억의 카페, 추억의 충장 열차(충장로 추억의 체험단), 예술의 거리 명사소장품 기증 경매, 서사모 회원전, 광주 시립극단 마당극 "별주부전", 연극 문화 공동체 DIC(수양별곡), 광주 고싸움 축제

(2) 항목별 평가

가. 축제의 특성 및 콘텐츠

❑ 잘된 점

- 6개 부문 47여개 프로그램을 선보인 추억의 7080 충장축제는 추억을 테마로 한 축제로서 역사성과 전통성을 충분히 살리면서도 중국, 일본, 멕시코 등 국내외 자치단체의 우수문화상품을 추억과 접목시켜 우리나라 최대의 거리문화 축제로 승화시킴으로서 지역주민과 타 지역, 국외 참가자들 모두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고 판단됨.
- 시민 참여의 축제, 에듀테인먼트형 축제, 체감의 축제, 화합의 축제, 새로움과 놀라움의 축제를 만들고자 하는 충장축제는 추억과 아시아를 소재로 다양한 전시, 참여, 공연, 경연, 거리퍼포먼스, 부대행사를 반영하여 축제의 차별성과 독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음.
- 거리퍼레이드는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는 폭넓은 장르의 거리예술로 관객들에게 신선한 재미와 감동을 선사했다고 판단됨. 우리의 민족 정서와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를 테마로 연출한 퍼레이드는 우리나라 각 지역과 해외 여러 나라에서 90여 개 팀 8,000여명이 참여해 금남로 일원에서 진행되었음. 행렬 하나하나가 특유의 주제성과 의미를 제시하면서도 춤과 음악이 함께 어우러져 신명나게 펼쳐지는 등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거리퍼레이드가 되어 충장축제만의 고유 문화상품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고 판단됨.
- 또한 프린지 페스티벌에서는 멕시코, 유로삼바, 인도, 방글라데시 등 세계 14개국에서 온 외국 공연 팀이 펼친 환상적인 퍼포먼스에 열광한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열정의 춤사위에 화답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이기도 했음. 전체적으로 시민들과 방문객의 참여도가 높았으며 공연 팀들 간의 공간 구성이 뛰어났다고 판단됨.
- 축제 콘텐츠 및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첫 선을 보인 추억의 시간여행 테마거리는 지금까지의 전시 프로그램 형태에서 탈피하여 기존 길거리 공간에 자연스럽게 조성함으로써 이번 축제의 볼거리를 배가시켜준 또 하나의 요인으로 판단됨.

○ 추억의 시간여행 테마거리는 광주극장 인근 골목에 오래된 가정집과 건물을 배경으로 조성되었음. 이곳은 '우다방'으로 불렸던 광주우체국과 이발관·만화방·DJ다방·자전거 수리점·구둣방 등이 70~80년대의 거리 모습으로 재현되어 관람객들에게 추억을 선물하였음. 또한 장발, 미니스커트 단속을 비롯한 다양한 퍼포먼스형 체험행사를 펼침으로써 삶의 현장을 느끼게 해 관람객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줌. 추억의 시간여행 테마거리라는 특색을 잘 살리며 7080시대 재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면이 보였기 때문에 축제 방문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봄.

○ 충장축제와 광주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유산인 '광주칠석 고싸움놀이'는 유네스코 민주인권로(문화전당 앞 금남로 공원 4거리)에서 고싸움 보존회, 초·중·고, 대학생, 외국인 등 2,000여명이 참여해 펼친 고싸움놀이는 광주의 문화적 성과물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커다란 이벤트 중의 하나였음. 전통을 이어가며 가장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는 등 반드시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판단됨.

□ 개선할 점

○ 축제의 특성상 추억이라는 소재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다보니 아이들이나 청소년 세대들이 즐길만한 프로그램이 비교적 적었으며 가족과 함께 즐길만한 가족프로그램은 부족하다고 판단됨.

○ 추억과 아시아를 주제로 펼쳐진 제9회 충장축제는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은 많았지만 방문객들이 꼭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대표프로그램(killer contents)의 명확성이 다소 떨어져 여러 방문객의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음.

○ 거리퍼레이드는 출발점과 도착점까지의 거리가 멀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출연자들의 참여도가 다소 떨어짐. 또한 퍼레이드 참가자들이 퍼레이드 행렬을 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으므로 도착점 또는 개막무대 스크린을 통해 퍼레이드 행렬을 볼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거리퍼레이드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교통통제 시간이 길어져 차량 운전자들의 민원 발생. 시간 단축 필요

○ 프린지 페스티벌에서는 외국 공연 팀의 게릴라식 거리 공연 특성으로 자세한 곡 설명이나 각 나라의 문화에 대한 특징을 알 수 없어 다소 아쉬움

나. 축제의 운영

□ 잘된 점

○ 축제가 9회째를 맞이하면서 시민들의 인식에'광주'하면 자연스럽게 '충장축제'가 떠오를 만큼 이번 축제를 위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참여한 축제가 됐다고 판단됨.

-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축제공간을 젊음과 추억의 공간이 공존하는 광주우체국 무대, 소통의 공간인 금남로 무대, 창조와 재발견의 공간인 예술의 거리 무대 등 8개로 구별, 분산 배치하여 휴식 공간 기능을 강화하고 사전에 거리아티스트들을 모집하여 축제장 곳곳에서 거리 연주와 마임 등 다양한 형태의 공연을 기획 연출하도록 하여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즐기도록 해 관람객들의 체류시간을 높이는데 기여함.
- 상인회의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바탕으로 충장로 및 금남지하상가 1,000여개 업체가 참여한 스트리트 세일 등이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두면서 호남 상권을 상징하였던 예전의 충장로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추억의 7080 충장축제 콘셉트에 어울리는 '추억의 동창회'를 비롯하여 '추억의 보물찾기', '봉숭아물들이기', '풍선 사진 찍기', '바람개비 만들기', '딱지치기' 등 다양한 추억놀이를 통해 그 시절의 추억과 낭만을 엿볼 수 있는 관람객 체험 프로그램을 대폭 늘린 것도 관중을 끌어 모은 핵심운영전략으로 판단됨.
- 추억의 7080 충장축제는 민관주도형의 축제로서 축제기간 동안 지역주민 및 지역사회단체, 공무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이 축제 운영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지역주민, 시민단체, 공무원 모두가 축제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각각 담당프로그램을 배치하여 축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음.

❑ 개선할 점

-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가장 중요한 곳 중 하나가 화장실임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확보가 부족함. 공공화장실이 곳곳에 설치되지 않아 주변 상가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데 대부분 잠겨있어서 지역상점의 협조가 요구됨.
- 거리퍼레이드 행사장에서는 퍼레이드 시 나눠주는 먹거리 또는 기념품 등을 무리하게 얻기 위해 달려드는 관람객의 통제가 전혀 되지 않아 퍼레이드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관람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음.
- 거리퍼레이드가 끝난 후 각종 쓰레기들이 많이 쌓여 있어 위생상으로 청결하지 못하였음. 쓰레기 및 주변 환경만을 책임지는 자원봉사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또한 편의시설 부족과 축제기간 특정 상권 이익 편중에 따른 충장로 상인과의 갈등은 해결해야 함.
- 축제 기간 동안 충장로와 금남로 일대 차량통행이 통제되면서 교통체증과 주차문제 등으로 혼선을 빚었고 신호위반, 꼬리 물기 등의 단속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건널목에서 위험을 초래함.
- 지역상권이 밀집한 거리 축제의 특성인 만큼 특산물 판매장이나 먹거리 판매 부스의 다양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방문객들의 참여 비중에 비해 축제공간에서 제공되는 먹을거리 공간이 많이 부족하여 방문객에게 많은 먹거리를 제공하지 못함. 또한 인도위에 먹거리 부스가 설치되어 공간의 협소로 인해 통행하는 방문객에게 많은 불편함을 초래함.
- 먹거리 공간의 경우 위생상의 문제점이 발견됨. 먹거리를 조리하는 과정에서 식수의 관리체계가 시급함.

- 축제가 열리는 장소가 넓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방문객들의 응집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메인프로그램과 상설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을 통한 안내체계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함.
- 최근의 축제 홍보는 방송매체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이 요구되고 있음. 하지만 추억의 7080 충장축제는 온라인 홍보에 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음. 따라서 축제의 체계적인 홍보와 함께 파워블로거 및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한 축제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전개가 필요함.
- 추억의 7080 충장축제 접속이 많아 그러한지는 모르나, 홈페이지가 잘 연동되지 않음. 이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얻는 방문객에게는 불편함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축제캐릭터를 활용한 축제 기념품 개발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방문객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캐릭터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다. 축제발전성

❑ 잘된 점

- 9년간 이어온 축제의 우수성과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로 선정됨에 따라 축제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는 등 축제 성과를 공유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축제에 대한 자부심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타 지역, 국외의 여러 나라와 함께하는 거리퍼레이드는 매년 퍼레이드의 구성과 아이디어가 발전하고, 참가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바탕으로 각 지역단체들의 참여와 서비스 등의 축제 발전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함.
- 장르나 형식 등 정해진 틀에 얽매이지 않고 축제 기간 동안 에든버러 곳곳에서 자유롭게 각종 공연들이 펼쳐져 마치 도시 전체가 거대한 공연장으로 변하는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처럼 추억의 7080 충장축제도 도심 전체가 축제 그 자체가 돼 열정하나만 있으면 연극, 뮤지컬, 무용,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마추어든 프로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로 발전하고 있음.
- '추억의 7080'이라는 축제의 본질에 충실하면서도 민속문화공연뿐만 아니라, 시민 화합에도 크게 기여하여 광주 시민만의 축제를 넘어 세계적 축제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줌.

❑ 개선할 점

- 추억의 7080 충장축제는 광주 동구라는 지역의 한계성으로 인해 지역관광자원을 연계하여 방문객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지속성장에 대한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 축제 재정자립도의 경우 광주 동구청만의 재정으로 축제를 운영하고 있어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의 기대는 아직 어렵다고 판단됨. 향후 규모나 질

면에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상권의 재정적 지원과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야 함.

- 중국인 관광객 1000만의 시대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광주로 끌어들이는 노력 부족. 따라서 추억의 7080 충장축제를 광주 대표 브랜드로 개발하여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써야 함.

라. 축제의 성과

❑ 잘된 점

- 추억의 7080 충장축제는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전 국민이 함께하는 축제로 만들어 동구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 내었다고 판단됨.
- 질과 양적인 면에서 내실을 기하여 한 단계 높은 도약과 차별화를 추구하였고 일본, 중국 등 14개국이 참여한 국제민속공연과 다양한 부대행사 및 주민체험프로그램을 대폭 늘린 전략이 시너지효과를 거두면서 축제성공의 견인차 역할을 했음.
- 축제 세계화 전략은 2015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완공에 따른 문화중심도시 동구위상과 부합되는 방향에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
- 말춤으로 세계를 춤추게 한 강남스타일을 이번 축제에선 플래쉬몹을 접목한 광주 동구만의 '충장스타일'로 만들어내면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열정을 쏟아낼 수 있었던 무대를 연출해낸 것도 이번 축제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 임.
- 충장축제 대표 상품인 거리퍼레이드는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단순한 보여주기 행사가 아닌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무장한 시민 축제로 한 단계 도약했음.

❑ 개선할 점

- 추억의 7080 충장축제에 참여한 방문객들이 지역의 특산품을 살 수 있도록 판매장을 마련하여 방문객 비용 지출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광주의 대표 음식들로 구성된 먹거리 장터를 마련하여 광주만의 특별한 먹거리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축제의 정체성과 주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억의 7080 충장축제에 대한 대표프로그램(killer contents)을 더욱 강화하고 주제성 관련된 더욱 다양한 확장프로그램 개발도 이루어 져야 함.

(3) 총 평

- 제9회 추억의 7080 충장축제는 추억을 테마로 한 축제로서 6개 부문 47여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우리나라 최대의 거리문화 축제로 승화시킴으로서 지역주민과 타 지역, 국외 참가자들 모두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음.
- 추억의 7080 충장축제는 국내 최대의 거리퍼레이드와 추억을 소재로 한 축제라는 확실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광주시 동구와 지역주민의 열정이 느껴지는 축제로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갖추고 있음.
- 향후 축제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축제재원의 자립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지역 상인들의 자발적인 협력 체계와 스폰서십 등을 통해 자립성의 성과를 매년 높여가는 노력이 필요함.
- 축제방문객이 주로 당일관광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추억의 7080 충장축제는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향후 축제방문객의 지속적인 체류를 위한 연계관광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됨.
- '추억&아시아'의 주제로 개최된 제9회 추억의 7080 충장축제는 대표프로그램의 다양화로 축제의 주제성을 살리는 것이 부족함으로 축제를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가는 대표프로그램 강화가 요구됨. 소프트웨어와 함께 하드웨어를 동시에 구상되는 새로운 중장기 단계별 전략이 세워져야 함.

⑥ 광주 세계김치문화축제

(1) 개 요

❑ **기 간** : 2012년 10월 13일(토) - 10월 17일(수) 5일간

❑ **장 소** : 광주 중외공원 일원

❑ **주 최** : 광주광역시

❑ **주 관** :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위원회

❑ **주요행사**

- 공연행사 : 개막식, 폐막식, 김치캐릭터 퍼레이드, 김치예술무대, 자치구 시민한마당,
- 체험행사 : 김치담그기 체험관, 외국인 김치문화탐험, 김치문화놀이터
- 전시행사&경연&아카데미 : 김치오감박물관, 김치감동, 올해의 김치콘테스트, 시민김치왕콘테스트, 김치영양도시락콘테스트, 김치명인아카데미, 김치푸드스타일 아카데미, 대학생·청년 김치창업콘테스트
- 판매행사 : 남도특산물장터(남도특산물 거리, 축제·관광기념품숍, 옹기전시·판매장, 떡까페 예다은), 맛집골목(광주 맛집, 퓨전김치레스토랑, 우리밀 음식전문점, 김치주먹밥집, 광주별미 상추튀김집, 다문화음식관), 김치마케팅(전라도김치큰장터, 김치부재료 장터)
- 부대행사 : 김치타운 오감투어

(2) 항목별 평가

가. 축제프로그램 완성도

❑ **잘된 점**

-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는 한국을 대표하고, 세계로 나아가는 김치축제라는 목표와 축제세계화, 광주김치산업화, 시민축제화라는 세부추진전략을 가지고 11개 분야 54개 프로그램이 잘 조화를 이루어 성공적으로 축제프로그램을 진행함
- 특히, 축제 세계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워싱턴 DC에서 사전축제행사를 하고 해외홍보대사를 위촉하여 국제적 이슈를 창출하는 등 축제를 축제장에 국한하지 않고 축제장을 벗어난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축제의 효율성을 높임

- 광주김치산업화의 경우도, 5일간의 짧은 축제기간에 마케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청년 김치창업콘테스트 또한 축제기간이전에 진행하고 축제기간에 결과를 전시함으로서 축제의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여 축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함
- 개막식 공연으로 벌어진 김치버스와 김치타코를 소재로 한 공연은 개막공연을 유명 연예인에 의존하지 않고 김치축제와 관련된 사전행사를 소재로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함. 다만, 행사진행과 관련하여 적절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관객의 수가 적고 이에 따라 객석의 분위기가 다소 썰렁한 점은 개선되어야 함
- 광주김치세계문화축제는 다른 축제에 비해 전시&경영&아카데미프로그램이 우수함. 다양한 김치 경영 및 아카데미프로그램을 배치함으로서 다른 축제와 차별화를 시도한 점은 매우 돋보임. 다만, 이러한 다양한 행사가 단지 축제장에서의 행사가 아니라 축제가 추구하는 목표인 세계화 산업화와 관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전시의 경우, 전시장으로 사용되는 김치오감박물관은 그 시설의 규모와 수준에 있어 다른 축제에 비해 매우 뛰어남. 특히 화려한 색채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축제장의 분위기를 밝게 만듦
- 전반적으로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는 명확한 목표 하에 구체적인 세부전략을 세우고 이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의 배치를 통해 축제의 차별화에 노력했다는 점이 돋보임

❑ 개선할 점

-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의 프로그램의 경우 명확한 목표가 좋은 반면, 아직도 그의 실천에 있어서는 보다 많은 고민이 요구됨. 즉, 축제를 관광형 문화축제로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김치의 판매를 신장시키기 위한 산업축제로 가져갈 것인가에 따라 축제의 내용이 다소 상이할 것으로 판단됨. 명확한 정체성의 설정과 그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의 구성이 요구됨
- 이번 축제에서 아쉬운 점은 체험관련 행사가 다소 부진한 점임. 김치담그기체험관의 경우 다양한 체험이 준비되어 있는 점은 좋으나, 김치예술무대와 인접해 있어 소음이 많고, 좁은 시설 내에 다수의 체험시설을 갖추어 놓음으로서, 체험이 다소 형식적 체험에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점을 내포함. 실제 김치담그기의 경우 체험시간이 5-10분에 불과하여 형식적으로 김치를 버무리는 수준에 그침. 다만 체험후 직접 담근 김치를 포장용기를 통해 가져갈 수 있게 사전 준비한 점은 좋았음

나. 축제운영의 적절성

❑ 잘된 점

- 축제 총 감독제를 시행하여 전문가적 시각에서 축제프로그램을 기획, 컨설팅 함으로써 축제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이들의 의사결정과정이 다른 축제에 비해 효율적

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축제위원회가 행사를 주관하고, 집행위원회, 프로젝트 매니저 등이 축제의 기획에서 실행을 담당하여 효과적인 업무분장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 축제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중외공원은 축제를 하기에는 다소 비좁은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한 점은 돋보임. 다만 몇몇의 시설을 배치함에 있어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요구됨. 특히, 김치예술무대와 인접해 있는 김치담그기 체험관의 경우 체험을 지시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음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아 예술무대에서 공연이 진행되면 마이크를 사용하더라도 소음 때문에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문제점을 나타냄. 공간의 위치를 조정한다던가, 체험시간의 조정을 통해 극복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함
- 축제장 내의 대다수의 부스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핸드폰 충전기 설치 등 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쓴 부분이 돋보임. 다만 한가한 몇몇 부스에서 자원봉사자의 부적절한 태도가 나타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기본적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이 필요함

❑ 개선할 점

- 이번 축제에서는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통해 많은 외국인을 유치하는 등 축제장의 분위기를 살린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원거리 관람객을 위한 홍보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축제가 광주광역시라는 도시에서 열리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축제장에 오는 길을 홍보함에 있어 기존의 자가용 위주의 안내와 더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람객을 위한 홍보가 병행되어야 함. 아울러 광주터미널에 있는 홍보물의 배치의 경우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축제 기획단계에서의 홍보물을 비치하고 있는 점은 개선되어야 할 점임
- 몇몇의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 프로그램의 고유의 목적을 잘 고려하는 것이 요구됨. 특히, 김치사랑 나눔 메세나의 경우 그 정신은 매우 좋고, 이의 홍보를 통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실제 행사시간에 비해 포토시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일반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은 행사의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됨

다. 축제발전성

❑ 잘된 점

- 제19회 광주세계문화축제는 축제의 주제인 "세계가 열광하는 say Kimchi!"에 맞게 워싱턴 D.C.에서 워싱턴 지구 한인 연합회가 주최하는 '제 10회 코리스축제와 함께하는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에 참여하고, 김치투어 버스를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운영을 함

○ 이번 축제의 운영에 있어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다양한 기관의 외국인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여 외국인의 참여를 높였다는 것임. 한국관광공사 뿐 만 아니라, 지역 내에 있는 외국인 대학생 네트워크를 적절히 활용하여 축제장에 외국인의 유치가 돋보임

○ 아울러, 축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점은 향후 이 축제가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맛집 골목을 운영함에 있어, 퓨전김치레스토랑을 통해 지역의 대학의 관련학과의 참여를 이끌어 냈고, 다문화음식관에서는 적당한 메뉴설정을 통해 많은 관람객이 오고가며 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함. 이와 같이, 지역에 산재해 있는 자원을 활용함으로서 자연스럽게 축제에 참여토록 한 점은 매우 바람직함

❑ 개선할 점

○ 축제가 김치의 산업화라는 점을 달성하는 데는 일정부분 성공한 것으로 보임. 하지만 자칫 축제의 참여가 일반 관람객인 점을 고려할 때 순수한 컨퍼런스 기능과 더불어 축제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함. 이런 점에서 볼 때, 구매와 더불어 축제의 잔치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체험프로그램이 보다 강화되어야 함

○ 축제장이 비좁아 축제의 운영에 제약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축제장과 광주김치타운을 연결하는 '김치타운 오감투어'를 보다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광주김치타운을 활용함으로서 김치의 역사와 문화를 학습할 수 있고, 좁은 축제장에서 벗어나 체험기능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됨

○ 축제의 원거리 관람자를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숙박 관람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단일 축제만을 가지고는 충분한 매력도를 가지지 못함. 축제와 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계시키는 다양한 축제 연계상품을 마련하는 전략이 요구됨

라. 축제의 성과

❑ 잘된 점

○ 이번 축제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김치의 세계화전략에 따른 김치의 판매와 더불어 지역 내에 위치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김치에 대한 확실한 인지도를 심어주었다는 점임. 이번 축제는 다른 축제에 비해, 축제의 소재가 자칫 외국인이 싫어할 만한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의 결과로 축제장에 많은 외국인이 방문하도록 유도함

○ 축제의 성과는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음. 사회적 성과의 경우, 축제의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함에 있어 지역의 다양한 계층(학생, 다문화가정 등)이 단순한 관람이 아닌 축제운영에 적극참여 함으로서 사회화합의 성과가 있었고, 축제를 통해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소통은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문화적 자부심을 고양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됨

○ 경제적인 측면에서, 축제기간의 지역의 김치 및 부재료를 판매함에서 얻어지는 직접적인 효과와 더불어 지역 김치의 인지도 및 우수성을 알리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됨

❑ 개선할 점

○ 이번 축제가 보다 나은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축제에 대한 보다 세밀한 계획이 필요함. 즉, 사회,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오기 위해서는 방문객수의 증가와 더불어 연계 관광상품의 개발을 통한 방문객의 체류시간 연장하는 노력이 요구됨. 아울러 축제에서 체험의 참여 여부가 전반적인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체험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함

○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의 성공의 핵심은 축제의 기능적 측면인 산업화와 유희적인 측면을 어떻게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는냐에 있음. 이를 위해서는 축제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축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가치를 명백화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함. 뚜렷한 목표가 구체적인 계획으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축제의 목표를 달성하리라고 판단됨

(3) 총 평

○ 전반적으로 이번축제는 축제장의 협소라는 근원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축제의 장을 축제장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화했을 뿐 만 아니라 축제를 준비함에 있어 사전 행사를 통해 축제의 인지도를 높인 점, 마지막으로 지역에 있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축제의 행사진행에 참여시킬 뿐 만 아니라 관람객의 증가를 이끌어 내는 등 많은 노력이 엿보임

○ 다만 향후에는 이러한 축제가 좀 더 시너지효과를 내어, 실질적인 세계화 산업화, 그리고 축제의 잔치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가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⑦ 울산 고래축제

(1) 개 요

❑ 기 간 : 2012년 4월26일(목)-4월29일(일) / 4일간

❑ 장 소 : 울산광역시 태화강, 장생포

❑ 주 최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남구

❑ 주 관 : (재)고래문화재단

❑ 주 제 : 생명의 도시, 고래의 꿈

❑ 주요 행사

- 개막공연 : 공식행사 및 개막주제공연
- 대표프로그램 : 리얼 선사체험촌, 선사고래잡이 재연, 퍼포먼스 퍼레이드
- 주요프로그램 : 고래주제전시관, 고래와 술이 만나는 광장, 고래 마당극, 고래 오딧세이, 고래배 경주대회
- 참여체험프로그램 : 고래장터, 고래바다여행, 우리동네명물내기, 시민극단 한마당, 추억의 나루터, 고래소망등 켜기 "소원자전거", 태화강 수상체험, 어린이 고래글짓기/그림그리기 대회, 태화강 향토음식체험 등
- 참여전시프로그램 : 우산길 "하늘을 나는 고래", 깃발전 "고래 의 꿈", 고래주제 "토피어리", 소망등길, 고래 시(詩)길
- 공연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 고천제, 장생포 용왕제, 고래마당/장생포 프린지공연, 장생포 "고래-Show단", 장생포 "비빔 in 울산", 대한민국 포크페스티벌, 고래가요제
- 연계프로그램 : 고래문학제, 고래관광 학술대회, 고래박물관 특별 전시전, 고래생태체험관 특별이벤트 등

(2) 항목별 평가

가. 축제의 특성 / 축제 콘텐츠

❑ 잘된 점

- 올해 18회째를 맞는 울산 고래축제는 14회 이후 지역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주제 중심의 축제로서 인지도를 높였으며, 2011년에 새로 출범한 '고래문화재단'이 축제를 주

관하도록 함으로써 축제 개최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축제 기획 및 운영을 꾀한 점이 높이 평가됨

- 특히 올해는 개막 행사에서의 의전 최소화 및 '뮤지컬 공연' 시연, 시민 극단 참여 등 신규 이벤트 시행으로 자발적인 축제 개최 효과를 높이 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돋보임
- 2011년이후 '태화강 물축제'와 통합 운영됨으로써 축제 규모 및 프로 그램 확대 발전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한 축제장의 참여/체험프로그램 활성화와 함께 '고래소망 등 켜기(소원 자전거)'와 같은 친환경 활동 등 사회 전반의 공통 관심 주제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이 축제 콘텐츠 확충, 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각종 프로그램 및 행사장 일부에 소주제어(술고래 광장-"고래와 술이 만나는 광장", 우산길-"하늘을 나는 고래", 깃발전-"고래의 꿈" 등)를 정하여 주제와의 연관성을 부각시켜 방문객의 관심을 이끌고 축제의 주제성을 인식시키고자하는 노력이 엿보임
- 축제장내 주제 관련 각종 이벤트 참가와 함께 축제 기간중 직접 고래를 볼 수 있는 연계 관광 프로그램인 '고래바다여행' 체험으로 축제관광객 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축제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개선할 점

- 선사체험촌 운영 등 대표 및 주요프로그램의 실행 효과가 주제를 부각 시키기에 다소 부족한 면이 있으며, 프로그램에서의 흥미(Fun)요소와 함께 지역 역사와 문화 등을 반영한 고유의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을 통해 이야기(스토리)가 있는 축제로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축제기간중 주요 시설인 고래 주제 전시관의 멸실로 인하여 주제 홍보 활동이 크게 지장을 입었으며, 이벤트 및 체험장 운영에 있어 참여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방문객 참여 유도가 필요한 바 향후 주요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철저한 관리, 운영이 요구됨
- 또한 고래축제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의 확대 구현과 함께축제장내에서 주제에 대한 이해와 주목도를 높이기 위하여 방문객의 동선을 감안한 부스 배치(레이 아웃) 계획이 사전에 적합하게 이루어져 효율적인 축제 기획, 운영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작년과 마찬가지로 축제장이 태화강과 장생포로 이원화되면서, 축제장별 방문객이 분산 유치되고 있는 바, 향후 양대 축제장의 연결 교통편 확충 및 프로그램의 연계 운영 등을 통한 지역외 방문객 유치 확대 및 축제 개최의 시너지 효과를 이루어내는 노력이 요구됨

나. 축제의 운영

❑ 잘된 점

- 태화강 둔치 및 장생포 등 축제 장소는 접근성이 뛰어나며 특별 주차장 운영 등 방문

객 편의를 위한 각종 시설이 적절하게 운영되었으며, 태화강 둔치의 넓은 공간의 효율적 활용 및 장생포의 주제 관련 기존 시설 연계 활용 등 축제장으로서의 좋은 입지와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축제장내 주무대와 보조무대의 공연 및 이벤트가 적절한 간격을 두고 원만하게 진행되었으며, 효율적인 안내부스 운영과 적정한 위치의 행사장 배치도 , 표지판 설치 등으로 방문객 들을 위한 체계적인 안내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사료됨
- '술고래 광장' 운영, 편의점 입점 운영, 축제 기념품(고래술잔 등) 판매 및 행사장내 다양한 고유 먹거리 제공 등으로 방문객들의 소비를 촉진 시키고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 노력이 인정됨
- YTN 등 TV 매체를 비롯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전국 및 지역 홍보가 축제기간 1개월 이전부터 효과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시내 주요 시설물의 홍보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한 현장 홍보도 적절히 시행된 것으로 판단됨

❑ 개선할 점

- 술과 고래가 만나는 광장(술고래) 운영에 있어 술고래 스토리화를 통한 소개와 취지는 좋지만 보다 효율적인 운영시스템 개발이 요구되며,소비자들의 건전한 이용 분위기를 유도하고 위생관련 부분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행사장 곳곳에 배치된 안내, 운영요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 되며, 잡상인들의 판매 행위는 눈에 띄지 않지만 외부 업체(부동산 등)의 광고 판촉 활동 등이 있어 이러한 축제 방문객의 관람에 저해되는 활동을 적극 통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축제 행사장 진입시 방문객 동선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어 축제 관람 참여 효과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문객 동선 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행사장 입구 주변 '웰컴존'에서의 주제와 무관한 여러 기관의 홍보부스의 별도 지역 재배치와 함께 축제 주제를 상징하는 대형 구조물 설치(고래 모형 등)를 통하여 울산고래축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축제장 체험 공간내에 '어린이 놀이마당' 및 주제와 관련이 없는 체험 부스 등이 혼재되어 여러 종류의 체험 프로그램이 산만하게 운영되므 로써, 이와 같은 체험 공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관련 기관 및 업체의 축제 참여 목적 달성과 함께 방문객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부가적인 노력이 요구됨
- 축제장내에서 기본 편의시설(화장실 등) 위치 확인이 다소 어렵고 불편 하였으며, 문화관광축제로서 향후 보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 방문을 고려하여 영문 안내책자 배포 등 외국어 안내서비스 확충이 요구됨

다. 축제발전성

❑ 잘된 점

- ○ 울산고래축제 관광객이 전년대비 17.3% 증가하는 등 축제 인지도와 참여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지자체의 축제 발전 의지와성숙된 인식으로 작년의 '고래문화재단' 설립과 함께 전문 조직에 의한 축제 주관으로 전문성 및 축제 완성도 향상을 이루었고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한 시의적절한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됨
- ○ 축제 발전을 위한 관련기관 및 업체 간의 효율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고래축제만의 차별화된 주제를 축제기간중 적극적으로 부각시켜 지역 홍보와 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 울산고래축제의 잠재 방문객 유치를 위한 DB 마케팅 실시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축제 방문객의 지속적인 증가를 이루어내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 및 지역 문화 관광자원과의 연계 프로그램 시행 등으로 축제 개최 효과 증대와 함께 지역 관광 발전에 이바지함

❑ 개선할 점

- ○ 장생포 고래문화마을 조성 등 축제 개최 기반 확충에 따라 지역 특성과장점을 살려 주제를 감안한 행사장의 재구성이 필요한 바, 장생포의 전용축제장화 등 공간의 차별화 전략 수립과 함께 행사장별 특화 콘텐츠의 적극적인 개발이 요구됨
- ○ 금년 행사 초반 우천 및 돌풍으로 인한 시설물 손괴 및 프로그램 차질이 빚어졌으며, 방문객들이 안전 위험에 노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야기됨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보다 철저한 위기 관리 체계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 축제 발전과 도약을 위한 체계적인 중장기 전략 수립과 함께 축제 주제 반영 프로그램 강화 및 가족 레저 활동의 증가에 따른 가족 방문객을 위한 참여형/교육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축제 방문객 유치 확대와 새로운 관광 도시로의 변모 노력이 요구됨

라. 축제의 성과성

❑ 잘된 점

- ○ 2012 울산고래축제의 방문객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적인 행사 평가 만족도가 전년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축제 컨텐츠, 축제 상품, 주차, 축제 음식 부문 만족도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 ○ 또한 방문객 대상 거주지 분석 결과 부산지역 관광객이 전년대비 9.9%, 서울 경기지역 관광객이 4.8% 증가하는 등 관광객 유치 부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방문객 1인당 소비지출액은 전년대비 15.3%가 증가 하였는데 이는 '술고래광장' 운영, 편의점

입점 운영 및 행사장내 먹거리 다양화 등을 통한 방문객 식음료비 지출비용이 높았던 것이 주요 요인 으로 분석됨

- 의전 행사의 축소와 함께 스토리텔링형 개막식 연출 및 뮤지컬 공연, 수상 멀티미디어쇼 등 주제가 반영된 고급형 축제 콘텐츠 운영으로 축제의 완성도와 수준을 높인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됨

❑ 개선할 점

- 장생포 지역 프로그램중 직접적으로 고래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는 바, 지역 관련 시설(고래 박물관, 고래 생태 체험관 등) 연계 프로그램 및 고부가 여행상품인 '고래바다여행'을 주요프로그램으로 확대 발전시키고 참여 기회를 늘림으로써 방문객들의 행사 만족도를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음
- 방문객 대상 거주지 분석에 따르면 타지역 관광객의 축제 방문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울산 시민의 방문 비율이 65%를 상회하고 있어 지역외 관광객의 방문 및 소비를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미미한 편인 것으로 판단됨.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대외 마케팅 활동 등을 통한 축제 인지도 제고와 방문객 유치 확대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3) 총 평

- 2012 울산고래축제는 차별화된 주제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으며, 2011년에 '고래문화재단'을 신설하여 금년 축제를 주관함으로써 축제 개최 효과를 더욱 높였고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로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한 것으로 평가됨
- 축제 행사장의 재구성 및 킬러콘텐츠 강화 등을 통하여 축제의 질적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고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 프로그램 확대 추진으로 지역 홍보 효과 제고 및 방문객 유치 확대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성공적인 축제를 만들기 위한 단계적인 축제 발전 전략 수립이 요구되며,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축제 홍보 활동 강화와 체계적인 축제 관리 운영 등으로 향후 울산시의 대표축제로 육성,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⑧ 수원 화성문화제

(1) 개 요

❑ 기 간 : 2012년 10월 5일(금) - 10월 7일(일) <3일간>

❑ 장 소 : 연무대광장(창룡문), 화성행궁 광장, 수원천 등 수원화성 및 화성시 일원

❑ 주 최 : 수원시

❑ 주 관 : (재)수원문화재단

❑ 주요행사

- 화령전 작헌의, 시민퍼레이드, 정조대왕 능행차, 행궁광장 개막연, 연무대광장 총체공연, 친림과거시험, 혜경궁홍씨 진찬연, 잘신신고 수원화성걷기, 수원천 꿈길(수원천연가, 등불축제, 다리밑갤러리, 설치영상 및 전시), 행궁광장 공연, 용연 공연('용연지몽'), 상설공연(무예24기, 장용영 수위의식, 전통 줄타기)
- 화성시 연계행사 : 융릉제향, 백수연 및 효행상
- 부대행사 : 체험부스, 수원천꿈길 창작장터, 수원화성 축성체험, 다산아카데미, 아름다운 행궁길 아트마켓(공방거리),
  기획전시, 벽화골목 투어(북수동), 참여부스, 스폰서부스
- 연계행사 : 음식문화축제

(2) 항목별 평가

가. 축제프로그램 완성도

❑ 잘된 점

- 본 축제는 정조대왕의 사상을 담은 전통행사를 중심으로 특화된 콘텐츠로 수원화성문화제만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특히 전통과 현대인의 정서를 아우르는 문화관광축제로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돋보인다. 올해부터 독자적인 운영체제로서 재단법인인 수

원문화재단이 총괄함으로써 보다 탄력적이고 집중화된 축제프로그램개발이 눈에 띈다. 이를 뒷받침 하듯 계획서를 사전 검토해 본 결과, 3월부터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이 작성되어 운영되어 왔으며, 국내에서 역량 있는 전문가를 자문위원 및 총연출로 초청하여 기획하여 왔다는 점이 높이 평가된다. 그리고 수시로 축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예상되는 문제를 최소화 하도록 하는 효율적인 최적의 운영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 공방거리, 벽화골목, 수원천 등 수원화성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을 축제공간으로 활용하여 다양성을 확보하고 정조와 더불어 주민을 위한 다양한 수원의 문화를 선보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축제의 기본적인 이념인 정조대왕의 사상과 철학을 제대로 구현하려는 정신을 엿볼 수 있으며, 국민들에게 산역사의 교육장으로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는 역사관련 축제프로그램으로서의 완성도 측면에서 매우 높다. 특히 토요일 마다 상설개최 되는 '화성행궁상설한마당'의 역동적인 프로그램들이 본 축제와 잘 조화되고 녹아들고 있어 축제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동감 있는 축제가 되고 있다.
- 개막식, 폐막식 대신 개막연, 폐막연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외전 중심의 정형화된 개·폐막식을 지양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인다.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선보인 '화성, 정조의 꿈(야조)'은 수원화성의 아름다움을 구현하였고 정조와 화성의 역사적 개연성을 보여주는 화려한 퍼포먼스와 아름다운 공연은 볼거리의 충족성면에서 상당히 뛰어나다. 그리고 수원화성, 화성행궁, 행궁 상설행사 등 기존 수원화성 관광 상품과 연계하여 관람객들이 축제 후 수원 화성 관광을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생겼다고 보인다.

❑ 개선할 점

- 유네스코지정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이라는 상징적인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성곽을 배경으로 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보이지만 화성의 보존과 환경에 대한 배려를 좀 더 고려했으면 한다.
- 처음 시도되는 시민환영퍼레이드 경연의 경우 단순히 퍼레이드 경연을 위한 퍼레이드라는 느낌을 준다. 그리고 지나치게 긴 행렬 거리로 인하여 집중력이 떨어지고 적정 간격 유지가 어려워 시민과 관람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에 미흡한 점을 감안하여 거리의 단축과 시간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구성이 전통공연, 재현에 치우친 감은 있다. 따라서 수원화성만의 다양한 콘텐츠라는 면에서 좀더 해석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연령층과 계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질적인 측면에서 다소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많은 공연들이 개막연, 폐막연, 총체공연과 동시에 진행되어 좋은 프로그램의 관람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용연지몽 공연 등). 이에 향후 전체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선택과 집중에 의한 프로그램의 장소와 시간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축제행사가 끝 난후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공연 연출력에 비해 관람객들이 공연의 내용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는 설명 등의 기능이 약해 이에 관한 보완이 필요하다.

나. 축제운영의 적절성

❑ 잘된 점

- ○ 정조 대왕 능행차 및 시민환영퍼레이드를 비롯한 많은 단위행사에서 시민화합의 모습과 시민 스스로 자원봉사자가 되어 축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 층 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축제가 타 축제에 비해 가장 두드러진 것은 수원시 화성의 내부시설이용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지역 전체를 축제장으로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주변지역을 무대화 하여 화령전, 작헌의, 정조대왕 능행차, 행궁광장 개막연, 행궁광장 "춤추는 관현악" 등의 전통공연과 어울려 수원화성축제의 정통성 있는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축제 둘째 날에 펼쳐진 정조대왕 친림과거시험, 수원천 생태미술대회, 융릉제향, 아름다운우리소리, 수원화성예술축전, 216m김밥퍼포먼스, 연무대(창룡문) 총체공연, 용연지몽Ⅲ 젊은국악, 수원천戀歌Ⅱ 등의 다양하면서도 일관성 있고 주제에 맞는 콘탠츠개발로 인하여 축제운영이 적절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 축제하이라이트 행사로서 연무대에서 펼쳐진 '총공연'은 가히 관광객의 집중도를 높힌 의미 있는 행사로 평가되며 앞으로 더욱 흥미와 재미를 가미한 중요행사로 거듭날 가능성을 보인 성공한 공연으로 평가된다. 무대장소의 선정이나 기타조명, 음향 등 야외에서 전개되는 행사로서 자칫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는 행사를 다양성과 신기성으로 잘 극복하고 있다는 점이 향후 수원축제의 발전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예년과 달리 관계공무원, 수원시민 및 진행자들이 혼 연 일체가 되어 행사에 임하고 있어 관광객들도 상당히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거리퍼레이드나 현수막, 홍보음악 등 전체적으로 오프라인 상에서 축제를 자연스럽게 홍보하여 관객을 유도하고 있어 축제의 집중도를 높이고 있다. 주 행사장인 수원화성행궁 주차장이 음식문화축제 장소로 활용되어 주차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으나, 주변 학교를 활용한 임시주차장, 환승 주차장을 사전에 확보 활용하여 주차문제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개선할 점

- ○ 축제홍보의 경우 언론매체 및 전광판, 지하철, 버스 광고를 통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등 홍보노력이 있었으나 좀 더 적극적인 사전홍보가 필요하며, 수원화성의 장소성을 활용한 전방위 마케팅홍보 노력이 다소 부족하다.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언론매

체를 활용한 홍보와 광고전략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축제의 의의와 축제의 자부심을 고양시키는 심포지엄이나 잔치 등 사전 행사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할 경우 지역민들은 축제 행사 기간 중에 있는 교통통제나 불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민원제기를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 현장스태프의 노력과 사전 안전점검이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위험성 관리(Risk management)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축제에는 자연 재해나 날씨 등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축제 운영자들에게 사전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축제 때에 혼란에 이르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모든 위험성을 예측하기는 불가능함으로 뜻하지 않은 위험성이 일어날 때마다 그 내용을 자료화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원활한 축제운영을 기해야 할 것이다(태풍 지침, 갑작스런 주차장 모자람 등).

다. 축제발전성

❑ 잘된 점

- 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문화예술·축제 전문인력이 포함된 수원문화재단에서 축제를 기획, 운영하도록 축제조직을 상설화하고 정비하고 있어 향후 보다 내실 있는 축제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수원화성문화제를 통해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과 지역 전통시장, 행궁동 벽화 골목, 공방거리 등 지역 자원과 연계를 통해 앞으로 문화, 관광, 지역경제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주제를 발굴하여 특화시키고 콘텐츠화 된다면 명실상부한 건실한 우수축제로 거듭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정조대왕의 발자취와 현재의 수원의 가치를 재조명하여 역사문화에 근거한 재미있고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실현한다면 수원의 문화적 가치를 전국민이 공유하는 길이 될 것이며 이것이 곧 축제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 본 축제가 많은 수원시민들이 즐거워하고 동참하고 있어 발전 잠재력이 매우 높은 축제로 평가된다. 즉, 지역주민들이 축제의 전통행사에 함께 느끼고 그 가치성을 공유하면서 문화자원 활용하고 있으며 관광객과 같이 어울리며 행사에 동참하는 모습들은 수원축제의 진정성을 함축하는 주요한 축제과정이다. 또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시민환영 퍼레이드 경연공모제 도입, 지역민들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수원천꿈길 사업 등은 스스로 참여하고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참여형 축제로서 주최한 수원문화재단의 노력이 돋보인다. 앞으로 이러한 지역주민주도형 축제를 주최측이 제대로 정착시킨다면 장기적으로 안정되고 민과관이 공동으로 주도하는 성공한 최고의 축제로 평가 받을 수 있다.

○ 지리적, 역사적으로 뿌리가 같은 수원시와 화성시가 정조를 콘텐츠로 한 연계협력을 통해 축제를 개최한 것은 지자체간 상생의 축제를 보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것은 향후 축제가 경쟁력 있고 구조적인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발전적 축제로 거듭나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창룡문에서 펼쳐진 화성, 정조의 꿈(야조)은 축제의 독특한 소재로 여겨지며 축제의 발전에 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수원화성문화제의 배경이 되는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은 대한민국을 대표 하는 문화인프라로, 향후 수원의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결합하여 축제상품으로 개발한다면 전통, 문화, 관광이 상생할 수 있는 장소로 가능하다고 본다.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화성은 어떠한 측면에서는 개발의 사각지대임으로 축제를 계기로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수원화성축제는 앞으로도 발전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이며 시나 지역민 모두 공감하고 있다.

□ 개선할 점

○ 축제 사업에 적합한 예산집행을 위해 축제 실행 조직 내 행정업무를 전담할 인력이 필요하고 다른 행정 기관과도 충분한 협의를 통해 보다 원활한 행정거버넌스를 제대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준비과정에서 추진주체, 사무처, 스태프들 사이에 목표와 비전을 공유하고 통합된 마인드 확립이라는 전략적인 내부통제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있는 수원자원봉사센터와 수원문화재단이 이원화되어 교육 및 실행에 어려움이 있는 듯하다. 이를 일원화 하여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체계적 운영 시스템관리가 필요하다.

라. 축제의 성과

□ 잘된 점

○ 주변 상인들의 의견에 의하면 예년과 달리 경유형 관광객이 아닌 체류형 관광객이 늘어 지역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수원화성문화제는 수원을 대표하는 축제로 지역 인지도가 높고 참여도가 높은 행사로 파악된다. 또한 수원화성문화제 주변 상권과 연계한 가래떡퍼포먼스, 공방거리 프로그램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을 위한 노력이 돋보인다. 또한 주변 재래시장과 문전성시 프로그램 등과 못골시장 등과의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

○ 축제의 전반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번축제에서 시민자원봉사자들의 활발한 안정대비 활동으로 상당히 안정적이면서도 역동적인 축제가 될 수 있다고 평가된다. 그리고 정조대왕 능행차 연시나 시민퍼레이드 및 총공연 행사 등에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많은 단위별 진행요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전체적으로 원만한 축제행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참여한 모든 관객들이 스스로 자원봉사자가 되어 축제장 주변의 쓰레기를 자발적으로 치우는 등 축제행사 측의 철저한 행사관리가 질서의식 함양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복잡한 도로나 교통통제에도 많은 참여한 관객들이 스스로 이해하고 인내하는 등 보다 성숙된 시민들의 참여의식이 본 축제의 행사개최 의미를 높이고 있다

❑ 개선할 점

- ○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은 잘 되어 있으나 많은 관광객이 급증할 것에 대비한 여성전용 화장실, 만남의 광장, 안전사고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 ○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제안공모와 수시협의를 통해 축제를 대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특히 어린이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 ○ 축제기간 중 지역 예술가의 한마당과 지역 출신 예술가들의 어울림 한마당을 제공하기위한 전시장과 공연장을 마련했으면 한다.
- ○ 음향 개선이 필요하다. 높은 음향은 관람객을 유인하는 효과도 있지만 기존 관람객들의 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고 음향과 음향끼리 간섭이 일어나 소음처럼 느껴져 오히려 불쾌함을 느끼게 하여 이에 대한 사전 협의와 대책이 필요하다.
- ○ 이제는 국제적인 홍보방안 필요하다. 국내 각국 대사관을 중심으로 해당 국가에 홍보시장을 개척하고 국제적인 SNS를 통한 홍보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자. 그리고 보다 중요하고 축제의 성공과 직결되는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축제 방문객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 ○ 외지에서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정보제공 및 안내를 위하여 대중교통 수단의 운전기사들(시내버스, 택시 등)에게 안내책자를 배포하여 축제의 내용을 인지시켜 안내가 가능하도록 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홍보물을 비치하는 등 수원화성문화제의 다각적이고 다양한 홍보 방법의 발굴이 필요하다.
- ○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위하여 국내외 여행사들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외국어 전용 안내도우미와 안내관을 설치 하는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3) 종 평

- ○ 이번에 49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수원문화축제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예년에 비해 상당한 관광객의 증가추이를 볼 수 있다. 더욱이 참여형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된 관계로 많은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특히 예년에 비해 훨씬 조직적이고 의욕적인 자원봉사 활동이 눈에 띄었으며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향후 장

기적인 축제성공을 예견하고 있다. 그리고 정조대왕이라는 정확한 킬러콘텐츠가 존재함으로써 이것을 메인 주제로 한 일관성 있고 문화역사가 가미한 분류, 집중, 선택이 가능한 프로그램의 조직화와 운영이 축제전체를 잘 인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상당수의 외국인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표방하고 있어 국제적인 문화관광축제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축제가 충분히 수원시의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특성 및 자원이 지닌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개발하는 장으로 활용되었다는 평가를 내린다.

- 단,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수원화성문화축제는 향후 국제적인 축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국제문화관광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국내관광과 국제관광을 조화하는 방향으로 큰 방향성을 잡아야 할 것이다. 특히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늘어나는 중국인 관광객을 제대로 흡수하고 체재일수를 늘이기 위해서는 축제와 연계하여 새로운 수원문화관광발을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정부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하여 수원 화성의 가치를 재조명함께 동시에 수원의 관광수용력을 높이는 방향성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수원화성축제를 통해 수원의 음식, 숙박, 관광자원, 교통체계 등 전반적인 문화관광 인프라를 향상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금년 축제에서 보다 높이 평가되는 것은 예년에 축제행사를 철저히 분석하여 참여한 관광객 의 호응도나 예산대비 효율성이 적은 행사 및 유사행사들을 구조조정 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각종 대중매체를 통해 활발히 홍보한 점은 높이 평가되나 행사 후 활발한 언론홍보도 향후 축제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년축제를 대비한 테스크포스팀이 가동되어야 할 것이며 각종 SNS나 관광정보시스템 및 대중매체를 활용한 상시 홍보전략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할 것이다. 당연히 중, 장기적인 축제플랜을 작성하고 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한 2013년 수원화성문화축제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⑨ 이천 쌀문화축제

(1) 개 요

❑ 기 간 : 2012년 10월 25일(목) - 10월 28일(일) 4일간

❑ 장 소 : 이천시 설봉공원

❑ 주 최 : 이천시

❑ 주 관 : 이천쌀문화축제위원회

❑ 주요행사

- 체험행사 : 쌀밥카페(쌀맛보기), 동화마당(농경체험, 농촌체험행사, 농촌체험마을),농경마당(추억놀이, 가마니짜기, 쌀뚜리, 맛보자쌀), 풍년마당(거북이만 들기, 거북포토존, 복조리, 대장간, 인절미 만들기), 놀이마당(복돼지소 망정원, 소리나는 대피리, 벼타작, 짚공예 체험), 햅쌀거리(무지개가래떡 만들기)
- 기획·전시행사 : 문화마당(개막행사, 공연·경연대회, 나눔의장), 기원마당(마당극,기원놀이, 세시풍속놀이), 동화마당(가족인형극, 전시), 쌀밥카페(경연행사, 비보이공연, 쌀막걸리경연, 전시, 시음), 동화마당(전시, 인 형극), 농경마당(공연, 경연, 짚공예경연), 풍년마당(전통혼례, 공연,농촌관광홍보부스 운영), 놀이마당(타오놀이, 서작퍼포먼스 등)
- 연계행사 : 이천시향토음식발굴경연, 이천시씨름왕선발대회, 햅 쌀거리(길놀이, 읍 면동의 날, 이천쌀진상행렬, 우마차운행), 햅쌀장터, 주막거리, 대공연 장, 설봉미술대회 및 휘호대회, 사진전시회, 꽃 전시회
- 야간행사 : 농심풍년 큰잔치, 연예예술인 한마당, 평양민속예술단, 7080통키타 공연

(2) 항목별 평가

가. 축제프로그램 완성도

❑ 잘된 점

- 축제의 소재가 대부분 축제의 이름이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축제프로그램이 완성된다. 그리고 사람들은 축제가 가진 명칭으로 인해 축제의 매력을 상상하며, 축제에 대

한 재미와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한다. 즉, 어떤 축제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면, 바로 연상되는 것을 대표 프로그램으로서 축제의 전체적인 의미와 상징성을 갖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14회 이천쌀 문화축제」는 축제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천의 대표 농산물인 이천쌀과 함께하면서 전통문화와 농경문화를 소재화한 놀이 및 체험과 공연을 가미한 대표 프로그램들이 완성되어 있다. 특히 각 마당마다 즐기고 살아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완성도가 매우 높게 평가된다. 더욱이 축제장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자연스럽게 이천쌀을 먹고, 구입하게 되며 동시에 농경문화를 체험하고, 같이 일하고, 다양한 공연을 감상하는 일석이조의 맛과 재미와 경험을 느끼게 하도록 연출되어 있다. 이렇게 이천의 상징인 이천쌀과 농경문화를 소재로 한 축제는 우리 국민들에게 농경문화의 추억을 느끼게 하고 어린이들에게는 산 교육장으로서의 축제활용도와 문화적 가치성이 높게 평가된다.

- '쌀로 빚은 구수한 세상'이라는 주제 맞게 국내외관광객과 함께하는 '무지개가래떡만들기'는 이천쌀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실제로 참여한 사람에게 30cm정도로 제공해 줌으로 해서 흥미와 맛을 느끼도록 하는 체험행사의 백미로 여겨진다. 또한 '임금님표 이천쌀'이라는 브랜드에 걸 맞는 일관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축제의 통일성을 기하고 있어 축제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고양시키고 있다. 특히 공연장의 명칭을 마당으로 구분하여 관광객들이 수월히 동선이동을 유도하고 있으며 공연장 간의 조화로움이 돋보인다. 인위적으로 조성한 공연무대가 아니라 마당이라는 자연적인 공간에서 관객들이 쉽게 분위기에 빠지도록 행사프로그램 및 장소를 제공하고 있고 대분의 공연들이 관광객과 호흡을 같이하고 있어 축제의 동화현상이 빠르게 발생하고 있다.
- 타 축제와 달리 많은 외국인이 참가하고 한국 쌀음식을 먹으면서 한국전통 농경문화를 체험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들과 한국인 간의 줄다리기 시합에 참여한 외국인들은 이구동성으로 다른 축제에서 볼 수 없는 한국의 정취를 느낀다고 한다. 이러한 측면은 향후 본 축제가 국제축제로서의 발전가능성과 성공을 예견하게 한다. 그리고 쌀밥카페마당에서 설치된 2000명이 먹을 수 있는 초대형 가마솥에서 장작불로 만든 '가마솥 이천명 이천원' 행사는 본 축제에서 가장 중심성이 높은 행사로서 축제성공의 키워드로 평가된다. 또한 가마솥행사를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들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려져 이천쌀을 맛보면서 느끼는 어울림 마당인 본 행사는 참여지향형 축제행사의 모범사례일 뿐 아니라 이천쌀의 우수성과 브랜드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사료 된다.
- 축제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구성체계가 일차적으로 도입, 전개, 절정, 결론부문으로 구성되어 축제의 세부적인 목표와 이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방문객의 참여도를 높이는 설정이다. 그리고 설봉호수를 중심으로 마당과 거리가 적절히 조화되어 관광객과 행사진행자의 친밀감과 상호유대감 형성이 잘되도록 설정되어 있다. 특히 축제성

공의 열쇠는 지역주민들이 축제에 적극 동참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주인의식을 가지는 데서 출발한다. 이러한 면에서 이번 이천 쌀 문화축제에서는 읍·면·동의 날을 지정하여 지정된 지역의 각자 특화된 프로그램제시를 통하여 해당지역민 전체가 어울리는 축제에 참여마당과 적정한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매우 의미 있는 행사프로그램이 되고 있다.

❑ 개선할 점

- ○ 이천쌀을 주제로 한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큰 무리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편이나 이천쌀 판매장의 분위기 전환과 공간적인 규모변경을 통해 좀 더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 가게 가운데에 고객들의 반응이 좋은 가게가 있고 거의 손님이 찾지 않는 가게가 있어 이원화되어 있는 느낌이 든다. 즉, 판매가 잘되는 가게의 경우 탈곡기를 배치하여 현장감을 살리고 있고, 주인의 적극적인 판매의지가 보이고 있으나 장사가 안되는 곳은 정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행사를 주관하는 차원에서 좋은 모델을 선정하여 이러한 조건들을 구비하는 가게가 많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도하여 선별적으로 입주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쌀 판매장이 일반 이천농산물 판매장과 규모가 비슷함으로, 임금님표 이천쌀이라는 슬로건과 아이덴티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쌀 판매장의 규모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 ○ 축제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축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임금님표 이천쌀'에 대한 우수성을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는 차별화된 홍보기획과 실행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우선 이천쌀이 타지역보다 품질이 우수할 수 밖에 없다는 자연환경과 품질개량 및 쌀구성성분 등에 대하여 축제마당마다 영상이나 그림을 통한 홍보와 관광객들에게 차별화된 이미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축제의 마당과 거리들이 이천쌀의 우수성을 참여한 사람들에게 교육시키는 홍보장으로도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홍보전략은 축제를 마치고 돌아가는 관광객들을 이천쌀 홍보대사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마당으로 구분하여 프로그램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관계로 중심프로그램들에 대한 해석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진이나 재미있는 캐리커쳐 그림 등을 동원하여 마당 입구에 보다 충실한 재현과 흥미를 배가시킬 수 있는 메시지 전달기능의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천 쌀문화 축제가 결실의 계절 가을에 열리는 만큼 설봉공원의 물, 낙엽 등의 가을 분위기를 흠뻑 풍기는 소재들을 활용하여 이천쌀이나 특산물과 연계시킨 체험프로그램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나. 축제운영의 적절성

❑ 잘된 점

- ○ 축제의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 운영상에 효율성과 효과성이 드러나고 있다. 실제로 마

당에 펼쳐지는 한마당이라는 측면에서 비용대비 효율성이 높으며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대부분 높게 나타나고 있어 효과성이 동시에 높아지는 시너지효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참여자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갖게 하고 관객모두를 VIP로 만드는 운영의 묘를 잘 살리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전통농경문화를 재현하면서 신명나는 한마당을 연출하고 있는 놀이마당, 마당극과 전통 굿이 어울리는 기원마당, 술과 음식을 즐기는 주막거리, 이천 햅쌀을 판매하는 햅쌀장터 등의 마당들이 다양한 콘텐츠로 운영되고 있어 축제의 흥미를 배가시키고 있다. 또한 축제장의 분위기 자체를 한국의 전통 문양과 장식들이 많이 배치되어 일관된 놀이잔치로 발현되고 있어 참가자로 하여금 새로운 과거 농경사회의 느낌을 갖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그마한 디테일 들이 모여서 전체적인 축제분위기의 통합성을 잘 이해하도록 하고 있어 운영의 세밀함과 구체성이 돋보인다.

- 본 축제의 특징은 지역민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축제가 됨으로써 낭비적 요소를 최대한 줄인 경제적인 축제로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축제지원은 많은 부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예산절감을 하면서도 축제성과가 극대화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축제는 매우 가시적인 경제효과를 창출하고 있고 비용절감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이번축제는 모든 프로그램이 기획단계에서부터 농업기술센터의 전문담당자가 기획하고 연출하며 67개의 분야별 시민단체와 59개의 기관이 함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고 있다. 이것이 곧 문화관광축제 가운데에 적은 예산으로도 가장 큰 운영효과를 가져오는 축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하나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까지 여러 차례의 시연을 거쳐 완성된 각 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램운영을 희망하는 시민단체에게 제공되고 운영본부에서는 재료비만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리고 단체회원들이 자원봉사로 노력을 제공하여 운영하므로 일반기획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비해 저비용으로 고효율로 인한 예산절감 축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축제의 운영상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민이 직접 준비하고 운영하는 축제의 전형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다.
- 본 축제가 타 축제에 비해 가장 두드러진 점은 지루한 개막식행사가 마당놀이로 치러지고 추수감사제와 함께 자유로운 형식의 개막행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어느 축제나 개막행사를 함으로서 축제의 시작을 알리게 되어 그 상징성과 이미지 통합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보통의 축제는 식순에 따라 내빈소개부터 인사말로 시작하여 여러 형태의 순서로 진행하므로 관광객과는 전혀 무관한 지루한 행사로 진행되기 일쑤이다. 그런데 본 축제에서는 내빈을 의식하지 않은 관광객 중심으로 모든 절차와 순서를 무시한 완전 마당놀이로 관광객과 함께 어울려 춤추고 어울리는 추수감사제를 곁들인 행사로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개막놀이 내내 흥미롭고 즐거움을 선사하는 진행으로 상당히 차별적이면서 모범적인 개막행사로 평가된다. 특히 마당놀이를 하면서 개막행사에 참여한 모든 관광객에게 풍년농사의 감사함을 전하고자 시루

떡을 나누어 주는 순서가 있어 관객과 어울리는 축제로서의 서막을 알리고 있다. 그리고 더욱 풍요로운 쌀문화축제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데에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 개선할 점

- ○ 주차공간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동선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원 내의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병목현상이 심하고 분산과 배치의 합리적인 관리체제가 필요하다. 관광객들이 교통 혼잡이 심하면 우선적으로 축제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는 경향이 있다. 입구의 복잡한 공간에 교통안내원이나 도우미가 부족함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차량위주의 교통통제도 중요하지만 도로상의 관광객안전에도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 ○ 프로그램의 구성에서 가을의 의미를 되새기고 추수와 풍년의 주제가 듬뿍 담긴 보다 내제적인 콘텐츠구성의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매일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중복되는 관계로 프로그램 가운데에 의도적으로 대표적인 행사를 지목하여 관객들로 하여금 관심을 유도하는 선택적인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객들이 주인공이 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성 경품행사도 행사중간에 삽입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되는 각종 경연행사가 너무 분산되어 있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 ○ '가마솥 이천명 이천원'의 경우 동선배치를 조정하여 줄을 서는 데에 걸리는 시간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식사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관광객들이 식사에 급급하게 하지 않고 담소를 즐길 면서 식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행사전체를 안내하는 전자식 행사안내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안내원들의 행사복장도 마당별로 차별화하는 방안도 구상해 봄직하다. 특히 전자식 안내시스템은 외형은 전통적인 기와나 초가모양으로 조성하여 전체 전통문화분위기를 살리면서도 동영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행사를 입체적으로 안내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특히 야간에는 외관의 색상을 잘 활용하여 야간 명품으로 활용하고 안내내용도 알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 축제발전성

❑ 잘된 점

- ○ 본 축제에서 가장 이색적이고 관광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참여유도 스탬프랠리"를 들 수 있다. 이것은 입구에서 배부하면서 관광객들에게 축제전체를 제대로 감상하고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올해 개최되는 제14회 이천 쌀문화축제의 프로그램 및 이벤트구성이 그동안 다년간 축적된 많은 노하우와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전반적으로 모든 프로그램들이 향후 매우 발전적이고 그 잠재성이 높

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각 마당별 행사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는 지난해의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고 각자 노력과 아이디어를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축제발전성을 점칠 수 있다. 이렇게 방문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각종 콘텐츠가 변화하는 관광객들의 트랜드에 맞게 각종 실행프로그램들이 축제장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그 중에서도 본 축제의 문화마당에서 벌어지는 스탬프랠리 추첨이벤트의 경우, 주최 측의 노련한 운영과 방문객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여 매 시간마다 원활한 운영과 참여율의 증가를 볼 수 있다. 이것은 타 축제에서의 스탬프랠리 운영과 방문객 참여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매우 안정적인 수준이며, 이천쌀 경품을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관객들을 축제마당으로 유도하고 있어 아이디어가 좋은 것으로 사료된다.

- 축제에서 많은 시선을 이끌고 있는 임금님께 바쳤던 쌀의 명성을 재현하는 진상행렬이 본 축제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행사로 평가된다. 이천쌀문화축제의 시작은 '임금님진상행렬'로부터 축제가 개막됨을 알리고 볼거리와 포토존의 역할을 톡톡히 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조선 성종 때부터 임금님께 진상했고 지금까지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이천쌀의 역사적 인식을 조명하면서 '임금님표 이천쌀' 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이는 효과를 얻기에 충분했다. 이 프로그램 역시 지역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진행한다는 점에서 축제의 발전 가능성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 본 축제가 가을의 낭만과 호수를 안고 있는 설봉공원을 테마별 다양한 프로램들이 관광객들에게 제공되고 관광객들 역시 흥미와 재미를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내실 있는 축제로 발전할 것으로 예견된다. 또한 축제를 통해 이천의 대표적인 상품인 '임금님표 이천쌀'을 알리면서 동시에 이천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물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축제를 중요한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의 구성에 있어서도 관광객과 지역민이 동시에 어울리는 한마당축제가 많아 지역민 중심의 축제정신이 빛나고 있다. 또한 축제 주최 측의 발전에 대한 소명의식을 느낄 수 있으며 지역민들끼리 어울리는 대동의 마당은 오히려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욱 감동을 주고 있다. 또한 이천쌀과 함께 지역 특산물을 구입하는 장소인 직거래장터는 지역민들이 직접 가꾼 각종농산물과 식품들이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어 관광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 개선할 점

- 이천 쌀 문화축제는 한국의 전통쌀의 생산과정과 우리 농경문화를 제대로 알리는 산교육의 장이자 체험 장소이다. 따라서 서울 등 대도시지역의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고 지속적인 연계체험학습 장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수월히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이 될 것이다. 또한 이천쌀을 비롯한 각 농산물에 대한 지역별, 생산자별로 특화된 장점을 그림과 설명서 등을 통해 실질적인 홍보와 보다 발전적인 측면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조화된 입체적인 이천축제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연중 내내 홍보하는 것도 강구 해볼 사안이다.

○ 본 축제는 기대 이상으로 외국인들의 관심이 많은 관계로 외국인을 위한 안내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각국언어를 할 수 있는 도우미를 마당 중간에 배치하여 본 축제의 특성을 외국인에게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알릴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 즉, 이천축제가 한 단계 승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외국인들이 수월히 방문하고 축제의 콘텐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제관광안내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축제를 통해 세계인들에게 우리 한국전통농경문화를 제대로 알리고 이천축제가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라. 축제의 성과

□ 잘된 점

○ 음식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에서 축제의 정체성을 발현하는 방법가운데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축제장을 방문한 방문객 모두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며 음식을 먹는 즐거움(집단적 신명)을 만끽하게 하는 것이다. 그 즐거움은 방문객에게 추억이 되어 축제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얻게 되고 다음해 축제를 다시 찾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이천쌀문화축제에서 쌀 음식을 활용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가마솥 이천명 이천원', '무지개 가래떡 만들기', '이천쌀밥 명인전', '외국인 송편만들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쌀음식과 관련된 행사들은 축제장을 방문한 방문객들에게 시각적인 흥미를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언론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방문객들이 직접 맛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어 축제의 즐거움과 만족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본 축제는 지적한 바와 같이 11곳의 각 행사장마다 각각의 주제 및 내용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주제와 특성에 따라 세부 운영프로그램들이 짜여 있어 관객들이 쉽사리 프로그램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다. 이러한 구성은 방문객들이 농경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쌀 음식 및 전통체험 등을 할 수 있는 행사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타 축제보다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 있는 축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관광객들은 축제에 자연스럽게 동화됨으로써 참가후의 구전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쌀을 주제로 한 참여행사나 무료상품제공이 많아 관광객의 입장에서는 축제에 대한 만족감이나 소요된 비용에 대한 저항감이 줄어들어 향후 타인에게 적극 추천하는 의사를 보일 것으로 사료되는 내실 있는 쌀콘텐츠 축제로 평가된다.

○ 특히 외지방문객들과 외국인들에게 이천의 전통문화를 학습하고 즐기는 데에 어렵사리 동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전체가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에 참여자나 진행자들이 쉽게 연계되고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리고 축제의 성격이 극명히 드러나는 프로그램이 주행사장에 적절히 잘 배치되고 있다. 세부적

인 측면에서는 각종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대부분의 마당이 축제의 성격을 잘 설명하고 있으며 마당의 명칭에 걸 맞는 적절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있어 방문객들을 쉽게 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모든 프로그램에 재미(FUN)라는 속성이 내포되어 있어 더욱 발전적인 축제로 승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선할 점

- 현재 축제가 개최되는 마당과 함께 위치하고 있는 '이천세계도자센타'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세계도자기센타는 역설적으로 한국전통문화의 상징임으로 지금과 같이 단순하게 노선 연결만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테마를 개발 할 필요가 있다. 즉, 도자기와 농경문화와 연계하여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토리텔링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이천도자기 관련 전통조형물들을 제대로 활용하여 본 축제의 질적인 측면을 개선시키는 중요한 촉매제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 이천축제에 참여한 관광객들에게 본 축제행사 외에 이천이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 할 필요가 있다. 즉, 셔틀버스 등을 활용하여 관광객들에게 이천관광의 진수를 경험하게 하는 방안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축제에 출향인 들을 초청하여 이천쌀과 농산물을 판매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들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유통 전문집단도 축제 기간 중에 초정하여 축제를 통해 이천지역의 농산물 판매네트워크를 만드는 대응전략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 농산물 품평회의 심사에 유통 전문 집단을 적극 활용하고 대도시의 소비자단체와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 할 수 있는 연결 체제를 만들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점에서 성공적인 축제 개최가 전제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확보가 중요한 사안이다. 즉, 축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 대한 예산확보에 주력함은 물론이거니와 이천시와 유관한 민간기업의 행사협찬과 기부를 유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예산 확보문제나 사전 정기적으로 다음해에 바로 개최되는 축제를 대비하여 '축제추진위원회' 등 전문위원회를 조성하고 활성화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자원봉사자인 지역민,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들이 참여하여 각종 현안과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실천적 모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위원회를 중심으로 축제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고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축제의 구성과 운영에 완성도와 차별성을 가지는 노력들이 평소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천시 차원에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3) 총 평

○ 우선 본 이천쌀문화축제의 프로그램운영의 총체적 관리측면에서 볼 때, 일반적인 이벤트사에게 운영을 전임하거나 관주도로 공무원이 행사를 직접 운영하는 타 축제와 달리 농업인, 예술인, 전문놀이꾼 등 다양한 지역의 참여단체가 각기 공간을 달리하여 책임운영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 차별화되고 있다. 그리고 축제의 주최인 농업기술센터와 축제추진위원회가 기관의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중앙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자율적 운영방식으로 축제의 전체적 방향성이 제대로 잡히고 각 마당별 책임단체가 주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경쟁적 프로그램개발, 축제 참여자의 축제주인의식 형성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축제의 장기적 발전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매우 긍정적인 사안으로 평가된다.

○ 우선적으로 강점으로 꼽을 수 있는 본 축제의 프로그램은 개막식행사로서 문화마당에서 열린 추수감사제이다. 기존의 대부분 개막식 축제행사가 시장, 순수의 환영사에 이어 초청 인사들의 축사가 잇달아 시간낭비와 지겨움을 주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이천축제는 완전히 자연스러움과 형식을 배제한 개막식행사로서 그자체가 전통축제로서의 시작을 알리는 이미지메이킹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식전·후 행사로서 풍물놀이와 진상행렬 도착 후 추수감사제를 실시한 개막놀이가 마당극으로 진행하면서 내빈들이 직접 관객들에게 시루떡을 나누어 줌으로써 민, 관이 어렵 살이 함께하는 축제로 승화시키고 있어 주목된다. 이러한 조촐하면서도 주제에 걸맞는 개막식과 공연의 통합된 연출프로그램은 타 축제에서도 본받아야 할 참신한 발상으로 벤치마킹되어야 할 대상으로 평가 된다.

○ 본 축제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참여하고 관심도 많이 갖고 있어 차제에 세계적인 축제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은 국내를 뛰어넘어 차별적인 우수축제로 거듭날 것이며 국내축제의 우수성을 과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국인들을 충분히 유인할 수 있는 안내체계의 개선과 공격적인 전방위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행사측면에서는 이번 이천 쌀문화축제가 외국인이 수월히 참여할 수 있는 흥미로운 프로그램개발들을 보다 많이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참여외국인 관광객들과 다문화가정과 연계한 행사프로그램도 곁들여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이천의 쌀축제는 타 지역에서 모방할 수 없는 자연현상과 지역의 고유성을 바탕으로 하는 농업축제로서 국내에서 인지도가 매우 높고 국제적으로도 외국인 관광객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축제라고 총평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방향성에 따른 획기적이고 전 세계가 주목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아이템 발굴, 선택적인 대안개발 및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⑩ 가평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

(1) 개 요

❑ **기 간** : 2012년 10월 12일(금) - 10월 14일(일) 3일간

❑ **장 소** : 가평 자라섬 및 가평읍내 일원

❑ **주 최** : 가평군

❑ **주 관** : 사단법인 자라섬재즈센터

❑ **주요행사**

- 재즈공연 : 11개 무대(유료 2, 무료 6, 미드나잇카페 3)
- 부대행사 : 재즈콩쿨대회, 가평주민 밴드경연대회, 해피비트 타악기공연 페레이드, 찾아가는 자라섬 8회, 오프밴드 공연 53팀, 길거리 공연 수회
- 전시행사 : 아트샵 12팀, 전시·체험 16팀, 관광홍보 4팀 등
- 홍보행사 : 특색음식 4팀,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6개단체 외 농민 다수, 기업홍보관 7개업체 등
- 기 타 : 먹거리 24개소, 편의점, 포토존, 경관시설 등

(2) 항목별 평가

가. 축제의 특성/축제 콘텐츠

❑ **잘된 점**

- 올해로 제9회를 맞이한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은 춘천마임축제와더불어 우리나라 문화예술축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이러한 호평을 바탕으로 이번 축제에는 3일간 총 23만4천명의 관광객이 축제장인 가평군의 자라섬을 찾은 것으로 집계되었음. 이러한 성과는 아시아 최고수준의 음악축제라는 자부심을 심어 주기에 충분하였음.
- 또한 수준급 이상의 재즈와 다양한 부대프로그램 및 관광객 참여 프로그램, 그리고 캠핑장을 겸비한 이색적인 공간에서 펼쳐진 격조높은 문화예술축제는 환상적인 분위

기를 연출하여 자라섬의 관광매력과 축제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를 하였음.

- 자라섬 내에 설치된 13개의 무대에서는 정오부터 새벽 2시까지 총 22개국 96개팀(해외 28팀, 국내 14팀, 오프밴드 54팀)의 뮤지션이 참여하였음.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은 고전스타일로부터 현재의 힙합과 월드음악을 기반으로한 재즈까지, 초심자를 위한 스탠다드 재즈에서 매니아 관객들을 위한 프리재즈까지 또한 국내외 아마추어 밴드에서 세계적인 거장의 무대까지 재즈 저변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음.
- 또한, 읍내의 작은 카페와 길거리 공연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여 강열하고도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해 관람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음. 특히, 유료무대(재즈아일랜드, 파티스테이지)외의 무료 공연장을 설치하여 많은 지역주민들이 부담없이 재즈를 즐길 수 있었음.
-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의 매력은 해를 더할수록 음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그 빛을 발하고 있음. 장소 제한이 없이 진행된 오프밴드의 스팟공연과 거리 공연은 관람객들에게 많은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음. 특히, 음악인들의 공연 욕구와 관람객들의 문화향유 욕구가 잘 조화됨으로써 재즈페스티벌이 모두가 하나되는 진정한 문화예술 축제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음.
- 자라섬이라는 자연환경이 뛰어난 장소에서 개최되고 있는 재즈페스티벌은 친환경 축제를 지향함으로써 환경과 문화의 상생적 이벤트로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음. 이를 위해 민과 관이 협력하여 자발적인 쓰레기 분리수거는 물론 축제장내에 상징성을 갖춘 분리수거장을 설치하여 항상 쾌적하고 깨끗한 축제장 환경을 유지하여 관람객들에게 자라섬과 축제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남겨 주었음.

❑ 개선할 점

- 축제장인 자라섬에는 작년에 비해 약 5만명이 많은 23만 4천명(전년 18 만 8천)이 운집됨으로써 메인 스테이지가 있는 잔디광장의 수용력을 초 과하였음. 매년 축제가 전국적인 인지도를 더하면서 장기적으로 잔디광 장의 확장이 필요함. 그러나 이때는 반드시 환경수용력을 분석하여 광장 을 확장함으로써 축제로 인한 환경 파괴나 생태계 파괴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함.
- 페스티벌이 끝 난후 각종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에는 축제 관람후기를 올 리는 관객이 많음. 그러나 이들에 대한 사후 관리가 미흡함. 따라서, 이 들을 대상으로 우수한 블로거에게는 다음해 초대권을 증정하는 등과 같은 이벤트를 통해 충성도 높은 매니아층을 확보하고, 페스티벌의 홍보효과를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이 장기적으로 격조높은 문화예술 축제로 거듭 성장 하기 위해서는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아티스트들의 수준과 관광객들의 수 준에 큰 격차가 없어야 함. 따라서 관광객들의 느낌과 참여 아티스트의 페스티벌 참여 후 느낀 사항(관객 매너와 호응도, 행사진행 등)에 대해 심 층적인 평가, 분석이 필요함. 특히, 아티스트들의 참여후 소감을 축제 홈페 이지에 탑재함으로써 관광객들의 예술적 감흥과 수준을 간접적으로 제고 시켜 나가고 축제의 질적 향상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함.

○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은 야간 중심의 축제이므로 관광객들의 프로그램 몰입도가 강해 비교적 축제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상대적으로 주간 프로그램에 대한 비중이 낮아 낮에만 축제장을 찾고 막바로 귀가하는 관광객들에게는 축제만족도가 매우 낮아질 위험성 이 있음. 따라서 주간에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재즈배우기, 악 기연주체험 등과 같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축제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나. 축제의 운영

❑ 잘된 점

○ 올해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에서는 2차에 걸쳐 페스티벌 안내, 재즈소양, 친절, 현장답사, 재즈공연 관람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라지기 675명, 일반자원봉사자 618명, 기타 환경관리 72명을 자원봉사원으로 모집하여 통역, 환경, 교통 등 전 분야에 걸쳐 자원봉사를 실시하여 축 제운영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 관광객들의 접근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경춘선 전철역과 경춘국도 인근에 대중교통이용에 대한 사전홍보를 실시함. 또한, 관광객들이 터미널과 전철역에서 축제장으로 이동하는 동선 곳곳에 출연아티스트들의 전신 포토존, 재즈명언 거리, 스팟공연장 등을 설치하여 재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였음.

○ 축제장 공간구성은 자라섬 중도에 메인무대와 파티스테이지, 협찬부스와 푸드 존 12개업체의 홍보관을 설치하여 관람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서도에는 페스티벌라운지와 전시·체험홍보 부스, 관광홍보관, 기업홍보관, 유료 및 무료 먹거리 촌, 매표소 등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의 유입 동선을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공간 배치가 적절하였음. 뿐만 아니라 시내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평터미널 앞에는 재즈빌리지 무대와 재즈카페 3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음.

○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종합안내소 1개소, 의료지원센터 2개소, 모유 수유실 1개소, 화장실 21개소와 심야공연시 추위에 대비한 돔 공연장을설치하여 운영함. 또한,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축제장 맵, 중요 시설별 부스 색깔 구분, 애드벌룬 설치, 노면 진행방향 표시 등 관람객들의 안전 하고 편리한 관람을 위한 배려가 돋보였음.

○ 또한,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 축제 추진위원회에서는 2005년도에 사단법인 자라섬 청소년 재즈센터를 설립하고, 상시직원 6명을 배치하여 축제기획과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음.

○ 그리고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은 야간공연 중심의 축제이므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축제 추진위원회에서는 공연관리법 등에 근거하여 축제 1개월전에 안전대처 계획서를 작성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축제기간 동안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을 함.

❑ 개선할 점

- ○ 행사장의 규모가 넓어 관광객들의 원활한 이동동선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음. 특히, 매표소가 유료 공연장 입구와 멀리 떨어져 있어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였고, 행사장내에 흡연장을 별도로 설치하였으나 야간 공연불빛과 다수의 인파로 인해 구분이 잘 되지 않아 공간활용에 대한 효율성이 낮았음.
- ○ 재즈페스티벌을 9회째 추진하고 운영한 전문가 집단은 축제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독선적 축제 운영의 우려가 있음. 따라서 주민 의견등에 대한 이행 여부를 수시로 감독하여 시정토록 하여야 하고, 협찬사의부스를 제한하여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늘려 나갈 필요가 있음.
- ○ 자원봉사단원인 자라지기를 청소년 위주로 선정함으로써 아티스트 케어, 통역관리 등의 업무진행은 원만하였으나 이들의 연령층이 낮아 관람객들과의 소통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차후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자라지이기를 선발하여 적재적소에 배치 운영할 필요가 있음.

다. 축제발전성

❑ 잘된 점

- ○ 축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건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축제재원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음. 우리나라 축제가 대부분 관주도형 축제인 이유도 바로 이점에 있음. 즉, 축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민간주도형 축제의 선결 조건이 바으로 축제재원의 자체조달방안을 확보하는 일임. 이런 면에서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은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자립형 축제로 민간주도형 축제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평가됨.
- ○ 이러한 기반위에 문화예술가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솔선수범하여 환경정리, 교통, 각종 안내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은 자원봉사단의 활동은 축제의 성장 가능성을 한층 높여주는 요인이 되이고 있음.
- ○ 축제의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축제개최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야 함. 이번 재즈 페스티벌에서는 지역문화 발전 및 재즈의 저변확대를 위하여가평주민밴드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음. 이같은 행사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축제참여가 가능했음.
- ○ 또한, 축제운영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는 것도 축제의 지속가능성 을 높일 수 있는 방안임.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은 2005년에 비영리 법인인 사단법인 자라섬 청 소년재즈센터를 설립하여 독립적인 축제조직체로 운영해 왔고, 이들 상 근 전문인력이 가평군 문화 소외지역 주민들의 문화욕구 해소를 위해 문 화·예술 강좌 및 교육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고 있음.

❑ 개선할 점

- 환경오염을 배격하는 친환경 축제를 지향하고 있는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이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오히려 자라섬의 생태계 파괴의 주원인이 되어교통정체 및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접수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축제참여 관광객 수를 환경수용력에 맞춰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일시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자라섬 방문 관광객의 연중 분산책을 적극적으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추진위원회에서는 기업체와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이들로부터 축제경비를 직·간접적으로 지원받고 있음. 그러나 경비를 지원하는 기업체가 축제장의 많은 공간을 확보하여 자사의 수익사업이나 자사제품의 광고를 진행함으로써 지나치게 축제의 상업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따라서, 기업체 지원의 범위를 가능한한 축소하고, 각종 프로그램의 수준을 향상시켜 경영수익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함.

라. 축제의 성과성

❑ 잘된 점

- 가평군에서는 2012 재즈페스티벌을 통해 23만4천명의 관광객을 유치하 여 약 190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함. 이러한 성과 는 전형적인 농업도시인 가평군의 관광 및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 으로 평가됨. 특히, 가평군은 농업도시이면서도 농업인구가 점차 줄어 들고 있는 지역이며, 펜션 등 숙박업이 지역경제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축제의 관광적인 효과는 앞으로도 점차 커질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은 축제를 통해 유치한 관광객들에게재즈 = 자라섬 = 가평이라는 지역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가평군이 4계 절형 관광지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가평군의 농·특산물인 포도와 막걸리를 홍보하고, 이를 이용한 2차 가공식품인 재즈와인, 재즈막걸리 등을 개발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함.
- 그리고 전문 예술영역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재즈를 축제를 통해 대중화, 일반화함으로써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력을 제고시켜주고 있음.

❑ 개선할 점

- 축제가 일시적인 단일 이벤트로 머물게 되면 축제를 통한 지역발전은 한계가 있음. 따라서, 축제로 인한 홍보효과를 지역발전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문화 컨텐츠를 끊임없이 발굴하고 개발해 나가야 함. 특히, 축제 테마를 지역의 연고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가평군에 소재해 있는 많은 펜션 중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음악동호인들만을 위한 펜션을 군에서 지정하여 전국의 음악애호가들의 선호 숙박 관광지로 육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 또한, 축제장인 자라섬의 명소성과 인지도를 활용하여 비수기(겨울)의또다른 이벤트를 기획함으로써 재즈페스티벌 참여자들의 재방문 욕구를 자극하고, 자라섬의 축제 인프라 구축은 물론 실질적으로 축제를 통 해 이곳을 4계절형 관광지로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음.

(3) 종 평

- 자라섭 국제재즈페스티벌은 재즈라는 장르를 섬이라는 자연친화적인 공 간과 조화시켜 표출함으로써 관광객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감성축제 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감성 축제는 현대인들의 관광트렌드와도 잘부합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
- 또한,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은 우리나라에서 자체재원 확보율이 가 장 높은 축제 중 하나일 정도로 지속가능성이 높은 축제로 평가되고 있음.
- 그리고 축제운영을 단순히 재즈 아티스트를 초청하여 보여주는 쇼원도 우식 공연은 지양하고, 여러가지 형태로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하여 즐길 수 있도록 축제를 기획함으로써 축제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음.
- 매년 한 국가를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그 나라의 재즈를 소개해오고 있 는 축제운영방식은 자라섬 재즈축제의 국제화는 물론 국제문화교류 확 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 그러나 축제장인 자라섬은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오염이 되지 않은 공간 으로 캠핑관광객들에게는 보금자리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축제로 인한 일시적 관광집중도가 높아짐으로써 자라섬의 환경생태 파괴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축제기간 동안 자라섬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적정관광객을 산정하여 환경파괴의 위험성을 줄여나가는 것이 시급함.
- 뿐만 아니라 축제경비의 효율성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축제기간인 3일간 은 축제인프라의 활용성면에서 다소 짧기 때문에 축제기간을 4-5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⑪ 춘천 마임축제

(1) 개 요

- ❑ **기 간** : 2012년 5월 20일(일) - 5월 27일(일) 8일간
- ❑ **장 소** : 우다마리(수변공원, 어린이회관), 축제극장몸짓 등 춘천시 전역
- ❑ **주 최** : (사)춘천마임축제, 한국마임협의회, 춘천MBC
- ❑ **주 관** : (사)춘천마임축제운영위원회
- ❑ **주요행사**
  - ○ 공연 프로그램 : 장난감 연구실, 1등급 고기, Walk in Chuncheon, 인사이드&아우라,
  - ○ 난장 프로그램 : 개막난장 아!水라장, 미친 금요일, 낮도깨비난장, 밤도깨비난장
  - ○ 기획 프로젝트 : 야외공연동모 선정작, Peep show, 좌절금지희망유발단, 드로잉 마음을 품다, 공지어 9999 프로젝트, 체험프로그램

(2) 항목별 평가

가. 축제프로그램 완성도

- ❑ **잘된 점**
  - ○ 춘천마임축제는 춘천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축제로서 마임이라는 특화된 공연예술장르를 주제로 하고 있다. 1989년에 처음 시작하여 올해로 24회째를 맞이하여 그동안 춘천마임축제는 한국마임의 활성화와 저변확대에 크게 기여해 왔다.
  - ○ 신체연극, 움직임연극, 비주얼연극, 거리연극, 야외 설치공연, 장소 특정형 공연 등 몸, 움직임,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 공연예술형 축제로서 순수예술과 축제가 어우러지는 특색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다.
  - ○ 춘천의 도심 속에서 벌어지는 '아! 水라장'을 비롯하여, 어린이회관과 수변공원 등 도심공원에서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도깨비난장'이 펼쳐졌으며, 축제 마니아들을 위한 늦은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함께 즐기는 '미친금요일' 등을 구성하여 모든 연령에서 자신이 즐기고 싶은 공연을 찾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축제의 개막난장인 '아!水라장'을 지난해 브라운 5번가 일대에서 춘천의 대표 중심지인 중앙로 도심 한가운데로 장소를 변경하였으며, 시민참여프로젝트인 공지어9999프로젝트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저마다 손수 만든 공지어를 들고 거리를 행진하는 시민퍼레이드 형태로 기획하여 일상의 도심공간을 자유와 해방의 공간, 자유와 예술의 공간, 난장의 축제공간으로 일탈시켰다.
- 춘천마임축제는 인근 공지천에 얽힌 설화와 축제의 상징이었던 몽도리의 결합을 통해 축제의 신화를 만들어 냈다. 이러한 신화를 통하여 축제가 가지고 있는 신화적 제의적 요소를 축제에 담아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이야기가 있는 축제로서 방문객의 호기심과 유희성을 창조해 가고 있었다.
- 공지천에 불시착한 깨비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여는 축제, 수신과 화신의 싸움, 공지어 9999를 태우며 함께 소원을 비는 대동난장, 다시 내년을 기약해야 하는 이야기와 축제 콘텐츠의 전개를 통해 축제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춘천마임축제 속에 잘 녹여내어 신명나는 놀이마당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 개선할 점

- 춘천마임축제는 공연이 주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무대 공연의 경우 영상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공연자의 자세한 표정과 동작 등에 대하여 무대에서 먼 거리의 뒷좌석에 있는 관객의 입장에서는 볼 수가 없어서 흥미가 덜 하였다. 좌석의 위치에 상관없이 무대공연에 모든 관객이 공연에 몰입할 수 있는 스크린 영상 서비스의 도입이 요구된다.
- 축제장을 처음 방문하는 관람객에게는 축제장의 공간 배치와 프로그램의 진행 장소 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축제 리플렛에 행사장의 공간배치와 함께 공연되는 프로그램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맵핑 서비스를 하여야 하며 행사장 내에 이정표 설치를 강화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도와야 할 것이다.
- 축제는 행사장 전체의 이용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축제 프로그램을 통하여 집중과 분산이 적절하게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연무대에 집결하였던 축제 방문객이 공연이 없는 시간에 적당히 분산하여 즐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춘천마임축제도 행사장의 효율적 이용 측면을 고려하여 앞으로 체험 프로그램를 확대하여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나. 축제운영의 적절성

❑ 잘된 점

- 축제의 개최를 통하여 춘천마임축제가 지역을 홍보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며, 마임이라는 공연예술을 널리 알리는 계기로 작용하였으며, 이러한 개최목적 달성 과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축제를 공동 개최하고 있는 춘천MBC 측에서는 축제 기간 춘천호수별빛축제의 개최 시기를 겹치도록 하였으며, 화려한 야경 LED 설치를 통해 마임축제 방문객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 춘천마임축제는 자원봉사 시스템이 매우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의 축제에 대한 열정과 노력은 매우 높이 살만하다. 올해는 특히 대학생 위주의 젊은 층 자원봉사자 외에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 개선할 점

- 춘천마임축제의 행사운영에 대한 방문객 평가가 축제 평가 분석에 따르면 높지 않은 편이며 작년에 비해 만족도가 하락하였다. 평균 이하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항목들을 보면 안내시설, 휴식공간, 화장실, 주차시설 등의 편의시설 부분과 음식 및 기념품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해당하는 특징을 볼 수 있다. 특히 행사장 내에는 먹거리 촌 운영이 빈약하여 식사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 축제운영위원회는 공연 프로그램 이외에 이러한 부분까지도 개선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여가야 할 것이며 외지인의 재방문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 금년 춘천마임축제의 개최일자를 살펴보면 일요일에 시작하여 다음 주 일요일까지 운영하였다. 외지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일요일에 시작하는 형태는 바람직 해 보이지 않다. 토요일부터 축제를 시작하던지 아니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날짜를 단축하는 방안도 고려해 봄 직하다. 그리고 이번에는 축제가 끝나는 일요일에 이어 다음날이 석가탄신일로 휴일이었다는 점을 전혀 축제에 반영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 춘천마임축제 행사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티켓박스에서 입장권을 구매해야 했는데, 티켓박스 부스의 규모가 협소하고 입구를 가로막고 있어서 답답해 보였다. 부스를 보다 확대하고 부스의 형태와 설치의 방향 등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축제 행사장에는 설치 예술품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축제의 분위기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계단에 설치된 조형물의 경우 설치물에 대한 안내 문구가 없어서 작품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이 설치물에는 입에 담기 어려운 매우 저속하고 상스러운 낙서를 포함해 많은 낙서들로 채워져 있었다. 작품에 대한 안내와 함께 건전한 낙서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각종 가구를 쌓아 행사장 내 연결하는 도로에 있는 설치물의 경우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어서 아쉬웠으며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있어 보였다.

다. 축제발전성

❑ 잘된 점

- ○ 춘천마임축제는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축제이다. 관에서는 예산의 지원과 필요한 행정적 업무지원을 하고 있을 뿐, 전적으로 춘천마임축제추진위원회라는 순수한 민간단체의 철저한 주도로 기획되고 운영되고 있는 축제로서 문화관광축제에서 평가뿐만 아니라 각종 평가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그동안 최우수 문화관광축제의 자리를 지켜오다 우수축제로 한 단계 격하되었으며, 이에 따라 줄어든 예산의 문제가 큰 어려움으로 직면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축제를 만들기 위하여 축제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스스로 기부금을 조성하는 등의 희생과 축제에 대한 열정을 통해 슬기롭게 극복한 부분에 대해 발전적으로 평가된다.
- ○ 춘천마임축제는 '좌절금지희망유발단'을 구성하여 여러 가지 이유로 축제장을 찾을 수 없는 시민들을 직접 찾아가 문화 소외민들에게 공연배달서비스 제공을 하였다. 축제를 통하여 하나의 마음으로 뭉치고 화합하며, 반목된 계층 간의 어긋남을 중화시키는 축제 본연의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었다.
- ○ 기존 대학생 계층에서 다양한 시민단체 및 중장년층 자원봉사 참여로 시민자원봉사를 확대하였으며, 또한 지역 대학의 다양한 전공과 산학협력을 체결하여 지역과 함께 하는 축제를 운영하고자 노력하였다.

❑ 개선할 점

- ○ 춘천마임축제는 순수한 민간단체에 의해 축제가 운영되고 있어서 축제 콘텐츠의 창의적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축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의 강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매년 같은 규모의 행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 환경에 의해 축제가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예산의 확보가 있어야 한다. 춘천마임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축제 평가에 의해 지원되는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년의 경우 최우수에서 우수 문화관광축제로 한 단계 낮아짐에 따라 예산의 수입이 감소하였으며, 또한 이에 따른 춘천시의 예산 지원문제가 함께 발생함으로써 축제를 개최하는데 큰 어려움에 직면 했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축제의 안정적 개최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는 춘천시의 축제에 대한 적극적 예산 협조와 추진위원회 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여갈 수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 ○ 언론에 의하면 춘천시, 지역 문화예술계와 춘천마임축제간의 반목 현상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금년 춘천시의 축제예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갈등 현상이 이와 유관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상호간의 이견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할

지라도 춘천마임축제추진위원회는 지역사회 및 시민과 소통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축제의 정체성과 지속 발전의 저변에는 지역주민이 축제와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춘천마임축제 방문객을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외지인의 경우 춘천마임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행사장을 찾았다고 답한 사람이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내지인의 경우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 비중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마임축제가 행사장을 찾게 된 주된 동기라고 답한 비율은 내우 낮게 나타났다. 춘천시민들이 마임축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대 시민 홍보와 콘텐츠 개발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라. 축제의 성과

❑ 잘된 점

- 춘천마임축제는 입장료를 받는 축제로 타 축제에 비해 축제 방문객의 숫자가 정확하게 집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012년 축제에 참가한 총 방문객 수는 작년에 비해 1만여명 늘어난 16만 7천여명으로 나타나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외지인의 소비 지출액이 작년에 비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에 유입된 경제 효과과 매우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코레일 본사 및 코레일 서울경기지사와의 협약을 통해 전철, KTX열차 내 홍보, 역사 내 인쇄물 및 동영상 광고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 관객들 유입에 성공할 수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이 주축이 된 오프홍보프로그램인 깨비들의 거리습격을 통해 일반인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러한 협약 및 홍보를 통해 수도권 지역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긍정적 작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춘천마임축제는 그동안 일간지 120회, 방송 70회 이상, MBC, KBS, SBS 중앙뉴스보도 등, 언론에서 집중 노출되었다. 특히 개막난장 '아!水라장'은 중앙 방송매체 3사의 저녁시간 메인뉴스에 모두 소개되어 축제의 대중적인 인지도를 확보하는데 큰 성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 개선할 점

- 현대는 공연예술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층이 많으며, 행사장을 스스로 찾아다니는 공연예술 마니아들도 매우 두터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춘천마임축제를 즐기는 마니아 방문객이 꽤 많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설문 분석에 따르면 75% 이상의 외지인이 춘천마임축제 행사장에 처음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제의 콘텐츠 변화와 만족도 제고를 통하여 축제 재방문객률을 높이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3) 총 평

- 춘천마임축제는 그동안 춘천에서 지역문화의 불모현상을 극복하고 지방에 특색 있는 공연문화를 정착, 발전시켰으며 이를 통해 지역이미지 고양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노력하였다.
- 공연과 거리축제, 난장이 결합된 특색 있는 형태로 공연예술축제의 문화관광상품화에 성공하여 아시아권 최대의 마임축제로 평가되고 있다.
- 춘천마임축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펴보면 창의성이 중시되는 예술형 축제답게 순수한 민간단체의 주도로 이끌어 오고 있다는 점이며, 축제가 가지고 있는 난장, 예술성, 신화성을 축제에 담고 있다는 것이다.
- 그러나 예술형 축제가 가지고 있는 일반 대중적 소통의 어려움, 더불어 마임축제가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가시적으로 표현되기가 매우 어렵다는 면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반대중에게 마임을 알리고 춘천 일반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자세와 노력이 매우 필요해 보인다.
- 춘천마임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우수 문화관광축제를 거쳐 5년 연속 최우수 축제의 자리를 지켜 왔었으나, 최근에 등급이 한 단계 격하되는 아픔 속에서도 무난히 금년 24회 춘천마임축제를 마쳤다고 볼 수 있다.
- 춘천마임축제는 향후 축제 운영 시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개선하여, 문화공연 중심의 축제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성공한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

⑫ 태백산눈축제

(1) 개 요

- ❑ **기 간** : 2012. 1. 27(금) ~ 2. 5(일) / 10일간
- ❑ **장 소** : 태백산도립공원, 오투리조트, 황지연못, 시내일원
- ❑ **주 최** : 태백시
- ❑ **주 관** : 태백시축제위원회
-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강원도, 한국관광공사,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일반여행업협회, G1 강원민방, 삼척MBC, KBS 춘천, 하이원리조트, 오투리조트, 농협중앙회, 더페스티벌, 페스티버스, 축제닷컴
- ❑ **프로그램** : 개막식, 축하공연, 눈싸움대회, 초대형눈조각전시전, 전국대학생 눈조각전, 이글루카페, 스노우래프팅, 눈미끄럼틀, 태백산눈꽃등반대회, 별빛페스티벌 등

(2) 항목별 평가

가. 축제의 특성 및 콘텐츠

❑ 잘된 점

- ○ 태백산 눈축제는 축제의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 겨울에 산소도시 태백이라는 이미지와 잘 부합된 눈이라는 소재를 이용하여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축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
- ○ 전반적으로 눈이라는 소재와 주제, 프로그램 등이 깔끔하게 하나의 궤적을 이루며 일체감을 형성하고 있었다.
- ○ 특히 금년에는 축제기간에 눈이 내려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겨울 눈축제로서의 차별성을 유지하였으며, 태백산을 찾은 등산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 다양한 크기의 눈조각 작품으로 눈축제 행사의 매력을 극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눈싸움 대회, 추억의 연탄불 먹거리, 캐릭터 시내거리 퍼포먼스, 태백산 전국 눈꽃등반대회, 태백산 눈썰매장 등 대부분의 축제 프로그램은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제고시켰다.

○ 별도 공간에서 운영하는 이글루 카페는 이색적이면서도 축제의 주제와 잘 부합된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로 평가된다.

❑ 개선할 점

○ 금년도 태백산 눈축제는 프로그램의 수가 극히 제한적이었으며, 대규모 눈싸움대회, 대형 눈조각 전시, 이글루카페존 등의 대표 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램 운영미숙으로 제 역할들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대표 프로그램은 방문객들에게 전달되는 임팩트가 부족했으며, 특히 대형 눈조각 작품 전시는 해설이 곁들여지지 않아 사진촬영을 위한 배경물정도로 활용되고 있었다.

○ 또한 메인 행사장의 프로그램수가 부족하고 전시위주의 프로그램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좀 더 다양하고 교육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공연 프로그램은 특정시간대에 편중되어 있어 방문객들의 불만을 자아내고 있었다. 그러므로 참여체험 프로그램 등을 적극 개발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 따라서 일본 삿포로 눈축제 등을 적극 벤치마킹하는 한편 태백산만의 축제 콘텐츠를 새롭게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 축제운영의 적절성

❑ 잘된 점

○ TV 등 각종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하여 관람객이 다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 개선할 점

○ 지역주민과 많은 유관기관들의 협조 하에 축제가 운영된 것으로 보이나 주차안내 및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끼어들기 차량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통제가 되지 않았다. 특히 행사장 진입차량과 방문객들이 같은 동선 상에서 움직이고 있어 매우 혼잡하고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 게다가 셔틀버스를 이용하려는 방문객들은 2km가 넘는 눈길임에도 불구하고 '걸어서 5분이면 행사장에 갈 수 있다'며 셔틀버스 기사에게 승차거부를 당하기도 하고, 행사장 입구에서 부터 행사장내에 위치한 주차장까지 걸리는 소요시간을 묻는 방문객들에게 모든 안내요원들은 30분이나 남은 거리를 처음이나 중간이나 5분이면 간다고 부정

확한 안내를 하고 있어 방문객들이 운영요원들의 불친절함과 무성의한 안내에 짜증을 감추지 못하였다.

- 또한 관람객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셔틀버스 운행 등 주행사장과 시내에 있는 행사장과의 연계 교통운영도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전시되어 있는 일부 눈 조각 들은 손상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수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체험장 운영요원 외에는 운영요원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운영요원은 행사현장의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한 방문객들이 안내요원들을 쉽게 찾을 수 없어 불편한 경우가 많았고, 축제장의 운영을 관리하는 담당자도 자리에 없었으며, 뜸하게 배치되어 있는 축제 운영요원들도 방문객의 질문에 불친절하고 퉁명스런 말투로 모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운영전반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안내 및 운영요원들의 배치, 사전교육과 친절도, 차량관리, 안전관리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 축제장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공하는 축제 홈페이지의 접속이 원활하지가 못하여 방문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다.
- 눈축제는 상당히 많은 수의 외국인이 찾아오고 있으나 화장실 같은 기본적인 안내판을 제외하고 외국어로 된 안내판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축제 시작점부터 셔틀버스에 대한 외국어안내도 없었고, 외국인용 행사 안내 팜플렛을 포함하여 외국인을 위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외국인 방문객이 매년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하여 외국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각종 안내판 밑에 외국어표기를 하고, 식당과 가판의 메뉴 제작 시에도 외국어로 메뉴를 표기하여 축제를 찾는 외국인들이 좀 더 편리하게 축제를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 주변 숙박업소는 터무니없는 바가지요금을 받고 있었으며, 음식과 상품의 질과 가격에도 문제가 있었으나 태백시와 축제추진위에서는 이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 화장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지만, 찾아오는 인원에 비해 절대 수가 부족하여 화장실 앞에는 대기자가 길게 줄을 서고 있었고, 내부 청소상태도 엉망이며 냄새가 심하고 물이 안 나오는 등 기본적인 위생 및 청결상태를 유지하지 못하였다. 또한 축제장 내에 추운 몸을 녹일만한 따뜻한 장소가 없었으며 행사장 중간 중간에 텐트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추운 몸을 녹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방문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의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축제장내에서의 장애인들은 길안내부터 많은 부분에서 불편함이 많았으나 누구 하나 장애인들을 위해 신경 써 주고 배려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 축제장 입장 시 등산객과 섞여 순수 축제 방문객도 입산(장)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사전에 입장료 관련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당혹스런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관광안내/쉼터' 라는 부스가 축제 안내를 위한 안내소로 설치는 되어 있었으나 단지 휴식처로의 기능만 담당하고 있을 뿐 축제 관련 안내 리플렛마저도 비치되어 있지 않아 축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제공이나 안내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 태백산 눈축제는 눈과 관련된 축제이므로 행사 전반의 관점에서는 눈이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방문객 이동 동선과 주 이동로에서 행사공간으로의 진입부에 내린 눈을 적시에 제거하지 못해 빙판길이 형성되었다. 이로 인해 방문객들이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태가 속출하였다. 관람객 동선을 확보하는 차원에서의 신속한 제설작업과 빙판길 안전사고 방지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다. 축제발전성

❑ 잘된 점

○ 태백산 눈축제는 해마다 태백산을 등반하고 하산하면서 자연스레 축제장을 들러서 가는 등산객들이 많다. 순수하게 태백산 눈축제를 보기 위해 방문한 방문객들보다 오히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따라서 태백산 눈축제는 이미 기본적인 관람객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므로 타 축제보다 적은 홍보로도 많은 방문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 축제의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한다면 좀 더 나은 축제가 될 것이다.

❑ 개선할 점

○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기본적인 자립의 틀을 갖추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참여도는 다소 떨어지며, 행사에 대한 협조도 원만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 시내와 행사장간의 거리로 인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적고 축제가 아니라도 같은 시기에 태백산을 찾는 등반객들이 많아 축제로 인한 이득을 인식하기 어려운 점도 이러한 현상에 일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지역의 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축제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축제 기획 초기단계부터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계획 수립 및 상품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를 위하여 시내행사의 폭을 넓히는 한편, 축제시기의 조절을 검토하거나 축제의 목표를 '태백산 방문객에 대한 볼거리 제공'으로 제한하는 등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라. 축제의 성과

❑ 잘된 점

○ 매년 방문객 수가 늘고 있고, 축제 개최로 인해 발생되는 수입 또한 증가하고 있어 지역경제 발전에 다소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된다.

❑ 개선할 점

- 방문객 수와 축제 개최로 인해 발생되는 수입이 주요 관심사가 되어 버린다면 자칫 소탐대실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성공적인 축제가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방문객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총 평

- 전반적으로 태백산 눈축제는 운영부분에서 많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방문객들을 위한 일반적인 편의시설을 비롯하여 주변 숙박업소와 음식점(특히 행사장 내)의 바가지요금, 상인들의 불친절,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및 배려 등 가장 기본적인 작은 것부터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며,
- 운영요원들에 대한 서비스 교육 또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전에 축제를 열심히 홍보하여 방문객 수만 늘린다고 해서 성공적인 축제라고는 볼 수는 없다. 태백산 눈축제가 성공적인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보여주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축제가 아닌 보이지 않는 세심한 부분까지 들여다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방문객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절실히 필요한 축제라 생각된다.

⑬ 평창 효석문화제

(1) 개 요

- ❑ **기 간** : 2012년 9월 7일(금) ~ 9월 16일(일) / 10일간
- ❑ **장 소**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효석문화마을 일원
- ❑ **주 최** : 사)이효석 문학 선양회
-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강원도, 평창군, 평창문화원 등
- ❑ **주 제** : 소설처럼 아름다운 메밀꽃밭
- ❑ **주요 행사**
  - ○ 문학프로그램 : 전국 효석 백일장, 이효석 문학의 밤, 문학 선양 행사
  - ○ 자연프로그램 : 테마포토존, 자연포토존
  - ○ 체험프로그램 : 체험마당(흙으로 만드는 세상,메밀국수 만들기체험 등)
    전국사물놀이 경연대회
  - ○ 전통프로그램 : 전통행사(옛날 장터 재현, 전통민속놀이 등)
    전통체험(전통 찹쌀떡치기, 농기구 체험마당 등)
  - ○ 공연프로그램 : 공연 및 음악제(거리 민속놀이 공연 등)
    마당극 '메밀꽃 필 무렵' 공연
  - ○ 문화예술프로그램 : 전시 및 행사(축제 주제관, 평창관광 사진전 등)
  - ○ 기타프로그램 : 메밀음식 전시 및 시식회, 농특산물 전시 판매전 등
  - ○ 주변연계프로그램 : 허브나라, 평창무이예술관, 이효석 문학의 숲, 기타 주변 연계관광 등

(2) 항목별 평가

가. 축제의 특성 / 축제 콘텐츠

- ❑ **잘된 점**
  - ○ 효석 문화제는 문학적 배경과 지역의 주요 관광매력 요소가 결합된 축제로서 타지역의 메밀꽃을 주제로한 기존 축제와의 차별화를 이루고 문학을 중심으로한 각종 문화

프로그램과 연계 관광지 등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어우러져 활발한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며 지역의 문화적 이미지를 창출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인정함.

-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각종 공연 및 체험 이벤트를 강변 주무대에서 진행하고 축제기간중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축제 핵심 프로 그램으로 지정한 '메밀꽃밭 오솔길(메밀꽃밭 포토존)'에 경관 및 관광객 편의 시설 조성을 통하여 방문객의 자연스런 축제 참여 활동을 유도 하였음.
- 주무대 행사장에서의 축제 정보 습득 및 문화 체험이후 효석 문학의 현장(메밀꽃밭, 이효석문학관 등) 체험으로의 활동이 섬다리(징검다리)를 매개로 하여 주변 관광지와 연계, 진행됨으로써 축제 개최 효과를 증대시키고 방문객의 만족도를 제고시킴.
- 전년도에 이어 주행사장의 하나인 메밀꽃밭 오솔길에 한지 등을 확대 설치하여 야간 관광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주/야간 관광객의 활발한 방문을 유도한 것으로 사료됨.
- 개막식 행사의 경우, 의전을 최소화하고 공연 형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축제 분위기 고조 및 축제 행사에 대한 방문객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 것으로 판단됨.
- 문화공연/이벤트, 자연경관 등의 볼거리와 함께 메밀을 소재로 한 먹거리 체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축제 수익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됨.

❑ 개선할 점

- 효석문화제는 문학 테마와 메밀꽃밭 등 자연 경관을 결합한 형태로서 기존 꽃축제와의 차별화에 지속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반인들에게는 차별성 인식이 다소 부족하여 향후 축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더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축제 주제관련 대표프로그램으로서 메밀꽃밭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메밀꽃밭 행사장에서의 좀더 다양한 이벤트, 공연 등을 기획, 연출함으로써 축제 킬러 콘텐츠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음.
- 축제장 주변 관광지(이효석 생가, 이효석 문학관 등)와 연계한 관광프로그램을 특화하여 축제기간중 집중 운영함으로써 기존 관광지 방문객 에게도 축제 분위기를 전파하여 축제 방문객 유치 증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나. 축제운영의 적절성

❑ 잘된 점

-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활발한 협조 활동과 함께 아산대학교 이벤트학과 등과의 산학협력활동 등으로 효석 문화제의 지속적인 발

전을 이루었으며, 이는 지역 축제의 향후 협력관계 및 자생력 측면에서 매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례로서 인정됨.

- 민간중심의 축제 조직 운영으로 축제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고 축제기간중 자문과 컨설팅을 위한 총감독제 운영 등으로 축제의 전문성을 제고 하였으며, 주변 공공 기반시설의 적절한 활용을 통하여 방문객 수용능력 증대 및 원활한 행사 진행을 이룰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
- 축제 홍보를 위하여 지역 TV 광고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활동을 거쳐 축제에 대한 인지도를 높였으며, 특히 3회에 걸친 언론사 팸투어를 실시, 매체 기사화에 주력하여 방문객 유치 증대 효과를 높였던 것으로 판단됨.

❑ 개선할 점

- 축제 대표프로그램인 메밀꽃밭 오솔길과 주무대 주변 행사장과의 거리가 다소 멀어 방문객의 동선 유도가 어려우며, 메밀꽃 밭이 주행사장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LED 등을 활용한 표지 안내물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주무대 주변 행사장이 기존 타 지역 축제의 행사장과 비교할 때 협소한 편으로 방문객들의 체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데 다소 불편한 면이 보이며, 부스 운영도 축제 주제와의 관련성 등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축제홍보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배치 운영이 요구됨.
- 축제장 입구의 안내부스에서는 안내물 배포 등 기본적인 활동만을 함으로써, 방문객을 대상으로 축제에 대한 관심 및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하며 이를 통한 방문객들의 활발한 축제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주행사장 이외의 지역을 연계한 관광코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주변 관광지와 행사장간의 연결 셔틀 버스 등을 수시로 운영하는 등 방문객의 관람 편의 제공 확대가 요구됨.
- 고유 축제장과 인근 장터와의 경계가 모호한 관계로 행사 및 상행위가 혼재하며 장터에서의 축제 주제와는 맞지 않는 공연(각설이 공연 등)에 의한 소음 발생 및 공연 내용의 이질성 등으로 축제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반감되는 경향이 있는 바, 인근 상인들과의 사전 조율 등을 통한 긍정적인 축제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다. 축제발전성

❑ 잘된 점

- 매년 지적하였듯이 효석 문화제는 축제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축제 위원회가 지역단체, 기업, 관광업계 등의 후원을 통하여 직접 마련하고 있어 타 축제에 비해 높은 축제재정자립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축제기간중 축제 방문객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활동으로 축제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돋보임.

- 또한 효석 문화제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행정 지원이 추진되고 있으며, '효석 문학 100리길 조성 사업', 봉평 중고등학교 토지와 건물을 활용한 메밀자료관, 메밀체험관, 메밀국수 아카데미 조성 등 기반 시설 확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지자체의 축제 육성 및 발전의지를 바탕으로 축제 발전을 위한 관련 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축제 운영 예산 확충을 위하여 메밀 수확 판매, 축제 부스 임대료, 메밀 음식 단체 후원금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이외에 각종 관련 부대 사업을 통한 수익 등으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됨.

❑ 개선할 점

- 지역 문화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참여형 축제로서의 확대 발전을 위하여 주제와 관련된 체험 프로그램 확대와 차별화된 소재 발굴과 함께 방문객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유도 노력이 필요함.
- 2018 동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효석 문화제가 올림픽 개최지역의 대표축제로서 문화 올림픽으로서의 포지셔닝을 위하여 민관 협력 관계 강화를 통한 축제의 국제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축제의 장기적인 발전 및 국제화를 위한 여건 조성으로 외국인 방문객을 위한 정보 서비스 및 편의 제공 확충과 함께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PR 및 마케팅 활동 강화가 요구됨.
- 국내외 잠재 관광객을 대상으로 축제 인지도 제고 및 방문객 유치 확대를 위한 활동으로 향후 효과적인 축제 브랜드 및 특화된 축제 상품 개발을 통한 축제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라. 축제의 성과

❑ 잘된 점

- 전년도의 13회째 효석 문화제 개최를 통하여 축제 기간동안 35만 3천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고, 평창 지역주민과 지역외 방문객의 비율은 2.7:97.3의 비율로 외지 방문객의 축제 방문이 압도적으로 높고 장거리 방문객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축제 개최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로는 269억원의 직접경제효과와 함께 1,078명의 고용파급효과를 창출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또한 효석 문화제를 통해 봉평 메밀에 대한 전국적인 인지도와 선호도가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내 메밀음식업체가 현재 23개소로 이전에 비해 4배가량 증가 활

성화 되었으며, 메밀식품 가공업체도 4개 업체로 성장하였고 메밀막걸리, 메밀차 등 다양한 분야로 메밀 산업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음.

□ 개선할 점

- ○ 축제기간 전후의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하여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 상품의 확대 개발 운영과 함께 각종 소비자 환경 및 소비 트렌드 변화 등을 감안한 축제 홍보 마케팅 활동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 지역 문화 이미지 확산 및 축제 개최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차별적이미지의 축제 브랜드 개발 및 지속적인 활용이 요구되며, 축제 콘텐츠의 보완과 기반 시설 확대 및 활용을 통하여 축제의 규모를 키우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3) 총 평

- ○ 평창 효석 문화제는 문학적 요소와 자연 경관적 요소를 결합시켜 타지역 유사 꽃축제와 차별성을 이루었으며, 문학적 배경으로 인하여 축제 인지도가 높고 지자체의 자발적인 육성 의지와 함께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자생력을 갖추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그러나 축제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하여 향후 축제 대표프로그램의 내실있는 운영과 함께 새로운 킬러 콘텐츠 개발이 요구되며, 문학 테마를 가진 특성화 축제로서 축제 지역 및 이벤트 등에 소설의 배경 등과 관련된 이야기(스토리) 구성 및 스토리텔링 기법 활용이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축제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또한 축제 지역의 문화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한 연계관광 프로그램을 활성화함으로써 보다 경쟁력 있는 축제로서 축제 방문객의 체류/참여형 관광을 적극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 문화 홍보와 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⑭ 양양 송이축제

(1) 개 요

❑ **기 간** : 2012년 10월 3일(수) - 10월 7일(일) 5일간

❑ **장 소** : 남대천 둔치 및 양양시장송이산지, 송이밸리 일원

❑ **주 최** : 양양군

❑ **주 관** : 양양송이축제위원회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강원도, 언론사 등

❑ **주요행사**

- 현장체험행사 : 외국인송이채취현장체험, 송이보물찾기, 버섯채취체험, 어성전 탁장사 체험, 동호리멸치후리기, 송천리 떡마을체험, 낙산배따기 체험, 양양양수발전소 탐방
- 문화예술행사 : 탁장사대회, 전통혼례 재현, 현대무용공연, 청소년댄스, 야간무대공연, 락밴드·예술단공연, 군민화합 문화예술제
- 맛체험행사 : 송천떡만들기, 송이요리전문점, 송이요리페스티벌, 송이요리시식, 나도송이제빵사, 양양맛음식점, 낙산배 시식, 송이가공식품시식, 버섯음식점
- 상설행사 : 송이주제관, 양양송이알아맞히기, 낙산배품평회, 양양송이직거래장터, 송이조각시연, 송이탁본뜨기, 송이특별경매, 분재전시, 낙산배깍기대회, 특산물판매점, 꽃누름·천연염색·전통규방, 양양관광기념품판매, 섶다리, 송이주막, 퀼트체험,농경문화체험, 페이스페인팅, 비누풍선놀이, 사진전, 시화전, 야생화전시회, 허브전시회, 버섯사진전시, 송이가공식품 홍보및판매, 특산물판매, 버섯전시, 마을단위축제마당, 송이윷놀이마당, 송이 오자미넣기, 송이제기차기, 송이포토존, 송이볼링, 송이조각공원, 오산리선사유적관, 양양명품소나무전시, 송이동 동산, 송이추억
- 거리행사 : 거리퍼포먼스, 송이홍보단 퍼레이드, 길놀이

(2) 항목별 평가

가. 축제프로그램 완성도

❑ 잘된 점

- 양양송이축제는 송이라는 지역의 특산물을 소재로 한 축제라 할 수 있다. 고가의 송이라는 소재의 특성과 함께 기후에 민감한 소재라는 점에서 축제를 구성하기에 일반 축제에 비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어려운 소재를 가지고 하는 축제인 양양송이축제는 소재의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많았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가장 먼저 외국인에게 한정적으로 운영되는 송이채취체험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버섯채취체험을 새롭게 구성한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연산 송이채취의 경우 고가의 송이를 주제로 한 대표프로그램임에는 틀림없으나 체험자들로 인한 송이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국내인에게 까지 체험을 확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편으로 버섯채취체험을 도입함과 동시에 송이밸리에서 진행되는 송이보물찾기체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을 진행하였다는 점은 소재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 또한 송이와 관련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방문객들에게 체험거리를 제공하였다는 점도 축제의 핵심방문객층이라 할 수 있는 가족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보여진다.
- 특히 작년말에 조성된 송이밸리를 중심으로 한 송이보물찾기체험과 함께 주변의 밤나무를 이용한 밤줍기체험, 버섯채취체험 등은 주행사장에서 경험할 수 없는 요소들을 부행사장을 이용하여 운영함으로써 축제의 소재와 적합한 친환경공간을 조성하고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 개선할 점

- 전체적으로 전년에 비해 평가를 통해 개선이 요구되었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시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향후 보완하여야 할 과제로 생각된다.
- 가장 먼저 소재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도 서술하였듯이 금년의 경우 고가의 송이버섯에 대한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송이버섯뿐만 아니라 일반버섯으로 소재를 확대하여 한계성을 극복한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핵심소재인 송이를 부각시키기에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송이조형물이나 송이등 등 송이형태의 다양한 개체를 이용하여 주제를 부각시킨 점도 있었으나 송이버섯의 가장 큰 특징은 향기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방향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송이버섯의 가장 큰 특징중의 하나는 바로 솔향이라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소나무에서 기생하는 송이버섯의 향기를 중심으로 소나무, 혹은 솔잎을 테마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주안내소, 체험프로그램부스, 기타 행사장 설치물에 소나무나 솔잎을 활용하여 구성한다면 송이버섯에서 느낄 수 있는 향기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나. 축제운영의 적절성

❑ 잘된 점

○ 양양송이축제에 송이산주들과의 협력은 대표프로그램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요소들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축제주관부서에서 송이산주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외국인 송이채취체험을 원활하게 운영토록 구성한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 또한 단순히 송이산만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닌 송이산주들이 직접 송이에 대한 설명과 가이드를 병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송이에 대한 전문가(송이농가)들이 살아있는 지식을 전달한다는 점에서도 지역의 참여 및 정보제공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 또한 송이축제의 특성상 송이 재배자들을 중심으로 축제가 구성되어 자칫 송이재배자 외의 지역민 참여가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여 다양한 단체 및 지역민의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을 축제장내에 구성하여 운영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특히 금년의 경우 송이밸리를 이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송이보물찾기와 버섯 채취체험, 밤줍기 행사와 병행한 점은 보다 많은 방문객들이 친환경적인 공간내에서 송이채취는 물론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점도 체험의 다양성 부분에서 방문객들의 체험만족도를 상승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외국인송이채취체험을 위해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관광객들을 유치하려는 노력은 외국인관광객들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적극적인 마케팅이라 볼 수 있다.

○ 그 외에도 축제장내에 별도의 주제관을 구성하여 방문객들에게 송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양양송이의 우수성을 홍보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송이의 구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 개선할 점

○ 양양송이축제는 고가의 질좋은 송이를 판매하고 지역의 청정이미지를 인식시키고 이를 통한 경제파급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이 주요목적이라 할 수 있다.

○ 이런 측면에서 축제장내에 외지상인부스가 함께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축제의 좋은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주행사장의 입구내에는 외지상인이 진입하지 않았으나 방문객들이 주차를 하고 행사장으로 진입할 경우 외지상인부스를 먼저 접촉할 수 있다는 점은 축제의 전반적인 질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보다 적극적인 통제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 또한 축제장내 구성에 있어 송이버섯과 관련된 프로그램 및 판매부스 외에 관련성이 없는 프로그램이나 군부대와 연계한 프로그램 구성은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나 지역과의 연계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으나 송이버섯이 가지고 있는 주제를 부각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며 전반적인 축제장의 세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양양송이에 대한 정보제공기능을 수행하는 주제관의 경우 위치선정에 있어 방문객들이 핵심 통로상에 배치되어야 그 기능을 배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행사장 입구 인근으로 위치를 이동, 배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축제발전성

❑ 잘된 점

- 송이의 고장 양양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는데 양양송이축제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단순히 송이뿐만 아니라 양식이 불가능한 송이를 재배하는 지역이라는 점은 양양을 청정한 지역으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또하나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의 개관은 축제의 발전과 함께 지역의 송이에 관심과 지원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일반적인 휴양림의 개념이 아닌 송이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휴양림을 조성하고 축제기간에 부행사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축제공간을 제공한다는 점과 함께 축제기간 외에도 지속적으로 양양송이를 알리고 홍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때 축제의 지속적인 파급효과와 사전 홍보기능까지 겸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또한 국내관광객에서 만족하지 않고 송이에 관심이 높은 일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은 매우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되어 진다. 이를 통해 양양송이축제가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지역의 언론과 잡지 등에 노출됨은 물론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외래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측면은 양양송이축제의 가장 큰 장점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 양양공항과의 협의를 통한 외래방문객 유치는 물론 인천공항, 동해항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외래방문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분은 향후 양양송이축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여진다.

❑ 개선할 점

- 축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관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의존하기 보다는 축제의 자생력확보를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현재의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양양송이축제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한 부스를 입점하는 단체 및 대상에 대하여 한 부스당 약 20만원의 부스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부분은 축제의 예산절감차원과 함께 자생력을 확보하는데 일부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판매상품의 종류, 판매량, 부스의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부스사용료 및 입점료를 차등화한다는 부분도 생각하여야 한다고 본다.
- 또 다른 부분은 송이버섯의 가치를 보다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송이버섯의 포장재에 있어 버섯의 신선도를 유치시켜야 된다는 점에서 스티로폴 박스를 사용한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나 구매자가 직접 먹기 위해 구입하는 버섯외에 선물 등 다른 용도로 버섯의 구매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송이버섯의 포장에도 고급화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부분은 단순히 양양송이의 가치를 높인다는 측면 외에도 포장지의 디자인과 문구 등을 통해 간접적인 홍보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 또한 일본관광객을 중심으로 한 외래관광객들의 구매력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본인들은 자연산 송이버섯을 매우 귀중하게 여긴다고 한다. 어떤 일본인들은 송이버섯을 슬라이스하여 가지고 다니면서 식당에서 하나씩 꺼내서 먹을 정도로 그 가치를 높게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송이버섯의 판매방식을 현재의 박스단위로 판매하는 방식과 함께 소수의 수량도 함께 판매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질 좋은 송이버섯을 한 개나 두 개로 고급 포장하여 이를 일본인이나 기타 구매를 원하는 방문객들에게 판매한다면 고가상품에 대한 부담감이 해소됨과 동시에 홍보효과도 향상될 것으로 여겨진다.
- 금년의 경우 일본인 관광객그룹 중 편한 신발을 착용하지 않은 노년층 그룹이 포함되어 있어 송이채취체험에 어려움이 발생한 점으로 볼때 향 후 외국인방문객들을 위한 세밀한 채취체험 사전고지와 함께 수월한 체험을 위한 서비스가 필요가 것으로 판단된다.

라. 축제의 성과

❑ 잘된 점

- 2012 양양송이축제는 10월 3일부터 7일까지 개최되었으며 추석연휴와 연결하여 방문객 유치에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10월 4일은 양양 5일장이 열려 주중 방문객유치에도 어느정도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금년 새롭게 시도한 버섯채취체험과 함께 송이 보물찾기 체험등으로 인하여 그동안 외국인을 대상으로 만 진행되었던 송이버섯채취체험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또 하나의 성과로 볼 수 있다.
- 특히 송이밸리의 조성으로 인하여 인프라가 구축됨에 따라 상설전시관인 송이관이 개관되어 축제기간 외에도 송이에 대한 홍보기능이 가능해졌다는 점도 송이축제로 인한 지역의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 성과라 할 수 있다.
- 국내관광객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을 사전 현지 접촉을 통한 공격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유치하였다는 점도 긍정적인 면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그 외에 송이버섯이 주는 이미지를 활용하여 지역의 청정이미지를 축제를 통해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었다는 점과 함께 양양지역의 체험마을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등도 하나의 축제를 통해 지역의 관광자원을 알리고 연계한 측면에서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 개선할 점

- 양양송이축제는 고가의 송이를 테마로 한 축제로 송이버섯 판매를 통한 부가가치가 타 특산물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후 등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 따라 프로그램의 운영, 판매 등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 송이축제를 통한 부가가치를 확대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단순히 버섯을 판매하는 것 외에 버섯을 이용한 다양한 음식을 개발하는 방안이 부가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전략 중의 하나라 생각된다. 물론 지금도 축제장에서는 다양한 송이버섯 음식을 판매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음식에 송이버섯을 넣은 것이지 송이버섯만의 특화메뉴로 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 외국인들, 특히 일본인들은 음식의 맛은 물론이고 음식의 스타일, 모양, 색 등도 매우 중요한 음식의 요소로 보는 경향이 짙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일본을 포함한 외래관광객들을 겨냥하여 국제적인 입맛과 선호도를 고려한 특화메뉴를 개발한다면 또 하나의 차별화된 축제음식으로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단순히 축제음식에만 그치지 말고 중장기적인 계획과 지원을 통해 세계적인 음식경연대회 등에 음식을 출품하여 세계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본다.
-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의 경우 현재 송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송이관을 비롯하여 숙박시설, 세미나시설 등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친환경적인 공간에서 숙박하는 것은 양양지역의 청정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축제기간동안 만이라도 특화된 숙박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면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송이버섯을 테마로 한 숙박프로그램으로 송이버섯의 관찰은 물론, 송이버섯 채취, 송이밥상, 송이향이 나는 침실이나 사우나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접목하여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양양에서의 하룻밤을 제공한다면 언론매체를 통한 이슈화와 함께 특화상품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3) 총 평

○ 2012 양양송이축제는 예년에 비해 많은 부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양양송이의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신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축제공간의 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라 구역화하는 등의 노력은 전체적인 축제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할 수 있다.

○ 특히 송이버섯에서 일반버섯으로 그 개념을 확대하여 버섯채취체험과 버섯요리음식점을 운영한 점도 보다 다양하고 저렴한 버섯음식을 제공하고 체험의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도라 할 수 있다.

○ 특히 양양송이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일반적인 홍보방식이 아닌 직접 일본으로 찾아가 관계자를 미팅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관광객을 보다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고 이러한 부분이 외래관광객 유치에 효과적으로 작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양양송이축제가 지속 발전하기 위해 가장 큰 부문은 축제를 통한 지역의 파급효과를 보다 넓은 부분으로 확대시키는 부분과 함께 송이버섯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개발이라 할 수 있다.

○ 단순히 송이판매에만 의존할 경우 양양군 전체의 파급효과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지역의 체험마을을 비롯한 다양한 천혜의 관광자원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실험이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 또한 송이버섯을 활용한 특화음식과 함께 보다 다양한 상품개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송이버섯 자체만으로도 그 가치가 높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버섯의 가공상품과 함께 버섯을 이용한 국제적인 음식개발은 지속적으로 도전해야할 과제라 생각된다.

○ 또한 송이버섯의 이미지와 특성을 노출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도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송이버섯을 노출하기 위해 고가의 버섯을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나무, 솔향 등 송이버섯과 관련이 있는 소재들을 발굴하고 찾아내어 이를 축제와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⑮ 화천 산천어축제

(1) 개 요

❑ **기 간** : 2012년 1월 7일(토) - 1월 29일(일) 23일간

❑ **장 소** : 강원도 화천군 화천천 및 5개읍면 일원

❑ **주 최** : 화천군

❑ **주 관** : 재단법인 나라

❑ **주 제** : 얼지 않은 인정, 녹지 않는 추억! 2012 화천산천어축제

❑ **부 제** : 100만인이 함께하는 100만인의 겨울축제

❑ **주요프로그램**

- 킬프로그램 : 산천어 얼음낚시(현장, 예약, 외국인, 어린이전용), 기절초풍 산천어 맨손잡기, 산천어 루어낚시 등
- 이색체험 프로그램 : 눈사람광장, 눈썰매, 눈조각, 빙상/레포츠광장, 스노우 미로, 스노우라이더(크로스컨트리), 얼음썰매, 얼음축구, 콩닥콩닥 봅슬레이, 하늘가르기, 대한민국 창작썰매 콘테스트, 카트레일카
- 문화체험 프로그램 : 축제 개막공연(빙판 낭천별곡), 폐막식, 얼곰이성 홍보관, 산천어 공방, 산천어 겨울 문화촌, 겨울 마을 사랑방 마실 등
- 야간시가지 연계프로그램 : 선등문화이벤트(선등거리, 어등제적콘테스트, 연인사진콘테스트, 점등식, 주말 팝과 재즈의 공연, 소망엽서쓰기, 사랑의 거리, 평화의 거리, 산천어 이야기 한지 등 전시, 소망엽소 소지식) 선등플라자 (난장 및 컬러빛 눈의 거리운영), 세계겨울도시광장, 아시아 빙등광장,
- 편의시설 : 축제종합안내센터, 작은안내센터, 선천어 구이터 및 회센터, 몸녹임 쉼터, 주전부리 향토음식점, 기념품 판매소, 응급의료센터, 재난구조대, 자원봉사센터, 흡연부스, 찻집 등

(2) 항목별 평가

가. 축제프로그램 완성도

❑ 잘된 점

- ○ 그동안 얼음나라화천 산천어축제는 국내를 대표하는 겨울축제로서 꾸준한 성장을 해 왔음. 특히 프로그램측면에서 얼음과 산천어, 눈썰매 등 축제가 활발하지 않은 겨울시즌에 다양하고 흥미로운 체험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서 겨울에도 국민들의 여가참여를 유도하는 축제를 개발하였음.
- ○ 화천 산천어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있음에 따라 이를 벤치마킹하여 경기도 북부지역과 강원도 여러 지역에서 새로운 겨울축제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는 국민여가 차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특히 화천 산천어 축제는 다른 축제들과의 프로그램에서 차별성을 추구하고자 해마다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축제의 발전에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 ○ 올해의 축제에서는 프로그램 구성과 기획면에서 체험행사 22종, 문화이벤트 행사 2종 등 총 24여종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특히 얼음과 산천어 그리고 밤과 낮을 구분하지 않고 축제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소재들이 프로그램으로 연출되어 전년도와는 다른 새로운 기획의도를 보여주었음.
- ○ 화천 산천어축제의 체험프로그램은 대부분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얼음썰매, 얼음낚시, 봅슬레이 등 참여 프로그램들을 기획하였으며, 또한 어른들이 즐길 수 있는 산천어 루어낚시, 그리고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하늘 가르기 등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 최근 축제방문객들의 형태가 가족단위인 점을 고려하여 화천 산천어 축제는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개선할 점

- ○ 얼음나라화천 산천어축제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공간 활용범위를 보면 주 행사장인 화천천 이외에도 읍내의 여러 장소에 위치하고 있으나 축제공간들의 연결성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음. 공간연결방법에 대한 미흡으로 전체 축제장 방문객 중에서 빙등 광장 및 산천어공방 등 축제장 전역을 방문한 사람들은 전체 방문객의 1/3도 되지 않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음. 향후에는 옵시가지 공간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도 방문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연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되고 있음. 예를 들면 주행사장으로부터 도심의 부대축제장까지 축제장을 선등거리로 연결하거나 또한 산천어 등을 한쪽 방향으로 바라보게 연결한다면 다음 축제장소 까지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또한 화천의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하여 축제기간동안 하루에 몇 번씩 시간을 정하여 해설이 있는 화천시가지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방안이 될 것임. 이러한 시가지 투어는 화천읍내 골목길투어와 축제장의 곳곳을 스토리텔링화 함으로서 축제기간 뿐 만 아니라 향후에 방문하게 될 잠재 방문객들에게도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됨.
- 스토리텔링의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스타마케팅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축제기간 중 최근 젊은 세대와 '소통의 대통령'이라 불리우는 이외수 선생님이나 화천지역의 유명한 출향인사, 군의원, 단체의 장 등 지역의 리딩그룹을 활용하여 화천읍내의 골목길을 투어 한다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더불어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더불어 방문객들의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됨.
- 축제장의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고급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 축제기간동안 일시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축제장을 방문함에 따라 사전에 예약하지 않은 사람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음. 이러한 방문객을 위하여 차별화된 고품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새로운 수익창출 기회와 더불어 방문객들에게는 선민의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세계적으로 우수한 축제에서는 누구에게나 평등한 축제가 되도록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방문객들에게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노력이 우선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축제운영의 적절성

❑ 잘된 점

- 선등거리를 화천천변에서 읍내 도심으로 이동하여 설치·운영함으로서 외지의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 것과 더불어 시가지에서 야간의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기획한 것은 매우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판단됨. 이러한 노력은 축제의 경제적인 파급효과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성공적인 축제들의 공통점이 야간 볼거리 및 즐길 거리가 활성화되어 있고, 방문객들을 지역에 체류하면서 야간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 바 선등거리를 읍내 도심에 운영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축제장을 구획하여 W1, W2와 같이 일련번호를 부여한 것은 방문객의 위치 확인 측면에서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평가됨. 이러한 공간 구획은 방문객들이 서로 떨어지거나 혹은 축제장에서 만날 사람이 있을 때 번호와 동서로 구분된 번호표가 매우 유익하게 작용하였음. 향후에는 얼음낚시 공간 뿐 만 아니라 축제장의 부스에도 일련번호를 병기한다면 축제장의 위치 확인에 유용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축제장 프로그램을 중 산천어 얼음낚시 프로그램은 얼음구멍을 뚫어 그 구멍을 통해 낚시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구멍이 크거나 주변이 미끄러울 경우 자칫 위험 할 수 있

었음.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큰 얼음구멍에는 붉은색으로 표시하여 방문객들이 조심하도록 유도하고 안전하게 낚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현상은 축제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운영측면에서도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음.

- 또한 축제장 부스에서도 다른 여타의 축제들과 달리 주요한 지점에 세로형태의 입간판을 활용하였음. 이러한 입간판의 설치는 축제장의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외지의 방문객들이 길을 걸어가면서 주요한 축제장 부스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의 위치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데 매우 용이하였음. 특히 축제공간이 광활하다보니 다른 축제장과 마찬가지로 부스 앞에만 가로 현수막을 게시하였다면 좁은 길에 많은 사람이 다니다 보면 자칫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사안이기때문에 이러한 현수막의 게시는 방문객에 대한 작은 배려가 돋보이는 운영이라고 평가됨.
- 올해 얼음나라화천 산천어축제가 CNN에 방송되면서 많은 주한 외국인들이 방문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이에 따른 외국인을 배려한 축제운영 또한 좋은 운영방법이었다고 평가됨. 외국인 전용 산천어 얼음낚시 체험장과 외국인 전용 산천어 구이장 등 외국인들의 전용 축제장소를 마련하여 외국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도록 공간을 구성하였으며, 그 외에도 안내방송 및 안내표지판 등도 외국어를 함께 사용하고 외국음식점 부스를 마련하여 외국인들에 대한 배려가 돋보였다고 판단됨.
- 올해 축제에서는 농산물 판매에 있어 실명제를 도입하여 방문객들에게 신뢰감을 형성하였음. 축제장을 방문하여 농산물을 구입하는 방문객들에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은 지속적인 방문객을 유치한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 개선할 점

- 선등거리에 교통이 통제되지 않음에 따라 선등거리에서 사진촬영을 하는 방문객들은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었으며, 특히 노견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량들로 인하여 자유롭게 기념촬영을 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산재하고 있었음. 향후에는 주말에 방문객이 선등거리를 가장 많이 방문하는 시간을 지정하여 1시간에서 2시간 차량을 통제시키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운영은 방문객들의 안전과 더불어 편의도 확보하고 또한 지역주민들에게도 최소한의 피해를 줄 수 있는 윈 윈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산천어 축제의 캐릭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산천어 축제의 캐릭터는 북극곰의 형태를 하고 있으므로 산천어 축제라는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는 다고 판단됨. 축제의 캐릭터는 해당 축제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표식임에 따라 산천어 축제에 북극곰의 형태인 캐릭터를 사용했다는 점은 아쉬움이 있음. 특히 북극곰이 물고기를 먹고 산다는 부분에서 먹이사슬관계에서 자칫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얼음나라화천 산천어 축제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마스코트를 다시금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겨울축제라는 특성상 축제장의 바닥이 미끄러워서 방문객들이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되었음. 게다가 축제가 눈과 얼음을 활용하는 축제인지라 축제장 주변의 통행로에는 눈과 얼음이 녹은 물들이 발생하여 축제장이 매우 지저분하다는 느낌도 들었음. 축제가 장기간 진행되고 축제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방문객들의 주요 통행로에는 축제장의 청결과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바닥제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평가되었음.
- 산천어 축제장의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종합 쿠폰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종합쿠폰제도의 도입은 프로그램마다 개별로 입장권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번잡함을 줄여 방문객 만족도를 제고하는 측면과 동시에 전체의 프로그램에 방문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전체 프로그램에 입장할 수 있는 쿠폰이 아니면 한번 구매로 3개-5개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형태로 쿠폰제도를 운영해도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평가됨.
- 축제장 전역을 대상으로 스탬프 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빙등 광장, 산천어 등 만들기, 세계 겨울도시광장, 산천어 얼음낚시 등 5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체험 시 기념품 증정하는 방식임. 이를 위해서는 패키지 쿠폰제나 스탬프 제도를 기획하여 화천군에서 제작한 산천어 등을 선물하여 메인축제장 뿐 아니라 연계프로그램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함.
- 어등제작 공모전을 통해 출품된 작품들의 전시방법에서 고급화 필요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올해의 축제에서는 출품자들이 정성껏 제작하여 출품된 작품들이 중요하게 보관되지 못하고 비교적 소홀하게 취급되었으며, 외곽진 곳에 전시되어 있었음. 특히 공모전의 출품작들이 방문객들의 주의를 끌지 못하는 공간에 전시되어 있었음. 향후에는 참여자들의 확대를 도모하고 콘테스트에 참여한 출품자들의 작품성을 고려하여 야간에 중요한 볼거리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전시방법의 변화가 요구되었음.
- 또한 얼음나라화천 산천어축제장 내 편의시설(휴게시설)의 고급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축제장의 기온이 매우 낮으므로 휴게기능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됨. 올해 축제에서는 휴게시설로 부스 앞으로 비닐막을 사용하여 바람을 막고 내부에 간단한 의자 몇 개를 가져다 놓는 것으로 휴식 공간을 마련하였으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았으며, 공간 또한 협소하였음. 축제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도시민들이라는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휴식공간을 설치하여야 할 것임. 방문객이 축제장에 오래도록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는 축제장의 휴식공간을 보다 고 품질을 지각할 수 있도록 설치함으로서(하얼빈의 빙등축제장의 휴식공간을 참조) 방문객들이 고품질의 축제라는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할 것임.
- 축제기간동안 일시에 과다한 관광객 유입으로 인하여 환경파괴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해야함. 따라서 축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축제장에 관광수용력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다. 축제발전성

❑ 잘된 점

- 화천 산천어축제는 화천군청의 전폭적인 행정적 지원과 축제 관계자,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의기투합하여 발전시킨 지역축제로서 최근 외국인들이 가장 가보고 싶은 축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축제로 발전을 하였음. 특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겨울축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최근 세계 4대 겨울축제로 인식될 정도로 성장하였음. 그동안 화천군이 낮은 지역인지도와 군인산업을 제외한 특별한 산업이 구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화천 산천어축제는 청정지역이라는 지역에 대한 이미지 형성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살기 좋은 고장으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음.
- 화천산천어축제는 겨울철에 딱히 즐길만한 축제가 없는 우리나라 여가산업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산천어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는 우리나라 겨울축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최근 국내 대부분의 지역축제들이 자연과 인물, 설화, 특산품을 중심으로 하는 축제에서 지역 내 산업을 특화시키고자 산업형 축제로 변모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발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평가됨.
- 축제방문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화천군의 문화휴양시설들이 급속하게 보완되고 있음. 화천군내에 국비를 유치하여 건설한 산천어 밸리와 같은 휴양시설들이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이러한 휴양시설은 화천군을 사계절 관광지로 인식되는 촉매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처럼 산천어밸리와 같은 숙박시설들이 개관되면 보다 많은 방문객들이 화천에서 체류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기반시설의 구축은 축제의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음.

❑ 개선할 점

- 국내·외에서 성공한 축제라고 여겨지는 축제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축제 프로그램과 운영 등에 지역문화와 지역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음. 그러나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축제의 경우 다양한 산천어 및 얼음을 주제로 한 체험행사는 좋았으나 화천군이 가지는 차별화된 문화적 정체성은 아직까지도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있음. 향후에는 산천어축제를 활용한 지역의 정통성을 더욱 유지하기 위해서는 산천어와 지역문화를 연계한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됨.
- 축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화천군에 산천어에 대한 상설전시관을 설치하거나 축제기간동안에는 축제장 인근 지역에 축제주제관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평가됨. 주제관을 통하여 화천과 산천어와의 관련성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산천어가 환경지표 어종이라는 점도 강조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향후에는 산천어 축제주제관을 축제기간동안 운영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됨.

- 축제의 프로그램에서 산천어와 겨울축제의 콘텐츠가 혼재되어 있다 보니 산천어축제에 대한 대표이미지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올해의 축제에서도 화천의 산천어 축제가 겨울에 개최되는 축제라는 이미지 때문에 도심에 빙등 프로그램과 빙설프로그램들이 동시에 운영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오히려 화천 산천어 축제의 고유한 정체성에 혼란을 주고 있으며, 국내의 유사한 얼음축제의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음. 특히 일본의 북해도 눈축제와 중국하얼빈의 빙등제가 얼음과 눈으로 축제를 개최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화천 산천어 축제만의 정체성을 점차 정립해 나가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평가됨.
- 양적인 축제의 발전과 더불어 질적인 측면에서도 축제의 성장을 추구해야 할 시점임. 이를 위해서는 축제장 방문객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군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됨. 특히 축제장 주변의 외지상인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군민들의 공통된 의식도 필요하다고 평가됨. 축제기간동안 숙박업, 요식업, 편의시설 등 축제장 내 물가가 매우 불안정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얼음나라화천 산천어축제가 더욱 세계적인 문화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축제기간동안의 특수효과를 바라기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방문객들이 지속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부족한 하드웨어와 인프라 구축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됨. 특히 얼음나라화천 산천어축제장의 방문객이 증가하면서 주차공간이 태부족하여 축제장에 입장하기도 전에 혼잡성으로 인한 불만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해결하는 방안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됨. 이를 위해선 축제장 외부에 공용주차시설을 마련하고 축제장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라. 축제의 성과

❑ 잘된 점

- 축제기간동안 1월 19일에 이미 100만명 이상의 내국인 방문객이 축제장을 방문하는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겨울축제로 자리 잡았고, 이러한 성공적인 축제의 개최는 우리나라 겨울축제의 붐을 조성하게 되었음.
- 화천산천어축제를 통하여 화천이 2014년 세계겨울도시 시장협의회(9개국 19개 도시) 개최지로 선정되는 등 화천이 세계적인 겨울도시로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산천어축제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간접 홍보하는 성과도 거두었음.
- 올해의 산천어 축제기간동안 동남아시아의 외국인 관광객 1만명이 예약을 완료하는 등 화천의 산천어 축제장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겨울 관광지로 인식되고 있으며, 새로운 관광자원의 개발사례로 인식될 정도로 우수한 상과를 거두고 있음.

- 축제기간동안 미국 ABC 방송국의 뉴스와 영국 BBC 방송국 뉴스에 매년 100만명 이상 찾아오는 축제로 소개가 되는 등 19개국 61차례나 외신에 노출이 되었으며, 세계 겨울 7대 불가사의에 화천 산천어 축제가 포함되어 소개가 될 정도로 국제적인 성과를 거두었음.
- 화천산천어 축제를 준비하고 진행하는데 지역의 고령인구를 활용하여 산천어 등을 제작하고 있음. 특히 산천어공방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산천어 등을 제작하여 공급하고 있음. 이처럼 축제를 통하여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속적으로 지역문화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 개선할 점

- 얼음나라화천 산천어축제를 방문한 방문객들에게 산천어 축제장을 방문한 것을 기억할 만한 기념품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지 못하였음. 산천어 축제장 내 기념품점이 마련되어 있고, 축제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판매되는 품목들은 명함꽂이 등 타 지역에서도 구입할 수 있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품들로 구성되어 있었음. 더구나 현재 산천어 축제의 핵심적인 이미지로 부각되고 있는 산천어 등은 가장 우수한 방문 기념품으로 평가되지만 방문객들이 현장에서 산천어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음. 향후에는 산천어 축제를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기념품의 개발이 요구되며, 특히 산천어 등의 축제장 판매는 적극적으로 검토 할 필요가 있었음.
- 기존의 기념품 외에도 어린이들이 많은 축제라는 특성을 활용하여 어린이에게 소구할 수 있는 기념품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가령 산천어 모양의 튜브 등을 기념품으로 기획하여 축제기간 중에만 화천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여름에도 화천을 다시금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음.

(3) 총 평

- 올해의 화천 산천어축제는 대한민국을 벗어나 세계적인 이슈가 될 정도로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었으며, 다채롭고 차별화된 프로그램들의 개발과 운영은 세계적인 겨울축제로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음.
- 향후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천어 축제와 경쟁관계의 겨울축제인 홋카이도의 눈축제와 하얼빈의 빙등제, 방설제와 다른 모습의 컨텐츠들이 추가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임.
- 특히 다른 나라들의 겨울축제들은 공급자 위주의 전시중심 축제라면 산천어 축제는 체험과 참여중심의 참여가 중심의 축제로 거듭나야 할 것으로 평가되며, 이를 위해서는 산천어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들이 더욱 개발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됨.

○ 올해의 축제에서도 설 전후기간에 문제점으로 대두된바와 같이 기상이변과 같은 급속한 온난화를 사전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평가됨. 기상의 변화는 얼음나라 화천이라는 축제의 이미지와 대표 컨텐츠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축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미래지향적인 컨텐츠들의 개발도 요구되고 있음.

⑯ 영동 난계국악축제

(1) 개 요

❑ **기 간** : 2012 10월 3일(수) - 10월 7일(일) 5일간

❑ **장 소** : 충북 영동군 일원

❑ **주 최** : 영동군

❑ **주 관** : (사)난계기념사업회

❑ **주요행사**

- 체험행사 : 국악여행, 전통국악기연주, 퓨전국악 및 난타 퍼포먼스, 국악난장페스티벌, 현악기공방, 타악기공방, 가야금·해금 제작체험, 수제장구제작체험, 판북제작체험 등
- 전시·판매행사 : 국악기 및 생활공예품 전시·판매, 국악기 경매, 미니어처국악기 깜작 경매 등
- 공연행사 : 영동국악한마당, 국악어울한마당, 비천한마당, 풍물경연대회, 국악경연수상자공연, 향연한마당, 국악명인마당, 신명한마당, 초청공연 등
- 특별행사 : 전국난계국악경연대회, 전국시조경창대회
- 연계행사 : 제3회 대한민국와인축제(영동와인연구회)

(2) 항목별 평가

가. 축제의 특성/ 축제 콘텐츠

❑ **잘된 점**

- 축제 주최 측에서는 국악과 와인 관련 프로그램을 거의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실행함으로써 국악 및 와인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단순성을 서로 보완하여 메인행사장 집객력을 대폭 향상한 것으로 판단함. 또한 동일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연속적으로 볼거리를 제공하여 다소 지루함을 느낄 수 있는 국악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심어 주었다고 평가함.

- 국악기 제작 체험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알리고 사전에 체험 참가 희망자를 사전에 예약 받아 진행하였는데, 이는 이번 축제에서 역점을 두고 기획 및 진행한 프로그램으로서 방문객이 자기 악기를 직접 완성시켜서 연주법을 배우고 가져가는 것이었음. 비록 재료비만 받는 체험일지라도 비교적 고가의 체험비용이 드는 가야금, 장고, 북 등의 국악기 제작 체험에 많은 방문객이 참여하고 있어 축제의 자생 가능성을 볼 수 있었음.
- 아울러 국악기 제작 체험에 참여한 방문객들에게 수료증을 발부함으로써 축제 참여에 대한 의의를 높여주었음. 이외에도 방문객들이 현장에서 즉석에서 국악기 제작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만들어보고 연주해보는 국악체험프로그램도 준비함으로써 방문객들에게 난계국악축제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었음.
- 가야금, 해금, 장고 등 전통악기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국악기의 미묘하고도 신비한 소리의 차이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해설이 곁들여져 현장감을 높였다고 평가함.
- 이번 난계국악축제는 영동군의 자랑인 포도가 주인공인 와인축제와의 연계성을 높였으며, 축제기간에 선보인 농가형 와인은 농가마다 발효기술이나 숙성기간 등이 서로 달라 다양한 맛과 향을 발산하며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흥미를 제공 했다고 평가함.

❑ 개선할 점

- 두 축제 프로그램의 혼합적 형태를 통한 집객력 향상보다는 국악 프로그램의 강화를 통한 집객력 제고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또한, 몇몇 프로그램은 젊은 층을 겨냥하여 편성되었으나 편성된 국악 프로그램들이 단순히 나열 한 느낌을 주어 산만한 분위기를 연출하였음.
- 지금까지는 국악기 체험에 치중되고 있는 듯한데, 명실상부한 난계국악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국악기 외에도 국악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축제가 되어야 함. 국악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차원에서 각 장르별로 주제를 정해 국악기 제작 및 연주 체험으로 이어지고, 국악기 제작 체험 또한 가야금, 장구, 북, 단소 등의 체험에서 나아가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로 구분하여 체험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나. 축제의 운영

❑ 잘된 점

- 문화 예술 축제의 특징에 걸맞게 한국예술종합학교 국악명인공연 등 수준 높은 프로그램 운영은 축제의 위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기여하였고, 영동지역의 특산품인 포도를 주제로 한 와인축제는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음.
- 축제추진위원회와 영동군에서는 과거에 지적된 홍보 및 안내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고 평가함. 특히, 교통 안내시스템 개선과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변관광지를 이용한 축제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한 점을 높게 평가함.

- '국악어울마당'에 참여할 공연단체를 전국적으로 모집함으로서 참여기회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영동군이 국악의 본향이라는 위상을 높였다고 평가함.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활동은 관광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음.
- 난계국악박물관에서는 방문객들에게 난계선생 외에도 국악과 국악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줌으로써 국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었음. 또한 국악기 제작촌에서는 국악기 제작에 대한 과정별로 설명이 있었으며, 국악과 관련된 기존시설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고 평가함.
-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홍보물 비치, 전문안내방송, 국악기 체험의 통역서비스 등이 체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축제장을 찾은 다수의 외국인들은 국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고 판단함.

❑ 개선할 점

- 주 행사장인 용두공원 일대의 혼잡도를 고려하지 않은 프로그램의 배치 및 주차장 부족 등이 축제운영 면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라 지적함. 또한 외지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지역의 문화를 체험하게 할 수 있는 지역 특색을 반영한 향토음식과 메뉴 개발이 미흡하다고 판단함.
- 축제의 주요행사장은 국악기체험이 이루어지는 용두공원과 공연위주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공설운동장, 그리고 국악기제작촌 일원 등 크게 3곳으로 이루어져 있어 공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일부체험부스의 경우 해설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배치, 관람객을 위한 쉼터확충과 쓰레기통의 적절한 비치, 장애인을 위한 배려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개선점도 고려해야 될 것으로 판단함.

다. 축제의 발전성

❑ 잘된 점

- 영동 난계 국악축제는 난계 박연선생의 업적과 전통 문화예술의 보존, 계승은 물론 40년 넘는 추모행사를 통해 난계선생의 출신지역주민이라는 자긍심과 국악에 대한 관심도가 타 지역에 비해 높았고, 대표적인 특산물인 영동 와인의 홍보를 위한 다목적 형태의 종합축제였다. 또한, 예년에 비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공연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축제운영조직체계를 구성함으로써 민간주도형 축제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함.
- 국악기 제작 체험의 유료화는 물론 축제장과 국악기 제작촌 등에서 방문객의 자연스러운 소비지출과 구매활동을 유도하는 부스 배치 및 운영이 돋보였으며, 국악 소재 외에도 지역 특산물을 축제에 자연스럽게 연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함.

○ 난계국악박물관, 난계국악기제작촌, 국악기체험전수관 등의 국악 관련 기반시설과 국악인촌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일은 국악의 본향으로서 축제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영동군의 축제발전의지는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 됨.

❑ 개선할 점

○ 영동 난계국악축제는 세계 공통언어인 음악을 매개로 하는 축제이므로 국제화나 관광매력도에서 상품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난계국악박물관 외에 축제장에서 국악기에 대한 해설과 더불어 국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 축제 메인공연 및 난계 국악기 체험 전수관에서의 공연을 실시간으로 축제 현장에 연결해서 보여줌은 물론, 한정된 축제공간 이외에도 관광객들이 참여하여 관람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의 확충이 필요함. 또한 야간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메인무대에서 운영되는 공연이 전부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따라서 외지 방문객의 체류연장을 위한 체험형 야간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 외인축제와 연계함으로서 와인농가의 주민들의 참여의지와 호응도는 높다고 볼 수 있으나 타 분야의 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참여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라. 축제의 성과

❑ 잘된 점

○ '국악의 도시', 또는 '국악의 본향'이라는 영동군의 차별화되고 문화적으로 성숙된 도시이미지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축제의 주요기능인 도시마케팅 효과를 극대화 시켰다고 판단됨. 또한 영동군에서 난계국악축제를 세계화시키려는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어 축제의 중장기적 발전 비전을 볼 수 있었음.

○ 메인축제장 뿐만 아니라 난계국악박물관, 난계 국악기 제작촌, 난계 국악기 체험전수관, 대한민국 와인축제 등을 산재해서 개최함으로써 축제 개최의 효과를 군 관내로 확대시키려는 노력이 돋보였음. 또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대한민국와인축제와 연계성을 강화한 '토요와인열차' 운행 및 여행사와의 협약을 통한 관광객 모집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도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됨.

○ 영동난계축제를 다녀간 수많은 네티즌들의 관람후기에서 우리의 전통악기와 국악이 지니는 뛰어난 예술성, 과학성 및 신비성 등을 축제를 통해 일깨우고 전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회문화적 성과라 평가함.

❑ 개선할 점

- 영동 난계국악축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우리 전통국악의 성과를 토대로 세계적인 홍보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함으로서 우리국악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축제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제시하는 로드맵이 필요함.

(3) 총 평

- 영동군은 난계 박연 선생의 탄생지로 45회째 국악축제를 개최해 오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연유로 영동군은 전국 어느 곳보다 국악에 대한 정통성과 자긍심이 큰 지역이며, 전국 유일의 국악축제로서 우리의 문화유산인 전통국악기의 신비성과 동시에 국악공연의 매력을 발산시킴으로서 가치 지향적인 축제라 사료된다. 또한 국악을 통해 지역발전 연계가능성이 큰 곳이라 평가함.
- 난계국악박물관, 난계국악기제작촌, 국악기체험전수관 등 국악관련 시설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이고, 영동군의 관광자원과 연계성이 높이면 녹색관광자원으로서의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축제로 평가됨.
- 영동난계국악축제와 와인축제를 병행해서 진행된 이번 축제는 난계국악축제로 문화관광축제로 지정되어 있어 난계 국악축제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영동난계국악축제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와인축제의 비중을 낮추고 난계선생과 관련된 것을 선별적으로 프로그램화하여 축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국악관련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며, 이를 극복하게 된다면 축제의 국제화 성공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외국인으로 구성된 국악메니아 팀을 조성하고 세계적인 홍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글로벌 사업을 추진한다면 한류축제로서의 성장가능성이 있는 축제로 판단함.

⑰ 괴산 고추축제

(1) 개 요

❑ **기 간** : 2012년 8월 30일(목) - 9월 2일(일) 3일간

❑ **장 소** : 문화체육센터, 미니축구장, 종합운동장, 동진천일원

❑ **주최/주관** : 괴산고추축제추진위원회(문화예술단체, 농업인단체, 각급기관단체)

❑ **주 제** : 청정자연 · 향토문화가 어우러진 매운 고추이야기

❑ **주요행사**

- 전시행사(문화체육센터) : 세계고추 전시회, 고추음식 전시회, 아름다운 괴산사진 전시회, 2012괴산고추축제기념 군민 종합작품 전시회(서예, 서양화, 한국화, 민화, 시화), 수석 전시회, 노인전통 짚공예 전시회, 천연염색. 규방공예 전시회, 세계 희귀 닭 전시, 반딧불이. 나비 전시 체험
- 체험행사 : 고추의 달인을 찾아라, 청결고추 따기체험, 수중 달리기, Box Art 작품전시 및 체험, 꺽정이쌀 떡메치기, 어린이 맨손 미꾸라지잡기 체험, 어린이 물놀이장 체험, 노인전통짚공예체험, 다문화가족문화체험, 괴산시골절임배추체험, 괴산명품대학찰옥수수 시식행사, 물고기잡기대회.
- 부대행사 : 괴산청결고추 판매장, 청결고추 품평회, 팔도 전통주 페스티벌, 괴산관광홍보관, 고추세척기 시연, 농특산물 전시 판매장, 가훈 써주기, 풍물야시장, KBS 전국노래자랑, 전국 임꺽정 선발대회, 고추 비빔밥 나눠주기 행사

(2) 항목별 평가

가. 축제프로그램 완성도

❑ **잘된 점**

- 역사성이 있음. 고추는 약 400년 동안 우리의 역사와 함께하며, 농업경제와 국민 식생활의 중심에 있고, 우리의 사회 · 정신 · 문화에까지 영향을 크게 미치는 주요 작물로 국내 시장규모는 1조 2천여 억원 규모로 과채류 중에서 가장 생산액이 높으며 쌀 다음으로 중요한 농산물로 자리 잡고 있음.

- 지역농산물을 특화 하였음. 괴산군은 조선시대부터 고추를 재배한 지역으로 지역의 농가경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특화작물임. 괴산 청결 고추는 전국 최초로 고추산업특구지정, 지리적표시제등록, ISO품질인증, 클러스터사업선정, HACCP인증, 괴산고추 지리적 표시등록, 괴산고춧가루 지리적 표시등록, 대한민국우수특산품대상선정 등으로 소비자들에게 각광받고 있음.
- 우리나라 한 해 고추가격이 이 축제에서 결정 됨. 2001년부터 '고추'를 소재로 삼아, 본격적인 고추출하시기인 매년 8월 하순에서 9월초에 고추축제를 개최하고 있어 그 해 고추가격의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침.
- '고추의 달인을 찾아라'라는 대표 프로그램의 선정 및 진행이 돋보였음. 대표 프로그램을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진행함으로써, 많은 축제에서 대표 프로그램을 축제기간 중 특정일에 일회성으로 그쳐 많은 방문객들이 참여할 수 없는 문제점을 극복하였음.
- 축제장의 선택이 좋았음. 장소는 축제 프로그램의 진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데, 괴산의 경우 괴산군청과 바로 연접하여 축제장을 조성하였고 실내와 실외의 연결성, 육지와 물(동진천)의 연결 및 이용이 돋보였음. 실내인 문화체육센터는 축제 기간 내 상시 전시공간으로 계획하여 기상변화에도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진행하였고, 가장 중심구역이라 할 수 있는 실외인 미니축구장에는 무대를 설치하여 축제프로그램 중 공연프로그램을 축제 기간 동안 중심에서 계속 진행할 수 있었음. 시가지를 관통하며 축제장을 가로지르는 동진천을 중심으로 양쪽에 부스를 설치하여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자연적으로 혼잡하지 않은 분위기를 연출하였으며, 동진천을 이용한 프로그램으로 수중달리기 및 물고기 잡기는 대표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관광객들의 가장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 곳임.
- 공간 배치 및 공간에 따른 프로그램 진행이 돋보였음. 문화체육센터의 전시기획 프로그램, 미니축구장의 무대화, 진입부에 고추 직거래 장터, 동진천을 중심으로 양 둔치 부분에 일렬로 체험프로그램 및 먹거리 장터의 배치, 강둑의 살거리 장터, 또한 종합운동장을 이용하여 축제무대와는 별도의 전국노래자랑을 진행함으로써 축제장 무대의 프로그램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였음.
- 문제점을 장점으로 극복했음. '고추'라는 소재를 가지고 축제를 개최하면서 직거래 장터의 규모가 작아서 잘못하면 축제가 왜소해 보일 수 도 있었음. 그런데 전국적으로 축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중의 하나인 전국 풍물야시장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축제의 완성도를 높였음.
  - 지역축제의 주요 프로그램과는 완전 분리하여 위치시켰으나 기능상 자연스럽게 연계시킴으로써 축제의 규모성을 확보하였음. 또한 전국적인 성격의 풍물야시장은 지역민들에게는 또다른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만들어 주고 있었음.

○ 연상이미지 이용한 시장의 명소화가 가능함. 괴산읍내 시장과 연접하여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축제의 궁극적인 목표인 고추직거래 장터와 기능을 연계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괴산 고추 축제의 경우 참여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품질 좋은 고추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판단됨. 고추라는 소재를 가지고 축제라는 명분으로 지역과 지역의 특산품을 전 국민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괴산군의 시장이 축제장으로 조성되었고, 평소 지역의 시장과 연접되어 축제장의 규모 확대 및 기능의 확산 효과를 가져왔다고 판단됨. 나아가 향후 축제기간이 아닌 경우에도 괴산읍내 장터는 고추시장이라는 연상이미지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개선할 점

○ 대표프로그램의 확대 및 다양성 모색이 필요함. '고추의 달인을 찾아라'라는 대표프로그램을 축제기간 중 매일 같은 시간대에 진행한 것은 좋았으나 향후 좀 더 차별성과 다양성, 그리고 프로그램의 확대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현재 고추 썰기, 받기, 먹기 등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있는 정도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독특한 내용을 발굴하고, 참여대상도 지역민들도 중요하지만, 관람객들이나 외지인들도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거주지별, 성별, 연령대별, 직업군별 고추관련 프로그램 개발도 검토해 볼 수 있겠음.

○ 고추 직거래 활동의 축제 프로그램화 필요. 청결고추 직판장의 확대가 필요함. 어떤 다른 프로그램보다 특산물 중심의 산업형 성격의 축제는 직거래 장터가 실질적인 대표프로그램이라고 사료됨. 현재 괴산 축제의 직거래 장터는 소규모로 상품의 품질을 확실하게 보증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축제장 진입부에서 진행하였으나 이것을 부대시설로 진행하는 것 보다는 중앙무대나 축제의 중심지역에 도입하여 단순한 판매 및 구입활동보다는 축제판매/구매 활동을 축제프로그램으로 전환시켜 대표 프로그램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임. 현재 많은 특산물 축제들이 주로 저렴한 가격에 품질좋은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 축제를 진행하고 있고, 이 부분을 주로 부대시설로 간주하고 있으나 진정한 축제의 소재이며 이를 활용한 재미성과 흥미로움이 더 해진다면 소재가 대표프로그램의 컨텐츠가 될 것임. 가령, 시간별 상품별 경매형태를 빌어 이벤트화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연계프로그램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현재 괴산은 절임배추로도 유명한데 이는 고추와 연계된 아이템을 선정하여 확대한 상품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절임배추 체험장이 별개의 부스에서 진행되는 단순 체험 프로그램에 그친다는 아쉬움이 있음.

- 절임배추를 이용하여 누가 빨리 김치를 담을 수 있나, 누가 더 맛있는 김치를 담을 수 있나, 누가 더 예쁘게 김치 푸드 스타일링을 할 수 있나 등에 대한 선발 이벤트 등도 검토하여 단순한 고추 판매 활동을 축제프로그램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연관성 적은 프로그램의 폐지 검토. 많은 축제에서 지적되는 문제 중의 하나인 관련성 적은 프로그램들은 폐지하고 내년에는 개편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음.

지역단체들의 축제참여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주제관련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희석시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 축제의 이미지를 약화시킬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임. 지역축제가 지역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하지만 관람객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고 단지 관계자 몇 몇 만이 관심을 갖는 프로그램이라면 과감하게 폐지하고 차라리 재미성을 가진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도 있음.

- 같은 기능의 활동 집단화 필요. 관내향토식당, 읍면식당을 분리하여 운영하였으나 같은 기능을 가진 부스들의 연계가 이용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고, 경쟁함으로써 가격과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임.
- 기상변화에 대비 필요. 축제시기가 늦여름 장마나 소나기가 올 수 있는 시기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이번 축제기간에도 순간 소나기가 쏟아져 축제장에 있던 관람객들이 당황하면서 뛰는 상황이 발생됐음. 우비도 마련되었으나 멀리 있던 관광객들에게 우비 배포는 무리이고, 중앙 방송이 없는 관계로 배포하는 줄도 몰랐음. 곳곳에 그늘막을 겸한 대피장소가 필요하고, 대표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곳은 기상 변화에 상관없는 장소이어야 함. 이번에는 미니 축구장에 무대가 조성되고 그 앞에 주막을 조성하여 그늘막과 비를 피할 수는 있었으나 상업성이 강한 활동으로 인하여 부담없이 그늘막이나 비를 피할 수 없었음. 오히려 무대 프로그램을 감상하려는 관광객들의 자유로운 공간을 좁히는 상황이 될 수 도 있었음.
- 축제 주제의 논리성을 통한 프로그램 완성도 기획. 요일별 소주제를 선정하고 주제별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올해 축제의 주제를 '청정자연 · 향토문화가 어우러진 매운 고추이야기'라고 정했으면 첫째날, 둘째날, 셋째날, 넷째날의 소주제를 만들고 이들이 궁극적으로 대주제인 '청정자연 · 향토문화가 어우러진 매운 고추이야기'를 완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매일의 프로그램도 해당된 날의 소주제와 맞게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축제운영의 적절성

□ 잘된 점

- 축제 홍보가 잘 되었음.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으로 추측해 보니, 아침 방송에 방영이 되었고, 그 프로를 본 시청자들이 군 홈페이지에 고추구매방법 및 가격 등에 대한 문의를 한 것으로 보아 사전에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를 한 것을 알 수 있었음.
- 지원시설 운영에 있어서 이동 택배서비스 시설이 좋았음. 고추 직거래 장터 초입부에 택배 서비스 부스를 배치함으로써 양이 많고 무게가 무거운 고추를 구매하면 택배로 부쳐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한 이동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구매량이 많아도 부담스럽지 않다는 인식으로 더 많은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좋았음.
- 편의시설 조성이 좋았음. 음식점 부스들 중간에 주막형태의 그늘막이 조성되어 있어

쉼터 기능을 하였음. 더위와 비를 피할 수 있었고, 상업시설들 사이에서 부담 없이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었음.

-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지역민들 모두가 안내 자원봉사자인양 대부분의 지역민들이 축제를 잘 알고 있었고, 지나가는 주민들 모두 친절하게 축제장을 안내해 주었음. 축제는 나와는 상관없는 양 경시하는 지역들도 있었고, 축제로 인해 오히려 불편하고 손해 본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지역들도 있었는데 괴산 지역 주민들에게서는 그런 점을 찾아볼 수 없었음.
- 모든 상업 활동시에는 카드사용이 가능하여 좋았음. 운영본부에서는 많은 축제장이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현장에서는 카드기 작동 문제나, 연결 문제 등을 이유로 현금화를 유도하는 곳이 적지 않았음. 그러나 괴산 축제의 경우 작은 음식점 부스에서도 불편 없이 카드사용이 가능하여 좋았음.

❑ 개선할 점

- 자원봉사자 교육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 지역 자원봉사자 센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축제 기간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자원봉사자를 양성하는 방법도 있음. 지역 센터를 통한 자원봉사자 양성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역 인적자원의 다양한 자원봉사 교육 기반형성 및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축제 기간 내의 자원봉사자 시스템은 축제에 필요한 인력을 수요예측을 통한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안내, 청결, 안전관리, 교통지도 등 축제 전반에 필요한 교육을 단 기간에 양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축제 전문가의 참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현재 자문위원회가 지역 단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자문기능이 없고, 또한 축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대한 미흡한 점들이 드러나고 있음. 지역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회의 구성이 필요함. 또한 축제의 운영 및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도 필요함. 그리고 축제 기간 동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문제점 발굴 및 대안 모색을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요원도 필요함. 현재 축제 평가는 단순한 설문지 배포와 통계처리에 의한 평가가 중심이므로, 일별, 부스별 주제별 진행 모니터링 기능이 첨가되어야 하겠음.
- 안내시설 기능 및 위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축제장에 들어서면 초입부에 종합 안내 센터가 있어서 축제 대한 모든 일정 및 진행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여기서 축제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복장 및 언행에 있어서 지역을 대표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임하여야 함. 현재는 안내 홍보물만 비치되어 있고 몇 몇 관계자들이 자리하여 안내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안내 시설에 대한 시스템화 필요함. 종합안내 센터의 부스가 동진천변으로 내려가 위치하고 있는데 중앙 무대나 고추 직거래 장터 및 주막에 대한 활동들이 시야 밖에 있고, 축제장 중간에 배치하고 있음으로 초입부로 옮기거나 또 하나의 안내부스를 추가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축제 홍보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가 아쉬움. 충북 중심으로 인근 지역의 시외버스 차량 외부에 '○○고추'라는 광고 문안을 보았음. '고추'를 축제의 소재로 '고추'를 선정하는 만큼 '괴산 청결 고추'에 대한 홍보 방안이 더 강화될 필요가 있음. 쉽고 친근한 슬로건 마련을 통한 친숙감 형성, CI작업을 통한 디자인 마련으로 인지도 제고 등이 필요함.
- 더위와 기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쉼터가 좀 더 마련되어야 하겠음. 체험부스들 사이에도 필요하고, 각 주제별 공간에 하나 정도씩은 마련되어야 하겠음.
- 안전관리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관람객들의 안전관리와 장애우들의 관람을 위한 부분도 보완되어야 함. 첫째, 주차시설의 마련임. 축제장이 넓고 주차장이 분산되어 있어 장애우 차량 주차가 어려웠음. 주차 관리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재의 시스템이라면 군청 주차장 일부를 장애우 시설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음. 다음으로 축제장이 육지부와 동진천 둔치로 고도차가 높고 계단으로 연결하여 노약자와 장애우들의 참여가 어려움으로 현재의 축제장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하겠음. 동진천을 사이로 음식점 부스와 체험부스가 일렬로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어 음식부스에서 술을 드신 분들이 중앙의 중심 통로까지 가지 않고 중간의 돌다리를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음으로 이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배려가 아쉬움. 현재로서는 고추라고 하는 소재가 외국인들에게는 그다지 매력적이지는 않아, 많은 비용을 들여서 안내 홍보물을 비치하거나 통역 도우미를 배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그러나 향후에는 단지 고추가 매운 식품이라는 한계성을 벗어나 재미있는 축제성격의 아이템으로 변화시켜 외국인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이에 따른 홍보물도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먹거리 부스의 음식 질 및 양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축제장이고 한 번 지나치는 손님들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우리가 외지로 나가지 않고 지역을 홍보하고 우리 식당을 알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더 저렴하고 더 많은 양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음. 가격은 평상시와 같은 것 같았으나 양이 적어 불만을 하는 사례가 있었음.
- '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고추 및 고추활용 다양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후원처도 확대하며, 가능하다면 장관상, 도지사상, 군수상 등을 수여함으로써 축제의 수준을 높이고, 홍보효과도 기대할 수 있도록 함.
- 식품, 관광 관련 학술대회의 유치나 학술적인 프로그램의 추가가 필요함. 향후 축제의 질적인 향상을 기대하기 위하여 반드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됨.

다. 축제발전성

❑ 잘된 점

- ○ 축제의 소재가 우리 식생활과 밀접하여 발전성이 지속가능한 축제임. 대부분의 문화관광축제가 비용에 비하여 소비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비하여 괴산 청결고추 축제는 축제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 발전 가능성이 높음. 지역 경제에 효과적인 축제들은 향후 지속적으로 축제 예산이 증가될 것이고 그에 따른 축제의 규모 및 질에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됨.
- ○ 지역의 대표적인 농산물로 지역민들의 농업생산성을 유발할 수 있고 고추 농가는 고추생산으로 축제의 효과를 얻고, 비생산농가는 축제기간 동안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대학찰옥수수, 절임배추 등 연관된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 지역 홍보의 기능이 강함. 괴산군의 입지적 여건 및 도로 교통 사정이 편안치 않아 외지 관광객들의 방문이 그다지 많은 곳이 아니나 축제 기간 동안 전국에서 특히,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고추 구매를 위한 겸목적 관광을 하고 있었음. 따라서 향후 지역 홍보에 대한 역할 및 기능도 더해져 향후 발전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 괴산고추 생산자 협의회의 고추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은 바람직 함. 괴산 고추농가들이 모여 협의회를 만들고 협의회장이 축제 추진 위원장이 되어 축제를 추진함으로써 고추의 원활한 공급과 품질의 보증, 나아가 지속가능한 축제의 발전성이 기대 됨.
- ○ 연계관광자원을 활용한 발전가능성이 높음. 충북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사오랑 마을에서 산골마을인 산막이 마을까지 총 길이 2.5km의 옛길을 대부분 나무받침(데크)으로 처리하여 환경훼손을 최소화 하였고, 가족끼리, 연인끼리 산책하기 좋게 조성하였음. 또한 속리산 국립공원내 화양구곡과도 인접하여 있어 축제와 관광을 연결한 발전가능성이 높음.

❑ 개선할 점

- ○ 품질 보증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함. 우리식탁과 관계 깊은 축제이니 만큼 신뢰성 확보가 성패를 좌우할 것임. 현재 품질관리를 위해 검시원 부스가 마련되어 있으나 품질에 대한 보증과 가격에 대한 안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 상품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안내가 필요함. 가격 면에서 우리나라 한 해의 고추시장 가격이 형성될 만큼 중요한 축제이니 만큼 '왜 축제장에서의 고추가격이 비싼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상시 적시되어 관광객들에게 알리고,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축제에서 최상의 고추를 판매하기 위해서 3번의 선별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고추 농가에서 손해보는 부분의 일부를 비용으로 보충하면 일반 시중보다 가격이 약간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 등.

○ 어린이 중심 및 핵가족 단위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이 필요함. 고추라는 소재가 어른, 특히 주부들의 관심이라는 점에서 벗어나 축제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어린이나 젊은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할 것임. 맨손으로 미꾸라지 잡기는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었으나 횟수가 제한되어 한계성이 있었음. 수중달리기는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였으나 이도 횟수가 제한되어 아쉬웠음. 가족들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상설프로그램이 필요함.

○ 축제기념품 개발이 미흡함. 현재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파란고추, 붉은 고추 형태의 볼펜만으로는 상품화 부분이 부족함. 재질을 천이나, 한지 등 다양하게 할 수 도 있겠고, 공예품이나 민예품에 고추를 접목시켜 기념품으로 개발하여 판매함으로써 수익성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초기에는 지역의 관련인 들에게 제품개발비를 제공하여 상품을 개발하게 하고, 군에서는 지역의 기념품으로 구매하여 홍보를 해 줄 수도 있음.
- 축제 프로그램 속에 '임꺽정 선발대회'를 하고 있는데 검토하여 계속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 고추와 임꺽정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강화하고, 임꺽정을 축제 기념품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함.

○ 축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학문적인 접근도 필요함. 지역 및 인근의 식품, 영양, 관광 등 관련 대학과 연계하여 고추관련 지속적인 연구도 필요하고, 축제 기간내에 세미나 및 포럼 등의 개최도 필요함.

- '고추'는 매운 맛으로 인식되어 있으나 현재 많은 국민들이 '매운 맛'보다는 '순한 맛'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으로 '맵지 않은 고추' 개발 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전국 축제 가운데 고추와 연관된 축제간의 연계성 강화. 전국의 축제 가운데 고추와 연관된 젓갈 축제, 장류 축제, 김치 축제 등과 연계성을 강화하여 상호 홍보 부스 설치는 물론, 고추는 '괴산 청결 고추'를 이용한다는 등의 협약 및 상호 협력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음.

○ 장기적인 안목도 필요. 특산품 소재 중심의 축제에서 나타나는 지나친 상업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위락성 프로그램 보완도 반드시 필요함.

- 장기적인 안목에서 축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라. 축제의 성과

❑ 잘된 점

○ 축제를 통해 10억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얻는다고 함. 괴산 고추축제는 산업축제로서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고추는 괴산군민들이 가장 많이 경작하는 농작물이고, 고추판매액이 괴산군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제적 효과가 가장 큰 성과임.

- 다음으로는 사회적 효과임. 괴산에 대한 홍보와 이미지제고의 기능을 하는 것은 축제의 성과라고 볼 수 있음. 축제 참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인터뷰 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서울 시민들이었고, 관광버스로 단체 관광에 참여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음. 괴산은 지리적 여건이나 특산물 면에서 전국에서 상대적으로 지명도가 높지 않은 지역이나, '고추'라고 하는 우리 식탁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소재로 전국에 지명도를 높일 수 있음으로 사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환경적 효과로는 '청결'이라는 단어를 축제명에 넣어 사용하는 만큼 '괴산'은 '깨끗한 곳'이라는 연상이미지를 활용하여 지역의 산물은 '청결'하다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 개선할 점

- 연관 상품 개발에 대한 노력이 아쉬움. 고추관련 작물 및 산업에 대한 노력을 통해 축제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점진적으로 지역 농산물의 유기농화를 도모하여 '괴산군의 모든 산물은 깨끗하다', '건강에 유익하다'라는 이미지와 확신을 갖을 수 있도록 계획과 전략이 필요함.
- 지역민 의식 교육 필요함. 지역특산물을 소재로 축제 기간 동안에 판매하는 축제형식 속에서는 지역민들 사이의 과당경쟁이나 갈등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음. 지속적인 의식교육을 통해 자신과 이웃, 나아가 지역이 모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 외지 고추매입을 통한 판매, 품질이 떨어지는 고추에 대한 확실한 보상, 유기농 재배 방법 약속 등.

(3) 총 평

- 약 400년 이상의 역사성을 가진 우리 먹거리 식자재인 고추와 충청북도 괴산이 입지한 자연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괴산청결고추'축제는 경제성, 사회·문화, 환경성의 잠재력을 가지고 그 발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음.
- 그러나 축제의 발전 가능성은 잠재력을 얼마큼 현실화 시킬 수 있는가와 그것이 다른 축제들과 비교하여 차별되고 독특해야 하며 그 결과 많은 관광객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함.

- 단순한 행사성의 축제는 성공하기 어려우며, 또한 성과를 얻기 위한 전략이 없는 축제는 소비성 행사로 평가되어 비난받기 쉬움.
- 괴산 고추축제는 개선할 점이 많기 보다는 보완하면 더 좋아질 부분들이 많다고 판단됨. 따라서 2020년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의 관련자들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법과 전략을 이끌 수 있도록 전문팀을 구성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음.

⑱ 천안 흥타령춤축제

(1) 개 요

- ❑ **주 제** : 다함께 흥겨운 춤을! (Let's Dance in Cheonan!)
- ❑ **슬로건** : 춤으로 하나되는 세상! 가자 천안으로.....
- ❑ **기 간** : 2012. 10. 2(화) ~ 10. 7(일) (6일간)
- ❑ **장 소** : 천안시 천안삼거리공원 및 아라리오 광장 일대
- ❑ **주 최** : 천안시
- ❑ **주 관** : (재) 천안문화재단
-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외교통상부, 충청남도, 국제교류재단
- ❑ **소요예산** : 1,700백만원(국비 300, 도비 150, 시비 1,250)
- ❑ **주요프로그램:**
  - ○ 경연대회 : 국제민속춤대회, 거리퍼레이드경연, 전국춤경연대회 외
  - ○ 부대행사 : 흥타령 풍물마당, 세계문화체험, 거봉포도와이너리 외
  - ○ 체험 프로그램 : 전통국악기체험, 생활공예, 치즈만들기체험 외
  - ○ 연계행사: 세계e-스포스 문화축제, 농특산물한마당 등

(2) 항목별 평가

가. 축제의 특성 및 콘텐츠

- ❑ **잘된 점**
  - ○ 천안흥타령축제는 축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춤축제 연맹을 창립하고, 연맹 본부를 천안에 설치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춤축제 기관의 상호 협력 구축을 통하여 상호 발전을 모색하고자 함. 또한 흥타령춤축제 및 춤의 도시 천안 이미지를 세계에 홍보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춤의 메카로서의 상징성을 확보하고, 타 지역이나 유사 축제와의 차별화를 확보하였음.

- 국제민속춤축제 대회는 24개국 25팀의 참여를 통하여 민속춤경연의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하였음. 또한 전국춤경영대회는 220여팀의 참여를 통하여 춤경연대회의 메카로서의 특징을 살릴 수 있었음. 또한 전국춤경연대회는 학생부, 일반부, 홍타령부, 실버부 등의 구분을 통하여 전 연령층의 참여를 유도하였고, 춤경연대회 소재 중에서 홍타령춤 및 노래를 가미함으로써 천안의 상징성을 확보함. 읍면동 화합한마당, 청소년 어울마당 등의 시민이 직접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축제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함.
-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거리 퍼레이드 행사는 2012년도에 서울 명동거리와 천안 아라리오 광장 일대에서의 거리 퍼레이드 및 경연을 펼침. 서울 명동거리에서의 국제민속춤대회 참가팀의 거리 공연은 중앙 미디어 매체와 시민들로부터 각광을 받음으로써 축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음. 또한 천안일대에서의 거리 퍼레이드는 세계민속춤 경연대회 참가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학생부 참가팀 등의 다채로운 거리 행렬 퍼포먼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과 관람객이 함께하는 기회를 제공함.
- 또한 천안시의 특성 중 하나인 교육의 도시라는 이미지와 연관하여 대학생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써 대학 창작춤 대회, 비보이 경연 대회의 신설 개최를 추진함. 이를 통하여 인근 대학의 학생들의 참여 기회 확대 및 타지역 대학생의 참여 확대를 기할 수 있었고 생활공예체험, 그리고 전통떡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등의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됨.
- 축제의 특성에 맞는 공연행사 "뮤지컬 능소전"과 "홍타령 풍물난장" 공연은 지역의 설화를 바탕으로 현대화된 창작 뮤지컬을 선사함으로써 천안시의 역사화 문화를 홍보하는 역할 수행함. 또한 관광객에게는 관람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되었다고 판단됨.

❑ 개선할 점

- 축제 참가자와 관람객이 어우러지는 춤난장 대동 한마당의 경우에는 춤따라 배우기, 시끌벅적 댄스파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2중막의 대형 돔을 설치하여 운영함. 방문객과 축제 참가자 간의 교류와 즐거움을 선사하는 기회를 제공하였지만, 아쉬운 점으로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행사장이 유휴공간이 된다는 점. 따라서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는 동안에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음악콘서트, 무대 공연 등의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 뮤지컬 능소전의 경우에 천안 설화를 바탕으로 기획된 공연 프로그램으로서 천안의 문화를 반영한 프로그램이지만, 관람 방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관람객과 어우러짐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의자를 배치하는 관람 방식보다는 축제 동반자와 삼삼오오 편안하게 앉아서 관람할 수 있는 방식이 오히려 더 잘 어울릴 것으로 판단됨.
- 도시농업 전시관의 경우에는 도농의 결합이라는 천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행된 행사이지만, 빈약한 이벤트 소재로 인하여, 관람객의 호응이 다소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함. 따라서 행사 취지에 맞는 이벤트를 가미함으로써 방문객의 호응을 주도할 필요가 있음.

○ 국제민속춤대회 및 전국춤경연대회 참가자들이 사전에 예행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참가팀 및 인원에 비하여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됨. 오히려 예행연습 공간을 오픈함으로써 방문객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전환도 요구됨.

나. 축제운영

❑ 잘된 점

○ 재단법인 천안문화재단의 설립과 국제춤축제연맹의 창립을 통하여 축제 운영의 일원화를 기할 수 있었으며, 천안시와 천안시민, 천안소재 대학과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대학생 서포터스 등의 자원봉사자를 배치함으로서 축제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음. 또한 국제민속춤경연의 특성을 감안하여 통역 봉사(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자를 축제 안내소, 먹을거리 장터, 운영 본부 등 요소요소에 적절히 배치하여 운영함.

○ 메인축제장인 천안삼거리공원과 천안역, 아라리오광장 등을 연계하는 셔틀버스 10여대를 운행함으로써 전철이나 기차를 타고서 춤축제 장소를 방문하는 참여자에게 이동의 불편함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 옴.

○ 외래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언론인 및 여행사를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하였으며, 시티투어, 농촌체험 프로그램, 관광지별 이벤트 개최 등의 관광지 투어코스를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 증대 효과를 얻음. 또한 KTX와의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축제뿐만 아니라 천안지역의 관광명소와의 연계강화 전략을 시도하고 운영함.

○ 행사장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종합운영본부를 비롯한 먹을거리장터 운영본부, 청소운영본부, 노점상 단속본부 설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꾀함. 먹을거리 장터 운영본부의 경우에는 위생 관리를 위하여 장터 입구에 손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함. 또한 먹을거리 장터 이외의 노점상은 입점이 불가능하도록 단속본부를 운영함으로써 먹을거리 위생상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질서 유지 등의 효과를 얻음. 또한 장터 음식 판매원 및 제공자들은 위생마스크를 착용하여 간결한 이미지를 극대화함.

○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의 통역안내원을 배치하여 통역서비스를 실시하였고 응급의료시설, 경찰치안센터 등을 운영함. 또한 편의시설로서 천안박물관 인근에 상설주막 등을 설치하여 방문객에게 쉼터를 제공하면서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함.

○ 야외공연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삼거리공원의 메인무대의 경우에는 관람석에 대형 햇빛 가림막을 설치하여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자유무대의 경우에는 대형몽골텐트 방식을 설치하여 관람객들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 또한 춤난장판의 경우에 야간 행사 진행시에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형돔 형식의 텐트를 설치함.

- 천안세계 e-스포츠 문화축제를 동시에 개최함으로써 젊은 층의 축제 참여 확대라는 효과를 획득함. 또한 건전한 게임문화의 정착과 신사업 분야의 소개 등을 통해서 올바른 게임문화의 정착과 세계게임대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외국인 관람객의 유치 등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함.
- 축제장의 일원화를 통하여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함. 전년도의 경우에는 삼거리공원, 아라리오광장, 종합체육관 등의 장소에서 경연대회가 진행됨으로써 산만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었지만, 2012년의 경우에는 모든 경연대회를 삼거리공원에서 실시함으로써 관람객의 편의 제공 및 집중화를 기할 수 있었음.

❑ 개선할 점

- 축제 운영본부의 이미지 형상화가 요구됨. 몽골형 텐트를 벗어나 천안의 이미지나 흥타령춤축제의 이미지를 표출할 수 있는 운영본부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는 이미지 연출의 한 부분이기도 하며, 관람객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천안의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을 것임.
- 각종 편의시설 및 먹을거리 장터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take-out할 수 간단한 음식의 판매점이나 젊은 층이 좋아하는 음식의 구비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e-스포츠 문화축제 등의 중고생 및 대학생 참여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이들이 선호하는 음식의 구비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청소운영본부가 운영되면서 쓰레기 대책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긴 하였지만,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는 다소 아쉬운 점을 보이기도 함. 또한 천안 삼거리 공원의 면적이 드넓기 때문에 투입된 휴지통의 수가 부족한 느낌이었음. 따라서 휴지통의 보다 많은 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야외 공연 특히, 뮤지컬 능소전의 경우에는 우천에 대비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올해의 경우에는 기상조건이 좋았지만, 비가 오는 등의 기상악화의 경우에는 야외무대 및 관람석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 교통 및 주차관리 부분에서 장애인을 위한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이 미흡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음. 또한 주차관리 운영본부의 주차 안내원들의 친절성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함. 외지 방문객의 경우에는 인근 지리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주차 지도(map) 등을 만들고 배포함으로써 방문객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임.

다. 축제의 발전성

❑ 잘된 점

- 천안흥타령춤축제 2012는 춤경연대회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기함으로써 참여계층의 확대를 기하였다. 춤경연대회의 실제 참여연령은 만5세에서 80세까지 다양한 계층이 참

여하고 있으며, 대학창작춤대회, 비보이경연 등의 신설 프로그램의 확대로 인해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등의 젊은 층을 참여를 확대함. 보는 관람형 축제에서 함께 하는 축제로의 변모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외국인 참여자 확대를 위해서 국제민속춤 참가팀의 지속적인 확대 및 천안 인근 지역의 다문화 가정의 참여 확대 등을 기함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춤의 축제로 도약하고 있음.

- 천안흥타령춤축제는 "춤 + 건강 + 즐거움"의 복합적인 개념으로 성장을 기하고 있음. 춤경연의 경우에 춤의 향연은 기본적인 요소가 되며, 생활건강체조 등의 도입을 통하여 춤과 건강의 결합 방식을 가져오고 있음. 이를 통하여 천안시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면서 자생적 축제로의 준비과정을 가져 옴.
- 천안흥타령춤축제는 춤을 기반으로 하면서 천안의 농특산물 통합 브랜드를 개발하여 지역에 경제적 효과를 획득하고 있음. 농산물 통합 브랜드로서는 '하늘그린'이 있으며, 쌀로는 "천안흥타령쌀"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음. 이러한 농산물을 축제를 통하여 홍보하기 위해서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고, 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동시에 개최함으로써 '판매 + 볼거리 + 체험'을 동시에 제공함.
- 천안시문화예술선양위원회의 주관으로 이루어졌던 천안흥타령춤축제를 재단법인 천안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상주 직원을 배정함으로써 축제 기획 및 운영의 전문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흥타령춤축제 및 관내 행사를 전담하는 재단의 활동은 향후 축제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운영 능력을 극대화할 것으로 판단됨.
- 축제의 재정자립도 확대를 위해서 먹을거리 장터의 입점을 위한 입찰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외 기업의 스폰서십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또한 체험비 등의 확대 등을 통하여 유료 체험프로그램을 높임으로서 축제 재정 자립도 확대를 위한 노력이 강구되고 있음.

□ 개선할 점

- 축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춤과 관련한 프로그램 콘텐츠의 개발이 요구됨. 춤난장판이나 능소무대를 활용하여 탭댄스 경연대회, 재즈댄스 경연대회 등의 콘텐츠를 확보하고, 매년 또는 격년 단위로 경연 프로그램을 순환시켜주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임.
- 대학생 등의 젊은 층의 참여 확대를 기하고, 외국인 방문객 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스트릿 댄스의 경우에는 국내팀 간의 경연뿐만 아니라 국외팀 초청이나 섭외 등을 통하여 국내외 배틀 방식의 프로그램도 개발이 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축제 기간에서 주중에는 관내 어린이집의 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축제 및 전통문화 등에 대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강화도 필요함.
- 축제의 재정자립도 확대를 위하여 유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축제의 재정 자립도는 향후 축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주요한 요소가 될 것임. 따라서 농특산물 판매 수익, 먹을거리장터 판매수익, 입찰금액 이외의 수익방안의 강구가 필요함.

라. 축제의 성과

- 국제 춤축제 연맹을 창립하고, 연맹본부를 천안시에 설치함. 이는 세계 각국의 춤축제 관련 기관 및 국가와의 상호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하여 춤의 도시 천안의 이미지를 세계에 홍보하는 효과를 얻음.
- 거리 퍼레이드는 "춤 + 의상"을 테마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서 시민 스스로 만들고, 참여하는 화합형 프로그램으로서 자리매김을 해 나감. 또한 서울 명동거리에서의 거리 퍼레이드를 통한 축제 홍보 전략이 유효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방문객 추정치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또한 천안관내에서의 거리 퍼레이드의 성공을 위하여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 가로수 및 가로등을 정비하여 거리 퍼레이드와 어울리는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방문객의 즐거움을 극대화함.
- 천안흥타령춤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인 국제민속춤 대회와 전국춤경연대회의 경우에는 매년 참가팀의 지속적인 확대를 가져옴으로써 명실상부한 춤의 대향연으로서의 축제로 거듭나고 있음. 세계의, 전국의 춤꾼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 천안 e-스포츠 문화축제, 읍면동화합한마당, 다문화가족 한마당 등과 같은 연계 개최를 통하여 다양한 계층, 연령대의 참여를 확대하고, 방문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함. 또한 천안의 설화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 능소전의 공연, 흥타령춤 경연 등을 통하여 천안의 문화를 알리는 장을 마련함.
- 체험관광(축제장 체험 + 농장체험), 템플스테이, 한국전통혼례행사, 다문화가족 한마당 등의 외국인 참여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외국인 참여자의 호응도를 높였으며, 방문객의 증가효과를 가져옴.
- 축제의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도에 대한 인식, 축제의 목적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으로 지역주민 참여확대(읍면동 화합 한마당, 생활건강체조 한마당, 건강증진관 운영, 시민 및 단체의 자원봉사 활동 등)와 지향하는 시민축제로의 발전과 노력 동참. 또한 농수산물 한마당 등을 통한 축제 직접 판매수입과 관광객 소비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3) 종 평

- 천안흥타령춤축제는 한국인의 정서 중 하나인 "흥"을 소재로 하며, 이러한 흥을 돋울 수 있는 대상으로써 춤(dance)을 바탕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키면서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춤 축제로서 자리 매김함. 또한 단순한 춤의 향연이 아닌 한국의 전통을 이해하고 계승한다는 점과 세계 각국의 문화를 지역 및 국내에 소개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한국문화 및 세계 문화의 이해의 가져옴. 또한 춤을 통한 세계인의 문화소통의 축제로써 자리매김함.
- 축제 행사 장소의 일원화 및 집중화(천안삼거리공원), 상설 전통 주막 등의 편의시설 증대, 춤난장과 거봉포도와이너리 행사장의 시설 개선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등을 통하여 축제의 규모화, 차별화를 기하였고 춤경연 이외의 생활건강체조 한마당, 대학동아리 한마당, 읍면동 화합 한마당, 청소년 어울 마당 등 부대행사를 통하여 시민 참여 확대를 가져옴으로써 시민축제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줌.
- 농산물한마당, 체험 프로그램(전통활 만들기, 생활공예, 국악기 체험, 거봉와인만들기 체험 등)의 다양화로 판매 수익증대뿐만 아니라 축제 참여자 만족도를 높였으며, 축제 운영 지원 프로그램(급수봉사소, 축제 안내소, 자원 봉사자, 청소운영본부, 잡상인 단속 본부, 먹을거리장터 운영본부 등)의 체계적인 행사운영이 돋보였음. 특히 먹을거리장터의 운영방식(입찰방식을 통한 관내 식당만 입점), 식당 종사원의 위생마스크 착용 및 청결을 위한 세수대의 구비는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효과를 얻음.
- 서울 명동거리의 거리퍼레이드(해외 민속춤 참가팀), 각종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천안흥타령춤축제의 개최를 알리는 효과가 극대화되었음.
- 전년도에 이어 지속적으로 축제 방문객의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외국인 방문객 및 민속춤 해외 참가자가 꾸준히 증가하였음. 천안시의 특산물 판매, 먹거리 장터의 매출액, 기업홍보부스 수익 등의 축제 관련 경제 효과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다만, 춤난장의 주간 프로그램의 부재, 젊은 층을 고려한 식당 메뉴의 부족,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휴식 공간의 부족, 그리고 주차장 이용 방문객 불만족 등의 개선 사항이 필요함.

⑲ 강경 발효젓갈축제

(1) 개 요

❑ **기 간** : 2012. 10. 17(수) ~ 10. 21(일) [5일간]

❑ **장 소** : 강경포구, 젓갈시장, 젓갈전시관, 옥녀봉 등

❑ **주 최** : 논산시

❑ **주 관** : 강경젓갈축제위원회

❑ **주요행사**

- 공식·문화행사: 젓갈퍼레이드, 만선제 및 강경포구재현행사, 개막축하공연, 놀뫼백일장, 청소년문화축제, 보부상 난전 재현놀이, 남사당놀이공연, 놀뫼전통혼례, 육군훈련소 군악대공연, 갈대숲라이브 공연, 색소폰연주, 효 국악한마당, 강경젓갈 마당극, 박범신과 함께하는 문학이야기 등 22개 행사
- 체험행사: 젓갈학교, 젓갈5종경기, 강경포구 주막거리, 젓갈뷔페식당 운영, 젓갈김치 담가가기, 외국인 젓갈김치 담가가 기, 양념젓갈 만들기, 왕새우, 젓갈 김밥·주먹밥 만들기, 젓갈도시락 사먹기 등 16개 행사
- 특별행사: KBS 전국노래자랑, 향토특색음식 경연대회, 제1회 여고동창 가요제, 젓갈축제 풍물어울마당 등 12개 행사
- 상설행사: 황포돛배 운영, 슬로푸드 전시관, 국화전시회, 젓갈캐릭터 전시 및 판매, 젓갈 마당쇠 퍼포먼스, 젓갈캐릭터·장다리 퍼포먼스, 갈대숲 오솔길 걷기, 강경옛모습 및 축제사진 전시, 뱃고동소리 재현 등 18개 행사
- 부대행사: 축제 연계 시티투어, 젓갈시장통 길거리 공연, 향토음식점 운영, 젓갈상회 소원등 달기 등 11개 행사

(2) 항목별 평가

가. 축제의 특성, 축제콘텐츠

❑ **잘된 점**

- 강경발효젓갈축제는 200년 전통의 우리나라 대표적인 젓갈고장이면서 근대문화유산을

고스란히 보유하고 있는 강경일대에서 1997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축제로서 강경젓갈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림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지역 및 근대문화를 계승하기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축제임. 1930년대 최대의 성시를 이루었던 옛 영화를 회상해 볼 수 있는 각종 전시자료와 강경읍 일대에 아직도 산재해있는 근대 건축물들(남일당 한약방, 강경북옥감리교회, 강경중앙초등학교 강당, 한일은행 강경지점 등)과 축제장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옥녀봉 등이 각종 축제프로그램들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관광객들에게 소박하고 평안한 감동을 선물하는 독창성 있는 축제로서 더욱 더 보존하고 육성시켜야할 가치 있는 축제로 판단됨.

- 젓갈김치담가가기, 왕새우잡이, 양념젓갈 만들기 등의 젓갈체험행사는 행사기간 내내 많은 성황을 이루었으며 특히 외국인 김치담그기에는 미국, 태국, 일본 등 외국인과 외국대사 가족 등 1,500여명이 찾아 국제적인 프로그램으로 도약 가능성을 보여주었음. 20일 오후에는 옥녀봉에서 작가 박범신과 함께하는 문학이야기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 문학에 관심 있는 관광객들과 충청도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격조 높은 담론을 엮어냄으로써 한 차원 높은 감동을 연출하였음.
- 옥녀봉, 강경포구, 갈대숲 등의 멋진 전경을 배경으로 한 넓은 축제공간에서 이루어진 체험행사의 대부분과 공식·문화행사, 상설행사 및 부대행사의 많은 프로그램이 젓갈 관련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축제의 주제성을 충실히 반영하였을 뿐 아니라 3,000여점의 국화전시회와 황포돛배의 운영 및 여고동창가요제 등은 부대행사로서 손색이 없는 인기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였음.

❑ 개선할 점

- 총 5개분야 79개의 행사로 구성되어 있는 본 축제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 반면에 축제 주제와 다소 맞지 않는 프로그램이 상당수 있어서 젓갈축제의 정체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초래하였음. 축제 주제와 거리가 먼 프로그램들을 과감히 정리하되 축제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의 규모를 더 키워냄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젓갈축제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백화점식의 컨텐츠 구성보다는 '젓갈문화체험'과 '근·현대문화·문학체험'을 중심축으로 하여 각기 특색과 규모를 갖춘 프로그램으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강경발효젓갈축제가 산업축제로 확고한 위상을 굳히는 동안 근현대사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강경읍의 가치는 아직도 저평가되고 있음. 근·현대사역사관 건립을 기화로 현존하는 역사적인 건물을 배경으로 한 해설사의 배치와 더불어 관련 연극프로그램(스승의 날 발상지, 박범신 문학의 주배경지 등을 조명하는 일도 중요함)을 만들어 공연을 실시하는 등의 입체적인 발전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나. 축제의 운영

❑ 잘된 점

- ○ 누구나 쉽게 참여하여 젓갈을 이용한 테마김밥, 주먹밥을 만들게 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재미를 선사하고 젓갈을 활용한 음식의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홍보하였음.
- ○ 종합안내판 및 종합안내소 설치 운영, 자원봉사센터 운영, 강마을 편의시설 운영, 주차장 확대 운영과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안내활동 등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짜임새 있는 공간구성과 배치가 이루어졌고 축제장 주변과 진입도로변에 꽃과 조경수를 아름답게 가꾸어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음.
- ○ 축제기간 동안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 서비스 제공(7개소)과 행사장 내외의 청소 및 청결유지(평시: 8명의 환경미화원 고정배치, 새벽 및 저녁: 30명의 환경미화원 청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한 결과 대체로 깨끗한 축제장을 유지하였음.
- ○ 논산 기업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우수한 제품을 홍보 및 판매하고자 8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논산기업상품 할인행사를 하였고, 논산지역에서 자란 예스민쌀과 농특산물을 전시 판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음

❑ 개선할 점

- ○ 축제장 입구에 길게 설치된 귀중한 강경의 역사문화 자료가 인도 쪽이 아니라 차도 쪽에 설치되어 있어서 관광객들이 접근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음.
- ○ 축제 공식 부대행사장에는 잡상인을 금지하고 대체로 정갈한 분위기의 음식부스들이 운영되도록 하였으나 본 축제의 주제와 무관한 음식과 상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일부 음식코너의 경우 품질이 떨어지거나 위생에 취약함을 보이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 ○ 젓갈뷔페의 경우 외국인 대사 일행 등 외국인들이 다수 참관·체험하였으나 일부 선도가 떨어지는 젓갈이 나와서 만족도가 떨어진 것 같다는 전언이 있으므로 향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다. 축제의 발전성

❑ 잘된 점

- ○ 강경젓갈 전시관에서의 상설 강경포구 젓갈학교 운영, 젓갈 마당극, 보부상 재현 등을 통하여 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였으며, 이는 젓갈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손색없는 발전이 기대됨.
- ○ 근대 강경의 옛 포구를 재조명하는 '만선제 및 강경포구'의 재현과 4대강 사업으로 한결 넓어진 강경포구에서의 황포돛배의 운영, 박범신 작가와 함께하는 문학이야기, 근

대문화거리 강경옛모습 사진전시 등을 통하여 본 축제의 주제성을 재정립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한 흔적이 관찰됨.

- 한국관광공사와 주한 외국인 공동마케팅을 통하여 외국대사 부인·가족이 외국인 김치 담가가기 등에 참여하는 등 외국인에게 젓갈문화를 알리기 위한 노력이 돋보였음.

❑ 개선할 점

- 젓갈수저 및 받침대 등 젓갈 캐릭터 관련 50여 종류를 판매하고 있었으나 이런 상품들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축제의 발전과 함께 지속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차원에서 행·재정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본 축제는 청결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음식축제'이므로 축제 주최 측과 자치단체 및 부대행사장 운영자 등 모두의 공감 하에 위생에 문제가 없는 행사장 조성에도 신경써야 할 것으로 관찰됨. 잔반처리와 잔디 행사장 바닥의 좀 더 위생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함. 먼지나 악천후로 인하여 음식코너의 위생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이에 유의하여 사전 조치를 다하여야 함.

라. 축제의 성과

❑ 잘된 점

- 강경 젓갈시장에서 판매되는 각종 젓갈의 품질이 모두 안전하다는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의 품질검사 발표를 적절한 시점에 발표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축제홍보마케팅 활동을 진두지휘한 논산시장과 공무원 및 축제담당자들의 노고에 힘입어 축제장과 140여개의 젓갈판매업소에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주최 측 추산 50여만명의 방문객 유치와 320억원의 지역경제유발효과를 거두었음.
-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청정지역인 논산평야에서 재배된 예스민 햅쌀과 젓갈판매코너에서의 젓갈을 무료로 시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논산의 예스민 쌀과 젓갈의 우수성을 알리고 논산지역의 덤 문화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미지를 고양하는데 기여함.
- 젓갈상회별 차별적인 아이디어를 통하여 젓갈소원등 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젓갈시장의 축제분위기 조성과 야간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축제주체로서의 자부심 및 참여의식을 한껏 고취할 수 있었음.

❑ 개선할 점

- 강경 젓갈시장에서 판매되는 각종 젓갈의 품질이 모두 안전하다는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의 품질검사 발표가 젓갈 판매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젓갈의 특허를 낸 상표만 붙이면 강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젓갈들이 강경이라는 이름의 날

개를 달고 팔린다는 언론보도(중앙일보 2012. 11. 10)와 관련하여 철저한 대비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일부 젓갈 상인들이 단체손님들에게 버스와 점심 및 간식비를 10만원에 제공한다고 하면서 '강경젓갈 후원회 담당자' 이름과 휴대폰 전화가 기재된 팸플릿을 전국에 무차별 살포하고 있고 원산지가 미표시된 젓갈을 제공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 외국인 대상의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전략의 수립과 활동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국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축제 프로그램에 출연하거나 관람객으로 행사장을 찾은 외국인들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여 불편함을 개선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외국인의 입맛에 맞는 젓갈 음식의 개발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총 평

- '200년 전통의 젓갈! 강경포구로의 초대...'를 주제로 강경포구 등에서 실시된 강경발효젓갈축제는 당초 관광객 70만명 유치와 지역경제유발효과 350억원을 목표로 하였으나 50여만명의 방문객 유치와 320억원의 지역경제유발효과를 거두는데 그쳤음. 이는 작년에 비하여 관광객 수는 대동소이하나 지역경제유발효과는 약 20억여원 상회하는 수치임.
- 본 축제는 보기 드물게 산업축제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반면에 강경이 보유한, 매우 가치가 큰 근·현대사의 전시장을 축제와 접목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발굴에는 소홀한 것으로 판단됨.
- 행정에서는 198건의 젓갈축제 판매제품 품질검사를 통해 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음에도 '강경 젓갈'의 브랜드를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보도되고 있는 바 이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방안 마련으로 신뢰도를 담보함이 급선무인 것으로 생각됨.
- 본 축제는 옥녀봉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축제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축제 주요프로그램의 경쟁력강화, 전근현대사를 체험하는 축제로서의 변신노력 등의 중대 과제의 개선 노력을 꾸준히 병행한다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서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축제로 평가됨.

⑳ 금산 인삼축제

(1) 개 요

❑ 기 간 : 2012. 9. 14(금) ~ 9. 23(일) / 10일간

❑ 장 소 : 금산인삼관 광장 및 인삼약초거리일원

❑ 주 제 : 금산으로의 건강여행 ! 당신의 미래가 건강해집니다.

❑ 주 최 : 금산군

❑ 주 관 : 금산군축제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총 종목 수 : 8개 분야 63개 종목
- 대표 프로그램 : 인삼캐기 체험여행, 건강체험관, 국제인삼교역관

구 분	종목 수	행사내용
계	63개 종목	
대표행사	3개 종목	인삼캐기체험여행, 건강체험관, 국제인삼교역관
체험행사	13개 종목	인삼민속촌, 인삼체험6070장터마당, 신나는 인삼주막 등
의식행사	4개 종목	개막식, 폐막식, 개삼제, 강처사 관음굴 기도회
공연	14개 종목	금산팝스콘서트, CMB프라임콘서트 등
경연	15개 종목	인삼약초요리경연대회, 전국 틴틴페스타 등
전시행사	4개 종목	금산인삼관, 추억의 사진전, 분재 · 야생화 전시 등
학술교역	2개 종목	해외축제전문가 초청 국제세미나, 인삼세계화 심포지엄
체육행사	8개 종목	전국 생활체육 족구대회, 전국 오픈 배드민턴 대회 등

(2) 항목별 평가

가. 축제의 특성 및 콘텐츠

□ 잘된 점

- 금산군은 금산인삼국제시장, 금산약초시장 등 1,350여 개 인삼, 약초 업체가 시장을 형성하여 국내 인삼 유통의 80%를 점유하고 있으며, 인삼의 재배, 기능성 제품의 가공, 유통과 판매(수출)에 이르기까지 인삼 종주지로서의 면모를 지켜오고 있다. 이러한 지역성에 기초하고 있는 금산인삼축제는 지역 특산품에 비즈니스를 접목한 산업형 문화관광축제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 국제인삼교역관에는 46개의 지역 업체가 참여하여 다양한 인삼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하고 있었는데, 지역 특산물의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는 산업형 축제의 개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축제의 소재인 인삼은 자연스럽게 인류 보편의 염원인 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연관성을 반영하여 축제의 주제를 "금산으로의 건강여행 ! 당신의 미래가 건강해집니다"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건강체험관을 대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홍삼 족욕 체험, 홍삼 팩 마사지, 홍삼 다이어트 등의 체험형 프로그램과 함께 축제 관람객이 자신의 건강을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한 점은 잘된 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인삼캐기 체험은 축제에 참여한 관람객이 가족과 함께 인삼 밭에 직접 들어가 인삼을 캐보는 재미와 함께 금산인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대표 프로그램이다. 9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진행된 프로그램에는 2,180명(내국인 2,050명, 외국인 130명)이 참여했으며, 7,03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현장에서의 참여 예약과 함께 사전 인터넷 예약을 시행한 점, 축제장에서 체험장까지 운행하는 셔틀버스에 문화관광해설사가 동승하여 안내 가이드의 역할을 수행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개선할 점

- "금산으로의 건강여행! 당신의 미래가 건강해집니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32회 금산인삼축제의 운영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최우수축제를 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형 문화관광축제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되었다. 첫째는 올해의 축제 주제인 건강을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건강체험관 운영 외에는 다소 미흡하였다고 평가된다. 축제는 해마다 주제가 다르듯 프로그램에서도 주제에 따라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예년의 축제 프로그램과 비교해 보아도 큰 차이점을 발견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향후에는 당해의 축제의 주제를 구현할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들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래야만 관람객들의 재방문 유도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 상설 체험 프로그램에서도 인삼축제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6070 장터마당, 건강이색 스포츠 체험, 도전인삼기네스 쇼 등의 프로그램은 인삼이라는 용어만 추가되었을 뿐 다른 축제들과 차별성을 가져오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되었다. 향후에는 다른 축제들과 차별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삼축제에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야만 최우수 축제로서 가치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축제장의 국제인삼교역장에서는 홍삼 가공 제품의 전시와 판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축제장에서 홍삼제품의 가공과정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의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저녁시간대에 운영된 공연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인 공연 프로그램이라고 판단된다. 개막식 후의 TJB 대전방송 축하공연, CMB 프라임 콘서트, 금산인삼틴틴페스타, 7080 추억의 콘서트, 금산 팝스 콘서트, 전국주부가요제, 그리고 폐막식 행사의 대전 MBC 축하공연 등 대부분의 공연프로그램을 지역 방송국에서 제작, 운영하였다. 이처럼 축제기간 내내 연예인 초청 공연 일변도의 프로그램은 축제가 공연이라는 이미지를 고착시킬 우려가 있으며, 고비용 저효율의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판단된다.
- 지역주민들을 축제에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축제기간 동안 면민의 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농악경연대회 등을 진행하였다. 이처럼 일률적인 면민의 날과 농악경연대회의 편성은 일탈과 유희성을 추구하는 축제의 속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향후에는 정형화된 평면식의 프로그램의 편성보다는 축제의 재미를 더하고, 개인적으로는 일탈성, 사회적으로는 동질성 확보라는 축제 본연의 감동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가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과 같이 대둔산과 진악산, 적벽강, 산림문화타운, 오토캠핑장 등과 연계하여 당일여행을 1박 2일 여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금산인삼축제의 개최 목적 중 하나는 금산인삼의 우수성을 세계 속에 널리 알리는 것이므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세계인의 공통 관심사인 건강과 웰빙, 치유 등을 접목시켜 대체의학 프로그램, 미식관광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것이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나. 축제운영의 적절성

❑ 잘된 점

- 금산인삼축제의 행사장은 금산인삼관 광장과 인삼약초거리, 그리고 재배농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특산품에 기초한 산업형 축제의 3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축제 행사장의 물리적 공간과 서비스 환경은 우리나라 축제장 중에서 최고의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축제장 내의 화장실과 휴식 공간, 그리고 축제장 부스들의 배치방법들은 그동안 금산인삼축제와 엑스포를 개최해 오면서 축적된 노하우들의 집대성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특히 높은 수준의 방문객 수용태세는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되었다.

- 축제장에 설치된 관광객의 휴식공간들은 수적으로나 질적으로도 매우 우수하였다. 특히 축제장을 방문하는 외지의 방문객들도 시니어 계층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상하여 축제장을 이동하는 교통수단의 배치는 방문객 만족도 제고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좋은 운영방안이라고 판단된다.

❑ 개선할 점

- 축제의 주인은 지역주민들이다. 축제기간은 지역의 주민들이 일상의 생활을 탈피하여 대동적으로 한마당이라는 유희공간을 구성하여 즐겨야 하고, 외지의 관광객들은 그 모습을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공간이 축제장이다. 그러므로 축제를 진행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사람은 지역주민들로 구성될 때 축제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공연의 출연자도 지역주민들로 구성되어야 하고 체험프로그램의 진행자도 역시 지역의 주민들로 구성될 때 지역에서 개최하는 축제로서 의미가 있게 된다. 그렇지 않고 축제의 진행자들이 외부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이것은 축제가 아니고 축제를 가장한 하나의 행사이고 이벤트이지 지역축제는 아니라고 평가된다. 따라서 모든 축제프로그램의 진행을 외부의 전문가들에게 위탁하는 것은 지역축제로서 의미가 없는 요소이기에 향후에는 지역의 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주민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축제장의 공간구성은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축제장의 세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 위해 대부분의 프로그램 진행자들은 독자적으로 음향을 활용하는 형태로 진행하였다. 그러다보니 축제장은 음향의 불협화음들로 소음의 천국이었고 축제장 방문을 통하여 힐링과 건강을 체험하려는 방문객들에게는 짜증과 불만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축제장의 소음에 대한 통제가 충분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 특히, 행사장의 주무대 옆, 중앙부에 배치된 "신나는 인삼주막"의 퓨전 풍물단 공연은 지나칠 정도의 소음으로 인해 행사장 내 다른 프로그램의 진행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고 평가되었다. 따라서 내년도 공간배치에서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다. 축제발전성

❑ 잘된 점

- 32회를 맞이하는 올해 축제는 축제추진조직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첫 축제이다. 축제

조직위의 발족은 금산인삼축제의 한 단계 도약을 의미하는 중요한 변화다. 또한 올 4월 금산군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축제 개최의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한 점은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된다. 향후 축제조직위의 구성과 조례 제정에 걸맞게 축제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별도의 재단설립과 자립성의 확보, 민간주도의 축제 운영,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축제 프로그램의 개발 등은 과제로 남아있다.

- 축제장과 인근 지역에 조성된 주차장 시설은 매우 훌륭하다는 느낌이었다. 잘 조성된 주차장은 방문객의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충분한 기능을 담당할 정도였다. 축제장의 주차장과 같은 물리적 환경의 조성은 축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단체장의 관심과 추진력이 담보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요소이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금산인삼축제의 발전을 위한 단체장과 추진위원들의 관심은 매우 높다고 평가되어 진다.
- 올해 금산인삼축제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안내, 급수, 행사지원, 체험 등의 분야에서 1일 334명 연인원 2,529명이 헌신적으로 참여한 점도 긍정적 요소로 평가된다.
- 축제를 준비하는데 투자된 예산은 매우 큰 규모로서 군 단위의 기초자치단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될 정도이다. 이러한 예산의 규모는 축제의 소재인 인삼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결과로 보여지며,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개선할 점

- 금산인삼축제에 대한 주민의 참여는 자원봉사자 참여, 농악 등 공연단 참여, 체험부스 운영 참여 등으로 구분된다. 특히, 주민의 참여와 함께 공무원과 경찰,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 참여는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된다. 아쉬운 점은 인삼 관련 업계와 지역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다소 미흡하다는 점이다. 인삼축제의 최대 수혜자는 인삼 관련 업계와 상인들인데, 최대 수혜자들이 축제 운영의 경비를 부담하지 않고 행정지원에만 의존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지역축제의 재원이 대부분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예산에 의존함으로서 축제가 자생력이 없는 것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축제가 안고 있는 문제이지만 금산인삼축제도 예외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향후 국비와 도비의 지원이 중단되는 때를 대비하여 지금부터라도 민간주도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와 점진적 전환, 그리고 수익금의 일부는 축제운영기금으로 적립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 금산인삼축제의 예산은 23억 원(국비 3억, 도비 1.5억, 군비 18.5억)인데 비해, 직접적 체험비용과 금산인삼 국제교역전의 부스입점 수수료 등 3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물론 관람객과 외국 바이어들의 인삼제품 구입, 음식 지출 등에 의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개최 비용과 비교할 수 없는 상당한 규모이다.
- 축제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선 재정자립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 판단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축제가 그러하듯이 금산인삼축제의 재원도 대부분 국비와 도비 그리고 군비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축제와 달리 외국의 사례에서는 대부분

의 축제에서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재정자립도의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 최근 우리나라 축제에서도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재정자립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를 유도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금산인삼축제도 선심성으로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체험케 하고 나누어 주는 프로그램들은 배제해야 할 것이다. 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궁중비책관의 프로그램은 전형적인 선심성의 프로그램이라고 평가되었으며, 향후에는 유료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금산인삼축제가 최우수축제에서 대표축제, 그리고 그 이후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실현가능한 방안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가야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라. 축제의 성과

❑ 잘된 점

- 올해 금산인삼축제는 75만 6천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93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방문객 수는 태풍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3.2% 감소하였으나 외지 방문객 비율(85.0%→87.2%)은 증가하였다.
- 국제인삼 교역전에는 43개 업체(46개 부스)가 참여하였으며, 315백만 원의 판매액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9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개최된 해외 바이어의 수출상담회에는 대만, 미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12개 국가에서 45명의 바이어들이 참여하여 1,221만 달러(상담액 1,070만 달러, 계약액 141만 달러, 샘플 구입 10만 달러)가 판매되었다.

❑ 개선할 점

- 축제방문객들의 충성도를 담보하고 축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축제 프로그램의 끊임없는 변화가 요구된다. 축제장의 방문객들은 해마다 신선한 자극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축제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다른 축제장과 차별화된 이미지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프로그램에서도 해마다 신기성을 가져와야 할 것이다.
- 금산인삼축제의 홍보를 위해 인터넷 온라인 홍보, 여행사 대상 모객 인센티브 지원, 언론매체 활용, 타 지자체 행사 등 연계, 사회단체 활용, 금산군 초청 및 타 지역 방문 홍보, 포스트 및 리플렛 제작, 배부, 홍보책자 제작 발송, 서울과 대전의 지하철 홍보 등 매우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였다. 매년 축제에 대한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은 필수적이지만, 이제는 홍보수단이나 매체별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효과성과 효율성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3) 총 평

- 2012년 9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금산인삼관 광장 및 인삼약초거리 일원에서 "금산으로의 건강여행! 당신의 미래가 건강해집니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32회 금산인삼축제는 지역 특산품에 비즈니스를 접목한 산업형 문화관광축제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 8개 분야 63개 종목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는데, 인삼캐기 체험여행, 건강체험관, 그리고 국제인삼교역관이 대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국제인삼교역관에서는 46개의 지역 업체가 참여하여 다양한 인삼 제품을 전시·판매하였으며, 건강 체험관에는 홍삼팩 마사지, 홍삼 다이어트 등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관람객이 자신의 건강을 체크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관람객이 인삼 밭에 직접 들어가 인삼을 캐보는 체험과 함께 금산인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인삼캐기 체험 프로그램에는 2,180명이 참여하는 등 대표프로그램의 완성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 금산인삼축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업형 문화관광축제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축제의 주제를 구현할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보완, 홍삼 제품의 가공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등 타 축제와 차별성을 가진 프로그램 보완, 지역주민이 축제의 본질인 일탈성과 동질성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보완, 지역 관광자원과의 연계 및 외국인 관광객들의 위한 프로그램의 보완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금산인삼축제 행사장의 물리적 공간과 서비스 환경은 우리나라 축제장 중에서 최고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화장실과 휴식 공간, 축제장 부스의 배치, 교통수단 배치 등 방문객 수용태세는 그동안 금산인삼축제와 인삼엑스포를 개최해 오면서 축적된 노하우를 집대성한 높은 수준이었다. 다만, 지역주민의 프로그램 운영 참여 확대, 축제장 공간구성의 재배치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금산군은 올해 축제추진조직위원회를 발족하고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축제 개최의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였다. 향후 축제운영의 전문성 확보, 재단설립과 자립성 확보, 민간주도의 축제 운영,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축제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풀어야 할 과제로 판단된다.
- 금산인삼축제의 축제 예산은 23억 원으로서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다. 축제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축제운영기금의 적립, 선심성 무료 프로그램의 배제, 축제운영의 효율성 도모 등 재정자립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실현가능한 방안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해 나가야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21 서천 한산모시축제

(1) 개 요

- ❑ **주 제** : 인류무형유산 한산모시로의 초대!
- ❑ **기 간** : 2012년 6월 8일(金) - 6월 10일(日) 3일간
- ❑ **장 소** : 한산모시관 일원
- ❑ **주 최** : 서천군
- ❑ **주 관** : 한산모시문화제추진위원회
- ❑ **주요행사**
  - ○ 체험행사 : 태모시만들기, 모시삼기, 꾸리감기, 베틀체험, 옷감짜기, 모시공예체험, 모시떡메치기, 모시옷입기, 모시달고나 체험, 모시인형만들기 등
  - ○ 전시행사 : 모시명품관, 현대모시관, 사진전시회, 소망동산, 서천체험마을, 길쌈시연, 다도(모시잎차) 시연 등
  - ○ 문화예술 행사 : 무대공연국, 한산모시맛자랑경연대회, 한산모시옷패션쇼, 현대모시옷패션쇼, 저산팔읍길쌈놀이 등
  - ○ 상설행사 : 모시음식코너, 특산품매장, 읍면홍보관, 무형문화제 시연 및 체험 등

(2) 항목별 평가

가. 축제프로그램 완성도

- ❑ **잘된 점**
  - ○ 한산지역의 전통상품인 모시를 축제의 소재로 개발하였고, 축제 소재의 상징성 및 차별성이 뛰어나며 지역특산품을 잘 활용하고 있는 축제로서 서천한산모시문화제는 지역 정체성이 잘 드러나는 전통행사와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재현 행사, 모시가 완성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다른 축제와 달리 전통문화축제로의 차별화된 특성을 가졌다고 할 수 있음.

- 모시문화제의 대표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이영희 모시패션쇼에서는 익숙한 전통 디자인에서부터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모시옷까지 선보여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음. 또한,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패션쇼는 한산모시문화제의 대표적인 지역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평가함. 모시소망등을 모시각의 스토리텔링으로 활용 한 것은 모시문화제의 정체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가능성 있다고 평가함.
- 모시광장 소무대에서 한산모시 5종경기, 복불복! 한산모시 런닝맨, 한산모시 박터트리기 등을 운영하여 한산모시문화제는 체험위주의 재미 없을 것이라는 이미지를 다소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또한, 행사장에 선녀가 돌아다니면서 운영한 "진짜! 한산모시를 찾아라" 프로그램은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놀거리를 제공하였음.
- 우리나라의 여름 전통 옷감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은 모시를 육성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의지가 엿보이고 지역이미지 제고 및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유발하고 있는 축제로 평가함.

❑ 개선할 점

- 유네스코 전시관을 운영한 것은 좋았으나 짧은 준비기간으로 인해 내용이 충분히 관람객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 한산모시제작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태모시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호응도가 낮았는데 한산모시의 뿌리를 알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므로 문제점을 개선하여 많은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서천한산모시는 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곳으로서 야간 프로그램에 대한 집중적인 개발할 필요함. 야간프로그램과 연계관광을 확충하여 체류관광객을 창출하고 이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키울 필요가 있음.
- 축제 관람객을 유인할 수 있는 대표프로그램(killer contents)이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기존관람객을 재방문하게 할 수 있고 잠재관람객을 유인할 수 있는 대표프로그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나. 축제운영의 적절성

❑ 잘된 점

- 행사장 주변이 잘 정비되어가고 있고, 관람객의 주 동선을 파악하여 그에 따라 적절하게 행사장을 구성하였고 축제 프로그램 일정과 위치를 알려주는 체험행사별 안내시설을 확대 배치한 점은 관광객들의 축제 체험과 관람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함. 또한 관람객의 관람 순서나 이동에 편리한 동선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람객 운영관리를 했다고 평가함.

○ 「2012 서천한산모시문화제」에서 관광서포터즈를 초청한 점은 인류무형유산 한산모시의 주제와 어울리는 활동이었음. 또한 대사들을 패션쇼에 서게 한 점은 매우 좋은 기획이었음. 축제 기간 중 유네스코 등재 기념행사를 열어 14개국의 주한 외국대사를 초청해 한산모시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등 한산모시짜기의 유네스코 등재 의미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음.

❑ 개선할 점

○ 한산모시문화제의 개최공간은 홍보관 일원에 한정되어 있고 축제공간이 일반시민들의 주거공간의 중심에 있지 않는 관계로 축제무관심층의 축제 참여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축제 사전홍보 및 사전이벤트를 시내 중심가 또는 주민 밀집지역에서 실행함으로써 주민들의 관심제고 및 축제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한산 모시문화제는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자가 늘어가는 추세에 있으나 외국인 관광객 수용태세 및 안내시스템은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함. 통역안내원을 축제장에 상주시키고 외국어 안내방송 실시하며, 외국어로 된 축제안내 팜플렛 비치 및 행사장내 외국어 표기 등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축제 안내 시스템에 있어서는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아직도 개선할 부분이 있었는데, 관광객들이 행사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곳이 주차장 부근이었으나 이곳은 축제장 출입구라는 구획구분이 애매하여 관광객들이 어디서부터 관람을 시작하여 어디서 끝나는 지점인지 몰라 혼돈을 주고 있었음. 또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단위 행사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외국어로 표기된 행사장 약도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등 편의시설의 외국어 표지판 설치 등을 확대할 필요 있음. 따라서 보다 세심한 축제 안내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2012 서천한산모시문화제」에서는 관광서포터즈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외국인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프로그램이 부족했으며, 안내 및 통역을 해 줄 수 있는 시스템도 확대할 필요 있음.

다. 축제 발전가능성

❑ 잘된 점

○ 축제공간이 홍보관을 중심으로 모시축제를 위한 전반적인 인프라를 확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한산모시관을 통한 모시홍보와 모시관련 상설체험 및 판매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함.

○ 또한 지역 특산품인 모시를 다양한 형태로 상품화하여 활용 가능 영역을 확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지역민의 참여가 높았음. 또한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들의 적극적 참여를 고려할 때 축제의 발전을

위한 주요한 기반이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함. 체험프로그램과 경연프로그램 대부분은 문화산업에 연계될 수 있는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다고 평가함.

- 한류(韓流)의 영향으로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서천한산모시문화제는 상당한 잠재력을 가진 축제라 할 수 있음.

❑ 개선할 점

- 향후 한산모시문화제 축제가 국내를 대표한 명품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 발굴되지 않은 전통문화를 발굴하여 계승하고 축제 프로그램화해야 문화관광축제로 성공할 수 있는 척도라 판단함.
- 축제의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젊은 층의 참여를 확대시켜야 하며, 홍보에 있어서도 젊은 층을 겨냥한 트위터, 유투브, 미투데이 등의 홍보채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함. 또한, 바이럴 마케팅, 버즈마케팅 등의 입소문전략을 수립하여 저인망식 홍보전략을 수립 할 필요가 있음.

라. 축제의 성과

❑ 잘된 점

- 유네스코 전시관, 모시학교, 모시광장에서의 소무대 운영, 태모시 미로길 등의 특색있는 체험 등 새롭게 개발한 프로그램 운영은 관광객들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됨.
- 서천한산모시문화제는 지역 특산품인 모시짜기 과정에 대한 체험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모시전통문화 및 인류무형유산이라는 두가지 형태를 접목하여 진행함으로써 정체성과 고유성을 확보할 수 있었음.
- 첫날 갑작스럽게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에서도 축제추진팀에서의 효과적 대응과 신속한 처리로 비 피해 없이 행사를 진행하게 한 점은 축제추진팀의 내적 역량을 확인하는 계기가 됨. 축제 기간 많은 군중이 운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요원들의 관리와 추진팀의 효과적 운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도 행사진행의 성과라 할 수 있음.
- 전년도와는 달리 유네스코 전시관, 모시소망등, 모시카페, 모시휴게소, 생태체험 어린이 놀이마당, 소곡주 행사장 확대 운영 등 행사장내 공간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은 서천한산모시축제가 더욱 더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실마리를 풀었다고 할 수 있음.

❑ 개선할 점

- 현재 서천한산모시문화제 행사장은 중앙 차도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어 행사장간의 연계성이 약하며, 행사의 분산개최로 인해 방문객들의 프로그램 참여도가 떨어지는

단점을 안고 있음.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육교를 놓는다던지 지하도로를 놓는 시설적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고 단기적으로는 일정한 테마를 부여하여 테마별로 행사를 집중 배치함으로써 공간을 특화시켜나가야 함. 그리고 중앙 차로 옆에 부스(2012년은 식당가)들은 차로쪽 부스는 설치하지 않는 개방형으로 할 필요가 있음.

- 단위 프로그램이 많고 여러 장소에서 축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방문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음. 올해보다 더 많은 안내시설물을 참가자들의 동선을 고려해 배치할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도 축제를 대표할만한 명확한 킬러콘텐츠(killer contents) 개발이 필요함. 한산하면 모시로 각인되어왔고 한산을 1회 이상 방문한 경험이 있는 방문객들 대부분은 그렇게 인지하고 있음. 축제를 대표할만한 가장 분명한 킬러콘텐츠(killer contents)가 개발되어 축제기간동안 매일 운영되어야하고 킬러콘텐츠(killer contents)로 하여금 서천군을 대표할 만한 이미지로 거듭나야 할 것임.

(3) 총 평

- 「2012 서천한산모시문화제」에 대한 총평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축제를 통해 서천한산의 문화적 자부심을 끌어올리고, 서천한산 관광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판단함.
-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모시패션쇼와 모시학교 운영은 남녀노소 모두 참여하여, 과거와 현대를 소통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함.
- 서천한산모시를 잘 표현하고 참가자들이 같이 호흡하고 즐길 수 있는 소규모 마당극 공연과 같은 프로그램이 행사장내에서 운영된다면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으리라 판단함.
- 한산모시문화제축제는 축제 주제에 맞는 축제 행사로 잘 구성되었다고 평가 할 수 있으나, 보다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체류시간이 증대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야간프로그램의 부재는 아쉬운 대목임.

㉒ 부여 서동연꽃축제

(1) 개 요

❑ 기 간 : 2012년 7월 26일(목) - 7월 29일(일) 4일간

❑ 장 소 : 서동공원(궁남지) 일원, 백제보

❑ 주 최 : 부여군

❑ 주 관 : 부여문화원

❑ 주요행사

- 메인 행사 : 주제관 운영 - 蓮愛
- 공연 행사 : 개막축하공연, 지역예술단공연(11회), 교류국(일본) 초청공연(2회), 문화공연(5회), 자매결연자치단체공연(군포시립합창단), 부여군충남국악단 공연, 폐막공연 - 蓮愛
- 경연 행사 : 서동공원 연꽃 사생대회, 제4회 부여서동공원 야외그림축제, 제1회 전국학생국악경연대회
- 체험 행사 : 연꽃페이스페인팅, 종이연꽃 만들기, 부채 연꽃 그리기, 연꽃 스탠실, 연 관련 음식 만들기, 연꽃 압화 및 연꽃 분양, 서동선화 커플카누 체험, 내가서동왕자 선화공주, 연꽃 탁본체험, 서동선화 캐릭터 만들기, 연꽃비누 만들기, 연꽃오르골 만들기, 연꽃 바람개비 만들기, 풍난·내도장 만들기
- 전시 행사 : 서동공원 연꽃 그림축제 작품전시, 서동공원 연꽃 사진대회 작품전시, 연 요리 시식 및 전시
- 테마 행사 : 부부·연인간 연잎 족욕, 소공연(안데스 음악, 지역예술가), 사랑의 영상편지 쓰기, 연애상담(타로카드), 런닝맨 게임
- 특판장행사 : 굿뜨래 농·특산물 판매장, 연 관련 특산품 판매장, 정보화마을·금강권관광협의회 홍보관, 우리밀 사랑

(2) 항목별 평가

가. 축제프로그램 완성도

❑ 잘된 점

- 서동탄생설화가 있는 궁남지를 바탕으로 축제가 가지는 상징성과 장소성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수상무대를 설치하여 프로그램의 재미를 한층 더 높이는 효과를 나타냈음.
- 백제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어 지역특색을 살리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인 면이 보였으며, 연꽃을 소재로 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은 축제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였음.
- 지역예술 공연뿐만 아니라 교류국의 초청, 자매결연자치단체의 초청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음.
- 프로그램을 학습, 재미, 낭만, 사랑 4가지 테마존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다양한 테마가 있는 축제장으로 조성하여 프로그램 완성도를 높여나가고 있다고 판단됨.
- 10주년 기념주제관을 운영함으로써 그간의 서동연꽃축제의 연혁 등과 함께 다양한 연꽃과 관련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연꽃축제를 알리려는 주최 측의 기획의도가 잘 반영된 것으로 보여짐.

❑ 개선할 점

- 축제의 시작 및 주제를 알리는 개막식 공연이 주제를 전혀 알리지 못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개막식의 의미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있음. 지방방송과 연계한 초대가수 초청공연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지양하는 대표적 프로그램임. 폐막공연인 蓮愛를 지역예술단체에서 매년 한편씩 선보여 축제의 주제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개막공식공연으로 한다면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탄생할 수 있다고 생각됨. 축제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기획사가 아닌 지역예술단체의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기회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서동연꽃축제를 알리는 대표프로그램(killer contents)의 부재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임. 앞으로 축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표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봄.
- 서동연꽃축제의 주제가 사랑 그리고 낭만인 만큼 이 주제를 가지고 총 4일간의 일별 주제(예: 가족, 부모, 형제, 연인 등)를 선정하여 일자별 프로그램을 차별화하였으면 함.
- 축제가 한여름에 열리는 만큼 야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하다고 봄. 관광객들이 단순히 둘러보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체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현재 연꽃단지 길에는 야간 조명이 잘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에 더하여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구성된다면 서동연꽃축제의 의미가 더 확대될 것임.

나. 축제운영의 적절성

❑ 잘된 점

- ○ 수상무대를 설치함으로써 다양한 공연들을 볼 수 있게 장소성과 함께 관광객을 위한 인프라는 크게 개선되었다고 봄.
- ○ 축제기간 동안 지역주민 및 지역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교육시킴으로써 지역축제를 이끌어 가는 한 축으로서 역할을 고취시켜 함께 참여하고 관람하는 축제였다고 봄.
- ○ 축제장이 연못과 함께 연꽃단지이기 때문에 안전관리 분야요원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방문객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였음. 또한 축제장 내 질서, 교통안내 등을 통한 방문객을 위한 배려한 점도 돋보였음.

❑ 개선할 점

- ○ 대부분의 공연 프로그램이 수상무대에서 펼쳐지고 있어 관람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음. 궁남지 일대를 무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만을 바라보는 무대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음.
- ○ 또한 수상무대 앞 객석을 설치함으로 인해 동선의 단절이 일어나고 있어 축제장 전체 연결이 매끄럽지가 않았음.
- ○ 특히 개막식이나 폐막식의 메인공연의 경우 수상무대 앞 관람석의 협소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서서 장시간 보는 불편을 겪었으며, 또한 잘 보이지 않아 포기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음. 따라서 개막식이나 폐막식의 경우는 많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변 주차장을 잘 활용하여 좀 더 안전하게 볼 수 있도록 했으면 함. 그리고 수상무대는 그 외 많은 프로그램을 배치하여 공연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방문객의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봄.
- ○ 10주년을 맞이하여 주제관을 운영하였는데 체험관 부스와 같이 운영되어 장소가 너무 협소하였음. 주제관은 서동연꽃축제의 주제를 나타내주는 메인프로그램인데 이러한 주제를 담아내기에는 소재의 내용면에서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으므로 향후 주제관 운영은 좀 더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 한 여름에 개최되는 축제이기 때문에 한 낮에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즐기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이 마련되었으면 함. 곳곳에 물을 마실 수 있게 마련이 되어 있었지만 관리가 소홀해서 오히려 지저분한 인상이 더 강해짐.
- ○ 축제홈페이지의 부재는 향후 지속가능한 축제발전을 위해서는 매우 심각한 현상이라고 보여짐. 축제의 주제를 잘 나타낼 수 있는 홈페이지의 구축과 함께 방문객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축제의 홍보와 관심을 축제기간동안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구축이 시급하다고 봄. 또한 축제홈페이지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됨.

다. 축제발전성

❑ 잘된 점

○ 잘 갖춰진 축제장의 하드웨어 시설이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수준 높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성만 잘 이루어진다면 지역특성을 잘 살린 축제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봄.

○ 서동연꽃축제를 통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군민과 관광객이 축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는 부여군의 의지와 노력이 돋보임.

❑ 개선할 점

○ 축제에 대한 지자체의 육성의지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축제 운영예산 및 행정지원이라 할 수 있음. 향후 부여서동연꽃축제가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부문에 축제 예산운영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봄.

○ 주민들이 직접 축제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대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봄. 현재 15개 면을 바탕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확보함으로써 단순한 관람객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축제 욕구를 적극적으로 충족시켜주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최근의 축제홍보는 방송매체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이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축제 F.I 및 로고, 캐릭터 등을 발굴하여 체계적인 홍보와 함께 SNS를 활용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전개가 필요하다고 봄.

라. 축제의 성과

❑ 잘된 점

○ 백제의 문화를 축제기간 내내 보여줌으로써 지역의 문화를 계승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였으며, 이는 축제를 통해 전통문화를 알리는 사회문화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라 판단됨.

○ 다양한 지역의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초청공연으로 친선을 다지는 문화교류마당을 통한 유대감 형성에 기여하였다고 봄.

❑ 개선할 점

- ○ 축제프로그램을 테마존으로 구성하여 운영하였지만 참여율이 저조하였음. 이는 한 낮에 진행되었다는 점도 있지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원봉사자의 역할도 매우 크다고 봄. 향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 ○ 축제 전후에 대한 내용들이 없음. 방문객들과 지역주민들의 활발한 feed back은 향후 축제발전을 위한 기초적인 단계이므로 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봄.
- ○ 축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방문객들의 소비를 촉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는 미약할 것으로 짐작이 됨. 축제장에서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부족하므로 향후 방문객들이 편리하고 다양하게 소비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어야겠음.

(3) 총 평

- ○ 축제 개최 1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운영되었지만 대표프로그램의 부재와 전체적인 프로그램 구성에는 축제의 역할이 잘 수행되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군민과 관광객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다양한 창구를 마련하고 축제 전반적인 운영 및 구성을 이끌어가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동참이 있어 향후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갖추고 있음.
- ○ 축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독립적인 축제조직체가 운영되어야 하지만 현재 부여군에서는 별도의 추진위원회가 없이 축제T/F팀으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음으로 향후 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지속적 참여를 유도하여 축제 노하우들을 축적할 수 있는 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봄.
- ○ 현재 추진중인 서동공원 명소화사업이 추진된다면 궁남지, 연꽃단지를 연결한 축제장의 광역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고 봄.

23 김제 지평선축제

(1) 개 요

- ❑ **명 칭** : 김제 지평선축제
- ❑ **기 간** : 2012년 10월 10일(수) ~ 10월 14일(일) (5일간)
- ❑ **장 소** : 전북 김제시 일원(벽골제 중심)
- ❑ **주 최** : 김제시
- ❑ **주 관** : 김제시지평선축제제전위원회
- ❑ **주요행사**
  - ○ 체험행사 : 벼고을 농경문화 사이버체험, 벼고을 농경 5종체험, 황금 들녘 메뚜기 잡기, 맨손/가래로 물고기 잡기, 벼고을 전통 민속놀이, 추억의 새총/활쏘기 체험, 새끼꼬고 가마니 짜기 체험/경연, 도롱이 워터터널, 지평선 생활 공예체험, 지평선 전통 공예체험, 가을들녘 지푸라기 놀이마당, 벼 수확체험, 미니 아궁이 쌀밥체험, 벽골제 중심거 발굴체험, 지평선 주렁주렁 넝쿨터널, 세계인 벼고을 들노래 문화체험, 벼고을 농경 올림픽, 황금들녘 우마차 여행, 지평선 야간 놀이마당 (불깡통, 야간연날리기, 풍등 날리기, 횃불체험) 등
  - ○ 문화행사 : 지평선 농촌풍경 그리기 대회, 벼고을 옛날옛적 이야기, 지평선 테마 연 만들어 날리기, 지평선 허수아비 퍼포먼스, 벼고을 신명 마당놀이, 단야낭자/콩쥐팥쥐 인형극, 벽골제 제사, 벼고을 입석 줄다리기, 전국 사물놀이 경연대회,벽골제 전설 쌍룡놀이, 지평선 전국 농악경연대회, 지평선을 밝혀라! 도전 2012! 벽골제 횃불 퍼레이드 등
  - ○ 기획행사 : 친환경 유기농산물 전시, 새만금 농기계 전시 및 교역전, 지평선 향토산업/귀농 홍보관, 해외축제 전문가 초청 국제 학술 세미나, 지평선 먹거리 한마당, 세계인 쌀 음식 솜씨자랑, 글로벌 음식문화 페스티벌, 참살이 '쌀' 체험마당, 들녘에서 새참/막걸리 드세요 등
  - ○ 부대행사 : 지평선 사진 공모전, 지평선 신기한 그림세상(트릭아트), 벼고을 명품장터, 외국인 儒家寺 스테이, 벼고을 사금 이야기, 글로벌 허수아비 테마마을, 지평선 브랜드/캐릭터 상품전, 지평선 사랑의 등불, 지평선 희망 메시지, 새만금 지평선 전국 마라톤 대회, 벼고을 승마 마실체험, 지평선 자전거 여행, 아시아/전국 줄다리기 대회, 전국 생활체조 경연대회, 모악산 순례길 걷기대회 등

○ 공연행사 : 지평선 글로벌 음악여행, 개막 축하공연, 지평선 효사랑 열린 음악회, 가을밤 7080 콘서트, 지평선 가요제, 지평선 전국 청소년 가요제 등

(2) 항목별 평가

가. 축제의 특성 및 콘텐츠

❑ 잘된 점

○ 김제 지평선축제는 다양한 농경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강점이다. 매년 70~80여개에 달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관광객 선호도 조사 및 운영자에 대한 피드백 시스템 도입으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도출하고 신규 제안사항에 대해 다음년도 축제에 반영함으로써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축제 소재에 부합하는 신규 프로그램 개발 및 행사장 공간변화 등을 통해 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특히 올해는 농경문화축제 컨셉에 부합하지 않거나 만족도가 낮았던 프로그램은 과감히 배제하거나 통합·보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행사구성을 위해 63개 프로그램으로 규모화하였고, 지평선 횃불 퍼레이드, 지평선 연 날리기, 벼수확체험, 황금들녘 메뚜기 잡기 등 농경문화의 주제와 부합하고 모든 관광객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여 대동성을 도모하였음.

○ 또한, 김제만의 전통 문화자원 상설체험과 무대위주의 공연이 아닌콘텐츠 중심 축제로의 변화를 위해 기존 메인광장에 위치한 특설무대를 행사장 외곽인 단야광장에 배치하여 쌍룡놀이, 입석 줄다리기, 농악 /사물놀이 경연, 지평선 사랑의 호롱불 등 축제의 주제성을 반영한 비중 있는 프로그램을 메인광장에서 진행함으로써 관광객 노출을 극대화 하고 행사장 구석구석까지 관광객이 둘러볼 수 있도록 효율적인 동선을 확보하여 공간의 활용도를 높인 점이 관광객 만족도로 이어져 축제의 내실을 추구하였음.

○ 농경축제 특성상 취약했던 야간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행사장내 각종 상설체험 운영시간을 저녁 6시에서 9시까지 연장하여 불깡통 놀이,횃불 만들기, 풍등 만들어 날리기, 야광 연 날리기 등 야간 놀이마당과 가장 많은 횃불 퍼레이드, 사랑의 호롱불 만들기 등의 행사와 연계진행하였고, 쌍룡 조형물, 테마연못, 생태 숲, 토피어리 등 야간 경관을 대폭 확대하여 관광객 참여와 체류시간 연장을 통한 체류형 축제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음.

❑ 개선할 점

○ 무대공연이 아닌 콘텐츠 중심 축제로의 변화를 위해 기존 메인광장에위치한 특설무대를 행사장 외곽에 배치하고 김제만의 전통 문화자원을 메인광장에서 진행하여 관광객

의 이해와 관심을 높였지만, 행사 외시간대의 활용도가 떨어져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야간시간대 포토존으로 활용한 쌍룡과 제방 등에도 단순 조명보다는 화려하고 이색적인 전통 등의 활용으로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야간시간대에 운영되는 불깡통 놀이, 풍등 날리기, 횃불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에도 진행자 뿐 만 아니라 안전요원도 추가로 배치하여 관광객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도 세심한 주의가 요구됨.
- 벽골제 중심거 발굴체험의 경우 지역의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였으나 행사장과 거리가 있어 향후 체험장으로의 관광객 유인책을 마련하거나 행사장내로 체험장을 옮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함.

나. 축제운영의 적절성

❑ 잘된 점

- 벽골제 행사장 스토리텔링으로 테마별 주제가 있는 8개 마을로 섹터화 하고 마을별 출입구에 캐릭터 안내판 및 홍보물 설치로 축제 방문객들이 사전에 행사내용을 인지하여 다양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차별화 하였으며, '참살이 쌀 체험', '생활공예', '민속놀이', '전통공예' 등과같은 유사한 성격의 프로그램을 매년 특색 있는 체험마당으로 구성하여 관광객의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였음.
- 행사장과 시내구간의 셔틀버스를 확대 운영하여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교통 불편을 최소화 하였으며, 특히 셔틀버스 하차와 승차지역을 구분하여 혼잡을 최소화 하였고, 행사장 메인 광장에 의료, 미아보호, 경찰, 소방 등의 지원부서를 집중 배치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축제를 지향하였음.
- 효율적인 축제 운영을 위해 무대·음향 등 하드웨어 부분만 대행사에 위임하여 진행하였고, 대부분의 프로그램 및 음식부스, 자원봉사 등에 시민, 단체, 공무원, 재전위원 등이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참여함으로서 예산의 낭비를 막고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
- 행사장 셔틀버스 승·하차 지역과 연계한 관광객 진·출입로 이동동선 마련으로 관람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축제장을 찾아오는 수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간단한 먹거리 제공을 위하여 행사장 곳곳에 스넥코너를 설치하고, 전통한옥 내 수유실 및 놀이방 등을 갖추어 엄마와 아기가 편안한 공간에서 모유수유도 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아기 쉼터를 마련하여 가족단위 방문객의 재 방문을 유도하였음.
- '귀농·귀촌 홍보관', '향토산업 홍보관', '지평선 농·특산물 유통 특별전', '벼고을 명품장터', '친환경 유기농산물 전시·판매', 등의 다양한 지역경제 수익성 창출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브랜드 홍보 및 판매에 기여하였음.

❑ 개선할 점

- ○ 축제 안내소의 경우 주요 진출입로 등 행사장 곳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으나 관광객들 대부분이 버스보다는 승용차를 이용하여 행사장을 방문하고 있어 주차장 부근에도 종합안내소를 설치하여 축제에 대한정보를 제공하는 등 관람객 편의를 도모해야 함.
- ○ 행사장 주 출입구 옆에 축제 테마마을별 행사 내용을 알리고자 대형 안내판을 설치하여 행사장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행사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안내판의 역할이 미흡하였고, 장애우 및 노약자 등을 위한 주차공간이 없어 향후 주차장의 일부를 확보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배려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 축제장이 시내 외곽에 위치하여 도심권 상가 활성화를 위해 벽골제와 시내권 행사장과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축제를 연계한 관광객 유치 여행상품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함.

다. 축제의 발전성

❑ 잘된 점

- ○ 지평선축제는 우리 한민족의 얼과 함께 면면히 이어온 소중한 도작문화의 전통과 농경문화의 중심지역으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황금물결의 비경 지평선을 테마로 시민 모두가 주체가 되어 보는 축제가 아닌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 가는 축제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김제'하면 '지평선', '지평선'하면 '김제'라는 수식어를 떠올릴 만큼 축제를 통해 '김제가 지평선의 고장'으로 브랜드 가치가 상승되어 시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가고 있음.
- ○ 또한, 전국 쌀 생산량의 1/40을 차지하는 농업지역인 김제에서 생산 되는 대표 농·축산물인 쌀, 배, 감자, 파프리카, 포도, 한우 등이 축제를 통해 '지평선 공동브랜드'로 통합되고 가치가 상승되는 성과를 올려 전국적인 농축산물 브랜드화로 소비자의 신뢰와 농민들에게는 농산물의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 가고 있음.
- ○ 또한, 지역 문화자원을 소재로 한 이슈메이킹 행사인 '가장 많은 인원 한 줄로 연날리기', '가장 긴 인절미 만들기', '가장 큰 떡 모자이크만들기'와 올해는 '지평선을 밝혀라! 도전 2012. 벽골제 횃불 퍼레이드'를 매년 기획하여 관광객과 시민 모두가 하나가 되는 대동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통해 지역 통합력을 높여 성공적인 축제로 호평을 받았음.
- ○ 축제를 통해 주 무대인 사적 제111호 벽골제가 관광지로 도약하였고 주변에 국립김제농업생명청소년수련원, 아리랑 문학마을 및 기행벨트 조성, 벽골제 진입로 4차선 경관도로 개설 등 관광 인프라가 확충되어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로 관광산업 발전 및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개선할 점

- ○ 축제의 주 무대 벽골제의 관광지 개발을 통해 주변에 많은 관광인프라가 조성되고 있지만 벽골제에서 상설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체류형 관광지로의 변화를 모색해야 하며, 숙박·음식· 안내 등의 관광객 수용태세 구축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함.
- ○ 지평선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축제를 통한 지역발전 및 지역민의 참여의지, 김제시의 축제 지원의지 등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방문객 대부분이 도내, 대전·광주권 지역으로 한정되어 향후 다양한 매체홍보, 펨투어, 테마 여행상품 및 축제 캐릭터 상품 개발 등을 통한 지평선축제 인지도 향상으로 수도권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라. 축제의 성과

❑ 잘된 점

- ○ 한국의 농경생활에서 파생된 김제만의 고유한 문화를 소개하는 장으로 지역적인 문화를 가장 한국적인 모습으로 특화행사를 마련 대중성과 체험성을 겸비하여 일반적으로 보기만 하는 행사가 아닌 직접 손과 발을 움직여 몸으로 경험할 수 있는 체험꺼리가 가장 많은 축제로서 흥미성과 교육성, 참여적 요소가 강한 축제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음.
- ○ 또한, '마라톤, 궁도, 생활체조, 아시아/전국 줄다리기, 축구, 골프' 등 스포츠를 축제에 접목하여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고 국내외관광객 유치 효과를 거양하여 축제기간 중 100만여 명의 관광객이방문하여 김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고, 지역 농축산물 공동브랜드의 적극적인 홍보 및 판매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음.
- ○ 우리 조상들의 전통 농경문화와 역사유산을 현 세대의 감각에 맞게재구성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쉽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내실 있게 구성하여 관광객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행사장 진입도로변 테마가 있는 허수아비와 황금들녘 코스모스 400리길이 수 많은 외지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어 김제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부각됨.

❑ 개선할 점

- ○ 축제를 통해 지역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발전이라는 거시적인 목표아래 민관이 협력하여 만들어 가는 축제로서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관광객이 보다 편안하게 행사장을 방문하여 즐길 수 있도록접근성을 개선하고, 행사장 내 행사진행, 출연 및 VIP 등 차량통행으로 관광객의 사고 위험성이 상존하여 가능하면 차량통행 금지 등 안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총 평

- ○ 한국의 전통농경문화와 김제 고유의 지역문화를 하나로 빚어낸 김제 지평선축제는 전반적인 프로그램, 기획, 운영, 축제장 기반/편의시설, 홍보 등에서 상당히 안정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음.
- ○ 전통 농경문화와 지역 문화유산을 현대의 감각에 맞게 계승·발전시켜 왔다는 점에서 8년연속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었으며, 짧은기간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냄.
- ○ 5일동안의 행사기간 중 수 많은 관광객들로 인하여 피곤하고 짜증이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프로그램에 배치된 대부분의 진행요원과 자원봉사자들이 항상 미소를 띠고 근무를 하고 있었으며, 특히 교통 통제를 담당하는 자원봉사자들은 밀려오는 차량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관광객을 응대함으로서 김제시와 지평선축제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 하였음.
- ○ 행사장 주출입구 정면에 벽골제 분위기와 맞는 전통한옥의 대형 종합 안내소 신축으로 6면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맞이하고, 읍면동 음식 부스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위생 물티슈를 제작하여무료로 제공 관광객 위주로 행사장 환경을 조성한 점이 돋보였음.
- ○ 지속적인 축제 발전을 위해서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의 틀에서 탈피해 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지역 고유의 특성을 충분히 살려 축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함.
- ○ 앞으로도 지평선축제 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관심,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발전 지향적인 축제로 거듭나고 국내 최대 곡창지대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여 세계적인 축제로 승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함.

㉔ 남원 춘향제

(1) 개 요

❑ **기 간** : 2012년 4월 27일(금) - 5월 1일(화) 5일간

❑ **장 소** : 광한루원, 남원관광지 등

❑ **주 최** : 남원시

❑ **주 관** : 춘향제전위원회

❑ **주요행사**

- 전통문화행사 : 춘향제향/참배, 춘향국악대전, 춘향선발대회, 전통혼례, 창극춘향전, 명인명창국악대향연, 소원등불행렬, 판소리 춘향가 연창
- 공연/전시 예술 행사 : 개막식(식전공연, 기념식, 축하공연), 소원등불전시, 춘향프린지공연(시립국악, 시립농악, 시립합창, 방자어울림마당), 심야퓨전국악콘서트, 폐막식
- 놀이·체험행사 : 춘향시대속으로, 춘향전길놀이, 춘향그네체험/대회, 방자체험구역(목공예, 도예, 짚공예, 판화, 천연염색, 종합공예, 부채), 신관사또부임행차, 다문화사랑체험, 방자마당놀이, 황포소금배/삼다리 체험
- 부대행사 : 전국시조경창대회, 민속씨름대회, 춘향사진촬영대회, 춘향사랑백일장, 그림그리기대회, 남원막걸리체험

(2) 항목별 평가

가. 축제프로그램 완성도

❑ **잘된 점**

- 남원춘향제는 82회라는 역사성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축제로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문화관광축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랜 역사를 가진 축제보다는 신규축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현 시대가 원하는 트랜드를 반영하기에 오랜 역사를 지닌 축제들은 과거의 형식을 변화하기에 구조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관광축제에서 우수

축제 등급을 받은 남원춘향제는 이러한 부분에서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축제방문객들을 위해 체험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축제의 주제를 살린 대표프로그램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조직의 변화를 통해 새로운 시대의 트랜드를 반영하고자 하고 있다.

- 특히 대표프로그램의 경우 기존 남원춘향제하면 생각났던 춘향선발대회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1회성 프로그램이 아닌 축제의 주제와 시대를 반영한 '춘향시대속으로'라는 체험과 공연을 결합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대표프로그램을 안착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 금년 '춘향시대 속으로'는 예년 광한루원 일부공간만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던 공연퍼포먼스 중심에서 광한루 전체를 사용하여 공연퍼포먼스와 함께 상설체험프로그램을 포함한 프로그램 형태로 확대시켜 보다 많은 방문객들이 축제 프로그램을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공연퍼포먼스의 경우에도 예년에는 춘향제임에도 불구하고 극 중 춘향이나 이도령이 등장하지 않고 시대적인 상황만을 재현하였다면 금년에는 극 중 춘향전의 일부를 극화하여 반영함으로서 축제의 주제를 직접적으로 반영한 점도 방문객들이 춘향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 또한 광한루원내에서 이루어졌던 프로그램 중 의상체험 등과 같은 일부 유료프로그램의 경우 엽전으로 환전하여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점도 전통적인 이미지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본다.
- 금년의 경우 처음으로 광한루원 오작교 인근에 수중무대를 설치하여 야간공연프로그램인 '심야퓨전국악콘서트'를 구성한 점도 방문객들을 체류시키려는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광한루원 남문 도로변에서 진행하였던 방자무대의 경우에는 전년 일반적인 무대를 설치하여 각종 공연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나 이러한 부분이 해당 도로를 동선으로 이용하고 있는 길놀이(퍼레이드)를 운영하는데 불편함을 초래하였으나 금년에는 과감히 일반적인 무대형태를 버리고 도로바닥을 그대로 사용한 마당무대를 구성하였다는 점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 축제 대표프로그램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춘향사랑길놀이(퍼레이드)의 경우 전년에 비해 운영횟수를 늘려 보다 많은 방문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한 점과 각 읍면별로 춘향전 12마당을 주제로 퍼레이드를 구성하도록 한 점도 축제의 주제반영과 함께 퍼레이드에 스토리텔링을 시도한 점은 타축제에서는 보기 힘든 차별화된 콘텐츠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 그 외 전년 하천정비 사업으로 인하여 활용하지 못하였던 요천을 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수상무대를 설치하여 개막공연 및 기타 공연장으로 활용하여 축제공간을 집중화함으로써 많은 방문객들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개선할 점

- 전체적으로 전년에 비해 많은 부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시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축제의 주제반영이나 운영면에서 미흡한 부분이 보인 점은 향후 보완, 개선하여야 할 과제로 생각된다.
- 축제의 대표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 '춘향시대 속으로'의 경우 전년에 비해 프로그램의 범위를 확대하여 광한루원 전체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체험과 공연을 묶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나 방문객들이 이를 이해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광한루원내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프로그램이 연계되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인식되지 않고 각자 개별적으로 운영, 진행됨에 따라 '춘향시대 속으로'라는 프로그램을 인지시키는데는 아직 많은 시간과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춘향시대 속으로'의 공연퍼포먼스의 경우에도 예년에는 4개의 공연퍼포먼스를 연결하여 순차적으로 운영, 방문객들이 순서대로 장소를 이동하면서 공연을 관람하는 방식으로 스토리를 부여하였으나 금년에는 스토리의 연계성보다는 각각의 공연을 질적으로 강화하는 부분으로 진행하여 공연과 공연의 연계성이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방문객들이 공연을 관람할 때 공연을 통해 춘향전의 스토리를 이해하고 전체적인 공연을 관람하였을 때 마치 춘향전 한편을 다 읽은 것과 같은 이미지를 심어주는데는 미흡한 것으로 이에 대한 보완을 고려할 것으로 보여진다.
- 또한 금년 광한루원에서 처음 시도한 야간공연의 경우 공연자체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보였으나 광한루원 입구에서 공연장까지 이동하는 동선상에 조명 등을 통한 안내가 부족하여 방문객들이 쉽게 공연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도 향후 개선하여야 할 부분으로 볼 수 있다.
- 특히 도로변에서 진행하였던 방자체험마당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현대적인 체험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전통적인 축제의 주제를 반영하기에는 미흡하였던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부분도 점차적으로 수정, 보완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나. 축제운영의 적절성

❑ 잘된 점

- 전년의 경우 광한루원 일원과 함께 춘향테마파크 인근의 사랑의 광장을 활용하여 축제를 개최, 운영하였으나 중심부에 요천이 있어 축제장이 집중되기 보다는 분리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금년의 경우 광한루원과 요천정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요천을 활용하여 무대를 설치, 운영함에 따라 축제장을 집중할 수 있었던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또한 공연프로그램의 배치에 있어 광한루원내의 공연퍼포먼스, 완월정의 야간공연프로그램, 광한루원 남문 인근의 방자무대, 요천의 수상무대 등 다양한 무대공연장을 구성하여 방문객들이 자연스럽게 공연을 관람하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한점은 어느 한 장소가 아닌 전체적인 축제장을 활성화시켰다는 점에서 적절한 공간 운영사례라 할 수 있다.
- 또한 전년의 경우 광한루원 진입도로상에 야시장이 배치되어 방문객들이 축제장에 진입하기전 풍물장터를 먼저 경험함으로서 축제에 대한 이미지를 저하시키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금년의 경우 야시장을 서문방향으로 옮기면서 축소, 배치함으로서 전체적인 축제장 분위기를 향상시킨 점도 전통축제로 이미지를 반영하는데 긍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 축제홍보에 있어서도 제전위원장을 안숙선명창으로 선정하여 남원지역의 이미지를 상승시킴과 동시에 언론 등 홍보매체에 이슈화를 시킴으로서 축제홍보효과를 배가시킨 점도 전략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된다.
- 또한 전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방자무대를 일반적인 무대구성이 아닌 마당형태로 운영하여 대동길놀이 등 퍼레이드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진행하였으며 공연프로그램도 전통공연 위주로 구성하여 각각의 무대마다 테마를 주었다는 점도 새로운 시도로 볼 수 있다.
- 또한 광한루원내의 경우 현대적인 시설을 최소화 하고 전통적인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전통천막이나 각종 전통 소도구들을 배치하여 구성한 점도 축제의 주제를 살리고 방문객들이 광한루원에 진입하면 마치 조선시대로 들어온것과 같은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개선할 점

- 광한루원내의 공연프로그램과 방자무대, 요천 무대 등 하나의 무대가 아닌 다양한 무대를 배치하여 방문객들에게 여러장르의 공연프로그램을 제공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운영적인 측면에서 공연프로그램의 시간이 중첩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각각의 공연음향으로 인해 충돌이 발생, 방문객들이 공연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향후 공연프로그램의 사간배정에 좀더 세심한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요천을 활용하여 섭다리와 돛배체험을 진행하였으나 날씨 등의 기상여건으로 인하여 운영이 적절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행사장인 광한루원일원에서 요천을 건너갈 경우 춘향테마파크(사랑의 광장) 등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여 방문객들의 이용도가 매우 적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예술회관 공연장에서도 다양한 전통공연이 이루어졌으나 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점도 전체적인 축제프로그램의 활성화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 광한루원에서 진행되었던 '춘향시대 속으로'의 경우 예년과 달리 다양한 프로그램을 묶어 구성하였으나 팜플렛 상에 이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여 방문객들이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체험하기에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 향후 광한루원내의 프로그램 안내를 위한 별도의 리플렛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 특히 광한루원의 주출입문이라 할 수 있는 남문으로 진입하는 방문객들의 경우 진입 후 3방향의 동선이 나타나 어디부터 움직여야 될지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효과적으로 광한루원의 '춘향시대 속으로'를 체험할 수 있는 주동선을 계획하여 방문객들에게 안내표식이나 배치도상의 동선안내 등을 통해 인지시킨다면 보다 효과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광한루원내에 있는 춘향관의 경우 춘향전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전시되어 있어 축제의 주제관역할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전시장내 안내요원의 미배치와 안내부족으로 인해 활용도가 적었던 것으로 보여 향후 축제기간 중에 춘향관을 축제의 주제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다. 축제발전성

❑ 잘된 점

- 금년 춘향제는 축제조직에 있어 효율성과 축제의 발전을 위해 개선하여 기존 춘향문화선양회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춘향제전위원회를 남원시, 민간단체, 선양회 등이 포함되는 조직으로 개선하여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축제를 보다 발전시킬수 있도록 한 점은 축제가 중장기적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제전위원장을 1인체제가 아닌 민간제전위원장과 시장이 제전위원장직을 맡아 공동 위원장제를 시행, 관의 행정적인 지원과 민의 창의성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한 점도 82회라는 전통적인 축제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축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 또한 지역주민의 참여도에 있어 춘향길놀이의 경우 지역의 읍면동이 함께 참여하는 퍼레이드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춘향전의 이야기를 각 읍면동별로 스토리에 맞게 구성한 점도 단순한 참여가 아닌 지역민이 스스로 생각하고 축제의 일원으로 역할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광한루원내에서 진행하였던 전통복식을 착용하고 방문객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주는 춘향전복색퍼포먼스의 경우에도 전문적인 공연팀이 아닌 시민단체와 지역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방문객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주고 행사장내를 수시로 이동함으로써 축제장의 분위기를 향상시킨 점도 시민참여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개선할 점

- 지역주민의 참여에 있어 보다 자율적인 참여를 이끌어 냄과 동시에 축제의 주제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방자체험마당의 경우 지역의 예술단체나 각종 체험관련 기관 및 사업체에서 참여하여 진행한점은 시민참여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춘향제라는 축제의 이미지에 맞는 주제를 반영한 점에서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여진다.
-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방자체험마당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지역민을 대상으로 체험공모를 실시하되 축제의 주제인 춘향의 이미지를 얼마나 반영하였는가, 전통적인 이미지 보유정도 등을 함께 평가하여 선정함으로서 단순한 참여가 아닌 축제의 주제반영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현재 남원춘향제의 경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축제를 통한 효과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축제를 통한 생산성이 어떤 것인지, 축제를 통해 이룩하려고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축제를 기획하고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축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축제를 통한 효과를 증폭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방식에 축제를 통한 경제효과 즉, 생산성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축제장을 찾은 많은 방문객들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이며 무엇을 팔 것 인가를 고민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행정에서의 재정지원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춘향이라는 전국민이 알고 있는 이미지와 지역의 산업과 어떻게 연계할 것이며 이를 축제를 통해 알리고 홍보하면서 방문객들에게 알리고 방문객들은 축제를 통해 개발된 매력적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이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고민하고 연구한다면 보다 발전적인 축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 축제의 성과

❑ 잘된 점

- 남원춘향제를 통해 많은 관광객들이 남원을 찾은 것은 각종 매체나 축제장에서의 방문객 인파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금년의 경우에도 관광객 유치면에서는 성공적인 축제라 할 수 있다.
- 또한 남원춘향제가 남원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이미지와 전통국악이나 예술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상승시키는데 분명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축제의 성과라 할 수 있다.
- 특히 축제의 주행사장이라 할 수 있는 광한루원은 남원의 대표관광지로서 이러한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축제는 지역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본다.

○ 축제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의 추어탕식당이나 한정식식당들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은 것으로 나타나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개선할 점

○ 남원에서는 광한루원 뿐만 아니라 지역내의 많은 관광자원들이 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장과 타 관광자원과의 연계는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물론 행사장내에 허브공원이나 기타 지역의 자원을 소개하고는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관광자원 연계방안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축제기간동안뿐만 아니라 축제가 종료된 시점에서도 방문객들이 지속적으로 남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축제의 파급효과는 문화적, 사회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경제부분을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원춘향제는 주변의 식당이나 상점들을 활성화 시키는 데는 물론 크게 기여하는바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지역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미미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집중, 육성하고자하는 비젼과 축제를 결합하는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중 축제와 연결이 가능한 사업들을 파악하여 이를 축제속에 접목하고 사업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또한 금년의 경우 축제장을 집중하여 광한루원 일원을 중심으로 축제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광한루원에서 요천을 지나 조성되어 있는 춘향테마파크의 경우 축제의 주제를 반영한 주제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축제와의 연계성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행사장이 넓어지면 그만큼 많은 예산과 인원,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이를 연구하여 춘향테마파크를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총 평

○ 제82회 남원춘향제는 예년에 비해 많은 부분 개선을 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인 것으로 보여진다. 축제의 조직을 개편하여 기존축제가 가지고 있던 매너리즘을 탈피하려는 노력과 함께 효율성을 강화한 측면도 전체적인 축제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 또한 축제대표프로그램을 일회성 행사인 춘향선발대회에서 벗어나 광한루원 전체공간을 활용한 '춘향시대 속으로'로 변화시킬려는 노력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 그러나 아직도 방문객들에게 남원춘향제는 춘향선발대회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축제로 인식되고 있는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축제의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노력과 함께 춘향선발대회도 단순히 아가씨선발대회의 형식에 그치지 말고 이를 축제의 홍보마케팅이나 축제장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과거의 경우 축제장에 들어서기 전부터 각설이패와 야시장의 먹거리로 인해 남원춘향제를 느끼기에는 부족하였으나 외지상인의 공간을 축소하고 축제장 진입로 부분을 중심으로 적극 개선하여 남원춘향제의 주제를 살리고 깨끗한 주변환경을 만들었다는 점도 축제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이미지를 표출하는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 또한 '춘향시대 속으로'와 함께 남원춘향제의 대표프로그램인 '춘향길놀이'의 경우에도 남원시 전체 읍면동이 참여하여 춘향전의 12마당을 각 읍면별로 표현하고 공연화 하였다는 점도 남원춘향제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매력적인 컨텐츠로 손색이 없다고 볼 수 있다.
- 향후 남원춘향제를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의 비젼과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지역은 물론 대내외적으로 남원춘향제를 지역을 발전시키는 지역개발형 축제로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 쓰고 소비하는 축제로 인식하지 않고 지역의 문화, 사회적인 효과와 함께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생산적인 축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축제로 발전시킨다면 우리나라에서 손 꼽히는 역사성이 있는 축제로서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㉕ 무주 반딧불축제

(1) 개 요

❑ **주 제** :"반딧불 빛으로 하나 되는 세상"

❑ **부 제(slogan)** : '반딧불이의 빛은 사랑입니다.'

❑ **기 간** : 2012년 6월 8일(금) ~ 6월 16일(토) / 9일간

❑ **장 소** : 무주군 일원

- 반딧골전통공예문화촌, 남대천, 지남공원, 무주예체문화관, 반딧불체육관, 등나무운동장, 반딧불이서식지, 반디랜드, 머루와인동굴 등

❑ **주 최** : 무주군

❑ **주 관** : 무주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전라북도/한국관광공사 등

❑ **행사구성**

○ 공식행사(4종) : 화합의 장『반딧골 군민문화 한마당』, 시가퍼레이드, 개막식(축하마당 등), 폐막식

○ 환경행사(12종) : 반딧불이 신비탐사, 반딧불이 국제 환경심포지엄, 반디나라관(주제관), 반디마실길 전국걷기대회(마실길 탐방), 반딧불이 자연학교, 전국환경예술대전 - 그림그리기, 전국환경예술대전 - 글짓기, 남대천 맨손 송어잡기, 남대천 송어낚시, 남대천 수상레포츠(뗏목타기, 래프팅, 카누 등), 남대천 섶다리 시연, 반디동산 포토존, 문화

○ 문화예술행사(46종) : 반디불꽃쇼, 개·폐막축하 공개방송, 제11회 반딧불 동요제, 제11회 반딧불 가요제(폐막축하 공개방송), 반딧불축제 성공기원 무주 산의실 솟대세우기, 안성 전통낙화놀이, 부남 디딜방아 액막이놀이, 무풍 기(旗)절 놀이, 전라좌도 무주굿 농악, 반디 소망풍등 날리기, 반디컵 전국어린이축구대회, 가족사랑 소극장, 2012. 전국 청소년 비보이댄스 페스티벌, 매직 버블쇼, 무주군 학생태권도 시범단 시연, 온누리 국악퓨전 콘서트, 반딧불 빛나는 숲속콘서트, 중국 기예단 서커스, 주계음우회 찾아가는 가요무대, 평양예술단 콘서트, 영동 난계국악단 연주회, 지평예술단 콘서트, 나니레 푸른 음악회, 마당극『효자전』, 에버그린 관악밴드 콘서트, 부천시 예술단 축하공연, 중국 등봉시 소림사 무술 시연, 반디 한복패션쇼,『더위야 가라』물벼락 거리

페스티벌, KBS개그맨 놀이마당 및 장기자랑, 페이스 페인팅 반딧불이 요정 캐릭터 운영, 무주향교 체험, 조선왕조실록 적상산 사고본 체험, 반딧골 사계 사진 전시회, 반딧골 명승지 시화 전시회, 환경 사진 전시, 산죽 조각배 만들기 체험, 태권도공원 홍보관, 세계문화체험마당, 반디 이동방송국, 반디보금자리(캠핑장), 4D 무비카 체험, 로봇바이크 체험, 열기구 체험, 편익매장(이동카페테리아, 길거리 음식), 야외 반디영화극장

- 민속행사(14종) : 농촌체험마을 홍보관, 7080 추억의 공간(드라마 세트장), 전통공예체험 및 전시관, 머루, 천마, 호두 특산품 전시체험, 반딧불기념품 및 한상품 판매, 삼배짜기 시연 및 체험, 반딧골 전통놀이 체험, 옛 추억의 먹거리 체험, 소망지 소망등 달기, 손수레 끌기 체험, 반딧불 사랑나눔장터, 가축농장, 반딧골 농·특산물 전시판매, 이웃과 함께 하는 사랑 나눔 찻집
- 연계행사(18종) : 반딧불축제와 함께하는 한국사진작가협회 세미나, 국제 건강도시심포지엄, 반딧불축제 현장 자연학습 체험, 반디랜드 및 천문과학관, 머루와인동굴, 제2회 길거리문화제, 3도3군 관광협의회 홍보관, 백제문화권 관광벨트협의회 홍보관, 반딧불이 기차여행, 태권도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 반딧골 전통공예 문화촌 운영, 김환태문학관, 최북미술관 운영, 무주, 진안, 장수 공무원 만남의 날, 게이트볼 친선대회, 김환태문학관, 최북미술관 개관식, 한반도 평화와 안보사진 전시회, 자매도시 소비자 현장체험 마케팅, 5도 화합 친선축구

(2) 항목별 평가

가. 축제의 특성 및 콘텐츠

□ 잘된 점

- 대표프로그램(Killer Contents) 자연 속에서 서식하는 반딧불이를 관찰할 수 있는 '반딧불이 신비의 도보탐사'는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축제의 주제를 잘 반영하고 있음. 또한 도보탐사 코스를 다원화하여 참가자들에게 탐사 기회를 확대하였고, 기상조건 악화로 인해 반딧불이 관찰이 어려울 경우, 다원화된 탐사코스 중 반딧불이 관찰이 용이한 코스를 변경하면서 방문객들에게 최대한 탐사 기회를 제공하였음.
- 도보탐사 코스 이동시 무주군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여 반딧불이와 환경의 상관관계를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여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축제 참가자에게 큰 호응을 얻음. 이러한 노력으로 외지 관광객에게 축제의 주제와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음
- 기상악화와 주간에 축제에 참가하는 방문객을 위해 반딧불이 주제관에 반딧불이 탐사관을 설치하여 살아있는 반딧불이를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였음. 이러한 노력은 축제의 주제성을 높이고, 참관객들로 하여금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었음

- 축제 소재인 반딧불이는 천연기념물 제322호로 지정되었으며, 청정 환경 지표(Barometer) 곤충으로 서식환경이 매우 중요함. 자연속의 산골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무주는 반딧불이가 대량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축제였음.
- 또한 천연기념물인 반딧불이의 교육적 가치와 더불어 동심의 추억을 간직한 정서적 공감대가 축제 소재에 내재되어 축제의 참여매력성을 부각시키고 있음.
- 체험프로그램 차별성 반딧불 축제는 빛을 소재로 한 야간 체류형 축제로서 발전가능성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축제의 소재인 반딧불이가 정적인 이미지와 동심과 추억이라는 요소가 강조됨에 따라 축제로서의 일탈성과 해방성에 부정적 측면이 있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의 축제에서는 축제공간에 빛과 조명을 이용해 화려함과 일탈적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려고 노력하였음.
- 또한 역동적 프로그램인 물벼락 거리페스티벌, 송어낚시놀이 등을 통해 체험중심에서 놀이 중심으로 탈바꿈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며,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음.
- 올해 처음 도입된 신규 프로그램인 또리 & 아로 캐릭터관 및 상품전시, 반디 소망 풍등 날리기, 더위야가라 물벼락 거리페스티벌, 반디보금자리(텐트촌), 캠핑카, 산죽(나뭇잎)조각배체험, 래프팅 & 카누, 어린이페달보트, 반디이동방송국 등을 운영하여 주제성을 강화하였고 놀이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축제의 내·외형적 성장을 이룸.
-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반디랜드, 와인동굴, 작상산성, 안국사 등이 축제장과 셔틀버스로 연결되어 있어 방문객들의 연계관광과 편의를 도모하였음. 반딧불이 신비탐사, 낙화놀이는 대표적 야간형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을 무주에 체류 시킬 수 있는 확실한 프로그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1

❑ 개선할 점

- 반딧불이 도보탐사 시 많은 인원이 야간 탐사에 참여하다보니 탐사장이 매우 소란스럽다는 느낌이 있었으며,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들에게 빛이 없는 탐사코스가 다소 위험 소지가 있음. 탐사 프로그램 시 적정한 인원을 산정하여 참가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었고, 탐사코스 정비를 통해 안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남대천에서 이루어지는 송어맨손잡기 프로그램은 매우 인기가 있었으나, 참가비가 높은 반면 참가자들이 송어를 잡는 확률이 낮음으로 인해 참가 후 프로그램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음. 또한 잡은 송어를 조리하는 기구가 부족하여 참가자들의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짐. 향후에는 참가인원에 적정한 송어량을 확보하고, 참가비에 따른 축제상품권이나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개선방안이 요구됨.
- 개막행사 식전행사인 '소림사 무술시범'의 경우 예정시간보다 공연이 길어져 개막식에 차질이 있었다고 평가되었음. 개막프로그램은 축제의 시작 및 축제의 주제를 알리는 시간인데, 개막프로그램이 그 의미를 잘 살리지 못하였다고 평가되었음. 향후에는 개막식의 시간의 조정 및 개막프로그램의 보완이 요구되었음.

나. 축제의 운영

❑ 잘된 점

- ○ 무주반딧불축제는 민관주도형의 축제로서 축제기간 동안 지역주민 및 지역사회단체, 공무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이 축제 운영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 축제 시기가 무더위가 시작되는 6월인 점을 감안하여 축제장 곳곳에 차양막과 휴게공간을 확보하고, 주 공연장에도 대형 차양막을 설치하는 등 관람객 및 방문객 편의를 위한 수용태세가 잘 갖추어져 전년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였음.
- ○ 축제 주행사장인 반딧골전통공예문화촌, 지남공원 일대의 정비가 완료되어 축제장의 공간구성과 행사운영의 여건이 향상되었음.
- ○ 지역주민, 시민단체, 공무원, 지역대학생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이 축제 운영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축제 기획단계에서 자원봉사자 모집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매뉴얼이 개발되었고, 축제 기간 중 매일 아침 자원봉사자들의 팀 미팅이 이루어져 문제점을 진단하고 피드백을 제공하여 당일 예상되는 문제 및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등 운영에 대한 노하우들이 축적되었음.
- ○ 축제 홍보는 오프라인 홍보와 온라인 홍보로 진행되었으며, 오프라인 홍보는 기존의 홍보아치 대신 전주한지로 제작된 홍보아치를 등으로 제작하여 야간 콘텐츠로서의 기능을 강화하였음. 온라인 홍보는 홈페이지 구축 및 이벤트 진행, 소셜미디어 인 파워블로그 활용, QR코드를 활용하여 홍보 방안을 다각화 하였으며, 특히 축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무주군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활용되었음.
- ○ 축제장 각종시설 내부 및 화장실 청결도가 우수하였으며, 축제 기간 중 청소 운영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수시로 축제장을 순찰하여 청결한 축제장을 위한 노력이 돋보였음.
- ○ 축제가 펼쳐지는 공간과 지역특산품 판매공간, 먹거리 판매공간 등을 분리하여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개선할 점

- ○ 축제가 열리는 장소가 넓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방문객들의 응집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메인프로그램과 상설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방송을 통한 안내체계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함.
- ○ 넓은 주차장의 설치에도 불구하고 많은 방문객들로 축제장 근처에 많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음. 축제장을 연결하는 셔틀버스가 운영되었으나 이용자는 제한적이었으며, 많은 참가자가 도보로 이동하다 보니 방문객들에게 매우 불편하였음.
- ○ 축제공간의 확대와 신설 프로그램 개발 등 축제의 성장에 비해 이를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유인할 싸인물(안내표지판) 부족하였다고 평가되었음. 효율적인 축제장의 정보제공을 위하여 바닥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지만 기대 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했음. 또한 다양한 전시 및 체험행사가 마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발생함.

- 축제 주 공간인 남대천일대 캠핑 프로그램에 예상을 뛰어넘는 캠핑동호인들이 집결하여 과다한 쓰레기가 발생하였고, 혼잡함으로 인해 조리공간 및 식수부족으로 불편함과 친환경적 축제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옴. 또한 남대천 주변 방문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간이 화장실이 부족하였음. 향후 개선이 요구됨.

다. 축제발전성

❑ 잘된 점

- 축제 개최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조화를 이루었고, 무주군의 적극적인 노력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음. 특히 16년간 이어온 축제의 역사성과 문화관광 우수축제 선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축제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음.
- 또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시민 퍼레이드에 약 2,500명이 참여하였고 퍼레이드 구성과 아이디어가 뛰어나 관람객들에게 큰 즐거움과 추억을 선사함. 이것은 지역주민의 참여의지와 협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각 지역단체들의 참여와 서비스 등의 축제 발전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함.
- 축제 대표프로그램인 '반딧불이 신비의 도보탐사'는 매년 참가자의 증가와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음. 이러한 대표프로그램을 보완할 수 있는 놀이와 재미를 살린 역동적 프로그램의 꾸준한 개발과 확대의 노력이 돋보이므로 축제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평가되었음.
- 축제에 대한 육성의지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축제예산 및 행정지원이라 할 수 있음. 축제 행정지원은 무주군 문화관광과와 (사)무주 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의 민관협동으로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축제 예산도 1,043,000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인 901,000천원보다 증액하는 등 육성의지가 어느때 보다 강한 것으로 보임.

❑ 개선할 점

- 축제를 방문한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 관광객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외국인 관광객 모객을 위한 한국관광공사, 아리랑TV, 국내외 여행사 등과 유기적 관계설정 및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수용태세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이 요구됨.
- 올해 축제캐릭터를 활용한 축제 기념품 개발과 판매가 진행되었으나 한계가 있었음. 캐릭터로서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스토리텔링이 전재되어야 함. 반딧불이 캐릭터인 '또리' 와 '아로'의 이야기를 영상DVD로 제작하고, 축제공간도 이러한 이야기를 주제로 구성하여, 축제 캐릭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함.
- 국내 대부분의 축제 참여시장은 수도권에 맞추어져 있으므로 지역 내의 홍보뿐만 아니라 서울 및 수도권에서 직접 홍보하는 전략을 추구하여야함.

라. 축제의 성과

❑ 잘된 점

- ○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원활하였고 축제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에 충분하였음. 국내 최초의 성공한 생태환경축제로서의 위상과 열악한 지역의 산업자원을 극대화하기 위한 촉매제로서 이번 축제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
- ○ 또한 무주군의 관광산업과 농업산업이 축제를 통해 연계되었고, 환경지표곤충인 반딧불이를 주제로 축제를 개최함에 따라 무주군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청정지역이라는 대외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협조로 섶다리, 낙화놀이 등 무주의 전통문화가 복원 및 시연되어 지역문화계승 및 지역 정체성과 함께 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하였음.
- ○ 축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신설로 인해 타 축제의 재미와 감동을 강화하였고 이는 또한 많은 가족단위 방문객들을 유도하는 등 축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음.
- ○ 축제가 개최되는 주 공간에 반딧골 전통공예문화촌이 완공되어 무주군의 문화관광자원이 확대되었으며, 연계프로그램 개발로 지역이미지 제고와 지역주민 문화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개선할 점

- ○ 축제의 주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반딧불이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강화하고, 신규 놀이 프로그램인 송어낚시 등 운영을 효율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 축제 전반에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주도적이지 않다고 판단되었음. 지속가능한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참여주체인 기획단계에서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축제가 되어야함. 이를 위해 무주지역의 민·관·학 주체들의 혁신 네트워크가 선 순환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각 주체기관의 개방형·네트워킹 형 문화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을 통해 지역혁신 거버넌스(governance)가 구축되어야 할 것임.

(3) 종 평

- ○ 무주반딧불축제는 천연기념물인 반딧불이를 소재로 한 국내최초의 생태환경축제로서 국내 축제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상징성을 지니고 있음. 축제가 지닌 본연의 속성인 유희성과 일탈성을 반영하기에도 부족한 면이 있지만 현대축제의 목적인 지역브랜드 강화와 지역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축제가 지닌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가용자원이 열악한 무주군의 경우 축제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크며, 이러한 중요성을 지역주민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축제에 대한 열정적 참여와 더불어 자긍심이 매우 높음을 확인 할 수 있었음.
- 축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놀이형 프로그램을 신규 개발하여 축제발전가능성을 높였으며, 방문객 편의를 위한 축제공간구성, 휴식공간 확보, 차양막 설치 등 방문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세심함이 돋보였음.
- 그러나 향후 축제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축제의 자립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 상인들의 자발적인 협력 체계와 스폰서십 등을 통해 재정자립성의 성과를 매년 높여가는 노력이 필요함.

㉖ 순창 장류축제

(1) 개 요

- ❑ **명 칭** : 순창 장류축제
- ❑ **기 간** : 2012년 11월 2일(금) ~ 11월 4일(일) 3일간
- ❑ **장 소** :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강천산 군립공원 일원
- ❑ **주 최** : 순창장류축제추진위원회
- ❑ **주 관** : 순창군·순창장류축제추진위원회
- ❑ **주요행사**
  - ○ 참여행사 : 2012인분 순창전통 비빔밥 만들기, 2012인분 순창고추장 떡볶이 만들기, 107m 메주 만들기, 순창고추장 임금님 진상행렬, 순창고추장역사퀴즈 맞추기, 장류지도를 완성하라 등
  - ○ 체험행사 : 옛날 순창전통 메주만들기 체험, 웰빙김치 만들기 체험, 장류 체험관 운영, 청국장 쿠키 만들기 체험, 어린이 발효과학 체 험, 장독퍼즐 맞추기 체험, 세계의 매운 고추장 맛보기 체험, 콩알새총쏘기 체험, 옹기 만들기 체험 등
  - ○ 전시행사 : 세계고추품종과 국화꽃 전시회, 장류고을 사진 시화전, 순창 전통장류 전시판매, 함께하는 지방자치단체 홍보, 전시판매전 (논산, 울주, 신안) 등
  - ○ 공연행사 : 개막식, 폐막식, 제9회 순창고추장 전국요리경연대회, 장류체험 관 야외음악회, 마을음악카페, 장류거리의 악사 등
  - ○ 학술행사 : 제8회 장류국제 포럼

(2) 항목별 평가

가. 축제프로그램 완성도

- ❑ **잘된 점**
  - ○ 제7회 순창장류축제가 개최된 전통고추장 민속마을은 오래전부터 우리 전 통 맛을 재현하기 위해 조성된 곳으로 축제 개최에 적합한 인프라가 잘갖추어져 축제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유리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장류체험관과 장류사업소, 절임류 세계화지원센터, 발효미생 물관리센터, 메주공장 등 축제의 전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전통 기와 집과 민속마을은 물론 다양한 현대식 R&D시설까지 갖추어 축제를 통해 발효식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기에 적합하였음.
- "천년의 맛, 전통의 멋, 건강의 꿈"을 주제로 펼쳐진 이번 축제에서는현대인들의 관광욕구에 걸맞게 순창고추장에 대한 전설을 스토리텔링으로 프로그램화하였고, 관광객들에게 순창고추장의 우수성과 역사성을 자연스 럽게 인식시켜 줄 수 있었음.
- 또한, 2012명분의 비빔밥 만들기 퍼포먼스는 순창장류축제의 대표적인 킬 러 콘텐츠로 자리잡아 각 언론사의 큰 관심을 끌었고, 내·외국인 관광객 들에게도 흥미를 끌어 축제 홍보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음.
- 뿐만 아니라 2012인분 순창고추장 떡볶이 만들기나 107m 메주 만들기 프로그램 은 어린이와 젊은 세대의 축제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던 참여형 단위행사로 호응 도와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비교적 높았다는 평가를 받음.

❑ 개선할 점

- 축제장의 인프라 구축은 훌륭하였으나 관광객들을 전통고추장 민속마을곳곳으로 흡입할 수 있는 유도동선 구조가 다소 미흡하였음.
- 예를 들면, 주 행사장인 메인무대와 기업체 체험부스에는 매시간 혼잡할 정도로 붐볐으나 보조무대가 설치되어 있는 마을 안쪽에는 한산할 정도였 음. 따라서 마을 안쪽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의 집객력이 낮을 수 밖에 없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관광객들의 축제장 체류시간을 단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었음.
- 따라서, 메인무대중심의 시간할당형 축제 운영보다는 공간할당형 축제운영을 통해 관광객들의 축제장 체류시간 연장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장류체험관이나 장류사업소 등과 같은 훌륭한 시설에서 관광객들이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곳까지 관 광객들을 유도 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였음.

나. 축제운영의 적절성

❑ 잘된 점

- 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축제의 홍보를 위해 서울 인사동과 광주 충장거리에서 임금님 순창고추장 진상행렬을 재현함으로써 순창장류축제의 인지도는 물론 대도시민들의 장류축제참여욕구를 높여 순창군의 관광효과를 제고시켰다는 평가를 받음.
- 행사장 안내체계는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었음. 즉, 축제장으로 가는 주요 간선도로나 고속도로 나들목에 축제안내센터를 설치하여 관광객들의 접근 편의성을 높였으며, 축

제장내에도 행사장 안내판을 적절히 배치하여 관광객들이 효율적으로 순창전통고추장 민속마을을 둘러볼 수 있게 배려하였음.

- 축제기간이 단풍이 절정인 시기인 점을 고려하여 이웃해 있는 강천산 도립공원 방문객들을 축제장으로 유치하기 위해 연계홍보를 강화하였고, 섬진강 마실길 걷기 동호인 및 코레일 여행객을 대상으로 축제홍보를 전개함으로써 순창군 관광의 효과를 크게 제고시킴.
- 또한, 섬진강 마실길 걷기 동호인들에게 쿠폰을 제작하여 이를 축제장 방문시 먹거리 장터나 각종 체험 행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축제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한 것은 독창성이 높은 기획이었다는 평가를 받음.
- 축제에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문화예술동아리 회원들의 민속마을내 상설공연을 진행하였다든가 자수, 한지공예, 가죽공예 등의 체험행사를 진행한 점, 민속마을내 주민 음악카페를 운영한 점 등은 돋보인 기획이었음.

❑ 개선할 점

- 순창장류축제는 다른 테마의 축제와는 달리 관광객들이 음식을 통해 우리 전통 맛의 의미와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축제장인 전통고추장 민속마을에는 이러한 장류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음식점이 없었고, 축제장 내에 마련된 먹거리 장터에서도 어느 축제장에서나 맛볼 수 있는 음식이 판매됨으로써 장류축제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였음.
- 순창장류축제 추진위원회에서는 기업체와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이들이 축제장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하여 축제경비를간접적으로 지원받고 있었음. 그러나 행사를 담당하는 기업체가 축제장의 많은 공간을 확보하여 자사제품의 광고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지나치게 축제를 상업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었음.
- 따라서, 기업체 지원범위를 가능한 축소하고, 추진위원에서 실행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수준을 향상시켜 이를 통해 경영수익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함.
- 한편, 이번 축제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 중 하나는 2012명분의 비빔밥 만들기 퍼포먼스였다고 할 수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관광객들은 상당한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었음. 따라서, 이와같이 관광객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은 토, 일요일 각각 1회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다. 축제발전성

❑ 잘된 점

- 순창 장류축제에서는 축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축제재정의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음. 그 중 장류관련 기업체가 축제장에서 축제정

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직접진행하였음. 이러한 방법은 기업체가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진행하지만 않으면 축제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매우 바람직한 시도라 할 수 있음.

- 이런 면에서 순창장류축제는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물게 실질적인 민간주도형 축제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음.
- 장류는 우리나라의 음식을 대표하는 고추장, 간장, 된장은 물론 김치 등 발효음식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K-Pop열풍과 한류열풍은 장류와 같은 우리 전통 발효음식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을 실현할 수 있는 축제테마로 부상될 수 있음.
- 또한, 순창장류축제추진위원회에서는 축제를 통해 우리 발효음식의 세계화를 추구하기 위해 장류와 연관성이 높은 소금(전남 신안군), 발효젓갈(충남 논산시), 옹기(경남 울주군)등을 연계하는 축재를 추진함으로써 좋은 호응을 얻었음. 즉, 이들 3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축제를 홍보하고 특산물을 판매함으로써 순창장류 판매의 저변확대는 물론 축제 시너지를 극대화시킴으로써 향후 발전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음.

❑ 개선할 점

- 순창장류축제는 지역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전통고추장 민속마을에서 진행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사실감을 높이고 장류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크게 도움을 주고 있었음. 그러나 민속마을내 일부 장류생산 민가에서는 관광객들에게 호객행위를 함으로써 이러한 신뢰감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었음.
- 또한, 민속마을내에 건립되어 있는 장류체험관은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상태가 크게 양호하지는 않은 상태였음. 따라서, 강천산 도립공원을 찾고 있는 관광객들이나 순창군 방문 관광객들에게 숙박시설 및 체험시설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음.
- 순창장류 축제기간에는 "콩 산업과 장류의 전망" "순창장류국제포럼"과 같은 학술행사가 진행됨으로써 관광객들은 발효식품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결과에 관심을 보였음. 그러나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할 만한 연구결과를 전혀 홍보하지 않아 학술행사의 의미가 축소되고 있었음.
- 따라서,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순창장류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강화해 나가야할 필요가 있음.

라. 축제의 성과

❑ 잘된 점

- 제7회 순창장류축제는 "울주 옹기에 신안소금으로 순창배추를 절임하고, 강경젓갈과 순창의 고춧가루와 농산물로 양념한다"는 말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사성 있는 지자체

축제의 성공적인 협력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음. 이러한 노력은 지자체 축제의 공동홍보 및 축제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 수요자 중심의 축제를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관광 축제가 지향하고 있으나 아직도 실제적인 축제 운영에 있어서는 많은 축제들이 의전과 형식을 중시하는 관주도형 축제의 전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이번 순창 장류축제에서는 개막식 및 각종 프로그램 진행시 주요 내빈들의 인사말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개막식의 초청 대상자 소개를 영상이미지 및 짧은 객석 인터뷰로 대신함으로써 전시행정의 틀을 벗어나려는 노력을하였다는 평가를 받음.
- 순창장류축제 추진위원회에서는 이번 축제기간동안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을 약 18만명으로 추계하였으며,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약 60억원인 것으로 분석하였음. 이러한 축제성과 외에도 축제를 통해 순창군의 관광 인지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음.

❑ 개선할 점

- 순창발효축제가 지속가능한 성장 축제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 속마을 장류업체의 자율적인 축제참여가 우선되어야 함. 그러나 민속마을 의 장류업체는 상호 경쟁적인 관계에 놓여 있어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고깨끗한 민속마을 이미지를 주기 위한 노력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음. 따라 서 축제 추진위원회에서는 축제를 통한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함양 교육과 프로그램의 적극적 참여 운동 등과 같 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함.
- 순창 장류축제 추진위원회에서는 이번 축제의 주제를 "천년의 맛, 전통의 멋, 건강의 꿈"으로 정하여 추진하였으나 건강을 부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였음. 따라서, 순창 발효음식의 우수성과 건강과의 상관성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음.
- 그리고 전통고추장 민속마을의 축제인프라의 활용성면이나 축제경비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현재의 축제기간인 3일간을 4-5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3) 총 평

- 순창 장류축제는 기업체의 협찬 프로그램을 통해 축제재원을 간접적으로 확보하여 재정자립도가 높고, 한류의 확산 등 한국 전통 맛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그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축제라 할 수 있음.

- 또한, 순창 장류축제는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의 지역개발사업과 소프트웨어 중심의 축제를 잘 융합함으로써 개발의 시너지를 높이는 성공적인 모델축제라 평가할 수 있음.
- 순창은 이미 전국적으로 고추장의 고장으로 명성이 널리 알려진 고장임.장류축제도 이러한 고추장의 명성을 통해 판매를 확대하고 장류를 군의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축제를 시작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순창고추장의 명성을 축제명칭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 순창군의 대표브랜드인 고추장을 널리 알리는데 축제가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일반적으로 축제의 명칭은 외지 관광객들이 축제의 명칭만 보고도 자신이 그 축제에 참여하여 어떤 행동과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연상할 수 있어야 관광유발성이 큼. 그러나 아름답고 추상적이며 관념적인 축제명칭은 듣기에는 좋지만 관광객들에게는 어필할 수 있는 효과가 크지 못하므로 현재의 "순창 장류축제"를 "순창 고추장 축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㉗ 강진 청자축제

(1) 개 요

- ❑ **기 간** : 2012. 7. 28.(토) ~ 2012. 8. 5.(일)
- ❑ **장 소** : 강진군 대구면 청자요지 일원
- ❑ **주 제** : 흙·불 그리고 인간(土·火 & 人).
- ❑ **주 최** : 강진군
- ❑ **주 관** : 강진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
- ❑ **주요행사** : 6개 분야 100개 단위행사

  의식(3), 기획(19), 전시(10), 공연(10), 체험(27), 부대행사(31)

구 분	종목 수	행사내용
의식행사	3개 부문	무명도공기원제, 개막식, 폐막식
기획행사	16개부문	강진청자 국제심포지움, 대한민국 청자공모전, 『강진청자 교류와 소통』특별전, 전국 대학생 물레성형 경진대회, 전국 어린이 점토빚기 경진대회, 국제·국내 도예작가 워크숍, 명품청자 할인매장 운영, 대한민국 현대 청자 특별전, 청자일일 교실 운영, 화목가마 본벌 요출 및 즉석경매, 명품청자 할인 매장 내 이벤트 존 운영, 청자 토요경매, 희망의 불꽃 화목가마 불 지피기, 전국 사진촬영대회, 전국 어린이 강진청자 동요제, 전국 청자백일장대회,
공연행사	15개 부문	강진청자 편종 연주회, 고려왕실 행차 퍼레이드, 광주 KBC 개막축하쇼, 군민 화합(위로) 및 내년축제 성공기원 공연(폐막공연), 외국인 초청 낭만콘서트 (마량항), 평양 예술단 및 중국기예단 공연, 청자골 청소년 락페스티벌(아이돌 그룹 공연), 해군 군악대 공연(해군의장대 시범 병행), 강진 노인대학 공연, 추억의 7080 청자음악회(특별공연), 서울시 무용단 공연, KBS 빛고을 차차차(라디오), 사회적 기업 사)행복문화사업단 공연, 관내 음악 동아리 공연, 은빛 하모니 악단공연

구 분	종목 수	행사내용
체험행사	26개 부문	화목가마 불지피기 체험, 청자 지압타일 체험(휴게 쉼터 병행), 물레 성형하기, 청자상감 체험, 청자 도판찍기, 청자 조각하기, 청자 코일링 체험, 청자파편 모자이크, 전통옹기 제작 시연 및 체험, 나만의 청자 풍경(鐘) 만들기, 고려청자 문양탁본, 닥터 피쉬 체험장 운영, 얼음의자 체험, 폐농기계 로봇타기 및 체험, 청자문양 페이스 페인팅 및 네일 아트, 봉숭아 손톱물들이기, 고려청자 종이접기, 고려촌 민속체험, 바지락 캐기, 바다낚시 및 통발어업 체험, 갯벌낚시 및 개매기 체험, 청자촌 고려국 말타기, 청자문양 티셔츠 물들이기,청자보물선 온누비호 및 강진옹기배 승선체험, 청자축제 캐릭터 만들기
전시행사	10개 부문	대형 청자 조형물 설치,다산 정약용 탄생 250주년 기념 특별전,국제 도예작가 작품 초대전,명품 포토존 조성,전국 대학생 도예 작품전,대형 청자등(燈) 전시(명품 포토존과 연계), 강진청자 외국순회전 사진 전시,대형 청자 매·주병(5m) 전시(광고용), 청자 종이등(燈) 만들기 공모전,청자와 한지의 만남
부대행사	30개 부문	향토음식관 운영,물놀이 체험장 운영, 축제장 인터넷 생중계 운영, 청자골 전국 국악경연대회, 2012 청자배 전국공무원 야구대회, 청자와 함께하는 방범연합회 화합 한마당 큰잔치, 분재 전시회, 야생화 전시회, 산들애 야생화 전시 및 판매, 청자골 사생대회, 차와 음악의 향연, 전통차 예절겨루기(다산명전), 테마가 있는 허수아비 촌 조성, 향토물산 특별전, 자매결연 자치단체 특산품 전시판매, 자랑스러운 향우와 함께, 강진 문화유적지 투어, 전통 혼례식, 인기 연예인 팬 사인회 및 관광 홍보, 한방 건강증진 체험관 운영, 관광상품 판매전 운영, 바람개비 동산 조성, 한국 전통 민속놀이 한마당 공연, 풍물놀이(민문협), 다문화가정 한마당 잔치, 전국 실버댄스·체조 경연대회, 김옥애작가 팬 사인회
계	100개부문	

(2) 항목별 평가

가. 축제의 특성 및 콘텐츠

❑ 잘된 점

○ 강진청자축제는 청자의 발상에서 쇠퇴기까지 약 500여년간 청자문화를 꽃피운 강진군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홍보하고 지역의 문화적인 기반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지역

에 유치함으로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최되고 있는 축제이다. 특히 강진에서는 우리나라 국보, 보물급 청자중에서 약 80%가 만들어졌으며, 전국적으로 발견된 400여기의 옛가마터중에서 200여기의 가마터가 강진에 현존하고 있을 정도로 청자의 집산지로 알려져 있다. 강진청자축제는 이라한 역사적 배경에서 출발하였으며, 이러한 지역적 배경이 프로그램으로 표현되고 있는 축제이다.

- 강진군이 청자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던 것은 해상교통의 발달과 더불어 다른지방에 비해 양질의 흙, 연료, 수질, 기후 등 청자의 생산여건이 적합하였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인 특성을 재현하고자 해마다 개최되고 있는 강진청자축제는 올해 40회의 축제로 개최되었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로 성장하여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 올해의 강진청자축제 프로그램에서는 청자 대중화 여건을 확충하기 위하여 청자관련 체험프로그램을 강화시켰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청자관련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19종에 달하는 신규 확대를 추진하였다. 청자축제의 대표프로그램으로 청자일일교실을 새롭게 도입하여 이곳에서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청자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도록 하였고, 학교 프로그램과 연계를 통해 청자를 생활화 하고자 시도하였다.
- 청자일일교실은 청자 대중화를 위한 여건을 확충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단국대 도예과 교수 및 연구원으로 구성된 강사진은 청자감상법, 청자의 역사, 청자의 원료 청자장식기법, 청자물레성형, 상감기법 시연, 청자성형체험 등 청자에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강의하여 관광객들로 하여금 청자를 정확히 인식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운영시간은 1시간 30분씩 하루 3차례 이루어졌으며, 이론 강의와 체험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관광객들이 흥미를 갖고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축제의 주제를 명확화 할 수 있는 좋은 컨텐츠였다고 평가되었다.
- 또한 청자를 대중화하기 위하여 축제기간동안 각종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전국 대학생 물레성형 경진대회, 전국 어린이 점토 빚기 경진대회, 전국 대학생 도예 작품전, 전국 청자 백일장대회를 개최하였다. 청자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청자축제기간동안 전국 어린이 강진청자 동요제, 청자골 전국 국악경연대회, 2012 청자배 전국공무원 야구대회, 청자와 함께하는 방범연합회 화합 한마당 큰잔치, 전통차 예절겨루기 등 참여프로그램도 운영하였다. 이러한 전국적인 경연대회 개최를 통해 방문객들이 청자축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하였으며, 청자에 대하여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의 위상에 걸 맞는 축제를 만들기 위하여 국제적인 프로그램을 확대하였고, 외국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하였다. 우선 국외 국내 유명 도예작가를 초청하여 관광객 및 도예전공 학생, 관광객들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강진청자 국제 심포지움도 개최하였다. 아울러 청자박물관 개관 15주년을 기념하여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함으로써 강진 청자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강진 청자의 우

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어 강진 청자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대한민국 청자공모전을 개최하였고, 강진청자 교류와 소통, 특별전을 통해 강진, 부안, 해남 등 대표적 청자생산지 유물의 비교 전시로 고려청자의 생산과 유통 등 학술적 성과 달성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청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대한민국 현대 청자 특별전을 개최하여 국내작가 20명 내외의 작품을 대여받아 특별전시 함으로써 국내에 강진청자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축제를 통하여 청자축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도예문화원 기획전시실에서는 작가 10명의 작품을 전시하여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도자기에 대한 국제적인 안목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강진청자축제의 국제적인 교류확대 기회를 갖고자 하였다.

- 외국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축제기간 중 토요일 마량항 특설무대에 외국인 초청 낭만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개막식에 참여한 초청 외교관, 외국인과 가수, 관광객들이 함께 모여 추억의 밤을 만들게 되는 기회였고 다시 찾고 싶은 강진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되었다.
- 강진군에서는 축제의 연계관광을 위하여 문화유적지투어 뿐 아니라 각종 어촌체험, 마량항에서 이루어지는 온누비호 승선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을 준비하였다. 이를 위해 축제장 입구에 9개의 농어촌체험마을을 소개하는 게시판을 부착하였으며, 문화유적지 투어를 할 수 있는 교통편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역 연계 프로그램들의 개발은 방문객들의 체류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개선할 점

- 『흙, 불 그리고 인간』이라는 슬로건이 올해의 축제 주제였다. 그러나 축제장에서는 방문객들이 주제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의 개발이 미흡하였다. 더구나 올해의 축제에서는 대표축제답게 100여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지만 주제로 표현한 핵심프로그램이 무엇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없는 아쉬움이 있었다. 축제의 프로그램은 당해의 주제에 따라 해마다 변화해야 한다. 축제의 주제가 변화하듯이 프로그램도 변화를 해야만 방문객들의 애호도를 높일 수 있고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당해연도 축제의 주제를 프로그램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해마다 핵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 강진청자축제 방문객들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축제 프로그램일 것이다. 그러나 축제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행사내용이 재미있다」.「행사내용이 다양하다」 그리고 「직접 참여하는 체험프로그램에 만족한다」는 프로그램과 컨텐츠에 대한 만족도가 14위, 12위 그리고 11위로서 다른 만족도 요소보다 매우 낮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모든 항목에서 평균값이 5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강진 청자축제의 방문객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그리 높지 않다고 해석되어 진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서는 전시형, 교육적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 유희적인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다양하지 못한 결과였다고 평가된다. 향후에는 가족단위 체험프로그램과 일탈성과 유희성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 성공적인 축제 개최에는 지역의 문화자원과 연계하는 관광프로그램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 강진청자축제에서 연계관광이 보다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농어촌체험마을 협의회에서 축제기간 중 마을 특산물 판매와 더불어 마을 체험프로그램과 민박을 안내해줄 수 있는 부스가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각 마을에서의 참여가 어렵다면 위임을 받은 체험마을 협의회에서 각 마을의 정보를 방문객들에게 제공해 준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둘째, 축제기간 동안 방문객들이 방문할 수 있는 별도의 관광안내지도를 만드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관광안내지도는 축제기간 각 마을이나 관광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축제기간 중 개최되는 프로그램과 아울러 민박가격, 체험프로그램 내용 등을 별도로 만들어 축제기간 중 강진군의 구석구석을 둘러볼 수 있도록 「강진청자축제 방문지도」를 만들었으면 한다. 별도로 지도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축제 리플렛에 이러한 내용이 수록되어야 할 것이다.
- 축제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프로그램의 수가 너무 많다고 평가된다. 향후에는 축제의 전문화와 특성화를 위하여 축제의 주제와 관련이 적은 프로그램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대표적으로 전국어린이 동요제, 전국청자백일장 대회와 같은 프로그램은 축제 참가자수의 증대를 위한 방안이라고 판단되지만 축제의 전문성의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재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프로그램의 수가 많다보니 프로그램의 하나하나가 차별화되지 못하였고 특화되지 못한 원인이 된다고 평가된다. 향후에는 프로그램의 수가 많기보다 적은수의 프로그램이지만 대형화, 차별화가 바람직 할 것이다.
- 또한 축제장에서 운영되는 많은 공연행사들은 고비용 저효율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평가된다. 강진청자축제장에서 편성된 많은 공연행사들은 지역의 문화를 표현하기보다 출연료를 지불하고 축제장에서 공연토록 초청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역의 문화를 경험하기 위하여 지역을 방문한 외지 방문객들에게는 흥미를 끌 수 없었다고 평가된다. 평양예술단 및 중국기예단 공연이나 해군군악대공연, 그리고 서울시 무용단 공연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공연의 내용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위안잔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축제장의 공연은 최소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역의 문화를 공연으로 표현하는 프로그램들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지역축제는 종합적인 축제보다 방문객들에게 강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들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나. 축제운영의 적절성

❑ 잘된 점

- ○ 청자축제가 올해 지향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축제를 통해 지역소득을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축제를 만들어 명실상부한 경영형 축제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명품청자 할인매장 규모를 전년대비 150% 확대 하였으며, 부대시설을 확충하였다. 할인매장 내에서는 청자박물관 및 개인요에서 생산된 작품을 전시 및 판매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청자를 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경영축제에 기여하기 위해 축제기간 내 30% 할인 판매를 실시하였다.
- ○ 강진군에서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올해 청자박물관 앞 주차장을 관통하는 실개천(160m×1m) 쉼터를 조성하는 한편 친환경 넝쿨터널, 소규모 청자 연못 조성, 닥터피쉬 체험장, 얼음의자 체험장, 청자 지압타일 체험장, 물놀이체험장 등 관광객 위주의 편의시설 및 휴게공간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 ○ 홍보차원에서는 아리랑 국제방송, AFKN, 주한 외신사 등 외국인 모객 전문 업체와 계약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였으며, 금년 3월 일본 오사카에서 문화관광축제 해외설명회에 참가하였다. 동시에 영문, 일문, 중문언어로 된 포스터 및 리플릿을 제작하여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22개소, 인바운드 여행업체에 배부하여 축제를 외국에 적극 홍보하고자 노력하였다.
- ○ 축제장 안내를 위하여 강진군에서는 진행본부, 축제장입구 2곳, 터미널, 동교후문, 성전 연대 앞 등 7곳에 축제안내소를 설치하여 관광객을 안내하였다. 또한 강진군민의 축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버스터미널 앞 상가건물에 대형 안내프로그램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등 축제안내시스템이 대폭 개선하였다. 또한 축제장 입구와 중앙부분에 축제프로그램을 알아볼 수 있는 무인안내시스템을 신설하였고, 대형 안내판이 설치되어 방문객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청자체험장, 청자교실, 물놀이시설 등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안내해주는 표시판도 축제장내에 대폭 보강하였으며, 이러한 홍보의 노력은 방문객들의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 개선할 점

- ○ 축제장내에 청자를 판매하는 업소가 여러 곳이 있었으나 이 업소들에는 대부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지 않았다. 물론 명품청자 할인매장을 통해 관광객들이 청자를 구입하도록 유도한 측면은 있었지만 기존의 도예인들도 자발적으로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제방문객들이 기존 판매장도 방문하여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동선을 유도하는 방안모색이 필요하였다.
- ○ 도예문화원에서 각종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지만 축제기간동안 전면부 광장은 활용되지 않고 있었다. 향후에는 관광객들의 동선확보를 위해서도 광장활용은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특히 관광객들의 발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광장에서도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특히 고려청자가마터, 청자체험시설 같은 기존 시설물들에 대한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 축제가 여름철에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동적인 프로그램에 방문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축제장 환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향후에는 방문객들의 이동공간에 차광막 설치와 더불어 곳곳에 쉼터를 만들어준다면 이동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 축제장은 서문, 남문, 동문 등 총 3개의 출입구가 있다. 과거에는 서문이 주 출입구였다면 지금은 남문이 주출입구로 되어 있었다. 남문으로 오게 되면 축제장 접근성이 좋을 뿐 아니라 주차장이 넓고 청자 할인매장이 가까워 관광객의 이용률이 높은 편이었다. 셔틀버스 및 대형버스도 남문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축제기간 이외에는 서문이 주출입구이지만 축제기간 중에는 남문을 주출입구로 가상하고 부스 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서문과 남문을 통해 관광객의 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남문을 중심으로 동선 확보 및 프로그램 진행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 축제발전성

❑ 잘된 점

- 강진청자축제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강진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와 강진군청 문화관광과 축제팀의 두개의 축으로 기획되고 운영되고 있었다. 강진군 향토축제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진군 문화관광과 축제팀은 팀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무원과 민간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원화된 축제조직은 공무원 조직과 민간조직들이 가지는 단일조직의 위험성을 배제한 형태로서 축제 운영에서 좋은 조직의 모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축제장과 인근 지역에 조성된 주차장 시설은 방문객의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충분한 기능을 담당할 정도였다. 축제장의 물리적 환경의 조성은 축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단체장의 관심과 추진력이 담보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요소이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강진청자축제발전을 위한 단체장과 추진위원들의 관심은 매우 높다고 평가되어 진다.
- 축제장의 입장료를 징수하는 시스템은 축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좋은 시도였다고 평가되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축제장에서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도 무료로 입장하고 있는 것이 대세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축제장 입장료를 징수한다는 것은 모험일 수도 있고 방문객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축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언제까지 무료로 축제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올해 강진청자축제에서는

입장료를 3,000원씩 징수하였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축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매우 바람직한 결정이었다고 평가된다.

❑ 개선할 점

- 청자축제가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청자판매뿐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판매확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축제장에서 청자판매에 집중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농수산물의 판매확대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에도 기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올해 축제기간에는 향토농림축수산물 특별전이라는 형태로 농산물 판매가 이루어졌다. 농특산물 판매코너에는 주로 농산물가공품이 판매되었는데 음악분수 옆에서 판매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농수산물 판매확대를 위해서는 올해와 같은 단순 전시형태에서 벗어나 향후에는 장터의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 청자와 청자축제가 한국의 대표적 관광상품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야 하지만 이제는 축제의 자생력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평가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축제의 수익성을 중시하는 방향, 즉 지속가능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청자축제를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소득 창출에 축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축제의 초점으로 맞추어야 할 것이다. 물론 청자라는 기본 컨셉은 유지하되 청자축제가 청자를 만드는 도예인들의 수익뿐 아니라 강진군 주민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라. 축제의 성과

❑ 잘된 점

- 축제기간중에 명품 청자 할인매장 내에 이벤트 존을 시범운영하였다. 이곳에서는 매일 12시부터 2시간 간격으로 명품관 입장객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5만원 청자 상품권 지급, 1일 5회, 회당 4명)을 실시하였으며, 소품 및 생활자기 위주로 즉석경매를 진행하였다.(1일 1회, 15:00 전후). 또한 다기세트 등 정형화된 상품 정가의 50%를 세일(1일 1회)하는 폭탄세일을 실시하여 관광객들에게 청자구매를 유도하였다. 특히 매주 토요일에는 전국 유일의 강진 판요와 전남 도예작가가 제작한 청자를 관광객을 대상으로 경매행사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금년 청자축제에서 쇼핑비가 1인당 34,130원으로 조사되었다. 이 수치는 2011년 3,510원에 비해 약 10배의 수치에 해당하고, 2010년 10,980원에 비해서도 3배의 수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판매성과는 올해 청자축제가 경영형 축제로 나가는 기반을 구축한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강진청자축제기간동안 축제장을 방문한 사람들은 외지 방문객 796,874명과 강진군민

17,093명 등 총 813,967명으로 집계가 되었다. 축제장 방문객들은 1인 평균 108,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강진군 자체평가보고서), 강진청자축제의 직접적인 경제효과는 약 636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강진청자축제가 지역경제발전에 많은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강진청자축제가 지역발전에 가장 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개선할 점

- 축제방문객들의 충성도를 담보하고 축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축제 프로그램의 끊임없는 변화가 요구된다. 축제장의 방문객들은 해마다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선한 자극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축제성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다른 축제장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서 다른 이미지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프로그램 측면에서도 해마다 신기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리뉴얼해야 할 것이다.
- 축제장 방문객 만족도가 2011년의 4.71에서 2012년에 5.05로 상승하였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다른 축제들에 비하여 방문객의 만족도가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평가된다. 왜냐하면 강진청자축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이다 보니 그만큼 방문객들의 기대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의 강진청자 축제에서는 방문객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였다고 하나 방문객들이 평가한 만족도는 평균값이 4.97로서 13위로 나타나고 있음은 축제관계자들이 깊이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방문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야만 애호도를 가지게 되고 또한 긍정적인 추천과 재방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향후에는 보다 높은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위하여 축제장 서비스 환경과 수용태세 개선에도 높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3) 종 평

- 2012년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9일간 전남 강진군 대구면 고려청자 도요지 일원에서 "흙, 불 그리고 인간"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40회 강진청자축제는 청자라는 지역의 문화를 소재로 개최된 산업형 문화관광축제로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 총 6개 분야 100개 단위행사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명품청자 할인매장운영, 대한민국 현대청자 특별전, 청자 일일교실운영, 화목가마 본벌요출 및 즉석경매, 청자토요경매, 그리고 희망의 불꽃 화목가마불지피기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올해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 축제기간동안 813,967명이 축제장을 방문하였고, 축제장 방문객 1명의 평균 소비액이 108,000원을 기록함으로서 직접적인 경제효과가 약 636억원을 기록할 정도로 성공적

인 축제를 개최하였다고 하나 향후 명예대표축제로의 진입과 더불어 축제의 지속가능성과 그리고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과제를 극복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축제 프로그램에서 강진 청자축제를 이미지화 할 수 있는 대표프로그램으로 Killer Content를 발굴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국내외의 축제를 살펴본다면 대표적인 핵심프로그램들이 유희성과 일탈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므로 강진 청자축제는 청자를 소재로 지역주민들과 방문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일탈성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축제 방문객들의 만족도 제고와 애호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환경의 차별화가 요구되고 있다. 현재 강진청자축제는 축제를 개최하기위한 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다고 평가되지만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방문객 수용태세의 정비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특히 축제장을 방문하는 계층이 대부분 도시민들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민들의 눈 높이에 맞는 서비스 환경의 정비가 요구된다. 넷째, 축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전문인력의 양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군청에서 민간인 전문가를 양성하거나 축제 사무국내에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축제는 하루아침에 발전할 수 없다. 외국의 유명한 축제들이 발전해 온 과정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축제관계자들은 단기간에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 조급하게 서두는 것 보다 10년 후 20년 후의 축제를 생각하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㉘ 담양 대나무축제

(1) 개 요

- ❑ **기 간** : 2012년 5월 1일(화) - 5월 6일(일) 6일간
- ❑ **장 소** : 죽녹원(죽향문화체험마을) 관방제림일원
- ❑ **주 최** : 담양군
- ❑ **주 관** : (사)담양대나무축제위원회
- ❑ **주요행사**
  - ○ 공연행사 : '죽물시장 가는 길'재현, 개막식, 폐막식, 군민의 날 행사, 전통혼례(다문화가족), 축제여는마당(대나무 타악), 가무악(대나무의 신비), 방과후 뽐내기, 꿈나무디자인패션쇼, 최광일퓨전난타, Asia bamboo'중국'
  - ○ 체험행사 : 대소쿠리 물고기잡기, 대나무 활쏘기, 대나무 죽마놀이, 대나무 수상자전거 타기, 대소쿠리배 타기, 대나무 뗏목타기, 대통술 담그기, 대나무 곤충 만들기, 대나무 악세서리, 대나무 부채 만들기, 대나무 밀랍초 만들기, 대나무 도자기 만들기, 대나무 페인스 페인팅, 대나무 맥주 시음 및 판매, 운수대통 소원패 및 소원지 달기, 대나무 마당놀이 체험, 죽제품 체험 및 시연, 대나무 엽서 보내기, 명품숲길 휴(休) 체험, 묵죽도 만들기, 죽로차 시음, 전국 꽃차전시, 대나무 문화예술
  - ○ 전시행사 : 대나무 신산업관, 친환경 농·특산품관, 대나무 죽물시장, 친환경 농업전시관, 대나무 생태환경 체험관, 대나무 분재전시, 건강홍보관
  - ○ 판매행사 : 대나무 향토음식점, 다문화 음식체험관, 토속먹거리
  - ○ 부대행사 : 전국 꽃차전시, 2012 대나무 박람회

(2) 항목별 평가

가. 축제프로그램 완성도

- ❑ **잘된 점**
  - ○ 담양의 천혜의 부존자원인 대나무를 소재로 친환경 녹색축제를 통한 대나무 신산업화

와 지역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세계 속의 글로벌 대나무 축제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의도에 맞게 대나무를 테마로 전반적으로 대나무축제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함과 동시에 대나무의 특성을 충분히 잘 활용했다고 보여 짐.

- 5박 6일간 '대나무의 신비, 문화예술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죽녹원과 죽향 문화체험마을, 대숲과 관방제림에서 다양한 체험·놀이, 볼거리, 먹거리 등이 어우러져 전반적으로 대나무라는 주제에 잘 맞는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의 만족감을 줌.
- 특히, 축제의 소주제를 우(대나무 신비의 체험), 후(댓고을 문화마당), 죽(대숲향기 속으로), 순(댓고을 주막거리)과 같이 의미 있는 단위로 구분하여 진행한 점은 좋았음. 특히, 댓고을 주막거리의 하나인, '담양10味'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기존의 축제에서 보여주는 획일적인 먹거리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맛 10개를 발굴하여 지역의 대표 맛 집으로 하여금 행사장 내에서 직접 운영케 함으로서, 고유의 맛을 알리면서 지역의 우수 점포를 효과적으로 홍보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할 만 함.
- 다른 축제와 달리 흔히 볼 수 있는 통상적인 공연 프로그램을 과감히 폐지하고 '대나무의 고을 담양'을 구체화시킨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특히 야간 축제의 묘미를 더해주는 대나무로 만든 소망 등의 불빛과 토속 먹거리가 이색적이었음.
-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에 맞게 대소쿠리 물고기잡기를 비롯 대나무뗏목타기, 대나무 곤충 만들기, 대나무 악기와 그림 그리기, 대나무 활쏘기 등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대나무 체험 프로그램의 구성이 돋보였음. 또한 상설 체험 프로그램을 읍면과 유관 단체들이 나누어 관리함으로서 경쟁과 참여가 어우러짐.
- 꿈나무 디자인 패션쇼, 청소년 그림그리기대회, 담양역사문화골든벨, 방과후 뽐내기 페스티벌 등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과 다문화가족 전통혼례식 등 다문화 가정의 축제 참여도 강화, 축제의 '소통과 통합의 장' 역할을 해냄.

❑ 개선 점

- 축제의 프로그램이 지향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음. 축제 슬로건은 '푸른 대숲 맑은 정신', 주제는 '대나무의 신비 문화예술의 만남', 그리고 축제행사의 구성은 '우후죽순' 이루어짐. 축제가 보다 높은 전달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들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축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됨.
- 대나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를 이끌어내어 대나무 문화를 형성하려 했으나, 대나무를 1차적으로 해석함으로서, 다양한 대나무의 문화를 찾아내지 못하고 단편적으로 대나무를 활용한 체험관만이 넘쳐남. 따라서 대나무 고유의 정신을 선비 문화로 이어가는 데에는 무리가 있어 대나무와 가사문학 등 선비 문화와 자연스레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로서의 한마당을 마련했으면 더욱 좋은 축제가 될 것으로 판단 됨.
- 축제기간이 6일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대나무축제와 관련성은 있지만 너무 비슷하고 많은 상설 체험 프로그램들이 나열되어 활기찬 축제를 저해하는 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체험프로그램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나. 축제운영의 적절성

❑ 잘된 점

- ○ 민·관·학 및 지역 대나무 특산품 업체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와 역할 분담이 적절히 잘 이루어져 있었음. 자원봉사자인 축제 해설자의 교육이 적절 하였으며, 개막식 공연에 지역 대학의 공연전문가에 의한 개막작품은 그동안 초청가수 중심의 개막식 공연과 차별화 되어 담양 대나무 축제의 상징성과 의미를 잘 표현하여 예술성과 함께 대중성도 이끌어 내었음.
- ○ 전시장 내부에 죽공예 장인을 직접 참여시켜 죽공예를 방문자에게 직접 시현케 하고 죽공예의 의미와 전통성을 설명함으로써 방문자의 축제에 대한 만족도를 높임.
- ○ 축제 장소와 인근지역을 죽공예로 만든 희망 등불을 방문객들의 참여를 통하여 설치함으로써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훌륭한 야경과 풍취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하였음. 또한, 각 마을의 주민이 참여하여 농악대와 함께 전통의상으로 축제 장소에서 퍼레이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축제 참여를 이끌어 내고 방문자와 주민의 소통의 장을 잘 운영하였음.
- ○ 방문자들이 대나무 통을 이용하여 직접 대나무 술을 담그어 방문객에게 최소한의 재료비와 보관경비를 받고 1년 동안 보관하여 다음 전시회에 찾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방문율을 높이고 축제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운영을 하고 있음.
- ○ 축제의 성공과 발전을 위하여 지방 행정 수반인 군수와 의회 의장이 합심하여 노력하는 모습과 군 행정 담당자들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자세가 훌륭하게 평가 됨. 축제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오랜 기간 축제업무를 담당했던 퇴직 공무원을 축제위원장으로 위촉하여 축제업무가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였음.

❑ 개선 점

- ○ 축제가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함. 축제프로그램이 주 행사장을 비롯하여, 죽녹원(죽향문화체험마을)을 활용하고 있으나, 축제의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자료가 행사중심으로 구성되고 있어 죽녹원(죽향문화체험마을)과 같이 볼거리는 많지만 프로그램이 적은 장소에 대해서는 적절히 소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 안내물의 정보전달 내용에 대한 고려가 요구됨. 이번 축제의 안내물은 리플렛과 프로그램 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리플렛은 행사장 안내도도 누락되는 등 제한된 정보만을 담고 있고 축제를 이해하는데 어렵고, 프로그램 북의 경우 '제 14회 담양 대나무축제 세부추진계획'과 같이 일반 관람객이 필요하지 않은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담고 있음.
- ○ 방문객의 구성이 내국인 위주이고 외국인 방문객의 확대 방안이 더 필요함. 아울러, 아직은 외국인 수용태세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과 검토가 있어야할 것임.

다. 축제발전성

❑ 잘된 점

- 14회에 이르는 축제 경험에서 축제 조직위는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축제에 대한 홍보를 하고 축제를 이해시켰고, 축제의 기획, 운영, 과정에서 일반 시민과 지역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특히 매일 2개 읍면이 참여하는"죽물시장 가는 길" 재현은 자발적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서로 어울려 참여하는 놀이 문화의 가능성을 열어 놓음.
- 담양대나무축제는 전남 담양군의 전폭적인 행정적 업무지원과 축제 관계자등 지역주민, 담양군, 담양대나무축제위원회가 서로 협력하여 대나무 전통문화와 예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지역민 모두가 참여하는 『참여형 축제』임. 즉, 친구, 연인, 가족 등 관광객이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 축제』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서의 손색이 없음.
- 담양대나무축제는 생태성, 환경성, 청정성 등의 지역 이미지를 확실히 구축했고, 그 매개체로서의 대나무와 지역의 자연적인 인프라를 잘 살려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평가들이 담양이 가진 이 같은 외적인 조건들과 축제를 연결하여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음.
- 2015년 세계 국제 대나무 전시회를 유치함으로써 현 축제를 한 차원 발전시키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담양 대나무 축제를 국내외적으로 홍보하는 효과도 가지게 될 것으로 평가됨.

❑ 개선 점

- 장소설정: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비롯하여 아름다운 공원과 대나무 숲으로 조성된 최적의 공간에서 축제가 이루어져 장소자체는 충분히 적절한 곳임. 서로 다른 장소로의 이동과 교통 이를테면 담양은 대중교통이 그다지 발달한 곳이 아니므로 셔틀버스의 운행시간의 간격(30분 정도)을 줄여 운행되지 못한 점이 있어 관광객들에게 다소 불편을 줌.
- 담양의 먹을거리인 향토음식은 물론 대나무 요리의 진미를 다양하게 맛볼 수 있는 주막거리 앞에 단순히 담양 10미를 단순 홍보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벤트로 집중도를 높혀야 할 것임. 입구에 그날의 최고의 먹거리를 선택 판에 표시하게 하여 마지막 날 베스트 먹거리 시상하는 등 놀이와 홍보를 겸하는 효과를 내었으면 함.
- 축제의 성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3년 뒤에 열릴 예정인 세계 대나무 엑스포와 연계를 위해서도 해년마다 그 해에 맞는 축제의 특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봄. 축제에 너무 많은 기능을 부여하고 있어서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복잡성이 증가하여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리라 여겨짐.

○ 문화해설사들의 사전교육 과정이나 실행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이나 셔틀버스 운행과 축제 관람 동선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주어 관람객들이 좀 더 편리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주의가 필요함. 문화해설사들이 죽녹원을 찾은 관람객들 모두에게 설명해내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또한, 프로그램마다 진행 요원들의 주체가 각각 다르고 전문성이나 숙련도가 달라 일관성의 아쉬움을 남김.

라. 축제의 성과

□ 잘된 점

○ 전체적으로 담양이 대나무로서의 확실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특화 된 축제로 평가됨. 특히, 친환경적인 요소들을 잘 연계하여 실질적인 상품으로 개발하는 전략들을 통해, 담양군이 기획하고 있는 축제 상설화의 기초인 담양 대나무 엑스포의 성공가능성을 시험해 보는 좋은 기회였다고 판단됨.

○ 사회적 관점에서 축제가 가지고 있는 소통의 장으로서 사회화합의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됨. 축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고, 아울러 최근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다문화가정의 적극적인 활용은 향우 다문화가정 증가로 발생하기 쉬운 사회문제를 극복하고 지역의 화합을 이루어내는 초석을 다지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됨.

○ 축제운영과 관련하여, '단양 10味'는 축제 먹거리 장터에 대한 좋은 발전방안을 보여주는 기회였다고 판단됨. 물론 지역의 먹거리를 판매하고 있는 많은 축제들이 있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표적인 먹거리를 발굴하고, 지역의 맛 집으로 하여금 운영케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축제를 통한 지역의 맛 집 소개 및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개선할 점

○ 이번 축제가 보다 나은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축제 프로그램간의 유기적인 결합이 있어야 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축제의 뚜렷한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세부목표, 구성 하에 구체적인 프로그램 계획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아울러 비전을 달성함에 있어 대나무가 아닌 대나무의 문화를 형성하는 노력이 요구됨.

○ 이번 축제는 풍부한 프로그램이 장점인 동시에 이들을 체계적으로 안내하는 데는 다소 아쉬움이 남음. 정보의 제공은 축제장 방문을 계획하는 단계와 축제장 방문 이후로 구분하여 제공하되, 세분집단별로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함. 예를 들어, '아이와 함께하는 축제,' '연인과 함께 하는 축제'와 같이 연령대별로 축제 코스를 추천한다거나, '밤에 즐기는 축제,' '낮에 즐기는 축제'와 같이 시간대별로 추천코스를 제안한다면 보다 관람객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3) 총 평

○ 담양의 특성을 잘 살린 훌륭한 축제로 평가됨. 특히 전체적인 아이콘이 신선하며 야간의 풍미를 한껏 살린 시민 참여 대나무 등 달기 및 대나무 배타기 등은 매우 신선한 발상으로 평가됨. 다소 문화콘텐츠 부분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한국대표 축제로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사료됨.

㉙ 함평 나비축제

(1) 개 요

❑ **기 간** : 2012년 4월 27일(금) - 5월 8일(화) 12일간

❑ **장 소** : 함평엑스포공원, 함평천수변공원, 화양근린공원

❑ **주 최** : 함평군

❑ **주 관** : 함평군축제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체험 행사 : 나비생태관, 나비날리기, 나비·곤충표본 만들기, 농경사회 문화전시·체험, 청보리밭 꽃밭 걷기, 동물농장, 전통가축몰이체험, 젖소목장 나들이 체험, 미꾸라지·메기 잡기체험, 오리배 승선체험, 누리나비, 나비따라 찾아가는 5일장 체험 등
- 기획·전시 행사 : 다육식물관, 자연생태관, 분재체험전시관, 군립미술관 특별기획전, 호아금박쥐생태전시관, 숲속의 곤충마을, 양봉산물 전시 등
- 야간 행사 : KBC 축하공연, 백두한라예술단 폐막공연 등

(2) 항목별 평가

가. 축제프로그램 완성도

❑ **잘된 점**

- 경제축제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이 잘 추진되고 있음. 입장권 판매로 축제 총비용의 대부분을 회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목표 850백만 원/관광객 17만명). 입장권을 전자상거래 공동구매, 인터넷 판매, 현장판매 등으로 다각화하고 있음.
- 축제쿠폰 발행으로 수익성을 높이고 있음. 축제쿠폰을 발행하여 축제장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상가에 적용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기여를 하고 있음(목표 155천명, 발행액 346백만 원, 파급효과 1,038백만 원).
- 나비 주제성이 프로그램과 인프라에 잘 적용되고 있음. 인프라에서는 나비생태관, 주제영상관 등을 통해 적용하고 있으며, 나비 날리기와 나비 곤충표본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에서도 나비라는 주제를 잘 적용하고 있음.

○ 매년 나비의 종류에 따른 소주제를 정하고 있음. 올해의 나비를 선정하여 같은 나비를 주제로 하지만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음.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이러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나가려는 의지가 있음.

❑ 개선할 점

○ 나비와 한우의 주제가 혼합되어가는 프로그램을 보임. 나비로 분명하게 자리매김 되었던 축제 주제가 불분명해질 수 있어서 시정이 필요함. 나비축제로 가되, 축산 등 다른 주제들을 부차적으로 어떻게 결합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나비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 인프라측면에서 잘 구성된 관람형 시설과 체험형 시설들이 구비되어 있음. 하지만 나비이야기, 동화, 설화, 함평이야기 등을 포함한 스토리텔링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많은 유치원, 학교학생들이 참가하고 있어 이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스토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축제의 체험속성 중 '대동성(어울림)'을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축제는 혼자서 노는 것이 아니라 어울려 같이 노는 즐거움을 줄 수 있어야 함. 축제장 안에서 서로를 보며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코드가 있어야 함. 드레스코드로서 같은 색깔의 셔츠, 모자, 안경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쿠폰을 대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야간 프로그램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야간 행사가 개막식과 폐막식의 일부에 국한되고 있음. 낮에는 날씨가 덥고 상대적으로 저녁과 야간행사에 대한 호응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함. 나비와 연관된 빛과 공연 등을 활성화하여 지역인근의 민박과 음식점 등 지역경제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확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주민의 날을 잘 활성화시켜 주민들이 축제와 더불어 어울리고 한 해의 긴장과 회포를 풀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현재는 지역주민을 포함한 입장료 부과 등이 축제 자립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도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소외될 수 있음. 관광객만의 축제가 되지 않도록 고민해야 함.

○ 나비축제에서 핵심이라고(반듯이 참여해야 하는) 여겨지는 프로그램이 두드러지지 않음. 나비날리기 역시 규모와 방식에서 주목받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 축제에 왔을 때 꼭 해야만 함평나비축제에 왔다고 할 수 있는 핵심프로그램을 구상해야 함.

나. 축제운영의 적절성

❑ 잘된 점

○ 엑스포로 형성된 인프라를 축제공간으로 잘 활용하고 있음. 일부 축제의 경우 엑스포이 후에 축제가 축소되거나 왜소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에 비해 함평은 엑스포의 성

과를 축제로 잘 연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음. 이런 측면에서 대규모 비용과 행정기관 위주의 엑스포를 지속해서 열기 보다는 지역주민의 자발성을 기반으로 하는 축제를 활성화시키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함.

- 함평나비축제의 인지도가 높아 '소셜커머스'에서도 함평나비축제의 입장권을 판매하고 있으며, 롯데카드 등 카드회사와도 결합하여 시스템적인 홍보와 수입구조를 갖추고 있음.
- 그동안 축제개최에 대한 노하우가 정착되어 축제진행이 체계적임. 축제 관계자들의 역할이 분명하고 각 부문별 책임소재가 명확하여 전반적 진행이 원활하고 협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축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 공무원들의 노력이 잘 드러나고 있음.
- 행사장 표지판, 가로등 및 다리의 꽃장식 등 전반적으로 나비주제가 잘 드러나도록 조경시설을 잘 만들었음. 축제에서 간과되기 쉬운 측면까지 섬세한 디테일을 살리고 있어 일정수준 이상으로 축제가 준비되고 있음을 보여줌.

❑ 개선할 점

- 축제운영의 궁극적인 주체는 민간이 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축제추진위가 좀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 또한 행정기관 내에도 축제전문위원 등을 배치하여 축제기획의 전문성과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숙박형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현재는 함평의 숙박이 부족한 편임. 최근의 숙박추세를 반영하여 캠핑이나 캐러반 등 다양한 숙박이 새로운 매력이 될 수 있도록 기획할 필요가 있음. 최근 젊은 계층에서 매니아들이 확산되어가고 있는 오토 캠핑촌을 축제기간동안 운영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으로 평가됨.
- 지역의 특산품판매장이 기대보다 부족한 편임. 계절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 가공식품들을 배치할 필요가 있음. 구매를 원하는 방문객에게 다른 지역에도 있는 비슷한 아이템들로는 설득하기 어려움. 함평의 특산품을 잘 활용하고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확대될 필요가 있음.
- 낮 동안 햇볕을 가릴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편임. 5월에 이미 더워지고 있어서 아이들과 가족이 햇빛 또는 우천시 사용될 수 있는 정자나 나무그늘 등 자연스런 시설물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나비공원 내 놀이시설(유원시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축제주제와 맞지 않는 음악이 크게 들리고 있어서 축제관람에 방해가 되고 있음. 또한 축제장의 스피커에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음악 등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방문객 측면에서 볼 때, 나비축제는 자연생태를 찾아오는 동기가 크며 인위적인 음악보다는 바람소리, 물소리를 더 듣고자 함.
- 축제공간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필요함. 주제에 대한 스토리텔링 뿐만 아니라 공간에서도 각 구역들이 모두 스토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춘천마임축제의 경우 '우다마리와 공지어 9999' 등의 스토리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음.

○ 축제발전을 위해서는 중장기 발전계획이 필요함. 현재 축제의 국제화를 위한 세계축제도시 등을 준비하고 있지만 함평나비축제의 발전을 위해 더 중요한 것은 향후 10년 이후 축제의 방향과 발전모델을 설정하는 작업임. 이런 발전전망 속에서 국제화 및 축제브랜드화와 관련된 사업을 해야 함. 국제심포지엄도 외국인 몇 명오는 성과위주가 아니라 장기적 측면에서 축제발전에 기여될 수 있는 고민이 담겨있도록 준비되어야 함.

다. 축제발전성

❑ 잘된 점

○ 14년 동안 함평나비축제는 한국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뽑힐 만큼 성장해온 축제임. 유료입장료 등으로 추정입장객 수는 줄었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 건실하고 경제적인 축제를 만들어오고 있음.

○ 올해 역시 입장권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인터넷 등 제반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지적받았던 체험학습장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발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그동안 엑스포로 인한 나비공원의 인프라와 우회도로 등을 통한 교통 등 축제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인프라 체계를 성공적으로 갖추고 있음. 하천의 유채꽃 등 정비사업 역시 함평의 생태환경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축제장 밖의 가로등에도 나비형상을 새기는 등 지역개발과 지역브랜드와 결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또한 축제준비 전반에서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음. 경관이나 잘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장식을 하는 등 디테일한 영역까지 나비주제를 반영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 개선할 점

○ 그동안 잘 발전되어오는 추세에서 보면 올해 축제기간이 축소되는 등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이 나타남. 함평지역이름이 '나비축제'를 통해 세상에 브랜드화 되었던 성과를 고려하면 축제를 더 전문화시키고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예년과 같은 축제예산과 진행보다는 더 역동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함평나비축제는 유료관람을 통해 축제예산의 대부분을 회수하고 있으며, 지역경제파급효과가 매우 높은 축제임. 따라서 이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함. 특히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기 위한 연구 작업을 통해 축제발전 전망과 목표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축제추진위의 민간부문을 위한 교육과 훈련이 체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음. 지역의 한계이기는 하지만 공무원 위주의 축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스스로 꾸려가는 축제체계를 만들어야 함. 이를 위해 지역주민의 축제아카데미와 전문가를 결합하는 노력이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 경제적 자립도를 위한 준비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나비축제는 '생태자연' 소재를 활용하고 있어 특히 환경적 지속성을 위한 준비도 철저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향후 축제 등 이벤트에 대해서도 환경친화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여 환경축제로서의 입지와 브랜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라. 축제의 성과

❑ 잘된 점

○ 함평나비축제는 지명도가 높으며 창의적 아이디어로 지역축제 중 성공적인 모델로 뽑히고 있음. 올해의 경우 도지사 등 많은 인사들의 방문하였음. 또한 조계사 주지스님이 신도들과 방문하여 축제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였음.

○ 축제를 통한 성과를 엑스포와 연계하여 '함평엑스포공원' 등 인프라를 확보하는 성과를 보였음. 또한 이러한 성과를 다시 축제로 연계하기 위해 엑스포를 다시 개최하기 보다는 축제발전과 개발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함평의 좋은 인프라는 축제 뿐 만 아니라 관광매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되어 지역에 상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게 되었음.

○ 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우 높다고 판단함. 군에서 지출하는 재원의 대부분을 입장료 수입으로 회수하고 있으며, 함평군의 농특산물, 상품판매, 지역숙박과 음식점 등의 간접파급효과 역시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함.

❑ 개선할 점

○ 축제의 국제화: 관광객 수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일부 외국인들이 방문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문화부의 문화관광축제 지정제도의 큰 취지는 외래관광객 유치를 포함하고 있음. 국내 외국인을 비롯하여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와 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음

○ 사회문화적 성과: 축제를 통해 지역주민의 여가와 사회문화적 효과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입장료를 내는 공원에 대해 지역주민이 소외감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민의 날 이벤트와 주민 무료입장일 등을 통해 일부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도 필요함.

○ 문화예술 성과: 축제를 통해 지역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전략을 만들 필요가 있음. 문화예술 전문가를 초빙하여 '함평이야기 + 나비이야기'의 스토리와 그림, 공연 등으로 표현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예술 성과를 확산할 필요가 있음.

(3) 종 평

- 함평나비축제는 한국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뽑힐 만큼 성장해온 축제임. 유료입장료 등으로 추정입장객 수는 줄었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 건실하고 경제적인 축제를 만들어오고 있음. 또한 축제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경제축제를 실행하기 위한 계획들이 잘 추진되고 있음. 특히, 입장권 판매로 축제 총비용의 대부분을 회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축제쿠폰 발행으로 수익성을 높이고 있음. 축제쿠폰을 발행하여 축제장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상가에 적용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기여를 하고 있음.
- 함평나비축제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이 있음. 먼저, 나비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 인프라측면에서 잘 구성된 관람형 시설과 체험형 시설들이 구비되어 있음. 하지만 나비이야기, 동화, 설화, 함평이야기 등을 포함한 스토리텔링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많은 유치원, 학교학생들이 참가하고 있어 이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스토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축제답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는 축제체험 중 '대동성(어울림)'을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축제는 혼자서 노는 것이 아니라 어울려 같이 노는 즐거움을 줄 수 있어야 함. 축제장 안에서 서로를 보며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코드가 있어야 함. 드레스코드와 같이 같은 색깔의 셔츠, 모자, 안경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쿠폰을 대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프로그램에서 약점 중의 하나인 야간 프로그램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야간 행사가 개막식과 폐막식의 일부에 국한되고 있음. 낮에는 날씨가 덥고 상대적으로 저녁과 야간행사에 대한 호응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함. 나비와 연관된 빛과 공연 등을 활성화하여 지역인근의 민박과 음식점 등 지역경제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한편, 그동안 지속적으로 잘 발전되어오는 추세에서 보면 최근 축제기간이 축소되는 등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이 나타남. 함평지역이름이 '나비축제'를 통해 세상에 브랜드화 되었던 성과를 고려하면 축제를 더 전문화시키고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축제발전 중장기 발전계획이 필요함. 현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향후 10년 이후 축제의 방향과 발전모델을 설정하는 작업임. 이런 발전전망 속에서 국제화 및 축제브랜드화와 관련된 사업을 해야 함. 장기적 측면에서 축제발전에 기여될 수 있는 고민이 담겨있도록 준비되어야 함.

30 진도 신비의 바닷길축제

(1) 개 요

- ❑ **기 간** : 2012년 4월 7일(토) - 4월 9일(월) 3일간
- ❑ **장 소** : 진도군 고군면 금계리 산 93번지 일원
- ❑ **주 최** : 진도군
- ❑ **주 관** : 진도군축제추진위원회
- ❑ **주요행사**
  - ○ 공연행사 : 뽕할머니 제례/조다 닻배노래/국립남도국악원공연/개막퍼포먼스/진도군립민속예술단공연/진도씻김굿/남도잡가/바닷길놀이한마당/해상퍼레이드/서울시국악관현악단공연/진도다시래기/진도북놀이/사물놀이/강강술래/남도들노래/진도군립민속예술단공연/고성농요/축하공연(K-POP)
  - ○ 체험행사
    - 바닷길 체험 : 신비의 바닷길 체험
    - 해상체험 : 해상 선박 퍼레이드/개매기 체험
    - 예향진도체험 : 문화재와 함께하는 진도민속 배우기/명인에게 배우는 남종화 체험
    - 진도특산품체험 : 진도홍주 체험/진도홍주 전시관 운영/검정쌀·구기자 떡메치기 체험/울금막걸리 마시기
    - 진돗개체험 : 진돗개 묘기자랑/진돗개 전시/진돗개 사진전시
  - ○ 전시행사 : 관광진도사진전시회/진도 자생난·야생화전시회
  - ○ 판매행사 : 농수산물 풍물장터 운영/진도 향토음식 판매
  - ○ 부대행사 : 소원·소망띠 달기/보배섬 경매장터/미술품경매
  - ○ 연계행사 : 토요민속 여행(매주토요일 오후2시)/금요상설공원(전통문화체험)

(2) 항목별 평가

가. 축제프로그램 완성도

❑ 잘된 점

- ○ 한국판 모세의 기적으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1978년에 축제로서 기획된 이후 지역의 역사·문화와 연계하여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온 축제로 대표 프로그램인 '신비의 바닷길 체험'에 대한 관광객들의 몰입도는 탁월함.
- ○ 소재의 특이성과 매력성으로 대부분의 관광객이 타 지역에서 온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점으로 관광객 유인정도가 매우 돋보이는 축제임.
- ○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과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 전시 프로그램 등이 관련 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이 양호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예술적 특색을 일관되게 구현한 점은 양호한 평가임.
- ○ 특히 '진돗개 체험' 프로그램과 '바닷길 체험' 직전에 '뽕할머니 무대'에서 펼쳐지는 '사물놀이', '진도북놀이', '진도다시래기'등에 대한 관람객의 호응도와 주제와의 연계성은 양호함.

❑ 개선 점

- ○ '제34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행사장 안내도' 입간판의 프로그램 내용과 홍보 팸플릿의 내용이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음. 예컨대 '뽕할머니 제례'의 경우 팸플릿에는 공연프로그램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행사장 안내도에는 체험프로그램으로 게시되어 있고 시간도 다소 차이가 있음.
- ○ '회동 바닷길 무대'에서 펼쳐지는 '강강술래'와 '남도들노래'의 경우 좋은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바닷길 체험과 공연시간이 중복되어 관람객의 호응도를 제고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 관광객들의 호응도가 적은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의 개선 및 조정이 필요함. 예컨대 '도로명 주소와 함께하는 소망띠 달기체험' 부스와 '짚공예 체험', '명인에게 배우는 남종화 체험', '문화재와 함께하는 체험프로그램' 등은 관광객의 호응도가 매우 낮고 관리자가 부재인 경우도 있음.
- ○ 해안도로의 체험프로그램의 경우 관광객의 호응도 제고를 위해 '뽕할머니 무대'로부터 적정거리로 이격하고(너무 가까우면 몰입도가 떨어지므로..)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각각의 체험프로그램을 모아서 집중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을 것임.
- ○ 전반적으로 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체험장의 시설확충이 요구됨. 특히, 진돗개 묘기자랑의 경우 그늘이 형성되지 않고,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에 모포 한 장만 깔고 진행하여 개들의 쉽게 지치고 이에 따른 부상의 우려가 있음.

- 공연프로그램의 경우 관람객의 이해를 돕고 감동을 더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제목과 내용을 간단하게 해설/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외국어 안내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뽕할머니 무대에서 진행되는 공연의 경우, 공연자들의 준비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연 준비하는 모습들이 공연 전에 노출됨으로써 공연의 몰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 적정한 공간의 마련이 요구됨.
- '진도홍주 체험장'의 경우 "여기서 홍주 한잔 맛보고 갈까"하고 생각하기 쉬운데 홍보전시장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체험이라 보기 어려움. 체험속성을 부가하든지 아니면 홍보 또는 특산품 판매장터로 부스를 옮기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행사장 입구의 '터치스크린체험관'의 경우 관람객의 호응도가 매우 낮고 '안전요원대기소', '기상사진전시회' 부스는 빈 공간으로 방치, 개선이 요망되며 행사장 입구의 '진도 사진전시회'도 정적인 프로그램으로 위치를 재조정하여야할 것임.
- 뽕할머니의 극적인 스토리를 이용한 프로그램의 확충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예컨대 회동과 모도리 사람들이 중간에서 만나는 프로그램으로 일부 관람객을 모도리 쪽으로 옮겨 중간에서 만나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며 자식이 없는 사람이나 사랑과 희망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의(祭儀)적 퍼포먼스를 만들어 관람객들을 참여케 하는 프로그램도 가능할 것임.
- 'K-PoP 프라임 콘서트'는 다소 축제주제와 상관성이 결여되고 '신비의 바닷길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진도향토문화회관으로 이동해야하는 점에서 시간적인 배려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임.
- '신비의 바닷길 체험' 즉 대표프로그램의 몰입도와 집중도가 매우 높아 이후의 행사프로그램 운영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을 이해할 수 있으나 체류형 야간프로그램은 해결해야할 당면과제임.
- '토요민속여행'이나 '금요상설공연'등의 연계프로그램은 마련되어 있으나 진도 대교가 건설되어 숙박관광 보다는 당일관광을 선호하는 점을 감안할 때, 축제장과 진도 내의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코스개발을 통해 관광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림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나. 축제운영의 적절성

❑ 잘된 점

- 행사장 52km전방 국도상에 교통안내 표시판을 게시하였으며 진도군내에는 도로교통안내표시가 잘 되어 있어서 행사장에로의 접근성은 매우 양호함. '바닷길'이 열리는 시간에 많은 관광객이 일시에 집중하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와 행사관리요원들의 효율적인 대처로 주차 및 입장객 관리 등 행사운영상의 전문성이 돋보였음.

- 오전 행사프로그램이 없는 기간 중에도 자원봉사자들의 행사장 내외의 안내·봉사는 적절하게 잘 진행되었으며 여성단체들이 전날 저녁에 버려진 행사장내의 쓰레기 수거 등에 적극적인 점으로 미루어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체계와 행사장내 운영은 양호한 평가임.
- 가계1-2 주차장과 모나리 주차장 등 주차장 확보와 행사장 인프라는 양호하며 특히 여성 전용 화장실 확충과 이동용 화장실내에 비치한 종량제 쓰레기봉투 등은 우수한 평가임.
- 축제 행사장 내외의 다양한 옥외홍보물로 축제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외지에서 온 많은 관광버스와 승용차 그리고 비교우위의 외국인 관광객 참여 등으로 미루어 타 지역의 방문객비율이 매우 높을 것으로 추정되며 방송 및 신문 그리고 온라인 등의 축제 홍보는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추진된 것으로 평가임.
- 축제 행사장 입장권(5,000원)을 축제 현장 및 진도 전 지역 상가에서 현금처럼 상품권으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들의 참여열의제고를 도모한 점은 우수한 평가임.

❑ 개선 점

- 외국인 수용태세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과 검토가 있어야할 것임. 타 축제에 비해 외국인 관광객 비율이 매우 높은 축제로 팸플릿을 비롯한 각종 홍보물과 각 부스의 안내문, 살거리와 먹을거리 장터의 가격과 내용, 공연프로그램의 주제와 내용, 행사시간표에 대한 안내멘트, 읍에서 행사장까지의 셔틀버스 운영과 운영시간표 안내 등에 대한 개선 필요함.
- 입장권을 상품권으로 재사용 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매표소 상단에 게시되어 있고 핸드마이크로 지속적으로 안내 멘트를 공지하고 있으나 현장이 매우 복잡하고 소란스러워서 대부분의 관람객들이 게시된 내용을 읽어보지 않고 있음. 또한 '보배섬 진도'라는 원형 아치 홍보간판 입구에 '입장권 사용안내부스'가 설치되어 있으나 안내 및 관리요원이 없고 방치되어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사장 입구의 좌우측에 별도의 입간판을 영어/일어/중국어 등과 병기하여 안내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각 살거리 부스와 먹을거리 부스 앞에 한글로 '입장권 환영'이라는 안내표시를 개선하여 구체화·표준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외국인에 대한 배려도 필요할 것임.
- 바닷길 체험을 위해 관람객의 대부분이 1회용 장화를 사 신고 입장하는데 재활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임. 특히 자연과 생태를 주제로 한 축제로 축제주제에 걸맞게 가급적이면 사전에 장화를 지참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고 부득이한 경우 현재 외지 상인들에 의해 판매되고 있는 점을 보완하여 행사추진 주체에서 판매 또는 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판매의 경우 회수·수거하여 재활용 또는 재처리가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문화재보호법 제 35조에 의거 명승 제9호 진도바닷길 보호구역내 어패류 및 해산물

등을 포획·채취하지 맙시다."라고 현수막이 곳곳에 게시되어 있으나 다수의 관광객이 바닷가에서 채취하고 있음. 현실적으로 막기 어렵다면 바닷길 열리는 시점 등으로 시간과 장소를 제한한다든지 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 행사장 진입로 입구에서 행사장까지의 거리가 다소 멀어 중간 중간 적정한 휴게시설 및 쉼터마련이 필요할 것임. 휴게쉼터의 경우 의자 2개와 테이블 한 개가 형식적으로 비치되어 있음. 의자 수는 늘리고 식수대 등 실제로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여 전체 휴게시설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임.
- '입장권 사용안내부스'와 '장애인/미아보호소'와 '장애인/노약자휠체어 등의 부스는 빈 부스로 방치되어 있음. 활용성과 호응도가 낮은 이러한 부스는 개선하고 단체 관광객과 가족여행객이 많은 점을 고려 행사장의 출입구 부근에는 만남의 장소와 휴게시설을 병행해서 설치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행사장 입구의 진입도로 좌·우측에 외지 상인들이 많은데 일부 놀이시설의 사고위험과 먹을거리 즉 식품의 경우 위생안전이 우려됨.(기온이 비교적 높아 해산물의 경우 부패 또는 변질 등) 아울러 바닷길이 열리기 직전 일부 사진작가(?)들이 후사면의 암벽 위로 올라가 촬영하고 있는데 안전을 위해 금지시켜야할 것임.
- 살거리 장터와 먹을거리 장터가 연접해 있어서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진도명품 무염 돌돌이 미역', '진도각 미역'을 판매하는 부스의 경우 생산자의 상호, 연락처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상품의 품질속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및 생산자와 생산지를 표시하여 지역특산품의 질적 유형화 노력 필요함.

다. 축제발전성

❑ 잘된 점

- 1978년을 시작으로 34회에 걸쳐 진화를 거듭해온 '진도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진도군의 인지도와 지명도를 드높인 지역의 대표축제로서 특정시간에 많은 관광객이 집중되어 행사진행과 운영의 어려움이 큼에도 불구하고 군의 행정력과 추진 주체인 '진도군축제추진위원회'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돋보였음.
- 관광객의 안내와 행사장의 청결유지 그리고 해상퍼레이드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와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열의는 양호한 평가임.
- '진도아리랑'을 비롯한 비교우위의 문화 예술적 기반과 대표프로그램의 차별성, 전국적인 인지도와 높은 유인·몰입도 그리고 역사와의 연계성 등으로 축제의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개선 점

- 축제 참여 관광객 전원(지역민을 비롯한 일부 제외)에게 입장료를 받음으로써 사실상

축제의 재정자립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축제로 평가됨. 다만 입장료 수입을 상품권으로 재 구매하게 함으로써 추진주체의 재정자립 가능성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

- 지역축제의 지속적인 발전은 지역민의 소득증대가 중요한 요소이므로 지역특산 판매장터와 먹을거리 장터에 대한 개선·확대가 필요할 것임. '진도건어물가게' 등 지역특산 살거리 장터의 경우 관람객의 호응도가 높음. 특히 외지상인들이 배치되어 있는 행사장 입구 진입로 좌우측에 지역의 특산 살거리와 먹을거리 부스를 개선·확대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가격과 품질 속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게시·표준화하여 상품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인지시켜 구매력을 높여야할 것임. 특히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경매장터'의 경우 관광객의 호응도가 높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행사장 앞에 경매시간 및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할 것임.
- 후문 행사장 입구 '동현횟집'과 '뽕할머니 횟집' 등의 경우 메뉴와 가격은 있으나 일반 관광객이 입장권 등으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특별메뉴(회덮밥/정식 등)를 개발하여 판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전라도 향토 음식관'의 경우 지역특산 먹을거리와는 거리가 먼 축제행사장에 자주 등장하는 메뉴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며 먹을거리 부스의 경우 대개 안주류 위주의 판매되고 있음. 예컨대 식사류의 경우 단일메뉴인 '바지락 칼국수'뿐이고 나머지는 안주류 위주로 메뉴가 구성되어 있어서 외국인과 어린이(튀김/전 등을 좋아하는..)를 동반한 가족의 경우 식사할 곳이 마땅찮아 입장권을 사용하기 어려움.
- 향토 음식과 관련하여, 진도 10味 등과 같이 진도의 대표음식을 선정하여, 진도 내 대표음식점을 선정 행사장에서 판매케 함으로서 지역 음식 및 음식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요구됨.
- 참여관광객의 구성이 단체관광객은 물론이고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과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그리고 청소년으로서 그 다양성에 부합되는 지역의 특산품 판매장과 먹을거리 장터의 확대가 필요할 것임. 아울러 진돗개 판매장터를 진돗개 공연장 부근에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라. 축제의 성과

❑ 잘된 점

- 올해는 유난히 외국인 관광객(특히 4월 7일)이 많은 것이 특징이며 지자체의 자체평가 결과 '방문객 중 외부 방문객' 비율이 98.7%로 축제로 인한 관광객 유인정도와 지역경제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외부방문객' 수의 경우는 44만여 명으로 추정되어 2010년의 제 33회 축제와 비슷하나

미주, 남미 지역의 외국인들과 더불어 중국인 관광객들의 많은 참여가 돋보였음.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인위적인 모객행위에 인한 방문이 아니고 자발적인 방문이라는 점에서 양호한 평가임.

- '방문객 1인당 관광지출비용'의 경우 78,590원이며 '방문객의 재방문 빈도'의 경우 '처음'이 40.3%, '2회'가 21.6%, '3회',가 25.3%, '4회'이상이 12.9%로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아울러 입장권의 상품화 전환 사용으로 지역경제의 승수효과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 개선할 점

- 지역 특산 먹을거리와 살거리 장터의 개선·확대로 지역경제 효과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전체 54.7% 관광객이 당일 관광객이고 전체 68.5%의 관광객이 3-4시간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나 '바닷길 체험'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다양한 연계프로그램 개발로 숙박형 관광객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아울러 매년 실시하는 대내외 축제평가에 대한 결과를 진지하게 검토·반영하는 축제평가환류체계 구축과 축제프로그램 기획팀을 조기에 구성하여 연계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개발 노력이 필요할 것임.
- 마지막으로 올해 외국관광객이 급증하였음. 따라서 이에 대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대한 설문조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 총 평

-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대표프로그램(Killer Contents)의 특이성과 매력성으로 전국적인 인지도는 물론이고 외국관광객의 유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축제임.
- 이미 초 고령화시대에 접어든 지역 특성에도 불구하고 추진주체와 지자체는 물론이고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체계가 돋보이는 축제임.
- 특히 지역경제효과와 관광객 유발효과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높은 축제임.
- 다만 대표프로그램의 몰입성으로 오전 및 야간 프로그램 운영에 한계가 있어서 이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이며 지역의 특산 살거리와 먹을거리 장터를 확대시켜 나가야할 것이며 행사장 전체의 공간배치에 대한 개선과 편의시 설 확충 노력이 필요할 것임.

㉛ 영암 왕인문화축제

(1) 개 요

- ❑ **주 제** : '왕인의 빛, 문화의 길을 열다'
- ❑ **슬로건** : 왕인박사 배우go! 기찬영암 즐기go!
- ❑ **기 간** : 2012년 4월 6일(금) - 4월 9일(월) 4일간
- ❑ **장 소** : 왕인박사유적지, 구림마을, 도기박물관 등 영암군 일원
- ❑ **주 최** : 영암군
- ❑ **주 관** : 영암군향토축제추진위원회
-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전라남도/한국관광고사/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일반여행업협회
- ❑ **행사구성** : 4개 부문, 69개 행사
  - ○ 주요 행사 : 왕인박사춘향대제, 한일우정공연 '타악퍼포먼스', 개막행사 '왕인찬가', 왕인예술단 가무악콘서트, 왕인골든벨 OX퀴즈대회, 왕인학등 점등식, KBC개막축하쇼 '구림의 밤' & 불꽃놀이 "제충주의 Music Forever" 공개방송, 영암전통민속놀이 '여석산쌍패농악', 영암전통민속놀이 '삼호강강술래', 메가퍼레이드 '왕인박사 일본가오!', 낭주골 어울림한마당, KBS빛고을가요차차차 공개방송 '기찬영암 트로트콘서트', 청소년 댄스·뮤직 페스티벌, 벚꽃터널 건강걷기대회, 저글링광대 '마린보이', 영암전통민속놀이 '갈곡들소리', 영암전통민속놀이 '도포제줄다리기', 신명마당극 '품바품바', 영암민속예술단 공연, 한·중기예공연 '전통줄타기와 중국기예', 행복한 포크음악회, 왕인학생선발대회, 영암회전놀이 '꽃달임', 영암전통민속놀이 '정동정호제', 氣무예단 공연, 영암전통민속놀이 '장부질노래', 몸짓난장 '비보이&마샬아츠', 폐막공연 '영암아리랑'
  - ○ 체험 행사 : 氣체조체험, 다문화공예체험, 국립공원월출산 생태체험, 왕인문해학교홍보관, 월출녹차 다도체험, 천자문 키즈놀이방, 왕인일대기 퍼즐맞추기, 종이비행기 난파진에 도착하면~, 왕인학당 천자문교실, 전자문 공예체험, 천자문 250계단오르기, 왕인전래문물 한자공예처험, 천연염색체험 '백제의 빛깔놀이', 왕인바람 창작연날리기, 왕인전래문물 구림도기체험, 상대포 백제선체험
  - ○ 기획·전시 행사 : 기찬들 대동놀이, 수능고득점기원 '왕인학등'달기, 한일 테마깃발전

'등용문', 백제의상스튜디오, 왕인박사 주제전시관, 영월관 어린이극장 '마법천자문', 거리의 품바, 영암관광종합홍보관, 드럼서클 '상생의 북을 두드려라!', 왕인의 길 자전거답사, 구림마을 코끼리열차투어, 구림한옥마을 돌담길걷기, 천년고도 구림마을스테이

- 연계 행사 : 氣찬들쇼핑몰(영암우수농·특산물 홍보·판매관), 영암향토음식판매관, 다문화음식관, 영암관광상품판매관, 영암도기특별할인판매장, 할머니장터, 영암관광 1일버스투어, 영암왕인문화축제 UCC공모전, 디카·폰카 사진콘테스트, 천년고찰 도갑사템플스테이, 친환경 농촌마을팜스테이
- 야간 행사 : 왕인하등 점등식, KBC개막축하쇼 '구림의 밤' & 불꽃놀이, 청소년 댄스·뮤직 페스티벌, 행복한 포크음악회, 폐막공연 '영암아리랑'

(2) 항목별 평가

가. 축제의 특성 및 콘텐츠

❑ 잘된 점

- 대표프로그램(Killer Contents) 메가퍼레이드 '왕인박사 일본가오!'는 이번년도 처음으로 지역주민이 행사의 주체가 되어 참여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음. 극을 진행함에 있어 다소 어색한 면이 있었지만, 지역주민의 특색을 잘 살리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면이 보였기 때문에 축제 방문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어 대표프로그램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였다고 봄.
- 메가퍼레이드를 총 7마당으로 구성하여 각 마당별로 왕인박사에 대한 탄생과 일본으로 가기까지의 여정을 풍물과 함께 극 구성을 하여 참관객들로 하여금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요소를 가미하였음.
- 축제 소재는 왕인박사가 일본학문의 시조를 꽃피운 업적을 기리기 위해 한국과 일본이 함께 왕인박사춘향대제를 비롯한 우정공연, 테마깃발전, 천자문 등의 콘텐츠를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역사 여행 및 영암 전통 민속놀이를 반영하여 축제의 차별성과 독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음.
- 체험프로그램 차별성 메가퍼레이드 왕인박사 일본가오, 왕인학등달기, 왕인일대기 퍼즐맞추기, 천자문공예체험 등의 프로그램은 축제의 정체성을 살리려는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음. 특히 왕인박사가 일본에 전한 천자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천자문 프로그램이 신설되어 가족방문객의 유인을 극대화시켰음.
- 또한 수능고득점기원 '왕인학등'달기, 한·일 테마깃발전 등은 학문기원의 대상으로 왕인박사의 기운과 월출산의 정기로 학문성취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유료프로그램으로 많은 방문객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보였음.

○ 축제장 방문객의 일탈과 난장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는 '기찬들 대동놀이', 드림서클 '상생의 북들 두드려라'를 통한 집단 신명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방문객 만족도를 높여줌.

○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도갑사템플스테이 및 농촌마을 팜스테이, 영암관광 1일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지역을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개선할 점

○ 축제의 대표프로그램인 '왕인박사 일본가오!'의 경우 프로그램이 총 7마당으로 소요시간이 3시간이고, 퍼레이드 이동거리도 꽤 길기 때문에 처음 참여한 방문객들이 마지막 마당까지 끝까지 따라가기에는 참여 및 집중도가 떨어짐. 다른 축제공간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의 행렬이 끝까지 흩어지지 않도록 프로그램 강구방안이 필요해 보임.

○ 또한 메가퍼레이드 공연이 끝나고 난 후 관람객들이 바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음 축제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연결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해 보임. 현재 연계프로그램으로 '기찬영암 트로트콘서트'가 있는데 연예인들이 대거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축제로의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왕인학동 접둥식의 경우 축제 첫째날 금요일에 하기 때문에 정작 학생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모님들의 참여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미가 반감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같이 참여해서 퍼포먼스에 참여한다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봄. 또한 지역주민 외에 타 지역의 방문객들에게는 참여의 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에 둘째날 토요일에 이루어진다면 타 지역 방문객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으리라 사료됨.

○ 개막행사 '왕인찬가'의 경우 개막식 시간의 조정 및 개막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해 보임. 개막프로그램은 축제의 시작 및 축제의 주제를 알리는 시간인데, 개막프로그램이 그 의미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있음. 왕인박사 일본가오 하이라이트 공연 외에 각 면별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막과 함께 폐막식 공연도 초청가수들이 너무 많으며 축제를 마무리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약간 아쉬움이 있음.

나. 축제의 운영

❑ 잘된 점

○ 영암왕인문화축제는 민관주도형의 축제로서 축제기간 동안 지역주민 및 지역사회단체, 공무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이 축제 운영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축제 제1행사장인 왕인박사유적지의 넓은 공간은 방문객에게 공간적 편의 제공 등 행사운영의 여건은 상당히 좋았음. 또한 왕인박사유적지와 구림마을을 연결하는 구간에 이동수단인 코끼리열차투어를 운영함으로써 방문객의 흥미 유발 및 효율적인 축제 관람과 접근 동선을 보완하였음.

- 지역주민, 시민단체, 공무원 모두가 축제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각각 담당프로그램을 배치하여 축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음. 또한 축제장소를 알리는 안내체계, 주차공간 확보 등은 잘 운영되어 있었음.
- 새로 신설된 프로그램 중 영암왕인문화축제 UCC공모전 및 디카폰카 사진콘테스트의 경우 축제가 끝난 후 홈페이지를 통해 당선자를 발표함으로써 축제에 참여한 방문객들의 관심을 높였다고 보여짐.
- 축제를 알리기 위해 '왕인 홍보단'을 구성하여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축제홍보를 하였으며, 특히 서울 인사동 거리에서 왕인박사 주제행사인 '왕인박사 일본가오!' 테마퍼레이드 및 홍보를 통해 내외국인과 함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관광객 홍보활동을 펼침. 실제 행사장에 한국인가이드를 동반한 외국인 단체 방문객들이 종종 보였음.
- 축제가 펼쳐지는 공간과 지역특산품 판매공간, 먹거리 판매공간 등을 분리하여 방문객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개선할 점

- 축제가 열리는 장소가 넓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방문객들의 응집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메인프로그램과 상설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을 통한 안내체계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함. 실제 대동마당에서 민속놀이공연이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못하고 있었음.
- 방문객들의 참여 비중에 비해 축제공간에서 제공되는 먹을거리 공간이 부족하였음.
- 대형주차장의 설치에도 불구하고 많은 방문객들의 방문으로 축제장 근처에 많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고 차량들이 수시로 드나들어 도보 이동에 어려움이 있었음. 향후 주차공간과 행사장 입구 도보공간이 확실하게 구분되어야 할 필요성 있음.
- 왕인박사의 업적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도록 곳곳에 알기 쉬운 천자문과 논어를 소재로 한 문구를 배너를 통해서 스토리화한다면 참여 방문객들에게 왕인박사의 이야기를 잘 전달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됨.

다. 축제발전성

❑ 잘된 점

- 관련기관과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조화를 이루었고, 영암군의 적극적인 노력과 포부를 느낄 수 있었음. 특히 문화관광실의 축제담당자들의 축제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열정이 느껴졌음.
- 또한 대표프로그램에 지역주민의 참여의지와 협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각 지역단체들의 참여와 서비스 등의 축제 발전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함.

○ 잘 갖춰진 축제장의 하드웨어 시설과 함께 이에 상응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적절히 구성되어 있고 지역특성을 살린 주제 선정과 꾸준한 참여 프로그램 확대의 노력이 돋보이므로 축제가 지속가능하다고 평가되었음.

○ 축제를 알리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침으로써 축제의 주제가 확실하게 전달되어 영암군의 축제 육성 의지가 높았음.

❑ 개선할 점

○ 최근의 축제 홍보는 방송매체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홍보활동이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축제 F.I 및 로고, 캐릭터 등을 통한 체계적인 홍보와 함께 기존의 싸이월드를 더 발전시켜 파워블로거 및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한 축제의 쌍방형 커뮤니케이션 전개가 필요함.

○ 현재 축제캐릭터를 활용한 축제 기념품 개발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어린이 및 청소년에 다가갈 수 있는 캐릭터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축제캐릭터와 연계한 한자상품 등 다양한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

○ 상대포 주변 경관개선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함. 주변을 둘러싼 환경이 삭막하며 위험해 보였으며 메가퍼레이드 왕인박사 일본가오!의 마지막 무대로서 주변경관이 어울리지 않아 극의 재미가 반감됨.

라. 축제의 성과

❑ 잘된 점

○ 전반적으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긍심을 높이기에 충분하였음. 왕인박사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현대의 교육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교육형 축제로서 타 축제와 차별성을 보이고 있으며, 한일이 친선을 다지는 문화교류마당을 통한 유대감 형성에 기여함.

○ 영암 전통민속놀이를 축제기간 내내 보여줌으로써 지역의 문화를 계승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였으며, 이는 축제를 통해 전통문화를 알리는 사회문화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라 판단됨.

○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단합, 지역문화계승 및 지역 정체성과 함께 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있어 축제의 역할을 볼 수 있었음.

○ 축제의 주제와 부합하는 프로그램의 신설로 인해 타 축제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또한 많은 가족단위 방문객들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였음.

❑ 개선할 점

○ 축제 프로그램들이 천자문과 논어 등 쉽게 다가설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놀이를 접목한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축제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정적인 축제이기 때문에 축제의 흥을 돋우기 위해 저글링광대, 품바, 몸짓난장, 한중 기예공연 등의 프로그램을 배치하였지만, 기본적으로 축제의 주제와는 맞지 않은 프로그램으로 보여 지며 개막프로그램 및 폐막프로그램은 향후 많은 부문 개선할 필요가 있음.

(3) 총 평

○ 영암왕인문화축제는 왕인박사의 업적과 함께 지역전통문화의 계승이라는 확실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영암군과 지역주민의 열정이 느껴지는 축제로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갖추고 있음.

○ 한일 양국의 문화교류인 만큼 일본의 다양한 음식 및 생활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되면 교육적 학습적 효과가 있는 더 발전된 축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됨.

○ 향후 축제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축제재원의 자립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지역 상인들의 자발적인 협력 체계와 스폰서십 등을 통해 자립성의 성과를 매년 높여가는 노력이 필요함.

○ 또한 현재는 영암군에 역할이 더 많이 보여 지고 있으므로 향후 서서히 민간으로의 이양을 위한 체계적인 축제조직위원회의 구성과 지역축제전문가 양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㉜ 보성 다향제 · 녹차대축제

(1) 개 요

- ❑ 기 간 : 2012. 5. 16.~ 5. 20. (5일간)
- ❑ 장 소 : 한국차소리문화공원
- ❑ 주 최 : 보성차생산자조합
- ❑ 주 관 : 보성녹차대축제추진위원회
- ❑ 주요행사
  - ○ 체험 행사 : 차만들기, 차잎따기, 명사와 함께하는 차밭나들이 등
  - ○ 기획·전시 행사 : 보성녹차전시판매, 문경전통찻사발 특별전, 녹차음식 등
  - ○ 연계 행사 : 개막식 퍼포먼스, 축하공연, 녹차생활체조 경연대회, 차밭 콘서트, 녹차·공룡·섬이 하나되는 시간여행 등
  - ○ 야간 행사 : 신흥동산 축하공연, 녹차대축제 개막축하공연, 차밭 영화제 운영, 녹차·공룡·섬이 하나 되는 열린 음악회 등.

(2) 항목별 평가

가. 축제프로그램 완성도

- ❑ 잘된 점
  - ○ 올해 38회로 개최되는 본 축제는 이미 국내에서 지명도가 높은 보성녹차라는 주제로 일관성 있는 프 로그램들이 진행됨으로써 전반적으로 비교적 완성도가 높다. 특히 여수세계박람회와 연계하여 프로그램 이 운영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프로그램 진행상에서 돋보이는 것은 보성군과문경시가 대표축제인 차와 찻 사발을 연계한 업무협약 체결을 맺고 유관행사를 진행하면서 차와 찻 사발 특별전을 개최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보성군 농 특산물 전시·판매장과 연결하여 전시와 판매를 동시에 운영하는 등 실제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효율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된다.
  - ○ 웰빙차잎따기체험, 다함께 차만들기체험, 명사와 함께하는 차밭나들이, 녹차뷰티미용

건강체험(녹차팩, 녹차족욕) 등 관광객들이 직접차를 체험하는 행사들이 많아 관객밀착형 프로그램개발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한 공연과 경연행사들이 다양하면서도 실제 판매 및 관리경영에 도움이 되는 상품들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관련자원봉사자, 공무원 및 경연참여자들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친절히 관련 내용을 해설해주는 행사활동들이 원만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잘 진행됨으로써 보성지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 전체적으로 보성녹차의 아이덴티티를 충분히 살린 프로그램들이 제시되고 있다. 운영에 있어서도 다양성과 운영주체 및 관광객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되고 있다. 아이스크림, 과자 등 녹 차를 활용한 응용상품들이 제공되고 있어 장차 상품화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전시행사 프로그램들도 잘 운영되고 있는 편이며 녹차를 활용한 웰빙관광상품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향후 이러한 웰빙상품들이 꾸준히 개발되고 지속성을 가질 때 지역주민의 수익증대와 보성군 재정자립도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축제를 통한 녹차 웰빙관광상품의 명품화 전략을 기대해 본다.

❑ 개선할 점

- 축제장의 몽골텐트와 자연환경이 다소 축제주제와 부조화되어 어색한 느낌을 연출하고 있다. 이러 한 관점에서 프로그램개발 차원에서 세밀한 부분의 체크와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축제프로그램의 콘텐츠 분류 및 분위기 연출에 있어서도 고급화와 대중화라는 이원화된 프로그램지침 개발 및 구분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축제프로그램들이 다소 산만하게 분산되어 있 고 체험, 전시, 공연·경연, 부대행사들이 중복 되는 경향이 있다. 좀 더 명확한 분류근거를 갖고 각 행 사 내용들을 선별하고 차별화 될 필요가 있으며, 각 프로그램행사별로 콘텐츠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 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축제프로그램이 완성될 필요가 있다.
- 행사진행자 마저도 "한국차 박물관"이 녹차박물관으로 혼용하여 부르는 등 기 설립된 차박물관에 대한 관심과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축제에 있어 박물관도 축제의 주요자원으로 활용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매우 미흡하다. 차기축제 때는 박물관과 축제를 연계한 프로그램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축제프로그램 대부분 행사장내에 집중되어 있고 보성군민 전체이 참여하고 분위기를 연출하는 행사장외의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 보성차재배단지라는 지역적인 한계는 있으나 야간축제의 프로그램 구성이 미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가수 공연은 성황보다도 야 간 공연 및 불꽃쇼 등이 보다 중요함으로 전반적으로 야간행사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 다. 따라서 군민전체가 야간에 다양한 '녹차등(green tea lamp)' 퍼레이드나 가가호호 '녹차등' 달기 운동 등 획기적이고 전군민이 참여하는 야간축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객의 욕구충족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나. 축제운영의 적절성

❑ 잘된 점

- ○ 각 행사장에서 제공하는 차 맛과 상품에 대하여 관광들에게 평가하여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는 프 로그램 운영은 매우 유익한 것으로 평가된다. 관광객들도 심사위원이 됨으로써 자부심과 참여의 즐 거움을 느끼고 있으며 참여업체들은 경쟁을 통해 제품의 질과 서비스마인드를 배우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있다. 이에 대한 향후 보다 세밀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개발을 기대해 본다. 자원봉사자들도 성의를 갖고 행사에 임하고 있으며 관련 공무원의 축제참여자세도 책임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축제 운영을 주도하고 있어 비교적 행사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성군민들도 대 체로 올해 38회 축제가 예년과 달리 프로그램이 다채롭고 재미있다는 평을 하고 있으며 참여도가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 ○ 본 축제운영의 가장 큰 특성은 관이 주도하여 운영하기 보다는 민간단체에서 상당부분 운영과 관리 를 맡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된다. 실례로 작년과 달리 대한다원의 적극적인 참여 및 운영관리가 이 루어지고 본 행사장 대한다원 간 출입로 연결되어 진행의 효율성을 가져다주고 있다. 특히 대한다원 과 소리문화공원 등과 연계하여 전국녹차사진촬영대회, 다향 백일장, 명사와 함께하는 차밭나들이 등 민 과 관이 협력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됨으로써 관광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행사에 참여한민간 업자들도 보성 차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어 참여한 방문객들에 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축제 전체를 보성 차와 연계한 통합적인 이미지를 창출 하고 있어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축제로서의 차별적인 장점과 가치를 잘 살리고 있다.

❑ 개선할 점

- ○ 시내방향에서 축제장으로 향하는 길목 중간 중간에 행사장 안내 표지판이 부족하고 종합적인 안내시 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운영도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교통의 동선배치도 원만하지 못해 다소 불편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야간공연 역시 관광객을 집중적으로 관심으로 끌고 유도할 수 있는 이벤트와 재미가 가미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축제 전반적으로 중심성이 분산되어 있는 편이다. 또한 품바공연 및 야시장 공연의 소음이 지나쳐 "차와 명상"적인 분위기를 해치는 요인이 됨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 축제에 전반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축제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콘트롤 타워 기능이 미약하다. 향후 축제 운영에 있어서는 각행사와 메인행사간의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며 사전에 행 사의 중심기능과 단위기능과의 충분한 사전 운영 시뮬레이션이 필요 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전국 차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

5천억 원의 판매량에 올리고 있는 보성녹차의 우수성을 축제 행사 기간 내내 집중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 분야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보성 녹차축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축제를 통해 지역이 소유하고 있는 녹차의 우수성을 제대로 홍보하고 보성군 전체가 평소에도 심지어 음식점, 공중화장실, 숙박업소, 길거리 등에 보성녹차 관련 로고, 이미지 상징물, 상징탑, 녹차 옷 개발 등 보성군전체가 녹차로 새로이 거듭나는 이미지통합(cooperated identity)전략이 우선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 축제발전성

❑ 잘된 점

- 본 축제는 주지하다시피 전국에서 가장 지명도가 높고 판매고가 높은 '보성차'라는 최고의 자원을 주 제로 한 축제행사로서 건강과 자연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상당히 부합되는 축제로 평가된다. 특히 전년도 와 비교하여 주행사장과 대한다원이 통합하여 운영됨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관광객의 참여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녹차 밭을 개방하여 산책로를 안내함으로써 보성이 자연청정지역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줌과 동시에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발상으로 평가된다. 특히 보성차라는 단일 주제를 가지고 발상의 전환을 통해 녹차와 연계한 건강관광식품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개발한 다면 축제의 성장잠재력은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축제의 전시 및 경연대회 행사들은 주목해야 할 부문이며 향후 더욱 발전시켜야 할 행사로 평가된다.
- 이번 '보성다향제 녹차대축제'는 축제이름 그대로 현재 급격히 소비증가추세에 있는 커피에 대응하여 정확한 방향성을 잡고 있다. 특히 본 축제의 중요성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점진적으로 커피시장에 비해 축소되어 가고 있는 녹차시장을 국가적 차원에서 녹차를 부활시키는 미래지향적인 이념과 철학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행사에 전반적으로 내제되어 있는 속성들이 상당히 알차게 진행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녹차를 잘 모르는 관광객들에게 각종 차와 관련된 실질적이고 체험적인 요소들이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진행되고 있어 녹차의 전반적인 우수성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교육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어 "녹차의 본고장"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주고 있다.

❑ 개선할 점

- 행사장 뒷산의 "득음의 길"과 팔각정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호조건을 갖추고 있었으나 메인행사장 과 연계가 미흡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펜션 등 숙박시설이 양호하고 주 변의 환경과 조화된 친화적인 조경과 시설들을

충분히 활용한 명소개발전략들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축제행사에 구조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행사장과의 자연스러운 동선배치나 유연성이 부족하고 38회나 진행되어온 축제가 여전히 집중과 분산배치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보성녹차에 대한 특수성이나 우수성에 대한 해석기능이 다소 부족하고 관광객 밀착형 전달매커니즘이 제대로 실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차박물관, 대한다원, 녹차밭 등과 기존의 펜션시설과 연계하여 4계절형 숙박형 패키지를 만들어 "보성녹차방문 여행"이라는 관광상품을 제대로 만들어 보성을 전국에 마케팅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익형 관광마케팅 개발전략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본 축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크게 야간공연이 부족하며 지역민전체가 동참하는 지역통합적 연계전략이 미비함으 로 이에 대한 과제해결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38회 보성다향제 녹차대축제」는 대축제에 맞는 명확한 주제의식이 다소 결여되어 있다. 즉, 단순한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하는 한계성을 벗어나 세계인 을 향한 축제로 승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한국녹차의 품질우수성과 명예를 높인다는 뚜렷한 명분과 목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나 행사 전반적으로 이러한 공유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커피수요와 당당히 대결할 수 있는 한국명차개발과 더불어 세계인이 공유할 수 있는 퓨전화된 "보성녹차브랜드의 글로벌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축제가 전국적, 세계적 축제로 성장하는 데에는 얼마간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민을 보성녹차축제전문가로 양성하는 프로그램들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그들로 하여금 지속적인 노하우를 가지도록 함으로써 보성녹차의 세계화가 실현될 것이다.

라. 축제의 성과

❑ 잘된 점

- 본 축제의 가장 큰 성과로는 외래 방문객 비율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올해 개 최 된 여수세계박람회의 영향도 있겠으나 축제주체인 보성군과 보성차생산조합원 들이 합심하여 관광객 지향의 다양한 행사와 참여형행사가 상당부분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참가인원의 증가를 통해 지역경 제에 부가적인 효과를 가져다주고 축제를 통한 보성차 판로확대에도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관광객들로 하여금 녹차에 대한 효능과 제조과정을 세세히 보여주는 노력들은 향후 보성녹차의 기본적인 발전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보성녹차의 특성과 가치성을 제대로 구현하여 전국을 대 상으로 새로운 판매네트워크 전략을 시도할 경우 획기적인 보성녹차 유통망을 확보할 수 있어 본 축제 가 지역경제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다.

○ 작년에 비해 프로그램구성에 많은 발전과 변화를 시도함으로써 관광객들의 호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 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및 지역주변상인들의 의견에 의하면 경유형 관광객보다 체류형 관광객이 늘어남 으로써 지역 매출이 전년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문경찻사발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업 무계획을 협약하고 연중 찻사발과 녹차를 직거래하는 활성화전략을 모색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수도권 기자, 여행사 등을 초청하여 축제 합동설명회 개최하고 축제행사를 통한 인 적·문화 교류 및 특산물 전시·판매에 적극참여를 유도했다는 점이 중요한 성과로 보여 진다.

□ 개선할 점

○ 메인 행사장 주변의 광활한 녹차밭이 있음으로 축제기간동안 보다 넓은 공간을 개방하여 출입을 허용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녹차와 더욱 친숙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녹차와 연계된 보성특화 먹거리가 개발이 제한적임 편임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축제를 보성녹차 먹거리에 대한 경 연대회를 개최하되 상금을 높이고 아이디얼 한 상품의 경우 실제로 관광상품화 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축제프로그램의 기본시설을 임시천막을 사용하고 있어 향후 더욱 발전된 축제로 이미지를 승화시키고 현재에 있는 인프라시설과 연계하여 메인축제장을 명소관광지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즉, 중장기 인프라계획을 수립하여 보성녹차청정 및 웰빙이미지에 맞는 목재 등을 활용한 영구적인 축제행사 및 체험시설들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보성녹차축제를 몇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중요한 하드웨어 전략임과 동시에 축제의 중요한 행사내용인 소프트웨어와 연계한 개발전략을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녹차축제 명소화 및 관광자원화 위한 마스트플랜과 실행계획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3) 총 평

○ 이번 「제38회 보성다향제 녹차대축제」의 두드러진 특징은 관광객들을 위한 새로운 축제행사 프로그램들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발전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어 축제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짧은 시간 안에 기획부터 홍보, 실행까지 모두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으로 사전에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은 보성녹차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 전략수립과 전반적으로 운영상의 시뮬레이션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보성군 차원에서 철저히 대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본 축제의 가장 차별화 된 특성은 전국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보성녹차"가 주제라는 점이다. 이것은 단지 보성녹차가 보성군만의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상품이라는 절

대적인 가치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국민들이 커피 맛에 점점 길들여지고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한 보성녹차의 시대적인 사명감과 국가차원에서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본 축제도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브랜드개발전략과 이념 정립이 필요하다. 차제에 축제를 통한 보성녹차의 중요성을 대 국민과 정부를 상대로 한 전방위로비가 필요하며, 지역에서도 보성녹차가 국민차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 이에 보성군차원에서의 장기적인 마스트플랜이 필요하며 축제를 통한 보성녹차의 글로벌브랜드 마케팅전략개발이 시대적으로 매우 필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 보성녹차축제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보성녹차에 치중된 프로그램제시에서 탈피하여 수 시로 변화하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추어야 한다. 즉, 새로운 녹차를 응용한 축제프로그램의 다양화를 꾀하고 지역특색에 걸 맞는 펀(fun)을 가미한 콘텐츠개발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외국인의 취향에 맞는 녹차활용 퓨전세계화 음식 등도 축제를 통해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번축제의 행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발전적이고 보다 관광객 지향적인 아이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할 것이다.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은 잘 되어 있으나 많은 관광객이 급증할 것에 대비한 여성전용 화장실, 만남의 광장, 안전사고 예방 대책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제안공모를 실시하는 방안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으며 상시 보성군 차원에서 전문축제전문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보성축제를 대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 야간행사 등 전체적으로 음향 개선이 필요로 하다. 높은 음향은 관람객을 유인하는 효과도 있지만 기존 관람객들의 의사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으며 특히 보성녹차는 전통과 명상이라는 내면적 가치가 중요함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 축제에서 다소 부족한 점은 원만한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의 구심점인 약함으로 '축제사랑방'을 마련하여 온라인상의 축제홈페이지는 물론, 오프라인상의 연계성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들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축제가 열려 있고 시민사회의 참여의 강점이라는 점을 살리자는 것이다. 또한 본 축제가 보성차생산자조합과 보성녹차대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축제를 진행하는 데에는 협조기관인 보성군의 행·재정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소규모의 인구를 가진 보성군의 경우 축제진행을 자원봉사에 맡기고,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진행에 어려움이 많게 되기 때문에 역할분담 이외에 축제현장에서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부분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3 문경 전통찻사발축제

(1) 개 요

❑ **기 간** : 2012년 4월 28일(土) - 5월 6일(日) 9일간

❑ **장 소** : 문경 새재 오픈 세트장

❑ **주 최** : 문경시

❑ **주 관** : 문경전통찻사발축제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공식행사 : 개막식, 흙, 불, 바람의 어울림 주제 공연, 식전 행사 축하 공연, 개막행사 핸드 프린팅 등
- 체험행사 : 도자기 괭물, 도자기 빚기, 망댕이 가마 시연, 찻사발 그림 그리기 대회, 도자기 흙 체험, 찻사발 낚시, 찻사발 탁본, 찻사발 무늬 티셔츠 만들기, 찻사발 소원 달기, 형틀 체험 등
- 기획전시 : 도예 명장 특별전, 전국 찻사발 공모대전, 어린이 도공전, 문경 전통 도자기 명품전, 찻사발 교류전, 국제 찻사발 공모전 등
- 특별행사 : 국제도자기 교류전 워크샵, 찻사발 깜짝 경매, 문경 문화 퍼포먼스, 망댕이 가마 불 지피기, 문경 전통 발물레 경진 대회 등
- 부대행사 : 경상감사 도임 행사 퍼레이드, 다례 시연, 전통 혼례, 평양 민속예술단, 퓨전 국악 등

(2) 항목별 평가

가. 축제프로그램 완성도

❑ **잘된 점**

- 축제장 입구의 축제 주제관은 문경지역의 특성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하며, 2012년 축제 주제를 잘 부각시키는 좋은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함.
- 문경의 찻사발축제가 성공함으로써 많은 도예인이 작품활동과 근거지로서 또한 지역의 전통 도자기 생산업체들이 축제에 참여함으로써 도자기 산업은 문경의 대표 문화사업이라 평가함.

- 도예 명장 전시회를 통하여 관람객은 도자기 명장들의 작품을 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도예 명장 명품 초대전" 행사는 문경이 전통찻사발축제를 개최하는 당위성을 부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평가함.
- 타 지역 도자기 축제와 차별되는 전통가마를 강조하기 위해 축제장내에 가마터를 재현함으로써 방문객의 관심을 더욱 갖게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 도자기 제작과정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한 팽물 체험장 프로그램은 축제의 완성도를 높이는 바람직한 프로그램으로 평가함.

❑ 개선할 점

- 축제 프로그램 구성과 내용에 있어서 전통 찻사발이라는 주제와 부합되는데 무리가 없었지만 문경 전통찻사발축제를 연상할 수 있는 Killer Contents가 부족함. 도자기 전시 판매 부스가 넓은 공간을 차지함에 따라 전시판매프로그램을 대표프로그램으로 생각하는 오류가 있었음.
- 축제의 기본 소재가 찻사발이라는 속성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전시와 판매 프로그램으로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존재함으로, 찻사발의 제작과정에서 생겨나는 문화를 중심으로 대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 직접참여프로그램이 방문객들에게 더욱 높은 만족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의 소재를 개발하는 한편 일탈성과 유희성을 포함하는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함.

나. 축제운영의 적절성

❑ 잘된 점

- 축제장 외부에 상설공연장과 축제장내에 소무대를 운영하였는데, 이러한 공간의 다핵화는 방문객의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축제장 공간의 활용을 잘하였다고 판단함.
- 또한 기타 축제와 관련된 홍보문 등도 축제프로그램 장소와 동선 위치 등을 자세히 소개하여 방문객들의 축제장 이동에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축제장의 벽면이나 바닥면에 축제 부스를 안내함으로써 넓은 축제 공간에서 해당 부스까지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은 방문객들의 축제 체험과 관람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함.
- 도로 등 교통편의시설이 크게 확충되어 축제행사장까지 쉽고 편하게 찾아올 수 있었고 문경 인근지역에 찻사발 축제를 홍보하는 안내 표지판 및 배너기와 현수막 등이 설치되어 있어 접근성 높였음. 또한 전국단위의 찻사발 전시회를 통한 사전홍보활동을 하고, 다양한 매체별 홍보를 통해 외부 관광객 유인하였고, 행사장까지의 안내표식은 관광객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였음.

❑ 개선할 점

- ○ 축제행사장 입구에 등산복 판매소가 관람객들의 통행을 방해하였으며, 모든 관람객은 등산복 판매소를 통과하게끔 되었는데 이러한 등산복 판매공간은 찻사발 축제와는 주제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약자 수송차량과 동선의 혼재로 사고위험이 존재하였음.
- ○ 문경 전통찻사발축제의 축제장으로 활용한 드라마세트장에서는 시설물들이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보수가 필요한 것들이 보였으며, 축제 공간이 드라마세트장이다 보니 장애인이나 유모차를 가진 관람객들이 축제장에 접근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 ○ 축제장내 종합 안내소는 제 1관문 앞에 설치하였는데 제1관문에서 세트장까지는 상당한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세트장내에는 축제 안내소가 없어서 관람객이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 찻사발 축제에서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도자기 만들기 체험을 들 수 있는데 체험공간이 좁은 공간에서 운영되다 보니 찻사발 축제가 도자기와 관련된 축제라는 이미지를 강화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향후에는 도자기 만들기 체험공간을 확대하고 야간에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함.

다. 축제 발전가능성

❑ 잘된 점

- ○ 문경전통찻사발축제는 도자기를 주제로 한 축제로서 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도예공방들이 많이 참여하고 각 도요지에서 생산된 도자기를 전시판매하고 있어 지역산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축제라 할 수 있다.
- ○ 또한 축제를 개최하는 장소가 문경새재 입구에 있어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어디에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우수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도 찻사발축제가 발전할 수 있는 강력한 조건이라 평가함.

❑ 개선할 점

- ○ 문경전통찻사발축제는 도예인만의 축제가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축제에 적극 참여하여 축제의 주인이 되어야한다. 지역주민들의 축제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하고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확대해야 될 것으로 판단함.
- ○ 축제장을 방문한 방문객들의 추세가 가족단위 방문객들이고 이들은 축제를 방문한 기념품을 갖고 싶어 하는데, 축제 기념품은 특산품 판매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지역 내 소득창출에 일조를 하고 있음. 따라서 다양한 캐릭터의 기념품들을 개발해야 함.

라. 축제의 성과

❑ 잘된 점

- ○ 문경찻사발축제에서 도입한 입장권제도는 축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함. 또한 입장권은 축제장 체험료나 지역 특산물을 구입하도록 하여 축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하였다고 판단함.
- ○ 본 축제를 통하여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 살거리 등의 체험을 통하여 문경이 전통 문화와 전통 찻사발의 도시로서 최적의 관광지임을 각인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함.

❑ 개선할 점

- ○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체류형 축제로 발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야간 프로그램 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함. 또한 문경이 갖고 있는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연계관광프로그램 개발로 체류형 축제로 거듭나야함.
- ○ 원거리지역 거주자들에 대한 홍보방안을 강구해야함. 특히 원거리 방문객 유치가 더욱 확대되어야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들은 근거리 방문객보다 지출이 많다는 것임. 관내에서 체류 또는 머무는 시간의 연장과 함께 주변 관광지를 방문하여 소비지출이 많아 궁극적으로는 문경시의 지역경제 활성화게 크게 보탬이 되기 때문임.
- ○ 기념품과 관련된 각종 아이디어와 새로운 변화모색이 필요함. 축제관련 기념품이 수년 동안 거의 비슷한 유형의 기념품으로 방문객들의 구매를 유도해왔는데 방문객들을 위하여 그리고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기념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의 신규 개발이 필요함. 찻사발축제의 일부 체험 프로그램 등은 수 년 동안 반복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만족도가 떨어지고 체험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프로그램들은 이제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체할 필요가 있음.
- ○ 무엇보다도 축제를 대표할만한 명확한 킬러콘텐츠(killer contents) 개발이 필요함. 문경하면 찻사발로 각인되어왔고 문경을 1회 이상 방문한 경험이 있는 방문객들 대부분은 그렇게 인지하고 있음. 축제를 대표할만한 가장 분명한 킬러콘텐츠(killer contents)가 개발되어 축제기간동안 매일 운영되어야하고 킬러콘텐츠(killer contents)로 하여금 문경시를 대표할 만한 이미지로 거듭나야 할 것임.

(3) 총 평

- 지역축제의 목적은 축제를 통하여 지역의 명소를 홍보하고, 지역특산물 및 생산물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지역문화예술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화합과 축제의 장을 연출하는 등의 다양한 효과를 가져 오는데 그 목적 있음. 이러한 효과적인 측면에서 볼 때 문경전통찻사발축제는 이들 목적을 어느 정도 충족시키고 있다고 판단함.
- 문경전통찻사발축제는 축제 주제에 맞는 축제 행사로 잘 구성되었다고 평가 할 수 있으나, 보다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으로 체류시간이 증대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야간프로그램의 부재는 아쉬운 대목임.
- 축제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축제 공간과 동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또한 다양하지 못한 음식 종류와 휴식공간 및 편의시설의 부족함을 개선해야함.

㉞ 영주 풍기인삼축제

(1) 개 요

- ❑ **기 간** : 2012년 10월 6일(토) - 10월 14일(일) 9일간
- ❑ **장 소** : 풍기 남원천 및 인삼밭
- ❑ **주 최** : 영주시
- ❑ **주 관** : (재)영주풍기인삼축제조직위원회
- ❑ **주요행사**
  - ○ 체험 행사 : 기념사진촬영장운영, 인삼병(주)만들기 체험, 풍기인삼캐기체험, 인삼 인절미 떡메치기 체험 등
  - ○ 문화 행사 : 전국 풍기인삼아가씨 선발대회, 풍기인삼 건강 에어로빅 경연대회, 소백산인삼가요제 등
  - ○ 야간 행사 : 개막식, 공개방송, 가요제, 초청공연 등

(2) 항목별 평가

가. 축제프로그램 완성도

- ❑ **잘된 점**
  - ○ 행사규모가 전보다 커지고 전시내용도 다양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문화관광축제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 ○ 프로그램에서도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주제와 접목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높이 평가함. 아직 일부 프로그램은 조정할 필요가 있음.
  - ○ 남원천변에 유등을 설치하여 밋밋함을 해소하려는 노력과 유등에 풍기인삼의 스토리를 전개하려는 시도는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함.
  - ○ 영주지명을 활용하여 '영주'이름을 가진 방문객에게 기념품을 주는 프로그램은 축제다운 재미를 제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생각함. 또한 인삼밭을 축제장에 일부 조정하여 사진을 찍어주는 프로그램도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프로그램으로 평가함.

○ 인삼판매의 공정성을 위해 공인된 인삼가격을 공시하고 있어, 방문객과 판매자들의 신뢰를 쌓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돋보임.

❑ 개선할 점

○ 축제 개막식이 아직 연예인을 중심으로 한 공연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제고해 볼만한 사항으로 생각함. 일부 인기있는 아이돌을 통해 축제집객을 유도하는 것보다는 축제 자체의 프로그램과 축제주제로 특화된 공연을 고려해야 함.

○ 남원천 건너편의 전국 특산품판매와 외부상인의 판매점들이 축제와 이질적임. 축제주제와 지역특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체험행사에 대한 전반적 점검과 보완이 필요함. 방문객 중에 가족단위 방문객도 많이 보였지만 가족단위로 참여하거나 아이들이 참여할 체험행사가 부족함.

○ 인삼과 관련되지 않는 프로그램과 전시행사가 많음. 영주지역에 사과와 한우 등이 유명하지만 부차적으로 활용하고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주제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축제에 대한 지각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못함. 또한 프로그램 중 축제주제와 동떨어진 프로그램은 과감히 정리하고 지역의 콘텐츠와 설화 등을 스토리화 하여 프로그램으로 연결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전체적으로 풍기역과 축제장을 잘 연계하여 풍기의 재래시장과도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함. 지역의 여러 재래시장과의 관계 때문에 천변 축제장 중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함. 하지만 현재의 천변 축제공간과 정서로는 한계가 있음. 방문객이 풍기의 진정성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재래시장과 역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음.

○ 지역관광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함. 풍기와 영주지역에는 부석사와 소백산 등 많은 관광자원이 있지만 다른 축제와 같이 적극적으로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음. 인삼축제를 위해 온 방문객이 더 오래 머물고 영주의 다양한 매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연계관광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음.

나. 축제운영의 적절성

❑ 잘된 점

○ 지역주민들이 부스를 운영하거나 동양대학교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인삼칵테일 등 자발적이고 주체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모습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함.

○ 일부 소매치기 등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경찰과의 협조로 범죄를 예방하려는 노력과 소방차 등을 대기하여 축제의 안전을 고려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함.

○ 부스운영 등에서 공정한 운영을 위한 노력이 보임. 인삼판매나 축제장 내 음식점 등 이권으로 상호갈등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대체로 선정방식에 동의하도록 하여 잘 조정하고 있음.

❑ 개선할 점

- ○ 개막식 등 일부 아이돌 공연으로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대한 더 철저한 동선체계와 혼잡관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 ○ 민간축제 전문가를 활용하여 축제운영의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전반적으로 행정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간축제 전문가의 노하우와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축제위원회를 통해 채용하여 1년 동안 축제만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 ○ 축제장소와 공간이 일렬형태로 구성되어 단순함. 천변 공간의 한계 때문에 축제전시와 행사가 전체적으로 밋밋하게 여겨짐. 남원천와 건너편 및 주민의 생활공간 속으로 축제동선을 연장하여 다양한 축제프로그램이 되도록 기획되어야 함.
- ○ 축제 전체적으로 '대동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제가 부족함. 축제 드레스코드나 축제 셔츠 및 모자 등을 통해 모든 방문객이 공유하는 코드를 만들어내고 함께 즐거워하는 운영을 해야함.
- ○ 외국인을 위한 배려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현재 외국인 수가 많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외국인을 위한 음식, 편의시설, 해설통역 등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다. 축제발전성

❑ 잘된 점

- ○ 영주시와 축제위원회가 의욕적으로 축제를 추진하고 있음. 풍기인삼축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높고 다른 축제를 방문하며 경험을 쌓고 잘된 점을 벤치마킹을 하고 있음.
- ○ 참여 부스임대료를 통해 축제재정에 기여하고 있음. 축제에서 수익을 올리는 인삼판매부스와 음식점의 경우 부스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음. 특히, 축제 후 참가했던 외식업체들이 수익금 중 일부를 장학금으로 기탁하였음.
- ○ 전체적으로 축제규모가 확대되었고 프로그램과 콘텐츠도 다양해졌음. 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받고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발전하면 풍기의 콘텐츠를 갖춘 더 좋은 축제가 될 것으로 생각함.

❑ 개선할 점

- ○ 현재 문화관광축제의 방향이 축제의 경제적 자립성에 비중을 두고 있음. 축제재원 조성에 있어서 일부 부스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전체 축제비용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비율임. 따라서 축제의 경제적 자립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함. 스폰서쉽과 축제 자체수익구조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 ○ 축제위원회가 있지만 더 전문적인 조직으로 일 년 동안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민간의 축제위원회를 중심으로 축제재원, 프로그램, 운영의 노하우 등 축제의 전반운영과 기획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함.

○ 축제의 자원봉사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축제 때 일시적으로만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대학생과 중고생 및 주민들이 매년 참여하고 참여경력에 따라 역할과 임무가 차별화 될 수 있도록 해야함.

라. 축제의 성과

❑ 잘된 점

○ 축제 성과에 대해 방문객 수 105만 명, 인삼판매액 210억, 경제파급효과를 9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음.

○ 축제기간을 6일에서 9일로 늘리는 등 축제가 전반적으로 확장되었고 발전된 모습을 모임. 또한 인삼에 관련된 체험행사도 많은 사람이 참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프로그램도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풍기인삼축제는 그동안 금산 중심으로 형성된 인삼인지도와 유통체계를 다변화시키는 성과를 가져옴. 또한 풍기와 영주의 지역의 인지도를 높이는 장소마케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평가함.

❑ 개선할 점

○ 이전 축제가 개최일 수도 늘어나고 많은 방문객이 찾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100만 명이 넘는 추정치는 제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매일 10만 명 이상이 방문해야 하는데, 현재 축제공간으로는 10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없을 것으로 평가함. 가능한 정확한 방문객 수를 산정해야 향후 축제기획과 운영에 반영할 수 있음. 축제방문객 수를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근사치에 접근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 축제방문객이 재방문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마케팅과 고객관리가 중요함. 홈페이지의 경우 축제이후에 결과와 성과에 대한 업데이트가 되고 있지 않음. 또한 방문고객이 내년에 다시 방문해야 할 이유를 만들어 주지 못하고 있음. 고객관리를 위한 전략수립이 필요함.

○ 축제가 중장기발전계획을 통해 향후 10년 이후를 기획할 필요가 있음. 매년 축제평가에만 의존하거나 책정되는 예산에 좌우 되는 방식이 아니라, 장기 계획 속에서 안정적인 기획과 재원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함. 준비된 축제는 폐막식에서 내년 축제주제를 발표하며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제공해야 함. 영주풍기인삼축제가 한국의 대표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장기적인 계획과 실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3) 총 평

- 축제를 발전시키고자하는 의지가 높음. 영주시와 축제위원회가 의욕적으로 축제를 추진하고 있음. 풍기인삼축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높고 다른 축제를 방문하며 경험을 쌓고 잘된 점을 벤치마킹을 하고 있음.
- 축제규모가 확대되었고 프로그램과 콘텐츠도 다양해졌음.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 풍기의 콘텐츠를 갖춘 더 좋은 축제가 될 것으로 생각함.
- 향후 축제효과는 실제 방문객 수와 실수를 반영한 경제효과를 발표하는 것이 축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바람직함.
- 축제 프로그램 중 고려해야 할 것도 있음. 연예인을 중심으로 한 공연으로 축제집객을 유도하는 것보다는 축제자체의 프로그램과 축제주제로 특화된 공연을 고려해야 함. 또한 주제와 관련되지 않는 프로그램은 과감히 정리하고 지역의 콘텐츠와 설화 등을 스토리화 하여 풍기인삼축제만의 프로그램으로 연결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특히 영주풍기인삼축제가 10년 후 지역의 문화관광콘텐츠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중장기 발전방안이 구축되어야 함. 지역개발계획과 함께 콘텐츠와 인프라 계획이 함께 구상되어야 함. 대표적인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전망 속에서 오늘의 축제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수적임.

㉟ 포항 불빛축제

(1) 개 요

❑ **기 간** : 2012년 7월 27일(금) - 8월 5일(일) 10일간

❑ **장 소** : 형산강체육공원, 북부해수욕장, 시내일원

❑ **주 최** : 포항시

❑ **주 관** : 포항시축제위원회, POSCO

❑ **주요행사**

- ○ 불꽃 연출 : 뮤직불꽃쇼(국제팀 경연)
- ○ 공연행사 : 해외교류도시문화행사, 행복나눔감사콘서트, 영일만 대학열전, 불빛댄스경연대회, 불빛 답밴드, 포항월월이청청, 해변가요제 등
- ○ 참여 행사 : 비추고 놀자(DJ클럽), 모닥불 피워놓고 등
- ○ 체험 행사 : 두껍아 두껍아, 황금물고기를 잡아라, 연오랑 세오녀 러브웨이 등
- ○ 부대 행사 : 유도대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포항울림 뮤직 페스티벌, 불빛미술대전, 불빛거리공연 등

(2) 항목별 평가

가. 축제프로그램 완성도

❑ **잘된 점**

- ○ 중국, 이탈리아, 폴란드의 수준 높은 불꽃경연대회를 선보임. 국제대회에서 수상한 팀들이라 음악 등과 어우러지고 예술적으로 표현해 내는 수준이 높았음.
- ○ 지역이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고 있음. 영일만 대학열전의 경우 포항지역의 대학동아리들을 활용하여 축제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장을 열어주는 것으로 바람직함. 다만, 이들에게도 주제를 미리 공지하고 주제에 부합하는 공연과 퍼포먼스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음. 포항월월이청청은

지역주민들과 자원봉사자가 연합하여 기네스북에 도전함. 기대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여 좋은 성과를 냄.

- 지역콘텐츠를 축제에 도입하려는 시도를 함. 개막식에서 연오랑 세오녀의 이야기를 통해 포항의 빛을 설명하고, 빛 축제로서의 당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특히, 4막으로 구성된 '이제는 빛이다' 주제행사는 전체적으로 수준 높은 퍼포먼스로 연출되었음.

❑ 개선할 점

- 축제 프로그램과 장소의 집중화가 필요함. 불빛축제의 콘텐츠와 프로그램에 비해 장소와 동선이 너무 떨어져 있음. 형산강체육공원의 불꽃경연대회, 포항중학교부터의 불빛퍼레이드, 북부해수욕장의 행사부스, 북부해수욕장 끝의 연오랑 세오녀 러브웨이 등 주요 프로그램의 장소가 너무 분산되어 있음. 현재의 예산과 프로그램 수를 고려하여 한정된 공간에 집중하여 축제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 국제불꽃경연대회의 수준이 높은 것에 비해 사전행사의 문화공연이 너무 길어 지루하게 여겨짐. 또한 전체 주제와 부합되지 않는 부대공연도 있어 향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포항의 근대역사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결합할 필요가 있음. 구룡포 등 근대유산을 미화하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축제 콘텐츠로 접목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초등학생들에게는 '조선의 마지막 군마' 등 이야기를 통해 포항의 구룡포가 익숙한 장소임. 유치원, 초등학생을 동반한 가족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구성될 필요가 있음.
- 축제의 체험속성 중 '대동성(어울림)'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포항월월이청청과 비추고 놀자의 드레스코드 등 일부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축제 전체적으로 드레스코드로서 같은 색깔의 셔츠, 모자, 안경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해변의 밤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춘천마임축제의 '도깨비난장'이나 '미친 금요일' 같이 밤새 놀 수 있는 야간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낮에는 날씨가 덥고 상대적으로 저녁과 야간행사에 대한 호응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함. 야간 프로그램이 축제의 재미 뿐 만 아니라 지역의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유사한 다른 축제들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함.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부산불꽃축제와 서울불꽃축제와 차별화 될 수 있는 내용과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야 함.
- 축제의 슬로건이 '소주제'를 반영하고 있지만 모호하여 올해의 주제 프로그램으로 연계되지 못함. 좀 더 구체적인 매년의 소주제를 통해 축제가 프로그램의 타성을 벗어나 변화하는 축제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니스 카니발은 전통에 따라 매년 '왕'을 메인 테마로 선정하는데, 축제의 메인 테마는 왕이지만 매년 왕의 이름이 바뀌는 소주제 전략을 택함. 소주제에 따라 주제의식이 반영된 프로그램인 퍼레이드

에는 시민과 관광객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퍼레이드를 관람하고 참여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은 축제의 주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음.

년도	테마	의미
2009	가면무도회의 왕	가면을 쓰는 등 인간의 외면을 위장하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현대적이면서 독창적이고 별난 판타지를 실현시키고자 함
2010	파란행성, 지구의 왕	지구의 지속적 발전과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하는 범세계적 메시지를 재미있고 유쾌한 판타지를 통해 구현함
2011	지중해의 왕	지중해에서 자라는 나무나 식물들을 소재로 한 독특하고 창조적인 의상 및 프로그램을 통해 지중해의 지리적·환경적 의미와 목적을 알리고자 함

나. 축제운영의 적절성

❑ 잘된 점

- ○ 북부해수욕장의 경우 인기 있는 해수욕장으로 기본 인프라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음. 상대적으로 형산강체육공원에는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불꽃경연을 보기위해 몰리기 때문에 편의시설과 안전문제에 대해 더 신경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함.
- ○ 축제진행이 체계적임. 축제 관계자들의 역할에 따라 전반적 진행이 원활하고 협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포항 공무원들의 노력이 잘 드러나고 있음.

❑ 개선할 점

- ○ 축제의 안전문제에 더 신중한 준비가 필요함. 불꽃경연 중 한화에서 시연을 보이던 불꽃새가 참관객 사이에 떨어졌음. 축제운영 상 안전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 축제를 알리기 위한 온라인 홍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3분 정도의 축제홍보 동영상을 다국어로 제작하여 유투브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파하는 방안이 필요함. 또한 홈페이지는 1년 동안 계속 관리되어야 하고, 홈페이지의 방문후기 등을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함.
- ○ 축제운영의 궁극적인 주체는 민간이 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주민들을 중심으로 축제추진위가 좀 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 또한 행정기관 내에도 축제전문위원 등을 배치하여 축제기획의 전문성과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 축제공간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전체적으로 분산된 축제공간으로 축제분위기가 잘 나타나지 않음. 축제공간에서도 각 구역들이 모두 스토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축제개최 후 홈페이지가 제대로 업데이트 되지 못하고 있음. 축제성과와 축제인지도 및 기존 방문객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마케팅체계를 갖추어야 함.
- 축제발전을 위해서는 중장기 발전계획이 필요함. 현재 축제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향후 10년 발전모델을 구상하는 것이 필요함.

다. 축제발전성

❑ 잘된 점

- 지역주민의 참여의지는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함. 특히, 월월이청청에 참가하는 지역주민은 한복을 입고 열성적으로 참여함. 또한 지역 대학의 동아리가 모두 참여하는 등 지역주민의 협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 자치단체의 지원과 육성의지가 높음. 지역의 공무원들이 체계적으로 축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축제를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 개선할 점

- 축제의 민간추진 주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지역주민이 스스로 꾸려가는 축제체계를 만들기 위해 축제아카데미를 통한 교육이 필요함. 또한 다양한 축제 전문가를 결합하여 축제 프로그램의 질과 수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함.
- 축제 재정 및 후원의 다원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 POSCO가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포항시 축제가 POSCO 축제로 보여지지 않도록 차별화 할 필요가 있음. 포항주민의 후원과 관련 숙박시설, 음식점 등을 통한 다양한 후원을 조직할 필요가 있음.

라. 축제의 성과

❑ 잘된 점

- 불꽃축제는 여름 포항해수욕장을 찾아온 방문객들에게 관광매력을 제공하고 있음. 자연적 매력보다는 이벤트와 행사적 콘텐츠가 이 장소에 더 적절한 관광매력이 될 것으로 생각함.
- 포항불꽃축제로 인해 포항의 이미지와 인지도가 높아진 것으로 생각함. 겨울의 호미곶 해맞이 축제와 더불어 여름의 불꽃축제를 통해 포항의 이미지가 산업도시에서 엔터테인먼트가 있는 재미있는 도시로 변화하고 있음.

❑ 개선할 점

- 축제파급효과와 마케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축제는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여가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함. 이에 비해 외부 관광객과 외래 관광객을 위한 홍보와 마

케팅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판단함. 전체적으로 방문객 중에 관광객의 수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 축제를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도록 기획할 필요가 있음. 축제를 통해 지역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전략을 만들 필요가 있음. 포항의 스토리와 그림, 공연 등으로 표현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문화예술 성과를 확산할 필요가 있음.

(3) 총 평

- 축제의 예술성과 방문객의 호응이 높음. 국제대회에서 수상한 중국, 이탈리아, 폴란드의 수준 높은 불꽃경연대회를 선보임. 불꽃은 음악 등과 어우러지고 예술적으로 표현해 내는 수준이 높았음.
- 포항불꽃축제로 인해 포항의 이미지와 인지도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함. 겨울의 호미곶 해맞이 축제와 더불어 여름의 불꽃축제를 통해 포항의 이미지가 산업도시에서 엔터테인먼트가 있는 재미있는 도시로 변화하고 있음.
- 향후 축제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불빛축제의 콘텐츠와 프로그램에 비해 장소와 동선이 너무 떨어져 있음. 형산강체육공원의 불꽃경연대회, 포항중학교부터의 불빛퍼레이드, 북부해수욕장의 행사부스, 북부해수욕장 끝의 연오랑 세오녀 러브웨이 등 주요 프로그램의 장소가 너무 분산되어 있음. 현재의 예산과 프로그램 수를 고려하여 한정된 공간에 집중하여 축제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 방문객이 '대동성(어울림)'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함. 포항월월이청청과 비추고 놀자의 드레스코드 등 일부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축제 전체적으로 드레스코드로서 같은 색깔의 셔츠, 모자, 안경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더 나아가 축제주제가, 축제주제 빛깔 등 축제를 특화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포항불꽃축제의 파급효과와 마케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현재 축제는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여가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함. 이에 비해 외부 관광객과 외래 관광객을 위한 홍보와 마케팅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판단함. 전체적으로 방문객 중에 관광객의 수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함.
- 축제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전망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매년 축제를 급하게 준비하고 개최하는 방식이 아니라 향후 10년간 주제를 미리 정하고, 10년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지 기획할 필요가 있음. 장기비전을 가진 축제만이 미래를 대비하고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음. 이를 위해, 지역 전문가와 외부 전문가가 함께 모여 논의하고 연구할 수 있어야 함.

36 고령 대가야체험축제

(1) 개 요

❑ **행사명** : 2012 대가야체험축제

❑ **기 간** : 2012. 4. 19(목) ~ 4. 22(일) 【4일간】

❑ **주 제** : 대가야의 혼불 【Spirit of Daegaya】

❑ **장 소** : 대가야 역사테마관광지, 대가야박물관 및 고령관내 일원

❑ **주요행사**

- ○ 주제관 : 대가야 박물관 기획전시실, 대가야 역사테마관광지 웅기굴 가마터
- ○ 체험행사
  - 대가야 유물체험구역: 철사공예체험, 유물타각 체험, 장신구 제작체험, 퍼즐체험
  - 대가야 생활체험 구역: 움집제작 체험, 복식체험, 수레타기 체험, 배만들기 체험
  - 대가야 용사체험 구역: 활 만들기 체험, 칼 만들기 체험
  - 대가야 예술체험구역, 대가야 토기체험구역, 가야금의 비밀구역, 문화체험구역등
  - 농촌 및 전통문화체험, 대가야 고을체험
- ○ 부대행사
  - 딸기체험 프로그램, 제12회 대가야 왕릉제, 상가활성화 시장축제, 2012 고령가얏고 음악제. 제21회 고령전국 우륵 가야금 경연대회, 제33회 악성우륵 추모제, 시가지 소망등 달기 등

(2) 항목별 평가

가. 축제의 특성 및 콘텐츠

❑ **잘된 점**

- ○ 『2012 대가야체험축제』의 메인 주제는 "대가야의 혼불 [Spirit of Daegaya] 로 대가야시대의 생활과 문화, 예술 등 가야인들의 생활전체를 테마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방문객들에게 가야시대를 체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축제기간 가야산성 광장에서 공연된 역사 재현극은 대가야 건국신화라 전해져오는 '정견모주 신화'를 바탕으로 사라진 가야의 역사가 아니라, 변화와 발전을 통해 현재까지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교훈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지역의 고유성과 역사성을 축제를 통해 구현하였음.
- 체험프로그램 외에도 고령의 특산물인 딸기를 테마로 한 딸기체험프로그램 및 대가야왕릉제, 상가활성화 시장축제, 가얏고 음악제, 우륵가야금 경연대회, 악성우륵추모제, 낙동강 문화한마당, 군민노래자랑, 지산동고분군 발굴 고유제 등 지역주민의 단합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등이 기획 운영되어 지역주민 및 방문자의 참여도를 높였음.
- 『2012 대가야체험축제』는 대가야 역사를 나타내는 역사테마관광지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축제의 주제와 인프라를 적절하게 운영 하였으며 대가야 왕릉전시관과 박물관을 축제에 활용함으로써 교육적인 체험 효과 및 방문객을 유도하는 요인으로 활용하였음.
- 2012년 대가야체험축제는 매년 당해의 주제에 맞는 주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축제 주제인 「대가야의 혼불」은 대가야의 도자기에 서린 장인의 혼불을 구현하고자 기획하여 고령을 전국적으로 유명한 도예지로서 명성과 의미를 축제를 통해 구현 하고자하는 점 등은 주제를 통해 축제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시도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개선할 점

- 『2012 대가야체험축제』는 가야인들의 생활전체를 테마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방문객들에게 가야시대를 체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축제를 지향하고 있음. 그러다보니 축제를 대표 할 수 있는 대표프로그램의 발굴과 규모화가 축제의 가장 큰 숙제로 판단됨. 축제의 주제와 크게 상관성이 없는 공연이 진행됨으로서 축제의 차별성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음. 향후 대표 프로그램의 발굴과 축제의 주제와 상관성이 부족한 프로그램은 과감히 배제하여 축제 차별성 향상을 고려하여야 함.
- 일반적으로 축제 참가자들의 참가동기인 유희성 및 일탈성의 프로그램 진행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판단 됨 따라서 향후 지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유도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대가야의 혼불」이라는 축제의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 운영한 주제관 중 하나인 「대가야 가마터」는 공간적인 한계로 주제를 표현하는데 미흡하였으며 방문객들이 주제관으로의 인식을 가지게 하는데 규모면에서도 미흡하였다고 판단됨.
- 주 행사장에서 공연한 주제극은 대가야의 혼을 통해서 대가야와 도자기 장인의 혼불을 표현하려고 하였으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주제극으로서 충분한 이미지를 전달하기에 부족하였다고 평가됨. 향후 공연의 완성도를 높일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여야 함.

나. 축제운영

❑ 잘된 점

- ○ 『2012 대가야체험축제』의 경우 축제의 육성을 위한 지자체의 강한 의지는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분담과 협조로 이어져 축제 운영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축제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하여 고령군 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축제의 홍보 효과를 제공하였고 축제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간접적이면서도 긍정적 참여가 지속되고 있음.
- ○ 고령군청에서는 재해상황 대책반을 편성하여 행사장 상황유지 및 안전순찰을 강화하였으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교통 및 질서 통제, 인력 지원, 긴급상황 대비 인력, 장비(소방차, 구급차) 배치 등을 실시하여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요인으로 판단함.
- ○ 외국인 방문객의 통역을 위해 축제 행사장내 주부안내소 및 외국인 전용안내 코너를 운영하였으며, 행사장 내 안내부스별 대가야복식을 착용한 영·일·중국어 통역 가능한 통역 도우미를 1일 30명 정도 투입하여 운영하여서 외국 방문자들에 대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특히 통역안내원은 통역이 가능한 외국어를 병기한 어깨띠를 두른 채 축제장 전역을 순회하면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인 것으로 판단됨.
- ○ 축제장 입구에 위치한 주차장에는 자가용 이용자 및 단체 관광객을 위한 버스 전용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었으며, 총 주차 시설은 7개소 5,200면 정도가 준비되어 있었음. 또한 주 주차장인 총 3개소 ① 구)고령여종고 ②군청광장, ③가야대학교 등에서 축제장까지 셔틀버스가 운영되어서 방문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음.

❑ 개선할 점

- ○ 축제 기간 내 축제장 내부의 음향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필요성이 제기 된다. 특히 일부 부스에서 사용되어진 주제와 연관성이 없는 클래식이라든지, 외국 민속음악, 유행가 등은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고 고령이 가야금의 고장임을 감안 할 수 있는 축제장의 음악 개발이 필요한 실정임.
- ○ 고령군의 경우 지리적 여건으로 대구 및 주변 지역에서의 외국 방문객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주 축제장인 대가야역사테마 관광지내 안내도에 영어, 일본어 등 외국어 표기 전혀 되어있지 않았다. 그리고 체험 부스, 대가야 고을체험 부스 및 각종 편의 식음시설 등에 외국어 병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향후 증가할 외국인 방문자 수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우륵박물관, 산림녹화 기념숲 등의 고령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와는 연계 투어 프로그

램의 개발이 미흡한 실정으로 향후 지역의 관광지를 연계하는 연계관광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 대가야 역사테마 관광지 펜션 이용자들의 경우 주행사장을 차량으로 통과하여야 하기 때문에 차량통행에 대한 사고위험의 증가로 방문객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예상치 못한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향후 이에 대한 보완책의 마련이 필요 할 것임.

다. 축제의 발전성

❑ 잘된 점

- 『2012 대가야체험축제』는 고령 지역의 역사성을 소재로 활용하여 지역의 우수성을 알리는 축제로서 과거에 머무는 축제가 아닌 고유성에 기반한 발전적인 축제를 지향하고 있음. 특히 본 축제는 2005년부터 "신비의 왕국 대가야"라는 주제로 시작한 후 매해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축제를 기획하고 있음. 이는 지역민과 관의 축제 발전에 대한 관심과 열의로 해석할 수 있음.
- 해를 거듭할수록 축제장을 다핵화 하고 있는 점과 축제장의 인프라를 축제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축제 하드웨어를 구축 해 나가는 점등은 올바른 축제의 방향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축제의 프로그램중 농촌 및 전통문화체험과 대가야고을체험을 운영하여 고령 주민의 따뜻한 정을 체험함과 동시에 다양한 지역의 농·특산물을 함께 체험,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지역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향상에도 기여하는 축제가 되고 있음.

❑ 개선할 점

- 축제의 대부분 프로그램이 읍 시가지와 떨어져 있는 주행사장 및 부 행사장에서 진행됨으로서 축제의 파급효과가 읍 시가지 전역으로 확대되는데 한계가 있음. 이러한 공간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부 야간 프로그램은 읍내 공영주차장에서 운영하였으나 제한적 수준으로 실시됨에 따라 향후 축제의 발전적 방안으로 축제 개최의 파급효과를 고령군 전체로 미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의 축제에 대한 강한 육성의지가 반영된 일부 선심성 프로그램들의 보완 및 비효율적인 예산소비 등, 향후 축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하며 향후 축제장을 정적인 공간과 동적인 공간을 조화롭게 구성하여 다양한 계층이 축제에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음.
- 야간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시내권 축제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꾀하고 지역민들의 축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 시켜나갈 필요가 있음.

라. 축제의 성과

❑ 잘된 점

- ◦ 『2012 대가야체험축제』는 지난해 대비 축제 공간의 타겟별 이원화를 통해 방문객 혼잡도를 감소시켰음. 어린이들의 체험공간과 성인들을 축제공간으로 공간이 구분하여 대부분의 체험을 대가야 역사테마관광지에 배치함으로써 두 공간에서의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킨 것으로 평가됨.
- ◦ 『2012 대가야체험축제』는 둘째날, 세째날의 우천으로 인한 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누적 방문객 집계 28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축제의 명성을 확인할 수 있음.
- ◦ 또한 참여의지와 협조수준이 높은 지역민과 출향민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가 1일 400명 정도로 운영되고 있어 이는 축제 발전의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되었음.

❑ 개선할 점

- ◦ 『2012 대가야체험축제』가 지역축제로서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구, 경북지역의 TV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축제 홍보를 실시하는 홍보도 중요하나 홍보효과의 제고를 위해 중앙지역으로 홍보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언론사 팸투어와 pre- event 스타일의 게릴라 홍보등이 그 방안이 될 수 있음.
-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축제의 파급효과를 지역 전체로 파급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3) 총 평

- ◦ 『2012 대가야체험축제』는 대가야의 역사성과 문화적 인프라를 가장 잘 활용한 지역축제이며 축제주제와 축제 인프라인 가야역사테마관광지, 가야 왕릉전시관, 박물관을 적절하게 활용한 축제임.
- ◦ 또한 매년 축제마다 대가야문화의 고유성에 기반한 새로의 축제의 주제를 기획, 선정하여 이를 표현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함으로서 타 지역의 축제와 차별성을 추구하고 있음. 하지만 축제를 대표 할 수 있는 대표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해 축제 발전에 큰 장애 요소가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 『2012 대가야체험축제』는 지역문화축제로서 방문객을 세분화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함. 지역민들을 기반으로 방문객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축제의 개최 목적인 지역마케팅, 지역문화유산의 보전과 향유, 지역민들의 소득증대, 관광객의 만족을 이룰 수 있음.
- ◦ 대가야 문화의 범위는 광범위함. 따라서 가야 문화의 정수, 다시 말해 대표성 있는 자원을 축제에 등장시켜 이를 축제의 이미지는 물론 지역의 이미지로 키워 나갈 필요가 있음

○ 타 지역 방문객들에게 축제를 통해 대가야의 화려했던 문화적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방식이 필요함. 하나의 예로 기존에 개발된 스토리를 만화, 애니메이션, 공연 등의 다양한 형태로 노출시킴으로서 축제의 흥미를 높 일수 있을 것임.

㊲ 봉화 은어축제

(1) 개 요

❑ **기 간** : 2012년 7월 28일 ~ 8월 4일 【8일간】

❑ **장 소** : 봉화읍 내성천 일원

❑ **주 제** : 신나는 여름여행, 가족과 함께 봉화로!

❑ **주 최** : 봉화군

❑ **주 관** : 봉화군축제추진위원회

❑ **프로그램**

- 공연행사 : 개막식, 개막축하공연, 락(Rock)을 락(樂)하다, 자매도시문화예술교류공연, 예술과 문화의 한여름밤, 은어와 지역문화한마당, 은어환경콘서트, 은어가요제, 폐막공연, 폐막식 및 불꽃놀이
- 전시·연계·부대행사 : 군민건강걷기, 어린이물놀이장, 은어전시관, 토피어리 전시 포토존, 걷기명상공원, 박스아트 전시, 캐릭터 유등전시, 농·특산물 전시판매, 아트모바일, 로봇극장, 이동무료한방진료, 은어활어판매장
- 체험 및 참여행사 : 은어잡이(반두·맨손), 은어숯불구이, 수상자전거 타기, 어린이놀이시설, 승마체험, 박스아트만들기, 자연물을 이용한 만들기 체험, 에어로켓만들기/과학공작, 예쁜손글씨체험, 천연돌가루 체험, 문화유적탐방버스투어, 수상밀어내기, 수중달리기체험, 우드아트페어

(2) 항목별 평가

가. 축제의 특성 및 콘텐츠

❑ **잘된 점**

- 봉화은어축제는 자연적 소재와 체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여름철 물놀이 공간인 내성천 일대를 축제공간으로 하여 물, 체험, 놀이가 어우러진 이상적인 여름철 축제 중 하나라고 판단된다.

- 축제장내에 마련된 물놀이장은 수심이 깊지 않고 수질 또한 일급수라서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물놀이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은어 반두잡이와 맨손잡이 체험을 통하여 은어를 직접 잡아 볼 수 있고, 잡은 은어를 바로 구워먹거나 회를 떠서 먹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은어잡기와 먹기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였다.
- 은어를 직접 잡기가 어려운 노인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도 활어판매장에서 구입한 은어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은어숯불구이 체험장도 동시에 운영하여 방문객 만족도를 극대화시켰다고 판단된다.
- 유등을 띄워 야간 분위기 조성에 노력은 한 것도 차가워진 수온으로 체험활동을 하기에 어려워진 공백을 메꾸는 역할을 하였으며, 활동적인 주간프로그램과 정서적인 야간프로그램이 특성을 살려 조화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주야간 모두를 배려한 점도 인상적이었다.
- 봉화군내 주요 관광·명승지와 문화유적지를 무료로 순환하는 문화유적탐방 버스투어가 문화해설사의 친절하고 상세한 설명과 함께 운영되어 지역의 문화·관광자원(계곡, 오전약수, 축서사, 청암정 등)과의 연계성도 좋은 편이었다.

❑ 개선할 점

- 다만 주간의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와 달리 야간 분위기는 유등을 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를 주고 있어 아쉬움이 남았다.
- 강변의 야간 프로그램의 경우 고즈넉한 분위기를 최대한 살리거나 마치 활기찬 야시장처럼 역동적인 모습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할 경우가 많을 것이다.
- 봉화은어축제의 경우 야경을 바탕으로 한 서정적 분위기도 아니고 다수의 방문객이 체류하는 화려하고 역동적인 분위기도 아닌 양자가 혼재되어 있으면서도 양자 모두 어중간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 그것은 유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빈약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강가의 가로 조명보다는 유등과 선박의 화려한 조명으로 어두운 느낌을 없애고 유등축제 못지않은 화려함을 만들어 내어 강의 야간 정취와 화려함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나. 축제운영의 적절성

❑ 잘된 점

- 축제의 기획과 운영에 있어서 전문성도 뛰어나고, 홍보의 효율성과 적절성도 탁월한 것으로 판단된다.
- 대도시 전광판 광고, 주류병 라벨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졌으며,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그늘막과 구명조끼, 공기주입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비치했으며, 또한 대형쉼터와 무료샤워장, 모유 수유실 등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에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 또 물놀이를 하는 어린이와 가족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직원들이 현장에 상시 대기해 만약의 사고를 대비하고 있었으며, 은어를 못 잡은 방문객들과는 은어를 같이 잡아주고 잡은 은어를 숯불에 구어 주는 등 방문객과 하나가 되어 같이 축제를 즐겨 친근함과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하였다.
- 피서철 텐트를 이용한 참여객들을 별도의 공간으로 배치한 것은 과거의 문제점을 개선한 대표적 사례로 보이며, 메인무대가 끊임없이 활용되도록 프로그램 배치를 조절한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 장기적으로 축제를 발전시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입장료와 상품권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점도 높이 평가할만하다.

❑ 개선할 점

- 자연을 그대로 이용한 축제장소는 적절하였으나 행사부스의 방향이나 공간배치 등은 다소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체험코너의 부스가 방문객의 동선과 일치하지 않은 방향에 위치하는 등 각각의 부스들이 유형별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음식, 판매, 체험, 쉼터 등이 혼재되어 있었다.
- 동선이 길고 축제장 접근로가 여러 곳이므로 약간의 분산은 필요할 것이나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음식, 판매, 체험, 쉼터 등 유사한 성격별로 부스를 좀 더 깔끔하고 정돈되게 배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쓰레기 수거는 잘되고 있었으나 방문객수에 비해 전반적으로 휴지통과 화장실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동식화장실에는 송이축제 때 사용했던 송이축제라는 이름이 그대로 쓰여 있어 준비에 기울인 많은 노력을 상쇄시키는 아쉬움이 있었으므로 향후에는 좀 더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는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기념품은 축제 홍보차원에서나 축제방문객들의 재방문 유도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특산품 판매에 비해 축제 자체기념품의 개발과 판매는 다소 미흡하여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다. 축제발전성

❑ 잘된 점

- 청정지역 봉화라는 지역이미지 특성과 여름이라는 계절성이 잘 어우러진 축제로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적인 상태의 축제장에서 가족단위 방문객은 물론이고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축제라는 점에서 타 축제와 차별된다고 볼 수 있다.
- 공무원과 축제추진위원회는 물론이고 군민 전체가 축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엿보였으며, 행사장의 운영에 주민들이 자발적 참여하고 있었으며, 지역주민들의 호응도 또한 대단히 높았다.

○ 입장료를 유료화하여 자체적 수익모델을 도입한 것은 축제의 재정자립도와 장기적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시도로 보이며, 게다가 그 운영이 성공적이어서 향후 축제발전의 기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개선할 점

○ 매년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고 있으나 외국인들을 위한 배려가 여전히 취약하였다. 내국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충분히 완성도가 갖추어져 가고 있으므로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과 교류관계에 더 많은 비중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 축제의 성과

□ 잘된 점

○ 외지방문객이 전체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많고 대부분의 외지방문객들이 숙박객들로 주변 관광지를 함께 방문하고 있어 지역경제효과 매우 큰 축제로 평가된다.

○ 금년에는 8일간의 행사를 통해 작년의 2배에 가까운 약 80만명의 방문객들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수도권 지역과의 접근성도 좋아 현재도 많은 외지방문객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더 많은 방문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추정된다.

○ 봉화은어축제는 생명력이 강하고 청정지역에서만 서식한다는 은어라는 소재를 사용하여 이를 지역의 이미지와 적절히 결부시키고 있으며, 송이축제와의 시간차 연계를 통해 한우, 송이, 오미자, 사과 등 지역의 특산품을 홍보하는데도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 체험과 재미를 중심으로 무장한 프로그램으로 축제 자체의 재미를 배가하여 재방문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특히 유료화와 더불어 봉화 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제공하여 지역 내에서의 추가지출을 유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개선할 점

○ 제공되는 상품권의 액수가 작아 축제장 내에서 소비하기에도 부족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제공되는 소액의 상품권만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지역상권과의 연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축제장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상품권외에 축제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지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고액 할인 상품권을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총 평

- 봉화은어축제는 자연적 소재와 체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여름철 물놀이 공간인 내성천 일대를 축제공간으로 하여 물, 체험, 놀이가 어우러진 이상적인 여름철 축제 중 하나라고 판단된다.
- 2012년 봉화은어축제는 축제의 소재와 주제, 프로그램, 분위기, 축제장, 계절적 특성, 지역이미지 등 모든 것들이 일체감을 이루어 재미와 흥행성을 갖추었을 뿐 만 아니라 주변관광지와의 연계성마저도 뛰어나 많은 방문객들이 찾고 만족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 외지인의 비율이 80%를 넘어서고 유료화를 통해 장기적 발전을 위한 수익모델을 확보하고 있으며, 축제관계자는 물론이고 군민들의 축제발전에 대한 의지나 참여율, 호응도 등 열의가 대단하고, 이미 작년에 비해 두 배에 가까운 방문객 수를 보이고 있어 향후 발전가능성이 대단히 큰 축제인 것으로 생각된다.
- 다만, 부스의 유형별 구분, 야간 야간프로그램, 외국인에 대한 대응 등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을 보였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㊳ 진주 남강유등축제

(1) 개 요

❑ **기 간** : 2012. 10. 01(월) ~ 10. 14(일) [14일간]

❑ **장 소** : 진주남강 일원, 진주성 내

❑ **주 최** : 진주시, 진주문화예술재단

❑ **주 관** : 진주남강유등축제제전위원회

❑ **주요행사**

- 본행사: 개제식(초혼점등), 유등축제 주제공연(유등), 소망등 달 기, 유등띄우기, 한국의 풍습등 전시, 전통 공예등 전시, 한국의 등 세계풍물등 전시, 창작등 전시, 만화캐릭터 등 전시, 종교참여등 전시, 전국지자체상징등 전시 등12개 항목
- 체험참여마당: 소망등 달기, 창작등 달기, 유등만들기, 사랑다리 (부교) 건너기, 시민참여등 만들기, 전통놀이, 유람선체 험, 임진대첩도 및 유물 탁본체험, 외줄타기, 캐릭터 사진찍기 등 12개 항목
- 부대행사: 수상불꽃놀이, 남가람 어울마당공연, 축등설치, 등 캐 릭터 사진찍기, 진주음식큰잔치 및 농특산품 판매장 운 영, 등카페, 민속주점, 세계풍물거리운영 등 8개 항목

(2) 항목별 평가

가. 축제의 특성, 축제콘텐츠

❑ **잘된 점**

- 진주유등은 진주 남강에 유등을 띄우는 임진왜란시의 진주성 전투에서 기원하고 있음. 1592년 10월 김시민 장군이 3,800여명에 지나지 않는 수성군으로 진주성을 침공한 2만 여명의 왜군을 크게 물리친 진주대첩에서 유래한 유등놀이에서 기원한 것으로 진주성에서는 성 밖의 의병 등 지원군과 연락하기 위한 군사수단으로 풍등을 올리기도 했고 횃불과 함께 남강에 등불을 띄워 남강을 건너려는 왜군을 저지하는 군사전술로 쓰였으며, 멀리 두고 온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는 통신수단으로 쓰였던 전통이 면면히

이어져 오늘날의 유등축제로 자리잡은 것으로서 진주만의 독특한 컨텐츠를 살려 축제에 잘 접목·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됨.

- ‘물·불·빛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진주성을 40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선조들의 생활상을 스토리텔링화하여 관광객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음. 임진왜란 격전지인 진주성에 ‘한국의 풍습’이라는 주제로 조선시대 생활모습, 민속놀이, 군사훈련 모습 등을 재현하여 우리 선조들을 이해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였음.
- 촉석루 아래 남강 물위에 세계 풍물·한국등 100여 세트가 띄워졌고, 남강 둔치에 형형색색의 각종 등이 설치되어 남강 물위의 등과 함께 환상적인 야경을 연출함으로써 야간 축제로서의 진가를 발휘하였음.
- 진주성에서의 이벤트 행사가 낮에 관광객들을 유인·참여하게 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이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게 하였음.

❑ 개선할 점

- 전년도 지적처럼 낮에 무료한 관광객들을 위해 축제홍보관과 영상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인근 역사·관광자원과의 연계 관광상품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부교 이용권과의 패키지화 등의 노력을 통하여 관광객들의 만족도 제고와 체류 연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이 바람직스러움.
- 또는 중장기적으로 유등축제 전시관 및 박물관을 건립하고 각종 아카데미사업을 통한 축제관련 연구와 축제문화의 창달을 통하여 축제프로그램의 일부를 상설화하고 수익화 하는 방안을 준비하는 방안도 연구할 필요가 있음.

나. 축제의 운영

❑ 잘된 점

- 축제구역을 진주성과 남강변을 3개의 부교로 연결, 타원형으로 설치하여 관광객들의 동선을 편리하게 하였음
- 축제장에 설치된 유등은 5만 2,000여개로 지난해보다 확대 설치되었음. 진주교에서 진양교 사이 남강에는 석류등을 띄우고 뒤벼리에는 비봉산, 봉황등이 새롭게 설치되었으며 한국의 등, 세계 풍물등은 정적인 등에서 동적인 등으로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함.
- 망경동 대숲은 ‘시와 함께하는 연인의 거리존’으로 새롭게 보완했으며 주막등을 남강에 설치하는 등 변화를 모색하였고 유등으로 장식한 유람선을 타면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전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추억거리를 제공함.
- 창작등 만들기, 소망등 달기, 유등만들어 띄우기, 소원성취 체험, 사랑의 다리(부교) 건너기, 유람선 체험, 전통놀이 등 12종의 체험행사에는 수많은 인파가 끊임없이 몰려 명품축제로서 손색이 없었음.

○ 각 지역축제를 상징하는 유등을 설치하여 전국의 경쟁력 있는 축제를 홍보함과 동시에 그 유등이 해당 지역으로 되돌아가 그 지역축제기간동안 전시(순창장류축제 캐릭터 유등)되게 됨으로써 상호 홍보 협력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음.

❑ 개선할 점

○ 인파가 많이 몰리는 야간에, 남강 위의 다리를 교행하기가 어려워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관찰됨. 또 야간시간대에 행사장 곳곳에 대규모 인원이 체류하고 동시에 이동하면서 사고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좀 더 각별한 안전장치를 고안하고 많은 안전요원의 배치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자가용을 이용한 관광객의 경우 행사장 인근의 주차장을 찾기 위해 주변을 배회하면서 행사장 주변 교통체증을 유발하거나 도로위에서 장시간 기다리는 등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였으며 이의 시급한 개선이 요망됨.

○ 본 축제의 주제와 관련된 특산음식을 찾기가 어려웠고 일부 음식코너의 경우 품질이 떨어지거나 위생에 취약함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음.

다. 축제의 발전성

❑ 잘된 점

○ 진주시와 (재)진주문화예술재단, 캐나다 NCC(국립수도권위원회)는 내년 2월 캐나나 수도 오타와 윈터루드 축제에 진주남강유등축제에 사용된 유등을 전시하기로 하는 등 진주 유등이 외국의 축제장에 최초로 설치될 예정으로 있어 국제적인 축제로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그 발전 가능성이 큼.

○ 주요 행사장의 하나인 진주성은 임진왜란 당시 치열했던 전투의 현장이면서 의기 논개가 왜장과 함께 투신한 곳으로도 유명하며 이 곳에 있는 '촉석루'는 미국 CNN GO에서 선정한 '한국에서 꼭 가봐야 할 50선'에 꼽히기도 한 곳으로서 역사적으로나 관광자원 측면에서나 매우 큰 가치를 지난 곳으로서 본 축제가 더욱 발전하는데 중심축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됨.

○ 국제적인 축제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만큼 외국어로 된 안내서와 외국어 자원봉사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었고 실제로 많은 외국인들이 축제장을 찾아와서 축제를 적극적으로 즐기는 등 지역주민, 관광객 및 외국인간 상호 문화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축제로 발전할 것으로 판단됨.

❑ 개선할 점

○ 축제가 끝난 후 유등을 보관하던 보관 창고 근처의 아파트 주민들이 유등창고의 철거를 요구하는 등 갈등이 불거져 새로운 창고를 급히 구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함.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

○ 전년도 평가보고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축제가 끝난 후에도 일부 유등을 진주성 혹은 남강변에 연중 전시하여 축제도시로서의 면모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위에서 언급한 유등 보관의 부담도 경감하는 방안이 바람직스러움.

라. 축제의 성과

❑ 잘된 점

○ 지난 해 망경동에서 하던 '유등'을 주제로 한 유료공연을 진주성 쪽의 수상무대(560석)로 이동하여 실시하였으며 자립축제로의 발전을 도모하였음.

○ 경남도 문화관광체육국에 의하면 올해의 남강유등축제에는 관광객 280만명이 다녀갔으며, 이 중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15만명 다녀감으로써 국제적인 축제로서 이미지를 구축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축제비용이 36억원이었던 반면에 생산유발효과 약 952억원, 소득유발효과 약 166억원 및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415억원으로 추정되어, 말 그대로 본 축제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하였음.

○ 진주남강유등축제기간에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제62회 개천예술제, 진주실크박람회, 3000인분 비빔밥 나눔행사, 전국민속소싸움대회, 진주가요제, 진주대첩 승전기념 한마당, 시민의 날 행사, 공예인 축제 한마당이 동반 개최되어 진주시가 10월의 축제의 도시로 각인됨으로써 이미지가 업그레이드 되는 효과를 창출하였음.

❑ 개선할 점

○ 자립축제로의 발전을 재촉하기 위해서는 올해처럼 '유등'을 주제로 한 유료공연과 부교사용료의 징수 이외에, '진주성' 출입의 유료화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 대상의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전략의 수립과 활동을 통하여 외국인 15만 여명이 다녀간 성공적인 축제였음. 그러나 개회식 때 이외에는 외국어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전무하여 행사장을 찾은 외국인들의 편의성이 많이 부족하였음. 향후 국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종 평

○ '물·불·빛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2012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우리나라의 대표축제로서 독특하고 손색이 없는 명품축제로서 성공적으로 전개되었음. 지역성을 탈피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면서 이제는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역량을 과시한 축제로서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한 축제였음.

- 역사적인 장소인 진주성과 남강에 위치한 행사장은 그 전망과 축제 컨텐츠와의 연계성 측면에서 어느 축제의 행사장보다도 우월한 경쟁력을 가졌을 뿐 아니라 인지도와 접근성 면에서도 단연 돋보임. 특히, 진주성을 40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선조들의 생활상을 스토리텔링화하여 관광객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은 바, 임진왜란 격전지인 진주성에 '한국의 풍습'이라는 주제로 조선시대 생활모습, 민속놀이, 군사훈련 모습 등을 재현하여 우리 선조들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유등축제의 가치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진주시와 (재)진주문화예술재단, 캐나다 NCC(국립수도권위원회)는 내년 2월 캐나나 수도 오타와 윈터루드 축제에 진주남강유등축제에 사용된 유등을 전시하기로 하는 등 진주 유등이 외국의 축제장에 최초로 설치될 예정으로 있어 국제적인 축제로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그 발전 가능성이 크며, 향후에도 국내외의 많은 관광객들의 관심뜨거운 호응을 지속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국제적인 축제가 될 것으로 사료됨.

㊴ 창원 가고파국화축제

(1) 개 요

- ❑ **기 간** : 2012년 10월 26일(금) - 11월 4일(일) 10일간
- ❑ **장 소** : 마산항 제1부두
- ❑ **주 최** : 창원시
- ❑ **주 관** : 가고파국화축제위원회
- ❑ **주요행사**
  - ○ 공식행사 : 전야제(개막식), 개장행사, 폐장행사
  - ○ 국향대전 : 국화작품 (7개 분야 7,492점), 꽃 생산 연출 83,000본
  - ○ 전시행사 : 국화분재, 수목분재, 야생화, 국화 아카데미 시민 특별전 등
  - ○ 문화행사 : 경연(가요제, 예술제, 플라워경기대회), 공연(콘서트, 전통공연, 프린지 등)
  - ○ 참여/판매행사 : 국화 아트상품, 공예품 제작 체험 / 국화 절화, 국화관련 상품 판매
  - ○ 특별행사 : 국화산업홍보관, 화훼장식관, 특별기획 테마존 조성
  - ○ 야간행사 : 꽃과 빛(Flower & Light)의 광장, 국화작품 LED 조명전

(2) 항목별 평가

가. 축제프로그램 완성도

- ❑ **잘된 점**
  - ○ 단일 품종 꽃축제로는 전국 최대 규모인 제12회 가고파국화축제는 '희망의 꽃, 화합의 꽃, 번영의 꽃'을 주제로 '주행사장인 마산항에 9만 500여점의 국화작품을 연출함으로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특히 산과 바다가 함께 보이는 풍경을 활용하여 국화 작품을 배치한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 ○ 가고파국화축제에서는 타 국화축제와 차별화 되는 점은 국화 관련 작품을 들 수 있다. 한 개의 줄기에서 천송이 이상의 국화를 피우는 다륜작이나, 한 개의 줄기에서 여러개의 색을 연출하는 기술, 몇 천 송이의 국화를 조합하는 기술, 국화의 개화시기를 조절하는 기술 등 다양한 국화 관련 집약기술이 접목된 축제라 할 수 있다.

- 가고파국화축제에서는 약 300종의 국화와 15종 이상의 다양한 색을 가진 국화를 활용하여 전시작품을 구성하여 다양한 형태의 국화를 관람할 수 있었으며, 행사장 내 높이 10m의 피라미드와 길이 26m의 일월오봉도 등 행사장 내 랜드마크 시설을 제작한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 특히 지난해 국화 한 포기에서 1399송이의 꽃을 피워 기네스북에 등재된 다륜대작(작품명 천향여심)의 기록을 올해 1,408송이로 매년 기록을 경신하는 등 창원시 농업기술센터의 국화 재배기술이 매우 뛰어났으며, 창원시 국화아카데미 등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분재전시 역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 가고파국화축제는 아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방문객들의 참여율이 높았으며, 이를 위해 아이들이 선호하는 캐릭터(뽀로로, 크롱, 에디, 둘리 등)를 활용한 국화 전시작품을 제작한 점은 높게 평가할 수 있다.
- 그밖에도 창에 그린 브랜드 농산물존의 경우 창원 농산물 브랜드(수박, 키위, 단감, 딸기, 파프리카, 참외, 복숭아)모형의 국화 작품을 전시함으로서 창원 지역의 특산물을 간접적으로 홍보한 점은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 가고파국화축제의 행사장 배치 측면에서 국화 관련 전시프로그램을 방해하지 않도록 무대를 행사장 외곽으로 배치한 점과 무대 규모를 소규모로 운영한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행사장 중앙의 경우 평지보다 높은 지대로 구성하여 높은 곳에서 낮은 행사장의 국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은 전시프로그램을 관람하는 서비스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 개선할 점

- 행사장 입구에 설치된 국화산업홍보관의 경우 창원 지역의 국화관련 사업의 전시 및 판매가 이뤄져 관련 산업의 홍보기능에 크게 이바지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국화산업홍보관의 구성에 있어 국화산업의 주제와 부합되지 않는 일부 전시업체의 경우 홍보관 외부에 설치하는 것이 주제관련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며, 국화산업홍보관내 설치된 가고파국화축제의 역사 및 기록에 대한 부분은 행사장 입구에 별도로 구성하여 행사장 입구에서 축제관련 이해도를 높이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 가고파국화축제의 경우 국화관련 작품전시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문객들의 경우 국화작품을 배경으로 사진촬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국화작품을 배경으로 촬영할 때 가장 좋은 포토존 스팟을 구성하여 발바닥표시 및 사진촬영시 모습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방문객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방문객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나. 축제운영의 적절성

❑ 잘된 점

- ○ 창원존, 한국존, 세계존, 고대탐험존, 명작존, 다름존 등 주제별로 나뉘어 운영된 점은 전시프로그램 위주의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축제의 전시품은 매년 70% 이상 교체함으로써 전시작품에 대해 기대감을 갖을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 ○ 가고파국화축제는 행사기간 동안 마산어시장 건어물점 등 100여 개 점포는 관광객들을 위해 10% 할인판매 행사를 실시하였으며, 코레일 마산역은 가고파 국화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KTX를 포함한 모든 열차의 운임을 20% 할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밖에도 마산어시장과 행사장, 마산역과 행사장을 한 시간 간격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함으로써 방문객의 이동편의를 제공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 가고파국화축제는 1일 약 80여명의 지역자원봉사자가 참여하였으며, 행사장 종합안내소, 경연대회 안내, 프로그램, 셔틀버스 안내, 산업홍보관등에 배치되어 자원봉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자원봉사자들에게는 근무자현황 연락처, 주차장, 셔틀버스노선, 근무자 근무요령 등이 기재되어 있는 근무자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한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 ○ 가고파국화축제는 마산합포구에 국화동산으로 창원시내권의 사전 축제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전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차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도로변에 국화 동산을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화동산의 경우 지역 자생단체와 공무원 등 약 6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해안도로, 어시장, 서성광장 등 약 6개소 도로변에 1,100여개 국화화분으로 꽃동산을 만든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개선할 점

- ○ 가고파국화축제 안내소의 경우 행사장 입구에 배치되어 있으나, 안내소 기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안내소의 경우 독립적 형태가 아닌 부스사이에 배치되어 있어 안내기능이 약하며, 안내부스 내 타 시설물들이 배치되어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 ○ 가고파국화축제의 경우 바다를 배경으로 축제장이 구성되어 있어 방문객들이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장소에서 사진촬영을 하는 등 휴식을 취하였으나, 행사장 내 휴게시설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바다 경관을 바라보면서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경우 행사장내 체류시간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식음료 서비스와 연계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축제에서는 다양한 볼거리 뿐 아니라 방문객 편의서비스 측면에서도 신경을 써야 한

다. 특히 행사장 내 음식의 경우 음식부스형태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나 올해 가고파국화축제에서는 행사장내 국화빵, 돼지고기시식, 국화한우 판매 및 시식만 운영함으로서 음식관련 부분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시작품을 관람하면서도 먹을 수 있는 스낵종류 형태로 다양한 먹거리확충이 필요하며, 국화꽃잎을 활용한 음식과, 국화재료가 들어간 형태로 주제반영성을 높이는 방안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다. 축제발전성

□ 잘된 점

- ○ 가고파국화축제는 꽃을 주제로 한 축제로 위험부담이 높은 소재로 볼 수 있으나, 국화의 개화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지역의 국화재배기술과 산업적 기반으로 가고파국화축제는 향후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 창원지역에는 총 243개의 재배농가가 국화를 재배하고 있으며, 국화주, 국화차, 국화먹인 한우·돼지 영농조합법인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유명 주류업체에서는 가을 국화주를 판매하고 있어 국화를 소재로 한 지역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 특히 국화재배 농가의 경우 연소득 6~7천만원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국화의 경우 계절별로 수확이 가능한 작물로서 연중 수익창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창원지역의 국화재배를 통한 기여부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고파축제를 통해 지역의 국화재배산업과 기술 향상부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 ○ 가고파국화축제가 타 지역 국화축제와의 비교 부분에서 강점을 보이는 부분은 지역의 국화 관련 산업을 들 수 있다. 특히 국화를 활용한 주류 생산은 국화잎을 활용하고 있으며, 국화잎을 제거한 국화 줄기의 경우 지역 돼지생산농가 및 한우농가에서 사료로 활용함으로서 면역력 강화측면에서 크게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꽃으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는 점은 축제의 발전성 부분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개선할 점

- ○ 창원시는 최근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통합된 대규모 도시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도시의 이미지와 국화브랜드와의 연결을 위한 국화 상설전시관 및 브랜드 이미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축제장소인 마산항 제 1부두를 활용한 상설전시관의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라. 축제의 성과

❑ 잘된 점

○ 가고파국화축제위원회는 마산어시장상인회, 마산어시장사업협동조합, 한국철도공사 마산관리역과 가고파국화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을 맺음으로서 지역의 축제참여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축제가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로서 방문객 유치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는 점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점이라 할 수 있다.

❑ 개선할 점

○ 최근 문화관광축제 및 지역개발형축제들의 경우 새로운 환경에 대비를 해야만 한다. 특히 가고파축제의 경우 축제예산 100%가 창원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관의 축제예산 한계에 따른 다양한 축제의 재원마련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관련 기업 및 단체를 활용한 현금협찬 및 현물협찬이 이뤄져야 하며, 향후 전용축제공간 구성 시 유료형 축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 다양한 재원마련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총 평

○ 우리나라 최초 국화상업재배 시배지로서 가고파국화축제는 역사성을 지니고 있으며, 일본으로 100만불이 수출될 정도로 지역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가고파국화축제는 축제뿐 아니라 지역산업과 연계한 축제 발전 전략을 통해 지역개발형축제로서의 기능을 확고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가고파국화축제의 타 꽃 축제와 차별화 되는 특징은 국화의 개화시기를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국화 관련 전시작품을 창의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매년 70%이상 국화전시작품을 새롭게 제작하는 등 지역의 국화산업재배기술을 통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은 향후 축제의 발전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 가고파국화축제는 현재 문화관광축제 유망축제로서 한 단계 도약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화를 소재로 한 참여 체험프로그램 확충과 더불어 지역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㊵ 통영 한산대첩축제

(1) 개 요

❑ **기 간** : 2012년 8월 14일 ~ 8월 18일 【5일간】

❑ **장 소** : 통제영 및 병선마당, 통영시 일원

❑ **주 제** : 突擊龜船 돌격하라! 거북선!

❑ **주 최** : 통영시, 해군진해기지사령부

❑ **주 관** : (재)한산대첩기념사업회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 한국관광공사

❑ **프로그램**

- 일정별행사 : 시민대동제, 거북선만들기대회, 거북선그리기대회, 남해찬가/통영진춤, 통제사 행렬 및 군점 재현, 어린이인형극 돌격하라, 거북선!, 파천시 축하공연, 지화자, 통제영!, 어린이군점 재현, 개막식 및 개막공연, 고유제봉행, 승전무, 통영오광대, 남해안별신굿, 우리의 꿈은 파도를 타고, 24반 무예, 한산대첩 바로알기 승전고를 울려라!, 한산대첩 재현, 한산대첩 출정식, 길놀이, 워터바이크대회, 제5회 거북보트노젓기대회, 축하퍼레이드, 해군 의장대시범 및 축하공연, 해군해상위령제, 기념식 및 의장대시범, 해병대축하공연,
- 전시마당 : 한산대첩 주제홍보관 돌격귀선-돌격하라, 거북선!, 통제영12공방 중요무형문화재 전시회, 귀신 잡는 해병대, 바다이야기, 이충무공이야기,
- 체험마당 : 전통한선(통구미)노젓기, 거북용선, 워터바이크, 요트체험, 검(칼)만들기, 활만들기, 종이갑옷만들기, 거북선만들기, 판옥선만들기, 전통무예체험,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 널뛰기, 포구락던지기, 굴렁쇠놀이, 팽이치기, 이순신장군 어록 목판 찍기, 벅수·장승 만들기, 전통도자기만들기, CPR(심폐소생술)체험, 천연비누만들기, 가족사랑 캠페인, 종이폐품 장난감만들기
- 참여마당 : 포토존 나도 이순신, KBS역사스페셜/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한산대첩'편, 제13회 전국남·여궁도대회, 이순신투어

(2) 항목별 평가

가. 축제의 특성 및 콘텐츠

❑ 잘된 점

- ○ 한산대첩은 민족의 영웅이자 전세계 해군이 인정한 위인 성웅 이순신 장군의 업적중 하나이며, 통영한산대첩제는 이를 축제화한 것이므로 소재의 유일성과 차별성이 확보되어 있고, 민족의 자부심과 재현행사의 역동성이 결합되어 매력성도 뛰어난 축제이다.
- ○ 이번 축제는 '거북선을 구상하다.', '거북선을 설계하다.', '거북선을 만들다.', '거북선을 훈련하다.', '돌격하라. 거북선!'으로 하루씩 주제를 잡아 진행하여 타 축제에 비해 축제프로그램이 주제에 충실하게 부합되도록 구성되었다.
- ○ 특히 대표프로그램인 한산대첩 재현은 3척의 거북선과 100여 척의 선박이 이순신공원의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섬세한 연출로 민·관이 합심하여 멋진 장관을 연출하였다.
- ○ 이순신학교 검(칼)만들기, 활 만들기, 거북선·판옥선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한산대첩 주제 홍보관은 축제장을 찾은 학생들에게 유익한 역사교육의 장이 되었으며, 이순신학교의 모든 체험을 완료한 방문객들에게는 통제영 무과시험 합격교지와 합격패 제공, 문과시험 자격을 부여하여 방문객의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이도록 구성되었다.
- ○ 각종 체험행사비를 환전한 엽전을 사용하도록 해 마치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간 듯한 느낌을 준 것도 신선하였다.
- ○ 단순한 공연 위주의 프로그램보다는 방문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주제에 맞는 체험프로그램 위주의 프로그램들이 많아 대동성이 큰 축제였다고 판단된다.

❑ 개선할 점

- ○ 진행미숙으로 개막식이 순조롭지 못하게 진행되었으며, 개막공연 역시 역사적인 한산대첩에 대한 스토리를 한편의 공연으로 볼 수 있어 좋았으나 연극과 영상이 혼재하여 일치감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었다.
- ○ 또한 연극대사와 음향 해설이 겹쳐 관람객의 이해도가 떨어지게 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공연이 지루하고 산만하였다.

나. 축제운영의 적절성

❑ 잘된 점

- ○ 프로그램에 대해 외국어 설명을 하여 외국인들의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였으며, 체험장 및 관람시설에 엽전을 환전하여 사용토록 해 신선함을 더했다.
- ○ 축제 홍보전략으로 팸투어 및 축제 홈페이지에 페이스 북과 트위터 등 소셜 아이콘을

만들어 소셜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바이럴 마케팅을 펼치는 한편 축제 보름 전부터 '미리 보는 축제' 공연을 상설화하는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가 이루어졌다.

- 음식관련 부스를 행사장내에 따로 설치하지 않고 인근 일반음식점을 이용하게 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발생하도록 한 것도 적절한 시도였다고 판단된다.
- 청소년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1년간 축제자원봉사자 활동과 리더쉽 교육을 실시하고 축제기간에는 이들을 축제 운영에 적극 활용한 것은 충분하고 체계적인 축제준비과정의 일면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 축제 행사가 바닷가에서 주로 이루어져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에 대비해 사전에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여 홍보하고 방문객의 사고예방과 수습대책에 활용하는 등 안전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보인다.
- 프로그램을 시내 곳곳으로 분산배치하고 망루를 따라 주행사장으로 진입하게 한 것은 주행사장의 공간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통영시 주요관광지를 돌아보고 기억하도록 유도한 탁월한 아이디어로 생각된다.

❑ 개선할 점

- 시기적으로 덥고 햇볕이 강하거나 비가 자주 내리는 8월 중순이므로 햇빛과 우천을 대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주행사장은 강렬한 햇빛과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늘을 확보하고, 우천 시를 대비하여 관람객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행사부스나 1회용 잡상인이 우의를 팔면서 바가지를 씌우는 사례도 있었다.
- 주변 상가의 생업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주행사장의 공간을 제한하고 프로그램을 시내 곳곳으로 분산시킨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나 주행사장으로 활용되는 공간이 좁아 상설행사들 간의 공간여유가 없었다. 식당가로 조성한 조각공원 앞쪽 공간을 상설행사 공간으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주행사장 인근의 차량 통제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 행사기간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무대 뒤편 도로의 차량을 통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시민문화회관 전시실에 마련된 중요무형문화재 전시와 같은 일부 프로그램은 안내와 해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를 유인물로 대치하고 있어서 전시관을 찾기도 어려웠고 전시내용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게 하고 있었다.

다. 축제발전성

❑ 잘된 점

- 축제기획에 있어서는 방문객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많은 부분을 고려하여 일정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또 축제발전을 위한 지역민 교육 실시로 축제전문인력 양성에 노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값받기, 친절하게 대하기, 불법주차안하기 등 시민의식개혁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시민과 함께 축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엿보였다.
- 지역 내 학생을 포함한 주민들과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무료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하는 등 축제에 대한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

❑ 개선할 점

-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축제가 많고 특히 명량대첩제와 프로그램이나 재현행사 등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차별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들 유사축제와의 연계를 보다 강화시키며 상호 차별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특히 한산대첩제와 명량대첩제의 재현행사부분이 중첩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이를 개선하는 문제와 재현행사의 규모와 내용을 꾸준히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 축제의 성과

❑ 잘된 점

-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 장사도 등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를 비롯하여 전통재래시장과 중앙시장이 행사장과 연접해 있어 관광객 유발 효과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축제인 것으로 생각된다.
- 또한 병선마당에서 이루어진 이순신학교를 비롯한 체험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축제기간 중에 해양스포츠 체험장이 상시 운영되어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음식관련 부스를 행사장내에 따로 설치하지 않고 인근 일반음식점을 이용하게 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발생하도록 한 것도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 개선할 점

- 케이블카와 주변관광과의 연계 강화로 방문객들의 통영 내 체류시간은 다소 길어졌으나 축제장 체류시간이 여전히 짧은 편이므로 축제장 체류시간을 연장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총 평

- 제51회 한산대첩제는 이순신 장군의 업적중 하나인 한산대첩을 축제화한 것으로 소재의 유일성과 프로그램의 차별성이 확보되어 있고, 민족의 자부심과 재현행사의 역동성이 결합되어 매력성도 뛰어난 축제이다.
- 소재와 주제 프로그램이 상호 부합되도록 구성되었으며, 대표프로그램인 한산대첩 재현은 이순신공원의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섬세한 연출로 민·관이 합심하여 멋진 장관을 연출하였다.
- 따라서 방문객의 참여도와 만족도를 높고 지역의 축제 발전에 대한 의지도 높았으며, 프로그램의 분산과 연계를 통한 지역관광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정도가 큰 축제인 것으로 생각된다.
- 그동안 문제점들에 대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노력이 돋보였으며,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일부 개선할 부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특히 개막식의 진행미숙, 햇빛과 우천에 대한 대비, 주행사장의 협소함, 일부 프로그램의 안내와 해설 부족, 유사축제와의 연계와 차별화, 축제장 체류시간의 연장 등에 대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㊶ 산청 한방약초축제

(1) 개 요

- ❑ **기 간** : 2012년 5월 03일(목) - 5월 09일(수) 7일간
- ❑ **장 소** : 산청 I.C입구 축제 광장/ 동의보감촌 일원
- ❑ **주 최** : 산청군
- ❑ **주 관** : 산청한방약초축제위원회
- ❑ **주 제** : 온 가족 건강여행!
- ❑ **주요행사(한방약초 관련 12개분야 100여개 단위행사)**
  - ○ 동의보감관(주제관)운영 : 전통한의학관, 약초생태관, 동의약선관, 한방산업관, 2013산청 세계전통의약 엑스포 홍보전시관
  - ○ 지리산 청정골 장터운영 : 약초판매장터, 농.특산물 및 장류, 한방가공제품 직거래 장터, 한방향토음식 판매장터, 한방 휴게 음식 판매장터, 한약제 비교체험
  - ○ 산청혜민서 무료 진료 체험 : 한방무료 진료, 사상체질 클리닉, 주름(정안)클리닉, 한방비만 클리닉, 한방 부인과 클리닉(화병), 한방 약초 훈증기 체험, 한방의료기기 체험 등
  - ○ 산청 한약방 체험 : 전통한의원 체험, 한약재 썰기 체험, 어의.어녀복 입고 사진찍기
  - ○ 한방 약초 음식 체험 : 지리산 한방약차 체험, 대왕약탕기 체험 한방약초술 칵테일 체험, 전통다례체험, 산엔청 청정한우 및 청정돈 무료 시식, 산엔청 청정한우 전문식당 운영 등
  - ○ 한방 약초 체험 : 한방편백나무 족욕 및 반신욕체험, 한방미용체험, 동의보감 책만들기, 한방향첩만들기, 경옥고.총명환 만들기, 약초 잎새 프린터 체험 등
  - ○ 연계 행사 : 제9회 경상남도 공예축제, 경남 한의사회 세미나, 한방발효식품 심포지엄, 제6회 기산 국악제전, 웰빙 발효식품 테마축제, 산엔청한마당 대동놀이 등.
  - ○ 동의 보감촌(부행사장) : 동의본가 힐링타운, 지리산 자생약초 사진 야생화 전시, 산청 한의학 박물관 무료 개방

(2) 항목별 평가

가. 축제프로그램 완성도

□ 잘된 점

○ 대표프로그램(Killer Contents)의 기획·전시·체험면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로 완성도가 높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첫째, 하나의 큰 주제아래 5개의 소재를 논리적으로 조화롭게 연결하였습니다. 둘째, 소재들 간의 연결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셋째, 5개의 소재를 시계열로 전시함으로써 과거에서 미래까지의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 제 12회 산청 한방약초 축제의 대표프로그램은 축제 주제관인 '동의보감관'에서 진행되었고, 주제관은 다시 5개 부분으로 구분하여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을 시행하였는데 전체적으로 기획이 잘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산청군 한방약초의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하나의 Master Plan으로 보여졌습니다. 더욱이 마스터 플랜을 2013년의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라고 하는 이벤트를 계획하여 구체화한 것은 미래비전이 가진 추상적인 면을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은 축제주제와 연결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소제들 사이의 연결성도 높아야 전체적인 흐름이 조화롭고 하나의 커다란 주제의 완성 시킬 수 있는데 동의 보감관의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은 그런 점에서도 돋보였습니다. 즉, 한의약관의 의서에서는 인간의 오장을 옛 모습 그대로 보여주었고 그것을 생태관에서는 색별로 구분하여 조경시설화 하였습니다. 또한 그것을 동의 약선관에서 다시 연결하여 오색의 색별 음식을 전시함으로써 '인체 오장'을 중심으로 연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거) 전통한의약관 : 전통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릴 목적으로 지역관련 명의인 허준, 류의태 선생등에 관한 내용을 전시하였고, 한의학 유물, 동의보감 실물, 의서 등을 전시하여 축제의 기능중 '교육성' 부분을 고려(지난 해 평가 반영) 한 듯 하였습니다.
- (현재) 약초 생태관 : 약 1,500여점의 약초를 약종별, 효능별로 전시하여 약초의 실물을 볼 수 있도록 전시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지도를 약초 동산으로 설계하여, 그 위에 인체 다섯 개 장부(간장-녹색, 심장-붉은색, 비장-노란색, 폐장-흰색, 신장-검정색)의 색별 약초 화분을 전시하였고 희귀약초를 전시하여 축제의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 (미래) 한방 산업관 : 100여종의 한방약초 산업관련 가공상품 및 연구개발 제품을 전시하여 산청군 한방약초의 미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대부분 축제의 한계점인 '산업화'문제에 대한 대안제시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 (체험) 동의 약선관 : 약 300여점의 약선음식을 앞서 전시된 오장음식, 동의 보감 상차림, 관광체험 음식 등을 소개함으로써 주제관련 '먹거리'에 대한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이 완성되었다고 보입니다.

- (미래) 엑스포 홍보 전시관 : 주제관에서 크지 않은 비중으로 2013년에 있을 전통의약 엑스포를 홍보함으로써 산청군 한방관련 산업에 대한 미래비전을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내년 축제에 대한 기대 및 방문을 유도하는 기능을 하였다고 보여집니다.

○ 소재 독특 전국적으로 1,000개가 넘는 축제의 소재가 대부분 지역의 인문 사회적 문화축제인 반면 산청군은 '한방 약초'라고 하는 지역이미지의 상징성이 높은 특산물을 소재로 축제화 점이 특이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현재 중.장년층의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을 유인할 수 있는 소재의 매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축제는 어린이와 핵가족단위 위주의 프로그램이 중심인데 반하여 상대적으로 산청축제는 중.장.노년층이 주 참여객이고 이들의 몰입성이 높습니다.

○ 체험프로그램 차별성 산청 축제는 축제 방문객을 위한 특색있는 참여 체험 프로그램 개발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방진료프로그램, 약초판매장터 운영, 한방 먹거리판매장 운영 등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은 다른 축제 프로그램과 차별성이 있습니다. 특히 산청 혜민서 무료 진료 프로그램은 참여하여 체험하고자 하는 관광객이 너무 많아 그 수용력이 문제가 될 만큼 차별화된 프로그램입니다. 평소 건강에 관심은 높으나 한방병원을 찾기가 용이하지 않은 장.노년층들의 참여 및 체험이 많았고, 특히 한방 족욕 및 반신욕 체험은 값비싼 의료기기의 이용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축제장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피로감을 중간에 해소하여 다시 활기찬 축제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하여 분명 타 축제와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진행이었습니다. 또한 한방 먹거리 판매장의 메뉴 중 산약초의 새싹을 이용한 먹거리나 생선대신 약초를 이용한 산약초밥 등은 차별화된 먹거리였습니다.

❑ 개선할 점

○ 동의보감관내 전통한의약관은 '해설사'도우미의 해설기법을 도입하는 것이 보다 적극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감동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역사적인 부분이 강한 만큼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풍부한 해설이 있어야 박물관 전시물이 아닌 축제자의 전시관 기능을 할 것입니다. 주제관의 뿌리이고 기반이 되는 전통 한의약관을 간과한다면 산청축제는 뿌리가 없는 단순한 지역특산물을 판매하는 상업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약초생태관은 좀 더 전문적인 조경기법이 도입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위에 다양한 약초들을 전시하였으나 각 지방의 자생약초를 중심으로 설계함으로써 지도위에 조성한 약초동산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면적이 넓지 않은 나라에서 분명히 차별화된 약초가 많지는 않을 것이지만 대표적인 1-2가지의 약초라도 상징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전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방산업관은 한의약관의 기능이 기본이고 뿌리라 한다면 산업관은 산업축제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소재관입니다. 단지 전시만 해놓는 것 보다는 다양한 제품의 기능을 설명하고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구매력도 높이고 잠재 고객을 개발 할 수 있어 산청축제의 힘을 키울 수

있도록 해설 및 체험 도우미의 배치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의약선관은 현재 가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 소재관이나 가장 소극적인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약 100만명이 다녀가는 축제에 약선관의 체험은 1일 1시간 4가족에 한해 체험하게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양적인 부족문제가 있습니다. 방문객이 많은 축제인 만큼 질적인 부분 못지않게 양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약선음식은 아직 대중화되지 않았고 향후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을 산청군의 특산물 공급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템으로 여겨집니다. 엑스포 홍보전시관은 2013년 엑스포에 대한 홍보 기능은 충분히 했지만 이 소재관 내에서 진행된 운기체질분석기 체험은 공간의 협소와 참여 희망자 대비 진행 의료진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체험프로그램의 기능을 하기에는 미흡하였다고 봅니다. 시간과 공간상 전문적으로 자세한 분석이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는 축제장이지만 방문객대비 어느 정도의 수용태세는 마련되어야 분명한 타 축제와의 차별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산청혜민서 무료 진료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진행하려면 반드시 양적인 공급을 증가시켜야 할 것입니다. 약 100만명이 찾는 축제의 대표적인 체험프로그램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참여의료진의 확대와 체험공간의 확대는 필수적이라 봅니다. 그렇지 못하면 프로그램명은 차별화되었지만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한방의료기기 체험이나 족욕 및 반신욕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혹시라도 기기 판매를 위한 홍보관의 역할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며, 관광객들이 그런 오해의 이미지를 가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하면 산청축제는 시중에 운영중인 의료기기 홍보관이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도 높습니다. 게다가 시중 홍보관은 무료 체험관이기 때문입니다.
- 한방 미용체험은 다른 체험관과 달리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단순한 체험 및 판매보다는 심도 깊은 체험 및 판매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또한 향후 산청군 산업화의 가능성 중 중요한 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 약초 판매장터의 가장 큰 개선점은 지역상인들의 '양심판매'와 관광객들의 '신뢰구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산청군 지역민에 의한 산청군 약초, 그리고 그에 합당한 가격이라는 요소를 근간으로 하여 다른 지역, 다른 사람, 다른 제품, 다른 가격을 차별화 해야만 산청 한방약초 축제는 성공을 향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거듭할 것입니다. 홈페이지에도 올해 구입자까지도 제품 및 가격에 대한 불만사항이 게재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점은 불과 1-2건이라 하여도 반드시 근절시킬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민이 직접 재배하지 않은 품목을 판매한다면 제품에 대한 신뢰도 안가고 또한 부당한 가격에 거래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축제장에 나온 지역민들 사이의 불신은 지역의 공동체 의식을 와해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건 상품구매에 대한 불만족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만족스런 처리를 한 후

공개적으로 내용을 공시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한방 향토음식관 및 한방 휴게음식관은 먹거리에 관한 공간인 만큼 위생면에 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인 만큼 양을 충분하게 마련하여 산청군의 '인심'을 판매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양이 부족하면 이는 당연히 '가격'에 대한 불만족으로 나타나게 됨으로 '바가지요금'의 문제가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전국적으로 축제장에서도 '카드'사용을 통한 가격의 투명성과 신뢰, 그리고 편리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역내 민간단체에서 다양한 명분을 걸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일반 식당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 음식의 양과 질, 위생, 그리고 가격면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 한방 체험마당은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관에 비하여 양적으로 부족하고 질적으로 깊이가 없어 '체험마당'이라는 명분이 무색하리 만큼 참여 관광객이 적었습니다. 그에 따라 운영요원이 자리를 비울정도로 잘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 연계관광자원 산청 출신 국악인 기산 박헌봉 선생님과 관련하여 '기산국악제전'을 개최하였으나 요즈음 관광객들의 관심도가 높다고 볼 수 없는 '국악제'는 축제의 주제와 연관성이 높은 프로그램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동의 본가 힐링타운 문화컨텐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축제장의 연계성은 높지 않았습니다. 무료셔틀버스를 이용한 연계 노력을 하였으나 1박이상의 체류형 축제참가가 아니면 주 축제장에서의 소요시간과 힐링타운 연계투어는 용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별도의 주요 관광지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축제운영의 적절성

❑ 잘된 점

- 자원봉사자 교육시스템이 잘 이루어져 지역민들의 자율적 참여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 돋보였습니다. 따라서 행사장내 청결 및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산청군내 모든 지역민이 참여하였다는 이미지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노인회(10명)의 청결활동, 부녀자들(22명/면)의 진행도우미 활동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루 활동비가 10,000 - 20,000원으로 차비, 점심 식사비를 제하면 경제성이 없는 활동임에도 모두 환한 미소로 행사에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료기기 체험장의 진행도우미가 지역민이 아니었다면 상업성이 도드라져 보여 축제 이미지에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었을 것입니다(*자원 봉사자 인터뷰).
- 축제 전문가인 총 감독제를 시행하였다고 하는데 축제의 일관성이 돋보였습니다. 기능성을 고려한 주제관 분리, 활동성격을 고려한 동적·정적활동의 조화, 관리 용이성

및 효율성을 고려한 외지 상인 상업공간의 분리등은 잘된 점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해 축제 평가의 결과도 대부분을 반영하여 개선하였습니다. 주제관의 교육컨텐츠 보완, 약초동산의 규모화, 개막행사 개선, 힐링타운의 셔틀버스 운행, 장애인 주차 편의 도모 등 많은 부분을 반영하고 개선하였습니다.

- 축제 홍보에 대한 결과는 방문객 수로 나타나는데 올해는 85만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속도로I.C를 통과한 차량 및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대수를 고려한 방문객수 추정으로 비교적 큰 오차가 없는 수치로 사료됩니다. 결국 축제 홍보가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여행사 축제관광상품 초청 홍보 등 홍보대행 전문사 위탁홍보의 활동으로 인해 원거리 타 지역 방문객들이 여행사를 통한 방문이 많았습니다(*경주시 관광객 인터뷰).
- 관람객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체계확립은 잘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차량 통행이 금지된 중앙대로를 이용한 주 이동 동선은 많은 방문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켰으며, 주요 주제관 간의 이동은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계단식 연계배치로 인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 편의시설 운영에 있어서 이동 택배서비스 시설은 어버이날을 포함한 행사기간동안 부모님을 위한 약재구매 및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행사장마다 부당가격으로 인한 불만족을 농협 하나로 마트의 도입을 통한 불만족 요인을 해소하였습니다. 하나로 마트의 판매상품 중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아이스크림으로 더위로 인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 개선할 점

- 축제장의 접근성을 두 가지 면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째, 주 축제장이 고속도로 I.C연접한 장소로 인해 교통의 혼잡문제 및 정체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 행사장과 부 행사장(동의보감촌)에의 접근성이 문제입니다. 현재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나 이의 효율성 및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두 공간은 그 성격과 기능상 연계성면에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통 타 지역으로부터의 축제 참가자들은 숙박을 하지 않을 경우 3-5시간 정도 축제장에 체재하게 되는데 이 시간내 두 곳을 방문하여 체험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대안검토가 필요합니다.
- 공간배치의 개선점을 2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현재 향토음식관, 농특산물 판매장, 한방진료 체험장, 약초판매장터, 한방휴게 음식관 등을 완전분리하여 운영하여 이로 인한 관리의 효율성은 기대할 수 있지만 관광객 측면에서 편리성에 문제가 있고, 상인들도 판매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출입구가 하나로 되어 있어 일방통행으로 인한 혼잡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앞사람의 진행동선을 따라 이동하지 않으면 뒤에가 정체됨으로 개별 매장을 충분히 살펴볼 수 없고, 혼잡할 것 같아 피크타임에는 입구에서 진입을 포기하는 관광객이 많았으며 상인들은 홍정을 하다 고객을 놓치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출입구를 하나 더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

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시 판매의 분위기 조성은 되었으나 자유롭고 흥겨운 축제장의 분위기 조성에는 미흡하였다고 봅니다. 둘째, 식당가와 상품판매 공간의 완전분리로 인한 쾌적함의 장점은 있으나 식당가는 식사시간외에는 한적한 유휴공간이 되고 약초 판매공간은 혼잡함으로 적절하게 혼합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시.판매 공간에서 보고 구매하여 시식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에 대한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안전성 및 편의성도모면에서 주요 주제관 간의 이동이 주 이동 동선을 조성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계단형 석축 사이의 사잇길을 이용한 이동이 주를 이루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방휴게 음식관이나 다른 주제관의 판매상품 홍보물의 사진게재는 실제 판매상품과 일치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홍보물 사진에는 양도 많고 맛있고 멋있게 게재하였으나 실제 구매시에 차이가 있어 가격에 상관없이 불만족의 요인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모든 상업활동시에는 카드사용이 의무화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산청축제보다 작은 축제에서도 이제는 카드 사용이 자유롭습니다.
- 홍보면에서는 홈페이지활용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단지 인사말만 첨가 되었을 뿐 활발한 홈페이지의 이용은 미흡하였습니다.
- 종합안내소에 외국인 통역을 위한 도우미가 부족하였습니다. 또한 축제장에 나온 공무원들의 서비스 마인드가 아쉬웠습니다. 축제장에서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활동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축제장 안내소에서 공무원 권위적 모습에 대해 이해심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대기상태에서의 자세나 언행에도 조심해야 하는 배려가 아쉽습니다.

다. 축제발전성

❑ 잘된 점

- 소재 독특 전국 다른 축제의 주제와 차별화된 '한방 약초'라는 주제를 가지고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소모적인 경쟁을 하지 않고 독보적인 축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산청(山靑)'군은 우리나라의 명산인 지리산을 연접하여 있어 지명이 주는 이미지와 '산(山)'의 특산물인 '약초'가 잘 연결되어 명산의 약초가 주는 기능성까지 기대할 수 있는 정통성과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축제 효과 축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산성과 소득의 발생이 중요요소인데 산청축제는 지역민들이 소득향상에 커다란 기여를 하여 참여농가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결국 지자체에서는 지역발전과 지역민을 위한 축제를 계속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전국 많은 지자체들의 축제가 소모적이고 소비적인 성격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점에 비하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며 더욱이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가 축제의 발전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 개선할 점

- ○ 신뢰성 강화 축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약초의 문제점을 산청에서는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한약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채취되는 약초는 가격이 높고, 양이 많지 않아 중국에서 수입하여 한약을 제조함으로써 농약 및 약품처리에 대한 우려가 높아 한약복용을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산청에서 구매하는 약초는 국내산이고 특히, 산청의 특산물이라고 하는 점을 악용하여 가격과 질에 있어서 신뢰를 잃는다면 산청축제는 머지않아 그 생명력을 잃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 어린이 중심 및 핵가족 단위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 및 보완이 필요합니다. 특히 축제기간 중 어린이날을 포함하고 있어, 이날 아이들을 중심으로 나들이 하는 가족단위 방문객들을 위한 시설 및 내용이 보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방약초라고 하는 주제와 '어버이날'은 조화가 잘 되어 부모님을 모시고 나들이 나오기에 적합한 축제이나 어버이날이 휴일이 아니라 부모님을 모시고 나오기에 적합한 사정이 아님으로 어린이날을 겨냥한 축제보완은 축제발전상 필요하다고 봅니다.
- ○ 축제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해 지역발전 방향과 맞물려 확산시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지역의 특산물인 한방약초를 축제장에서 개별 진료를 통한 필요약재나 생체를 구입하게 하여 지역의 민가에서 시식이나 시음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본다면 향후 산청은 주말이나 휴가를 이용하여 건강과 웰빙 음식을 찾는 휴양객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방약초가 아닌 지역특산물을 판매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직접소득도 증가할 것입니다.
- ○ 축제 기념품개발에 관심을 더 기울였으면 합니다. 현재 손수건, 머그컵, 티셔츠 에 한정된 기념품을 모자나 인형 가방 등으로 다양하게 아이템을 늘리고 이들을 활용한 기념품 판매를 통해 이미지 제고와 소득향상을 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 디자인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사용중인 '약깨비'캐릭터는 귀여움과 독특성으로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 ○ 연계성 강화 전국의 한의학 및 한약 관련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축제의 질을 향상시키고, 실질적인 한방관련 체험프로그램을 확대시키며 다른 축제와의 차별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음식 및 영양관련 학과와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 축제장소가 향후에는 생약초를 채취할 수 있거나 직접 볼 수 있는 곳이면 최고 좋을 것 같고, 그것이 어렵다면 대안으로 그런 곳과 가까운 곳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약초를 재배하여 채취하고 수확하는 직접 체험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합니다.

라. 축제의 성과

❑ 잘된 점

- ○ 축제의 성과로 가장 큰 것은 경제적 효과입니다. 산업축제로서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의 약초 재배 지역민들은 축제를 통해 소득증대가 확실하다고 합니다(*참여 지역민 인터뷰). 극단적인 표현으로는 일년 소득이 축제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까지 하는 이야기도 할 정도로 산업축제로서의 성과는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 다음으로는 사회적 효과입니다. 2011년에는 100만명이 넘었고, 2012년에는 축제의 85만명을 추정할 만큼 많은 방문객들이 축제기간동안 산청을 방문함으로써 산청에 대한 홍보와 이미지제고의 기능을 하는 것은 축제의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 ○ 문화적 효과로는 현재 부 축제장으로 연계하고 있는 동의보감촌의 조성입니다. 이곳을 통해 지역문화가 확산되고 새로운 한방문화관광 자원개발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개선할 점

- ○ 불만족 요인 적극적 해소 지역의 이미지는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면서 산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높아지면서 그 후광효과로 산청과 관련된 모든 것이 좋아 보일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축제기간 다녀가는 방문객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간다면 축제개최를 통해 기대하는 모든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오히려 산청군에 역기능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신뢰'로 제품의 양과 질, 가격에 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산청군에서 축제를 통해서 판매하는 직접적인 상품은 '한방약초'이나, 궁극적으로는 '신뢰'라는 정서적 상품이야말로 '산청군의 제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 및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2010년도와 2011년도의 구매자들의 불만이 인터넷을 통해 전국에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도 같은 불만이 나왔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면 산업축제로서의 기능은 약화되고 결국은 다른 산업축제와 같은 실패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 ○ 경제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성과 이면에는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축제기간 동안 약재의 가격이 비싸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어 약재가격의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 ○ 사회적인 면에서는 지역민들 간의 과당경쟁 및 갈등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을 우려해야 합니다. 같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산품목을 알고 있는데 생산품목 이외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개인의 손실 및 지역이미지 하락을 우려하면서 공동체 문화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3) 총 평

○ 축제 목표 달성 12회 축제의 목표 3가지 중 2가지는 이루어진 것 같아 성공적인 축제가 수행되었다는 판단이 듭니다. 첫째 목표인 '2013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기반 조성'은 소프트웨어 면에서 사전홍보가 충실히 되었다고 보여지며,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기반 시설이 조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목표인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12년 우수축제 진입'에 대한 목표달성은 결과를 단정할 수 없는 시점이므로 이에 대한 목표달성 정도는 보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셋째 목표 '지역산업과 연계 지역 개발형 축제로 도약'은 확실히 목표 달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해 114만명의 방문객보다 훨씬 더 많은 방문객의 입장이 추측되었으나 최종 85만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작년대비 축제날짜가 줄었고 휴일의 수가 적은 점을 고려한다면 상대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했다고 봅니다. 5월 5,6,7일 3일간을 방문하였는데 5월 5일은 고속도로에서 행사장 진입까지 30분이상이 소요되었고, 6일은 정체가 더 심해서 축제장 진입을 포기할 만큼 방문객이 많았습니다. 7일은 월요일로 평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방문객들이 축제장을 찾았고, 따라서 일단 방문객들이 많은 축제로 자리 잡은 것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전 홍보와 연계성이 높은데 2012년 1월부터 축제직전까지 총 132건의 언론매체 보도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홍보 대행사까지 고려하였습니다. 축제관광객의 시스템에서 도로/교통 부분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겠지만 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방문객이 너무 많지 않았다면 교통체증 및 주차불편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지난 해에도 100만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는 축제라면 이에 대한 대책이 충분했어야 했습니다. 가령, 축제장소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바로 연접하여 있어 고속도로비 징수에 따른 정체문제와 진입하여 바로 축제장으로 진입해야 하는 짧은 동선으로 인한 혼잡과 불편은 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약초가 자생하거나 재배되는 곳과 관련된 장소로 축제장이 옮겨가야 할 것입니다.

○ 사전준비 다른 축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주제도 차별화되고 지역의 상징성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지역민에게 직접적인 소득증가를 가져오는 좋은 산업축제이나 혹시 지나치게 상업성을 띠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 및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축제장 전체를 돌아보면서 느낀 점은 모든 곳이 적게는 2,000원에서부터 많게는 몇십 만원까지 돈이 필요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적은 돈으로 체험하고 필요하면 구매하는 과정이었지만 이미지는 다른 축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업성의 성격이 강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이런 점을 해소하는 전략으로 '무료'프로그램을 늘리고 판매시설 중간 중간에 배치하여 체험하게 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축제장'에서 과다한 가격의 판매나 값싼 외국산의 '산청산'둔갑에 대한 불안

감 없이 안심하고 한방약초를 구매하고 더불어 맑고 깨끗한 산청의 이미지를 사갈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 발전방향 산청 한방 약초는 방문 관람객 추이로 볼 때 양적인 측면에선 이미 성공궤도에 진입했다고 보여집니다. 향후 의료관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요소를 지니고 있음으로 산청군을 의료관광 명소로 개발하기 위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기반조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 단계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㊷ 하동 야생차문화축제

(1) 개 요

- ❑ **기 간** : 2012년 5월 2일(수) - 5월 6일(일), 5일간
- ❑ **장 소**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악양면 일원
- ❑ **주 제** : 왕의 녹차! 다향천리 다정만리
- ❑ **주 최** : 하동군
- ❑ **주 관** : (사)하동야생차문화축제조직위원회
- ❑ **후 원** :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경상남도, 한국관광공사
- ❑ **프로그램** :
  - ○ 대표 프로그램(3) : 제1회 차수연회, 2012 섬진강 달빛차회, 2012 대한민국 차인한마당
  - ○ 컨셉 프로그램(24) : 화개천 설치미술 'Tea Garden', 차전시관, 외국인 다원8경 투어, 시배지 헌다체험, 스님과 함께하는 시배지 찻자리, 왕의 녹차! 골든 벨, 대한민국 청소년 차문화대전, 야생찻잎따기 체험, 외국인 차예절 경연대회, 차명상 여행, 최참판댁 오색찻자리, 사랑의 녹차 세족식, 스탬프랠리! 야생차 지도를 완성하라 외 11개 프로그램.
  - ○ 공식 프로그램(3) : 개막행사 '다향천리, 다정만리', 개막 헌다례, 폐막행사
  - ○ 확장 프로그램(18) : 동정호 부부松 사랑체험, 평사리 달빛걷기, 화개장터 마당극 '역마', 트릭아트 '왕의 녹차', 야생차 달팽이시장, 다원음악회, 왕의 녹차! 전국 나들이, 화개장터 마당극 '역마', 천변 그린테라스 '티카페', 슬로시티 가족소풍- 소달구지체험 외 8개 프로그램
  - ○ 마케팅 프로그램(12) : 차사랑 고향사랑 1사 1촌 맺기, 녹차사랑 상품권 발행, 그린티 하우스 '헬스&뷰티', 하동 야생차제품 전시/판매관, 하동 녹차탕 투어, 차(茶)학술 심포지움, 올해의 좋은 차 품평회 외 5개 프로그램

(2) 항목별 평가

가. 축제프로그램 완성도

❑ 잘된 점

- 하동 야생차문화축제는 대표, 컨셉, 확장, 마케팅 프로그램을 명확히 구분하는 등 프로그램 신규 개발 및 기존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방향 면에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프로그램 컨셉을 잘 구현한 것으로 보인다.
- 특히 올해 대표 프로그램인 '제1회 차수연회', '2012 섬진강 달빛차회', '2012 대한민국 차인한마당'은 축제 프로그램의 브랜드화를 추구하였던 당초의 기획의도에 부합되었고 방문객들에게도 많은 호응을 얻었던 프로그램이었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대표 프로그램인 '제1회 차수연회'는 전국 최초 차수연회를 선점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2012 대한민국 차인한마당'은 방문객의 참여 폭을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였으며, 특히 전국의 차인들이 대거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또한 '섬진강 달빛차회'는 모래사장 위에서 차인들과 함께 달빛이 비치는 강을 배경으로 차회를 즐기는 풍경을 연출하여 하동 야생차문화축제만이 갖는 고유한 축제의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연출적인 측면에서도 무대공연을 지양하고 전국에서 찾은 차인 및 관광객들에게 들차회를 베풀어 다정(茶精)의 장을 마련하고 달빛차회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방향으로 조정한 점은 단순한 방문객 참여유도 수준을 넘어서 방문객이 운영자가 되도록 하여 장기적인 참여를 유도한 전략적 모델이 될 것이다. 또 섬진강의 모래사장에는 솟대 설치와 천년 나무 등의 간결한 설치 미술만 도입하여 전통적인 미학을 연출하면서 자연 환경을 그대로 살린 부분도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 '스탬프랠리! 야생차 지도를 완성하라(하동 다원 8경 투어)'의 경우, 주행사장과 연계 행사장 그리고 다원 8경 등을 모두 방문한 방문객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사로 진행하였으며 스탬프 지도를 완성하는 재미와 함께 하동의 풍성한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내국인 방문객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좋은 호응을 얻었다.
- 제17회 하동야생차 문화축제는 방문객 중심의 참여와 체험, 녹차산업 활성화를 컨셉트로 한 야생찻잎따기와 내가 만든 왕의 녹차, 미션! 대렴공을 찾아라, 찻사발 빚기, 그린티 헬스& 뷰티 같은 체험·참여프로그램이 풍성하게 꾸려져 관광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 '외국인 다원8경 투어', '외국인 차예절 경연대회' 등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외국인 전용 프로그램은 외국인 방문율을 높이는데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글로벌 시대에 발 맞춰 문화교류는 물론 하동 녹차의 세계 시장 확대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축제가 개최되는 5월은 가족의 달로 가족단위의 방문객들이 많을 수 밖에 없다.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는 남녀노소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령층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많아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제고시켰다고 평가된다.

❑ 개선할 점

○ 화개장터에서 진행된 화개마당극 '역마'는 천년 다향의 본고장이며 오랜 역사를 지닌 화개장터를 배경으로 집필한 김동리 소설 '역마'를 소재로 창작된 마당극으로, 충분히 매력적인 소재와 스토리텔링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이 참관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 확장 프로그램은 연계 행사장에 고루 분포되어 있었는데, 주행사장과 차문화 센터가 있는 왕의녹차마당에서 다소 거리가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방문객들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참여 프로그램이나 관람 공연의 일정 시간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약간의 차질이 있었다.

○ 체험프로그램이 많이 개선이 되기는 하였으나 방문객들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체험적 요소가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의 확충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체험 프로그램에 많은 방문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사전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나. 축제운영의 적절성

❑ 잘된 점

○ 축제장 다핵화(Zoning)는 주행사장의 축제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단점을 보완해 주는 역할과 하동 일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이라 할 수 있으나 축제장의 동선이 너무 광범위하면 방문객들이 자칫 많은 프로그램들을 보지 못하고 축제 전반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으므로 축제장의 다핵화는 조금은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전체적으로 자연경관을 가급적 해치지 않은 채 자연스러운 축제경험을 이끌어 내도록 공간과 시설을 조성하였으며, 주무대 시설의 경우도, 주무대의 뒷 배경막을 인공 구조물을 대신 대나무 울타리로 조성하여 주변 경관과 행사 주제를 고려한 시설 구성에 있어 세심함이 돋보였다.

○ 특히 하동 야생차문화축제 주제가가 주행사장이 있는 왕의녹차마당에서 프로그램이 끝나는 시점 혹은 퍼포먼스와 공연 사이의 간막에 배경음악을 틀어줘 축제 분위기의 흐름이 끊이지 않는 느낌을 주었다.

❑ 개선할 점

○ 화개장터에서는 좋은 공연들이 진행되었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으며 이는 사

전홍보와 행사장 내부안내 등이 화개장터마당을 조성할 때부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이번에 새롭게 시도된 하동 야생차문화축제의 티테라스, 티가든, 천변테라스는 주행사장의 축제장을 확대한 느낌을 주었으나, 천변에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은 조성되지 않았고 테라스에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연출이 다소 미흡했다. 또한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에는 설치한 파라솔이 넘어지는 등 안전대책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티가든에서 행해지는 퍼포먼스 공연도 주제에 맞춰 좀 더 다양한 시도로 연출된다면 다양한 방문객들의 기호에 맞출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이다.
- 또한 다원 8경이나 매암박물관 등 하동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일부가 홍보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번 문제점으로 보인다. 향후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구전마케팅 등 다양한 방법의 홍보활동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군청 공무원들을 비롯해 지역의 유관 기관단체, 다문화 가족 등이 나선 적극적인 자원봉사 활동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이나 차량 통행의 불편, 쓰레기 처리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평가된다.

다. 축제발전성

❑ 잘된 점

- 전반적으로 축제의 내용과 운영방식이 크게 변화되었으며, 이는 축제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의 변화추세라면 머지않아 한국을 대표할 만한 축제로 발전되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 가장 인상적인 부분 중 하나는 군수와 군청직원은 물론이고 지역의 주민에 이르기까지 축제에 대한 자부심과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 주최 측의 강한 발전의지와 적절한 프로그램 보완, 지역산업과의 연관성 등 모든 면들이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오케스트라를 완성해 가고 있는 느낌을 주었다.

❑ 개선할 점

- 방문객을 일반 관광객에서 방문객 층을 좀 더 확대하여 녹차와 연관된 실수요자들의 방문을 이끌어 내는 전략을 강구하여 축제장에서 많은 실수요자들이 방문하여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브랜드성이 있는 하동 야생차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와 연관된 아이디어 상품과 기념품이 미미한 점에서 축제의 대표 기념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국제화 세계화를 위한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외국인 방문객을 유치하는데 기울인 노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외국의 축제들과 교류도 부족하고 국제적 축제로 성장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축제의 성과

❑ 잘된 점

- ○ 올해는 여행 및 축제 정보가 여수 엑스포를 중심으로 홍보되고 있어 일반 대중들의 관심이 여수에 집중된 까닭에 전반적으로 방문객 수가 줄어들었고, 최근 커피 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메밀차, 마테차 등 건강 기능 차 수요까지 증가하면서 녹차가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기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하동 야생차문화축제는 외국인 방문객의 만족도를 증진하고 축제와 슬로시티를 연계한 그린관광의 기반을 확충하는 전략과 함께 하동 녹차에 대한 브랜드의 위상을 제고하고, 차시배지가 갖는 전통을 계승한다는 목적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명확히 인식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 외국 관광객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 ○ 또한 홍보 및 마케팅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차사랑 고향사랑 1사 1촌 맺기'를 통한 하동 야생차 판매 및 판로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고, 녹차 현장판매 증대효과를 얻기 위한 방안으로 '행운의 녹차대박을 잡아라'를 통해 녹차구매자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시행하였다. '차사랑 고향사랑 1사 1촌 맺기'는 녹차산업 관계자들에게 축제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축제가 녹차산업 발전과 유기적으로 상관관계를 맺을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된다.
- ○ 녹차시장을 비롯해 야생차 전시·판매관, 다미락 장터, 녹차 술 아락 시음장, 녹차탕 투어 등 녹차생산 농가에 도움을 주는 마케팅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되어 하동녹차 홍보와 녹차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 개선할 점

- ○ 올해는 전년에 비하여 연계 행사장인 최참판댁, 평사리 공원, 섬진강, 다원8경 등에서 구성된 행사 프로그램이 예산 부족으로 많이 축소되어 방문객들을 흡입하지 못하였고, 지난 겨울 이상기온 현상으로 녹차 생산시기가 예년보다 다소 늦어지면서 농번기와 겹쳐 관내 주민들의 축제장 관람이 저조하였다. 또 여수 엑스포가 집중적으로 홍보되고 있어 일반 대중들의 관심이 인근의 여수에 집중된 까닭에 전반적으로 방문객 수가 줄어들었다. 좀 더 효율적인 예산활용으로 방문객의 재방문율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 대표프로그램 완성도의 제고를 통해 축제의 명품화 및 세계화를 실현하고, 축제의 전국화로 차시배지, 야생차 최대산지 하동 브랜드 이미지의 지속적인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총 평

○ 하동 야생차문화축제의 프로그램은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대표, 컨셉, 확장, 마케팅 프로그램을 신규 개발하고, 마케팅 강화 전략으로 녹차 마케팅 프로그램 신규 개발 및 기존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방향에서 구성되었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던 축제라고 평가된다. 또한 이번 축제는 전국 차인 참여확대와 외국인 만족도를 증진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차문화축제의 위상을 제고한 축제였다고 보이며, 축제와 슬로시티를 연계한 그린관광의 기반을 확충하는데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방문객 층을 좀 더 확대하여 녹차와 연관된 실수요자들의 방문을 이끌어 내는 전략을 강구하여 축제장에서 많은 실수요자들이 방문하여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며, 축제 홍보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는 축제의 대표 기념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하동 일대의 다핵화 연계 행사장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확장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만 축제가 생명력을 가지고 더욱 발전하는 발판이 될 것이다.

㊸ 함양 산삼축제

(1) 개 요

❑ **기 간** : 2012년 7월 26일(목) - 7월 30일(월) 5일간

❑ **장 소** : 경남 함양 천년의 숲 상림공원, 필봉산 일원

❑ **주 최** : 함양군

❑ **주 관** : 함양산삼축제추진위원회

❑ **주요행사**

- 공연행사 : 개막식, 폐막식, 개막퍼포먼스, 개막축하공연, 산삼축제와 함께하는 정의송의 빅콘서트, 2012년 산삼가요제, 산삼축제와 함께하는 가요쇼, 청소년 락페스티벌, 한마당 축하공연,
- 체험행사 : 산삼캐기체험, 산삼동굴공포체험, 심마니원시문화와 첨단과학로봇체험, 호연지기기상체험, 산삼화분만들기, 심봤다!메아리체험, 심마니스토리텔링체험, 심마니소원지적기, 산삼골약나무공예체험, 어린이 만들기 체험장(크라운해태), 물고기잡기체험, 자연보호목걸이체험, 아내사랑산삼연요리체험, 꽃산삼만들기체험, 산삼주담아가기체험, 심마니소품만들기체험, 산삼떡만들기, 심마니옷만들기, 산삼연 압화부채, 산삼연티셔츠만들기, 종이연꽃등만들기, 산삼비누만들기, 심마니저자거리, 심마니은어학습체험, 심마니공예품만들기, 심마니도예방, 연밥인형만들기, 풍선산삼만들기, 산삼계곡곤충체험, 산삼토피어리 등
- 전시행사 : 함양산삼역사관, 산삼역사문학관, 심마니산삼사진전시, 자연산삼(천종산삼)전시, 세계산삼전시, 산삼홍보관, 함양산양삼 RIS사업관, 심마니생활용품 전시, 지리산약초 전시, 산삼계곡분경 및 석부작 전시, 명품산양삼품평회
- 판매행사 : 산양삼판매장, 함양산양삼 가공상품판매장, 농특산물판매장(약초), 다양한 산삼먹거리 무료시식, 판매
- 부대행사 : 산삼심포지엄

(2) 항목별 평가

가. 축제프로그램 완성도

❑ 잘된 점

- 함양의 특산물인 함양산삼을 소재로 하여, 국가지정 대표축제로 도약의 기반 마련, 2018년 세계 산삼엑스포를 개최, 고려 산삼 역사 발굴 국민 건강패키지 관광상품 육성, 산양삼 수출시장 확보 등의 목적으로 개최됨.
- 4박 5일간 '산삼의 그 신비한 뿌리! 건강도시 함양'이라는 주제로 천혜의 자연조건인 상림공원과 필봉산을 주무대로 다양한 체험·놀이, 볼거리, 먹거리 등이 잘 어우러진 프로그램을 제공함.
- 체험프로그램 중'심마니 스토리텔링'은 높은 만족도를 보임. '심마니 스토리텔링'은 심마니들의 산삼 캐기 준비부터 캐기까지 과정을 7개 구간으로 나누어 퀴즈형식으로 마련하여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함으로서 몰입도와 만족도를 높임.
- 또한, 산삼캐기체험장의 경우 축제기간에 맞추어 실제 재배지역이 아닌 비슷한 환경의 체험장을 만들어 산삼재배농가에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체험을 극대화 하도록 노력하였고, 체험 후 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포장해주는 점이 좋았음.
- 공연 프로그램의 경우, 사운정에서 벌어지는 마당극은 작지만 축제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함. 자칫 축제가 가질 수 있는 단조로운 축제장 분위기를 요소에 크고 작은 공연을 통해 난장적 요소를 삽입함으로서 방문객들이 축제의 경험을 총체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았고, 지역에 있는 대학교 학생들을 활용하여 대학생들의 지역에 대한 관심을 고양시켰다는 점이 좋았음.

❑ 개선 점

- 축제의 개별프로그램이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계획된 점은 좋았으나, 개별 축제의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음. 올해만의 축제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함양산삼축제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이를 반영하는 청사진을 작성하고, 이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배치함으로써 전체 축제가 나아가야할 지향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축제의 공연프로그램은 많은 고민이 필요함. 연예인을 활용한 대규모 공연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가장 유용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축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는 부적절함. 축제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공연프로그램의 보강이 있어야함.
- 아울러 체험프로그램의 경우 '심마니 스토리텔링'을 제외한 나머지 체험프로그램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축제의 주제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프로그램의 수를 줄이고, 선택된 프로그램의 경우 체험장을 넓히거나 체험의 난이도를 다양화하여 현재 어린이

위주의 체험에서 벗어나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갖추는 것이 요구됨.

- 마지막으로 전시프로그램의 경우 '산삼주제관' 및 '산삼전시관'에 전시된 자료가 빈약하여 추후 보강하여야 할 뿐 만아니라, 이를 제시하는 방법에 있어, 단순한 전시보다 전시물에 담긴 정보가 쉽게 전달될 수 있고 용이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

나. 축제운영의 적절성

❑ 잘된 점

- 축제 총 감독제를 시행하여 전문가적 시각에서 축제프로그램을 기획, 컨설팅 함으로써 축제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산삼의 특성상 일반자원봉사와 함께 산삼재배작목반 등의 지역의 관련 산업종사자들을 축제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킨 점은 바람직함.
- 축제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림공원은 숲과 물이 어우러져 한여름에 축제를 즐기는데에 최적의 장소임. 결과적으로 축제 방문객이 혼잡함 없이 기존의 시설에서 다양한 축제의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공간적으로 배치한 점은 매우 돋보임.
- 아울러, 축제장 곳곳에 급수대 대신 산삼차를 무료로 시음할 수 있는 장소나, 화장실 등을 배치하여 축제장내에서 체험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잘 준비함.
- 축제의 성공과 발전을 위하여 지방 행정 수반인 군수와 의회 의장이 합심하여 노력하는 모습과 군 행정 담당자들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자세가 훌륭하게 평가 됨.

❑ 개선 점

- 축제의 홍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정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축제홍보를 실시하는 것이 요구됨. 현재 TV와 같은 대중매체와 더불어 인터넷, 광역권 옥외광고와 같은 다양한 매체광고를 통하여 일정부분 인지도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나, 실제 참여를 유도하는 데는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됨. 이는 명확한 목표시장의 선택 및 이들에 대한 욕구 및 매체특성을 감안하여 집중적 홍보를 하는 것이 요구됨.
- 축제가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함. 축제장의 접근과 관련하여 외곽 주차장에 주차하였을 경우 축제장까지의 거리가 상당한데, 이곳에서 축제장까지의 적절한 안내가 부족함.
- 축제장 내의 대다수의 부스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특설무대 옆에 위치한 부스의 경우, 공연이 없는 시간에는 부스가 비어있고 이를 이용하는 관람객도 없어 실제 효용성이 매우 떨어짐.
- 자원봉사자의 활용은 운영자의 측면에서 축제 운영인력을 확보, 봉사자의 측면에서 축제 참여를 통해 지역에 대한 애착도가 높아지는 등에서 많은 긍정적인 요소가 있

음. 아울러 축제장에서 관람자와의 접점에서 근무하게 때문에 관람자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특히, 다양한 연령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점은 좋았으나 적절한 교육을 통해 관람객에게 필요한 기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실수가 없어야함.

다. 축제발전성

❑ 잘된 점

- 2012 함양산삼축제는 국가지정 대표축제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여 2018년 세계 산삼엑스포를 개최하고, 고려 산삼역사, 전통발굴을 통해 국제 건강패키지 관광상품을 육성, 마지막으로 산삼 수출시장 확보를 통해 차세대 건강벤처산업주도라는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축제의 발전성이 엿보임.
- 이를 실천함에 있어, 함양산삼축제는 경남 함양군의 전폭적인 행정적 업무지원과 축제 관계자등 지역주민, 담양군, 담양대나무축제위원회가 서로 협력하는 "지역참여형" 축제체계를 구축하였고, 신비하고 건강한 지역의 이미지를 그 매개체인 산삼과 잘 연계하고, 지역의 자연적인 인프라를 활용하여 축제의 긍정적인 성과를 냄.

❑ 개선할 점

- 축제의 뚜렷한 목표설정에 대한 구체적 실천에 있어 아직 초기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쉬움. 앞서 제시한 세 개의 목표(엑스포개최, 관광상품 개발, 건강벤처사업 육성)가 단기간에 실천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 계획 하에 그해 그해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판단됨.
- 특히, 관광상품의 개발 및 산양산삼의 산업화의 경우 장기간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다고 할 때, 앞으로 축제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킴으로서 그 노하우를 축적시켜가는 것이 요구됨.
- 이런 점에서, 계획서상에 나와 있으나 실제 축제장에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고 있는 다양한 축제 연계상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 홍보하는 전략이 요구됨. 특히 원거리 방문객의 경우 축제 하나로만 지역을 방문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할 때, 관광지와 연계한 복합 축제관광상품의 개발은 원거리 관람객에게 충분한 유인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라. 축제의 성과

❑ 잘된 점

- 축제의 성과는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음. 사회적 성과의 경우, 축제가 가지고 있는 소통의 장으로서 사회화합의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됨.

축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고, 축제를 통해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소통은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문화적 자부심을 고양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 을 하였다고 판단됨.

- 경제적인 측면에서, 산양산삼의 홍보 및 판매라는 측면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됨. 산양산삼을 축제의 소재로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서 축제 홍보뿐만 아니라 함양산삼이라는 브랜드의 인지도를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됨. 이는 축제장에서는 함양산삼의 판매증가에 그치지 않고 향후 함양산삼의 판매증대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됨.

❑ 개선할 점

- 이번 축제가 보다 나은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축제에 대한 보다 세밀한 계획이 필요함. 즉 사회,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오기 위해서는 방문객수의 증가와 방문객의 체류시간 연장 및 재방문을 위한 만족도 증가가 있어야함.
- 이런 점에서 이번 축제는 다소 지역주민을 위한 축제에 그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음. 광역시장 및 외국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축제의 목표시장을 보다 명확히 하여 목표시장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시가 필요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은 축제장에 국한하지 않고, 축제장을 중심으로 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노력이 필요함.

(3) 총 평

- 전반적으로 산삼의 특성을 잘 살린 축제라고 판단됨. 장기적인 목표는 설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부재한 것이 아쉬움. 프로그램에 있어 체험프로그램이 지역의 특성을 잘 반여하고 있는 반면, 전시 및 공연 프로그램이 축제의 차별적 특성을 나타내기에 다소 빈약함. 앞서 제시한 장점을 잘 살리고 부족한 점을 보안 한다면, 한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㊹ 제주 정월대보름들불축제

(1) 개 요

❑ **기 간** : 2012. 02. 02(목) ~ 02. 04(토) [3일간]

❑ **장 소** : 애월읍 봉성리 새벽오름 일대 (평화로변)

❑ **주 최** : 제주특별자치도

❑ **주 관** : 제주시, 제주시관광축제추진협의회

❑ **주요행사**

- 한마당(풍년기원의날)행사: 도민대통합 줄달리기, 풍년기원제, 달 집만들기 경연대회, 축제를 여는 대동놀이, 청소년 어울 림 한마당, 개막주제공연, 소원기원 횃불 대행진, 소원 엽서낭독/달집태우기, 풍년기원 불꽃쇼 등
- 두마당(도민 통합의 날)행사: 읍면동 대항 넉둥베기경연, 집줄놓 기 경연, 마상마예공연, 읍면동 음악잔치, 각설이타령, 제주풍류 한마당, 제주농요 공연, 제주 굿 공연 등
- 세마당(소원 기원의 날)행사: 듬돌들기, 열린무대, 국제교류도시 공연, 폐막주제공연, 소원기원 메시지 낭독, 오름정상화 산분출쇼, 대형달집점화, 오름불놓기, 오름정상 연화연 출, 휘날레장식(대동놀이 공연) 등
- 부대행사: 새별-이달오름 등반체험, 제주민속놀이 체험, 체험승마 교실, 오름 소원 우체통 운영, 정월대보름테마음식코너, 제주전통음식 체험코너 운영, 도리깨질 체험 등

(2) 항목별 평가

가. 축제의 특성, 축제콘텐츠

❑ **잘된 점**

- 제주정월대보름들불축제는 제주 고유의 민속자원을 계승하고 불(火)·말(馬)·달(月)·오름(岳) 등을 소재로 이용하여 1997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축제로서 한해를 처음 시작하는 정월에 전통문화의 소중함과 정월대보름의 세시풍속을 재현하고 제주도민과 관광객들에게 가내평안과 소원성취를 드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전통적인

우리나라 정월대보름 고유의 민속전통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재현했을 뿐 아니라 오름을 태우는 들불의 웅장함과 대형화로 그 독창성이 뛰어나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유발하는 동시에 제주만의 독특한 민속자원을 축제에 잘 접목·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새벽 오름을 통째로 태우는 오름불놓기와 오름불놓기 직전의 대형달집 점화, 오름불놓기 후의 오름정상 연화연출 및 레이저 쇼 등은 해묵은 풀을 없애고 해충을 구제하기 위해 마을마다 불을 놓았던 옛 목축문화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현한 것으로 119m의 새벽오름 전체면적 중 행사진행 구역을 제외한 30만㎡에서 웅장하게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 모두가 지난해 액운을 태워버리고 새해의 소원을 기원하는 간절한 바램을 담아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낸 감동프로그램으로서 대표축제프로그램으로서 손색이 없었음.
- 구제역으로 인해 2년 만에 개최된 본 축제에서는, 과거 불필요한 연예인 초청 공연 등을 없애고 소원기원 횃불대행진, 소원기원메시지 낭독, 달집만들기 경연대회 등과 같은 축제 주제에 부합되는 풍성한 프로그램들로 구성·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제주의 역사 속에서 제주인과 함께 생활해 온 제주마를 활용한 마상마예공연 및 승마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제주만의 독특하고도 창의적인 축제 매력을 확실히 각인시키는 효과를 창출하였음.

❑ 개선할 점

- 모두 투어에서 본 축제와 연계된 특별 패키지 상품을 출시하여 용두암, 제주 민속 자연사 박물관, 천지연 폭포, 우도 8경 탐방, 제주 조랑말체험 등 제주도 대표 관광지를 연계하여 돌아볼 수 있게 하였으나 2월 4일 단 하루 출발·진행되는데 그쳤음. 향후에는 본 축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연계 투어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운영할 필요가 있음.
- '제주말사랑싸움' 프로그램은 전회에 이어 올해에도 시행되지 못하여 목축문화의 진수를 보여주는데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처럼 제주 오름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 제주마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역사 콘텐츠들을 더욱 발굴하여 본 축제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제주도에서 기 마련한 제주말산업 종합진흥계획에 따른 국제화사업과 연계하여 본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현장에서 세계적 수준의 말 관련 체험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만족도를 제고함은 물론이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적으로 들불축제 전시관 및 박물관을 건립하고 각종 아카데미사업을 통한 축제 관련 연구와 축제문화의 창달을 통하여 축제프로그램의 일부를 상설화하고 수익화하는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나. 축제의 운영

❑ 잘된 점

- ○ 축제장을 연결하는 교통편이 부족하고 자가용 이용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셔틀버스를 2010년 20대에서 올해에는 30대로 증차하였고 셔틀버스 배차 간격도 30분으로 단축하여 운행함으로써 승용차로 행사장까지 진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으며 행사장내에 고정화장실 1동을 설치하여 노약자 및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이동식 화장실 50동을 배치하여 방문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함.
- ○ 축제장 내의 종합안내판 설치 운영, 미아보호소, 물품보관소, 주차장 확대 운영,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안내활동 등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원활한 공간구성과 배치 및 참여가 이루어졌고 행사장내의 잡상인 단속을 통하여 행사장을 쾌적하게 유지하고자 하였음.
- ○ 제주 명품과 특산물을 위한 홍보관 운영으로 제주특산물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축제관련 단체에서 운영하는 제주 향토 음식점을 통하여 양질의 제주 전통음식을 저렴하게 제공함으로써 방문객들에게 제주인심과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음.
- ○ 축제 직전에 제주지방에 몰아친 기습한파로 인하여 첫날 일정이 전면 취소되면서 2년만에 개최되는 본 축제진행에 큰 차질을 예상하였으나 둘째날에 전날 못한 일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머지 프로그램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느라 축제관계자 전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향후 발전적인 축제를 기약하게 되었음.

❑ 개선할 점

- ○ 제주지방의 폭설과 강풍으로 인하여 첫날 예정프로그램을 둘째 날에 동시다발로 운영하다보니 행사장의 혼잡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새벽오름이 눈에 덮혀 있는 관계로 오름불놓기 행사 시, 곳곳에서 불이 붙지 않아 관람객들의 감동과 만족도가 떨어짐. 이와 같이 축제 시기와 기후 변화에 축제의 만족도와 성패여부가 전적으로 결정되는 근본적인 구도를 타파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 축제 공식 부대행사장에는 잡상인을 금지하였으나 본 축제의 주제와 무관한 음식과 상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불순한 일기로 인하여 바닥이 고르지 못한데다가 일부 음식코너의 경우 품질이 떨어지거나 위생에 취약함을 보이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 ○ 행사 전후에는 강풍이 몰아치는 날씨임에도 관람객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불편을 초래하였고 행사 후 어둠속에서 주차된 차를 찾느라 고생하고 나서 한꺼번에 몰려든 차량으로 교통 혼잡이 야기되어 다시 고생하는 문제점이 노출됨.

다. 축제의 발전성

❑ 잘된 점

- ○ 본 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대단위 전국행사시 집중홍보 또는 로드홍보를 실시하고 광고탑 3개소, 아치 2개소 현수막 16개소를 설치하여 많은 홍보 노력을 기울임. 특히 축제관계자들 모두 불순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하여 축제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자치단체장의 본 축제 육성 의지가 확고하며 가장 큰 문제점인 축제시기와 축제 명에 대한 개선의지 또한 강하여 향후 한 차원 높은 축제로서의 변신을 기대하게 됨.
- ○ 폭설과 강풍, 거친 행사장 노면에도 불구하고 행사의 클라이맥스인 오름불놓기 프로그램이 펼쳐진 마지막 날에는 일찍부터 많은 제주도민들과 관광객들이 몰려들어 각종 프로그램을 순회·참관하면서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즐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오름정상 화산분출쇼를 기점으로 모두가 합심하여 감동을 연출해내는 화합의 한마당이 펼쳐졌음.
- ○ 국제적인 관광지인 제주도의 위상에 걸맞게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의 3개 국어로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달집만들기 경연대회와 읍면동 대항 넉둥베기 경연, 집줄놓기 경연, 듬돌들기 등의 프로그램에 외국인이 참가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으며 축제 마지막 날에는 국제교류도시공연을 메인프로그램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세계 다문화 시식체험 코너의 운영을 통하여 관광객, 제주도민 및 외국인간 상호 문화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축제가 되었음.

❑ 개선할 점

- ○ 축제가 열리는 이틀 동안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시외버스 임시정류소의 지정과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였을 뿐 아니라 행사장 주변의 교통체증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1만 여대의 차량이 동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행사장까지의 접근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음. 그러나 행사 종료 후 많은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심각한 교통체증이 유발된 바 이에 대한 근본 대책이 요구됨. (사)제주관광학회의 설문에서도 설문 응답자의 67.3%가 자가용을 이용하여 축제장을 찾은 것으로 나타나 이 비율을 줄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증명함.
- ○ 행사시기와 행사명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축제 주최 측과 자치단체의 긍정적인 노력과 병행하여 쾌적한 행사장 조성에도 함께 신경 써야 할 것으로 관찰됨. 악천후로 인하여 진흙 바닥인 행사장이 차량 통행은 물론이고 보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음식코너의 위생문제까지 야기하는 등 축제 만족도의 저감요인이 되고 있어 이의 시정이 요구됨.

라. 축제의 성과

❑ 잘된 점

- ○ 지난 해 구제역 파동으로 취소되었던 본 축제가 2년 만에 열리게 되었으나 폭설로 인하여 첫날 프로그램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구성원들의 혼신의 노력을 바탕으로 지역민들과 관람객 모두에게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감동을 선사하는 가치 있는 축제로 성료될 수 있었음.
- ○ 축제 주제와 무관한 연예인 출연 프로그램의 과감한 폐지, 주요 프로그램의 외국인 참여 기회 제공, 화산불꽃쇼와 오름태우기를 결합한 멀티미디어 불꽃쇼를 통한 현대적인 기법의 동원 노력 등이 돋보였고 그만큼 관람객들의 호응을 자아냄.
- ○ (사)제주관광학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본 축제의 전체 관람객 및 관광객의 규모는 전년대비(축제일정:14회 3일, 15회 2일) 3.5% 감소한 300,00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관광객유인효과에서는 59,052명으로 전년 33,705명보다 25,347명(42.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또 본 축제의 개최를 통한 관광객의 소비지출, 즉 들불축제 개최에 따라 직접적으로 유발된 관광수입은 약 153억 368백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 본 축제가 방문객의 소비지출을 유도하는 축제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됨.

❑ 개선할 점

- ○ 한 단계 수준 높은 성과를 위해서는 (사)제주관광학회의 평가보고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들불축제장의 마스터플랜을 우선 수립하여 축제장 지역의 지반정지 사업 등을 우선 실시하고 관람객 동선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동시에 추가 수도 및 가스시설 보강을 실시하며 축제장을 상설화 및 전시화하는 동시에 축제와 연계된 추가 패키지 관광상품을 적극 발굴하는 등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명실공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축제로의 성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 축제 프로그램에 출연하거나 관람객으로 행사장을 찾은 외국인들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여 불편함을 개선하고 외국인 대상의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전략의 수립과 활동을 통하여 국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총 평

- ‘평화와 번영의 제주, 무사안녕과 행복기원’이라는 주제의 제주정월대보름들불축제는 구제역 파동으로 2년 만에 개최되었으나 축제 첫날 행사가 폭설로 인하여 전면 취소되는 위기를 맞이하였음. 그러나 제주도민과 축제관계자의 헌신과 노력으로 ‘도민이 축제 주체가 되고 참여하고 화합하는 축제’, ‘지역성을 탈피한 세계적인 축제’, ‘제주의 특징을 부각시킨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한 축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배려한 경제축제’로서의 당초 추진 방침에 부합한 축제로서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음.
- 지금까지는 행정이 주도해온 축제였으나 앞으로는 민간중심형 축제로 탈바꿈하면서 축제조직의 역량강화 및 선진화, 축제명칭, 축제시기, 축제장소 등에 관한 전반적인 마스터플랜 마련 등의 중대 과제의 개선 노력을 통해 제주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축제로서제2의 도약기를 기대하게 하는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축제임.
- 세계인의 관심과 도내 외 관광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지속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국제적인 들불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행정적인 지원을 통한 축제와 관련된 각종 인프라의 국제화와 함께 재정확충 방안의 수립·시행을 통한 자립화 전략도 병행하여 강구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됨.

㊺ 서귀포 칠십리축제

(1) 개 요

❑ **기 간** : 2012년 9월 7일(금) - 9월 11일(화) 5일간

❑ **장 소** : 서귀포 칠십리공원 및 시내일원

❑ **주 최** : 서귀포시

❑ **주 관** : 서귀포시관광협의회

❑ **주요행사**

○ 공연행사
- 안성시 남사당놀이패 공연 - 불로장생의 서막(개막축하공연)
- 영원한 젊음 락·락·락 - 클래식과 함께하는 힐링
- 제주전통혼례 재연 - 거리공연 등

○ 경연행사
- 해순이 섬돌이 어린이 선발대회- 칠십리 가요제
- 칠십리 길거리 농구대회 - 불로장생 장수무대
- 칠십리 시민화합 한마당
- 평생학습축제 동아리 경연(공동개최)
- 주민자치 박람회 동아리 경연(공동개최)

○ 체험행사
- 칠십리 대행진 - 제주옹기 체험관
- 뷰티·에코 체험관 - 제주조랑말 승마체험
- 어린이 대야 워터파크 - 숲속의 작은 도서관
- 제주본초, 조릿대, 양채류, 마제품 체험
- 2012 서귀포시 평생학습축제 체험행사(공동개최)

○ 전시 및 판매행사
- 불로장생테마관('제주본초') - 평생학습동아리 성과물
- 주민자치센터의 지역 특산 및 홍보물 등

(2) 항목별 평가

가. 축제프로그램 완성도

❑ 잘된 점

-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제주 그리고 오늘날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마음속의 영원한 '이상향'이자 서귀포의 아름다움과 신비경을 대변하는 고유명사로 사용되고 있는 '칠십리' 그리고 불로초를 찾아서 한라산에 온 진시황제의 사자 '서복'이 남기고간 '서불과지'에서 서귀포는 '불로장생'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대표적인 장소로서 입지적 특성과 역사성이 잘 조화를 이룸.
- 제주만의 결혼문화인 관혼상제 의식과 불로장생을 연계하여 전통혼례 재연, 가문잔치 등 지역의 전통을 되살리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제주의 풍습과 음식을 직접 체험할 수 있고 공동개최 프로그램과 더불어 흥미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됨.
- 주무대의 공연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이 주민자치단체의 경연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지역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역민들의 참여열의와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저변확대 효과에 우수한 평가됨.
- 특히 노인들로 구성된 음악과 율동(기공관련 체조)을 선보인 기공팀, 초등학생부터 70대 노인 등의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하모니카 동아리 등 남녀노소의 다양한 계층과 기관이 참여한 경연과 공연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의 높은 호응도를 제고할 수 있었음.
- 대표적인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은 축제 주제인 '불로장생' 테마관으로 "불과 바람, 물이 만든 생명의 약초"라는 슬로건으로 제주약초의 공동브랜드인 '제주본초' 제품을 전시, 시음, 판매하여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제주 특산의 아열대성 약초와 기능성 제품에 대한 관람객의 이해와 관심을 고취시킬 수 있었음.
- 아울러 17개 주민자치센터에서 친환경, 생태, 문화와 예술 등 각 지역의 특징과 특산품 등을 중심으로 전시, 시식, 판매부스를 운영하여 지역민과 지역중심의 축제로서 비교적 양호한 호응도를 나타냄.
- 그 외에도 '서귀포시평생학습관', '서귀포오석학교', '서귀포시니어클럽', '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 '서귀포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에서 '추억의 포토존', '커피바리스타 무료시음 및 판매장', '우리가족 소원 솟대만들기', '천연염색&제주전통 과즙체험', '버블버블양초만들기', '친환경수세미&넵킨아트' 등의 다양한 단체에서 특색있는 프로그램으로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돋보였음.
- '주민자치박람회'와 '평생학습축제' 그리고 '서귀포칠십리축제'를 공동으로 개최하여 공연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의 다양성 제고와 '불로장생 작은 올레 걷기'를 통한 새연교와 천지연 등 주변 관광지와의 양호한 연계성으로 축제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임.

❑ 개선할 점

- 외국인을 비롯한 외래관광객의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몰입도와 집중도가 높은 차별화된 대표프로그램(Killer Contents)개발에 대한 검토와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임. 아울러 주제의 역사적 논거인 '서불과지'에 대한 프로그램도 다소 미약하다는 느낌을 받았음.
- '공연 및 경연 그리고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고 구성이나 내용이 다양한 '주민자치박람회'와 '평생학습축제' 프로그램들과 축제주제(불로장생)와의 상관성과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아울러 전체 프로그램을 포괄할 수 있는 주제설정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축제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일 것으로 평가됨.
- '어린이 대야(大野) 워터파크'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의 내용이 계절에 적합한지에 대한 재검토와 관람객의 호응도 제고를 위해 장소변경 및 프로그램 보완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며 '제주승마체험'과 '어린이 대야워터파크'는 늙을 '노(老) 포인트'로서 프로그램 내용과 포인트 이름이 다소 상반된 느낌임.
- 각 주민자치센터 및 평생학습 동아리에서 출연한 팀에 대한 구성과 공연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여 안내하면 관람객의 호응 및 감흥 정도가 증폭될 것이며 '윷놀이'와 '투호놀이'의 경우 경연형태로 진행하여 참여 및 관람객의 호응도는 양호하였으나 팸플릿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아쉬웠음.
- 호응도가 적거나 주제와의 상관성이 낮은 프로그램의 경우 개선 및 조정이 필요할 것임. 예컨대 '취업상담 & 에코백 만들기'의 경우 다소 호응도가 낮고 '서귀포의료원'의 경우 부스 크기에 비해 참여인원수가 적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불로장생 테마관의 '함양산삼코너'와 '안성시 남사당놀이패' 공연은 지역특색을 약화시킨다는 느낌을 받았음.

나. 축제운영의 적절성

❑ 잘된 점

- 서귀포칠십리 공원의 축제기반시설과 본행사장의 경우 주무대를 중심으로 주민자치단체의 '주민자치관'과 '평생학습관'을 좌우측으로 하고 중앙에 "불과 바람, 물이 만든 생명의 약초"를 주제로 한 '제주본초'의 불로장생 주제관과 RIS 사업단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주무대 맞은편 가장 먼 위치에 '가문잔치음식점'을 비롯한 먹을거리 장터를 배치하여 본행사장의 전체 동선 및 배치는 양호한 평가임.
- 주무대위의 공연 및 경연프로그램의 경우, 전체 행사일정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시식 및 체험코너, 그리고 '주민자치단체'의 홍보 및 전시부스 운영의 경우도 지역주민들의 참여열의와 관람객의 호응도, 전시규모 및 내용도 비교적 양호한 평가임.
- 「한국분재협회 서귀포 지부」 의 '서귀포칠십리축제분재전'은 작은 올레길을 걷는 관람

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으며 '작은 올레길 걷기'의 경우 각 코스별 포인트 인정 스티커를 붙이게 하고 코스에 대한 길안내 체계도 양호하여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열의를 제고함.

- 9월 8일(토)의 경우 '불로장생라디오'의 DJ가 실시간 안내멘트와 함께 분위기에 맞는 음악을 틀어줌으로써 주무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막간 여백을 채워주고 '장작윷놀이' 등의 진행상황을 행사장내의 관람객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전체 축제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여 우수한 평가임.
- 먹거리코너의 경우 외지상인들을 적절히 배제하고 '올레국수전문점', '가문잔치음식점'과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무료시식행사 등을 통한 특선먹거리 장터를 운영하여 식품위생과 관람객의 호응도 등에 양호한 평가임.
- 살거리코너의 경우 주민자치센터별로 특색 있는 살거리 전시 및 판매부스를 운영하고 있고 '서귀포시평생학습관', '서귀포오석학교', '서귀포시니어클럽' 등의 평생학습관련 기관과 대정읍을 비롯한 17개 주민자치센터에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주민참여열의는 우수한 평가임.

❑ 개선할 점

- '숲속의 작은 도서관', '칠십리 사진전', '어린이 대야(大野) 워터파크'와 '한국문예사진작가회 사진작품전시' 부스의 경우 관람객의 호응도 제고를 위한 부스의 위치 및 공간 그리고 운영방법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외래관광객의 관문인 제주시의 공항이나 항만에서부터 주무대가 있는 행사장까지의 교통안내체계는 다소 보완되어야할 것임.
- '축제운영본부'와 '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의료반'의 경우 관람객의 호응도제고를 위해 위치 및 공간을 적절하게 재배치하고 '축제운영본부'의 경우는 '종합안내센터'와의 통합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축제운영본부'와 '의료반'의 경우 축제전반을 통제하고 지원하기 용이한, 즉 관람객의 접근성이 가장 양호한 위치가 바람직할 것임.
- 주무대에서 진행된 공연 및 경연프로그램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계획대로 진행되었으나 부분적으로 지연되는 공연시간에 대한 안내와 공연내용에 대해 실시간 지속적으로 안내방송을 실시해야할 것임. 9월 8일 실시했던 '불로장생 라디오' 프로그램을 계속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임.
- 예컨대 10시에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된 '칠십리시민화합한마당'의 경우 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방송은 "청소년페스티벌 담당 지도자나 선생님들은 음향팀으로 오시라"라는 안내방송을 계속하고 있었음. 진행시간 지연에 대한 안내는 물론이고 행사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안내 또는 설명을 병행해서 실시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음.
- 행사장의 기반시설은 전체적으로 양호하나 주무대에 그늘막이나 비가림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우천시 원활한 행사진행이 우려되고 휴게시설(만남 또는 휴식을 위한 부스)의 확충과 분리수거 가능한 쓰레기통 비치 등의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임.

○ 임시주차장 확보노력은 양호한 평가이나 방문객에 비해 부족하므로 칠십리공원을 통과하는 일방통행로의 우측 휴경지 등을 활용한 임시주차장 추가확보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며 셔틀버스의 경우 3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는 '셔틀버스 임시정류장' 현수막이 도로변에 게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운행 스케줄과 노선에 대한 안내 그리고 셔틀버스 이용도 제고를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임.

○ 살거리·먹거리 장터의 경우 각 주민자치 단체에서 부분적으로 체험 또는 시식, 판매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으나 축제의 경제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 특산물에 대한 홍보 및 판매 그리고 먹거리 장터에 대한 강화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다. 축제발전성

❑ 잘된 점

○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주민자치박람회'와 '평생학습축제'를 공동으로 개최한 '제 18회 서귀포 축제'는 추진주체간의 협력체계 구축과 행사진행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와 '서귀포시관광협의회'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와 평생학습 관련기관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는 양호한 평가임.

○ 축제의 공동개최로 축제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축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호간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여 축제발전의 기반 강화와 추진주체의 축제육성의지는 양호한 평가임.

○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역 문화예술 동호인과 예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열의와 경연 및 자원봉사 등을 통한 읍·면·동민의 참여열의 제고, 지역 및 지역중심의 민간주도 축제추진은 비교우위의 평가임.

○ 천혜의 자연경관과 '불로장생', '가문잔치' 등의 역사성 그리고 천지연을 비롯한 우수한 연계관광지 등은 대표축제로서의 인지도 제고와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축제의 재정자립 가능성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나 축제재정의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무대 공연프로그램이 대부분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 및 동아리 등에서 참가하는 경연 형태로 진행되어 공동개최와 더불어 축제재정의 경제성이 돋보이는 축제임.

❑ 개선할 점

○ 지역축제의 지속적인 발전은 지역민의 소득증대가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므로 먹거리와 살거리 등의 판매장터에 대한 홍보마케팅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예컨대, 주민자치센터별로 지역의 특색과 특산품에 대한 홍보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나 전시, 홍보, 판매, 체험 등 복합적인 기능의 부스를 운영하다보니 살거리 장터운영에 다소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을 받았음.

○ 따라서 먹거리 장터의 경우 메뉴의 다양성과 특색 그리고 제공되는 음식 대비 가격의 적절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살거리 장터의 경우 지역특산품을 확대하고 품질과 가격의 현시(顯示)성(품질인증 또는 행사특판가 등을 나타냄)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

라. 축제의 성과

❑ 잘된 점

○ 지자체의 자체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관람객수를 21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어서 여름철 관광성수기가 지난 비수기에 비교적 많은 관람객을 유치한 것으로 분석되어 축제로 인한 관광객 유발정도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17개 읍면동 주민 1만여 명이 참여한 '칠십리 거리퍼레이드'는 축제의 서막이자 하이라이트로서 서귀포시민들의 축제참여열의 제고와 지역대표축제로서의 대내외 인지도를 드높이는 계기가 마련되었음.

❑ 개선할 점

○ 자체평가 결과에 의하면 전체 관람객 중 제주도민(65.1%), 도외관광객(34.9%), 다문화가정 등을 포함한 외국인 관람객(6%)으로 나타나 비교우위의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외래관광객 비중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주제와 관련된 대표프로그램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이 마련되어야할 것임.

○ 아울러 매년 실시하는 대내외 축제평가에 대한 결과를 진지하게 검토·반영하는 축제평가환류체계 구축과 축제프로그램 기획팀을 조기에 구성하여 관련 프로그램의 완성도와 대내외 호응도를 높여야할 것임.

(3) 총 평

○ '서귀포칠십리축제'는 '칠십리'와 '불로초'의 스토리와 지역의 문화예술 그리고 자연경관이 함께 어우러진 지역 대표축제로서 지역민과 관련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열의를 바탕으로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은 축제임.

○ 주요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지역과 지역민을 중심으로 구성·운영되어 축제를 통해 옛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우위의 평가임.

○ 축제의 통합운영과 축제기반시설, 그리고 지역중심의 축제추진의 방향성 등으로 추진주체와 지자체의 추진의지 및 협력체계가 양호한 평가임.

○ 다만 비교우위의 대표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대표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여야 할 것이며 각 프로그램간의 연계성과 주제와의 상관성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2012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 보고서

◈ 기획 · 편집 신용언 (관광산업국장)
문시영 (관광진흥과장)
이성선 (서기관)
강순호 (주무관)

◈ 설문조사결과 정리 오순환 (용인대 교수)

◈ 평가위원 신평섭 (한국관광공사 실장)
김성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장)
소대영 (경동대 교수)
조용현 (세종대 교수)
이수범 (경희대 교수)
이 훈 (한양대 교수)
김창수 (경기대 교수)
이인재 (가천대 교수)
지진호 (건양대 교수)
민양기 (충청대 교수)
정강환 (배재대 교수)
박종찬 (광주대 교수)
이덕순 (한영대 교수)
최영기 (전주대 교수)
변우희 (경주대 교수)
서철현 (대구대 교수)
이병윤 (남해대 교수)

발 행 : 2013년 3월
발행처 :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http://www.mcst.go.kr
관광진흥과 (TEL : 3704-9760)